

연구보고 18-R1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장근영

공동연구원 성은모 모상현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연구보고 18-R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진성희(한밭대학교·교수)

최효선(조선대학교·교수)

김균희(인하대학교·연구원)

연구보조원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IEA ICCS 2016”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57-01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8-57-02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 ICCS 2016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8-57-03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분석	한국교육 개발원
18-57-04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Ⅴ :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부록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성은모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김태준 선임연구위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
			홍영란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미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홍민 연구원(HR파트너컨설팅)

국문초록

갈수록 빨라지는 기술발전과 지식 유통기간의 단축과 함께 OECD 등에서는 지식·기술보다 근본적인 능력인 역량(competencies) 중심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본 연구의 개발과 추진에는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 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5차 년도 연구이자 2017년도 4차 년도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실태 조사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초등학생 2,866명, 중학생 2,645명, 고등학생 3,536명(총 9,047명), 그리고 대학생 1,030명으로 총 10,077명의 표본이 수집되었다.

우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측정문항이 정규성(왜도 $\leq \pm 2$, 첨도 $\leq \pm 7$)을 확보하였고, 문항간 상관관계계수도 0.30 이상을 확보하여 양호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도 0.70 이상을 확보하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반복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가 ± 0.05 오차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생활관리역량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있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참여역량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높았으며, 학업 성취와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 청소년들이 지방의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역량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급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로 구분하고, 역량지수의 수준을 평균점수가 아닌 Z점수로 표준화하여 그 수준을 4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의 5개의 역량군에 따른 4개의 학교급별 행동지표 총 20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청소년 역량지수의 유형이 각각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2016년도 국제시민의식 및 시민성 비교연구(ICCS 2016)는 24개 참여국에 소재한 총 3800여개 학교에서, 해당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총 94,000이상의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이들의 시민지식과 민주시민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조사자료, 그리고 이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총 37,000명 이상의 교사들과 그 학교의 교장들로부터 수집된 시민교육 환경 맥락에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ICCS 2009와 2016에 참여한 국가의 약 절반에서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양성평등과 인종평등을 수용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견되었다. 반면에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청소년과 가장 낮은 청소년간의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인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교육의 목표를 지식 전달에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역량의 강화로 전환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교육의 목표와 그 달성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청소년 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토대로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실태를 측정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개발 정책의 구체적인 도구를 준비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연령대별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한국청소년역량지표의 확정
 -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할 근거자료 제시
 - 민주시민역량 혹은 사회참여역량의 국제비교결과를 근거로 향후 한국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목표를 제시

2.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으로 정의

- 청소년 역량의 핵심요인으로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 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 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 지수체계를 제시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했음.
- 최종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 역량지표의 최종본을 확정하고, 발달 단계적 특성과 해당 연령대의 실제 수행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연령별 역량지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또한 본 연구의 다른 주제인 시민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ICCS 2016) 최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참여 역량 실태를 개요하고 분석하였음.

3. 연구방법

1) 청소년 역량지수 관련 체계적 선행문헌 분석

-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재정리
- 청소년 역량의 구체적인 행동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의 행동지표 기본 개념 분석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기 위하여 행동지표 문항개발을 위한 선행문헌 분석
-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정책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문헌들을 분석
- 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조사 연구인 ICCS 2016의 선행연구결과 분석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실시

-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조사 대상 :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대학교 재학생
 - 대상 학생은 10,000명(초중고 : 9,000명, 대 : 1,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
 - 중등학교수 기준 : 총 336개 학교(초등학교 105개교, 중학교 99개교, 고등학교 132개교)
 - 계열 기준(대학교) : 8대 권역으로 분류, 대학유형별, 학년별, 계열별 비례 배분 50개교 표집(일반대학 : 201개교, 전문대 : 138개교)
 - 학급수 기준(초/중/고등학교) :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표집 결과 : 초등학생 2,866명, 중학생 2,645명, 고등학생 3,536명(총 9,047명), 그리고 대학생 1,030명으로 총 10,077명의 표본이 수집되었음
- 조사 일정
 - 조사일정 : 2018년 4월 ~ 7월
 - 자료처리 및 보고 : 2019년 8월 ~ 9월
- 설문조사 도구
 - 측정내용 영역 및 문항수(총 249문항)
 - 순환배분방식으로 설문지 구성하여 1인당 2개 역량군 측정(5가지 유형으로 설문지를 구분하여 구성)

검사지 유형	검사지 공통	Section1	Section2	총문항수
1	배경변인 & 개인심리 특성변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125
2		생애학습역량	사회참여역량	122
3		사회참여역량	대인관계역량	114
4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107
5		진로개발역량	생활관리역량	115

3) ICCS 2016 연구결과 분석

● ICCS 2016 조사 대상

- 2016년 중 24개 참여국에 소재한 총 3800여개 학교에서, 해당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총 94,000이상의 학생 대상 시민지식과 민주시민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조사자료, 해당 학생 교사를 포함한 총 37,000명 이상의 교사 및 해당 학교의 교장설문조사 결과 수집

- 국가맥락, 지역사회와 학교맥락, 교실환경, 청소년개개인 단위로 민주시민 역량의 배경변인과 결과변인을 측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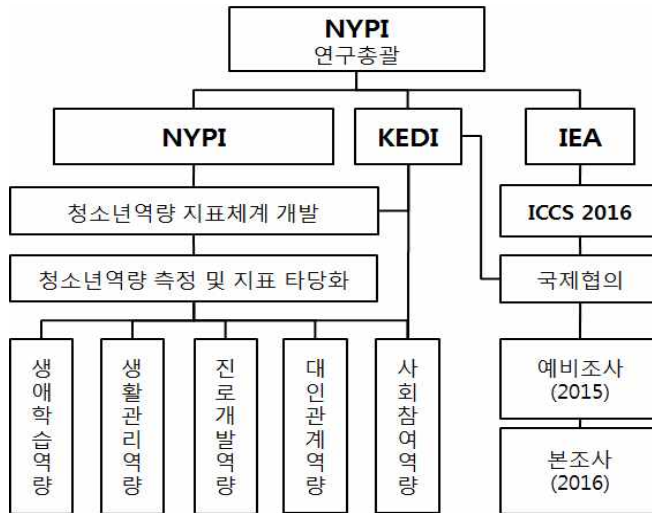
단계	선행 요인	과정 요인	결과
광범위한 공동체	국가맥락조사 및 기타 자원 : 민주주의 역사 교육체제	국가맥락조사 및 기타 자원 : 의도된 교육과정 정치발전	학생용 인지 검사 & 학생용 설문조사/지역 특수 모듈 조사 학생의 태도와 참여
학교/ 교실	학교용 설문 & 교사용 설문 : 학교 특성 자원	학교용 설문 & 교사용 설문 : 실행된 교육과정 정책 및 실행	
학생	학생용 설문 : 성별, 연령	학생용 설문 : 시민교육 실제 참여 경험	
가정과 또래 환경	학생용 설문 : 부모의 SES 인종, 언어, 출생국가	학생용 설문 : 가족 간 의사소통 또래 간 의사소통 미디어 관련 정보	

4) 청소년 역량지표 타당성 확보와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청소년역량지표의 연령별 수행지표와의 표준화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원내 콜로키움 개최, 표준화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 수행
- 청소년역량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제언의 총괄적인 검토와 분석 실시과정에서 청소년활동정책 현장전문가 및 주무부처 정책담당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4. 연구추진체계

- 본 연구는 청소년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로서 교육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협동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 연구수행에 있어 본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 총괄과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작업을 분담.
 - ICCS 2016의 추진에 있어서 2009년도 ICCS 조사를 수행하였던 한국 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참여, KEDI에서는 조사 진행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과 자료 준비, 교사워크숍 등에 자문역할을 수행, 본원은 실제 조사 수행과 자료제출 절차를 수행하였음



5. 연구결과 1 : 2018 청소년 역량지수 현황 및 실태 분석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은 측정도구의 정규성 분석, 문항간 상관계수 분석, 신뢰도 분석 등이 이루어짐
 -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 참여역량의 측정문항이 정규성(왜도 $\leq \pm 2$, 첨도 $\leq \pm 7$)을 확보하였고, 문항간 상관관계계수도 0.30 이상을 확보하여 양호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도 0.70 이상을 확보하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 연구결과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반복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가 ± 0.05 오차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음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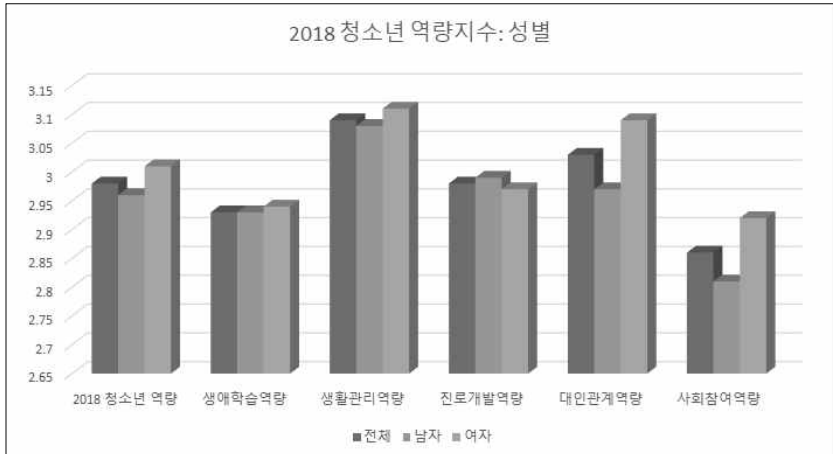
-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평균은 2.98/4.00(SD=.38)로서 75.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8 청소년 역량지수 평균에 있어서, 생활관리역량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8	.38	2.93	.37	3.09	.36	2.98	.40	3.03	.45	2.86	.30
	75.00%		73.25%		77.25%		74.50%		75.75%		7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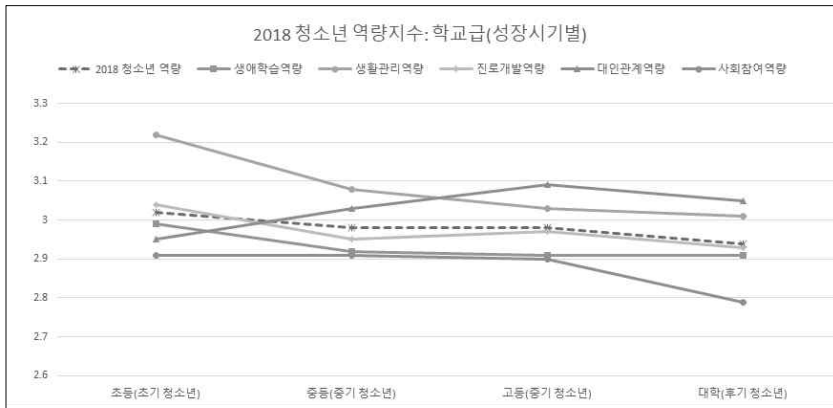


●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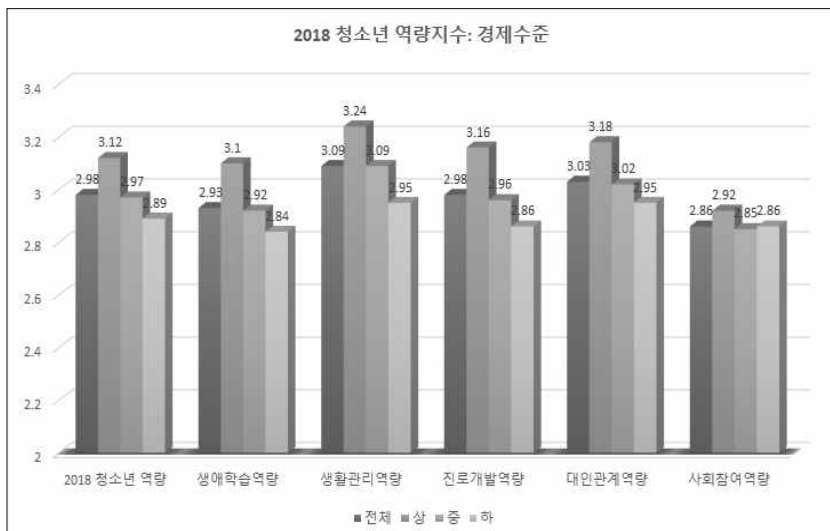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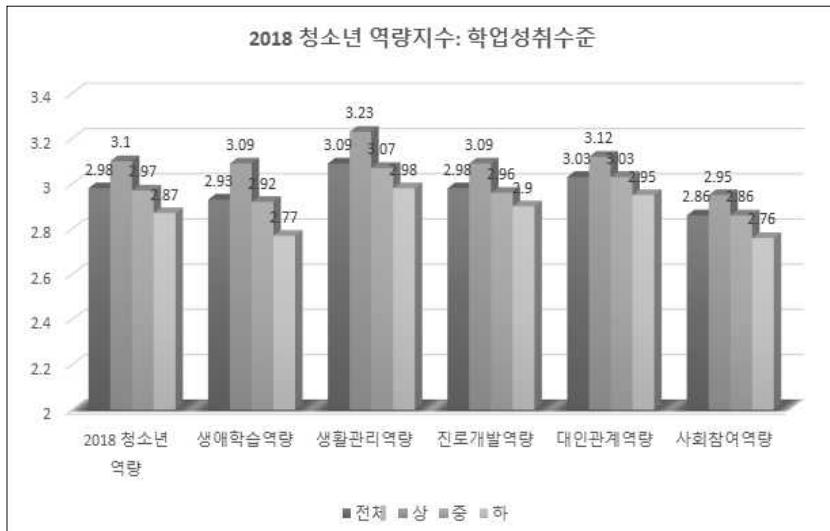
- 성별에 있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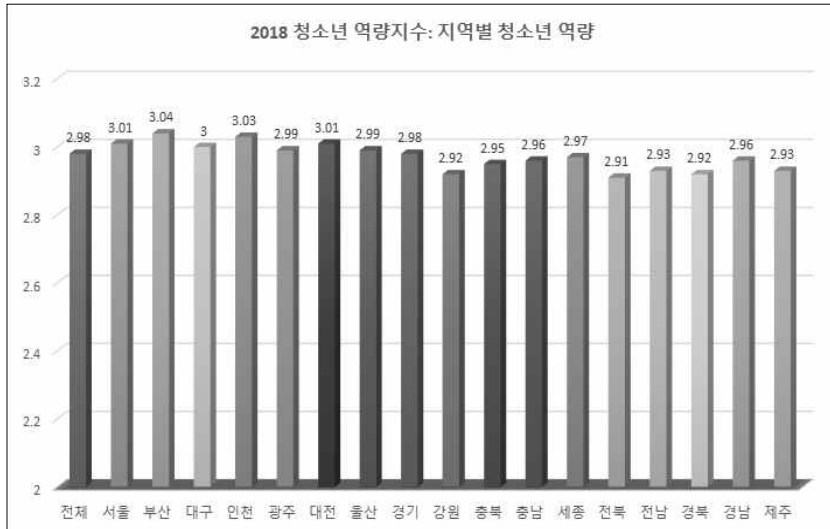
- 학교급별로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높고,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참여역량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높음



- 학업성취와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역량이 높음



-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 청소년들이 지방의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역량 수준이 더 높음



6. 연구결과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급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로 구분하고, 역량지수의 수준을 평균점수가 아닌 Z점수로 표준화하여 그 수준을 4준(1이상=4수준, 0초과~1미만=3수준, -1초과~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¹⁾

-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초등학생
 - 행동지표 특성 분석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사고력	문제사고 수준	1수준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매우 가끔 제시한다.
		2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여러 번 제시한다.
		4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정확한 편이다.
		4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매우 정확한 편이다.
	문제해결 효율성	1수준	
		2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편이다.
		3수준	
		4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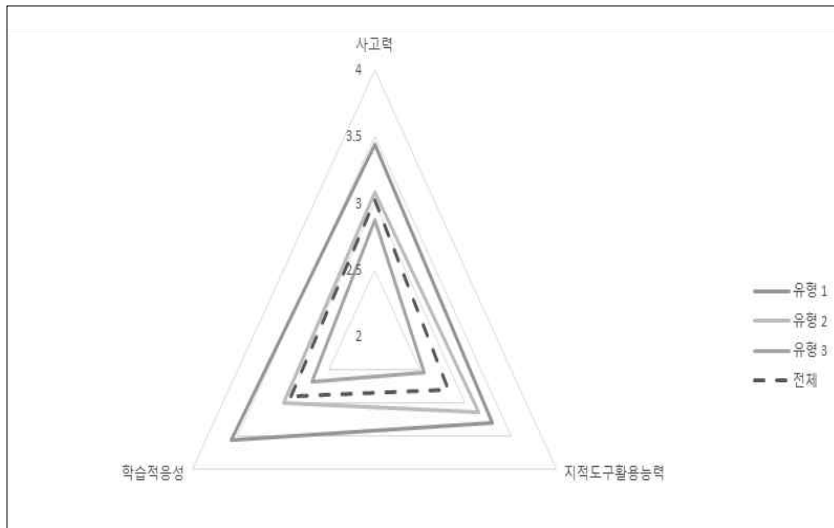
1) 이 장에서는 지면관계상 청소년 역량군별로 하나의 예시만 제시하였으며, 학교급별로 더 자세한 행동지표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지적 도구 활용 능력	언어	학습 시간 (분)	1수준 1시간 미만이다.
			2수준 1시간 정도이다
			3수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1시간 30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2수준 80점 이상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3수준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4수준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있다.
	수학	학습 시간 (분)	1수준 1시간 미만이다.
			2수준 1시간 정도이다.
			3수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1시간 30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75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과학	학습 시간 (분)	1수준 30분 미만이다.
			2수준 30분 정도이다.
			3수준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다.
			4수준 1시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80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정보 통신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시간 (분)	1수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미만 사용한다.
			2수준
			3수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사용한다.
			4수준
		활용 수준	1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지적 도구 활용 능력	정보 통신 활용 능력	활용 수준	3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4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3~5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6~7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4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8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호기심 수준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질문 정도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여러 번 질문하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질문 횟수	1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5~9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10~14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4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15개 이상 질문을 한다.

- 생애학습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 : 유형 1은 사고력과 학습적응성을 바탕으로 지적도구활용능력이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몰입형'으로 특성을 부여
- : 유형 2는 사고력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주도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리-주도형'으로 특성을 부여
- : 유형 3은 사고력에서는 논리적 사고력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학습적응성의 변화수용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성-변화형'으로 특성을 부여



● 생활관리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중학생

- 행동지표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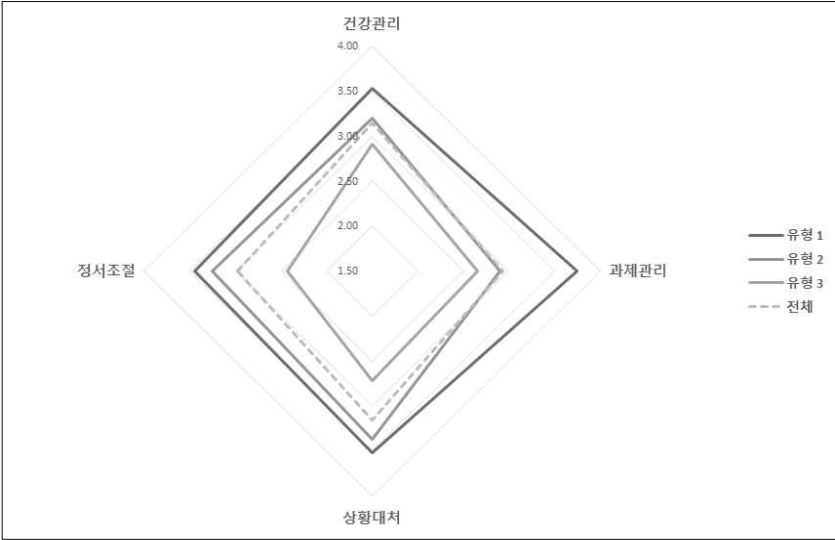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건강 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수준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 중 3-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4수준	일주일 중 4-5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건강 관리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1수준	일주일에 1-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에 4-5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1수준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 평균 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평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 평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이다
	스트레스 관리		1수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부분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3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4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하는 편이다
과제 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관제 진행		1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3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상황 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2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전혀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 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1수준	6개월에 3-4번 정도로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2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3수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상황 대처	폭력 행동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수준	비교적 빈번히 폭력 상황에 놓이지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정서 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 생활관리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 : 유형 1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역량이 모두 높으나 특히 과제관리역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 과제수행형’으로 특성을 부여
- : 유형 2는 네 가지 역량 중 정서조절과 상황대처가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형’으로 특성을 부여
- : 유형 3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역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관리형’으로 특성을 부여



-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고등학생
 - 행동지표 특성 분석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진로 개발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수준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4수준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1수준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4수준	
		진로상담 참여횟수	1수준	진로상담에 평균 1.5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진로상담에 평균 2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4수준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진로 개발	진로 활동 경험	진로상담 참여시간	1수준	진로상담에 평균 1.5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진로상담에 평균 2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4수준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1수준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4수준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1수준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4수준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1수준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 ~ 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4수준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1수준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4수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1수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회에서 7회 정도 만난다
			2수준	
			3수준	
			4수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1수준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1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만난다
			2수준	
			3수준	
			4수준	
진로명확성	1수준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탐색 중이다		
	2수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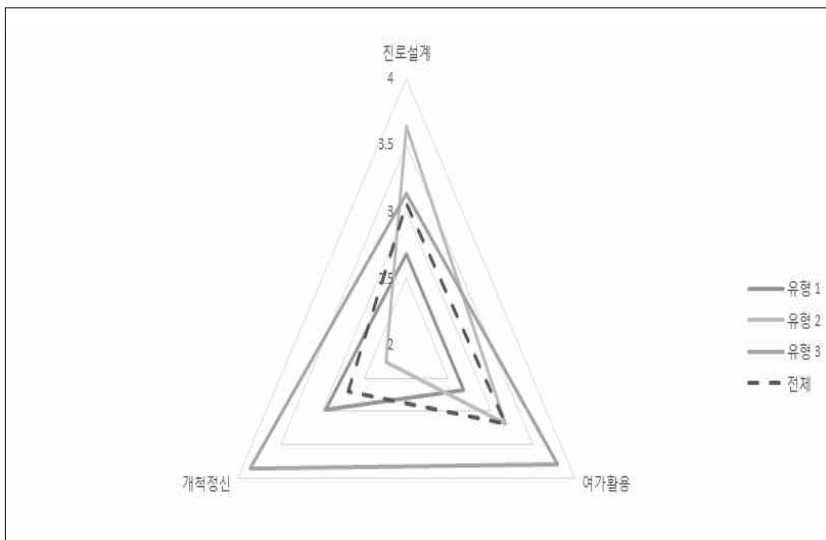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진로 개발	진로명확성	3수준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수준	하고 싶은 직업을 거의 결정하였다	
여가 활용	언어 여가 경험	활동개수	1수준	여가활동에 평균 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수준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4수준	
		활동횟수	1수준	여가활동에 평균 3-4회 정도 참여한다
			2수준	
			3수준	여가활동에 평균 5회 정도 참여한다
			4수준	
	여가 활용	여가활용 동료	1수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수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3수준	
			4수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시나 좋아 하시지는 않는다
			2수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 주시나 도와 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 주신다
			4수준	
개척 정신	차별화행동	1수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수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4수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나만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다	
	도전활동	1수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수준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으로 시도해 본다	
		4수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	

- 진로개발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 유형 1은 진로설계와 여가활용능력은 낮으나 개척정신은 중간수준인 것을 고려하여 현재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실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진로탐색형’으로 특징을 부여

: 유형 2는 진로설계능력은 높은 수준이고 여가활용은 중수준, 개척정신은 하수준인 것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 ‘진로설계형’으로 특징을 부여

: 유형3은 진로설계는 중수준이나 여가활용과 개척정신이 상수준인 것으로 고려하여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진로체험형’으로 특징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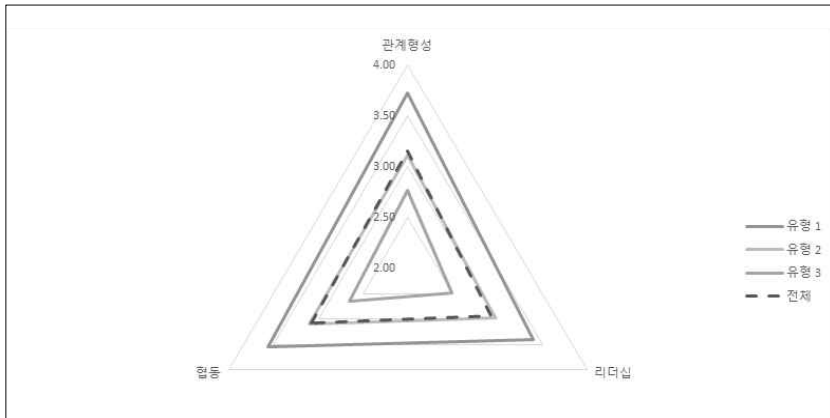


●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대학생

- 행동지표 특성 분석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수준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2회 이하임.
		2수준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3-4회 정도임.
		3수준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3-4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4수준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5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2명 이하로 적음.
		2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3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4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4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음.
		2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음.
		3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이상임.
		4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없음.
		2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3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4수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2명 이상임.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수준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함.
		2수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3수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4수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 대인관계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 : 유형 1은 외향적인 유형(주도적-관계중심적 유형)으로 특성 부여
 - : 유형 2는 원만형(평균형)으로 특성 부여
 - : 유형 3은 내성적 유형(소극적-개인중심적 유형)으로 특성 부여



7. 연구결과3: 2016 ICCS 분석결과

1) 각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참여 국가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했지만 보편적인 시민교육의 학습목표들은 유지하고 있었음. 각국 학교의 교장이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지식과 기술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3개 목표는 청소년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촉진 (64 %),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61 %), 갈등 해결 역량과 기술개발 (44 %)이었음. 각 학교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 목표는 자기 학생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촉진 (61 %),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향상 (57 %), 환경 보호의 촉진 (51 %)이었음.

- ICCS 참가국 중 민주시민교육을 별개의 과정으로 교육하는 국가는 11개국이었음. 이들 국가중 일부를 포함한 18개 국에서는 모든 교과목에 민주시민 교육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음. 15 개국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내용이라기 보다는 학교생활의 일부라고 응답했음.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인문사회과학 관련 교사였음. 모든 참여국에서는 민주시민교과목 혹은 관련교과의 담당교사 대상으로 사전연수 혹은 재직중 연수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ICCS 2016 참여국 학생들은 교내, 특히 교실에서 최소한 가끔씩은 (sometimes) 개방적인 토론분위기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 적 있다고 응답했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에 개방적인 편이었으나, 시민의식이나 참여관련 의견제시에는 소극적이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급 선거 나 학교 선거에 참여했으며, 약40%의 학생들은 교내 토론, 의사 결정 및 학생회에도 참여하고 있었음. 불우이웃돕기활동이나 인권프로젝트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소수였음.

2) 시민지식 Civic Knowledge 측정결과

- ICCS 2016에서 시민 지식은 ICCS 2009에서 개발/사용했던 42개 문항을 포함한 총 87개 문항의 검사 도구를 통해 측정되었음. 대부분의 검사문항은 간단한 배경설명(예 : 이미지 또는 텍스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문항 중에서 객관식은 78문항, 주관식(개방형)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지식 측정결과는 조사국가 전체 평균이 500점에 표준편차는 100점인 척도로 환산되어 제시됨. 시민지식 검사의 내용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이나 규칙에서부터 해당국가 시민사회의 형태를 결정

하는 더 광범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이해까지를 포괄함. 시민지식은 난이도와 복잡도에 따라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D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백한 내용과 사례를 이해할 수 있음
 - C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원칙과 보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
 - B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의 제도, 시스템, 및 개념에서 확장된 특정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력을 보여줌
 - A레벨 수준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함께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견해까지 보여줌.
- 조사결과 전체 참여 국가 청소년 중 약 3% 정도는 D레벨 미만, 약 10%는 D레벨, 21%는 C레벨, 32%는 B레벨, 35%는 A레벨로 나타났음.
 -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수준 편차는 국가간 차이보다는 각 국가 내에서의 차이가 더 컸음. 국가 간 시민지식 평균의 차이가 시민지식 레벨단위로 2.5단계 수준인 반면, 한 국가 내의 하위 5% 청소년과 상위 95%에 해당하는 청소년간의 격차는 레벨단위 3단계 이상이었음.
 - 시민지식 점수의 전체 평균은 2009년 대비 2016년에 더 높아졌음. 비교대상 18개국에서 B레벨 이상의 학생 비율은 61%에서 67%로 증가했음. 점수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가는 11개국이었음.
 - 시민지식 점수는 성별 및 생활배경에 따라 달랐음.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시민지식 점수가 높았음. 총 19개국에서 여학생의 평균 시민 지식 점수가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 모든 국가에서 부모의 직업 및 집에 보유한 책의 수량으로 환산한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높은 그룹의 청소년들은 낮은 SES 그룹의 청소년들보다 시민 지식 점수가 뚜렷이 높았음.

- 이민자 배경과 언어적 배경도 시민지식과 관련 있었음. 14개국에서 이민자 출신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민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검사도구의 언어(해당국가 표준어)인 학생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시민 지식 점수가 높았음.

3) 청소년의 시민 참여

- ICCS에서 청소년의 시민참여는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적인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래나 어른들과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회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의지, 그리고 미래 성인이 되어 기대하는 시민참여를 포함함.
- 조사결과, TV뉴스 보기와 부모와 토론하기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었음. 청소년들의 신문읽기는 2009년 보다 줄어들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부모와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더 늘어났음.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시민참여는 여전히 제한된 수준 이었고, 국가마다 편차가 컸음.
-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경험과 정치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2009년 조사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났음.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관심 역시 그 주제에 대한 토론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민활동에 자신 있게 참여한다는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음. 그러나 시민 참여와 시민지식 사이에는 일관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
- 청소년들의 교내시민참여 수준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교내 시민참여의 의지는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았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더 높았음. 그러나 교내시민참여의 의지와 시민

지식의 수준 간에는 역시 일관적인 관계가 없었음.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수준과 미래 선거 참여에의 기대는 2009년 대비 증가했음.

- 시민지식 점수는 합법적 정치항의에의 참여의사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불법적인 정치항의의사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음. 200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발견되었음. 전통적 시민참여(선거와 투표)는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시민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았음.

4)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 ICCS 2016 조사결과, 국가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좋은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랐음. 대부분의 국가 청소년들이 정치지도자가 자기 가족을 관료로 고용하는 행동이 민주주의에 나쁘다고 판단한 반면, 일부 국가 청소년들이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음. 비슷한 결과가 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났음.
- 청소년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자유선거를 통한 정치지도자 선출, 평화적인 항의의 권리보장, 모든 민족 및 인종의 기회평등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정부를 비판할 권리의 보장, 국민들간 소득 격차의 완화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경향이 나타났음.
-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2016년 학생들은 2009년 조사에서보다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됨. 정치사회적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변화운동참여를 더 중시했음.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다수 국가 청소년들이 법을 지키고, 가족을 부양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음.

-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인종평등과 양성평등을 지지했음. 인종평등과 양성평등지지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09년 대비 증가했음. 여자 청소년, 정치적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양성평등과 인종평등 지지수준은 더 높았음.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세계 미래의 주요위협요인으로 환경오염, 테러, 물과 식량 부족, 전염병, 빈곤을 선택했음. 그러나 이들 요인의 순위는 국가마다 달랐으며, 특히 물 부족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서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졌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9년에 비해 정부, 의회 및 법원에 대한 신뢰수준이 향상되었음. 그러나 언론과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감소했음.
- 경제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공공 기관과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패 수준이 높고 정부의 효율성이 낮은 국가의 청소년들은 신뢰수준이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음.
- 청소년들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은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 모든 국가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소수집단이었음. 종교의 가치를 중시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줄어든 국가는 4개국이었음. 종교의 중요성 평가는 해당종교행사에 자주 참석할수록 높았음. 종교행사 출석빈도는 부모 교육수준과 시민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음.

5) 시민 및 시민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학급 및 학교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음.
- 대다수 국가의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 교실 분위기가 토론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응답했음. 그러나 한국청소년들은 교실개방성에 대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내렸음. 정치사회적 관심, 미래 기대교육수준, 시민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실 분위기가 토론에 개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음.
-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현황 조사결과, 대다수 국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괴롭힘이었으며,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이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었음.
- 학교는 시민활동이나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었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약과 같은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개발하고 시행했음. 교사설문조사 결과, 해당 학년 청소년들은 주로 교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했음.
-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교사의 해당내용 교육준비 과정과 내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음.

8.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 국가수준에서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이 재차 확인되었음

- 2014년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반복 측정한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평균 점수가 ± 0.05 오차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음
-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제시함으로써 역량 측정방법이 Likert방식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개입이 되어 그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음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로서 역량점수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또는 강화시키기 위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정책을 논하고 이를 적용해야하는 실천적 노력이 중요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활용에 있어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과 지원체계를 만들고 실천해야함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으로써 5차 년도 동안 청소년 역량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음
 - 청소년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청소년 역량이 갖는 의미가 6차 청소년 기본계획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음
 - : 생애학습역량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음
 - : 생활관리역량은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음
 - : 진로개발역량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음
 - : 대인관계역량은 청소년의 교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음
 - :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정책과 관련성이 높음

- 향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역량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생애학습역량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 특성으로서 창의·융합 인재양성 정책과 관련성이 높음
 - 생활관리역량에서 행동지표 1수준 그룹은 정서조절역량이 낮게 나타나 분노나 우울 등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들을 위한 감정인식과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정책이 도입이 사회적으로도 절실히 요구됨
 - 진로개발역량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개척정신 즉, 도전정신 및 차별화 행동을 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인관계역량에서 증진을 위해서는 관계형성의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역량 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리더십과 협동역량이 자연스럽게 함양 되도록 하여야 함

2) 정책 제언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 지난 4년 동안 추진되어온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 역량증진과 관련된 정책제안들을 리뷰해보고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청소년역량 정책에 대한 주요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함.
 - 2014년~2015년의 주요 연구내용은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정립과 역량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인프라체계 구축방안에 초점을 맞춤.
 - 2016년~2017년은 역량증진 관련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환경조성방안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리 설정된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연속연구로 진행되어 시대적 요구와 요청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 제한점이 있음에도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의 기초자료의 제공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방안 및 실천과제의 도출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역량이 지니는 그 의미와 역량개발의 가치를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음.
- 청소년 역량증진을 법·과 제도 틀 속에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화 방안과 지원체계를 고찰함.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의 내용과 실천과제
 - 청소년 역량의 개발을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 인력, 역할, 그에 따른 예산 등이 보장되어야 함.
 - 청소년 역량에 대한 사회 환경과 정책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관련 전담 기구’의 설치가 요청됨.
 - 학교와 청소년 현장이 청소년 역량 개발이라는 접점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개발과 효율적인 역할 및 기능 분담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필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사업 방향성 제고요청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방향 선정 시 청소년 역량강화를 그 우선순위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역량중심의 청소년 활동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 역량중심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단체나 기관, 시설 등에 시행되는 청소년사업의 개념을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양적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청소년 중심의 과정 지원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역량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기관)와 협력체계 구축이 요청됨.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면밀히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역량증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개발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청소년 시민의식 변화의 경향과 추이에 근거한 참여역량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기존의 참여 플랫폼 이외에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지닌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형태의 참여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방안을 토대로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 주요 역량증진 정책 및 지원·추진방안에 대한 방향성 및 실천과제 제시
 -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 활동 및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기반 사업 등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찾기를 적극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사업이 제안됨
 - 청소년참여 및 권리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으로 기존의 참여방식을 넘어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삶과 연관된 문제에 청소년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의의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됨.
 - 청소년 역량증진 및 이를 강화시킬 수 있고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정책과 일치하여 진행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 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역량 강화가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한 실제적 방안이 필요함.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청소년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청소년 역량정의에 대한 개념설계 방향성 제고가 필요함.
 -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함.
 - 청소년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영역의 확장이 필요함.
 - 청소년 역량측정도구 체계를 활용한 자가 역량진단 시스템 도입의 필요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연구보고 18-R15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8
3. 연구내용	9
II. 이론적 배경	11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구성체계	13
2.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17
3. 청소년 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분석	29
III. 연구방법	57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ICCS 2016 분석 개요	59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본조사 개요	63
3. ICCS (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연구) 개요	90

IV. 2018 청소년 역량 지수의 현황 및 실태분석	113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116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128
3.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현황 및 실태 종합분석	205
V. 2018 청소년 역량 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219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222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354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460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587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643
VI. ICCS 2016 결과 요약	645
1. ICCS(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연구) 개요	647
2. ICCS 2016 조사결과	649
VII. 논의 및 정책 제언	671
1. 논의 :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연구결과 논의 및 행동지표 특성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673
2. 정책적 제언 :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692
참고문헌	751
ABSTRACT	763

표 목차

표 II -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15
표 II - 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18
표 II - 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별 측정결과	18
표 II -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측정결과 ..	19
표 II - 5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변화 추이	21
표 II - 6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변화 추이	23
표 II - 7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추이	25
표 II - 8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추이	27
표 II - 9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문항	35
표 II -10	사고력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	37
표 II -11	사고력의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38
표 II -12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41
표 II -13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42
표 II -14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중독 행동지표	43
표 II -15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폭력행동 행동지표	45
표 II -16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의 행동지표	51
표 II -17	대인관계역량 협동의 행동지표	53
표 II -18	사회참여역량의 행동지표로서 사회적 저항 수준차이 분석	53
표 II -19	학교급별 사회적 저항의식 중다회귀분석결과	54
표 II -20	사회참여역량 사회적 저항 의식의 행동지표	55
표 III - 1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내용	60
표 III -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개요	61

표 III- 3	ICCS 조사내용	62
표 III- 4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64
표 III- 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표본크기 ..	65
표 III- 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표본크기 ...	66
표 III- 7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 (시도별, 계열별)	67
표 III- 8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대학생 표본학교 수	68
표 III- 9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표본크기	68
표 III-10	생애학습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 자기주도학습역량	70
표 III-11	사고력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수준 행동지표	70
표 III-12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71
표 III-13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건강관리 관련 행동지표 측정도구 ...	73
표 III-14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행동지표	73
표 III-15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과제관리 관련 행동측정문항	74
표 III-16	생활관리역량 과제관리의 행동지표	74
표 III-17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중독 행동지표	75
표 III-18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폭력행동 행동지표	75
표 III-19	대인관계 리더십 관련 행동지표	78
표 III-20	대인관계 협동관련 행동지표	79
표 III-21	사회참여역량 수행 준거지표	79
표 III-22	ICCS의 사회적 역량 관련 변인	81
표 III-23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구성체계 및 문항 수	83
표 III-24	ICCS 2016 인지능력 검사지 구성 개요	86
표 III-25	통합조사 청소년 역량검사지 구성 개요	86
표 III-26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및 일정	87
표 III-27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91
표 III-28	ICCS 조사 연도별 참가국 내역	92
표 III-29	ICCS 2009 대비 2016 시민지식점수 차이(향상도 순) ..	93
표 III-30	ICCS 2016 시민지식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격차 순) ..	94
표 III-31	ICCS 2016 시민지식 수준의 정의와 기준	96

표 III-32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별 분포	97
표 III-33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 신뢰 수준 분포	99
표 III-34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100
표 III-35	2009년 대비 2016년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치의 차이	102
표 III-36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103
표 III-37	ICCS 2016 참여국가별 정치-사회참여 단체 가입 경험	104
표 III-38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106
표 III-39	ICCS 2016 참여국가별 미래 투표참여의사	107
표 III-40	ICCS 2016 부모학력,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과 미래 투표 참여의사	109
표 III-41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평등원칙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110
표 III-42	ICCS 2016 참여국가별 다민족/다인종 평등에 동의하는 청소년비율	112
표 IV- 1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116
표 IV- 2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119
표 IV- 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121
표 IV- 4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123
표 IV- 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125
표 IV- 6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128
표 IV- 7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30
표 IV- 8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30
표 IV- 9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 분석 결과	131
표 IV-10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역량 차이 분석 결과	135
표 IV-11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역량 차이 분석 결과	137
표 IV-12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140

표 IV-13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143
표 IV-14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45
표 IV-1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46
표 IV-16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 분석 결과	147
표 IV-17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 차이 분석 결과	151
표 IV-18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 차이 분석 결과	153
표 IV-19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 차이 분석 결과	156
표 IV-20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 차이 분석 결과	159
표 IV-21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163
표 IV-22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64
표 IV-2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65
표 IV-24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 분석 결과	166
표 IV-25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 분석 결과	169
표 IV-26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 차이 분석 결과	173
표 IV-27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 차이 분석 결과	176
표 IV-28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178
표 IV-29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80
표 IV-30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80
표 IV-31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 분석 결과	181

표 IV-32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관계형성역량차이 분석 결과	183
표 IV-33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역량 차이 분석 결과	185
표 IV-34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협동역량 차이 분석 결과	186
표 IV-3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188
표 IV-36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90
표 IV-37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91
표 IV-38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차이 분석 결과	192
표 IV-39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인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195
표 IV-40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공동체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199
표 IV-41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세계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202
표 IV-4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206
표 IV-43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7
표 IV-44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교급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8
표 IV-45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10
표 IV-46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11
표 IV-47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13
표 V-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222
표 V- 2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224
표 V- 3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초등학생	226

표 V- 4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230
표 V- 5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231
표 V- 6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231
표 V- 7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236
표 V- 8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236
표 V- 9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237
표 V-10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237
표 V-1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238
표 V-12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238
표 V-13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239
표 V-14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239
표 V-15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243
표 V-16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243
표 V-17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244
표 V-18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244
표 V-19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245
표 V-20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249
표 V-2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252
표 V-2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255

표 V-23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257
표 V-24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중학생	259
표 V-25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263
표 V-26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264
표 V-27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264
표 V-28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270
표 V-29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270
표 V-30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271
표 V-31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271
표 V-32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272
표 V-33	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272
표 V-34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능력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273
표 V-35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능력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273
표 V-36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277
표 V-37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277
표 V-38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278
표 V-39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278
표 V-40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279

표 V-4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283
표 V-42	중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286
표 V-4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289
표 V-44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291
표 V-45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고등학생	293
표 V-46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297
표 V-47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297
표 V-48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298
표 V-49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304
표 V-50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304
표 V-51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305
표 V-52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305
표 V-53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306
표 V-54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306
표 V-55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307
표 V-56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307
표 V-57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311
표 V-58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311

표 V-59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312
표 V-60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312
표 V-61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313
표 V-62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317
표 V-63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320
표 V-6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323
표 V-65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324
표 V-66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대학생	326
표 V-67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330
표 V-68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331
표 V-69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331
표 V-70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336
표 V-71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언어 활용 수준	336
표 V-72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수학 활용 수준	337
표 V-73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과학 활용 수준	337
표 V-74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338
표 V-75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	
	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338
표 V-76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342
표 V-77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342

표 V-78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343
표 V-79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343
표 V-80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344
표 V-81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348
표 V-82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351
표 V-8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354
표 V-84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356
표 V-8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초등학생	357
표 V-86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362
표 V-87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362
표 V-88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363
표 V-89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363
표 V-90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365
표 V-91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68
표 V-92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368
표 V-93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369
표 V-94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371
표 V-95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372
표 V-9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374

표 V- 97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378
표 V- 9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381
표 V- 99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383
표 V-100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중학생	384
표 V-101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389
표 V-10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389
표 V-103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390
표 V-104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390
표 V-105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392
표 V-106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95
표 V-107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396
표 V-108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396
표 V-109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398
표 V-110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399
표 V-11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401
표 V-11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404
표 V-11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406
표 V-114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408

표 V-11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고등학생	409
표 V-116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414
표 V-117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414
표 V-118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415
표 V-119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415
표 V-120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417
표 V-121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420
표 V-122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420
표 V-123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421
표 V-124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423
표 V-125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424
표 V-12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426
표 V-127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430
표 V-12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433
표 V-129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435
표 V-130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대학생	436
표 V-131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441
표 V-132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441

표 V-133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442
표 V-134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442
표 V-135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444
표 V-136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447
표 V-137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447
표 V-138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448
표 V-139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450
표 V-140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451
표 V-14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453
표 V-142	대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457
표 V-14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460
표 V-144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462
표 V-145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463
표 V-146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473
표 V-147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473
표 V-148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474
표 V-149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474
표 V-150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475

표 V-151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475
표 V-152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476
표 V-153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476
표 V-154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477
표 V-155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477
표 V-156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정확성	478
표 V-157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478
표 V-158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479
표 V-159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479
표 V-160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480
표 V-161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480
표 V-162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481
표 V-163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482
표 V-16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486
표 V-165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489
표 V-16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492
표 V-167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494
표 V-168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495
표 V-169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505

표 V-170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505
표 V-171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506
표 V-172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506
표 V-173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507
표 V-174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507
표 V-17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508
표 V-176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508
표 V-177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509
표 V-178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509
표 V-179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정확성	510
표 V-180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510
표 V-181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511
표 V-182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511
표 V-183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512
표 V-184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512
표 V-18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513
표 V-186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514
표 V-18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518

표 V-188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521
표 V-18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524
표 V-190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526
표 V-191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528
표 V-192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537
표 V-193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537
표 V-194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538
표 V-195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538
표 V-196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539
표 V-19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539
표 V-198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540
표 V-199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540
표 V-200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541
표 V-201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541
표 V-202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명확성	542
표 V-203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542
표 V-204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543
표 V-205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543

표 V-206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544
표 V-20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544
표 V-208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545
표 V-209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546
표 V-21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550
표 V-211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553
표 V-21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556
표 V-21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558
표 V-214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559
표 V-215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568
표 V-216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568
표 V-217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569
표 V-218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569
표 V-219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570
표 V-220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570
표 V-221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571
표 V-222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571
표 V-223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572
표 V-22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572

표 V-225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명확성	573
표 V-226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573
표 V-227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574
표 V-228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574
표 V-229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575
표 V-230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575
표 V-231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576
표 V-232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577
표 V-23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581
표 V-23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584
표 V-23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588
표 V-236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589
표 V-237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590
표 V-238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593
표 V-239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593
표 V-240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594
표 V-241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594
표 V-242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595
표 V-243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596

표 V-244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597
표 V-24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598
표 V-246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601
표 V-24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602
표 V-248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603
표 V-249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604
표 V-250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607
표 V-251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607
표 V-252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608
표 V-253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608
표 V-254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609
표 V-255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610
표 V-256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611
표 V-25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612
표 V-258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614
표 V-25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616
표 V-260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617
표 V-261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618
표 V-262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621
표 V-263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621

표 V-264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622
표 V-265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622
표 V-266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623
표 V-267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624
표 V-268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625
표 V-26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626
표 V-270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628
표 V-27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630
표 V-272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631
표 V-273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632
표 V-274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635
표 V-275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635
표 V-276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636
표 V-277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636
표 V-278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637
표 V-279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638
표 V-280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	639
표 V-28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640
표 V-282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	642

표 VI- 1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648
표 VI- 2	ICCS 조사 연도별 참가국 내역	648
표 VI- 3	ICCS 2009 대비 2016 시민지식점수 차이(향상도 순) ..	650
표 VI- 4	ICCS 2016 시민지식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격차 순) ..	651
표 VI- 5	ICCS 2016 시민지식 수준의 정의와 기준	652
표 VI- 6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별 분포	653
표 VI- 7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 신뢰 수준 분포	655
표 VI- 8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657
표 VI- 9	2009년 대비 2016년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치의 차이	658
표 VI-10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660
표 VI-11	ICCS 2016 참여국가별 정치-사회참여 단체 가입 경험 ..	661
표 VI-12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663
표 VI-13	ICCS 2016 참여국가별 미래 투표참여의사	664
표 VI-14	ICCS 2016 부모학력,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과 미래 투표 참여의사	666
표 VI-15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평등원칙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667
표 VI-16	ICCS 2016 참여국가별 다민족/다인종 평등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669
표 VII-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종합분석	677
표 VII- 2	2014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697
표 VII- 3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698
표 VII- 4	2016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702
표 VII- 5	2017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704
표 VII- 6	2014-2017 청소년 역량 증진 정책방안	707
표 VII- 7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과 기존의 청소년활동 비교	715
표 VII- 8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722
표 VII- 9	청소년 역량지표, 정의 및 하위역량	723
표 VII-10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청소년역량 지표 비교	725
표 VII-11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	736

그림 목차

그림 II- 1	청소년 역량 개념 이해를 위한 기본관점 모형	14
그림 II- 2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변화 추이	21
그림 II- 3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변화 추이	24
그림 II- 4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추이	26
그림 II- 5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추이	28
그림 IV- 1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129
그림 IV- 2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평균 점수 비교	145
그림 IV- 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164
그림 IV- 4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179
그림 IV- 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평균 점수 비교	190
그림 IV- 6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종합분석	206
그림 IV- 7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7
그림 IV- 8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교급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8
그림 IV- 9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10
그림 IV-10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12
그림 IV-11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13
그림 IV-12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214
그림 IV-13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214

그림 IV-14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215
그림 IV-15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215
그림 IV-16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216
그림 V- 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250
그림 V- 2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251
그림 V- 3	중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284
그림 V- 4	중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285
그림 V- 5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318
그림 V- 6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319
그림 V- 7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349
그림 V- 8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350
그림 V- 9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375
그림 V-10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376
그림 V-11	중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402
그림 V-1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403
그림 V-13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427
그림 V-14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428
그림 V-15	대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454
그림 V-16	대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455
그림 V-17	초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487
그림 V-18	초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488
그림 V-19	중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519
그림 V-20	중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520

그림 V-21	고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551
그림 V-22	고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552
그림 V-23	대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582
그림 V-2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583
그림 V-25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599
그림 V-26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600
그림 V-27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613
그림 V-28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614
그림 V-29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627
그림 V-30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628
그림 V-31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641
그림 V-32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642
그림 Ⅶ-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 (2014-2018) 연구추진계획	693
그림 Ⅶ- 2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구조	695
그림 Ⅶ-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추진 로드맵	705

○———— I .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0년대까지 인류는 정보가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왔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으리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런 정보 결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야 했다. 또한 인류는 선대가 개발한 기술을 전수받고 숙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을 구현할 수 있었다. 모든 기술은 오랜 시간을 거쳐 습득하고 숙련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지식과 기술은 한 사회의 교육제도가 그 사회의 미래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정보가 부족한 환경은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문제가 된다. 기술은 갈수록 불투명하면서 인터페이스가 강화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숙련수준은 오히려 낮아지며, 세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은 자동화된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누군가의 기술이 ‘기계 처럼 정확하다’는 말은 찬사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의미가 되었다. 그 기술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과 함께 더욱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과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새뮤얼 아브스만(S.Arbesman)이 제시한 ‘지식의 반감기’ 공식에

*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따르면 경제학 분야에서 앞으로 9.4년 후에 현재 통용되는 지식 중 절반이상이 무의미해진다. 그 기간이 물리학에서는 약 13.1년, 수학에서는 9.2년, 심리학에서는 7.2년이다. 만약 그의 추정이 맞다면, 현재 교육제도를 통해 전달한 지식의 절반 이상은 학생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졸업해서 사회로 나왔을 시점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유효기간의 감소는 기술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다. 레이 커즈와일(R. Kurzweil)과 같은 미래연구자들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기술의 발전과 확산의 속도는 로그함수에 비례해 증가해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물론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기술, 즉 자국 혹은 타국의 언어를 읽고 쓰고, 숫자를 셈하는 기술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교육제도가 실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실제 산업과 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더욱 뚜렷하다. OECD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특정한분야의 전문기술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무엇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사회가 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력, 나와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intercultural literacy), 윤리적 판단능력, 깊이 체화된 인도주의적 가치관, 환경과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의식, 시민으로서 정치사회적 참여에 필요한 지식 등이 그것이다(OECD, 2015).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OECD, 2005)는 말 그대로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서 시작된 연구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UNESCO에서 추진하는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도 역량 기반 교육을 전제로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에서 본격화 되었으며(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5), 최근, 201핀란드에서는

2020년까지 고등학교(16세 이후) 과정에서부터 모든 개별 교과목을 정리하고 주제 중심의 자율적 학습으로 개편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 사회에서는 교과목을 통해 전수되는 능력보다 훨씬 근본적인 개념의 ‘역량(Competency)’에 달려있다(Rychen & Salganik, 2003)는 전제가 깔려있다. 지식과 기술은 반감기가 있지만, 역량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유효성이 유지된다. 역량을 키우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나타나도 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역량은 단지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생각과 문화를 수용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역량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역량의 구성요소도 결국 지식과 기술, 태도라는 3대 요소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의 지식이나 기술은 시대적 요구와 특정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계속 변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상황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습득함으로써 적응해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학습에 필요한 개방적이고 정의로운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량 교육이 기존의 교육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외, 2013),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다루었고, 학생역량과 인성역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성은모 외, 2015).

이처럼 미래의 개인과 사회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역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역량지표 관련 연구가 전무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 2008;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역량지표 개발 연구를(김창환 외,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관련 핵심역량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김기현 외,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청소년 역량 연구는 단년의 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년간의 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있어 이들의 역량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 및 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연속선상의 있는 다년간의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역량의 하위 영역들이 명확히 규명되었는지, 하위 영역에서 수정·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들이 국내의 특성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 비교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5개년(2014-2018)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 연구의 5차 년도 연구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측정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역량발달에 요구되는 정책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4)’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표를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진행하였고, 청소년 역량개발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였으며, 민주시민 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2016년도 IEA ICCS(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EA ICCS) 본조사에 참여하여 엄정한 국제비교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특히 올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존한 청소년역량척도가 가진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행동측정척도를 포함하여 측정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연령별 측정 결과를 표준화하여 실제 본 척도의 측정결과를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근거와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역량지표를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의 성과 확산과 현장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ICCS 2016은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에 관련된 7년간(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측면을 조사한다. ICCS 조사의 도구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검사와 설문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지식, 태도, 참여 실태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CCS 2009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측면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 항목이 개발되었다. 향후 실시될 ICCS 조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해서, 이전의 조사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조사도구를 새로운 조사도구에

함께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인지적 또는 정의적-행동적 측면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ICCS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민주 시민 사회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해온 한국교육개발원을 파트너로 하여 협동연구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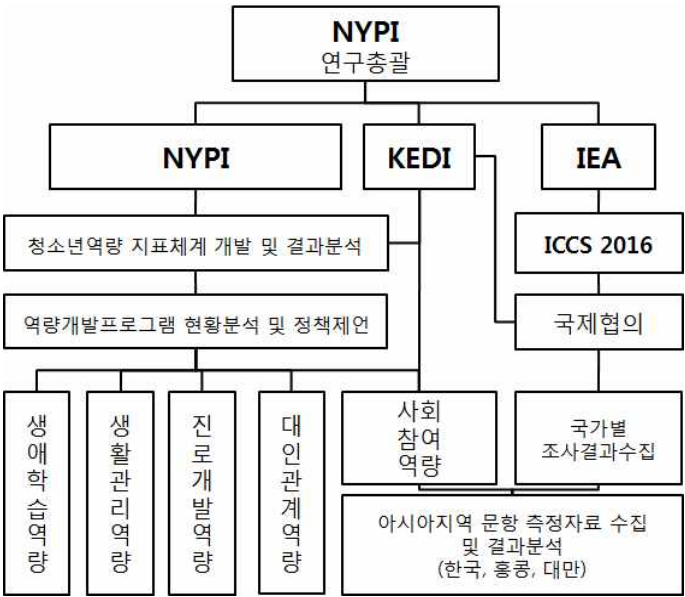


그림 1-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요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5개년 계획의 5차 년도에 해당하며 연도별 연구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2단계 (2015~ 2016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와 국제비교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CCS 2016) 조사 실시

3단계 (2017~ 2018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조사결과 분석(ICC 2016)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역량지표의 타당화와 개념구조 확정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정책의 효과 분석 및 실천적 전략 제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CC 2016) 조사결과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및 사례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CC 2016) 조사 결과 심층 분석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구성체계
- 2.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 3. 청소년 역량지수 관련 행동 지표 변인 분석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구성체계²⁾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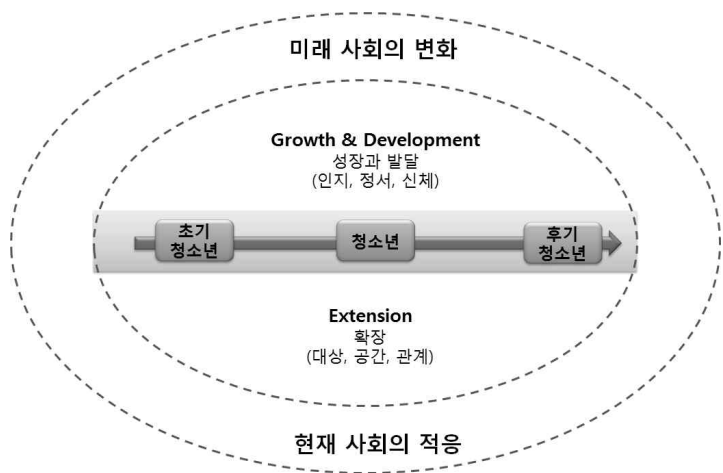
청소년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시기를 포함하여 청소년 시기를 지나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 성인기에 성공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특성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이에 성은모 외(2013, pp.51-53; 2014; 2015, pp.125-126)는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하면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적 특성을 포괄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전체적인 생애발달과정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관점을 [그림 II-1]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성은모 외(2013, p.53; 2015, p.121)는 청소년 역량의 기본관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청소년 역량을 정의하였다.

* 이 장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2)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구성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1] 참조.

청소년 역량이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p.53; 성은모 외, 2015, p.126)



* 출처 : 성은모 외 (2015). p.126.

그림 II-1 청소년 역량 개념 이해를 위한 기본관점 모형

2)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의 특징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성은모 외, 201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CCS 2016(성은모 외, 2014)’,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성은모 외, 2015)’ 등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생애학습역량군, 생활관리역량군, 진로개발역량군, 대인관계역량군,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군으로 분류된다. 생애학습역량군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등의 역량으로 구성되며, 생활관리역량군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 대처, 정서조절 등의 역량으로, 진로개발역량군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등의 역량으로, 대인관계역량군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의 역량으로, 사회 참여역량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의 역량으로 분류되어 총 16개의 역량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수학 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로준비
		진입가치관
	여가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경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갈등문제 해결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공동체 시민성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세계 시민성	교실 개방성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관계이해

* 출처 : 성은모 외(2013). pp.56-61.과 성은모 외(2014). pp.198-199.과 성은모 외(2015). p.135의 내용을 제시함.

2.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³⁾

이 절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차에 걸쳐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지수 종합 분석결과와 청소년 역량지수 변화 추이 분석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종합 분석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다양한 특성변인에 따른 역량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2017 조사에는 초·중·고등학생 9,046명, 대학생 1,041명의 총 10,087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는 5대 역량군 중 사회참여역량을 제외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을 중심으로 13개 하위역량, 42개 세부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장근영 외, 201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 2.99(SD=.43)로 나타났다. 역량군별로 구분하여 역량지수 측정결과 평균값을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2.86(SD=.42), 생활관리역량 3.08(SD=.39), 진로개발역량 3.01(SD=.45), 대인관계역량 3.01(SD=.4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생활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개발역량과 대인관계역량, 생애학습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에 있어 보다 자세한 선행문헌 분석결과는 [부록4]에 제시하였다.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종합 분석’은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p.74-78.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표 II-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구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결과	2.99	(0.43)	2.86	(0.42)	3.08	(0.39)	3.01	(0.45)	3.01	(0.47)
	75%		72%		77%		75%		75%	

* 출처 :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74. <표 IV-5>.

둘째, 성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평균값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 3.00(SD=.42), 남자 청소년 2.99(SD=.45)로 나타났다.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M_{남자}=2.88$, $M_{여자}=2.84$)과 진로개발역량($M_{남자}=3.03$, $M_{여자}=3.00$)은 남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생활관리역량($M_{남자}=3.07$, $M_{여자}=3.09$)과 대인관계역량($M_{남자}=2.97$, $M_{여자}=3.05$)은 여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별 측정결과

구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9	(0.43)	2.86	(0.42)	3.08	(0.39)	3.01	(0.45)	3.01	(0.47)
남자	2.99	(0.45)	2.88	(0.44)	3.07	(0.39)	3.03	(0.47)	2.97	(0.49)
여자	3.00	(0.42)	2.84	(0.40)	3.09	(0.39)	3.00	(0.43)	3.05	(0.45)

* 출처 :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75. <표 IV-6>.

셋째,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평균값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초기 청소년) 3.04(SD=.49), 중학생(중기 청소년) 2.98(SD=.43), 고등학생(후기 청소년) 2.97(SD=.40), 대학생(후기 청소년) 2.97(SD=.38)로 나타났다.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M_{초등}=2.93$, $M_{중등}=2.85$, $M_{고등}=2.83$,

$M_{\text{대학}}=2.84$), 생활관리역량($M_{\text{초등}}=3.21$, $M_{\text{중등}}=3.05$, $M_{\text{고등}}=3.02$, $M_{\text{대학}}=3.01$), 진로개발역량($M_{\text{초등}}=3.07$, $M_{\text{중등}}=2.99$, $M_{\text{고등}}=3.00$, $M_{\text{대학}}=2.98$)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역량 점수가 낮아지는 반면, 대인관계역량($M_{\text{초등}}=2.95$, $M_{\text{중등}}=3.03$, $M_{\text{고등}}=3.03$, $M_{\text{대학}}=3.04$)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역량 점수가 높아졌다.

표 II-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측정결과

구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9	(0.43)	2.86	(0.42)	3.08	(0.39)	3.01	(0.45)	3.01	(0.47)
초등 (초기 청소년)	3.04	(0.49)	2.93	(0.48)	3.21	(0.41)	3.07	(0.50)	2.95	(0.55)
중등 (중기 청소년)	2.98	(0.43)	2.85	(0.42)	3.05	(0.38)	2.99	(0.44)	3.03	(0.48)
고등 (중기 청소년)	2.97	(0.40)	2.83	(0.40)	3.02	(0.35)	3.00	(0.42)	3.03	(0.43)
대학 (후기 청소년)	2.97	(0.38)	2.84	(0.34)	3.01	(0.40)	2.98	(0.42)	3.04	(0.36)

* 출처: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76. <표 IV-7>.

2) 청소년 역량지수 변화 추이 분석⁵⁾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의 성장시기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장시기(학교급)를

5) ‘청소년 역량지수 변화 추이 분석’은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p.137-164.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생이었으며, 2015년 이후 대학생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측정도구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5개 역량군을 중심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2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140문항의 단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연도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초·중고등학생의 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중심으로 역량군별(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변화 추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는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감소하였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5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감소하였다.

생애학습역량군의 하위역량인 사고력역량, 지적도구활용역량, 학습적응성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력역량은 2014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2015년에 증가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6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학생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적도구활용역량은 2014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후 2015년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적도구활용역량 전체의 변화 패턴과 유사하게 2014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2015년에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적응성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애학습역량	전체	2.87	(0.37)	2.92	(0.37)	2.96	(0.37)	2.86	(0.42)
	초	2.99	(0.42)	2.99	(0.41)	2.96	(0.41)	2.93	(0.48)
	중	2.86	(0.38)	2.91	(0.37)	2.87	(0.35)	2.85	(0.42)
	고	2.83	(0.32)	2.87	(0.34)	2.86	(0.33)	2.83	(0.40)
사고력	전체	2.92	(0.37)	2.98	(0.39)	2.99	(0.38)	2.99	(0.44)
	초	2.99	(0.43)	2.99	(0.44)	3.03	(0.42)	3.02	(0.50)
	중	2.91	(0.38)	2.98	(0.38)	2.97	(0.37)	3.00	(0.44)
	고	2.90	(0.33)	2.98	(0.36)	2.99	(0.34)	2.97	(0.40)
지적도구활용	전체	2.74	(0.47)	2.84	(0.45)	2.78	(0.48)	2.78	(0.53)
	초	2.92	(0.49)	2.98	(0.47)	2.87	(0.50)	2.86	(0.58)
	중	2.73	(0.47)	2.83	(0.45)	2.76	(0.48)	2.76	(0.52)
	고	2.68	(0.43)	2.76	(0.43)	2.74	(0.46)	2.74	(0.51)
학습적응성	전체	2.95	(0.45)	2.93	(0.46)	2.91	(0.45)	2.90	(0.51)
	초	3.05	(0.49)	2.99	(0.50)	2.98	(0.50)	2.97	(0.56)
	중	2.94	(0.47)	2.94	(0.46)	2.88	(0.44)	2.88	(0.50)
	고	2.92	(0.42)	2.88	(0.42)	2.85	(0.43)	2.87	(0.48)

* 출처 :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138. <표 IV-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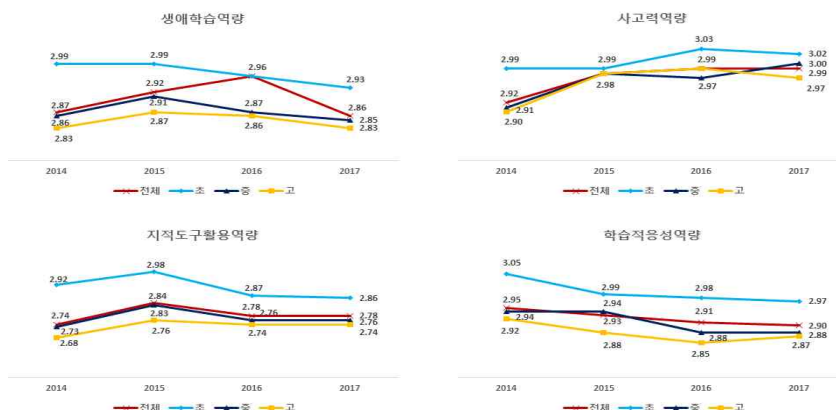


그림 II-2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변화 추이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변화 추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2016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2016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2016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생활관리역량군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역량, 과제관리역량, 상황대처역량, 정서조절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관리역량은 2015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5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5년 증가, 2016년 감소, 2017년 증가하여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제관리역량은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역량지수는 과제관리역량 전체의 변화 패턴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은 201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황대처역량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역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관리역량	전체	2.99	(0.80)	3.06	(0.37)	3.09	(0.37)	3.09	(0.38)
	초	3.10	(0.81)	3.17	(0.39)	3.20	(0.39)	3.21	(0.41)
	중	2.99	(0.87)	3.04	(0.37)	3.05	(0.36)	3.05	(0.38)
	고	2.89	(0.72)	2.97	(0.35)	3.01	(0.35)	3.02	(0.35)
건강관리	전체	3.21	(0.82)	3.25	(0.46)	3.20	(0.45)	3.20	(0.49)
	초	3.33	(0.81)	3.34	(0.48)	3.32	(0.47)	3.30	(0.53)
	중	3.22	(0.91)	3.25	(0.46)	3.17	(0.45)	3.18	(0.48)
	고	3.07	(0.73)	3.17	(0.45)	3.10	(0.44)	3.13	(0.46)
과제관리	전체	3.11	(0.90)	3.01	(0.54)	2.98	(0.57)	2.96	(0.63)
	초	3.21	(0.93)	3.09	(0.59)	2.99	(0.64)	2.92	(0.74)
	중	3.11	(0.95)	3.01	(0.55)	2.97	(0.56)	2.97	(0.60)
	고	3.00	(0.82)	2.94	(0.49)	2.99	(0.51)	3.00	(0.55)
상황대처	전체	2.83	(0.97)	3.10	(0.59)	3.17	(0.56)	3.15	(0.56)
	초	2.96	(0.96)	3.28	(0.59)	3.36	(0.57)	3.38	(0.56)
	중	2.82	(1.06)	3.06	(0.61)	3.11	(0.57)	3.07	(0.57)
	고	2.72	(0.90)	2.96	(0.58)	3.05	(0.55)	3.01	(0.54)
정서조절	전체	2.82	(0.95)	2.83	(0.44)	2.93	(0.49)	3.01	(0.52)
	초	2.90	(0.99)	2.87	(0.45)	3.01	(0.50)	3.10	(0.53)
	중	2.80	(1.01)	2.82	(0.44)	2.90	(0.48)	2.97	(0.53)
	고	2.75	(0.84)	2.80	(0.44)	2.88	(0.48)	2.95	(0.50)

* 출처 :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144. <표 IV-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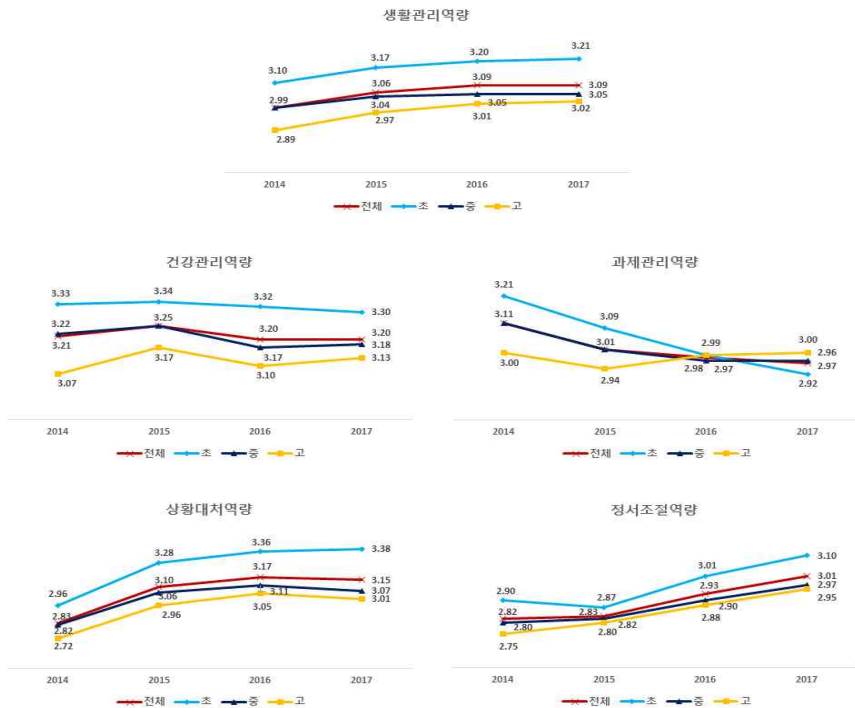


그림 11-3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변화 추이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추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는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역량지수는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진로개발역량군의 하위역량인 진로설계역량, 여가활용역량, 개척정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설계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16년에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활용역량은 2016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다가 2017년에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6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다가 2017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척정신역량은 2015년에 대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5년에 대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개발역량	전체	2.96	(0.56)	2.93	(0.38)	2.92	(0.40)	3.01	(0.45)
	초	3.05	(0.49)	3.01	(0.42)	2.95	(0.44)	3.07	(0.50)
	중	2.99	(0.67)	2.93	(0.39)	2.91	(0.40)	2.99	(0.44)
	고	2.89	(0.47)	2.90	(0.36)	2.91	(0.38)	3.00	(0.42)
진로설계	전체	3.07	(0.60)	3.06	(0.52)	3.05	(0.49)	3.03	(0.54)
	초	3.19	(0.53)	3.14	(0.56)	3.09	(0.55)	3.05	(0.60)
	중	3.07	(0.71)	3.05	(0.53)	3.01	(0.49)	2.98	(0.54)
	고	3.03	(0.52)	3.02	(0.49)	3.06	(0.45)	3.04	(0.50)
여가활용	전체	3.07	(0.72)	3.11	(0.50)	3.05	(0.50)	3.16	(0.51)
	초	3.24	(0.67)	3.19	(0.53)	3.10	(0.54)	3.19	(0.55)
	중	3.10	(0.81)	3.13	(0.50)	3.03	(0.50)	3.18	(0.50)
	고	2.97	(0.64)	3.08	(0.48)	3.03	(0.47)	3.15	(0.49)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척정신	전체	2.74	(0.70)	2.61	(0.41)	2.66	(0.51)	2.74	(0.56)
	초	2.72	(0.70)	2.68	(0.42)	2.65	(0.51)	2.87	(0.54)
	중	2.81	(0.82)	2.60	(0.41)	2.68	(0.52)	2.70	(0.55)
	고	2.68	(0.57)	2.59	(0.41)	2.65	(0.51)	2.68	(0.55)

* 출처 :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151. <표 IV-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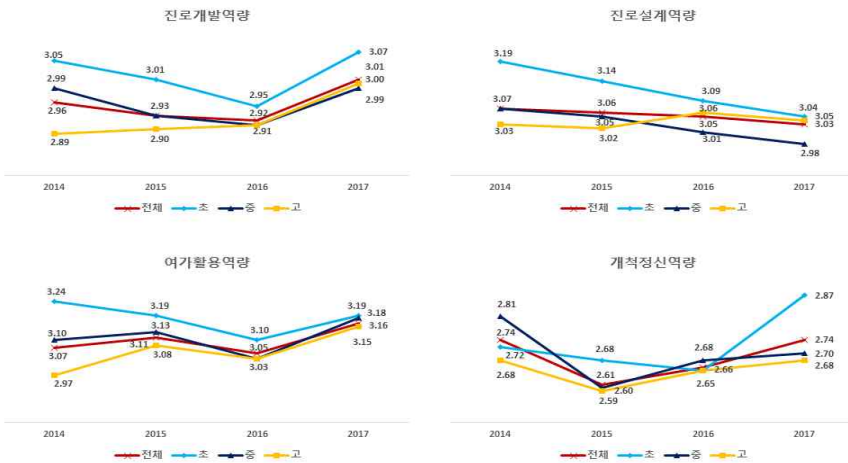


그림 II-4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추이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추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는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학생은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역량지수는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군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역량, 리더십역량, 협동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형성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은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리더십역량은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협동역량은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은 2016년까지, 고등학생은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인관계역량	전체	3.07	(0.70)	3.04	(0.48)	3.00	(0.46)	3.01	(0.48)
	초	3.17	(0.74)	3.07	(0.54)	2.99	(0.52)	2.95	(0.55)
	중	3.11	(0.81)	3.05	(0.47)	3.00	(0.45)	3.03	(0.48)
	고	3.01	(0.57)	3.00	(0.43)	3.02	(0.40)	3.03	(0.43)
관계형성	전체	3.11	(0.70)	3.10	(0.51)	3.09	(0.48)	3.09	(0.51)
	초	3.20	(0.77)	3.10	(0.58)	3.06	(0.53)	3.01	(0.57)
	중	3.14	(0.81)	3.12	(0.50)	3.09	(0.47)	3.11	(0.50)
	고	3.04	(0.55)	3.08	(0.46)	3.11	(0.44)	3.12	(0.46)
리더십	전체	2.99	(0.82)	2.93	(0.57)	2.87	(0.54)	2.87	(0.56)
	초	3.10	(0.84)	2.98	(0.64)	2.89	(0.60)	2.85	(0.62)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리더십	중	3.03	(0.92)	2.93	(0.57)	2.85	(0.54)	2.89	(0.56)
	고	2.91	(0.72)	2.89	(0.51)	2.87	(0.48)	2.89	(0.51)
협동	전체	3.12	(0.82)	3.07	(0.53)	3.02	(0.52)	3.03	(0.54)
	초	3.23	(0.87)	3.13	(0.59)	3.00	(0.58)	2.96	(0.60)
	중	3.15	(0.90)	3.07	(0.53)	3.03	(0.51)	3.07	(0.52)
	고	3.06	(0.71)	3.03	(0.48)	3.04	(0.47)	3.07	(0.48)

* 출처 : 장근영 외(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158. <표 IV-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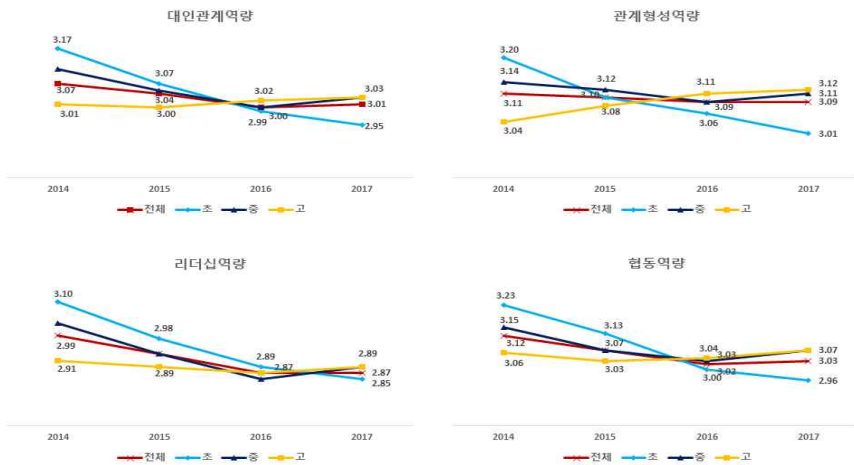


그림 II-5 2014~2017년 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추이

3. 청소년 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분석

1) 청소년 역량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을 위한 기본방향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 진행되어오고 있다.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 청소년 역량군과 16개 역량, 그리고 53개의 세부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과 실태를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 역량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통계적 검증을 거쳐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가 청소년의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결과변인으로써의 준거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청소년의 행동수행준거(장근영 외, 2016)를 예측하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와 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의심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못하는 데에는 역량이 라는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생애발달의 과정적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의 변화에 따른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해석오류이다. 청소년 역량은 9세에서 24세의 생애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성은모 외, 2014). 청소년의 생애발달적 특성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는 성장하고 발달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 즉,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청소년 역량지표의 영역이나 유형은 일정한 요소들의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으로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역량, 그리고 이에 따른 53개의 하위역량 요소들을 제안한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하지만, 각 청소년 역량의 개념적 정의를 생애발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청소년 역량의 개념에 따른 특성은 청소년의 생애발달적 시기에 따라 그 역량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 역량의 요소나 개념은 생애발달적 시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역량의 특성은 생애발달적 시기에 따른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역량에 있어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초등학교시기의 역량 수준과 중고등학교 시기의 역량 수준, 그리고 대학교 시기의 역량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의 대인관계역량은 여러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역량이 높다면, 대학교 시기의 대인관계 역량은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소수의 의미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는 역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로만 본다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은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인관계역량의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있어 청소년이 변화하여 성장과 발달하는 생애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정값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역량지수의 생애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값을 보정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정값을 어떻게 보정하여 비교분석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오해에 기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생애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개발 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에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에 대한 장근영 외(2016)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에 따른 수행행동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역량은 관련 수행행동지표를 충분히 예측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주요 이유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평정척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할 수 없어 측정점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청소년 역량에 대한 특성을 개념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역량을 개념화하여 이 개념적 특성에 대한 정도를 리커트형 평정척도(Likert-type rating scale)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리커트형 평정척도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면이 있으나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 가능성이 높아 역량의 특성에 따른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재열, 2017). 이러한 리커트 평정방식의 제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김명소, 이광진, 2008; 박동열, 황영아, 2009; 백순근, 2000; 황정규 외, 2016; Cocanougher & Ivancevich, 1978; Javidmehr & Ebrahimpour, 2015; 이재열, 2017, pp.44-45에서 재인용).

첫째, 평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평정기준의 오류(standard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가자가 각자의 평정의 기준을 달리 됨으로써 동일한 수행이나 특성에 대해서 다른 평정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정기준의 오류는 평가 결과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므로, 평가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평정기준과 무관하게 너그럽게 평가하는 관대함의 오류(leniency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가자가 수준을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후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평정기준과 무관하게 엄격하게 평가하는 인색함의 오류(severity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관대함의 오류와 반대되는 것으로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혹독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평정기준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중간 점수(보통)에 주로 평정하는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central tendency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가자가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변별력 없이 수행을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는 리커트형 평정척도를 활용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행동기술 평정척도는 각 단계를 기술하는 행동지표들이 제시되어 보통이라는 모호한 의미가 희석되므로 중앙 집중 경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정기준이 아닌 배경 정보에 영향을 받아 평가하는 후광 효과의 오류(halo effect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평가자가 수행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행과 관련된 평정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수행에 영향을 받아 평가하는 파급 오류(spill-over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관찰한 평가대상자의 현재 수행을 평정기준에 의해 평가하기보다는, 과거의 수행이나 점수, 또는 이전에 관찰한 수행 등에 영향을 받아 평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평가가 그러하듯이 평가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인 판단이 최소화되어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리커트 평정방식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역량의 특성에 따른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앞서 언급한 6가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과 해석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생애발달적 시기에 따른 특성, 즉 생애발달시기별 행동수행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실제 역량평가는 역량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동지표(behavioral indicator)’를 바탕으로 그 행동지표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준거지표(criterial

indicator)’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역량은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수행 가능한 특성의 수준에 따른 준거나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방식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지표와 수준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청소년 역량 관련 행동지표 특성

(1) 생애학습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특성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성은모 외, 2015)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학습(learning)’을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중간적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기 위해 엄청난 학습을 수행한다. 이때의 학습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야기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로(성은모, 임정훈, 2012) 이해될 수 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학습이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삶의 양식을 관리하며 재생산하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한승희, 2010).

청소년기의 학습은 성인기로 이행을 위한 준비, 즉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과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량중의 하나가 바로 ‘학습역량(learning competency)’이다(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생애학습이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시기에 갖추어야 할 학습 역량이 바로 '생애학습역량'이라 할 수 있다. 생애학습역량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온 능력 중의 하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다. 자기주도학습은 성인교육학에서 다루어온 오래된 주제이기는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이 성인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달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밝혀져 왔고 (Piaget, 1963;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욱, 2003. p.28에서 재인용) 이 능력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쇠퇴하거나 소멸된다고 보고 있다(김안나 외, 2003). 또한 최근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Bellanca & Brandt, 2010)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 중의 하나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이다(성은모, 채유정, 이성혜, 2017; Leem & Sung, 2018).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1960년대 이후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학습의 현상과 본질을 탐구하면서 시작되었다. Knowles(1975)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욕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 학습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선택한 후 실질적인 학습을 실행하며, 그 결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Zimmerman과 Schunk(1989)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최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역량으로 간주하여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수행능력을 보다 강조한 정의를 성은모와 최효선(2016)이 제안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학습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적

특성으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학습과정 및 단계별 학습기술과 학습전략이 상호작용적으로 작동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습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전략적 학습기술, 학습에 대한 가치 신념, 학습몰입, 탐구적 학습전략 등의 네 가지 요인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주요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문항을 제시하면 <표 II-9>와 같다.

표 II-9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문항

문항	
(1)	현재의 공부는 단순히 좋은 학점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2)	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절대적인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한 만큼 가진다고 생각한다
(3)	학점을 위해 공부한다고 보다는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공부하는 과정이 즐겁다
(4)	대학에서의 좋은 학점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5)	대학에서는 좋은 학점보다 인생에 있어 가치로운 것이 더 많다
(6)	즐겁게 공부하면 학점은 자동적으로 따라 온다고 생각한다
(7)	대학에서의 학점은 내 삶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8)	수강과목신청 전에 철저한 강의정보를 수집한다
(9)	수강과목신청에 있어 어렵더라도 진정 배우고 싶어 했던 과목위주로 수강신청을 한다
(10)	수업에 반드시 '100% 출석'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11)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12)	수업시간에 항상 앞쪽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13)	수업시간 노트정리 시 요약정리보다는 수업의 모든 내용(강의 내용, 질의응답 내용, 교수자의 농담 등)을 기록한다
(14)	간단한 예습을 통해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문제의식)을 갖고 수업에 임한다
(15)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즉각적인 질문을 통한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16)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참고자료를 우선적으로 찾아본다

문항	
(17)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안을 찾는다
(18)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무조건 교수에게 묻기보다는 충분한 고민, 참고문헌 탐색, 친구들과 의견 공유 등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에 물어본다
(19)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친구들과 의도적으로 토론하고 협력적으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20)	그날 배운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 그날 복습한다
(21)	한 주간 배운 내용이나 노트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1~2주안에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한다
(22)	주중에 하루정도는 나만의 여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23)	시험시간에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평소에 공부한다
(24)	나는 노는 시간까지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25)	짜투리 시간(등하교 시간, 공강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26)	리포트(과제)는 주어지는 날부터, 혹은 마감 한참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한다
(27)	리포트(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 2~3회 이상의 수정과정을 거친다
(28)	나는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내용이 재미있다
(29)	나는 전공지식 이외에 내가 배우고자하는 학습주제나 또는 문제를 찾아내어 실천한다
(30)	나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31)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 진행해야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32)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33)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지루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몇 시간씩 앉아서 한다

* 출처 : 성은모, 최효선(2016). pp.437-438. <표 1>의 내용을 재인용함.

한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행동지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준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행동지표(behavioral indicator)와 수행준거(criterial indicator)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생애학습역량의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를 개발하였다. 사고력의 경우에는 문제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의 과정에 대한 수행준거로서 행동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고 과정의 준거는 일차적으로 문제상황에서 원인분석-대안설정-해결안제시 등의 절차를 논리적 근거(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장근영 외, 2016)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수준을 4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였으며, 이에 대한 행동지표는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사고력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수준	수행 준거지표
level 1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level 2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level 3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level 4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기존 방식과 다른 차원의 해결안을 적용해 보고 최고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이차적으로는 문제해결에 걸린 소요시간과 해결안의 정확도를 4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해결에 걸린 소요시간의 사고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의미하고 문제해결의 정확도는 사고력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준거지표가 될 수 있다. 문제해결에 걸린 소요시간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a) 매우 짧다, b) 짧은 편이다, c) 긴 편이다, d) 매우 길다’ 등의 4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소요시간에 따라 문제해결의 정확도는 ‘1) 매우 정확하지 않다 (0-59%), 2)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60-74%), 3) 정확한 편이다(75-89%), 4) 매우 정확하다(90-100%)’ 등의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경우에는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등의 하위역량에 따라 수행준거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언어, 수학, 과학에 따른 학습시간을 주중(평일)과 주말(휴일)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작성하도록 개발하였다. 이때 언어, 수학, 과학 역량의 경우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80점 이상-90점 미만, 90점 이상-100점 이하’ 등과 같이 5 수준으로 학습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활용능력도 정보통신기기 활용 학습시간과 학습의 시간을 구분하고 주중(평일)과 주말(휴일)로 구분하여 하루 평균 학습 및 사용 시간을 작성하도록 개발하였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학습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지표로는 정보통신기기의 하드웨어 활용 기능 수준과 정보검색, 정보분석 그리고 정보생성 능력 수준 준거를 4 수준으로 <표 II-11>과 같이 개발하였다.

표 II-11 사고력의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level 2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level 3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할 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level 4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적응성의 경우에는 변화수용력의 행동지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의 변화에 대한 경험 횟수 묻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지적 호기심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호기심 유발 정도에 따라 4 수준으로

‘1) 궁금한 게 전혀 생기지 않는다, 2) 궁금한 게 가끔 생긴다, 3) 궁금한 게 여러 번 생긴다, 4) 궁금한 게 매일 매일 생긴다’와 같이 개발하였다. 학습 주도성에 있어서는 호기심에 따른 질문의 발현 정도로써 ‘1)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다, 2)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때만 가끔 하는 편이다, 3) 질문이 생기면 자주하는 편이다, 4) 질문이 생길 때 마다 항상 즉시 질문한다.’와 같이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횟수를 묻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행동지표 개발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응답한 행동 경험 지표 횟수와 응답의 분포에 따라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역량지수 측정 결과와 행동지표에 대한 측정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청소년 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국가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지표를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생활관리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분석

생활관리역량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성은모 외, 2014, p.258)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부터 IV까지의 4년 간 검토한 결과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된다. 이들 하위역량에 대해 각각 리커트 4점 척도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자기 보고식 방식은 연구참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행동을 확인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활관리역량 역시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와 행동지표 변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자기보고식 조사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활관리역량과 관련된 행동지표로 선정할 수 있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건강관리역량은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성은모 외, 2014, p.201)’으로 정의하였으며, 건강관리역량에는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인 ‘신체관리능력’,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인 ‘위생관리’가 포함되어 있다(성은모 외, 2014). 건강관리 역량은 청소년 시기에 습관이 형성되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건강관리 습관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도에 실시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장근영 외, 2016)’에서 건강관리역량의 행동지표 변인으로 일주일 간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 빈도, 수면시간을 조사하였다. 즉, 일주일간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 빈도, 수면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을 자주 하며, 수면시간이 길수록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이 높아 일주일 간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 빈도, 수면시간은 생활관리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건강관리역량의 행동지표로 일주일 간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 빈도, 수면시간을 측정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청소년의 행동으로 아침식사와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수준인 일주일 간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아침을 가끔 먹는다(1~2일)’, 2수준의 경우는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한다(3~4일)’, 3수준은 ‘아침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한다(5~6일)’, 4수준은 ‘아침을 매일 먹는다’로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운동의 경우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2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한다’를 1수준으로, ‘일주일에

3~4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한다'를 2수준으로, '일주일에 5~6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한다'를 3수준으로, '매일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한다'를 4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항으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O표 하여 주십시오'로 하고, 이에 대해 '하지 않음'부터 '매일'까지 표기하게 하였다.

수면시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관인 미국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에서는 수면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수면 지침에 의하면, 10대(14~17세)의 경우 7시간~11시간이 적당 수면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8~10시간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5시간 미만의 경우는 1수준으로, 5~6시간의 경우 2수준, 6~7시간 3수준, 7시간 이상을 4수준으로 상정하였다.

표 II-12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변인	수준	행동지표
아침식사	level 1	일주일에 1~2일 정도 아침식사를 한다.
	level 2	일주일에 3~4일 정도 아침식사를 한다.
	level 3	일주일에 5~6일 정도 아침식사를 한다.
	level 4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운동	level 1	일주일에 1~2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level 2	일주일에 3~4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level 3	일주일에 5~6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level 4	매일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수면 시간	level 1	평균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
	level 2	평균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
	level 3	평균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
	level 4	평균 7시간 이상 잠을 잔다.

과제관리역량은 ‘삶을 위해 행하여야 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 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성은모 외, 2014, p.201)’이다. 과제관리역량의 하위 항목은 ‘목표 및 계획 수립’ 즉,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수행 및 평가’로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2013년도부터 4년 동안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과제관리역량은 ‘목표 및 계획 수립’과 ‘수행 및 평가’로 구조화하였다. 즉, 과제에 대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며, 이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과제관리역량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 과제에 대하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을 수행 준거 지표로 상정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과제관리 수행은 항상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하지 못하는 행동을 낮은 수준으로 보았다.

표 II-13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수준	수행 준거지표
level 1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하지 못한다.
level 2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level 3	항상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한다.

상황대처역량은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성은모 외, 2014, p.202)’이다. 상황대처역량은 중독과 폭력행동에 관한 것으로,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인 중독인식과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인 중독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인 폭력행동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인 폭력회피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중독인식과 중독행동에 대해서는 장근영 외(2016)가 상정한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을 행동지표로 보았다.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행동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을 일상생활장애로 보고 중독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2011)도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나 집착, 생활 장애, 강박을 중독의 개념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신호경, 이민석, 김홍국(2011)도 스마트폰 사용 충동에 대한 조절 여부, 고립감 및 외로움을 느낄 때 스마트폰 사용 여부 등을 중독의 개념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도 중독의 행동지표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과 집착, 생활장애로 보았으며, 이를 네 수준의 수행 준거 지표로 구분하였다. 구분한 행동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14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중독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일상적이다
level 2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있는 편이다
level 3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없는 편이다
level 4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전혀 없다

오종은(2013)이나 이주성(2005)은 청소년의 폭력행동(violent behavior)을 비행행동(delinquent behavior)과 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로 구분하였다. 비행행동은 가출이나 음주, 흡연 등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과 범죄행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반면,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해를 입히려는 행동으로 폭력행동과 유사한 개념이다(Ttofi, Farrington, & Losel, 2012; 김현실, 2008). 공격행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동기와 원인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준호, 황지태, 2002; Poulin & Boivin, 2000). 이흥과 김은정(2012)은 공격행동을 원인에 따라 반응적 공격행동(reactive aggressive behavior)과 주도적 공격행동(proactive aggressive behavior)으로 구분하였는데, 반응적 공격행동은 위협 상황에 대한 방어적이고, 충동적인 공격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주도적 공격행동은 타인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기 하거나 지배하려는 공격행동이다(Gilbert & Daffern, 2010).

이 연구에서도 폭력행동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 원인에 따라 반응적 행동과 주도적 행동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위협적인 상황이나 분노상태에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행하는 폭력행동’을 반응적 폭력행동으로, ‘기분과 상관없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빼앗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폭력행동’을 주도적 폭력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 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과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한 적이 있는지를 행동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위협행동이나 폭력은 적극적인 폭력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폭력행동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협이 없을 때의 폭력행동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폭력행동의 빈도에 따라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위협이 없을 때 빈번한 빈도의 폭력행동이 1수준부터 4수준까지, 위협이 있을 때 빈번한 빈도의 폭력행동이 5수준부터 8수준까지 구분될 수 있다.

표 II-15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폭력행동 행동지표

변인	수준	행동지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level 1	대여섯번 이상 있다
	level 2	서너번 있다
	level 3	한두번 있다
	level 4	한번도 없다
위협상황에서의 폭력행동	level 5	대여섯번 이상 있다
	level 6	서너번 있다
	level 7	한두번 있다
	level 8	한번도 없다

정서조절역량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성은모, 외, 2014, p.202)’이며,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로 구성된다. 감정인식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분노행동은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감정절제는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조절실패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조절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의 분노행동을 조절하며, 기분에 따른 언어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와 관련된 검사 문항을 검토하여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1997)가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번역 및 수정한 한국어판(Korean Adaptation of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의 문항으로 행동지표를 설정하였다. 해당하는 행동은 화난

감정을 표현하거나, 토라지는 등의 행동이며, 문을 쾅 닫아버리거나 말다툼하는 등의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는 발생빈도에 따라 1수준은 ‘가끔 그렇다’, 2수준은 ‘자주 그렇다’, 3수준은 ‘항상 그렇다’로 구분하였다.

(3) 진로개발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분석

청소년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역량들이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변인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개발분야에서 최근 자기조절과 연결 지어 진로자기조절능력이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진로자기조절은 개인들이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에서 시작되었다(Jonston, Luciano, Maggiori, Ruch & Rossier, 2013; Tolentino, Garcia, Restubog, Bordia & Tang, 2013).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사용이 직업결정, 직업흥미, 진로 주도성과 같이 진로성공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Turner et al., 2006). 이에 김민정, 김봉환(2014)은 진로자기조절 척도를 개발하고 진로자기조절이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인의사결정,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개발역량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탐색변인으로서 진로자기조절을 활용하였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은 진로탐색을 넘어 진로결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Super(1990)가 제안한 진로 발달과업에 따르면 인간은 평생동안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장기에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좋아하는지를 탐색하는 단계로써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경험을 하는 단계이다. 탐색기는 결정화, 구체화, 실행의 3단계로 구성된다. 결정화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로써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구체화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특정 교육을 받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실행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발달과정에 따라 실제 청소년들이 얼마나 다양한 진로탐색경험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진로결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진로개발역량관련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직업 및 전공선택과 관련된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의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 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점수가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결정에 대해 수행된 국내의 100 여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연구에서 진로결정은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여가활용이란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하위역량으로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이 있다. 여가활용역량이 실제 여가경험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여가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과 함께 여가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료와 부모의 지지에 대해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상에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여가제약은 개인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개인의 마음의 상태나 외부 환경 등을 의미한다. 송영민(2004)의 연구에서 제안한 여가제약요인 중 친구의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중 부모의 요인이 실제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약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척정신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 하위역량

으로는 차별화와 도전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별화와 도전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안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박동열, 최동선, 이용순(2008)의 연구에서 역량을 진단하는 가장 용이한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BARS 행동척도 개발 방법을 따라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BARS 방식은 역량의 행동과 관계된 명확한 측정의 앵커를 사용하여 진술문을 구성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행행동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수행행동까지를 수준별로 진술문으로 만들어 측정하는 것이다(박기문, 이규녀,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차별화와 도전정신관련 행동지표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4) 대인관계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분석

대인관계관계역량은 “타인과 관계형성하는 개인 내적인 특성에서 비롯하여 타인과 협동하고 집단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영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능력(성은모 외, 2014)”을 의미한다. 2013년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V까지의 연구(2013년-2016년)는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대인관계관계역량을 개발하고 측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변인을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왔다. 앞서 밝힌대로 리커트 척도는 응답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효율적 척도이지만,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이에 역량을 평가하고 측정하려는 연구들에서 최근 행동지향적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 예컨대 행동기술척도(BARS), 혼합표준척도(MSS), 행동관찰척도(BOS) 등 통해 평가결과의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김명소, 김호동, 2000).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량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평가결과와 대인관계역량 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대인관계역량을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 등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행동지표로 선정할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관계형성역량은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4)”으로 정의된다. 주위 사람과 친밀하고 지지적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Diener, Lucas, & Oishi, 2002), 관계형성 역량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성역량의 행동지표 변인으로 친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 친한 친구와의 놀이 횟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 변인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결과를 의미하는 변인이기도 한다. 우선, 친한 친구 수는 친밀한 집단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대인관계역량과 정적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성은모 외, 2016). 그러나 친밀한 친구 집단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관계형성의 질은 낮아질 위험이 있다(Hurlock, 1955; 정지원, 강정한, 2012). 예컨대, Hurlock(1955)은 청소년기 친구 집단을 ① 가장 친한 2-3명의 단짝 친구, ② 여러 단짝 친구로 이루어진 소규모 친구 집단, ③ 여러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진 동료집단(crowd), ④ 갯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갯집단을 배타적 집단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끼리 구성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정지원과 강정한(2012)의 연구에서도 3-10명의 중범위 수준의 친밀집단이 서로 간의 지지와 보호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친밀집단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서로 간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으며, 무슨 일이든 의논할 수 있는 친구(Sullivan, 1953)” 즉 단짝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친한 친구와의 놀이 횟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를 의미한다.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친한 친구와의 놀이 횟수 모두 대인관계역량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성은모 외, 2016).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친한 친구의 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어떠한지(놀이 횟수)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친한 친구와 상호작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실제 청소년들의 관계형성 역량과의 관련이 있는지 재차 밝히고자 한다.

리더십역량은 “집단 혹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단 구성원들간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도모하며,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3)”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리더십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적기로, 청소년기에 리더십을 발달시키는 것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위험행동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den & Fertman, 1998).

리더십역량은 타고나는 특질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 기술로 간주된다(김정대, 2001; 이정순, 2006). 따라서 청소년기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리더십 향상을 위해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예컨대, Boyd(1991)은 청소년 활동은 모든 프로그램이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선경(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리더십역량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리더십 기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Bars 방식으로 리더십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가 있다. 박동열 외(2008)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직업기초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능력, 도구활용능력, 수리능력, 국제문화이해능력, (학교)조직, 체계이해능력, 리더십, 팀워크능력, 갈등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책임감 및 자신감 등 12개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박동열 외(2008)는 “리더십을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셀프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역할 모델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규준점수가 부여된 행동진술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역량을 1점부터 7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행동진술문의 예는 다음과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잡한 단계의 과제에 대해서 가르친다(3.4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4.8점)’,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에 책임감을 갖는다(6.4점)’,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를 격려한다(6.6점)’ 등이다. 그러나 박동열 외(2008)의 척도로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는 정도에 대한 평가 척도이며, 조직 내에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리더십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 단체, 기타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후,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16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의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소속만 되어 있을 뿐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
level 2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중요한 역할 맡고 있지는 않다.
level 3	리더는 아니지만,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 맡고 있다.
level 4	모임의 리더로서,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협동역량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3)”으로 정의된다. 즉, 청소년들의 협동역량은 리더십역량과 유사하게 개인이 조직 내에서 발휘되는 역량이다.

박동열 외(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팀워크 능력 행동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친구, 선후배와의 자리에 귀찮다는 이유로 가지 않는다(1.8점),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거의 항상 혼자 행동한다(2.8점), 조별 과제 시 조원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4.8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행과정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5.0점), 타인과 일할 때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한다(6.2점) 등이다. 박동열 외(2008)가 제시한 팀워크 능력 행동수준을 살펴보면, 팀워크능력이 낮은 수준에서는 조직에서의 회피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팀워크 능력이 높은 수준에서는 조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역량과 관련된 행동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하기 위해, 기업의 협동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협동 척도(scale of cooperation)를 살펴보았다.⁶⁾ 이 모델에서는 조직 내의 협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 분쟁이다. 이 단계는 갈등을 일으키고, 비판만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회피단계로, 핵심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갈등을 방관만 하거나, 대안을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고 행동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자료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동역량의 행동수준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첫째,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는 단계, 둘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단계, 셋째,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단계, 넷째,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6) www.scaleofcooperation.com 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표 II-17 대인관계역량 협동의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는 편이다.
level 2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다.
level 3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
level 4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

(5) 사회참여역량지수 관련 변인 분석

사회참여역량 지표들은 실제 행동 보다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가치평가나 태도, 혹은 미래 사회참여 행동의사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지표 선정에 제약이 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 저항의식을 행동지표 변인으로 제안했다. 단, 사회적 저항의식은 사회참여 역량 전체를 반영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행동 지표의 산출은 향후 사회참여 역량의 행동지표 선정의 선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사회적 저항의식이 성별, 학업성취도 수준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저항성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의 경우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고 학업성취도 및 경제 수준은 응답자가 각각 9점, 7점 척도에 응답한 것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F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II-18 사회참여역량의 행동지표로서 사회적 저항 수준차이 분석

변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학생	-0.064	0.803	-4.038***
	여학생	0.053	0.683	

변인		평균	표준편차	t or F
학업성취도 수준	상	0.096	0.776	38.379***
	중	0.025	0.712	
	하	-0.056	0.725	
경제 수준	상	0.118	0.837	18.300***
	중	0.015	0.718	
	하	-0.735	0.804	

*p<.05, **p<.01, ***p<.001

분석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저항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고 학업성취도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항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학교급에 따라 성별, 학업성취도 수준 및 경제수준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저항의식이 높은 정도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었는데 다음의 <표 II-1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저항의식 수준 차이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상집단과 중집단 사이를 중심으로 사라졌다. 경제수준에 따른 저항의식 수준 차이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였다.

표 II-19 학교급별 사회적 저항의식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측변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B	β	B	β	B	β
성별	-.007	-.004	-.054	-.037*	-.131	-.098***
학업성취도 수준	-.069	-.059***	-.094	-.106***	-.065	-.073***
경제 수준	-.101	-.056**	-.054	-.032	-.056	-.037*
F	10.033***		17.586***		19.307***	
R2	.008		.015		.018	

*p<.05, **p<.01, ***p<.001

사회참여역량의 사회적 저항 의식 행동지표 1수준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बै지나 스티커를 착용하거나 진정서에 서명한다’, 2수준은 ‘상품불매운동 혹은 비폭력 항의집회에 참석한다’, 3수준은 ‘항의 포스터 제작에 참여하거나 배포과정에 참여한다’, 4수준은 ‘진정서 서명운동, 상품불매 운동을 조직하거나 추진과정에 참여한다’로 구분하였다.

표 II-20 사회참여역량 사회적 저항 의식의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बै지나 스티커를 착용하거나 진정서에 서명한다
level 2	상품불매운동 혹은 비폭력 항의집회에 참석한다
level 3	항의 포스터 제작에 참여하거나 배포과정에 참여한다
level 4	진정서 서명운동, 상품불매 운동을 조직하거나 추진과정에 참여한다

○ ——— III. 연구방법

-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ICCS 2016 분석 개요
-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본조사 개요
- 3. ICCS (국제청소년시민역량
비교연구) 개요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ICCS 2016 분석 개요*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립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5개년(2014~2018)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8년도는 마지막 연구로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를 종합하는 단계이자 최종적으로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ICCS 2016 국제비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2025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ICCS 2016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방법 및 결과분석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체계적 선행문헌 분석

첫째,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재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청소년 역량의 구체적인 행동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의 행동지표 기본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기 위하여 행동지표 문항개발을 위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다. 역량의 행동을 측정하기

* 이 절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위한 지표는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방법으로, 구체적인 수행준거에 근거하여 수행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임언, 정윤경, 2000). 따라서 역량의 수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행동지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정책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문헌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조사 연구인 ICCS 2016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III-1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내용

분석내용
1.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재정리를 통한 행동지표 개발의 이론적 근거 마련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행동지표 측정 문항 개발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2)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청소년 각계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수렴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 및 적용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와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를 통해 도출된 객관적 자료의 분석 방안, 청소년 역량지표의 연령별 수행지표와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원내 콜로키움 개최, 표준화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 및 특정문항의 청소년 교육 현장 적용 방안,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을 보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청소년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청소년 역량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3)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개요

(1) 국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개요

2018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는 2018년 4월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9,000명, 대학생은 1,000명 등 총 10,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변형 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 중학교 1, 2, 3학년 재학생,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표집틀	2017년도 교육통계연보
표집 사례수	초·중·고등학생 9,047명(초등: 2866명, 중등: 2,645명, 고등: 3,536명), 대학생 1,030명 등 총 10,077명
표집방법	변형비례배분
조사시기	5월~7월 실시
조사내용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2) ICCS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개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 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ICC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기술하였다.

ICCS 조사는 크게 3수준의 대상자(학생, 교사, 학교장)와 학생 대상으로는 검사(Test) 및 설문(Survey), 교사 및 학교장 대상으로는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사내용을 개요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3 ICCS 조사내용

대상자	조사내용	세부내용
학생 (중학교 2학년, 13.5세)	능력검사 (Test) 45분내 실시 채점기준 있음	○ 민주시민역량의 인지적 지식과 판단기술 측정 - 자유·평등·공동체·법의 원칙, 민주적 의사결정·영향력 행사·공동체 참여의 원칙 등 - 정부기관과 시민참여기관의 운영원칙과 상호관계 이해, 국가 정체성 등
	설문 (Survey) 채점기준 없음 40분 내외	○ 민주시민 역량의 정의적/태도적 요인 - 출생년월, 성별, 기대교육수준, 보호자 배경(국적, 사용언어, 직업, 학력), 가정내 책보유 권수, ICT 기기보유 현황, 인터넷 이용가능 여부 등 - 학교 환경 (교실내 토론개방성, 시민교육 내용, 교내 구성원 간의 평등/존중 수준), 학교폭력 경험(왕따 경험 및 구체적 내용) 등 - 가정 내 시민참여 경험 (부모와 시사 주제 토의, 친구들과 토론, 시사뉴스 정보 수집, SNS에 정치적 의사표현 등), 교내 외 시민참여 경험 (교내외 비교과활동참여, 교실내 정치적 토론 참여, 교내 의사결정 참여,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참여의지, 참여경험, 효능감 등), 종교에 대한 태도 및 종교활동 참여 현황 등 - 사회체계와 구성요소(미디어 포함)에 대한 신뢰수준, 시민 사회의 원칙에 대한 태도 (권리와 책임 양성평등, 타인에 대한 신뢰, 인종·문화적 평등, 국가정체성 등), 환경의식 (지속가능발전, 환경보호의식 등), 미래 시민참여 의사(투표, 시위 등)
교사	설문 (Survey)	○ 학교 환경 - 학교 분위기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 신뢰수준, 규율준수 등), 교내 ICT 시설 수준(컴퓨터, 전자칠판, 인터넷, E-book 장비 등), 학교주변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극장, 콘서트홀, 외국어학원, 미술관, 놀이터, 공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음악 학원 등) 현황, 지역사회의 갈등 및 문제들 (이민자, 주거, 빈곤, 실업, 종교갈등, 윤리적 갈등, 청소년조직범죄, 경범죄, 약물, 음주, 성착취 등), 지역사회 환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학생 가정의 경제적수준 (중산층 이상, 중산층 미만), 학생수 (총원, 학년인원) 등

대상자	조사내용	세부내용
교사	설문 (Survey)	○ 교사 업무관련 현황 - 교사들의 학교업무 현황 (교과지도, 교과외활동업무, 상담 지도업무, 학생간 갈등해결 등), 교사들의 교내 의사결정 참여 수준, 시민교육 형식 (타교과목에 포함된 형태인가 개별과목 형태인가, 어떤 교사가 담당하나, 필수과목인가 선택과목인가 등), 교과운영의 자율성 수준 (교재선택, 학생평가, 교과운영계획, 타기관연계, 과외활동 등), 교사가 인지하는 시민교육의 목적
		○ 학생생활 현황 - 학생들의 교내 의사결정 참여수준, 학교폭력(왕따) 경험 여부 및 대처 방법,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참여 (봉사활동 유형별) 등
		○ 교사의 개인적 배경 - 연령, 성별, 교사로서 재직기간, 담당과목, 수업담당 시간, 시민교육 담당여부
학교장	설문 (Survey)	○ 교사조사와 중복 문항 (교사응답과의 비교목적) - 성별, 연령, 교사업무내용 등은 제외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본조사 개요*

1) 연구대상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의 주요목적은 청소년 역량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 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는 2017년 4월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대학교 1학기에 등록한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방식으로 초·중·고등학생 9,000명, 대학생 1,000명 등 총 10,000명 이상을 목표표본으로 하여 통계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절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1)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7)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 참여를 위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모집단 수는 초등학생 1,316,061명(30.3%), 중학생 1,370,382명(31.6%), 고등학생 1,657,021명(38.1%) 등 총 4,343,464명이었다. 모집단 수를 바탕으로 학급별로 변형비례배분으로 추출한 결과, 초등학생 2,592명(28.6%), 중학생 2,772명(30.6%), 고등학생 3,687명(40.7%)으로 <표 III-4>와 같이 추출되었다.

표 III-4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표본집단크기 (변형비례배분)	
초등학교		4	471,824	1,316,061 (30.3%)		2,592 (28.6%)	
		5	429,475				
		6	414,762				
중학교		1	448,884	1,370,382 (31.6%)		2,772 (30.6%)	
		2	465,461				
		3	456,037				
고등 학교	유형 1 (일반고)	1	362,564	1,177,233 (27.1%)	1,657,021 (38.1%)	2,430 (26.8%)	3,687 (40.7%)
		2	412,236				
		3	402,433				
	유형 2 (자율고)	1	42,568	132,772 (3.1%)		450 (5.0%)	
		2	45,352				
		3	44,852				
	유형 3 (특성화고)	1	103,354	318,430 (7.3%)		675 (7.5%)	
		2	107,776				
		3	107,300				
	유형 4 (특수목적고)	1	9,756	28,586 (0.7%)		132 (1.5%)	
		2	9,641				
		3	9,189				
합계				4,343,464(100.0%)		9,051(100.0%)	

* 출처 : 이 표는 2018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7) 초·중·고등학생 표본집단의 크기를 추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지역, 학교급, 그리고 학년별로 학교수와 학생수의 분포 및 추출방법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하여 모집단의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17개 시·도 표본학생수와 학급수를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단을 기초로 하여 지역구분(17개 광역 시도), 학교구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학년구분(초등학교 4, 5, 6학년, 중고등학교 1, 2, 3 학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표본 학교수를 추출한 결과는 <표 III-5>에 제시하였으며, 표본 학생수의 추출결과는 <표 III-6>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III-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표본크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9(3)	6(2)
경기	27(9)	24(8)	21(7)	3(1)	3(1)	
인천	6(2)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24(8)	6(2)

* 출처 : 이 표는 2018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 주: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36(108)개

표 Ⅲ-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표본크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60	90	225	132
경기	648	672	630	90	75	
인천	144	168	90			
강원	72	84	90	90	75	
충북	72	84	90			
충남	144	84	90			
대전	72	84	90			
세종	72	84	90			
경북	144	168	90	90	225	
경남	216	168	180			
부산	144	168	90			
대구	144	168	90			
울산	72	84	90			
전북	72	84	90	90	75	
전남	72	84	90			
광주	72	84	90			
제주	72	84	90			
합계	2,592	2,772	2,430	450	675	132

* 출처 : 이 표는 2018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 주 : 총계 9,051명

(2) 대학생 표본설계⁸⁾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의 모집단은 2018년 1학기에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7개 광역 시도별, 계열별, 학제별(대학교/전문대학)

8) 대학생 표본집단의 크기를 추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지역별 대학생 모집단 크기에 대한 내용 및 표본설계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었다.

학생수 및 학교수를 추출하였다. 대학생의 모집단 크기는 2,769,522명이었으며, 대학생이 2,091,801명, 전문대학생이 677,721명이었고, 학교수는, 대학교가 201개교, 전문대가 138개교였다.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대학생 모집단 학교수를 추출한 결과는 <표 III-7>에 제시하였으며, 표본 학교수는 <표 III-8>에 제시하였고, 표본 학생수의 추출결과는 <표 III-9>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III-7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시도별, 계열별)

시도	재적 학생 수								학제별 학생수		학제별 학교수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전체	2,769,522	265,369	727,071	131,259	781,367	292,943	251,558	319,935	2,091,801	677,721	201	138
서울	560,323	87,142	163,181	21,723	144,980	61,511	18,823	62,963	502,670	57,653	39	9
부산	250,518	26,667	68,612	9,428	77,117	23,499	18,925	26,270	199,942	50,576	13	9
대구	120,802	8,526	27,364	6,253	36,571	13,885	16,232	11,971	66,026	54,776	4	7
인천	68,157	4,258	16,549	4,780	28,483	6,601	2,149	5,337	45,102	23,055	4	3
광주	111,946	10,715	25,037	7,990	28,527	12,249	16,438	10,990	86,232	25,714	11	6
대전	143,245	13,630	35,213	5,759	41,866	17,593	15,950	13,234	114,718	28,527	11	4
울산	33,446	2,231	6,273	410	13,573	3,640	4,237	3,082	22,305	11,141	2	2
세종	23,562	1,789	6,858	247	6,202	1,472	144	6,850	18,712	4,850	1	1
경기	452,326	36,103	118,015	16,469	138,446	38,351	28,905	76,037	244,638	207,688	29	31
강원	129,130	9,130	37,129	6,138	28,763	18,845	18,369	10,756	105,198	23,932	9	9
충북	126,957	8,466	33,163	10,170	33,058	15,129	13,612	13,359	103,685	23,272	11	5
충남	197,168	18,412	55,333	8,855	51,656	18,374	17,679	26,859	172,373	24,795	15	6
전북	123,601	9,796	26,900	7,796	31,230	15,364	17,344	15,171	98,059	25,542	11	9
전남	75,866	3,712	17,318	4,585	20,843	6,693	15,849	6,866	48,802	27,064	10	9
경북	203,602	14,328	53,798	10,565	55,777	20,237	28,038	20,859	159,620	43,982	18	16
경남	118,729	7,726	26,949	8,113	39,800	14,489	15,393	6,259	85,978	32,751	11	10
제주	30,144	2,758	9,379	1,978	4,475	5,011	3,471	3,072	17,741	12,403	2	2

* 출처 : 이 표는 2018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2017).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 주 : 대학교에는 교육대학(10개교), 산업대학(2개교)도 포함함.

표 III-8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대학생 표본학교 수

시도	학생 수			학교수			할당표본 학교수		
	전체	대학교	전문대	전체	대학교	전문대	전체	대학교	전문대
전체	2,769,522	2,091,801	677,721	339	201	138	43	26	17
서울	560,323	502,670	57,653	48	39	9	7	5	2
경인	520,483	289,740	230,743	67	33	34	8	4	4
충청	490,932	409,488	81,444	54	38	16	6	4	2
전라	311,413	233,093	78,320	56	32	24	5	3	2
경북	324,404	225,646	98,758	45	22	23	6	3	3
경남	402,693	308,225	94,468	47	26	21	6	4	2
강원	129,130	105,198	23,932	18	9	9	3	2	1
제주	30,144	17,741	12,403	4	2	2	2	1	1

* 출처 : 이 표는 2018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표 III-9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표본크기

시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합계
전체	97	274	51	288	113	98	114	1,035
서울	28	52	7	47	20	6	20	180
경인	14	47	7	58	16	11	27	180
충청	13	40	8	41	16	14	18	150
전라	9	27	8	31	13	19	13	120
경북	10	34	7	38	14	18	14	135
경남	14	38	7	49	16	14	12	150
강원	5	22	4	17	11	11	5	75
제주	4	14	3	7	7	5	5	45

* 출처 : 이 표는 2018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2) 연구도구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 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는 2014년도(성은모 외, 2014)에 1차적으로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장근영 외, 2016) 단축문항으로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2018년도 연구목적에 맞게 각 역량의 행동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행동지표 문항을 개발하여 추가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및 행동지표 측정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애학습역량지수 및 행동지표 측정도구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도구는 사고력 6문항(비판적 사고력 3문항, 감성적 사고력 3문항), 지적도구활용 12문항(언어능력, 3문항, 수학능력 3문항, 과학능력 3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3문항), 학습적응성 6문항(변화수용력 2문항, 지적호기심 2문항, 학습주도성 3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동지표 문항을 개발하였다. 행동지표 변인으로는 자기주도학습능력 8문항, 사고력 3문항, 지적도구활용능력 4문항, 그리고 학습적응성 4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은모와 최효선(2016)이 개발한 측정도구 중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8문항을 활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문항은 전략적 학습기술 2문항(예,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복습한다), 탐구적 학습전략 2문항(예,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으로 진행해야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학습몰입 2문항(예,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학습에 대한 신념 및 가치 2문항(예, 나는 성적을 위해 공부하기보다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81$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표 III-10 생애학습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 변인 : 자기주도학습역량

문항	
1. 나는 현재의 공부가 단순히 좋은 성적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성적을 위해 공부하기보다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	
3. 나는 강의에 반드시 '100% 출석'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간단한 예습으로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	
5. 나는 강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관련 도서나 인터넷을 탐색한 후 마지막에 교수님께 여쭙어본다	
6.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복습한다	
7.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8.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사고력의 경우에는 문제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의 과정에 대한 준거에 대해 2문항을 개발하였다. 사고 과정의 준거는 일차적으로 문제상황에서 원인분석-대안설정-해결안제시 등의 절차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수준을 4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였으며, 이에 대한 수행 준거지표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사고력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사고수준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level 2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level 3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level 4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기존 방식과 다른 차원의 해결안을 적용해 보고 최고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이차적으로는 문제해결에 걸린 소요시간과 해결안의 정확도를 4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해결에 걸린 소요시간의 사고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의미하고 문제해결의 정확도는 사고력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준거지표가 될 수 있다. 문제해결에 걸린 소요시간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a) 매우 짧다, b) 짧은 편이다, c) 긴 편이다, d) 매우 길다’ 등의 4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소요시간에 따라 문제해결의 정확도는 ‘1) 매우 정확하지 않다 (0-59%), 2)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60-74%), 3) 정확한 편이다(75-89%), 4) 매우 정확하다(90-100%)’ 등의 4 수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경우에는 언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활용 등의 하위역량에 따라 행동수준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문항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언어, 수학, 과학에 따른 학습시간을 주중(평일)과 주말(휴일)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때 언어, 수학, 과학 역량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80점 이상-90점 미만, 90점 이상-100점 이하’등과 같이 5 수준으로 학습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활용도 정보통신기기 활용 학습 시간과 학습의 시간을 구분하고 주중(평일)과 주말(휴일)로 구분하여 하루 평균 학습 및 사용 시간을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학습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지표로는 정보통신기기의 하드웨어 활용 기능 수준과 정보검색, 정보 분석 그리고 정보생성 능력 수준 준거를 4 수준으로 <표 III-1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I-12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level 2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level 3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할 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level 4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적응성의 경우에는 변화수용력의 행동지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의 변화에 대한 경험 횟수 묻는 문항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적 호기심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호기심 유발 정도에 따라 4 수준으로 '1) 궁금한 게 전혀 생기지 않는다, 2) 궁금한 게 가끔 생긴다, 3) 궁금한 게 여러 번 생긴다, 4) 궁금한 게 매일 매일 생긴다'와 같이 구성되었다. 학습 주도성에 있어서는 호기심에 따른 질문의 발현 정도로써 '1)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다, 2)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때만 가끔 하는 편이다, 3) 질문이 생기면 자주하는 편이다, 4) 질문이 생길 때 마다 항상 즉시 질문한다.'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생활관리역량지수 및 행동지표 측정도구

생활관리역량지수는 크게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의 네 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량은 2~4개의 하위역량으로 이루어졌다. 즉, 건강관리 8문항(위생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문항), 과제 관리 6문항(목표 및 계획 수립 3문항, 수행 및 평가 3문항), 상황대처 12문항(중독인식 3문항, 중독행동 3문항, 폭력행동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정서 조절 9문항(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동지표 문항을 개발하였다. 행동지표로는 건강관리 관련 지표 6문항, 과제관리 관련 지표 3문항, 중독 및 폭력 관련 지표 13문항,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관련 지표 10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관리 행동지표 6문항은 장근영 외(2016)에서 개발한 건강관리역량 행동변인을 활용하였다. 건강관리 역량 행동변인은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 빈도, 수면시간에 대한 각 한 문항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 측정 3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III-13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건강관리 관련 행동지표 측정도구

변인	문항
아침식사 횟수	1.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아침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운동 빈도	2.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수면시간	3.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스트레스 관리	1.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나는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역량평가를 위한 수준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III-14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행동지표

변인	수준	행동지표
아침식사	level 1	일주일에 1~2일 정도 아침식사를 한다.
	level 2	일주일에 3~4일 정도 아침식사를 한다.
	level 3	일주일에 5~6일 정도 아침식사를 한다.
	level 4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운동	level 1	일주일에 1~2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level 2	일주일에 3~4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level 3	일주일에 5~6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level 4	매일 몸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 한다.
수면 시간	level 1	평균 5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
	level 2	평균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
	level 3	평균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
	level 4	평균 7시간 이상 잠을 잔다.

과제관리 변인 역시 장근영 외(2016)에서 개발한 과제관리역량 행동변인을 활용하였다. 과제관리 역량 행동변인은 목표 및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수행을 묻는 측정 문항 3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III-15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과제관리 관련 행동측정문항

문항
1.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일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2. 내 주변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
3.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일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과제관리에 대한 역량평가를 위한 수준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III-16 생활관리역량 과제관리의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하지 못한다.
level 2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level 3	항상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진행한다.

상황대처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과 반응적 폭력행동, 주도적 폭력행동에 대한 수행준거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불안감과 고립감이 발생하는지 정도에 따라 표기하도록 구성하였다. 폭력행동에 대해서는 오종은(2013)과 이주성(2005)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 수정하여 10문항을 구성하였다. 상황대처에 대한 역량평가를 위한 수준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III-17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중독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일상적이다
level 2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있는 편이다
level 3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없는 편이다
level 4	휴대전화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전혀 없다

표 III-18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의 폭력행동 행동지표

변인	수준	행동지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level 1	대여섯번 이상 있다
	level 2	서너번 있다
	level 3	한두번 있다
	level 4	한번도 없다
위협상황에서의 폭력행동	level 5	대여섯번 이상 있다
	level 6	서너번 있다
	level 7	한두번 있다
	level 8	한번도 없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의 경우는 전점구 외(1997)가 개발한 한국어판 정서조절 검사지(Korean Adaptation of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에서 행동지표 문항을 추출, 수정하여 정서조절 수행준거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에 대한 문항이다. 예를 들어, ‘나는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나는 문을 꽁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나는 욕을 하는 편이다’ 등과 같은 행동이나 언어에 대한 빈도를 표기하도록 구성하였다.

(3) 진로개발역량지수 및 행동지표 측정도구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9문항(자기탐색 2문항, 직업탐색 3문항, 직업가치관 2문항, 진로준비 2문항), 여가활용 10문항(여가태도 3문항, 여가유능감 3문항, 여가만족 2문항, 여가몰입 2문항), 개척정신 6문항(차별화태도 3문항, 도전정신 3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 측정을 위해 진로설계 관련 행동지표로는 진로자기조절 5문항, 진로결정 3문항, 진로활동경험 5문항, 진로정확성 1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자기조절능력은 김민정과 김봉환(2014)의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도구 중 계획 및 점검 2문항(예,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생각하여 계획한다), 진로몰입의지 3문항(예, 나는 학교에서의 공부와 여러 활동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한 활동은 꾸준히 실천한다)을 활용하였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914$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진로결정능력 측정문항은 Osipow(1987)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를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번안한 것 중 진로미결정수준 3문항(예,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 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79$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진로활동경험에 대해서는 진로관련 활동 경험 여부와 총 참여 횟수를 묻는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 체험 교육, 직업 관련 견학,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여부와 지난 1년간 참여 총 횟수를 적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명확성 1문항을 추가하였다. 진로명확성은 청소년들이 장래에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여가활용 관련 행동지표로는 여가경험 3문항, 여가활동 유형 1문항, 여가활동 동료 1문항,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지지 1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해당 측정문항들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양과 질, 그리고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인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여가경험은 여가활동의 유무, 일주일동안 여가활동의 횟수, 일주일동안의 여가활동시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에 대해서는 스포츠활동, 스포츠관람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관광활동, 오락활동으로 구분하였고 TV보기 또는 낮잠자기와 같은 휴식활동은 여가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여가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해 주시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척정신 관련 행동지표로는 차별화행동 2문항, 도전활동 1문항 총 3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관련 측정도구는 선행문헌분석을 통해 연구진에 의해 자체 개발하였다. 차별화 행동과 관련해서는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차별화 행동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옷을 입는데 얼마나 개성 있게 입는지 묻는 문항을 개발하였고, 학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수행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도전활동과 관련해서는 평소 해보지 않는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4) 대인관계역량지수 및 행동지표 측정도구

대인관계역량지수는 관계형성 12문항, 리더십 9문항, 협동 8문항 등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관계형성은 자기개방성(3문항), 친화성(3문항), 의사소통(3문항), 공감 및 배려(3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십은 의사결정(3문항), 집단활동관리(3문항), 추진력(3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협동은 집단촉진(3문항), 팔로워십(2문항), 갈등문제해결(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지표로서 관계형성역량 관련 행동지표는 친한 친구의 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의 수,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 등 3문항을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관계형성을 통해 나타난 결과, 즉 상호작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의 범위,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친구 정도, 친구와의 긴밀한 접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리더십역량 행동지표로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단체, 기타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와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준 등 두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활동참여수준 변인은 리더십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정대, 2001; 박선경, 2002; Boyd, 1991)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표 III-19 대인관계 리더십 관련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소속만 되어 있을 뿐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
level 2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중요한 역할 맡고 있지는 않다.
level 3	리더는 아니지만,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 맡고 있다.
level 4	모임의 리더로서,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협동역량 행동지표로는 소속된 모임에서의 협동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협동역량 행동지표 문항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는 단계, 둘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단계, 셋째,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단계, 넷째,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는 협동역량이 낮은 수준에서는 강하게 조직을 비판하는 분쟁이 일어나고, 중간 수준에서는 회피가 일어나며, 높은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직에 협력한다는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표 III-20 대인관계 협동관련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level 1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는 편이다.
level 2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다.
level 3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
level 4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

(5) 사회참여역량지수 및 행동지표 측정도구

사회참여역량은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및 세계 시민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측정 도구는 김태준, 백선희(2014)의 예비조사와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2015)의 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21 사회참여역량 수행 준거지표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의 참여수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뱃지 달기
(2) 비폭력 집회 참여
(3) 진정서에 서명하기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5) 벽에 향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하기

(6) ICCS 2009/2016 아시아 지역 국가 모듈(ARM)의 결과 분석

ICCS 2009 분석에서는 아시아 지역 총 5개국의 13.7~14.2세 연령 분포의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태도 및 의식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만은 5,152명, 홍콩은 2,739명⁹⁾, 인도네시아는 5,048명, 한국은 5,252명, 태국은 5,263명으로 총 23,454명의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의 시민지식과 태도 및 참여 요소의 통합과정을 분석하고, 한국과 함께 ARM 조사에 참여한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과의 시민 역량 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역량 군집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별 군집 유형에 따른 이민자 관용 및 인종 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시민지식, 태도, 참여 및 ARM이다. 먼저 시민 지식은 시민성 및 시민의식과 관련한 지식과 사고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Schulz, Fraillon, Ainley, Losito & Kerr, 2008). ICCS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의 운영 원칙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수준과 얼마나 민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판단력을 측정하였다(장근영, 박수익, 장지영, 2011).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의 평균을 500점으로 맞춘 척도점수로 각 개별 응답자의 시민지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시민태도는 실제 교실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나타내는 민주적 태도 수준인 교실개방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실개방성이 높으며, 시민 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학교 내 참여와 학교 밖 참여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학교 내 참여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립적 참여, 토론에 대한 적극 참여,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 참여,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 밖 참여는 청소년 정당단체,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 수준의 투표 등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chulz et al., 2018).

9) 조사 대상 학교들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결속감을 가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자료만을 사용하였다(Schulz et al., 2018).

이민자에 대한 관용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이민자의 권리 등을 측정하는 문항의 평균을 통하여 산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용 수준이 높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문항이 최종 변인을 구성하는데 포함되었다.

인종 평등을 측정하는 문항은 모든 민족 집단의 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종 평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22 ICCS의 사회적 역량 관련 변인

요인	문항
교실 개방성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학교 내 참여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방과 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학급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장/학생회장 임원에 투표한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교 밖 참여	학생회 토론에 참여한다.
	반장/학생회 임원에 출마한다.
	환경운동단체에 참여한다.
	인권운동단체에 참여한다.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한다.
	기부단체에 참여한다.
	외국인문화단체에 참여한다.
	종교단체에 참여한다.
	청소년캠페인 활동에 참여한다.

요인	문항
이민자 관용	이민자들이 그들 국가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민자들에게 그들 국가의 관습과 생활양식을 허용해야 한다.
인종 평등	이민자들도 이민국가의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모든 민족 집단은 좋은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모든 민족 집단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족 집단 구성원들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모든 민족 집단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모든 민족 집단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ARM의 경우 기존 55개 문항이 있으며 개별 문항은 김태준과 이영민 (2012)에서 확인가능하고 본 보고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활용할 문항을 확인할 수 있다.

- (7)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청소년 역량지수 설문문항 구조
-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은 성별, 생년(연령), 가족구성, 학업성취수준, 가정경제수준, 부모님(보호자) 학력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이와 같이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최종 2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및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23>과 같다.

표 III -23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구성체계 및 문항 수

역량군	하위역량 및 행동지표	세부역량 및 행동지표	문항 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3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3
		수학능력	3
		과학능력	3
		정보통신활용능력	3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2
	행동지표	자기주도학습	8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4
		학습적응성	4
총계			43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위생관리	3
		신체관리	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
		수행 및 평가	3
	상황대처	중독인식	3
		중독행동	3
		폭력행동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2
		감정인식	3
	행동지표	건강관리	6
		과제관리	3
		상황대처	13
		정서조절	13
총계			70

역량군	하위역량 및 행동지표	세부역량 및 행동지표	문항 수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2
		직업탐색	2
		진로준비	2
		직업가치관	3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3
		도전정신	3
	여가활용	여가태도	3
		여가유능감	3
		여가만족	2
		여가몰입	2
	행동지표	진로설계	5
		여가활용	3
		개척정신	5
총계		38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3
		친화성	3
		의사소통	3
		공감 및 배려	3
	리더십	의사결정	3
		집단활동관리	3
		추진력	3
	협동	집단촉진	3
		팔로워십	2
		갈등문제 해결	3
	행동지표	관계형성	4
		리더십 & 협동	4
	총계		37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6
		민주적 절차 및 의식	3
		정치관심	5
		정치적 자아효능감	2

역량군	하위역량 및 행동지표	세부역량 및 행동지표	문항 수
사회참여역량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4
		시민활동의 중요성	5
		저항 의식	4
		신뢰	5
		교실개방성	2
	세계 시민성	성 인지	3
		이민자에 대한 태도	2
		국가 및 역사 의식	2
		국제관계 관심	6
		글로벌 의사소통	6
	행동지표	사회참여	4
	총계		55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문항			6
전체 문항수			248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의 전체 구조는 위의 표와 같으나 실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현장의 조사시간과 학생들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여 5개 역량군을 모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영역의 역량지수 측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ICCS에서 사용하는 조사지 구성 기법인 ‘순환배분 방식(rotated design)’을 차용한 것이다. IEA에서 조사지를 구성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 학생들이 검사에 응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늘리면서 최대한 광범위한 영역의 측정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법에 따라 검사지의 문항군(cluster)을 순환배분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질문지를 연결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한 학생이 응답하지 않은 영역의 측정치도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사용해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표는 ICCS 2016 본 조사에서 검사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표 Ⅲ-24 ICCS 2016 인지능력 검사지 구성 개요

검사지 유형	검사지 공통	Section1	Section2	Section3
1	지시사항 및 연습문제	C1	C2	C4
2		C2	C3	C5
3		C3	C4	C6
4		C4	C5	C7
5		C5	C6	C8
6		C6	C7	C1
7		C7	C8	C2
8		C8	C1	C3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ICCS의 인지능력 검사지는 총8개의 문항군(C1~C8)으로 구성되어 있다. IEA에서는 이 개별 문항군들을 순환형식으로 총 8유형의 검사지에 배분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문항군은 8유형의 검사지 중에서 3개 유형의 검사지에 들어간다.

본 청소년 역량조사지 구성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참고하되, 역량 영역별 문항수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평균적인 청소년들이 1시간 이내에 응답할 수 있는 범위를 2개 역량 영역의 지수 및 수행준거 문항으로 설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총 5개 유형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성결과 각 검사지 유형별 총 문항수는 최대 125문항에서 최소 107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응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행척도가 많은 역량영역을 문항수가 적은 유형에 우선 배당함으로써 시간 소요를 균등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Ⅲ-25 통합조사 청소년 역량검사지 구성 개요

검사지 유형	검사지 공통	Section1	Section2	총문항수
1	배경변인 & 개인심리 특성변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125
2		생애학습역량	사회참여역량	122
3		사회참여역량	대인관계역량	114
4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107
5		진로개발역량	생활관리역량	115

실제 조사에서는 모든 조사 대상 학급에 이 5개 유형의 청소년 역량 검사지 중 하나를 각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배분하되, 최대한 균일한 숫자로 배부하여 모집단 추정을 위한 표본설계의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최종 조사결과가 수집된 후, 각 조사지 유형별 측정사례숫자가 학교별로 균등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사 설계의 의도가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유형별 조사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V~Ⅷ]에 제시하였다.

3) 조사일정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는 2018년 4월~7월까지 전문 설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26>에 제시되었다.

표 III-26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및 일정

단 계		내 용	기 간
조사 기획	표본설계	- 교육부 모집단 자료를 제공받은 후 표본설계 실시 - 표본추출 리스트를 연구원에 제출	4월
	설문 확정	- 조사표 초안 검토 및 사전조사 실시 - 자문진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확정	4월
실사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수도권 및 지방 실사 조사원 모집 7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원 집체 교육 실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제주) - 연구진의 교육현장 참관 및 모니터링 실시	집체교육 5월
	조사도구 준비	- 설문조사 학교 섭외 및 설문지 제작 - 조사원지침서/조사안내자료/공문 - 응답자 답례품 준비 등	4~5월
	현장 실사	- 학교방문조사 실시 - 특이사항 있을 시 즉각보고 - 연구진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5월~ 7월

단 계		내 용	기 간
자료 처리/ 보고	에디팅	• 조사완료 설문지 에디팅	8월
	코딩	• 연구원의 지침에 따른 코딩	8월
	편칭	• 전용 편칭 프로그램에 설문지 입력 • 연구원의 자료입력 검증 실시	8월
	데이터 클리닝	• 연구원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클리닝 실시	8월
	가중치 작업	• 가중치 산출	8월
	기초테이블	• 기초테이블 산출 및 차이검증 실시	9월
	결과 보고	• 실사 완료 후 중간보고 실시 • 최종 데이터 제출 후 최종 보고 실시	9~10

4)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정도구로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료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졌다.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결과의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양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 측정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왜도(skewness, 절대값 2이하)와 첨도(kurtosis, 절대값 7이하)를 바탕으로 문항의 정규성을 분석(Curran, West & Finch, 1996)하였고,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절대값 .30이상)(Field, 2009),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 분석(Brace, Kemp, Snelgar, 2013)이 이루어졌다.

둘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변인 특성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분석과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적 수준, 지역 등으로 구성되었고,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관련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이 이루어졌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행동지표 측정결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행동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를 표준화 점수(Z점수)로 변환하여 행동수준을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표준화점수의 전체 평균의 합과 표준편차가 0이 되는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점수에 있어 1이상=4수준, 0초과~1미만=3수준, -1초과~0미만=2수준, 그리고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구분된 4수준에 따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에 따라 각 역량 관련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 4수준에 따라 행동지표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가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과 사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4수준에 따라 행동지표 점수의 차이가 있으면, 행동지표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차이가 없다면, 수준별 행동특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행동지표 점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비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평균이 특정 수준에 포함되더라도 평균을 중심으로 낮게(하한값) 또는 높게(상한값)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폭을 함께 고려하여 행동지표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섯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행동지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의 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군집분석이란 유사한 대상들끼리 묶어 그룹 즉, 군집을 만드는 기법을 의미한다. 군집의 추출방식을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Wards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군집수를 설정하였다(서미옥, 2014). 이후 각 군집에서 이루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의 유의미성과 사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군집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에서 이루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분포 특징을 고려하여 군집유형별 프로파일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유형별 행동지표 특성을 분류하여 전체적인 행동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SPSS 20.0을 활용하였다.

3. ICCS (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연구) 개요*

1) ICCS 소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 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조사는 1999년에 시민교육연구(CivEd)라는 명칭으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이스라엘을 포함해 총 31개국이 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조사 대상연령(8학년, 만 13.5세), 조사 대상자(학생, 교사, 학교)의 연구들이 이 조사에서 확정되어 이후 ICCS에도 적용되었다. 2009년에 ICCS로 명칭이 변경된 후 한국을 포함한 총 38개 국가와 도시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2016년에 실시한 제2차 ICCS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24개국이 참여했다. 이 2차 ICCS는 2009년 ICCS와 시계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했다.

* 이 절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IEA에서는 2022년에 제3차 ICCS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역시 1차와 2차 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며,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표 III-27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PISA	TIMSS	PIRLS	ICCS
명칭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2011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주관기관	OECD	IEA	IEA	IEA
조사대상	중등2학년	초등4, 중등2학년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주요 조사내용	언어·수학·과학 성취도, 문제 해결능력, 학업태도 (흥미/관심/자신감) 및 가정, 학교 배경요인	학생들의 수학· 과학과목 학업 성취도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읽기, 문해력, ICT 정보이해력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성취도, 시민의식, 신뢰·참여수준, 공동체의식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참여국	72개국 (2015)	57개국 (2015)	35개국 (2011) 50개국 (2016)	38개국 (2009) 24개국 (2016)
조사주기	3년	4년	5년	7년

표 III-28 ICCS 조사 연도별 참가국 내역

연도	명칭	참가국	조사대상
1999	CivED (Civic Education Study)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슬로브 공화국,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28개국 ¹⁰⁾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09	ICCS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0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파라과이, 폴란드, 핀란드,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대만,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뉴질랜드 38개국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16	ICCS 2016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16)	(유럽 16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남미 5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시아 3개국) 대만, 대한민국, 홍콩 총 24개국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 ICCS 2016 조사결과 : 시민지식 (인지영역)

(1) 시민역량 인지영역 Test 결과 전체

시민지식수준 평가척도는 ICCS의 2대 영역 중에서 인지영역에 해당하는 측정 도구이다. 본 척도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과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가상의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또한 응답자의 능력평가 척도로서 반드시 제한시간

10)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일부조사에만 참가, 이스라엘은 데이터 일부만 제출하여 분석에서 제외

45분 이내에 응답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일종의 시험 형식의 검사로서 문제지 누출로 인한 조사결과의 오염을 막기 위해 구체적 문항내용은 비공개(ICCIS framework 문서에 유사문항 제시)를 원칙으로 한다.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문항은 2009년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측정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 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음인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3위에 비하면 낮아진 것인데, 이는 시민지식 점수의 절대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향상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향상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9년 조사결과에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참여국가에서 시민지식 평가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향상율의 수준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2009년 대비 가장 많이 점수가 높아진 국가는 스웨덴(42.2점 향상), 홍콩과 러시아, 노르웨이, 벨기에, 대만, 에스토니아 순으로 이들 국가는 시민지식 점수가 20점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9년 측정에서 551.2점에서 13.6점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졌다. 반면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각각 29.3점과 6.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ICCS 2009 대비 2016 시민지식점수 차이(향상도 순)

	2016년 평균 (편차)		2009년 평균 (편차)		변화량
스웨덴	579.2	(2.8)	537.0	(3.1)	42.2
홍콩	554.1	(5.7)	515.3	(6.6)	38.8
러시아	544.7	(4.3)	506.4	(3.8)	38.3
노르웨이	563.7	(2.2)	538.2	(4.0)	25.5
벨기에	537.2	(4.1)	514.1	(4.7)	23.2
대만	581.1	(3.0)	558.7	(2.4)	22.4
에스토니아	546.4	(3.1)	525.3	(4.5)	21.1
콜롬비아	482.1	(3.4)	461.9	(2.9)	20.2
불가리아	485.1	(5.3)	466.5	(5.0)	18.7

	2016년 평균 (편차)		2009년 평균 (편차)		변화량
슬로베니아	532.1	(2.5)	515.9	(2.7)	16.2
멕시코	467.0	(2.5)	451.7	(2.8)	15.4
대한민국	564.8	(1.9)	551.2	(3.6)	13.6
리투아니아	517.8	(3.0)	505.2	(2.8)	12.6
라트비아	492.2	(3.1)	481.6	(4.0)	10.5
덴마크	586.3	(3.0)	576.4	(3.6)	9.9
몰타	491.2	(2.7)	489.7	(4.5)	1.5
도미니카	381.4	(3.0)	380.3	(2.4)	1.1
핀란드	576.7	(2.3)	576.4	(2.4)	0.3
칠레	482.5	(3.1)	483.0	(3.5)	- 0.6
이탈리아	524.4	(2.4)	530.8	(3.3)	- 6.3
네덜란드	493.6	(7.6)	522.9	(4.5)	- 29.3

(2) 시민지식의 성차

시민지식점수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2009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몰타(38.2점)였고, 한국은 30.5점으로 ICCS 평균인 25점보다 높은 수준의 성차를 나타냈다. 시민지식이 낮은 수준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결국 시민사회의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시민지식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표 III-30 ICCS 2016 시민지식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격차 순)

	여자 평균 (편차)		남자 평균 (편차)		격차
몰타	510.8	(3.7)	472.6	(3.9)	38.2
불가리아	505.2	(5.9)	468.0	(6.0)	37.2
스웨덴	597.7	(3.1)	562.2	(3.9)	35.5
슬로베니아	550.3	(2.6)	515.2	(3.3)	35.0
대만	598.6	(3.4)	564.3	(3.3)	34.4

	여자 평균 (편차)		남자 평균 (편차)		격차
노르웨이	580.6	(2.4)	547.0	(2.6)	33.6
에스토니아	563.2	(3.4)	529.9	(3.4)	33.3
홍콩	532.3	(6.6)	499.4	(7.7)	32.8
핀란드	593.8	(2.3)	561.2	(3.4)	32.5
대한민국	567.6	(4.8)	537.1	(3.4)	30.5
라트비아	506.6	(3.8)	476.3	(3.7)	30.3
도미니카	395.7	(3.4)	366.7	(3.3)	28.9
리투아니아	531.8	(3.6)	503.5	(3.4)	28.3
크로아티아	544.1	(2.9)	518.1	(2.9)	26.1
칠레	494.4	(3.8)	470.8	(3.3)	23.6
덴마크	597.3	(2.9)	574.7	(3.7)	22.6
멕시코	477.8	(3.0)	456.4	(3.2)	21.4
이탈리아	534.7	(3.0)	514.9	(3.0)	19.7
러시아	552.0	(5.3)	537.5	(4.3)	14.5
네덜란드	529.5	(5.0)	516.1	(4.0)	13.4
콜롬비아	486.1	(4.1)	477.6	(3.6)	8.5
페루	441.0	(4.6)	434.7	(4.1)	6.3
벨기에	537.7	(5.4)	536.8	(4.6)	1.0
ICCS 평균	530.0	(0.8)	505.0	(0.8)	25.0

(3) 시민지식의 질적 분포 (수준)

ICCS에서는 시민지식이 단순히 양적인 점수의 차이 보다는 질적인 변인이라고 상정한다. 따라서 이번 ICCS 2016에서는 시민지식 점수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A 레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D 미만 레벨까지 크게 5개의 수준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B 레벨 이상은 비록 점수가 낮은 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부여된 일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시민지식 수준이 C 레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제한다. 각 레벨별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 -31 ICCS 2016 시민지식 수준의 정의와 기준

연도	명칭
Level A 563점 이상	윤리적 소비를 목적으로 한 행동 전략을 짜거나 판별할 수 있는 수준 / 자유로운 공개적 토론과 공동체 참여가 사회에 유익한 이유와 그 원리를 이해 / 사회 구성원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성 인식 / 입법-사법체계간의 권력분산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 인식 / 평등과 포용의 관점에서 정부와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음 / 정당에 대한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공정성에 중요한 이유 인식함 / 국회 회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 / 자유 시장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경제 구조의 주요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음
Level B 479~ 562점	사법권의 독립성이 사법적 판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중요한 이유 이해 / 지역적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국제화가 가지는 경제학적 위험성을 일반화 시킬 수 있음 / 투표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이해 / 민주적 대표성과 투표의 의무 사이의 관계를 이해 / 국회/입법부의 주요 역할, 헌법의 주요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음 / 민주주의에서 정부와 군대와의 관계를 인식함 /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의 위험성을 인식함 /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시민 개개인의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음
Level C 395~ 478점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관계 인식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맥락에서 자발적 투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 / 민주적 지도자가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이해 / UN의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 / 시민 참여에 있어 의사소통 도구로서 인터넷의 가치를 일반화 시킬 수 있음 /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해 / 행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 / 타국에 대한 원조가 자국의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해 / 윤리적 소비 법안의 배후에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는지 이해
Level D 311~ 394점	군대의 핵심 역할은 국가 방위라는 사실 이해 /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의식과 국제원조기구 업무를 연결시킬 수 있음 / 비밀투표 원칙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사이에 관계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Level E 310점 이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왜 인권인지를 이해함

ICCS 2016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A레벨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4.7%, B레벨은 31.5%, 우리나라는 A레벨과 B레벨을 합해 77.5% 으로서, 청소년의 3/4 이상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의 경우에는 C 레벨 이하의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III-32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별 분포

	D level 이하	D level	C level	B level	A level
덴마크	0.4	2.3	10.2	24.6	62.4
대만	0.5	2.9	9.9	24.5	62.2
스웨덴	0.3	2.3	10.0	27.0	60.4
핀란드	0.7	3.6	12.2	25.2	58.3
노르웨이	0.7	3.8	13.1	28.9	53.5
대한민국	0.8	5.2	16.5	30.5	47.0
에스토니아	0.2	3.2	16.7	36.9	43.0
러시아	0.3	3.7	16.6	37.3	42.1
벨기에	0.2	4.6	19.1	36.6	39.5
슬로베니아	0.4	4.5	20.6	37.6	37.0
크로아티아	0.3	3.9	19.9	39.9	36.0
이탈리아	0.9	8.2	23.2	32.1	35.6
네덜란드	0.6	6.6	22.8	39.3	30.7
독일(NRW)	0.9	6.5	21.5	36.1	34.9
리투아니아	0.7	6.7	23.5	38.5	30.5
홍콩	3.4	10.9	19.1	31.5	35.0
라트비아	6.4	16.0	22.5	28.4	26.7
몰타	5.5	13.4	23.2	31.7	26.2
불가리아	3.7	16.0	27.2	31.7	21.4
칠레	1.7	10.7	29.1	39.0	19.5
콜롬비아	2.1	13.8	31.3	35.4	17.4
멕시코	3.2	17.7	33.1	32.8	13.1
페루	9.4	23.5	32.2	26.0	8.8
도미니카	19.0	38.7	30.1	11.0	1.2
ICCS 평균	2.7	9.8	21.2	31.5	34.7

(4) 공공기관 및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공공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사회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ICCS에서는 각각의 공공기관이나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고 “매우 신뢰한다” 혹은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해 신뢰 수준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09년 대비 2016년에 모든 조사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증가했으나 일반적인 타인, 전통적인 대중매체(TV, 라디오, 뉴스)에 대한 신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에 처음 측정하였기에 2009년 대비 차이를 알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대중매체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6년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러시아이며, 2009년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2016년 조사에 불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신뢰수준 지표의 의미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표에서 한국의 결과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ICCS 조사에서 공공 신뢰의 수준이 참여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 2016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44.8%로 2009년의 19.6%에 비하면 25.2%p나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참여국 중 최하위인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39.7%로 2009년의 39%에 비해서 거의 차이 없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정당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18%에 비해 24.5%p 향상된 42.5%로 가장 높은 향상율을 보였으며, 대중매체(TV, 뉴스, 라디오)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51.2%에 비해 1.6%p 향상된 52.8%로 나타났다.

신뢰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37.5%)를 포함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중 신뢰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 신뢰 수준 분포

Country	정부			정당			타인			대중매체 (TV, 뉴스, 라디오)			SNS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네덜란드	69.9	69.6	0.3	47.6	52.8	-5.2	51.5	57.0	-5.4	46.8	48.0	-1.2	31.5
노르웨이	78.8	67.3	11.5	56.2	51.6	4.5	42.6	48.3	-5.8	48.5	48.6	-0.1	26.6
대만	61.9	44.4	17.4	47.2	26.2	21.0	47.7	51.4	-3.7	43.9	43.3	0.6	46.0
대한민국	44.8	19.6	25.2	42.5	18.0	24.5	39.7	39.0	0.6	52.8	51.2	1.6	37.5
덴마크	73.9	72.4	1.5	52.0	56.1	-4.1	64.5	68.5	-4.0	59.3	55.6	3.7	30.7
도미니카	77.8	73.8	4.0	49.8	51.1	-1.4	62.0	61.0	1.0	77.8	76.1	1.7	60.5
독일	82.7			61.5			69.9			61.5			50.8
라트비아	59.6	32.2	27.4	39.6	24.9	14.8	46.7	58.0	-11.3	51.1	65.2	-14.1	47.3
러시아	89.0	88.3	0.6	53.9	50.9	3.0	44.7	51.2	-6.5	40.7	41.1	-0.5	40.1
리투아니아	74.2	54.0	20.2	52.5	32.9	19.6	59.9	66.0	-6.2	65.4	67.3	-2.0	48.6
멕시코	57.0	58.4	-1.4	37.4	34.7	2.7	51.7	46.6	5.1	56.0	57.1	-1.2	48.3
몰타	66.1	62.5	3.7	50.9	55.1	-4.2	49.1	50.3	-1.3	66.3	70.3	-4.0	59.7
벨기에	71.6	51.0	20.5	49.0	35.0	13.9	51.7	57.0	-5.4	45.9	47.5	-1.7	29.1
불가리아	58.8	56.1	2.7	37.7	31.9	5.7	60.6	64.3	-3.8	61.3	69.9	-8.7	60.5
스웨덴	78.9	73.2	5.7	61.2	60.3	0.9	56.1	67.2	-11.1	54.2	53.9	0.3	32.4
슬로베니아	48.7	56.4	-7.7	44.4	44.7	-0.3	68.8	70.8	-2.0	64.8	64.1	0.7	53.8
에스토니아	72.5	61.6	10.9	32.4	23.1	9.3	46.5	57.6	-11.1	46.8	54.3	-7.5	32.5
이탈리아	57.1	73.7	-16.6	43.8	51.8	-8.0	41.0	51.5	-10.5	75.5	80.9	-5.5	53.6
칠레	49.6	65.1	-15.5	32.5	34.5	-1.9	47.8	51.7	-4.0	61.7	73.6	-12.0	54.0
콜롬비아	55.2	62.0	-6.8	27.7	34.9	-7.2	43.5	48.8	-5.4	68.9	71.7	-2.8	49.0
크로아티아	41.6	-		27.4	-		57.7	-		53.6	-		47.5
페루	49.0	-		33.4	-		47.2	-		62.2	-		45.4
핀란드	82.1	82.4	-0.3	66.2	60.9	5.3	73.5	75.8	-2.3	81.9	80.4	1.5	49.3
홍콩	67.2	70.4	-3.2	45.0	38.3	6.8	39.8	30.2	9.5	58.9	41.6	17.3	50.8
ICCS평균	67.4	63.0	4.3	46.4	42.3	4.1	53.2	58.1	-4.9	59.4	62.3	-2.9	45.1

(5) 인터넷과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2016년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터넷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활동의 현황 측정이 추가되었다.

조사결과, 각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44% 이상은 지난 1년간 인터넷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자신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시민참여의 비율은 특히 대만(57%), 도미니카(53.5%), 페루(52.7%), 라트비아(52.6%), 한국(52%), 홍콩(51.9%)에서 높았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 전통적인 공중파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이 한국보다 낮았고, 그 수준이 2016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기존의 매체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34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참여경험 전체	
대만	64.9	(1.0)	19.5	(0.7)	15.3	(0.6)	57.0	(0.2)
도미니카	37.0	(1.2)	18.6	(0.8)	23.2	(0.9)	53.5	(0.2)
페루	33.3	(0.9)	16.7	(0.7)	18.2	(0.7)	52.7	(0.2)
라트비아	37.3	(1.2)	13.8	(0.8)	14.4	(0.7)	52.6	(0.3)
대한민국	40.9	(1.2)	7.9	(0.6)	11.5	(0.7)	52.0	(0.2)
홍콩	28.9	(1.0)	16.3	(0.8)	15.7	(0.8)	51.9	(0.3)
러시아	40.3	(1.2)	7.5	(0.5)	9.6	(0.6)	51.8	(0.3)
리투아니아	37.5	(1.1)	7.7	(0.6)	8.7	(0.6)	51.5	(0.2)
콜롬비아	28.8	(0.9)	10.7	(0.6)	16.2	(0.8)	50.7	(0.2)
이탈리아	34.6	(1.0)	8.9	(0.5)	9.5	(0.6)	50.6	(0.2)
멕시코	29.2	(0.8)	12.3	(0.5)	11.8	(0.5)	50.5	(0.2)
불가리아	25.7	(0.9)	11.8	(0.9)	11.4	(0.6)	50.1	(0.3)
덴마크	37.9	(0.8)	3.3	(0.3)	4.4	(0.4)	50.0	(0.2)
스웨덴	33.2	(1.1)	4.9	(0.5)	7.0	(0.7)	49.9	(0.2)
에스토니아	26.3	(1.2)	4.9	(0.4)	7.7	(0.6)	49.4	(0.2)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참여경험 전체	
크로아티아	33.5	(1.2)	3.3	(0.4)	3.2	(0.4)	49.0	(0.2)
노르웨이	26.6	(0.7)	4.4	(0.3)	4.7	(0.3)	48.6	(0.2)
칠레	21.2	(0.6)	9.4	(0.5)	8.0	(0.4)	48.4	(0.2)
몰타	25.5	(0.7)	7.2	(0.4)	7.8	(0.4)	48.3	(0.2)
벨기에	23.5	(1.1)	5.3	(0.6)	6.0	(0.4)	48.3	(0.3)
독일	14.2	(1.0)	8.4	(0.6)	7.4	(0.7)	47.2	(0.2)
슬로베니아	20.4	(0.9)	2.7	(0.4)	4.5	(0.4)	46.9	(0.2)
핀란드	17.8	(0.9)	3.0	(0.3)	3.5	(0.4)	46.2	(0.2)
네덜란드	10.2	(0.7)	3.1	(0.3)	5.0	(0.5)	44.3	(0.2)
ICCS 평균	30.7	(0.2)	8.5	(0.1)	9.5	(0.1)	50.0	(0.0)

(6)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현황과 조사시기별 차이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실제 정치적인 참여행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서 ICCS 조사에서도 중요한 항목이다. ICCS에서 이 지표의 측정은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관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해낼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2009년과 2016년의 국가별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비교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1위인 도미니카 공화국 다음으로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국가간 편차가 가장 적은 항목 중의 하나로서 본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핀란드에서도 이 지수는 47.6로 나타났으며 ICCS 평균도 51%를 넘었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참여국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이 1.5%p 증가한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표 III-35 2009년 대비 2016년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치의 차이

Country	2016		2009		격차
도미니카	60.4	(0.2)	56.7	(0.3)	3.6
대한민국	58.7	(0.3)	55.0	(0.2)	3.7
페루	55.2	(0.2)	-	-	-
크로아티아	54.1	(0.2)	-	-	-
멕시코	54.0	(0.2)	52.5	(0.2)	1.5
콜롬비아	53.2	(0.2)	52.7	(0.3)	0.5
불가리아	52.0	(0.3)	50.3	(0.3)	1.6
대만	51.8	(0.2)	48.2	(0.2)	3.6
칠레	51.8	(0.2)	51.6	(0.2)	0.1
이탈리아	51.7	(0.2)	51.1	(0.3)	0.6
스웨덴	51.6	(0.2)	49.0	(0.3)	2.6
리투아니아	50.8	(0.2)	50.0	(0.2)	0.8
덴마크	50.7	(0.2)	49.6	(0.2)	1.1
노르웨이	50.5	(0.2)	49.3	(0.3)	1.2
몰타	50.5	(0.2)	46.6	(0.3)	3.9
홍콩	50.4	(0.2)	49.6	(0.2)	0.8
슬로베니아	49.9	(0.2)	49.7	(0.3)	0.2
벨기에	49.7	(0.2)	47.0	(0.2)	2.7
러시아	49.7	(0.2)	49.1	(0.2)	0.6
에스토니아	49.2	(0.2)	48.2	(0.2)	1.0
독일	49.0	(0.3)	-	-	-
네덜란드	48.1	(0.2)	47.7	(0.6)	0.4
라트비아	47.8	(0.2)	49.1	(0.2)	-1.2
핀란드	47.6	(0.2)	45.8	(0.2)	1.8
ICCS 평균	51.3	(0.1)	49.8	(0.1)	1.5

(7)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IEA에서는 정치적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변인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의 여부 (4점 척도에서 매우 관심있다. 약간 관심있다고 응답한 비율)를 제안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시민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남자 청소년(51.1)들보다 여자 청소년들(51.8)이 약간 더 높았으며, 정치적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55.2)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49.6)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시민지식 수준에 따라서도 작지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III-36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별		정치적 관심수준		시민지식 레벨	
	남	녀	정치이슈 관심없음	정치이슈 관심있음	수준 B 미만	B 이상
도미니카	60.5	60.2	59.1	62.3	60.6	59.1
대한민국	59.1	58.2	57.2	60.3	55.7	59.6
페루	55.2	55.2	53.1	57.1	55.0	55.6
멕시코	54.0	54.0	52.6	57.7	55.0	52.8
크로아티아	53.2	55.0	52.2	57.4	52.6	54.6
콜롬비아	52.8	53.5	51.4	57.2	54.0	52.5
대만	52.2	51.3	50.5	54.9	54.6	51.4
칠레	51.4	52.1	50.1	57.6	52.0	51.6
불가리아	51.1	53.0	50.4	55.3	51.2	52.5
이탈리아	51.0	52.4	49.9	55.5	49.8	52.5
스웨덴	50.9	52.3	48.1	56.2	49.7	51.9
덴마크	50.5	50.9	47.8	55.0	48.3	51.0
몰타	50.3	50.7	48.3	54.6	49.7	51.1
홍콩	50.0	50.9	48.1	53.1	49.8	50.8
벨기에	49.9	49.6	48.4	53.4	50.1	49.6
노르웨이	49.8	51.3	48.0	56.1	48.9	50.9
리투아니아	49.8	51.8	49.0	53.9	50.0	51.1
슬로베니아	49.6	50.2	48.6	54.1	48.5	50.4
러시아	49.6	49.7	47.3	52.5	50.7	49.4
에스토니아	48.3	50.1	47.1	53.2	46.4	49.8
네덜란드	48.2	48.0	47.2	52.6	48.1	48.1
핀란드	47.4	47.9	45.5	52.2	44.7	48.1
라트비아	47.3	48.4	46.7	51.0	47.0	48.4
ICCS 평균	51.1	51.8	49.6	55.2	50.8	51.5

(8) 학교밖 시민참여: 정치-사회참여 단체 참여 경험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변인 중에서도 실제 정치적 참여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ICCS에서는 정치적인 참여 중에서도 단체에 참여경험을 중요한 변인으로 측정한다. 이 영역 지표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009년 조사에서부터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¹¹⁾.

2016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정치단체 가입율은 2009년의 3.6%에 비하면 5.7%로 2.1%p 증가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영역 항목의 ICCS 평균치는 2009년의 9%에서 2016년에는 10%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참여경험 특히 단체가입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청소년들의 자원봉사단체 가입경험은 2009년의 17.7%에 비해 18.8%p 증가한 36.5%로 높아져 거의 ICCS 평균에 근접했으며 정치·사회적 캠페인 단체에의 가입경험 역시 2009년의 10.4%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5%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 III-37 ICCS 2016 참여국가별 정치-사회참여 단체 가입 경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입			특정이슈 활동 청소년단체가입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대만	2.1	3.6	-1.5	26.2	20.0	6.2	2.0	5.8	-3.7
핀란드	3.3	2.5	0.8	14.5	14.3	0.2	8.3	10.2	-1.9
크로아티아	3.6	-	-	29.9	-	-	3.0	-	-
독일	3.7	-	-	31.9	-	-	20.2	-	-
네덜란드	4.4	5.8	-1.4	30.2	24.1	6.1	6.9	11.7	-4.8
슬로베니아	4.6	5.7	-1.1	30.8	24.0	6.8	27.5	35.2	-7.7

11) 2018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상상하기는 어려우나, ICCS에서는 이들 활동을 실제 정치참여 행동으로 측정함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입			특정이슈 활동 청소년단체가입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덴마크	4.7	4.4	0.3	25.1	12.1	13.0	18.0	12.7	5.3
스웨덴	5.4	6.6	-1.2	16.1	13.7	2.3	14.2	14.1	0.0
대한민국	5.7	3.6	2.1	36.5	17.7	18.8	20.5	10.4	10.2
이탈리아	5.9	4.6	1.4	31.7	23.2	8.5	21.7	22.9	-1.2
벨기에	6.1	5.4	0.7	30.4	22.7	7.8	16.5	16.7	-0.2
홍콩	6.2	7.5	-1.3	18.6	33.2	-14.5	6.7	8.6	-1.8
에스토니아	10.0	8.6	1.4	42.9	44.2	-1.3	25.1	30.0	-4.9
불가리아	10.4	9.0	1.4	50.3	36.9	13.4	38.6	36.9	1.7
노르웨이	10.5	9.3	1.2	32.3	19.6	12.7	14.4	23.9	-9.4
칠레	11.3	9.1	2.3	39.9	39.9	0.0	38.4	42.0	-3.6
콜롬비아	11.7	13.9	-2.2	54.4	56.6	-2.2	34.1	45.4	-11.4
러시아	13.5	11.2	2.2	35.3	30.1	5.1	53.6	62.0	-8.4
라트비아	14.9	9.0	5.9	41.8	38.2	3.6	28.3	37.9	-9.5
멕시코	15.3	15.1	0.2	49.3	46.4	2.9	33.3	39.1	-5.7
몰타	16.6	14.5	2.1	45.9	36.2	9.7	19.1	17.3	1.8
리투아니아	19.0	11.1	7.8	41.6	23.2	18.4	20.5	24.8	-4.3
페루	19.4	-	-	51.6	-	-	40.0	-	-
도미니카	22.9	25.3	-2.4	66.7	69.5	-2.8	47.6	58.3	-10.7
ICCS평균	10.5	9.4	1.1	37.5	31.7	5.8	25.6	29.7	-4.1

(9) 학교 내 시민참여 : 학생회 및 학교 내 의결 참여 경험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채널은 학교 밖뿐만 아니라 교내에도 존재하며, 원칙적으로 학교내에서의 시민 참여는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통해 진행되므로 시민지식 점수나 자기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내 시민참여 경험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경험은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의 학생회 관련 투표참여 경험은 2009년의 76.3%에서 11.4%p 증가한 87.7%로,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의 결의에 참여한 경험은 33%에서 20.5%p 증가한 53.4%로, 그리고 학생회 임원 후보로 출마해본 경험은 32.8%에서 14% 증가한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의 참여에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여전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

표 III-38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학생대표, 학생회임원 선출 투표 참여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임원후보 출마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노르웨이	93.4	90.0	3.4	58.7	55.9	2.8	57.6	59.1	-1.5
칠레	91.1	89.3	1.7	48.7	39.2	9.5	46.4	47.4	-1.0
크로아티아	91.0	-	-	20.2	-	-	57.8	-	-
콜롬비아	90.2	89.8	0.5	49.4	56.7	-7.2	41.9	43.8	-1.9
스웨덴	89.0	85.4	3.6	64.0	53.5	10.5	46.8	40.4	6.4
리투아니아	88.8	83.9	5.0	42.9	35.0	7.9	46.8	30.1	16.7
대한민국	87.7	76.3	11.4	53.4	33.0	20.5	46.8	32.8	14.0
핀란드	85.2	82.9	2.3	26.7	14.9	11.8	46.0	34.8	11.2
페루	84.0	-	-	45.3	-	-	45.2	-	-
러시아	83.6	76.2	7.4	33.2	32.3	0.9	25.0	28.3	-3.3
슬로베니아	83.6	84.4	-0.8	24.1	27.6	-3.5	59.1	59.0	0.1
독일	82.1	-	-	50.4	-	-	59.6	-	-
덴마크	79.6	73.2	6.4	47.2	43.6	3.6	50.5	49.0	1.5
몰타	78.3	62.4	15.9	41.8	29.2	12.6	48.3	23.6	24.7
멕시코	76.1	73.6	2.5	56.5	54.0	2.5	41.8	36.0	5.8
에스토니아	74.3	74.5	-0.2	28.8	24.1	4.7	29.9	31.7	-1.8
대만	72.1	67.4	4.8	42.5	43.4	-0.9	33.5	32.3	1.2
홍콩	71.2	73.7	-2.5	29.8	28.3	1.5	30.4	31.7	-1.2

	학생대표, 학생회임원 선출 투표 참여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임원후보 출마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도미니카	65.9	60.7	5.2	59.9	59.2	0.7	61.8	57.7	4.1
벨기에	63.7	67.8	-4.1	37.4	35.8	1.6	37.1	34.0	3.0
라트비아	62.5	67.1	-4.6	29.7	31.0	-1.2	34.2	39.3	-5.1
불가리아	56.2	51.6	4.5	32.2	31.5	0.7	36.7	34.1	2.5
네덜란드	50.9	51.6	-	27.1	27.4	-0.3	21.1	22.3	-
이탈리아	50.5	48.6	1.9	36.2	34.3	1.9	21.6	21.3	0.2
ICCS평균	76.9	73.8	3.1	42.2	39.0	3.3	42.5	39.0	3.5

(10) 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할 의지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참여 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또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성인이 되어 각종 선거에 투표할 의지를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서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의 48.5%에서 2016년에는 50.8%로 2.3%p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ICCS 평균인 51.3% 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III-39 ICCS 2016 참여국가별 미래 투표참여의사

	2016		2009		격차
페루	54.6	(0.2)	-		-
노르웨이	54.4	(0.1)	52.3	(0.3)	2.1
이탈리아	54.2	(0.2)	54.1	(0.2)	0.1
스웨덴	53.2	(0.2)	49.0	(0.3)	4.2
콜롬비아	53.2	(0.2)	53.7	(0.2)	(0.5)
도미니카	53.1	(0.2)	52.2	(0.3)	0.9
대만	52.9	(0.2)	50.8	(0.2)	2.1

	2016		2009		격차
덴마크	52.4	(0.2)	49.1	(0.2)	3.3
멕시코	52.4	(0.2)	53.1	(0.2)	(0.7)
리투아니아	52.2	(0.2)	51.8	(0.2)	0.4
크로아티아	51.2	(0.2)	-		-
대한민국	50.8	(0.3)	48.5	(0.2)	2.3
러시아	50.7	(0.3)	51.3	(0.2)	(0.6)
핀란드	50.6	(0.2)	49.2	(0.2)	1.5
칠레	50.2	(0.2)	49.8	(0.3)	0.3
몰타	50.0	(0.2)	49.3	(0.4)	0.7
슬로베니아	49.7	(0.3)	49.6	(0.2)	0.1
불가리아	49.6	(0.3)	47.7	(0.3)	1.9
라트비아	49.5	(0.2)	50.2	(0.3)	(0.7)
벨기에	48.5	(0.3)	45.5	(0.2)	3.0
에스토니아	48.1	(0.2)	46.6	(0.3)	1.4
홍콩	47.2	(0.3)	48.5	(0.3)	(1.3)
네덜란드	46.9	(0.3)	46.6	(0.4)	0.3
독일	46.5	(0.4)	-		-
ICCS 평균	51.3	(0.0)	50.3	(0.1)	1.1

(11) 부모학력,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미래 투표 참여 의사

부모의 학력과 청소년 개인의 정치적 관심여부, 그리고 시민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선거 참여 의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래 선거 참여의사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변인은 정치적 관심의 수준이 아니라 시민지식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시민지식 점수수준이 B레벨 이상인 청소년들의 미래 투표 참여의사가 52.8% 였던 반면, B레벨 미만인 청소년들의 참여의사는 그보다 5.3%p 낮은 47.6%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관심의 여부에 따른 차이는 4.5%p로 이보다 작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 역시 존재하지만 비교적 적었다.

표 III-40 ICCS 2016 부모학력,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과 미래 투표 참여의사

	부모의 학력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여부		시민지식 수준	
	양친 모두 대졸미만	양친 중 한명 이상 대졸	정치에 관심 없음	정치에 관심 있음	B 레벨 미만	B 레벨 이상
노르웨이	52.6	55.9	52.9	57.7	47.1	55.8
페루	54.1	55.8	53.3	55.9	52.9	57.4
이탈리아	53.9	55.6	53.1	56.7	50.4	55.7
덴마크	51.9	54.6	50.0	56.1	45.6	53.4
스웨덴	52.1	54.3	50.6	56.6	48.0	54.1
대만	52.5	54.0	51.8	55.5	48.0	53.6
콜롬비아	52.9	53.9	52.0	56.0	51.2	54.8
도미니카	52.9	53.8	52.1	54.8	52.8	55.0
리투아니아	51.7	53.3	50.8	54.6	48.9	53.6
멕시코	52.2	53.2	51.4	55.2	50.9	54.1
크로아티아	50.6	52.8	49.6	54.0	47.1	52.5
칠레	49.4	52.7	49.0	54.5	47.3	52.7
핀란드	49.6	52.2	48.8	54.4	44.0	51.6
대한민국	49.2	51.9	48.9	52.8	45.7	52.3
슬로베니아	48.8	51.5	48.6	53.4	44.9	51.3
라트비아	48.2	51.5	48.3	52.7	46.4	51.6
몰타	49.6	51.4	48.1	53.6	47.4	51.7
러시아	50.1	51.3	48.6	53.2	48.5	51.3
불가리아	48.8	50.5	48.3	52.6	47.2	51.4
벨기에	47.0	49.8	47.3	52.0	44.8	49.7
홍콩	46.6	49.6	44.3	50.7	43.1	49.2
네덜란드	45.3	49.5	45.8	51.8	42.0	49.2
에스토니아	47.2	49.3	46.5	51.3	43.9	49.1
ICCS 평균	50.6	52.7	49.9	54.4	47.6	52.8

(12)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은 시민사회 구성과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 중의 하나이며 최근 가장 부각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ICCS 2016 조사결과, 참여국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은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1.2%p 증가했다. 단, 홍콩과 멕시코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대비 2.2%p 증가해서 ICCS 평균 증가치보다 높았다. 단 여전히 전체 참여국대비 양성평등의식의 순위는 11위 내외로 관련 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I-41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평등원칙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2016		2009		격차
스웨덴	57.2	(0.2)	55.3	(0.3)	1.9
노르웨이	56.7	(0.2)	54.1	(0.3)	2.7
대만	56.4	(0.2)	55.5	(0.2)	0.9
덴마크	56.2	(0.2)	54.3	(0.2)	1.9
독일	54.9	(0.3)	-		-
핀란드	54.6	(0.2)	53.3	(0.2)	1.3
벨기에	54.1	(0.3)	52.2	(0.3)	1.9
크로아티아	53.3	(0.3)	-		-
이탈리아	53.1	(0.2)	51.7	(0.2)	1.4
몰타	53.0	(0.2)	51.3	(0.3)	1.7
대한민국	52.7	(0.3)	50.5	(0.2)	2.2
슬로베니아	52.7	(0.2)	51.8	(0.2)	0.9
네덜란드	52.2	(0.3)	51.5	(0.5)	0.7
칠레	52.2	(0.3)	51.1	(0.3)	1.1

	2016		2009		격차
에스토니아	50.8	(0.3)	48.9	(0.3)	1.9
홍콩	50.7	(0.4)	51.5	(0.3)	-0.8
콜롬비아	50.3	(0.3)	49.3	(0.2)	1.0
리투아니아	48.9	(0.2)	48.2	(0.2)	0.7
페루	48.7	(0.3)	-		-
라트비아	46.5	(0.2)	45.9	(0.2)	0.5
불가리아	46.2	(0.3)	45.8	(0.3)	0.4
멕시코	45.3	(0.1)	45.4	(0.1)	-0.2
러시아	44.3	(0.2)	43.6	(0.1)	0.8
도미니카	44.3	(0.2)	43.5	(0.2)	0.8
ICCS 평균	51.3	(0.1)	50.1	(0.1)	1.2

(13) 인종 평등의식

인종이나 이민족간의 평등의식 역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사회 구성과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다.

ICCS에서는 특히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OECD국가들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인종/민족 평등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참여국 청소년들의 다민족/다인종 평등의식은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인종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2.7%p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에는 다민족평등의식이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낮은 49.1% 였으나 2016년에는 6.4%p 증가하여 조사대상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결과의 해석에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 -42 ICCS 2016 참여국가별 다민족/다인종 평등에 동의하는 청소년비율

	2016		2009		격차
대만	58.1	(0.2)	56.8	(0.2)	1.2
스웨덴	57.4	(0.3)	52.0	(0.3)	5.4
칠레	56.6	(0.2)	54.5	(0.2)	2.1
대한민국	55.7	(0.3)	49.3	(0.2)	6.4
노르웨이	55.4	(0.2)	50.8	(0.3)	4.6
멕시코	55.0	(0.2)	52.4	(0.2)	2.5
페루	54.2	(0.2)	-		-
홍콩	54.1	(0.3)	52.0	(0.3)	2.1
독일	54.0	(0.4)	-		-
콜롬비아	54.0	(0.2)	53.0	(0.2)	1.0
도미니카	54.0	(0.2)	50.8	(0.3)	3.1
리투아니아	52.9	(0.2)	50.0	(0.2)	2.8
에스토니아	52.8	(0.2)	50.7	(0.2)	2.1
핀란드	52.6	(0.2)	47.8	(0.2)	4.9
크로아티아	52.1	(0.2)	-		-
러시아	51.9	(0.4)	48.3	(0.2)	3.6
이탈리아	51.7	(0.2)	49.2	(0.2)	2.5
덴마크	51.2	(0.2)	48.5	(0.3)	2.7
슬로베니아	51.0	(0.2)	49.3	(0.2)	1.7
몰타	50.6	(0.2)	46.3	(0.3)	4.3
벨기에	50.3	(0.3)	47.8	(0.3)	2.5
네덜란드	48.9	(0.3)	47.1	(0.3)	1.8
불가리아	48.8	(0.3)	48.3	(0.2)	0.5
라트비아	47.7	(0.2)	45.9	(0.2)	1.8
ICCS 평균	52.9	(0.1)	50.1	(0.1)	2.7

○ ————— IV. 2018 청소년 역량 자수의 현황 및 실태분석

-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 3.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현황 및 실태 종합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차 년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이 연구는 2018년 5차 년도 마지막 연구로서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고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량을 측정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수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역량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묵과할 수는 없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했지만, 측정도구에 대해 반복 측정하여 검증해 보는 과정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재확인 하기 위하여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교급: 청소년 성장시기별, 학업성취수준, 경제적 수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역량군별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장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1)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는 2016년도 장근영 외(2016)가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단축형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세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은 사고력 6문항(비판적 사고력 3문항, 감성적 사고력 3문항), 지적도구활용능력 12문항(언어능력 3문항, 수학능력 3문항, 과학능력 3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3문항), 학습적응성 6문항(변화수용력 2문항, 지적호기심 2문항, 학습주도성 2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문항에 대한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_01	3.07	.556	-.240	1.280	.640**	.616
		문_02	3.07	.579	-.204	.724	.649**	
		문_03	3.13	.614	-.284	.417	.647**	
	감성적 사고력	문_04	2.85	.828	-.265	-.548	.568**	
		문_05	3.25	.655	-.525	.220	.593**	
		문_06	2.85	.719	-.273	-.066	.482**	
전체			3.04	.389	-.134	1.572	-	
지적 도구 활용 능력	언어 능력	문_01	2.82	.678	-.217	.014	.530**	.821
		문_02	2.93	.687	-.248	-.034	.566**	
		문_03	2.70	.937	-.172	-.884	.509**	
	수학 능력	문_04	2.87	.815	-.405	-.283	.636**	
		문_05	2.89	.764	-.363	-.143	.671**	
		문_06	2.60	.975	-.134	-.973	.603**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지적 도구 활용 능력	과학 능력	문_07	2.58	.874	.003	-.712	.641**	.821
		문_08	2.51	.825	.000	-.541	.709**	
		문_09	2.68	.936	-.205	-.839	.631**	
	정보통신 활용능력	문_10	3.23	.728	-.772	.512	.574**	
		문_11	2.99	.847	-.505	-.404	.576**	
		문_12	3.09	.899	-.780	-.152	.376**	
전체			2.83	.485	-.066	.208	-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문_01	3.01	.638	-.358	.572	.583**	.692
		문_02	2.56	.744	.089	-.355	.546**	
	지적 호기심	문_03	3.23	.682	-.548	.096	.658**	
		문_04	3.20	.663	-.484	.226	.617**	
	학습 주도성	문_05	2.65	.785	.017	-.509	.690**	
		문_06	2.98	.740	-.467	.122	.673**	
전체			2.94	.446	.005	.457	-	

*** $p < .001$, ** $p < .01$, * $p < .05$

사고력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3.04($SD=.389$)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85($SD=.719$)~3.25($SD=.655$)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204~-1.525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066~1.28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이하일 경우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et al., 1996),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482\sim.649$,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사고력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616$ 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83($SD=.485$)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51($SD=.825$)~3.23($SD=.728$)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000~-1.780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014~-.973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376\sim.70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지적도구활용능력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21$ 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94($SD=.446$)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56($SD=.744$)~3.23($SD=.682$)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017~.548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096~.572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546\sim.69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학습적응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692$ 로 나타났다.

2)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은 2016년도 장근영 외(2016)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개발한 단축형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은 2016,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과 마찬가지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의 네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 문항은 건강관리 8문항(위생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문항), 과제관리 6문항(목표 및 계획 수립 3문항, 수행 및 평가 3문항), 상황대처 12문항(중독인식 3문항, 중독행동 3문항, 폭력행동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정서조절 9문항(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문항에 대한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건강 관리	위생관리	문_01	3.23	.720	-.637	.039	.363**	.730
		문_02	3.61	.612	-1.533	2.252	.247**	
		문_03	3.24	.689	-.551	-.056	.320**	
	신체관리	문_04	2.93	.819	-.317	-.552	.430**	
		문_05	2.69	.940	-.005	-1.013	.285**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문_06	3.25	.700	-.627	.115	
	문_07		3.35	.626	-.592	.284	.382**	
	문_08		3.23	.716	-.758	.562	.278**	
전체			3.15	0.453	-.084	-.161	-	
과제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문_01	2.99	.702	-.419	.236	.372**	.855
		문_02	3.00	.721	-.367	-.047	.401**	
		문_03	3.05	.668	-.486	.645	.352**	
	수행 및 평가	문_04	2.89	.730	-.293	-.115	.390**	
		문_05	2.86	.768	-.289	-.276	.408**	
		문_06	2.89	.746	-.328	-.128	.358**	
전체			2.95	0.550	-.268	.688	-	
상황 대처	중독인식	문_01	2.52	1.166	.047	-1.471	.344**	.855
		문_02	2.72	1.015	-.022	-1.254	.487**	
		문_03	2.87	1.004	-.230	-1.230	.462**	
	증독행동	문_04	2.93	.973	-.361	-1.041	.519**	
		문_05	2.96	.986	-.446	-.986	.490**	
		문_06	3.30	.862	-.984	-.005	.492**	
	폭력행동	문_07	3.64	.588	-1.561	2.234	.376**	
		문_08	3.70	.570	-1.973	3.934	.419**	
		문_09	3.43	.784	-1.248	.834	.445**	
	폭력회피	문_10	3.41	.714	-.989	.384	.506**	
		문_11	3.19	.892	-.796	-.369	.414**	
		문_12	3.36	.803	-1.082	.429	.452**	
전체			3.17	0.544	-.299	-.248	-	
정서 조절	분노행동	문_01	3.01	.869	-.418	-.728	.489**	.724
		문_02	3.47	.720	-1.279	1.190	.461**	
	감정절제	문_03	3.33	.794	-.996	.274	.501**	
		문_04	2.86	.955	-.326	-.924	.414**	
	조절실패	문_05	2.75	.959	-.133	-1.038	.424**	
		문_06	2.78	.946	-.211	-.947	.435**	
	감정인식	문_07	2.84	.880	-.543	-.306	.183**	
		문_08	3.07	.838	-.828	.330	.153**	
		문_09	2.92	.844	-.620	-.042	.139**	
전체			3.00	0.487	-.046	-.177	-	

***p<.001, **p<.01, *p<.05

건강관리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3.15($SD=0.453$)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69 ($SD=.940$)~3.61($SD=.61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1.533~-1.005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1.1013~2.252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이하일 경우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et al., 1996),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247\sim.43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건강관리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730$ 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89 ($SD=.746$)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86 ($SD=.768$)~3.05 ($SD=.668$)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486~-1.289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276~.645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352\sim.40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과제관리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55$ 로 나타났다.

상황대처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3.17 ($SD=.544$)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52($SD=1.166$)~3.70 ($SD=.570$)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1.973~-1.047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1.471~3.934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344\sim.51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상황대처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55$ 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3.00 ($SD=.487$)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75 ($SD=.959$)~3.47 ($SD=.720$)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1.279~-1.133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1.038~1.190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139\sim.50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정서조절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724$ 로 나타났다.

3)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는 2016년도 장근영 외(2016)가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단축형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세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은 진로설계 9문항(자기탐색 2문항, 직업탐색 3문항, 직업가치관 2문항, 진로준비 2문항), 여가활용 10문항(여가태도 3문항, 여가유능감 3문항, 여가만족 2문항, 여가몰입 2문항), 개척정신 6문항(차별화태도 3문항, 도전정신 3문항) 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문항에 대한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왜도의 절대값은 2이하이고 첨도의 절대값은 7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문항의 상관관계 계수 절대값은 .50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가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하는 총 25문항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736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진로 설계	자기탐색	문_01	3.14	.645	-.400	.384	.659**	.811
		문_02	3.17	.665	-.459	.256	.612**	
	직업탐색	문_03	2.61	.856	.016	-.685	.660**	
		문_04	3.02	.780	-.505	-.105	.730**	
	직업 가치관	문_05	2.68	.802	-.109	-.481	.654**	
		문_06	3.45	.666	-1.104	1.191	.597**	
	진로준비	문_07	3.31	.690	-.777	.488	.521**	
		문_08	2.97	.821	-.314	-.672	.677**	
		문_09	2.94	.685	-.282	.053	.563**	
소계			3.03	.468	-.172	.298	-	
여가 활용	여가태도	문_01	3.29	.632	-.521	.278	.660**	.859
		문_02	3.51	.566	-.766	.354	.654**	
		문_03	3.32	.676	-.702	.243	.595**	
	여가 유능감	문_04	2.70	.788	-.046	-.521	.589**	
		문_05	3.01	.860	-.448	-.634	.650**	
		문_06	2.73	.808	-.162	-.488	.556**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여가 활용	여가만족	문_07	3.29	.676	-.637	.191	.760**	.859
		문_08	3.14	.709	-.437	-.173	.776**	
	여가몰입	문_09	3.08	.696	-.388	-.016	.755**	
		문_10	3.41	.618	-.717	.362	.704**	
소계			3.16	.474	-.276	.271	-	
개척 정신	차별화 태도	문_01	2.71	.755	.000	-.473	.657**	.731
		문_02	2.72	.747	.023	-.485	.664**	
		문_03	2.73	.727	-.032	-.377	.564**	
	도전정신	문_04	2.94	.808	-.308	-.543	.724**	
		문_05	2.89	.816	-.257	-.579	.746**	
		문_06	2.55	.875	.082	-.723	.571**	
전체			2.75	.516	.099	.096	-	

*** $p < .001$, ** $p < .01$, * $p < .05$

진로설계 역량지수 측정문항 9개의 문항 평균은 3.03($SD=.468$)이고 평균의 범위는 2.61($SD=.856$)~3.45($SD=.6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는 -1.104~.016이고, 첨도는 -.685~1.191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521\sim.730$ 이고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로설계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811$ 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 역량지수 측정문항 10개의 문항 평균은 3.16($SD=.474$)이고, 평균의 범위는 2.70($SD=.788$)~3.51($SD=.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766~- .046이고, 첨도는 -.634~.362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556\sim.776$ 이고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가활용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859$ 로 나타났다.

개척정신 역량지수 측정문항 6개의 문항 평균은 2.75($SD=.516$)이고, 평균의 범위는 2.55($SD=.875$)~2.94($SD=.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308~.082이고, 첨도는 -.723~- .377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564\sim.746$ 이고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개척정신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731$ 로 나타났다.

4)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는 2016년도 장근영 외(2016)가 청소년 역량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단축형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세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은 관계형성 12문항(자기개방성 3문항, 친화성 3문항, 의사소통 3문항, 공감 및 배려 3문항), 리더십 9문항(의사결정 3문항, 집단활동관리 3문항, 추진력 3문항), 협동 8문항(집단축진 3문항, 팔로워십 2문항, 갈등문제해결 3문항) 등 총 29문항이다. 측정문항에 대한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관계 형성	자기 개방성	문_1	3.25	0.76	-0.92	0.78	.578***	.881
		문_2	2.94	0.85	-0.50	-0.37	.552***	
		문_3	3.17	0.75	-0.65	0.14	.596***	
	친화성	문_4	2.85	0.85	-0.25	-0.66	.621***	
		문_5	2.95	0.80	-0.45	-0.22	.616***	
		문_6	3.08	0.78	-0.58	-0.03	.590***	
	의사소통	문_7	3.18	0.69	-0.53	0.21	.531***	
		문_8	3.20	0.69	-0.64	0.49	.589***	
		문_9	3.07	0.71	-0.49	0.23	.589***	
	공감 및 배려	문_10	3.23	0.64	-0.56	0.67	.606***	
		문_11	3.15	0.68	-0.49	0.27	.554***	
		문_12	3.29	0.60	-0.44	0.55	.526***	
전체			3.11	0.49	-0.30	0.82	-	
리더십	의사결정	문_1	2.94	0.64	-0.45	0.84	.658***	.899
		문_2	2.99	0.66	-0.44	0.65	.623***	
		문_3	3.12	0.63	-0.54	1.20	.625***	
	집단활동 관리	문_4	2.62	0.84	-0.04	-0.62	.656***	
		문_5	2.88	0.70	-0.37	0.23	.708***	
		문_6	2.81	0.77	-0.28	-0.25	.746***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리더십	추진력	문_7	2.90	0.69	-0.34	0.18	.728***	.899
		문_8	2.84	0.74	-0.24	-0.21	.601***	
		문_9	3.02	0.66	-0.52	0.86	.666***	
전체			2.90	0.53	-0.24	0.86	-	
협동	집단촉진	문_1	2.98	0.71	-0.37	0.10	.634***	.886
		문_2	2.99	0.67	-0.37	0.29	.673***	
		문_3	2.92	0.68	-0.34	0.25	.667***	
	팔로워십	문_4	3.30	0.60	-0.42	0.29	.597***	
		문_5	3.17	0.67	-0.51	0.42	.677***	
	갈등문제 해결	문_6	3.06	0.67	-0.41	0.33	.719***	
		문_7	2.96	0.74	-0.37	-0.12	.613***	
		문_8	3.09	0.67	-0.51	0.67	.669***	
전체			3.08	0.50	-0.28	0.84	-	

*** $p < .001$, ** $p < .01$, * $p < .05$

관계형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3.11($SD=.49$)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92 \sim -.25$ 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66 \sim .78$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이하일 경우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et al., 1996),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526 \sim .621$,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관계형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81$ 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90($SD=.53$)이었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54 \sim -.04$ 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62 \sim 1.20$ 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601 \sim .746$,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리더십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99$ 로 나타났다.

협동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3.08($SD=.50$)이었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51 \sim -.34$ 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12~.67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수의 범위는 $r=.597\sim.71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협동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86$ 으로 나타났다.

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세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은 개인시민성 14문항(권리·책임의식 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문항,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8문항), 공동체시민성 20문항(공적 실천 2문항, 사회적 신뢰 4문항, 적극적 의견 표현 9문항, 교실개방성 5문항), 세계시민성 13문항(성 인지 2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 3문항, 국가 및 역사의식 4문항, 국제관계 이해 4문항) 등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문항에 대한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문항 분석 결과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개인 시민성	권리· 책임의식	문_01	3.46	.591	-.736	.363	.545**	.807
		문_02	3.35	.637	-.590	.010	.441**	
		문_03	3.47	.603	-.830	.501	.488**	
		문_04	3.46	.643	-1.039	1.038	.493**	
	민주적 절차 및 의식	문_05	2.86	.898	-.413	-.592	.616**	
		문_06	2.90	.892	-.399	-.644	.614**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문_07	2.73	.773	-.321	-.177	.528**	
		문_08	2.93	.738	-.576	.444	.515**	
		문_09	2.73	.757	-.279	-.170	.343**	
		문_10	2.32	.747	.274	-.150	.408**	
		문_11	2.23	.768	.390	-.059	.368**	
		문_12	2.29	.765	.316	-.158	.338**	
		문_13	2.41	.857	.061	-.640	.397**	
		문_14	2.51	.768	-.056	-.374	.470**	
전체			2.95	.392	.076	-.340	-	

하위 역량	세부 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공동체 시민성	공적 실천	문_01	3.45	.788	-1.468	1.688	.603**	.829
		문_02	2.99	.843	-.616	-.115	.682**	
	사회적 신뢰	문_03	2.49	.731	-.230	-.298	.560**	
		문_04	2.20	.722	.232	-.126	.508**	
		문_05	2.29	.765	.097	-.395	.522**	
		문_06	2.38	.764	-.024	-.428	.385**	
	적극적 의견 표현	문_07	3.37	.599	-.661	1.040	.415**	
		문_08	3.19	.609	-.471	1.095	.416**	
		문_09	3.34	.629	-.645	.568	.445**	
		문_10	3.35	.629	-.691	.755	.384**	
		문_11	2.87	.871	-.430	-.473	.497**	
		문_12	2.64	.856	-.122	-.623	.524**	
		문_13	2.81	.844	-.364	-.417	.530**	
		문_14	2.65	.867	-.108	-.675	.474**	
	교실 개방성	문_15	2.02	.856	.503	-.423	.309**	
		문_16	2.23	.734	.088	-.364	.241**	
		문_17	2.07	.772	.231	-.520	.402**	
		문_18	2.60	.840	-.223	-.515	.497**	
		문_19	2.34	.856	.046	-.696	.443**	
		문_20	2.49	.881	-.086	-.717	.471**	
전체			2.70	.392	-509	1.158	-	
세계 시민성	성 인지	문_01	3.30	.760	-.834	.092	.512**	.674
		문_02	3.30	.772	-.863	.123	.508**	
	이민자에 대한 태도	문_03	3.00	.758	-.429	-.125	.590**	
		문_04	2.87	.706	-.263	-.042	.585**	
		문_05	2.79	.787	-.247	-.345	.556**	
	국가 및 역사의식	문_06	2.55	.798	-.083	-.448	.255**	
		문_07	2.79	.738	-.514	.268	.376**	
		문_08	2.59	.871	-.273	-.598	.256**	
		문_09	3.07	.672	-.573	.868	.384**	
	국제관계 이해	문_10	2.56	.759	-.183	-.307	.389**	
		문_11	2.64	.756	-.295	-.185	.424**	
		문_12	2.97	.726	-.485	.270	.448**	
		문_13	3.05	.687	-.462	.394	.467**	
전체			2.93	.345	-139	.317	-	

***p<.001, **p<.01, *p<.05

개인시민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95(SD=.392)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23(SD=.768)~3.47(SD=.603)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 절대값의 범위는 -.056~-1.039이었으며, 첨도 절대값의 범위는 .010~1.038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338\sim.61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개인시민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07$ 로 나타났다.

공동체시민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70(SD=.392)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02(SD=.856)~3.45(SD=.788)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 절대값의 범위는 -.024~-1.468이었으며, 첨도 절대값의 범위는 -.115~1.688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241\sim.68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공동체시민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829$ 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93(SD=.345)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55(SD=.789)~3.30(SD=.772)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 절대값의 범위는 -.083~-1.863이었으며, 첨도 절대값의 범위는 -.042~.868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r=.255\sim.59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세계시민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674$ 로 나타났다.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1)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1)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력과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은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의 세부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6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생애학습역량	전체		2.93	.367
	사고력	비판적사고력	3.09	.467
		감성적사고력	2.98	.488
		전체	3.04	.389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2.82	.575
		수학능력	2.79	.693
		과학능력	2.59	.756
		정보통신활용능력	3.11	.652
		전체	2.83	.485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2.78	.543
		지적호기심	3.22	.554
		학습주도성	2.81	.657
		전체	2.94	.446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전체 평균은 2.93(SD=.367)이었으며, 하위역량인 사고력은 3.04(SD=.389), 지적도구활용능력은 2.83(SD=.485), 학습적응성은 2.94(SD=.446)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중 사고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적응성, 지적도구활용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세부역량별 평균을 살펴보면, 사고력의 세부역량의 경우 비판적 사고력 3.09(SD=.467), 감성적 사고력 2.98(SD=.488)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로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의 경우 언어능력 2.82(SD=.575), 수학능력 2.79(SD=.693), 과학능력 2.59(SD=.756), 정보통신활용능력 3.11(SD=.652)로 나타나, 정보통신활용능력이 가장 높았고 과학능력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습적응성의 세부역량의 경우 변화수용력 2.78(SD=.543), 지적호기심 3.22(SD=.554), 학습주도성 2.81(SD=.657)로 나타나, 지적호기심이 가장 높았고 변화수용력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세부역량 중 지적호기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활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학능력이 가장 낮았다.



그림 IV-1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7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역량	1	2	3
1. 사고력			
2. 지적도구활용능력	.497**		
3. 학습적응성	.527**	.588**	

*** $p < .001$, ** $p < .01$, * $p < .05$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간 상관관계수 $r = .497 \sim .588$,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적도구활용능력과 학습적응성의 상관관계수 $r = .527$ 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상관관계수 $r = .497$ 로 가장 낮았다.

표 IV-8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 비판적 사고력									
2. 감성적 사고력	.325**								
3. 언어능력	.512**	.286**							
4. 수학능력	.399**	.149**	.392**						
5. 과학능력	.364**	.142**	.375**	.536**					
6. 정보통신활용능력	.359**	.201**	.379**	.286**	.217**				
7. 변화수용력	.349**	.251**	.349**	.247**	.251**	.259**			
8. 지적호기심	.386**	.274**	.414**	.318**	.336**	.294**	.377**		
9. 학습주도성	.457**	.237**	.447**	.363**	.359**	.272**	.311**	.418**	

*** $p < .001$, ** $p < .01$, * $p < .05$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 간 상관계수 $r=.142\sim.53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학적능력과 과학능력의 상관계수 $r=.536$ 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성적 사고력과 과학능력의 상관계수 $r=.142$ 로 가장 낮았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9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생애학습역량		하위역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98	2.93	.367	3.04	.389	2.83	.485	2.94	.446
성별	남	2064	2.93	.376	3.01	.403	2.82	.496	2.94	.447
	여	2034	2.94	.357	3.06	.373	2.84	.474	2.93	.444
	t 값	-	-1.521		-3.852***		-1.170		.578	
학교 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65	2.99	.404	3.08	.427	2.88	.496	3.00	.470
	중등(중기 청소년)(②)	1074	2.92	.361	3.03	.374	2.81	.497	2.91	.442
	고등(중기 청소년)(③)	1449	2.91	.353	3.02	.376	2.81	.480	2.91	.442
	대학(후기 청소년)(④)	410	2.91	.298	3.00	.346	2.79	.427	2.92	.377
	F 값	-	10.713*** ①>②,③,④		6.789*** ①>②,③,④		6.446*** ①>②,③,④		9.388***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56	3.09	.380	3.14	.410	3.06	.473	3.07	.461
	중(②)	2146	2.92	.325	3.02	.359	2.82	.435	2.93	.413
	하(③)	864	2.77	.372	2.95	.405	2.57	.486	2.80	.461
	F 값	-	170.335*** ①>②>③		53.820*** ①>②>③		245.055*** ①>②>③		82.328*** ①>②>③	

구분		사례수	생애학습역량		하위역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M	(SD)	M	(SD)	M	(SD)	M	(SD)
경제적 수준	상(①)	541	3.10	.380	3.16	.408	3.05	.504	3.08	.464
	중(②)	3022	2.92	.355	3.03	.381	2.81	.470	2.93	.432
	하(③)	526	2.84	.362	2.97	.390	2.69	.471	2.86	.468
	<i>F값</i>	-	77.164*** ①>②>③		32.659*** ①>②>③		78.607*** ①>②>③		35.756*** ①>②>③	
지역	서울(①)	599	2.99	.376	3.08	.409	2.91	.500	3.00	.459
	부산(②)	276	2.99	.364	3.06	.385	2.90	.477	3.00	.446
	대구(③)	232	2.93	.349	3.04	.384	2.88	.458	2.88	.453
	인천(④)	231	2.94	.417	3.04	.437	2.81	.550	2.97	.463
	광주(⑤)	119	2.94	.319	3.05	.326	2.85	.457	2.93	.400
	대전(⑥)	161	2.96	.332	3.01	.368	2.89	.438	2.97	.451
	울산(⑦)	120	2.94	.351	3.02	.361	2.85	.462	2.94	.410
	세종(⑧)	83	2.93	.318	3.05	.336	2.86	.456	2.89	.414
	경기(⑨)	933	2.94	.369	3.04	.385	2.82	.479	2.94	.458
	강원(⑩)	123	2.88	.328	3.01	.340	2.73	.458	2.89	.414
	충북(⑪)	140	2.90	.354	3.01	.367	2.74	.487	2.95	.423
	충남(⑫)	171	2.91	.396	3.03	.412	2.79	.519	2.91	.467
	전북(⑬)	167	2.79	.328	2.92	.360	2.67	.472	2.77	.395
	전남(⑭)	111	2.92	.365	3.04	.378	2.76	.470	2.95	.419
	경북(⑮)	222	2.90	.356	2.99	.387	2.81	.430	2.90	.427
	경남(⑯)	246	2.94	.365	3.05	.406	2.83	.481	2.95	.425
	제주(⑰)	164	2.87	.384	2.99	.406	2.70	.510	2.91	.454
	<i>F값</i>	-	3.907*** ①,②>⑬		1.972*		4.544*** ①>⑬		3.308*** ①,②>⑬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및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은 여자 청소년(M=2.94, SD=.357)이 남자 청소년(M=2.93, SD=.376)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은 여자 청소년(M=3.06, SD=.373)이 남자 청소년(M=3.01, SD=.403)보다 $t=-3.852$, $p<.0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여자 청소년(M=2.84, SD=.474)이 남자 청소년(M=2.82, SD=.4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적응성은 남자 청소년(M=2.94, SD=.447)이 여자 청소년(M=2.93, SD=.44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두 하위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및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은 $F=10.71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M=2.99$, $SD=.404$)이 중학생($M=2.92$, $SD=.361$), 고등학생($M=2.91$, $SD=.353$), 대학생($M=2.91$, $SD=.298$)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F=6.789$, $p<.001$), 지적도구활용능력($F=6.446$, $p<.001$), 학습적응성($F=9.388$,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력($M_{\text{초}}=3.08$, $M_{\text{중}}=3.03$, $M_{\text{고}}=3.02$, $M_{\text{대}}=3.00$), 지적도구활용능력($M_{\text{초}}=2.88$, $M_{\text{중}}=2.81$, $M_{\text{고}}=2.81$, $M_{\text{대}}=2.79$), 학습적응성($M_{\text{초}}=3.00$, $M_{\text{중}}=2.91$, $M_{\text{고}}=2.91$, $M_{\text{대}}=2.92$) 모두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및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은 $F=170.335$,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M=3.09$, $SD=.380$), 중 수준($M=2.92$, $SD=.325$), 하 수준($M=2.77$, $SD=.372$)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F=53.820$, $p<.001$), 지적도구활용능력($F=245.055$, $p<.001$), 학습적응성($F=82.328$,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력($M_{\text{상}}=3.14$, $M_{\text{중}}=3.02$, $M_{\text{하}}=2.95$), 지적도구활용능력($M_{\text{상}}=3.06$, $M_{\text{중}}=2.82$, $M_{\text{하}}=2.57$), 학습적응성($M_{\text{상}}=3.07$, $M_{\text{중}}=2.93$, $M_{\text{하}}=2.80$)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및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은 $F=77.164$,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 수준($M=3.10$, $SD=.380$), 중 수준($M=2.92$, $SD=.355$), 하 수준

($M=2.84$, $SD=.362$)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의 하위 역량인 사고력($F=32.659$, $p<.001$), 지적도구활용능력($F=78.607$, $p<.001$), 학습적응성($F=35.756$,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력($M_{상}=3.16$, $M_{중}=3.03$, $M_{하}=2.97$), 지적도구활용능력($M_{상}=3.05$, $M_{중}=2.81$, $M_{하}=2.69$), 학습적응성($M_{상}=3.08$, $M_{중}=2.93$, $M_{하}=2.86$) 모두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및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은 $F=3.907$,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M=2.99$, $SD=.376$)과 부산($M=2.99$, $SD=.364$) 지역의 청소년이 전북 지역 청소년($M=2.79$, $SD=.328$) 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F=1.972$, $p<.05$), 지적도구활용능력($F=4.544$, $p<.001$), 학습적응성($F=3.308$, $p<.001$) 모두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적도구활용능력의 경우 서울 지역 청소년($M=2.91$, $SD=.500$)이 전북 지역 청소년($M=2.67$, $SD=.472$)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학습적응성의 경우 서울($M=3.00$, $SD=.459$)과 부산($M=3.00$, $SD=.446$) 지역 청소년이 전북 지역 청소년($M=2.77$, $SD=.395$)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②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사고력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0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M	(SD)	M	(SD)
전체		4161	3.09	.467	2.98	.488
성별	남	2100	3.10	.486	2.93	.508
	여	2061	3.09	.448	3.03	.462
	<i>t</i> 값	-	.682		.682***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93	3.11	.492	3.05	.506
	중등(중기 청소년)②	1092	3.06	.459	2.99	.473
	고등(중기 청소년)③	1465	3.09	.472	2.94	.484
	대학(후기 청소년)④	411	3.09	.390	2.91	.466
	<i>F</i> 값	-	1.771		13.897***	
					①>②,③,④ / ②>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74	3.25	.470	3.02	.519
	중②	2175	3.07	.433	2.97	.472
	하③	880	2.94	.489	2.96	.484
	<i>F</i> 값	-	106.930***		4.261*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52	3.26	.489	3.06	.519
	중②	3061	3.08	.457	2.98	.479
	하③	539	3.00	.459	2.94	.499
	<i>F</i> 값	-	44.327***		7.500***	
			①>②>③		①>②,③	
지역	서울①	614	3.17	.467	2.99	.511
	부산②	278	3.13	.471	2.99	.511
	대구③	235	3.11	.453	2.97	.490
	인천④	235	3.11	.524	2.98	.503
	광주⑤	119	3.08	.396	3.01	.419
	대전⑥	164	3.07	.476	2.96	.481
	울산⑦	122	3.07	.472	2.96	.436
	세종⑧	83	3.12	.421	2.98	.432
	경기⑨	949	3.10	.465	2.99	.496
	강원⑩	126	3.03	.369	2.99	.479
	충북⑪	144	3.03	.495	2.99	.425
	충남⑫	171	3.07	.490	2.99	.524
	전북⑬	168	3.00	.439	2.85	.457
	전남⑭	114	3.02	.452	3.06	.441
	경북⑮	224	3.07	.457	2.92	.470
	경남⑯	250	3.05	.472	3.05	.496
	제주⑰	165	3.02	.496	2.96	.488
	<i>F</i> 값	-	2.556***		1.629	
			①>⑬			

*** $p < .001$, ** $p < .01$, * $p < .05$

성별에 따른 사고력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력은 남자 청소년($M=3.10$, $SD=.486$)이 여자 청소년($M=3.09$, $SD=.448$)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 사고력은 여자 청소년($M=3.03$, $SD=.462$)이 남자 청소년($M=2.93$, $SD=.508$)보다 $t=.682$, $p<.0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사고력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학교급에 따른 감성적 사고력은 $F=13.897$,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M=3.05$, $SD=.506$)이 중학생($M=2.99$, $SD=.473$), 고등학생($M=2.94$, $SD=.484$), 대학생($M=2.91$, $SD=.466$)보다,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사고력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고력역량의 세부역량인 비판적 사고력($F=106.930$, $p<.001$)과 감성적 사고력($F=4.261$, $p<.05$)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력($M_{상}=3.25$, $M_{중}=3.07$, $M_{하}=2.94$)의 경우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감성적 사고력의 경우 상 수준($M=3.02$, $SD=.519$)이 하 수준($M=2.96$, $SD=.484$)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고력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고력역량의 세부역량인 비판적 사고력($F=44.327$, $p<.001$)과 감성적 사고력($F=7.500$,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력($M_{상}=3.26$, $M_{중}=3.08$, $M_{하}=3.00$)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감성적 사고력의 경우 상 수준($M=3.06$, $SD=.519$)이 중 수준($M=2.98$, $SD=.479$)과 하 수준($M=2.94$, $SD=.499$)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사고력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은 $F=2.556$,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청소년($M=3.17$, $SD=.467$)이 전북 지역 청소년($M=3.00$, $SD=.439$)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반면, 지역에 따른 감성적 사고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③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1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M	(SD)	M	(SD)	M	(SD)	M	(SD)
전체		4133	2.82	.575	2.79	.693	2.59	.756	3.11	.652
성별	남	2082	2.75	.591	2.82	.709	2.66	.759	3.04	.662
	여	2051	2.88	.551	2.76	.675	2.52	.746	3.18	.633
	<i>t</i> 값	-	-7.224***		2.816**		5.744***		-6.94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80	2.87	.613	2.96	.657	2.78	.707	2.90	.714
	중등(중기 청소년)②	1083	2.78	.568	2.79	.702	2.49	.742	3.16	.630
	고등(중기 청소년)③	1459	2.80	.566	2.67	.703	2.53	.783	3.24	.597
	대학(후기 청소년)④	411	2.83	.496	2.72	.640	2.52	.731	3.09	.557
	<i>F</i> 값	-	4.898** ①>②,③		40.091*** ①>②,③,④ / ②>③		39.912*** ①>②,③,④		57.475*** ②,③,④>① / ③>②,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65	3.02	.584	3.17	.604	2.87	.749	3.16	.658
	중②	2165	2.81	.545	2.77	.636	2.57	.717	3.12	.633
	하③	870	2.61	.557	2.37	.676	2.30	.739	3.00	.678
	<i>F</i> 값	-	131.335*** ①>②>③		381.512*** ①>②>③		148.500*** ①>②>③		14.640***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46	3.05	.595	3.07	.733	2.86	.800	3.21	.680
	중②	3048	2.80	.560	2.77	.666	2.57	.735	3.09	.641
	하③	530	2.67	.570	2.59	.708	2.41	.746	3.07	.668
	<i>F</i> 값	-	64.481*** ①>②>③		62.577*** ①>②>③		47.495*** ①>②>③		8.454*** ①>②,③	

구분		사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M	(SD)	M	(SD)	M	(SD)	M	(SD)
지역	서울(①)	605	2.88	.595	2.90	.697	2.62	.785	3.22	.660
	부산(②)	277	2.89	.555	2.85	.712	2.65	.758	3.20	.639
	대구(③)	233	2.82	.598	2.92	.639	2.66	.745	3.13	.655
	인천(④)	233	2.83	.589	2.74	.726	2.51	.812	3.15	.729
	광주(⑤)	119	2.79	.550	2.85	.621	2.66	.774	3.09	.679
	대전(⑥)	162	2.85	.615	2.87	.631	2.67	.737	3.15	.559
	울산(⑦)	121	2.92	.560	2.72	.720	2.61	.772	3.16	.586
	세종(⑧)	83	2.85	.554	2.82	.627	2.66	.753	3.10	.700
	경기(⑨)	941	2.82	.579	2.80	.688	2.61	.733	3.06	.633
	강원(⑩)	126	2.72	.537	2.66	.651	2.55	.724	2.99	.623
	충북(⑪)	142	2.82	.553	2.61	.701	2.48	.792	3.06	.705
	충남(⑫)	173	2.78	.625	2.76	.731	2.56	.747	3.07	.683
	전북(⑬)	168	2.67	.531	2.62	.701	2.36	.739	3.02	.636
	전남(⑭)	113	2.79	.538	2.66	.692	2.58	.665	3.00	.658
	경북(⑮)	225	2.78	.545	2.75	.643	2.59	.678	3.11	.580
	경남(⑯)	247	2.80	.548	2.79	.700	2.65	.762	3.05	.685
	제주(⑰)	165	2.72	.550	2.65	.738	2.39	.799	3.03	.644
<i>F값</i>		-	2.411**		4.266***		2.676***		1042.200*** ①>⑨	

*** $p<.001$, ** $p<.01$, * $p<.05$

성별에 따른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어능력($M_{\text{남자}}=2.75$, $M_{\text{여자}}=2.88$, $t=-7.224$, $p<.001$)과 정보통신활용능력($M_{\text{남자}}=3.04$, $M_{\text{여자}}=3.18$, $t=-6.945$, $p<.001$)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수학능력($M_{\text{남자}}=2.82$, $M_{\text{여자}}=2.76$, $t=2.816$, $p<.01$)과 과학능력($M_{\text{남자}}=2.66$, $M_{\text{여자}}=2.52$, $t=5.744$, $p<.001$)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언어능력($F=4.898$, $p<.01$), 수학능력($F=40.091$, $p<.001$), 과학능력($F=39.912$, $p<.001$), 정보통신활용능력

($F=57.475$,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능력의 경우 초등학생($M=2.87$, $SD=.613$)이 중학생($M=2.78$, $SD=.568$)과 고등학생($M=2.80$, $SD=.566$)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수학능력의 경우 초등학생($M=2.96$, $SD=.657$)이 중학생($M=2.79$, $SD=.702$), 고등학생($M=2.67$, $SD=.703$), 대학생($M=2.72$, $SD=.640$)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과학능력의 경우 초등학생($M=2.78$, $SD=.707$)이 중학생($M=2.49$, $SD=.742$), 고등학생($M=2.53$, $SD=.783$), 대학생($M=2.52$, $SD=.731$)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 중학생($M=3.16$, $SD=.630$), 고등학생($M=3.24$, $SD=.597$), 대학생($M=3.09$, $SD=.557$)이 초등학생($M=2.90$, $SD=.714$)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대학생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언어능력($F=131.335$, $p<.001$), 수학능력($F=381.512$, $p<.001$), 과학능력($F=148.500$, $p<.001$), 정보통신활용능력($F=14.640$, $p<.001$) 모두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능력($M_{\text{상}}=3.02$, $M_{\text{중}}=2.81$, $M_{\text{하}}=2.61$), 수학능력($M_{\text{상}}=3.17$, $M_{\text{중}}=2.77$, $M_{\text{하}}=2.37$), 과학능력($M_{\text{상}}=2.87$, $M_{\text{중}}=2.57$, $M_{\text{하}}=2.30$)의 경우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 상 수준($M=3.16$, $SD=.658$)과 중 수준($M=3.12$, $SD=.633$)이하 수준($M=3.00$, $SD=.678$)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언어능력($F=64.481$, $p<.001$), 수학능력($F=62.577$, $p<.001$), 과학능력($F=47.495$, $p<.001$), 정보통신활용능력($F=8.454$,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능력($M_{\text{상}}=3.05$, $M_{\text{중}}=2.80$, $M_{\text{하}}=2.67$), 수학능력($M_{\text{상}}=3.07$, $M_{\text{중}}=2.77$, $M_{\text{하}}=2.59$), 과학능력($M_{\text{상}}=2.86$, $M_{\text{중}}=2.57$, $M_{\text{하}}=2.41$)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 상 수준(M=3.21, SD=.680)이 중 수준(M=3.09, SD=.641)과 하 수준(M=3.07, SD=.668)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구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언어능력($F=2.411$, $p<.01$), 수학능력($F=4.266$, $p<.001$), 과학능력($F=2.676$, $p<.001$), 정보통신활용능력($F=1042.200$, $p<.001$) 모두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활용능력의 경우 서울 지역 청소년(M=3.22, SD=.660)이 경기 지역 청소년(M=3.06, SD=.633)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④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학습적응성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2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M	(SD)	M	(SD)	M	(SD)
전체		4153	2.78	.543	3.22	.554	2.81	.657
성별	남	2099	2.80	.548	3.19	.554	2.83	.665
	여	2054	2.77	.537	3.24	.554	2.80	.649
	<i>t</i> 값	-	1.973*		-2.547*		1.718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85	2.82	.552	3.34	.563	2.84	.698
	중등(중기 청소년)②	1090	2.77	.519	3.17	.548	2.80	.677
	고등(중기 청소년)③	1466	2.77	.576	3.18	.552	2.78	.629
	대학(후기 청소년)④	412	2.78	.448	3.09	.487	2.90	.562
	<i>F</i> 값	-	1.930		33.696*** ①>②,③,④ / ③>④		5.006** ④>②,③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68	2.87	.573	3.35	.554	2.99	.681
	중②	2172	2.78	.510	3.21	.533	2.81	.624
	하③	880	2.71	.571	3.08	.570	2.61	.654
	<i>F</i> 값	-	20.521*** ①>②>③		55.775*** ①>②>③		80.434*** ①>②>③	

구분		사례수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M	(SD)	M	(SD)	M	(SD)
경제적 수준	상(①)	549	2.91	.567	3.36	.576	2.98	.685
	중(②)	3056	2.77	.532	3.20	.542	2.80	.642
	하(③)	539	2.72	.558	3.14	.573	2.72	.685
	<i>F</i> 값	-	19.380*** ①>②,③		23.044*** ①>②,③		24.302*** ①>②>③	
지역	서울(①)	613	2.85	.560	3.26	.568	2.88	.650
	부산(②)	279	2.87	.511	3.25	.548	2.87	.677
	대구(③)	233	2.72	.517	3.20	.563	2.71	.699
	인천(④)	235	2.81	.532	3.26	.585	2.83	.662
	광주(⑤)	119	2.72	.559	3.24	.478	2.82	.620
	대전(⑥)	163	2.81	.535	3.23	.537	2.86	.668
	울산(⑦)	121	2.76	.561	3.25	.503	2.83	.651
	세종(⑧)	83	2.78	.586	3.20	.475	2.69	.604
	경기(⑨)	949	2.78	.549	3.22	.570	2.81	.668
	강원(⑩)	125	2.77	.483	3.12	.495	2.78	.628
	충북(⑪)	143	2.73	.508	3.26	.527	2.86	.654
	충남(⑫)	173	2.72	.594	3.20	.600	2.80	.660
	전북(⑬)	169	2.62	.518	2.99	.568	2.70	.593
	전남(⑭)	112	2.80	.483	3.25	.527	2.80	.643
	경북(⑮)	223	2.77	.528	3.15	.524	2.78	.657
	경남(⑯)	249	2.81	.533	3.23	.550	2.80	.649
	제주(⑰)	164	2.76	.577	3.18	.521	2.78	.645
	<i>F</i> 값	-	2.751***		2.756*** ①,②,③,④,⑤,⑥,⑦,⑨, ⑪,⑭,⑯>⑬		1.635	

*** $p<.001$, ** $p<.01$, * $p<.05$

성별에 따른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호기심은 여자 청소년($M=3.24$, $SD=.554$)이 남자 청소년($M=3.19$, $SD=.554$)보다 $t=-2.547$, $p<.05$ 수준에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화수용력 ($M_{남자}=2.80$, $M_{여자}=2.77$)과 학습주도성($M_{남자}=2.83$, $M_{여자}=2.80$)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변화수용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지적호기심($F=33.696$, $p<.001$)과 학습주도성($F=5.006$, $p<.01$)은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적호기심의 경우 초등학생($M=3.34$, $SD=.563$)이 중학생($M=3.17$, $SD=.548$), 고등학생($M=3.18$, $SD=.552$), 대학생($M=3.09$, $SD=.487$)보다,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학습주도성의 경우 대학생($M=2.90$, $SD=.562$)이 중학생($M=2.80$, $SD=.677$)과 고등학생($M=2.78$, $SD=.629$)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인 변화수용력($F=20.521$, $p<.001$), 지적호기심($F=55.775$, $p<.001$), 학습주도성($F=80.434$,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인 변화수용력($M_{상}=2.87$, $M_{중}=2.78$, $M_{하}=2.71$), 지적호기심($M_{상}=3.35$, $M_{중}=3.21$, $M_{하}=3.08$), 학습주도성($M_{상}=2.99$, $M_{중}=2.81$, $M_{하}=2.6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인 변화수용력($F=19.380$, $p<.001$), 지적호기심($F=23.044$, $p<.001$), 학습주도성($F=24.302$,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변화수용력($M_{상}=2.91$, $M_{중}=2.77$, $M_{하}=2.72$)과 지적호기심($M_{상}=3.36$, $M_{중}=3.20$, $M_{하}=3.14$)의 경우 상 수준이 중 수준과 하 수준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학습주도성($M_{상}=2.98$, $M_{중}=2.80$, $M_{하}=2.72$)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적응성역량의 세부역량인 변화수용력($F=2.751$, $p<.001$)과 지적호기심($F=2.756$, $p<.001$)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습

주도성은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적호기심의 경우 서울(M=3.26, SD=.568), 부산(M=3.25, SD=.548), 대구(M=3.20, SD=.563), 인천(M=3.26, SD=.585), 광주(M=3.24, SD=.478), 대전(M=3.23, SD=.537), 울산(M=3.25, SD=.503), 경기(M=3.22, SD=.570), 충북(M=3.26, SD=.527), 전남(M=3.25, SD=.527), 경남(M=3.23, SD=.550) 지역 청소년이 전북 지역 청소년(M=2.99, SD=.568)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2)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1)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관리는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는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는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조절은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3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전체	3.09	0.36
		위생관리	3.36	0.50
		신체관리	2.81	0.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8	0.51
		전체	3.15	0.45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01	0.57
		수행 및 평가	2.88	0.63
		전체	2.95	0.55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	중독인식	2.70	0.89
		중독행동	3.06	0.80
		폭력행동	3.59	0.53
		폭력희피	3.32	0.66
		전체	3.17	0.54
	정서조절	분노행동	3.24	0.70
		감정절제	3.10	0.74
		조절실패	2.77	0.86
		감정인식	2.94	0.71
		전체	3.00	0.49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전체 평균은 3.09(SD=.36)이었으며, 하위역량인 건강관리는 3.15(SD=.45), 과제관리는 2.95(SD=.55), 상황대처는 3.17 (SD=.54), 정서조절은 3.00 (SD=.49)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상황대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관리, 정서조절, 과제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세부역량별 평균을 살펴보면, 건강관리의 세부역량의 경우 위생관리 3.36(SD=.50), 신체관리 2.81(SD=.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8(SD=.51)로 나타나 위생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과제관리의 세부역량의 경우 목표 및 계획 수립 3.01 (SD=.57), 수행 및 평가 2.88(SD=.63)로 나타나 목표 및 계획 수립이 수행 및 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의 경우 중독인식 2.70(SD=.89), 중독행동 3.06 (SD=.80), 폭력행동 3.59(SD=.53), 폭력희피 3.32(SD=.66)으로 나타나 폭력희피,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의 세부역량의 경우 분노행동 3.24(SD=.70), 감정절제 3.10(SD=.74), 조절실패 2.77(SD=.86), 감정인식 2.94(SD=.71)로 나타나 분노행동이 가장 높고, 감정절제, 감정인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절실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2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평균 점수 비교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4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역량	1	2	3
1. 건강관리			
2. 과정관리	.478***		
3. 상황대처	.296***	.160***	
4. 정서조절	.302***	.244***	.468***

***p<.001, **p<.01, *p<.0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간 상관계수 $r=.160\sim.478$,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의 상관계수 $r=.478$ 로 가장 높았으며, 과제관리와 상황대처의 상관계수 $r=.160$ 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위생관리													
2. 신체관리	.324***												
3.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78***	.360***											
4. 목표 및 계획 수립	.359***	.282***	.394***										
5. 수행 및 평가	.342***	.310***	.350***	.678***									
6. 중독인식	.110***	.210***	.146***	.045***	.079***								
7. 중독행동	.143***	.180***	.190***	.092***	.101***	.653***							
8. 폭력행동	.192***	.012	.217***	.143***	.115***	.287***	.360***						
9. 폭력회피	.207***	.187***	.252***	.185***	.165***	.275***	.364***	.492***					
10. 분노행동	.161***	.131***	.238***	.157***	.137***	.308***	.366***	.434***	.336***				
11. 감정절제	.140***	.162***	.199***	.149***	.140***	.264***	.330***	.338***	.389***	.633***			
12. 조절실패	.117***	.194***	.168***	.108***	.131***	.293***	.323***	.250***	.330***	.469***	.625***		
13. 감정인식	.142***	.042***	.185***	.182***	.151***	-.039*	.039*	.077***	.053**	.024	.001	-.099***	

*** $p<.001$, ** $p<.01$, * $p<.0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 간 상관계수 $r=-.099\sim.65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독인식과 중독행동의 상관계수 $r=.653$ 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절실패와 감정인식의 상관계수 $r=-.099$ 로 가장 낮았다. 신체관리와 폭력행동, 분노행동과 감정인식, 감정절제와 감정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6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생활관리역량		하위역량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32	3.09	0.36	3.15	0.45	2.95	0.55	3.17	0.54	3.00	0.49
성별	남	2027	3.08	0.36	3.17	0.47	2.91	0.55	3.14	0.56	3.01	0.48
	여	2005	3.11	0.36	3.12	0.44	2.99	0.55	3.20	0.52	2.99	0.49
	<i>F</i> 값	—	-2.268*		3.330**		-4.448***		-3.697***		1.404	
학교 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43	3.22	0.36	3.27	0.45	2.89	0.59	3.40	0.47	3.13	0.47
	중등(중기 청소년)(②)	1061	3.08	0.37	3.14	0.46	2.93	0.57	3.16	0.54	2.97	0.48
	고등(중기 청소년)(③)	1413	3.03	0.34	3.07	0.44	2.98	0.52	3.05	0.54	2.94	0.50
	대학(후기 청소년)(④)	415	3.01	0.32	3.09	0.43	3.04	0.44	2.96	0.53	2.96	0.46
	<i>F</i> 값	—	72.513*** ①>②>③,④		45.303*** ①>②>③,④		10.330*** ③,④>①,②		123.196*** ①>②>③>④		34.613***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30	3.23	0.37	3.29	0.45	3.09	0.55	3.32	0.53	3.13	0.49
	중(②)	2084	3.07	0.34	3.13	0.43	2.93	0.54	3.13	0.53	2.99	0.47
	하(③)	882	2.98	0.34	3.03	0.47	2.82	0.55	3.07	0.55	2.88	0.49
	<i>F</i> 값	—	131.240*** ①>②>③		85.868*** ①>②>③		60.676*** ①>②>③		59.833*** ①>②>③		63.872***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67	3.24	0.38	3.34	0.44	3.10	0.57	3.31	0.57	3.13	0.51
	중(②)	2928	3.09	0.35	3.14	0.44	2.94	0.54	3.17	0.54	3.00	0.48
	하(③)	535	2.95	0.33	2.97	0.47	2.83	0.57	3.03	0.52	2.87	0.47
	<i>F</i> 값	—	92.211*** ①>②>③		94.221*** ①>②>③		34.970*** ①>②>③		37.350*** ①>②>③		39.465*** ①>②>③	

구분		사례수	생활관리역량		하위역량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M	(SD)	M	(SD)	M	(SD)	M	(SD)	M	(SD)
지역	서울(①)	602	3.12	0.35	3.18	0.46	3.00	0.53	3.18	0.54	3.02	0.47
	부산(②)	271	3.18	0.39	3.25	0.45	3.07	0.57	3.23	0.58	3.09	0.53
	대구(③)	224	3.17	0.34	3.20	0.44	2.95	0.54	3.27	0.51	3.11	0.48
	인천(④)	231	3.14	0.38	3.16	0.48	2.98	0.60	3.24	0.53	3.05	0.52
	광주(⑤)	114	3.05	0.34	3.10	0.45	2.97	0.47	3.09	0.52	2.97	0.41
	대전(⑥)	160	3.10	0.38	3.18	0.47	3.06	0.57	3.14	0.56	2.97	0.52
	울산(⑦)	115	3.14	0.35	3.24	0.41	3.01	0.53	3.19	0.60	3.04	0.48
	세종(⑧)	81	3.04	0.33	3.13	0.39	2.77	0.54	3.16	0.57	2.96	0.45
	경기(⑨)	920	3.09	0.36	3.14	0.45	2.92	0.56	3.17	0.53	3.00	0.49
	강원(⑩)	118	2.96	0.31	2.97	0.43	2.84	0.50	3.03	0.60	2.88	0.46
	충북(⑪)	141	3.08	0.35	3.14	0.45	2.96	0.54	3.16	0.54	2.97	0.46
	충남(⑫)	168	3.11	0.33	3.21	0.42	2.91	0.53	3.20	0.52	3.00	0.42
	전북(⑬)	164	3.02	0.36	3.06	0.44	2.97	0.46	3.07	0.54	2.91	0.50
	전남(⑭)	106	3.05	0.32	3.06	0.41	2.82	0.55	3.20	0.55	2.95	0.44
	경북(⑮)	217	3.04	0.39	3.06	0.45	2.86	0.61	3.11	0.58	2.99	0.50
	경남(⑯)	238	3.08	0.38	3.13	0.45	2.90	0.56	3.18	0.52	3.00	0.52
	제주(⑰)	162	3.03	0.34	3.11	0.49	2.94	0.54	3.05	0.51	2.92	0.44
<i>F</i> 값		-	4.685*** ①,②,③,④,⑦,⑨ ,⑫>⑩,⑬,⑮,⑰		4.346*** ①,②,③,④,⑥ ,⑨,⑫>⑩		3.716*** ①,②,⑥>⑧, ⑨,⑩,⑭,⑮,⑰		2.580** ③>⑬,⑰		2.897*** ②,③>⑩,⑬,⑰)	

*** $p < .001$, ** $p < .01$, * $p < .05$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및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애활관리역량은 여자 청소년($M=3.11$, $SD=.36$)이 남자 청소년($M=3.08$, $SD=.3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는 여자 청소년($M=3.12$, $SD=.44$)이 남자 청소년($M=3.17$, $SD=.47$)보다 $t=3.330$, $p<.001$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과제관리는 여자 청소년($M=2.99$, $SD=.55$)이 남자 청소년($M=2.91$, $SD=.5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대처는 여자 청소년($M=3.20$, $SD=.52$)이 남자 청소년($M=3.14$, $SD=.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은 이와 반대로 남자 청소년($M=3.01$, $SD=.48$)이 여자 청소년($M=2.99$, $SD=.49$) 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른 생활관리역량 및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은 $F=72.51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M=3.22$, $SD=.36$)이 중학생($M=3.08$, $SD=.37$), 고등학생($M=3.03$, $SD=.34$), 대학생($M=3.01$, $SD=.32$)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F=45.303$, $p<.001$), 과제관리($F=10.330$, $p<.001$), 상황대처($F=123.196$, $p<.001$), 정서조절($F=34.613$,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관리($M_{\text{초}}=3.27$, $M_{\text{중}}=3.14$, $M_{\text{고}}=3.07$, $M_{\text{대}}=3.09$), 상황대처($M_{\text{초}}=3.40$, $M_{\text{중}}=3.16$, $M_{\text{고}}=3.05$, $M_{\text{대}}=2.96$), 정서조절($M_{\text{초}}=3.13$, $M_{\text{중}}=2.97$, $M_{\text{고}}=2.94$, $M_{\text{대}}=2.96$) 모두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반면, 과제관리($M_{\text{초}}=2.89$, $M_{\text{중}}=2.93$, $M_{\text{고}}=2.98$, $M_{\text{대}}=3.04$)의 경우는 대학생,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생활관리역량 및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은 $F=131.240$,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M=3.23$, $SD=.37$), 중 수준($M=3.07$, $SD=.34$), 하 수준($M=2.98$, $SD=.34$)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F=85.868$, $p<.001$), 과제관리($F=60.676$, $p<.001$), 상황대처($F=59.833$, $p<.001$), 정서조절($F=63.872$,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관리($M_{\text{상}}=3.29$, $M_{\text{중}}=3.13$, $M_{\text{하}}=3.03$), 과제관리($M_{\text{상}}=3.09$, $M_{\text{중}}=2.93$, $M_{\text{하}}=2.82$), 상황대처($M_{\text{상}}=3.32$, $M_{\text{중}}=3.13$, $M_{\text{하}}=3.07$), 정서조절($M_{\text{상}}=3.13$, $M_{\text{중}}=2.99$, $M_{\text{하}}=2.88$)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생활관리역량 및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은 $F=92.21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 수준($M=3.24$, $SD=.38$), 중 수준($M=3.09$, $SD=.35$), 하 수준($M=2.95$, $SD=.33$)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F=94.221$, $p<.001$), 과제관리($F=34.970$, $p<.001$), 상황대처($F=37.350$, $p<.001$), 정서조절($F=39.465$,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관리($M_{상}=3.34$, $M_{중}=3.14$, $M_{하}=2.97$), 과제관리($M_{상}=3.10$, $M_{중}=2.94$, $M_{하}=2.83$), 상황대처($M_{상}=3.31$, $M_{중}=3.17$, $M_{하}=3.03$), 정서조절($M_{상}=3.13$, $M_{중}=3.00$, $M_{하}=2.87$) 모두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생활관리역량 및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은 $F=4.685$,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M=3.12$, $SD=.35$)과 부산($M=3.18$, $SD=.39$) 등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강원 지역 청소년($M=2.96$, $SD=.31$) 등의 작은 규모의 지역 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F=4.346$, $p<.001$), 과제관리($F=3.716$, $p<.001$), 상황대처($F=2.580$, $p<.01$), 정서조절($F=2.897$, $p<.001$) 모두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구 지역 등 대도시 지역 청소년이 소규모 지역의 청소년s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②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건강관리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7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건강관리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M	(SD)	M	(SD)	M	(SD)
전체		4026	3.36	.501	2.81	.779	3.28	.506
성별	남	2024	3.30	0.523	2.95	0.781	3.26	0.518
	여	2002	3.42	0.471	2.66	0.749	3.29	0.493
	<i>t</i> 값	-	-7.718***		12.104***		-1.92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40	3.36	0.523	3.06	0.714	3.39	0.478
	중등(중기 청소년)(②)	1059	3.35	0.504	2.80	0.776	3.28	0.509
	고등(중기 청소년)(③)	1412	3.37	0.472	2.62	0.796	3.22	0.515
	대학(후기 청소년)(④)	415	3.35	0.532	2.76	0.699	3.16	0.488
	<i>F</i> 값	-	.529		72.306*** ①>②,④>③		32.088***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30	3.45	.480	3.01	.763	3.42	.489
	중(②)	2079	3.34	.506	2.78	.746	3.25	.486
	하(③)	881	3.31	.501	2.63	.822	3.16	.535
	<i>F</i> 값	-	23.366*** ①>②>③		58.247*** ①>②>③		69.675***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66	3.48	.491	3.09	.762	3.44	.496
	중(②)	2923	3.36	.491	2.80	.761	3.27	.495
	하(③)	535	3.22	.533	2.56	.797	3.15	.533
	<i>F</i> 값	-	40.391*** ①>②>③		66.985*** ①>②>③		48.467*** ①>②,③	
지역	서울(①)	600	3.36	.497	2.85	.780	3.32	.506
	부산(②)	269	3.44	.493	2.94	.732	3.37	.514
	대구(③)	224	3.42	.513	2.84	.730	3.35	.486
	인천(④)	231	3.34	.524	2.82	.799	3.32	.505
	광주(⑤)	114	3.34	.521	2.68	.783	3.28	.532
	대전(⑥)	160	3.44	.463	2.78	.801	3.33	.580
	울산(⑦)	115	3.42	.502	2.97	.737	3.34	.479
	세종(⑧)	81	3.38	.510	2.86	.758	3.16	.469
	경기(⑨)	918	3.37	.486	2.81	.795	3.24	.497
	강원(⑩)	118	3.19	.472	2.61	.701	3.12	.521
	충북(⑪)	141	3.40	.493	2.76	.729	3.27	.503
	충남(⑫)	168	3.42	.455	2.98	.730	3.25	.512
	전북(⑬)	164	3.31	.488	2.71	.779	3.16	.476
	전남(⑭)	106	3.32	.501	2.65	.747	3.21	.461
	경북(⑮)	217	3.24	.549	2.72	.796	3.22	.477
	경남(⑯)	238	3.32	.528	2.75	.786	3.32	.504
	제주(⑰)	162	3.31	.515	2.73	.853	3.28	.530
	<i>F</i> 값	-	3.176*** ②,③,⑥,⑦,⑨,⑫>⑩,⑮		3.030*** ②,⑦,⑫>⑩		3.773*** ①,②,③,④>⑨,⑩,⑬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생관리는 여자 청소년($M=3.42$, $SD=.471$)이 남자 청소년($M=3.30$, $SD=.523$)보다 $t=-7.718$,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관리는 남자 청소년($M=2.95$, $SD=.781$)이 여자 청소년($M=2.66$, $SD=.749$)보다 $t=12.104$, $p<.0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안전 및 스트레스는 여자 청소년($M=3.29$, $SD=.493$)이 남자 청소년($M=3.26$, $SD=.518$) 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교급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위생관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학교급에 따른 신체관리는 $F=72.306$, $p<.001$ 수준에서,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는 $F=32.088$,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관리에서 초등학생($M=3.06$, $SD=.714$)이 중학생($M=2.80$, $SD=.776$), 고등학생($M=2.62$, $SD=.796$), 대학생($M=2.76$, $SD=.699$)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초등학생($M=3.39$, $SD=.478$)이 중학생($M=3.28$, $SD=.509$), 고등학생($M=3.22$, $SD=.515$), 대학생($M=3.16$, $SD=.488$)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역량의 세부역량인 위생관리($F=23.366$, $p<.001$)과 신체관리($F=58.247$,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F=69.675$,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관리($M_{상}=3.45$, $M_{중}=3.34$, $M_{하}=3.31$)의 경우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신체관리($M_{상}=3.01$, $M_{중}=2.78$, $M_{하}=2.63$)도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안전 및 스트레스의 경우 상 수준($M=3.42$, $SD=.489$)이 중 수준($M=3.25$, $SD=.486$) 혹은 하 수준($M=3.16$, $SD=.535$)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역량의 세부역량인 위생관리($F=40.391$, $p<.001$), 신체관리($F=55.985$,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F=48.467$,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관리($M_{상}=3.48$, $M_{중}=3.36$, $M_{하}=3.22$)과 신체관리($M_{상}=3.09$, $M_{중}=2.80$, $M_{하}=2.56$)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도 상 수준($M=3.44$, $SD=.496$)이 중 수준($M=3.27$, $SD=.495$)과 하 수준($M=3.15$, $SD=.533$)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위생관리($F=3.176$, $p<.001$), 신체관리($F=3.030$,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F=3.77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모두 부산 지역 등의 대도시 청소년이 강원 지역 등의 소규모 지역 청소년 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③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8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M	(SD)	M	(SD)
전체		4027	3.01	.570	2.88	.631
성별	남	2026	2.97	.572	2.85	.624
	여	2001	3.06	.566	2.92	.636
	<i>t</i> 값	-	-4.895***		-3.316**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42	2.93	0.616	2.85	0.663
	중등(중기 청소년)②	1059	3.00	0.591	2.86	0.654
	고등(중기 청소년)③	1411	3.07	0.536	2.90	0.617
	대학(후기 청소년)④	415	3.09	0.460	2.99	0.501
	<i>F</i> 값	-	14.987*** ④,③>②,①		5.815** ④>①,②,③	

구분		사례수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M	(SD)	M	(SD)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28	3.15	.569	3.03	.637
	중(②)	2083	3.00	.561	2.87	.617
	하(③)	880	2.89	.567	2.76	.626
	<i>F</i> 값	-	53.622*** ①>②>③		49.008***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64	3.16	.582	3.04	.657
	중(②)	2926	3.00	.560	2.88	.616
	하(③)	535	2.92	.588	2.74	.647
	<i>F</i> 값	-	64.481*** ①>②>③		8.454*** ①>②>③	
지역	서울(①)	602	3.07	.559	2.93	.608
	부산(②)	271	3.13	.572	3.02	.654
	대구(③)	224	3.01	.550	2.90	.599
	인천(④)	231	3.01	.636	2.95	.664
	광주(⑤)	114	3.04	.499	2.90	.546
	대전(⑥)	159	3.12	.550	3.01	.659
	울산(⑦)	115	3.09	.519	2.94	.619
	세종(⑧)	81	2.88	.561	2.65	.680
	경기(⑨)	916	2.99	.574	2.84	.634
	강원(⑩)	118	2.91	.561	2.77	.561
	충북(⑪)	141	3.02	.542	2.89	.646
	충남(⑫)	168	2.99	.551	2.82	.622
	전북(⑬)	164	3.01	.474	2.93	.567
	전남(⑭)	106	2.87	.592	2.78	.600
	경북(⑮)	217	2.94	.633	2.78	.680
	경남(⑯)	238	2.96	.608	2.85	.634
	제주(⑰)	162	3.02	.546	2.87	.635
	<i>F</i> 값	-	2.985*** ②,⑥>⑧,⑭,⑮		3.529*** ①,②,④,⑥>⑧,⑨,⑩,⑮	

*** $p < .001$, ** $p < .01$, * $p < .05$

성별에 따른 과제관리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 및 계획 수립($M_{\text{남자}}=2.97$, $M_{\text{여자}}=3.06$, $t=-4.895$, $p<.001$)과 수행 및 평가($M_{\text{남자}}=2.85$, $M_{\text{여자}}=2.92$, $t=-3.316$, $p<.001$) 모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과제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관리역량의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F=14.987$, $p<.001$)과 수행 및 평가($F=5.815$,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 및 계획 수립의 경우 대학생($M=3.09$, $SD=.460$)과 고등학생($M=3.07$, $SD=.536$)이 중학생($M=3.00$, $SD=.591$)과 초등학생($M=2.93$, $SD=.616$) 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수행 및 평가의 경우에도 대학생($M=2.99$, $SD=.501$)이 고등학생($M=2.90$, $SD=.617$), 중학생($M=2.86$, $SD=.654$), 초등학생($M=2.85$, $SD=.663$) 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과제관리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관리의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F=53.622$, $p<.001$)과 수행 및 평가($F=49.008$, $p<.001$) 모두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 및 계획 수립($M_{상}=3.15$, $M_{중}=3.00$, $M_{하}=2.89$)와 수행 및 평가($M_{상}=3.03$, $M_{중}=2.87$, $M_{하}=2.76$) 모두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과제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관리역량의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F=64.481$, $p<.001$)과 수행 및 평가($F=8.454$,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 및 계획 수립($M_{상}=3.16$, $M_{중}=3.00$, $M_{하}=2.92$)와 수행 및 평가($M_{상}=3.04$, $M_{중}=2.88$, $M_{하}=2.74$)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과제관리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관리역량의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F=2.985$, $p<.001$)과 수행 및 평가($F=3.529$, $p<.001$) 모두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 지역 등의 대도시 청소년이 세종이나 경북 등의 청소년 보다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상황대처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9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상황대처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희피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31	3.06	0.803	3.59	0.535	3.32	0.662	1.67	.660
성별	남	2027	2.66	0.914	3.08	0.799	3.49	0.583	3.31	0.661
	여	2004	2.75	0.862	3.05	0.806	3.68	0.462	3.33	0.662
	<i>t</i> 값	-	-2.987**		1.257		-11.430***		-.603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43	3.17	0.780	3.36	0.700	3.65	0.461	3.41	0.599
	중등(중기 청소년)②	1060	2.68	0.873	3.09	0.783	3.58	0.531	3.29	0.677
	고등(중기 청소년)③	1413	2.45	0.855	2.88	0.840	3.57	0.548	3.29	0.676
	대학(후기 청소년)④	415	2.33	0.778	2.80	0.717	3.47	0.648	3.24	0.711
	<i>F</i> 값	-	193.094*** ①>②>③>④		98.194*** ①>②>③>④		13.260*** ①>②>③>④		11.537***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30	2.91	0.895	3.27	0.765	3.67	0.486	3.43	0.629
	중②	2083	2.65	0.872	3.01	0.799	3.58	0.536	3.28	0.660
	하③	882	2.57	0.879	2.93	0.812	3.50	0.572	3.28	0.692
	<i>F</i> 값	-	42.292*** ①>②>③		50.872*** ①>②>③		24.017*** ①>②>③		18.155***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67	2.89	0.950	3.25	0.820	3.63	0.530	3.45	0.628
	중②	2927	2.70	0.878	3.05	0.794	3.59	0.533	3.32	0.654
	하③	535	2.51	0.843	2.91	0.791	3.51	0.540	3.17	0.702
	<i>F</i> 값	-	24.696*** ①>②>③		26.364*** ①>②>③		7.165** ①>②>③		25.953*** ①>②>③	
지역	서울①	602	2.67	0.901	3.07	0.828	3.60	0.527	3.37	0.638
	부산②	271	2.71	0.948	3.17	0.821	3.64	0.537	3.39	0.695
	대구③	224	2.75	0.889	3.19	0.778	3.70	0.459	3.44	0.618
	인천④	231	2.75	0.892	3.14	0.808	3.67	0.510	3.39	0.665
	광주⑤	114	2.63	0.871	2.87	0.842	3.61	0.474	3.26	0.625
	대전⑥	160	2.63	0.838	3.04	0.821	3.55	0.558	3.32	0.664
	울산⑦	115	2.76	0.933	3.04	0.853	3.55	0.586	3.41	0.649
	세종⑧	81	2.77	0.840	3.01	0.829	3.59	0.630	3.28	0.726
	경기⑨	920	2.73	0.885	3.11	0.772	3.57	0.518	3.28	0.669
	강원⑩	117	2.56	0.876	2.91	0.789	3.46	0.660	3.20	0.665

구분		사례수	상황대처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M	(SD)	M	(SD)	M	(SD)	M	(SD)
지역	충북(⑪)	141	2.70	0.902	3.00	0.832	3.61	0.509	3.32	0.654
	충남(⑫)	168	2.84	0.859	3.08	0.752	3.56	0.505	3.34	0.642
	전북(⑬)	164	2.65	0.831	2.89	0.778	3.51	0.580	3.24	0.671
	전남(⑭)	106	2.81	0.920	3.10	0.808	3.57	0.548	3.31	0.624
	경북(⑮)	217	2.67	0.883	3.04	0.789	3.49	0.585	3.23	0.685
	경남(⑯)	238	2.76	0.911	3.06	0.774	3.59	0.532	3.30	0.643
	제주(⑰)	162	2.50	0.828	2.88	0.817	3.59	0.494	3.25	0.698
	<i>F값</i>	-	1.534		2.755*** ②,③>⑤,⑬,⑰		2.478** ③,④>⑩,⑮		2.220**	

*** $p < .001$, ** $p < .01$, * $p < .05$

성별에 따른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독인식은 여자 청소년($M=2.75$, $SD=.862$)이 남자 청소년($M=2.66$, $SD=.914$)보다 $t=-2.987$, $p<.01$ 수준에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행동 역시 여자 청소년($M=3.68$, $SD=.462$)이 남자 청소년($M=3.49$, $SD=.583$)보다 $t=-11.430$, $p<.001$ 수준에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독행동($M_{남자}=3.08$, $M_{여자}=3.05$)과 폭력회피($M_{남자}=3.31$, $M_{여자}=3.33$)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독인식($F=193.094$, $p<.001$), 중독행동($F=98.194$, $p<.001$), 폭력행동($F=13.260$, $p<.001$), 폭력회피($F=11.537$,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독인식의 경우 초등학교($M=3.17$, $SD=.780$), 중학생($M=2.68$, $SD=.873$), 고등학교($M=2.45$, $SD=.855$), 대학생($M=2.33$, $SD=.778$)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았다. 아울러 중독행동 역시 초등학교($M=3.36$, $SD=.700$), 중학생($M=3.09$, $SD=.783$), 고등학교($M=2.88$, $SD=.840$), 대학생($M=2.80$, $SD=.717$)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았다. 폭력행동도 초등학교($M=3.65$, $SD=.461$), 중학생($M=3.58$, $SD=.531$), 고등학교($M=3.57$,

SD=.548), 대학생(M=3.47, SD=.648)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폭력회피 또한 초등학생(M=3.41, SD=.599)이 중학생(M=3.29, SD=.677), 고등학생(M=3.29, SD=.855), 대학생(M=3.24, SD=.71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량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F=42.292$, $p<.001$), 중독행동($F=50.872$, $p<.001$), 폭력행동($F=24.017$, $p<.001$), 폭력회피($F=18.155$,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M_{\text{상}}=2.91$, $M_{\text{중}}=2.65$, $M_{\text{하}}=2.57$), 중독행동($M_{\text{상}}=3.27$, $M_{\text{중}}=3.01$, $M_{\text{하}}=2.93$), 폭력행동($M_{\text{상}}=3.67$, $M_{\text{중}}=3.58$, $M_{\text{하}}=3.50$)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다만 폭력회피의 경우는 상 수준 청소년(M=3.43, SD=.629)이 중 수준 청소년(M=3.28, SD=.660)과 하 수준 청소년(M=3.28, SD=.692)에 비해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F=24.696$, $p<.001$), 중독행동($F=26.364$, $p<.001$), 폭력행동($F=7.165$, $p<.01$), 폭력회피($F=25.953$,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독인식($M_{\text{상}}=2.89$, $M_{\text{중}}=2.70$, $M_{\text{하}}=2.51$), 중독행동($M_{\text{상}}=3.25$, $M_{\text{중}}=3.05$, $M_{\text{하}}=2.91$), 폭력행동($M_{\text{상}}=3.63$, $M_{\text{중}}=3.59$, $M_{\text{하}}=3.51$), 폭력회피($M_{\text{상}}=3.45$, $M_{\text{중}}=3.32$, $M_{\text{하}}=3.17$)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대처역량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중독행동($F=2.755$, $p<.001$), 폭력행동($F=2.478$, p

<.01), 폭력회피($F=2.220$, $p<.01$)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독행동의 경우, 부산($M=3.17$, $SD=.821$)과 대구($M=3.19$, $SD=.778$)가 광주($M=2.87$, $SD=.842$)와 전북($M=2.89$, $SD=.778$), 제주($M=2.88$, $SD=.817$) 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폭력행동의 경우는 대구($M=3.70$, $SD=.459$)와 인천($M=3.67$, $SD=.510$)이 강원($M=3.46$, $SD=.660$)과 경북($M=3.49$, $SD=.585$) 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⑤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0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정서조절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30	3.24	0.699	3.10	0.743	2.77	0.858	2.94	0.714
성별	남	2025	3.21	0.705	3.13	0.753	2.86	0.852	2.92	0.758
	여	2005	3.26	0.692	3.07	0.731	2.68	0.855	2.97	0.666
	t 값	-	-2.363*		2.514*		6.607***		-2.576*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142	3.44	0.614	3.22	0.716	3.00	0.843	2.94	0.743
	중등(중기 청소년)②	1060	3.17	0.707	3.07	0.745	2.70	0.855	2.94	0.731
	고등(중기 청소년)③	1413	3.14	0.725	3.00	0.753	2.59	0.839	3.01	0.642
	대학(후기 청소년)④	415	3.21	0.696	3.15	0.727	2.86	0.814	2.74	0.784
	F 값	-	46.228*** ①>④,②,③		19.400*** ④,①>③,②		53.901*** ①>④>②>③		15.498*** ②,③,①>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30	3.41	0.667	3.23	0.737	2.94	0.869	2.99	0.766
	중②	2083	3.23	0.671	3.08	0.726	2.75	0.839	2.94	0.702
	하③	881	3.06	0.752	2.96	0.764	2.60	0.857	2.89	0.675
	F 값	-	61.341*** ①>②>③		32.625*** ①>②>③		38.830*** ①>②>③		4.479* ①>③	
경제적 수준	상①	567	3.37	0.718	3.28	0.745	2.96	0.892	2.98	0.841
	중②	2927	3.24	0.686	3.09	0.733	2.77	0.846	2.94	0.698
	하③	534	3.06	0.712	2.91	0.746	2.56	0.844	2.93	0.648
	F 값	-	27.615*** ①>②>③		35.137*** ①>②>③		30.211*** ①>②>③		.883	

구분		사례수	정서조절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M	(SD)	M	(SD)	M	(SD)	M	(SD)
지역	서울(①)	601	3.25	0.674	3.13	0.731	2.82	0.851	2.94	0.728
	부산(②)	271	3.30	0.741	3.23	0.780	2.87	0.891	3.01	0.809
	대구(③)	224	3.36	0.632	3.24	0.658	2.86	0.845	3.02	0.721
	인천(④)	231	3.33	0.758	3.19	0.769	2.87	0.935	2.89	0.823
	광주(⑤)	114	3.20	0.626	3.04	0.698	2.69	0.730	2.95	0.618
	대전(⑥)	160	3.14	0.738	3.01	0.749	2.57	0.812	3.08	0.630
	울산(⑦)	115	3.28	0.729	3.14	0.709	2.87	0.853	2.93	0.756
	세종(⑧)	81	3.30	0.626	3.09	0.787	2.74	0.859	2.81	0.695
	경기(⑨)	920	3.26	0.674	3.08	0.729	2.76	0.869	2.94	0.704
	강원(⑩)	117	3.04	0.795	2.91	0.759	2.64	0.796	2.90	0.655
	충북(⑪)	141	3.18	0.702	3.05	0.770	2.73	0.831	2.93	0.713
	충남(⑫)	168	3.24	0.647	3.11	0.691	2.83	0.813	2.88	0.716
	전북(⑬)	164	3.13	0.757	2.95	0.747	2.59	0.824	2.94	0.642
	전남(⑭)	106	3.15	0.694	3.02	0.728	2.65	0.839	2.96	0.656
	경북(⑮)	217	3.22	0.712	3.11	0.744	2.80	0.814	2.90	0.670
	경남(⑯)	238	3.21	0.737	3.04	0.787	2.77	0.897	2.98	0.688
	제주(⑰)	162	3.15	0.676	2.98	0.781	2.63	0.896	2.93	0.733
$F_{값}$		-	2.333** ②,③,④>⑩		2.896*** ②,③>⑩,⑬		2.516** ②>⑥		1.174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노행동은 여자 청소년(M=3.26, SD=.692)이 남자 청소년(M=3.21, SD=.705)보다 $t=-2.363$, $p<.05$ 수준에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감정절제는 남자 청소년(M=3.13, SD=.753)이 여자 청소년(M=3.07, SD=.731)보다 $t=2.514$, $p<.05$ 수준에서, 조절실패는 남자 청소년(M=2.86, SD=.852)이 여자 청소년(M=2.68, SD=.855)보다 $t=6.607$, $p<.001$ 수준에서 높은 역량점수를 보였다. 또한 감정인식에서는 여자 청소년(M=2.97, SD=.666)이 남자 청소년(M=2.92, SD=.758)보다 $t=-2.576$, $p<.05$ 수준에서 높은 역량점수를 보였다.

학교급에 따른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노행동($F=46.228$, $p<.001$), 감정절제($F=19.400$, $p<.001$), 조절실패

($F=53.901$, $p<.001$), 감정인식($F=15.498$,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행동의 경우 초등학생($M=3.44$, $SD=.614$)이 중학생($M=3.17$, $SD=.707$), 고등학생($M=3.14$, $SD=.725$), 대학생($M=3.21$, $SD=.69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절제의 경우에는 대학생($M=3.15$, $SD=.727$)과 초등학생($M=3.22$, $SD=.716$)이 중학생($M=3.07$, $SD=.745$)과 고등학생($M=3.00$, $SD=.753$)보다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실패의 경우는 초등학생($M=3.00$, $SD=.843$), 대학생($M=2.86$, $SD=.814$), 중학생($M=2.70$, $SD=.855$), 고등학생($M=2.59$, $SD=.839$)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량 점수가 높았다. 감정인식의 경우는 초등학생($M=2.94$, $SD=.743$), 중학생($M=2.94$, $SD=.745$)과 고등학생($M=3.01$, $SD=.64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학생($M=2.74$, $SD=.784$)에 비해 높은 역량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인 분노행동($F=61.341$, $p<.001$), 감정절제($F=32.625$, $p<.001$), 조절실패($F=38.830$, $p<.001$), 감정인식($F=4.479$, $p<.05$)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행동($M_{\text{상}}=3.41$, $M_{\text{중}}=3.23$, $M_{\text{하}}=3.06$), 감정절제($M_{\text{상}}=3.23$, $M_{\text{중}}=3.08$, $M_{\text{하}}=2.96$), 조절실패($M_{\text{상}}=2.94$, $M_{\text{중}}=2.75$, $M_{\text{하}}=2.60$)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감정인식의 경우는 상 수준 청소년($M=2.99$, $SD=.766$)의 역량 점수가 하 수준 청소년($M=2.89$, $SD=.6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인 분노행동($F=27.615$, $p<.001$), 감정절제($F=35.137$, $p<.001$), 조절실패($F=30.211$, $p<.001$)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감정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행동($M_{상}=3.37$, $M_{중}=3.24$, $M_{하}=3.06$)과 감정절제($M_{상}=3.28$, $M_{중}=3.09$, $M_{하}=2.91$), 조절실패($M_{상}=2.96$, $M_{중}=2.77$, $M_{하}=2.56$)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조절역량의 세부역량인 분노행동($F=2.333$, $p<.01$), 감정절제($F=2.896$, $p<.001$), 조절실패($F=2.516$, $p<.01$)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감정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행동의 경우 부산($M=3.30$, $SD=.741$), 대구($M=3.36$, $SD=.632$), 인천($M=3.33$, $SD=.758$)이 강원($M=3.04$, $SD=.795$) 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감정절제의 경우 부산($M=3.23$, $SD=.780$)과 대구($M=3.24$, $SD=.780$)가 강원($M=2.91$, $SD=.759$), 전북($M=2.95$, $SD=.747$)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나타내었다. 조절실패의 경우 부산($M=2.87$, $SD=.891$)이 대전($M=2.57$, $SD=.812$)에 비해 높은 역량점수를 보였다.

3)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1)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설계는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여가활용 능력은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개척정신은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의 세부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1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진로개발역량	전체		2.98	.400
	진로설계	자기탐색	3.15	.554
		직업탐색	2.82	.694
		직업가치관	3.07	.588
		진로준비	3.07	.544
		소계	3.03	.468
	여가활용	여가태도	3.38	.513
		여가유능감	2.82	.646
		여가만족	3.21	.609
		여가몰입	3.25	.570
		소계	3.16	.474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2.72	.568
		도전정신	2.79	.650
		소계	2.75	.516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전체 평균은 2.98(SD=.400)이었으며, 하위역량인 진로설계는 3.03(SD=.468), 여가활용능력은 3.16(SD=.474), 개척정신은 2.75(SD=.516)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여가활용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설계, 개척정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역량별 평균을 살펴보면, 진로설계의 세부역량의 경우 자기탐색 3.15(SD=.554), 직업탐색 2.82(SD=.694), 직업가치관 3.07(SD=.588), 진로준비 3.07(SD=.544) 중 자기탐색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의 경우 여가태도 3.38(SD=.513), 여가유능감 2.82(SD=.646), 여가만족 3.21(SD=.609), 여가몰입 3.25(SD=.570)로 나타나, 여가태도가 가장 높았고 여가유능감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개척정신의 세부역량의 경우 차별화태도 2.72(SD=.568)와 도전정신 2.79(SD=.650)로 두

세부역량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역량 중 여가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몰입, 여가만족, 자기탐색 순으로 나타났고 차별화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2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역량	1	2	3
1. 진로설계			
2. 여가활용	.607**		
3. 개척정신	.462**	.497**	

***p<.001, **p<.01, *p<.05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간 상관계수 r=.492~.60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가활용과 개척정신의 상관계수 r=.607로 가장 높았으며, 개척정신과 진로설계의 상관계수 r=.462로 가장 낮았다.

표 IV-2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 자기탐색										
2. 직업탐색	.432**									
3. 직업가치관	.442**	.514**								
4. 진로준비	.534**	.535**	.474**							
5. 여가태도	.408**	.309**	.410**	.417**						
6. 여가유능감	.419**	.344**	.328**	.415**	.405**					
7. 여가만족	.435**	.352**	.404**	.462**	.597**	.528**				
8. 여가몰입	.423**	.322**	.400**	.441**	.578**	.469**	.702**			
9. 차별화태도	.350**	.335**	.298**	.353**	.293**	.376**	.348**	.360**		
10. 도전정신	.304**	.266**	.225**	.344**	.277**	.386**	.337**	.334**	.430**	

*** $p < .001$, ** $p < .01$, * $p < .05$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 간 상관계수 $r = .225 \sim .702$,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가몰입과 여가만족의 상관계수 $r = .702$ 로 가장 높았으며, 도전정신과 직업가치관의 상관계수 $r = .225$ 로 가장 낮았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4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진로개발역량		하위 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M	(SD)	M	(SD)	M	(SD)	M	(SD)
전체		3775	2.98	.400	3.03	.467	3.16	.474	2.75	.515
성별	남	1872	2.99	.413	3.00	.491	3.19	.491	2.79	.514
	여	1903	2.97	.387	3.05	.442	3.14	.455	2.72	.515
	<i>t</i> 값	-	1.877		-3.535**		-3.585**		4.391**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44	3.04	.430	3.02	.505	3.21	.495	2.88	.497
	중등(중기 청소년)(②)	992	2.95	.417	2.98	.506	3.16	.497	2.72	.513
	고등(중기 청소년)(③)	1337	2.97	.378	3.06	.428	3.17	.458	2.69	.518
	대학(후기 청소년)(④)	402	2.93	.332	3.05	.369	3.05	.394	2.70	.502
	<i>F</i> 값	-	10.832**		6.649**		10.930**		32.166**	
			①>②,③,④		③,④>②		①,②,③>④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953	3.09	.417	3.12	.482	3.27	.473	2.88	.541
	중(②)	1960	2.96	.379	3.01	.445	3.14	.461	2.73	.492
	하(③)	835	2.90	.405	2.95	.483	3.09	.488	2.66	.516
	<i>F</i> 값	-	57.849**		34.460**		36.989**		45.550**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67	3.16	.399	3.19	.470	3.35	.467	2.94	.514
	중(②)	2685	2.96	.388	3.02	.454	3.15	.463	2.73	.502
	하(③)	520	2.86	.400	2.90	.481	3.04	.482	2.66	.540
	<i>F</i> 값	-	84.894**		56.766**		66.914**		49.999**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지역	서울(①)	581	3.00	.414	3.04	.467	3.19	.487	2.76	.550
	부산(②)	255	3.10	.424	3.17	.459	3.29	.499	2.84	.569
	대구(③)	203	2.99	.401	3.07	.488	3.20	.482	2.71	.491
	인천(④)	219	3.00	.407	3.05	.505	3.17	.483	2.78	.501
	광주(⑤)	104	3.03	.373	3.13	.449	3.17	.429	2.79	.523
	대전(⑥)	149	3.04	.384	3.10	.449	3.21	.432	2.80	.532
	울산(⑦)	106	2.99	.390	3.03	.488	3.17	.439	2.78	.500
	세종(⑧)	76	2.94	.394	2.97	.500	3.13	.426	2.72	.561
	경기(⑨)	852	2.98	.404	3.02	.471	3.17	.477	2.75	.518
	강원(⑩)	103	2.90	.338	2.97	.382	3.06	.473	2.67	.439
	충북(⑪)	130	2.89	.377	2.91	.483	3.12	.469	2.65	.513
	충남(⑫)	162	2.98	.357	3.02	.429	3.15	.419	2.78	.458
	전북(⑬)	150	2.90	.388	2.96	.430	3.10	.478	2.64	.498
	전남(⑭)	100	2.91	.359	2.92	.431	3.10	.451	2.71	.472
	경북(⑮)	211	2.90	.386	2.95	.455	3.07	.449	2.69	.453
	경남(⑯)	221	2.94	.397	2.99	.448	3.09	.482	2.75	.506
	제주(⑰)	153	2.98	.426	3.01	.481	3.17	.504	2.77	.514
	<i>F</i> 값	-	3.637**		3.755**		3.003**		1.880*	
			2>9⑩⑪⑬⑮⑯⑰		2>①9⑩⑪⑬⑮⑯⑰		2>9⑩⑬⑮⑯⑰		①>⑬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및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개발역량은 남자 청소년($M=2.99$, $SD=.413$)이 여자 청소년($M=2.97$, $SD=.387$)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인 진로설계능력은 여자 청소년($M=3.05$, $SD=.442$)이 남자 청소년($M=3.00$, $SD=.491$)보다 $t=-3.535$, $p<.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가활용능력은 남자 청소년($M=3.19$, $SD=.491$)이 여자 청소년($M=3.14$, $SD=.45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척정신도 남자 청소년($M=2.79$, $SD=.514$)이 여자 청소년($M=2.72$, $SD=.515$)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두 하위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및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은 $F=10.832$,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M=3.04$, $SD=.430$)이 중학생($M=2.95$, $SD=.417$), 고등학생($M=2.97$, $SD=.378$), 대학생($M=2.93$, $SD=.33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인 진로설계($F=6.649$, $p<.01$), 여가활용($F=10.930$, $p<.01$), 개척정신($F=32.166$, $p<.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설계의 경우 고등학생($M=3.06$, $SD=.428$)과 대학생($M=3.05$, $SD=.369$)이 중학생($M=2.98$, $SD=.50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용($M_{초}=3.21$, $M_{중}=3.16$, $M_{고}=3.17$, $M_{대}=3.05$)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M_{초}=2.88$, $M_{중}=2.72$, $M_{고}=2.69$, $M_{대}=2.70$)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및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은 $F=57.849$,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M=3.09$, $SD=.417$), 중 수준($M=2.96$, $SD=.379$), 하 수준($M=2.90$, $SD=.405$)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인 진로설계($F=34.460$, $p<.01$), 여가활용($F=36.989$, $p<.01$), 개척정신($F=45.550$, $p<.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설계($M_{\text{상}}=3.12$, $M_{\text{중}}=3.01$, $M_{\text{하}}=2.95$), 여가활용($M_{\text{상}}=3.27$, $M_{\text{중}}=3.14$, $M_{\text{하}}=3.09$), 개척정신($M_{\text{상}}=2.88$, $M_{\text{중}}=2.73$, $M_{\text{하}}=2.66$)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및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은 $F=84.894$,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 수준($M=3.16$, $SD=.399$), 중 수준($M=2.96$, $SD=.388$), 하 수준($M=2.86$, $SD=.400$) 순으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인 진로설계($F=56.766$, $p<.01$), 여가활용($F=66.914$, $p<.01$), 개척정신($F=49.999$, $p<.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설계($M_{\text{상}}=3.19$, $M_{\text{중}}=3.02$, $M_{\text{하}}=2.90$), 여가활용($M_{\text{상}}=3.35$, $M_{\text{중}}=3.15$, $M_{\text{하}}=3.04$), 개척정신($M_{\text{상}}=2.94$, $M_{\text{중}}=2.73$, $M_{\text{하}}=2.66$) 모두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및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은 $F=3.637$,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M=3.10$, $SD=.424$)이 경기($M=2.99$, $SD=.404$), 강원($M=2.90$, $SD=.338$), 충북($M=2.89$, $SD=.377$), 전북($M=2.90$, $SD=.388$), 전남($M=2.91$, $SD=.359$), 경북($M=2.90$, $SD=.386$), 경남($M=2.94$, $SD=.397$) 지역 청소년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인 진로설계($F=3.755$, $p<.01$), 여가활용($F=3.003$, $p<.01$), 개척정신($F=1.880$, $p<.05$) 모두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설계의 경우 부산 지역 청소년($M=3.17$, $SD=.459$)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청소년($M_{서울}=3.04$, $M_{경기}=3.02$, $M_{강원}=2.97$, $M_{충북}=2.91$, $M_{전북}=2.96$, $M_{전남}=2.92$, $M_{경북}=2.95$, $M_{경남}=2.99$)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여가활용의 경우에도 부산지역 청소년($M=3.29$, $SD=.499$)이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지역 청소년($M_{경기}=3.17$, $M_{강원}=3.06$, $M_{전북}=3.10$, $M_{경북}=3.07$, $M_{경남}=3.09$)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의 경우 서울지역 청소년($M=2.76$, $SD=.550$)이 전북 지역 청소년($M=2.64$, $SD=.498$)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②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진로설계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5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진로설계역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M	(SD)	M	(SD)	M	(SD)
전체		3874	3.15	.554	2.82	.694	3.07	.588
성별	남	1924	3.15	.580	2.78	.716	3.01	.611
	여	1950	3.16	.527	2.85	.670	3.12	.560
	<i>t</i> 값	-	.537		-2.874**		-5.47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76	3.18	.582	2.84	.752	2.92	.665
	중등(중기 청소년)②	1008	3.14	.577	2.72	.718	3.03	.605
	고등(중기 청소년)③	1351	3.15	.536	2.86	.649	3.18	.510
	대학(후기 청소년)④	406	3.10	.471	2.84	.594	3.16	.465
	<i>F</i> 값	-	2.392		8.566** ①,③,④ > ②		43.878** ③,④>②>①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980	3.25	.564	2.94	.715	3.10	.616
	중②	1978	3.13	.536	2.80	.681	3.06	.574
	하③	855	3.09	.570	2.71	.677	3.04	.591
	<i>F</i> 값	-	21.645** ①>②,③		26.222** ①>②>③		3.059* ①>②>③	

구분		사례수	진로설계역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M	(SD)	M	(SD)	M	(SD)	M	(SD)
경제적 수준	상(①)	580	3.33	.550	3.01	.697	3.17	.607	3.25	.547
	중(②)	2725	3.14	.536	2.80	.682	3.06	.580	3.07	.528
	하(③)	532	3.01	.595	2.67	.711	2.97	.595	2.91	.574
	$F_{값}$	-	50.037** ①>②>③		31.714** ①>②>③		15.699** ①>②>③		55.670** ①>②>③	
지역	서울(①)	586	3.18	.566	2.83	.708	3.09	.583	3.06	.548
	부산(②)	260	3.30	.547	2.94	.716	3.19	.587	3.21	.515
	대구(③)	206	3.24	.584	2.85	.699	3.06	.590	3.13	.536
	인천(④)	221	3.23	.581	2.81	.703	3.04	.628	3.14	.536
	광주(⑤)	105	3.33	.553	2.93	.670	3.15	.584	3.08	.547
	대전(⑥)	153	3.20	.530	2.86	.686	3.21	.549	3.10	.570
	울산(⑦)	108	3.15	.531	2.81	.662	3.06	.576	3.11	.584
	세종(⑧)	79	3.12	.532	2.73	.776	3.04	.654	3.00	.617
	경기(⑨)	872	3.15	.554	2.85	.685	3.04	.587	3.06	.555
	강원(⑩)	106	3.12	.520	2.75	.606	3.01	.450	3.01	.440
	충북(⑪)	133	3.00	.569	2.59	.660	3.05	.624	2.99	.585
	충남(⑫)	165	3.12	.520	2.87	.642	3.03	.564	3.08	.533
	전북(⑬)	154	3.05	.531	2.75	.657	3.06	.541	3.00	.529
	전남(⑭)	100	3.03	.507	2.68	.664	2.98	.543	2.98	.507
	경북(⑮)	212	3.04	.506	2.74	.691	3.02	.566	2.99	.561
	경남(⑯)	224	3.09	.548	2.77	.705	3.00	.633	3.11	.489
	제주(⑰)	157	3.11	.549	2.75	.761	3.08	.636	3.13	.541
	$F_{값}$	-	4.799** ②③④⑤>①⑮ ②⑤>⑬⑭⑰ ②>⑨⑪ ③>⑮		2.638** ①②⑤⑨>①		2.275** ②>⑨⑰ ⑥>⑰		2.667** ②>①⑨①⑬⑭⑮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은 여자 청소년(M=3.16, SD=.527)이 남자 청소년(M=3.15, SD=.580)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은 여자 청소년(M=2.85, SD=.670)이 남자 청소년(M=2.78, SD=.716)보다 $t=-2.874$, $p<.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도 여자 청소년(M=3.12, SD=.560)이 남자 청소년(M=3.01, SD=.611)보다 $t=-5.470$, $p<.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업가치관도 여자 청소년($M=3.09$, $SD=.525$)이 남자 청소년($M=3.06$, $SD=.563$)보다 $t=-1.960$, $p<.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자기탐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학교급에 따른 직업탐색($F=8.566$, $p<.01$), 진로준비($F=43.878$, $p<.01$), 직업가치관($F=15.636$,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탐색의 경우 초등학교생($M=2.84$, $SD=.752$), 고등학교생($M=2.86$, $SD=.649$), 대학생($M=2.84$, $SD=.594$)이 중학교생($M=2.72$, $SD=.718$)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진로준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생($M=3.18$, $SD=.510$)과 대학생($M=3.16$, $SD=.465$), 중학교생($M=3.03$, $SD=.605$), 초등학교생($M=2.92$, $SD=.6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초등학교생($M=3.16$, $SD=.535$)이 중학교생($M=3.01$, $SD=.584$)과 고등학교생($M=3.05$, $SD=.53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인 자기탐색($F=21.645$, $p<.01$), 직업탐색($F=26.222$, $p<.01$), 진로준비($F=3.059$, $p<.05$), 직업가치관($F=54.341$, $p<.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탐색은 상수준($M=3.25$, $SD=.564$)이 중수준($M=3.13$, $SD=.536$)과 하수준($M=3.09$, $SD=.570$)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직업탐색($M_{상}=2.94$, $M_{중}=2.80$, $M_{하}=2.71$)과 직업가치관($M_{상}=3.20$, $M_{중}=3.07$, $M_{하}=2.94$)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진로준비의 경우에는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설계의 세부역량인 자기탐색($F=50.037$, $p<.01$), 직업탐색($F=31.714$, $p<.01$), 진로준비($F=15.699$, $p<.01$), 직업가치관($F=55.670$, $p<.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

보면, 자기탐색($M_{\text{상}}=3.33$, $M_{\text{중}}=3.14$, $M_{\text{하}}=3.01$), 직업탐색($M_{\text{상}}=3.01$, $M_{\text{중}}=2.80$, $M_{\text{하}}=2.67$), 진로준비($M_{\text{상}}=3.17$, $M_{\text{중}}=3.06$, $M_{\text{하}}=2.97$), 직업가치관($M_{\text{상}}=3.25$, $M_{\text{중}}=3.07$, $M_{\text{하}}=2.91$)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설계의 세부역량인 자기탐색($F=4.799$, $p<.01$), 직업탐색($F=2.638$, $p<.01$), 진로준비($F=2.275$, $p<.01$), 직업가치관($F=2.667$, $p<.01$) 모두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탐색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지역의 청소년($M_{\text{부산}}=3.30$, $M_{\text{대구}}=3.24$, $M_{\text{인천}}=3.23$, $M_{\text{광주}}=3.33$)이 충북, 경북지역의 청소년($M_{\text{충북}}=3.00$, $M_{\text{경북}}=3.04$)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부산과 광주지역의 청소년($M_{\text{부산}}=3.30$, $M_{\text{광주}}=3.33$)이 전북, 전남, 경남지역($M_{\text{전북}}=3.05$, $M_{\text{전남}}=3.03$, $M_{\text{경남}}=3.09$)의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부산지역의 청소년이 경기와 제주지역($M_{\text{경기}}=3.15$, $M_{\text{제주}}=3.11$)의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의 청소년이 경북지역의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탐색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지역($M_{\text{서울}}=2.83$, $M_{\text{부산}}=2.94$, $M_{\text{광주}}=2.93$)의 청소년이 충북지역($M_{\text{충북}}=2.59$)의 청소년보다 역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의 경우에는 부산지역($M_{\text{부산}}=3.19$)의 청소년이 경기와 경남지역($M_{\text{경기}}=3.04$, $M_{\text{경남}}=3.00$)의 청소년보다 높고 대전지역($M_{\text{대전}}=3.21$)의 청소년이 경남지역($M_{\text{경남}}=3.00$)의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관의 경우 부산지역 청소년($M_{\text{부산}}=2.94$)이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지역 청소년($M_{\text{서울}}=3.06$, $M_{\text{경기}}=3.06$, $M_{\text{충북}}=2.99$, $M_{\text{전북}}=3.00$, $M_{\text{전남}}=2.98$, $M_{\text{경북}}=2.99$)보다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여가활용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6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여가활용역량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M	(SD)	M	(SD)	M	(SD)	M	(SD)
전체		3870	3.38	.513	2.82	.646	3.21	.609	3.25	.570
성별	남	1916	3.37	.524	2.90	.654	3.23	.623	3.26	.591
	여	1942	3.38	.502	2.73	.627	3.20	.595	3.24	.549
	<i>t</i> 값	-	-.583		8.103**		1.555		1.238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68	3.39	.551	2.90	.639	3.27	.636	3.27	.612
	중등(중기 청소년)②	1009	3.38	.520	2.79	.665	3.22	.624	3.25	.594
	고등(중기 청소년)③	1349	3.40	.491	2.79	.647	3.20	.586	3.27	.537
	대학(후기 청소년)④	404	3.24	.434	2.73	.588	3.08	.551	3.11	.476
	<i>F</i> 값	-	10.550** ①,②,③>④		9.869** ①>②,③,④		10.015** ①>③>④ ②>④		8.742** ①,②,③ > 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971	3.45	.512	2.96	.645	3.33	.601	3.35	.571
	중②	1982	3.37	.502	2.79	.636	3.19	.604	3.23	.558
	하③	850	3.30	.528	2.73	.646	3.13	.612	3.18	.585
	<i>F</i> 값	-	19.100** ①>②>③		35.051** ①>②,③		27.990** ①>②>③		21.075**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78	3.52	.497	3.07	.626	3.40	.583	3.41	.576
	중②	2723	3.36	.509	2.80	.632	3.20	.596	3.23	.562
	하③	526	3.30	.518	2.64	.659	3.08	.652	3.15	.575
	<i>F</i> 값	-	29.409** ①>②>③		68.004** ①>②>③		42.840** ①>②>③		31.653** ①>②,③	
지역	서울①	584	3.39	.521	2.84	.651	3.24	.622	3.28	.589
	부산②	256	3.49	.515	2.94	.684	3.37	.625	3.35	.574
	대구③	209	3.43	.508	2.86	.603	3.24	.641	3.27	.580
	인천④	220	3.37	.512	2.82	.691	3.23	.599	3.25	.617
	광주⑤	108	3.33	.467	2.88	.604	3.22	.573	3.24	.532
	대전⑥	152	3.43	.468	2.87	.649	3.23	.564	3.32	.506
	울산⑦	107	3.30	.481	2.88	.656	3.27	.559	3.24	.525
	세종⑧	77	3.29	.548	2.73	.631	3.19	.586	3.27	.541
	경기⑨	870	3.39	.513	2.84	.638	3.20	.605	3.26	.578
	강원⑩	104	3.22	.516	2.79	.519	3.12	.588	3.14	.605
	충북⑪	133	3.42	.488	2.62	.614	3.19	.626	3.27	.572
	충남⑫	164	3.39	.457	2.84	.606	3.21	.542	3.19	.527
	전북⑬	154	3.37	.494	2.71	.664	3.17	.614	3.16	.542
	전남⑭	102	3.29	.493	2.72	.633	3.20	.581	3.21	.533
	경북⑮	211	3.29	.516	2.69	.637	3.12	.625	3.18	.524
	경남⑯	223	3.32	.540	2.77	.651	3.14	.619	3.14	.562
	제주⑰	156	3.37	.554	2.79	.691	3.23	.641	3.26	.594
	<i>F</i> 값	-	2.907** ②>⑩⑮⑰		2.877** ①②⑨>⑪ ②>⑬⑮		2.073** ②>⑨⑩⑮⑰		2.128** ②>⑰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가태도($M_{\text{남자}}=3.37$, $M_{\text{여자}}=3.38$, $t=-.583$, $p>.05$)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가만족($M_{\text{남자}}=3.23$, $M_{\text{여자}}=3.20$, $t=1.555$, $p>.05$)과 여가몰입($M_{\text{남자}}=3.26$, $M_{\text{여자}}=3.24$, $t=1.238$, $p>.05$)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여가유능감($M_{\text{남자}}=2.90$, $M_{\text{여자}}=2.73$, $t=8.103$, $p<.01$)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F=10.550$, $p<.01$), 여가유능감($F=9.869$, $p<.01$), 여가만족($F=10.015$, $p<.01$), 여가몰입($F=8.742$, $p<.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태도($M_{\text{초}}=3.39$, $M_{\text{중}}=3.38$, $M_{\text{고}}=3.40$, $M_{\text{대}}=3.24$)와 여가몰입($M_{\text{초}}=3.27$, $M_{\text{중}}=3.25$, $M_{\text{고}}=3.27$, $M_{\text{대}}=3.11$)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유능감($M_{\text{초}}=2.90$, $M_{\text{중}}=2.79$, $M_{\text{고}}=2.79$, $M_{\text{대}}=2.73$)의 경우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역량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만족($M_{\text{초}}=3.27$, $M_{\text{중}}=3.22$, $M_{\text{고}}=3.20$, $M_{\text{대}}=3.08$)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보다 높고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F=19.100$, $p<.01$), 여가유능감($F=35.051$, $p<.01$), 여가만족($F=27.990$, $p<.01$), 여가몰입($F=21.075$, $p<.01$) 모두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태도($M_{\text{상}}=3.45$, $M_{\text{중}}=3.37$, $M_{\text{하}}=3.30$), 여가유능감($M_{\text{상}}=2.96$, $M_{\text{중}}=2.79$, $M_{\text{하}}=2.73$), 여가만족($M_{\text{상}}=3.33$, $M_{\text{중}}=3.19$, $M_{\text{하}}=3.13$)의 경우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여가몰입의 경우 상 수준($M=3.35$, $SD=.571$)이 중 수준($M=3.23$, $SD=.558$)과 하 수준($M=3.18$, $SD=.585$)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F=29.409$, $p<.01$), 여가유능감($F=68.004$, $p<.01$), 여가만족($F=42.840$, $p<.01$), 여가몰입($F=31.653$, $p<.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태도($M_{\text{상}}=3.52$, $M_{\text{중}}=3.36$, $M_{\text{하}}=3.30$), 여가유능감($M_{\text{상}}=3.07$, $M_{\text{중}}=2.80$, $M_{\text{하}}=2.64$), 여가만족($M_{\text{상}}=3.40$, $M_{\text{중}}=3.20$, $M_{\text{하}}=3.08$)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여가몰입의 경우 상 수준($M=3.41$, $SD=.576$)이 중 수준($M=3.23$, $SD=.562$)과 하 수준($M=3.15$, $SD=.575$)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F=2.907$, $p<.01$), 여가유능감($F=2.877$, $p<.01$), 여가만족($F=2.073$, $p<.01$), 여가몰입($F=2.128$, $p<.01$) 모두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태도의 경우 부산지역 청소년($M_{\text{부산}}=3.49$)이 강원, 경북, 경남지역 청소년($M_{\text{강원}}=3.22$, $M_{\text{경북}}=3.29$, $M_{\text{경남}}=3.32$)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여가유능감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지역 청소년($M_{\text{서울}}=2.84$, $M_{\text{부산}}=2.94$, $M_{\text{경기}}=2.84$)이 충북지역 청소년($M_{\text{충북}}=2.62$)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고 부산지역 청소년이 전북과 경북지역 청소년($M_{\text{전북}}=2.71$, $M_{\text{경북}}=2.69$)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만족의 경우에는 부산지역 청소년($M_{\text{부산}}=3.37$)이 경기, 강원, 경북, 경남지역 청소년($M_{\text{경기}}=3.20$, $M_{\text{강원}}=3.12$, $M_{\text{경북}}=3.12$, $M_{\text{경남}}=3.14$)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여가몰입의 경우에는 부산지역 청소년($M_{\text{부산}}=3.35$)이 경남지역 청소년($M_{\text{경남}}=3.14$)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확인되었다.

④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7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M	(SD)	M	(SD)
전체		3862	2.71	.567	2.79	.649
성별	남	1916	2.73	.568	2.85	.639
	여	1946	2.70	.568	2.73	.656
	<i>t</i> 값	-	1.610		5.52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88	2.74	.579	3.03	.603
	중등(중기 청소년)(②)	1008	2.70	.578	2.74	.635
	고등(중기 청소년)(③)	1349	2.71	.562	2.67	.653
	대학(후기 청소년)(④)	408	2.70	.535	2.69	.635
	<i>F</i> 값	-	1.270		73.286**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986	2.82	.592	2.95	.678
	중(②)	1988	2.70	.551	2.76	.621
	하(③)	851	2.63	.564	2.69	.654
	<i>F</i> 값	-	26.743**		41.058**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81	2.91	.581	2.98	.651
	중(②)	2735	2.69	.555	2.77	.635
	하(③)	533	2.63	.578	2.68	.689
	<i>F</i> 값	-	42.844**		32.896**	
			①>②,③		①>②>③	
지역	서울(①)	589	2.75	.607	2.78	.681
	부산(②)	259	2.82	.609	2.86	.703
	대구(③)	208	2.67	.544	2.79	.629
	인천(④)	222	2.72	.557	2.85	.634
	광주(⑤)	107	2.73	.587	2.87	.639
	대전(⑥)	154	2.76	.535	2.84	.685
	울산(⑦)	107	2.74	.569	2.81	.590
	세종(⑧)	78	2.74	.561	2.72	.703
	경기(⑨)	878	2.73	.564	2.80	.673
	강원(⑩)	105	2.68	.437	2.66	.610
	충북(⑪)	133	2.63	.583	2.68	.641
	충남(⑫)	165	2.70	.535	2.88	.575
	전북(⑬)	154	2.64	.538	2.64	.633
	전남(⑭)	102	2.61	.576	2.81	.607
	경북(⑮)	212	2.65	.544	2.73	.554
	경남(⑯)	224	2.69	.598	2.82	.610
	제주(⑰)	156	2.73	.528	2.80	.640
		<i>F</i> 값	-	1.737*	1.930*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개척정신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차별화태도는 남자 청소년($M=2.73$, $SD=.568$)이 여자 청소년($M=2.70$, $SD=.568$)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정신은 남자 청소년($M=2.85$, $SD=.639$)이 여자 청소년($M=2.73$, $SD=.656$)보다 $t=5.520$, $p<.01$ 수준에서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별화태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차별화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도전정신($F=73.286$, $p<.01$)은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생($M=3.03$, $SD=.603$)이 중학생($M=2.74$, $SD=.635$), 고등학생($M=2.67$, $SD=.653$), 대학생($M=2.69$, $SD=.635$)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개척정신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척정신역량의 세부역량인 차별화태도($F=26.743$, $p<.01$)와 도전정신($F=41.058$, $p<.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도전정신역량의 세부역량인 차별화태도($M_{상}=2.82$, $M_{중}=2.70$, $M_{하}=2.63$)와 도전정신($M_{상}=2.95$, $M_{중}=2.76$, $M_{하}=2.69$)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개척정신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척정신역량의 세부역량인 차별화태도($F=42.844$, $p<.01$)와 도전정신($F=32.896$, $p<.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도전정신역량의 세부역량인 차별화태도($M_{상}=2.91$, $M_{중}=2.69$, $M_{하}=2.63$)와 도전정신($M_{상}=2.98$, $M_{중}=2.77$, $M_{하}=2.68$)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개척정신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척정신역량의 세부역량인 차별화태도($F=1.737$, $p<.05$)와 도전정신($F=1.930$, $p<.05$)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지역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4)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1)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형성은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은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은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8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대인관계역량	전체		3.03	0.45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3.12	0.67
		친화성	2.96	0.68
		의사소통	3.15	0.55
		공감 및 배려	3.22	0.53
		전체	3.11	0.49
	리더십	의사결정	3.01	0.55
		집단활동관리	2.77	0.67
		추진력	2.92	0.58
		전체	2.90	0.53
	협동	집단촉진	2.97	0.58
		팔로워십	3.24	0.57
		갈등문제해결	3.04	0.58
		전체	3.08	0.50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전체 평균은 3.03(SD=.45)이었으며,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은 3.11(SD=.389), 리더십은 2.90(SD=.53), 협동은 3.08(SD=.50)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관계형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협동,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세부역량별 평균을 살펴보면, 관계형성의 세부역량의 경우 공감 및 배려(평균 3.2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평균 3.15), 자기개방성(평균 3.12), 친화성(평균 2.96)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리더십의 세부역량의 경우, 의사결정(평균 3.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추진력(평균 2.92), 집단활동관리(평균 2.77)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협동의 세부역량의 경우, 팔로워십(평균 3.24)이 가장 높고, 집단촉진(평균 2.97)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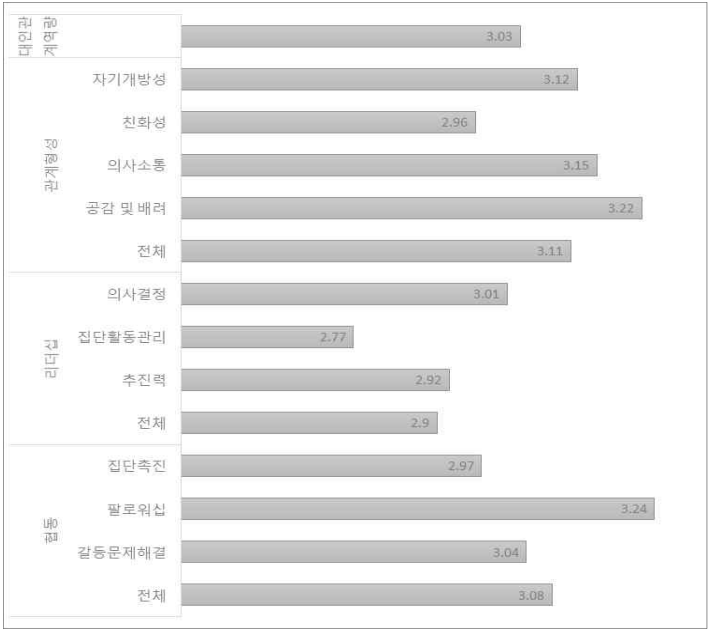


그림 IV-4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9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역량	1	2	3
1. 관계형성	1	.	.
2. 리더십	.631***	1	.
3. 협동	.691***	.762***	1

***p<.001, **p<.01, *p<.05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간 상관관계수 $r=.631\sim.76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계형성과 리더십의 상관관계수 $r=.631$ 로 가장 높았으며, 리더십과 협동의 상관관계수 $r=.762$ 로 가장 낮았다.

표 IV-30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 자기개방성	1	.	.	.	.	.	.	.	.	.
2. 친화성	.525***	1	.	.	.	.	.	.	.	.
3. 의사소통	.473***	.558***	1	.	.	.	.	.	.	.
4. 공감 및 배려	.433***	.474***	.644***	1	.	.	.	.	.	.
5. 의사결정	.350***	.402***	.507***	.451***	1	.	.	.	.	.
6. 집단활동관리	.374***	.506***	.495***	.414***	.606***	1	.	.	.	.
7. 추진력	.370***	.479***	.519***	.467***	.635***	.719***	1	.	.	.
8. 집단촉진	.402***	.540***	.559***	.533***	.561***	.624***	.652***	1	.	.
9. 팔로워십	.340***	.429***	.506***	.491***	.511***	.515***	.562***	.597***	1	.
10. 갈등문제해결	.444***	.512***	.556***	.486***	.567***	.602***	.624***	.676***	.617***	1

***p<.001, **p<.01, *p<.05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수 $r=.340\sim.71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 개방성과 팔로워십의 상관관계수 $r=.340$ 으로 가장 낮았으며, 집단활동관리와 추진력의 상관관계수 $r=.719$ 로 가장 높았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1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M	(SD)	M	(SD)	M	(SD)	M	(SD)
전체		3,919	3.03	(0.45)	3.11	(0.49)	2.90	(0.53)	3.08	(0.50)
성별	남	1,938	2.97	(0.47)	3.06	(0.51)	2.85	(0.54)	3.01	(0.51)
	여	1,981	3.09	(0.43)	3.17	(0.46)	2.95	(0.50)	3.15	(0.48)
	t 값		-8.117***		-7.335***		-5.882***		-8.56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92	2.95	(0.51)	3.03	(0.53)	2.83	(0.59)	3.00	(0.55)
	중등(중기 청소년)②	1,029	3.03	(0.45)	3.11	(0.49)	2.90	(0.53)	3.09	(0.51)
	고등(중기 청소년)③	1,386	3.09	(0.42)	3.17	(0.45)	2.95	(0.49)	3.14	(0.47)
	대학(후기 청소년)④	412	3.05	(0.35)	3.15	(0.41)	2.93	(0.41)	3.08	(0.40)
	F 값		18.720*** ②,③,④>①		19.726*** ②,③,④>①		10.040*** ②,③,④>①		15.764*** ②,③,④>①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21	3.12	(0.46)	3.15	(0.50)	3.02	(0.55)	3.17	(0.50)
	중②	2,049	3.03	(0.43)	3.11	(0.47)	2.89	(0.50)	3.08	(0.49)
	하③	824	2.95	(0.46)	3.07	(0.51)	2.78	(0.53)	2.98	(0.51)
	F 값		34.797*** ①>②>③		6.557** ①>③		50.666*** ①>②>③		35.136***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96	3.18	(0.46)	3.24	(0.48)	3.08	(0.55)	3.22	(0.51)
	중②	2,794	3.02	(0.44)	3.10	(0.48)	2.88	(0.51)	3.07	(0.49)
	하③	527	2.95	(0.47)	3.04	(0.49)	2.80	(0.54)	3.02	(0.53)
	F 값		41.679*** ①>②>③		28.232*** ①>②,③		45.882*** ①>②>③		27.902*** ①>②,③	

구분		사례수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M	(SD)	M	(SD)	M	(SD)	M	(SD)
지역	서울(①)	600	3.04	(0.46)	3.12	(0.48)	2.89	(0.56)	3.09	(0.53)
	부산(②)	272	3.14	(0.46)	3.23	(0.46)	2.99	(0.55)	3.18	(0.52)
	대구(③)	217	3.07	(0.42)	3.17	(0.48)	2.93	(0.49)	3.12	(0.49)
	인천(④)	218	3.15	(0.48)	3.24	(0.50)	3.03	(0.56)	3.18	(0.52)
	광주(⑤)	109	3.08	(0.43)	3.15	(0.47)	2.95	(0.53)	3.15	(0.46)
	대전(⑥)	154	3.10	(0.38)	3.15	(0.44)	2.98	(0.45)	3.17	(0.45)
	울산(⑦)	111	3.05	(0.40)	3.11	(0.44)	2.93	(0.47)	3.10	(0.44)
	세종(⑧)	78	3.03	(0.37)	3.10	(0.45)	2.92	(0.41)	3.07	(0.41)
	경기(⑨)	881	3.02	(0.44)	3.09	(0.50)	2.89	(0.50)	3.07	(0.49)
	강원(⑩)	110	3.01	(0.46)	3.11	(0.52)	2.91	(0.48)	3.02	(0.51)
	충북(⑪)	134	3.01	(0.53)	3.08	(0.57)	2.85	(0.59)	3.09	(0.57)
	충남(⑫)	169	3.00	(0.50)	3.10	(0.50)	2.86	(0.57)	3.04	(0.55)
	전북(⑬)	156	3.00	(0.40)	3.12	(0.44)	2.86	(0.51)	3.02	(0.44)
	전남(⑭)	107	2.91	(0.41)	2.98	(0.46)	2.77	(0.49)	2.98	(0.47)
	경북(⑮)	217	2.96	(0.41)	3.06	(0.43)	2.84	(0.48)	2.98	(0.46)
	경남(⑯)	224	2.99	(0.45)	3.07	(0.45)	2.88	(0.53)	3.02	(0.50)
	제주(⑰)	162	2.96	(0.49)	3.02	(0.53)	2.84	(0.60)	3.02	(0.50)
<i>F</i> 값			3.842*** ¹⁾		3.813*** ¹⁾		2.757*** ¹⁾		3.248*** ¹⁾	

*** $p < .001$, ** $p < .01$, * $p < .05$

1) 사후검증결과, 유의한 차이없음.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역량 및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의 하위역량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서, 학업성취도수준이 높은 상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상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대인관계역량 및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의 하위역량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사후분석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2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관계형성역량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M	(SD)	M	(SD)	M	(SD)	M	(SD)
전체		3,919	3.12	(0.67)	2.96	(0.68)	3.15	(0.55)	3.22	(0.53)
성별	남	1,938	3.06	(0.68)	2.94	(0.68)	3.07	(0.57)	3.15	(0.55)
	여	1,981	3.17	(0.65)	2.98	(0.69)	3.23	(0.53)	3.30	(0.50)
	<i>t</i> 값		-5.172***		-1.538		-8.929***		-9.211***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92	2.95	(0.72)	2.91	(0.73)	3.10	(0.59)	3.15	(0.57)
	중등(중기 청소년)②	1,029	3.14	(0.65)	2.97	(0.68)	3.12	(0.57)	3.22	(0.54)
	고등(중기 청소년)③	1,386	3.21	(0.64)	2.98	(0.67)	3.20	(0.52)	3.28	(0.50)
	대학(후기 청소년)④	412	3.19	(0.56)	2.98	(0.61)	3.18	(0.46)	3.24	(0.46)
	<i>F</i> 값		35.905*** ②,③,④)①		2.391		9.606*** ③)②)①, ④)①		13.995*** ③,④)①,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21	3.10	(0.69)	3.02	(0.70)	3.23	(0.55)	3.26	(0.54)
	중②	2,049	3.12	(0.65)	2.96	(0.67)	3.15	(0.53)	3.22	(0.52)
	하③	824	3.15	(0.67)	2.90	(0.70)	3.05	(0.57)	3.19	(0.55)
	<i>F</i> 값		.936		7.683*** ①)③		23.249*** ①)②)③		4.289* ①)③	
경제적 수준	상①	596	3.23	(0.68)	3.16	(0.67)	3.25	(0.54)	3.31	(0.53)
	중②	2,794	3.11	(0.65)	2.94	(0.67)	3.14	(0.54)	3.21	(0.52)
	하③	527	3.03	(0.71)	2.84	(0.72)	3.10	(0.59)	3.20	(0.54)
	<i>F</i> 값		13.681*** ①)②)③		37.812*** ①)②,③		12.633*** ①)②,③		10.538*** ①)②,③	
지역	서울①	600	3.14	(0.68)	2.98	(0.65)	3.13	(0.57)	3.23	(0.54)
	부산②	272	3.21	(0.67)	3.06	(0.70)	3.29	(0.51)	3.35	(0.49)
	대구③	217	3.14	(0.68)	3.08	(0.66)	3.22	(0.54)	3.24	(0.55)
	인천④	218	3.29	(0.63)	3.14	(0.70)	3.24	(0.57)	3.29	(0.59)
	광주⑤	109	3.13	(0.67)	3.02	(0.69)	3.18	(0.52)	3.24	(0.53)
	대전⑥	154	3.15	(0.64)	2.95	(0.71)	3.20	(0.50)	3.27	(0.48)
	울산⑦	111	3.07	(0.64)	2.94	(0.59)	3.18	(0.49)	3.26	(0.49)
	세종⑧	78	3.14	(0.56)	2.92	(0.62)	3.15	(0.52)	3.18	(0.49)
	경기⑨	881	3.08	(0.68)	2.93	(0.70)	3.14	(0.56)	3.20	(0.54)

구분		사례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M	(SD)	M	(SD)	M	(SD)	M	(SD)
지역	강원(⑩)	110	3.13	(0.65)	2.92	(0.71)	3.11	(0.57)	3.25	(0.53)
	충북(⑪)	134	3.11	(0.73)	2.91	(0.77)	3.12	(0.65)	3.18	(0.60)
	충남(⑫)	169	3.10	(0.69)	2.98	(0.70)	3.13	(0.56)	3.17	(0.52)
	전북(⑬)	156	3.15	(0.64)	2.93	(0.66)	3.15	(0.50)	3.24	(0.48)
	전남(⑭)	107	2.88	(0.70)	2.82	(0.66)	3.06	(0.54)	3.16	(0.48)
	경북(⑮)	217	3.09	(0.58)	2.88	(0.64)	3.07	(0.53)	3.17	(0.49)
	경남(⑯)	224	3.13	(0.59)	2.88	(0.66)	3.09	(0.54)	3.18	(0.50)
	제주(⑰)	162	3.00	(0.69)	2.88	(0.74)	3.05	(0.56)	3.13	(0.59)
F값			2.899*** (4)⑭		2.950***1)		3.022***1)		2.272***1)	

***p<.001, **p<.01, *p<.05

1) 사후검증결과, 유의한 차이없음.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라 관계형성의 세부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등 관계형성의 세부역량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비해 자기개방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하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상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인천지역 청소년이 전남 지역 청소년에 비해 자기개방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리더십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3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M	(SD)	M	(SD)	M	(SD)
전체		3,919	3.01	(0.55)	2.77	(0.67)	2.92	(0.58)
성별	남	1,938	2.95	(0.57)	2.71	(0.68)	2.89	(0.59)
	여	1,981	3.07	(0.52)	2.83	(0.65)	2.95	(0.56)
	<i>t</i> 값		-6.852***		-5.595***		-3.269***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92	2.92	(0.63)	2.70	(0.72)	2.87	(0.64)
	중등(중기 청소년)②	1,029	3.02	(0.54)	2.77	(0.68)	2.92	(0.60)
	고등(중기 청소년)③	1,386	3.07	(0.50)	2.81	(0.64)	2.95	(0.54)
	대학(후기 청소년)④	412	3.05	(0.43)	2.81	(0.56)	2.94	(0.46)
	<i>F</i> 값		17.631*** ②,③,④)①		6.088*** ③,④)①		3.833*** ¹⁾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21	3.09	(0.58)	2.92	(0.69)	3.05	(0.59)
	중②	2,049	3.01	(0.52)	2.76	(0.64)	2.90	(0.55)
	하③	824	2.93	(0.54)	2.62	(0.66)	2.80	(0.60)
	<i>F</i> 값		21.342*** ①)②)③		50.250*** ①)②)③		46.184***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96	3.13	(0.59)	2.99	(0.67)	3.10	(0.59)
	중②	2,794	3.00	(0.53)	2.75	(0.66)	2.90	(0.57)
	하③	527	2.95	(0.57)	2.64	(0.68)	2.81	(0.60)
	<i>F</i> 값		19.797*** ①)②,③		45.192*** ①)②)③		40.907*** ①)②)③	
지역	서울①	600	3.01	(0.57)	2.75	(0.70)	2.92	(0.61)
	부산②	272	3.14	(0.56)	2.82	(0.73)	3.02	(0.58)
	대구③	217	3.03	(0.55)	2.84	(0.63)	2.92	(0.51)
	인천④	218	3.12	(0.57)	2.92	(0.69)	3.04	(0.59)
	광주⑤	109	3.07	(0.55)	2.81	(0.67)	2.94	(0.59)
	대전⑥	154	3.09	(0.46)	2.87	(0.60)	2.99	(0.53)
	울산⑦	111	3.02	(0.48)	2.77	(0.60)	2.99	(0.51)
	세종⑧	78	3.07	(0.45)	2.76	(0.64)	2.93	(0.46)
	경기⑨	881	2.98	(0.51)	2.77	(0.65)	2.91	(0.58)
	강원⑩	110	2.99	(0.50)	2.79	(0.63)	2.97	(0.52)
	충북⑪	134	3.01	(0.60)	2.70	(0.74)	2.82	(0.64)
	충남⑫	169	2.98	(0.61)	2.71	(0.67)	2.88	(0.64)
	전북⑬	156	3.00	(0.51)	2.71	(0.65)	2.87	(0.57)
	전남⑭	107	2.92	(0.51)	2.59	(0.62)	2.80	(0.58)
	경북⑮	217	2.95	(0.54)	2.72	(0.63)	2.84	(0.50)
	경남⑯	224	2.99	(0.56)	2.76	(0.68)	2.88	(0.57)
	제주⑰	162	2.94	(0.64)	2.67	(0.71)	2.89	(0.62)
	<i>F</i> 값		2.593*** ¹⁾		2.324** ¹⁾		2.408*** ¹⁾	

*** $p < .001$, ** $p < .01$, * $p < .05$

1) 사후검증결과, 유의한 차이없음.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라 리더십의 세부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등 리더십의 세부역량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의사결정역량이 높았고,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집단활동관리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리더십의 세부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 리더십 세부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분석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④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협동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4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협동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	(SD)	M	(SD)	M	(SD)
전체		3,919	2.97	(0.58)	3.24	(0.57)	3.08	(0.50)
성별	남	1,938	2.91	(0.59)	3.17	(0.59)	2.96	(0.59)
	여	1,981	3.02	(0.55)	3.30	(0.55)	3.11	(0.56)
	<i>t</i> 값		-6.164***		-7.485***		-8.57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1,092	2.90	(0.62)	3.18	(0.62)	2.92	(0.64)
	중등(중기 청소년)②	1,029	2.99	(0.60)	3.21	(0.57)	3.05	(0.59)
	고등(중기 청소년)③	1,386	3.00	(0.54)	3.30	(0.56)	3.12	(0.55)
	대학(후기 청소년)④	412	2.96	(0.50)	3.22	(0.48)	3.06	(0.44)
	<i>F</i> 값		7.150*** ③,④)①		10.387*** ③,)①,②,③		25.034*** ②,③,④)①	

구분		사례수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	(SD)	M	(SD)	M	(SD)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1,021	3.06	(0.58)	3.36	(0.56)	3.10	(0.59)
	중(②)	2,049	2.96	(0.56)	3.23	(0.56)	3.04	(0.57)
	하(③)	824	2.88	(0.58)	3.10	(0.58)	2.96	(0.59)
	F값		24.371*** ①>②>③		48.806*** ①>②>③		13.024***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96	3.11	(0.60)	3.36	(0.58)	3.17	(0.59)
	중(②)	2,794	2.95	(0.56)	3.22	(0.56)	3.02	(0.57)
	하(③)	527	2.90	(0.59)	3.20	(0.62)	2.96	(0.63)
	F값		25.922*** ①>②,③		16.257*** ①>②,③		23.021*** ①>②,③	
지역	서울(①)	600	2.97	(0.59)	3.26	(0.61)	3.04	(0.60)
	부산(②)	272	3.07	(0.59)	3.30	(0.58)	3.15	(0.61)
	대구(③)	217	3.03	(0.59)	3.27	(0.52)	3.06	(0.60)
	인천(④)	218	3.08	(0.60)	3.31	(0.59)	3.14	(0.56)
	광주(⑤)	109	2.97	(0.51)	3.39	(0.55)	3.08	(0.60)
	대전(⑥)	154	2.96	(0.57)	3.41	(0.52)	3.14	(0.54)
	울산(⑦)	111	3.05	(0.57)	3.17	(0.51)	3.07	(0.50)
	세종(⑧)	78	2.89	(0.51)	3.29	(0.49)	3.04	(0.51)
	경기(⑨)	881	2.95	(0.58)	3.24	(0.55)	3.02	(0.59)
	강원(⑩)	110	2.94	(0.58)	3.14	(0.61)	2.98	(0.53)
	충북(⑪)	134	2.97	(0.66)	3.25	(0.62)	3.05	(0.66)
	충남(⑫)	169	2.93	(0.60)	3.16	(0.61)	3.02	(0.62)
	전북(⑬)	156	2.91	(0.52)	3.21	(0.51)	2.95	(0.55)
	전남(⑭)	107	2.90	(0.52)	3.06	(0.53)	2.98	(0.57)
	경북(⑮)	217	2.89	(0.52)	3.13	(0.54)	2.92	(0.55)
	경남(⑯)	224	2.96	(0.56)	3.15	(0.59)	2.96	(0.55)
	제주(⑰)	162	2.90	(0.56)	3.16	(0.58)	3.00	(0.61)
	F값		2.160**1)		4.232*** ⑤,⑥>⑭		2.763***1)	

***p<.001, **p<.01, *p<.05

1) 사후검증결과, 유의한 차이없음.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라 협동의 세부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집단축진이 높고, 고등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팔로워십이 높았으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갈등문제해결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협동의 세부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역량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적 집단이 높은 상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역량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리더십의 세부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주 및 대전 청소년이 전남지역 청소년에 비해 팔로워십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결과 차이 분석

(1)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은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시민성은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시민성은 공적 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 표현, 교실개방성, 세계시민성은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 이해의 세부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사회참여역량	개인시민성	전체	2.86	.298
		권리·책임의식	3.44	.490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88	.773
		정치 관심 및	2.52	.560
		정치적 자아효능감		
		전체	2.95	.392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사회참여역량	공동체시민성	공적 실천	3.22	.737
		사회적 신뢰	2.34	.607
		적극적 의견 표현	2.91	.484
		교실개방성	2.35	.591
		전체	2.70	.392
	세계시민성	성 인지	3.30	.697
		이민자에 대한 태도	2.88	.649
		국가 및 역사의식	2.75	.521
		국제관계 이해	2.81	.544
		전체	2.93	.34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전체 평균은 2.86(SD=.298)이었으며, 하위역량인 개인시민성은 2.95(SD=.392), 공동체시민성은 2.70(SD=.392), 세계시민성은 2.93(SD=.345)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중 개인시민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순으로 나타났다.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세부역량별 평균을 살펴보면, 개인시민성 세부역량의 경우, 권리책임의식 3.44(SD=.490),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88(SD=.773),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2.52(SD=.560)로 나타나, 권리책임의식이 가장 높았고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공동체시민성 세부역량의 경우, 공적 실천 3.22(SD=.737), 사회적 신뢰 2.34(SD=.607), 적극적 의견 표현 2.91(SD=.484), 교실개방성 2.35(SD=.591)로 나타나, 공적 실천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신뢰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성 세부역량의 경우, 성 인지 3.30(SD=.697), 이민자에 대한 태도 2.88(SD=.649), 국가 및 역사의식 2.75(SD=.521), 국제관계 이해 2.81(SD=.544)로 나타나, 성 인지가 가장 높았고 국가 및 역사의식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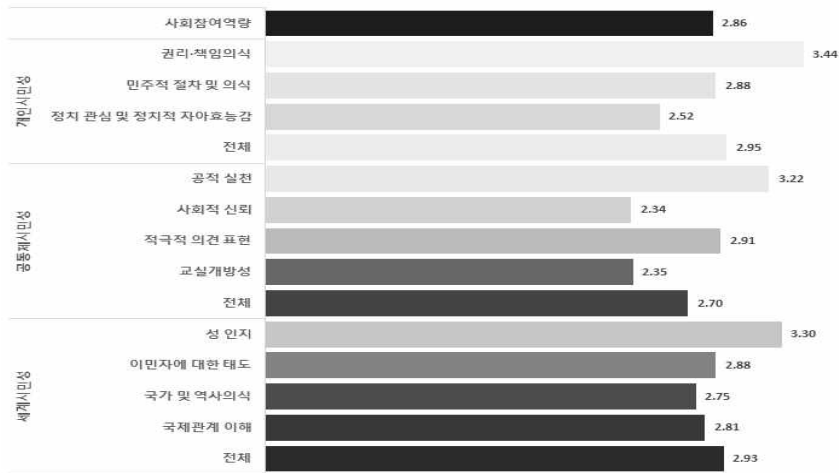


그림 IV-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평균 점수 비교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6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역량	1	2	3
1. 개인시민성			
2. 공동체시민성	.433**		
3. 세계시민성	.440**	.453**	

*** $p < .001$, ** $p < .01$, * $p < .0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간 상관계수 $r = .433 \sim .453$,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동체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상관계수 $r = .453$ 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시민성과 공동체시민성의 상관계수 $r = .433$ 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37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세부역량	1	2	3	4	5	6	7	8	9	10	11
1. 권라책임의식											
2. 민주절 절차 및 의식	.130**										
3.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247**	.001									
4. 공적 실천	.299**	.195**	.399**								
5. 사회적 신뢰	-.003	.024	.183**	.141**							
6. 적극적 의견 표현	.425**	.186**	.403**	.469**	.241**						
7. 교실개방성	.005	-.054**	.245**	.114**	.212**	.198**					
8. 성 인지	.207**	.245**	.048**	.175**	-.074**	.197**	-.072**				
9. 이민자에 대한 태도	.154**	.112**	.061**	.102**	.209**	.241**	.118**	.122**			
10. 국가 및 역사의식	.173**	-.004	.101**	.082**	.275**	.236**	.141**	-.102**	.166**		
11. 국제관계 이해	.274**	.081**	.624**	.402**	.221**	.414**	.208**	.090**	.182**	.143**	

***p<.001, **p<.01, *p<.05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 간 상관계수 $r=.048\sim.62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과 국제관계 이해의 상관계수 $r=.624$ 로 가장 높았으며,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과 성 인지의 상관계수 $r=.048$ 로 가장 낮았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8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사회참여역량		하위역량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3937	2.86	.298	2.95	.392	2.70	.392	2.93	.345
성별	남	1998	2.81	.309	2.90	.405	2.65	.419	2.87	.355
	여	1939	2.92	.275	2.99	.374	2.76	.355	3.01	.318
	t값	-	-11.786***		-6.747***		-8.504***		-13.09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702	2.91	.355	2.95	.413	2.77	.470	3.01	.394
	중등(중기 청소년)②	758	2.91	.298	2.95	.396	2.76	.396	3.01	.346
	고등(중기 청소년)③	938	2.90	.291	3.03	.403	2.72	.386	2.94	.328
	대학(후기 청소년)④	1540	2.79	.258	2.89	.363	2.63	.339	2.86	.310
	F값	-	48.893*** ①,②,③>④		28.214*** ③>①,②>④		31.594*** ①,②,③>④		49.817***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846	2.95	.308	3.03	.397	2.81	.402	3.02	.362
	중②	2312	2.86	.284	2.95	.386	2.70	.366	2.93	.334
	하③	723	2.76	.294	2.84	.380	2.59	.427	2.85	.335
	F값	-	76.629*** ①>②>③		49.777*** ①>②>③		53.155*** ①>②>③		46.220***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23	2.92	.340	3.01	.427	2.76	.452	2.98	.385
	중②	2873	2.85	.292	2.93	.388	2.70	.381	2.93	.340
	하③	533	2.86	.270	2.98	.370	2.66	.371	2.93	.320
	F값	-	8.357*** ①>②,③		10.290*** ①,③>②		7.876*** ①>②>③		4.202* ①>②>③	
지역	서울①	704	2.91	.279	3.00	.372	2.77	.374	2.96	.339
	부산②	276	2.81	.323	2.89	.424	2.69	.403	2.86	.411
	대구③	184	2.83	.301	2.93	.375	2.68	.391	2.89	.366
	인천④	214	2.91	.321	3.00	.434	2.74	.434	2.99	.339
	광주⑤	110	2.84	.372	3.03	.401	2.64	.509	2.85	.427
	대전⑥	207	2.87	.301	2.99	.412	2.69	.407	2.92	.301
	울산⑦	98	2.84	.279	2.96	.354	2.62	.403	2.94	.326
	세종⑧	14	2.89	.353	2.91	.452	2.78	.434	2.99	.402
	경기⑨	827	2.88	.279	2.95	.386	2.72	.364	2.98	.329
	강원⑩	141	2.87	.272	2.98	.374	2.68	.376	2.93	.324
	충북⑪	144	2.86	.265	2.91	.360	2.73	.346	2.92	.294
	충남⑫	186	2.82	.293	2.88	.414	2.66	.375	2.91	.341
	전북⑬	206	2.84	.302	2.94	.367	2.67	.405	2.92	.341
	전남⑭	83	2.85	.321	2.95	.412	2.69	.395	2.91	.346
	경북⑮	237	2.78	.292	2.83	.391	2.63	.373	2.88	.316
	경남⑯	214	2.85	.329	2.90	.391	2.69	.435	2.97	.359
	제주⑰	93	2.82	.276	2.92	.384	2.69	.396	2.87	.340
	F값	-	3.999*** ①>②,⑫,⑮ / ④,⑨>⑮		3.795*** ①>② / ①,④,⑤,⑥,⑨,⑩>⑮		3.034*** ①>⑫,⑮ / ⑨>⑮		3.360*** ①,④,⑨>② / ④,⑨>⑮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및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역량은 여자 청소년($M=2.92$, $SD=.275$)이 남자 청소년($M=2.81$, $SD=.309$)보다 $t=-11.786$, $p<.00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인 개인시민성($M_{남자}=2.90$, $M_{여자}=2.99$, $t=-6.747$, $p<.001$), 공동체시민성($M_{남자}=2.65$, $M_{여자}=2.76$, $t=-8.504$, $p<.001$), 세계시민성($M_{남자}=2.87$, $M_{여자}=3.01$, $t=-13.097$, $p<.001$) 모두 여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및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은 $F=48.89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M=2.91$, $SD=.355$), 중학생($M=2.91$, $SD=.298$), 고등학생($M=2.90$, $SD=.291$)이 대학생($M=2.79$, $SD=.258$)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인 개인시민성($F=28.214$, $p<.001$), 공동체시민성($F=31.594$, $p<.001$), 세계시민성($F=49.817$,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시민성은 고등학생($M=3.03$, $SD=.403$)이 초등학생($M=2.95$, $SD=.413$)과 중학생($M=2.95$, $SD=.396$)보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학생($M=2.89$, $SD=.363$)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공동체시민성은 초등학생($M=2.77$, $SD=.470$), 중학생($M=2.76$, $SD=.396$), 고등학생($M=2.72$, $SD=.386$)이 대학생($M=2.63$, $SD=.339$)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세계시민성은 초등학생($M=3.01$, $SD=.394$)과 중학생($M=3.01$, $SD=.346$)이 고등학생($M=2.94$, $SD=.328$)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M=2.86$, $SD=.310$)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및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은 $F=76.629$,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M_{상}=2.95$, $M_{중}=2.86$, $M_{하}=2.76$)가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인 개인시민성($F=49.777$, $p<.001$), 공동체 시민성($F=53.155$, $p<.001$), 세계시민성($F=46.220$,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시민성($M_{\text{상}}=3.03$, $M_{\text{중}}=2.95$, $M_{\text{하}}=2.84$), 공동체시민성($M_{\text{상}}=2.81$, $M_{\text{중}}=2.70$, $M_{\text{하}}=2.59$), 세계시민성($M_{\text{상}}=3.02$, $M_{\text{중}}=2.93$, $M_{\text{하}}=2.85$)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및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은 $F=8.357$,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 수준($M=2.92$, $SD=.340$)이 중 수준($M=2.85$, $SD=.292$)과 하 수준($M=2.86$, $SD=.270$)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인 개인 시민성($F=10.290$, $p<.001$), 공동체시민성($F=7.876$, $p<.001$), 세계시민성($F=4.202$, $p<.05$)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시민성은 상 수준($M=3.01$, $SD=.427$)과 하 수준($M=2.98$, $SD=.370$)이 중 수준($M=2.93$, $SD=.388$)보다, 공동체시민성($M_{\text{상}}=2.76$, $M_{\text{중}}=2.70$, $M_{\text{하}}=2.66$)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성은 상 수준($M=2.98$, $SD=.385$)이 중 수준($M=2.93$, $SD=.340$)과 하 수준($M=2.93$, $SD=.320$)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및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은 $F=3.999$,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청소년($M=2.91$, $SD=.279$)이 부산($M=2.81$, $SD=.323$), 충남($M=2.82$, $SD=.293$), 경북($M=2.78$, $SD=.292$)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인천($M=2.91$, $SD=.321$)과 경기($M=2.88$, $SD=.279$) 지역 청소년이 경북 지역 청소년($M=2.78$, $SD=.292$)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인 개인시민성($F=3.795$, $p<.001$), 공동체시민성

($F=3.034$, $p<.001$), 세계시민성($F=3.360$, $p<.001$) 모두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시민성의 경우 서울($M=3.00$, $SD=.372$) 지역 청소년이 부산($M=2.89$, $SD=.424$)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서울($M=3.00$, $SD=.372$), 인천($M=3.00$, $SD=.434$), 광주($M=3.03$, $SD=.401$), 대전($M=2.99$, $SD=.412$), 경기($M=2.95$, $SD=.386$), 강원($M=2.98$, $SD=.374$) 지역 청소년이 경북($M=2.83$, $SD=.391$)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공동체시민성의 경우 서울($M=2.77$, $SD=.374$) 지역 청소년이 충남($M=2.66$, $SD=.375$), 경북($M=2.63$, $SD=.373$)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경기($M=2.72$, $SD=.364$) 지역 청소년이 경북($M=2.63$, $SD=.373$)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세계시민성의 경우 서울($M=2.96$, $SD=.339$), 인천($M=2.99$, $SD=.339$), 경기($M=2.98$, $SD=.329$) 지역 청소년이 부산($M=2.86$, $SD=.411$)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인천($M=2.99$, $SD=.339$)과 경기($M=2.98$, $SD=.329$) 지역 청소년이 경북($M=2.88$, $SD=.316$) 지역 청소년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②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인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개인시민성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9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개인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M	(SD)	M	(SD)	M	(SD)
전체		4021	3.44	.490	2.88	.773	2.52	.560
성별	남	2045	3.41	.520	2.78	.797	2.52	.616
	여	1976	3.46	.455	2.98	.734	2.52	.496
	<i>t</i> 값	-	-3.311**		-8.341***		.19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738	3.34	.528	3.00	.769	2.51	.591
	중등(중기 청소년)②	779	3.49	.482	2.92	.801	2.44	.581
	고등(중기 청소년)③	952	3.56	.459	3.01	.756	2.53	.579
	대학(후기 청소년)④	1553	3.39	.475	2.72	.744	2.56	.517
	<i>F</i> 값	-	38.385*** ③>②>①,④		39.566*** ①,②,③>④		7.172*** ③,④>②	

구분		사례수	개인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M	(SD)	M	(SD)	M	(SD)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865	3.49	.489	2.97	.797	2.64	.585
	중(②)	2358	3.44	.482	2.88	.758	2.52	.542
	하(③)	742	3.38	.505	2.78	.771	2.36	.545
	F값	-	11.040*** ①>②>③		12.106*** ①>②>③		49.200***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41	3.49	.492	2.83	.863	2.69	.661
	중(②)	2929	3.42	.492	2.87	.762	2.50	.540
	하(③)	542	3.47	.474	2.99	.727	2.47	.511
	F값	-	5.750** ①>②		7.748*** ③>①,②		23.805*** ①>②,③	
지역	서울(①)	724	3.47	.482	2.92	.774	2.60	.561
	부산(②)	278	3.43	.502	2.80	.828	2.44	.568
	대구(③)	188	3.47	.469	2.90	.804	2.44	.558
	인천(④)	221	3.50	.492	2.86	.873	2.63	.577
	광주(⑤)	112	3.56	.388	3.09	.730	2.45	.602
	대전(⑥)	216	3.48	.576	3.00	.750	2.48	.517
	울산(⑦)	99	3.45	.468	2.97	.732	2.45	.580
	세종(⑧)	15	3.40	.568	2.89	.756	2.47	.631
	경기(⑨)	847	3.47	.467	2.85	.786	2.52	.551
	강원(⑩)	144	3.47	.459	2.93	.784	2.56	.601
	충북(⑪)	146	3.33	.501	2.90	.658	2.51	.453
	충남(⑫)	189	3.33	.546	2.82	.757	2.50	.571
	전북(⑬)	207	3.43	.498	2.84	.628	2.55	.586
	전남(⑭)	86	3.33	.507	2.95	.726	2.56	.503
	경북(⑮)	239	3.32	.481	2.73	.745	2.44	.547
	경남(⑯)	217	3.38	.450	2.85	.766	2.47	.571
	제주(⑰)	96	3.40	.541	2.86	.847	2.48	.539
	F값	-	3.668*** ①,④,⑤,⑨>⑮ / ⑤>⑪,⑫,⑯		2.265** ⑤,⑥>⑮		2.973***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리·책임의식($M_{\text{남자}}=3.41$, $M_{\text{여자}}=3.46$, $t=-3.311$, $p<.01$)과 민주적 절차 및 의식($M_{\text{남자}}=2.78$, $M_{\text{여자}}=2.98$, $t=-8.341$, $p<.001$)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반면,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M_{남자}=2.52$, $M_{여자}=2.52$, $t=.190$, $p>.05$)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른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권리·책임의식($F=38.385$, $p<.001$), 민주적 절차 및 의식($F=39.566$, $p<.001$),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F=7.172$,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권리·책임의식은 고등학생($M=3.56$, $SD=.459$)이 중학생($M=3.49$, $SD=.482$)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초등학생($M=3.34$, $SD=.528$)과 대학생($M=3.39$, $SD=.475$)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은 초등학생($M=3.00$, $SD=.769$), 중학생($M=2.92$, $SD=.801$), 고등학생($M=3.01$, $SD=.756$)이 대학생($M=2.72$, $SD=.744$)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은 고등학생($M=2.53$, $SD=.579$)과 대학생($M=2.56$, $SD=.517$)이 중학생($M=2.44$, $SD=.581$)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권리·책임의식($F=11.040$, $p<.001$), 민주적 절차 및 의식($F=12.106$, $p<.001$),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F=49.200$,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권리·책임의식($M_{상}=3.49$, $M_{중}=3.44$, $M_{하}=3.38$), 민주적 절차 및 의식($M_{상}=2.97$, $M_{중}=2.88$, $M_{하}=2.78$),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M_{상}=2.64$, $M_{중}=2.52$, $M_{하}=2.36$)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권리·책임의식($F=5.750$, $p<.01$), 민주적 절차 및 의식($F=7.748$, $p<.001$),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F=23.805$, $p<.001$)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권리·책임의식은 상 수준($M=3.49$, $SD=.492$)이 중 수준($M=3.42$, $SD=.492$)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은 하 수준($M=2.99$, $SD=.727$)이 상 수준($M=2.83$, $SD=.863$)과 중 수준($M=2.87$, $SD=.762$)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은 상 수준($M=2.69$, $SD=.661$)이 중 수준($M=2.50$, $SD=.540$)과 하 수준($M=2.47$, $SD=.511$)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권리·책임의식($F=3.668$, $p<.001$), 민주적 절차 및 의식($F=2.265$, $p<.01$),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F=2.973$, $p<.001$) 모두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권리·책임의식의 경우 서울($M=3.47$, $SD=.482$), 인천($M=3.50$, $SD=.492$), 광주($M=3.56$, $SD=.388$), 경기($M=3.47$, $SD=.467$) 지역 청소년이 경북($M=3.32$, $SD=.481$)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광주($M=3.56$, $SD=.388$) 지역 청소년이 충북($M=3.33$, $SD=.501$), 충남($M=3.33$, $SD=.546$), 경남($M=3.38$, $SD=.450$)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민주적 절차 및 의식은 광주($M=3.09$, $SD=.730$)와 대전($M=3.00$, $SD=.750$) 지역 청소년이 경북($M=2.73$, $SD=.745$)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③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공동체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0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공동체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공동체시민성							
			공적 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 표현		교실개방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3985	3.22	.737	2.34	.607	2.91	.484	2.35	.591
성별	남	2024	3.16	.777	2.33	.657	2.83	.505	2.30	.608
	여	1961	3.28	.690	2.36	.549	3.00	.445	2.40	.567
	<i>t</i> 값	-	-4.863***		-1.604		-11.419***		-5.54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729	3.06	.851	2.67	.654	2.88	.537	2.47	.584
	중등(중기 청소년)②	768	3.19	.777	2.48	.601	3.00	.484	2.39	.559
	고등(중기 청소년)③	943	3.35	.718	2.22	.583	3.03	.496	2.28	.592
	대학(후기 청소년)④	1546	3.23	.649	2.19	.513	2.82	.424	2.31	.599
	<i>F</i> 값	-	20.287*** ③>②,④>①		136.659*** ①>②>③,④		52.342*** ②,③>①>④		17.795***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860	3.31	.725	2.48	.639	2.98	.472	2.46	.594
	중②	2336	3.23	.702	2.32	.578	2.91	.467	2.34	.582
	하③	733	3.07	.817	2.23	.617	2.84	.525	2.24	.598
	<i>F</i> 값	-	19.738*** ①>②>③		34.133*** ①>②>③		18.216*** ①>②>③		27.921***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27	3.31	.754	2.41	.737	2.93	.555	2.39	.645
	중②	2911	3.20	.732	2.35	.581	2.91	.472	2.36	.580
	하③	540	3.27	.720	2.21	.573	2.92	.471	2.24	.576
	<i>F</i> 값	-	5.987** ①>②		16.344*** ①,②>③		.373		11.884*** ①,②>③	
지역	서울①	713	3.33	.701	2.35	.563	2.94	.460	2.45	.608
	부산②	277	3.16	.704	2.39	.643	2.87	.506	2.33	.608
	대구③	188	3.29	.734	2.32	.639	2.93	.423	2.22	.626
	인천④	215	3.31	.757	2.33	.643	2.97	.555	2.37	.601
	광주⑤	112	2.98	.973	2.34	.660	2.90	.514	2.33	.515
	대전⑥	215	3.26	.819	2.34	.524	2.94	.488	2.22	.591
	울산⑦	100	3.22	.790	2.14	.624	2.79	.493	2.32	.652
	세종⑧	14	3.22	.811	2.52	.687	2.98	.583	2.46	.593
	경기⑨	840	3.23	.698	2.40	.601	2.92	.475	2.34	.576
	강원⑩	141	3.23	.718	2.27	.652	2.93	.453	2.28	.570
	충북⑪	145	3.18	.723	2.42	.560	2.91	.430	2.40	.507
	충남⑫	188	3.12	.723	2.31	.586	2.89	.481	2.32	.555
	전북⑬	206	3.24	.782	2.22	.628	2.88	.486	2.34	.597
	전남⑭	84	3.09	.804	2.41	.634	2.95	.511	2.34	.524
	경북⑮	239	3.11	.619	2.18	.583	2.86	.482	2.36	.564
	경남⑯	216	3.09	.796	2.43	.628	2.90	.548	2.32	.585
	제주⑰	93	3.22	.739	2.31	.629	2.94	.487	2.27	.671
	<i>F</i> 값	-	3.058*** ①>⑤,⑮,⑯		3.689*** ①,②,⑨,⑩,⑮>⑥ / ⑨,⑩,⑮>⑦ / ⑨>⑬		1.153		2.899*** ①>③,⑥,⑨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공동체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실천($M_{\text{남자}}=3.16$, $M_{\text{여자}}=3.28$, $t=-4.863$, $p<.001$), 적극적 의견 표현($M_{\text{남자}}=2.83$, $M_{\text{여자}}=3.00$, $t=-11.419$, $p<.001$), 교실개방성($M_{\text{남자}}=2.30$, $M_{\text{여자}}=2.40$, $t=-5.547$, $p<.001$)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신뢰($M_{\text{남자}}=2.33$, $M_{\text{여자}}=2.36$, $t=-1.604$, $p>.05$)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공적 실천($F=20.287$, $p<.001$), 사회적 신뢰($F=136.659$, $p<.001$), 적극적 의견 표현($F=52.342$, $p<.001$), 교실개방성($F=17.795$, $p<.001$) 모두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실천은 고등학생($M=3.35$, $SD=.718$)이 중학생($M=3.19$, $SD=.777$)보다, 그리고 대학생($M=3.23$, $SD=.649$)이 초등학생($M=3.06$, $SD=.851$)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적극적 의견 표현은 중학생($M=3.00$, $SD=.484$)과 고등학생($M=3.03$, $SD=.496$)이 초등학생($M=2.88$, $SD=.537$)보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대학생($M=2.82$, $SD=.424$)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 신뢰($M_{\text{초}}=2.67$, $M_{\text{중}}=2.48$, $M_{\text{고}}=2.22$, $M_{\text{대}}=2.19$)와 교실개방성($M_{\text{초}}=2.47$, $M_{\text{중}}=2.39$, $M_{\text{고}}=2.28$, $M_{\text{대}}=2.31$)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공동체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공적 실천($F=19.738$, $p<.001$), 사회적 신뢰($F=34.133$, $p<.001$), 적극적 의견 표현($F=18.216$, $p<.001$), 교실개방성($F=27.921$,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실천($M_{\text{상}}=3.31$, $M_{\text{중}}=3.23$, $M_{\text{하}}=3.07$), 사회적 신뢰($M_{\text{상}}=2.48$, $M_{\text{중}}=2.32$, $M_{\text{하}}=2.23$), 적극적 의견 표현($M_{\text{상}}=2.98$, $M_{\text{중}}=2.91$, $M_{\text{하}}=2.84$), 교실개방성($M_{\text{상}}=2.46$, $M_{\text{중}}=2.34$, $M_{\text{하}}=2.24$)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공동체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실천($F=5.987$, $p<.01$), 사회적 신뢰($F=16.344$, $p<.001$), 교실개방성($F=11.884$, $p<.001$)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실천은 상 수준($M=3.31$, $SD=.754$)이 중 수준($M=3.20$, $SD=.732$)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 신뢰($M_{상}=2.41$, $M_{중}=2.35$, $M_{하}=2.21$)와 교실개방성($M_{상}=2.39$, $M_{중}=2.36$, $M_{하}=2.24$)은 상 수준과 중 수준이 하 수준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반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적극적 의견 표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에 따른 공동체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실천($F=3.058$, $p<.001$), 사회적 신뢰($F=3.689$, $p<.001$), 교실개방성($F=2.899$, $p<.001$)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실천의 경우 서울($M=3.33$, $SD=.701$) 지역 청소년이 광주($M=2.98$, $SD=.973$), 경북($M=3.11$, $SD=.619$), 경남($M=3.09$, $SD=.796$)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교실개방성의 경우 서울($M=2.45$, $SD=.608$) 지역 청소년이 대구($M=2.22$, $SD=.626$), 대전($M=2.22$, $SD=.591$), 경기($M=2.34$, $SD=.576$)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 신뢰는 서울($M=2.35$, $SD=.563$), 부산($M=2.39$, $SD=.643$), 경기($M=2.40$, $SD=.601$), 충북($M=2.42$, $SD=.560$), 경남($M=2.43$, $SD=.628$) 지역 청소년이 경북($M=2.18$, $SD=.583$)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경기($M=2.40$, $SD=.601$), 충북($M=2.42$, $SD=.560$), 경남($M=2.43$, $SD=.628$) 지역 청소년이 울산($M=2.14$, $SD=.624$)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경기 지역 청소년이 전북($M=2.22$, $SD=.628$)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반면, 지역에 따른 적극적 의견 표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④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세계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세계시민성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1 201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세계시민성역량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세계시민성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 이해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20	3.30	.697	2.88	.649	2.75	.521	2.81	.544
성별	남	2046	3.11	.725	2.85	.683	2.72	.536	2.79	.574
	여	1974	3.50	.606	2.92	.610	2.79	.503	2.82	.511
	<i>t</i> 값	-	-18.586***		-3.845***		-3.984***		-1.422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742	3.23	.732	3.13	.653	2.92	.528	2.76	.626
	중등(중기 청소년)②	781	3.35	.696	2.99	.623	2.89	.510	2.80	.551
	고등(중기 청소년)③	950	3.38	.684	2.79	.628	2.75	.506	2.84	.545
	대학(후기 청소년)④	1548	3.25	.683	2.77	.633	2.60	.489	2.81	.493
	<i>F</i> 값	-	9.743*** ②,③)①,④		66.943*** ①)②)③,④		89.786*** ①,②)③)④		2.586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871	3.34	.694	3.01	.654	2.83	.547	2.89	.578
	중②	2349	3.28	.700	2.88	.637	2.74	.503	2.81	.520
	하③	744	3.25	.693	2.75	.659	2.73	.537	2.67	.548
	<i>F</i> 값	-	3.141*		33.147*** ①)②)③		10.869*** ①)②,③		33.277***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542	3.21	.797	2.89	.713	2.81	.605	3.00	.575
	중②	2926	3.31	.678	2.88	.641	2.75	.504	2.78	.534
	하③	544	3.34	.688	2.90	.617	2.71	.513	2.77	.521
	<i>F</i> 값	-	3.963* ②,③)①		.131		3.683* ①)③		42.063*** ①)②,③	
지역	서울①	722	3.38	.652	2.87	.643	2.68	.544	2.91	.512
	부산②	278	3.19	.735	2.82	.698	2.68	.609	2.76	.559
	대구③	191	3.31	.711	2.80	.603	2.69	.563	2.75	.604
	인천④	220	3.38	.738	2.85	.670	2.84	.544	2.90	.553
	광주⑤	112	3.01	.788	2.79	.775	2.95	.450	2.67	.581
	대전⑥	210	3.38	.700	2.82	.662	2.71	.515	2.76	.456
	울산⑦	100	3.39	.601	2.83	.694	2.72	.549	2.81	.480
	세종⑧	15	3.33	.728	3.05	.547	2.87	.560	2.71	.620
	경기⑨	849	3.31	.668	2.99	.619	2.81	.515	2.80	.541
	강원⑩	144	3.39	.706	2.82	.652	2.71	.484	2.80	.580
	충북⑪	145	3.22	.649	2.93	.553	2.73	.418	2.80	.448
	충남⑫	187	3.28	.752	2.90	.667	2.70	.451	2.78	.642
	전북⑬	207	3.29	.689	2.86	.681	2.80	.458	2.74	.510
	전남⑭	87	3.10	.772	2.90	.636	2.86	.478	2.77	.550
	경북⑮	241	3.23	.668	2.84	.588	2.72	.448	2.75	.497
	경남⑯	218	3.22	.709	2.96	.671	2.84	.523	2.84	.595
	제주⑰	96	3.24	.785	2.81	.668	2.69	.514	2.73	.613
<i>F</i> 값		-	3.916*** ①)⑤		2.723*** ⑨)①,②,③		5.058*** ④,⑤,⑨,⑯)① / ⑤)②,③,⑥,⑩,⑪,⑫,⑬,⑭		3.509*** ①)②,⑤,⑥,⑨,⑯,⑬	

***p<.001, **p<.01, *p<.05

성별에 따른 세계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 인지($M_{\text{남자}}=3.11$, $M_{\text{여자}}=3.50$, $t=-18.586$, $p<.001$), 이민자에 대한 태도($M_{\text{남자}}=2.85$, $M_{\text{여자}}=2.92$, $t=-3.845$, $p<.001$), 국가 및 역사의식($M_{\text{남자}}=2.72$, $M_{\text{여자}}=2.79$, $t=-3.984$, $p<.001$)은 여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제관계 이해($M_{\text{남자}}=2.79$, $M_{\text{여자}}=2.82$, $t=-1.422$, $p>.05$)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급에 따른 세계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 인지($F=9.743$, $p<.001$), 이민자에 대한 태도($F=66.943$, $p<.001$), 국가 및 역사의식($F=89.786$, $p<.001$)은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 인지는 중학생($M=3.35$, $SD=.696$)과 고등학생($M=3.38$, $SD=.684$)이 초등학생($M=3.23$, $SD=.732$)과 대학생($M=3.25$, $SD=.683$)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생($M=3.13$, $SD=.653$)이 중학생($M=2.99$, $SD=.623$)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M=2.79$, $SD=.628$)과 대학생($M=2.77$, $SD=.633$)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국가 및 역사의식은 초등학생($M=2.92$, $SD=.528$)과 중학생($M=2.89$, $SD=.510$)이 고등학생($M=2.75$, $SD=.506$)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M=2.60$, $SD=.489$)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반면, 학교급에 따른 국제관계 이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세계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성 인지($F=3.141$, $p<.05$), 이민자에 대한 태도($F=33.147$, $p<.001$), 국가 및 역사의식($F=10.869$, $p<.001$), 국제관계 이해($F=33.277$, $p<.001$)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민자에 대한 태도($M_{\text{상}}=3.01$, $M_{\text{중}}=2.88$, $M_{\text{하}}=2.75$)와 국제관계 이해($M_{\text{상}}=2.89$, $M_{\text{중}}=2.81$, $M_{\text{하}}=2.67$)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국가 및 역사의식은 상 수준($M=2.83$,

SD=.547)이 중 수준(M=2.74, SD=.503)과 하 수준(M=2.73, SD=.537)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세계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 인지($F=3.963$, $p<.05$), 국가 및 역사의식($F=3.683$, $p<.05$), 국제관계 이해($F=40.063$, $p<.001$)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 인지는 중 수준(M=3.31, SD=.678)과 하 수준(M=3.34, SD=.688)이 상 수준(M=3.21, SD=.797)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국가 및 역사의식은 상 수준(M=2.81, SD=.605)이 하 수준(M=2.71, SD=.513)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국제관계 이해는 상 수준(M=3.00, SD=.575)이 중 수준(M=2.78, SD=.534)과 하 수준(M=2.77, SD=.521)보다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반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에 따른 세계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시민성역량의 세부역량인 성 인지($F=3.916$, $p<.001$), 이민자에 대한 태도($F=2.723$, $p<.001$), 국가 및 역사의식($F=5.058$, $p<.001$), 국제관계 이해($F=3.509$, $p<.001$) 모두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 인지의 경우 서울(M=3.38, SD=.652) 지역 청소년이 광주(M=3.01, SD=.788)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경우 경기(M=2.99, SD=.619) 지역 청소년이 서울(M=2.87, SD=.643), 부산(M=2.82, SD=.698), 대구(M=2.80, SD=.603)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국가 및 역사의식의 경우 인천(M=2.84, SD=.544), 광주(M=2.95, SD=.450), 경기(M=2.81, SD=.515), 경남(M=2.84, SD=.523) 지역 청소년이 서울(M=2.68, SD=.544) 지역 청소년보다, 그리고 광주(M=2.95, SD=.450) 지역 청소년이 부산(M=2.68, SD=.609), 대구(M=2.69, SD=.563), 대전(M=2.71, SD=.515), 강원(M=2.71, SD=.484), 충북(M=2.73, SD=.418), 충남(M=2.70,

SD=.451), 경북(M=2.72, SD=.448), 제주(M=2.69, SD=.514)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국제관계 이해의 경우 서울(M=2.91, SD=.512) 지역 청소년이 부산(M=2.76, SD=.559), 광주(M=2.67, SD=.581), 대전(M=2.76, SD=.456), 경기(M=2.80, SD=.541), 전북(M=2.74, SD=.510), 경북(M=2.75, SD=.497) 지역 청소년보다 역량 점수가 높았다.

3.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현황 및 실태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에 있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의 평균점수를 비교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역량군에 있어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초, 중, 고, 대), 학업성취수준(상, 중, 하), 경제수준(상, 중, 하), 그리고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의 변인에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평균을 비롯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별(생애 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와 [그림]에 제시하였다.

표 IV-4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구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8	.38	2.93	.37	3.09	.36	2.98	.40	3.03	.45	2.86	.30
	75.00%		73.25%		77.25%		74.50%		75.75%		71.50%	

2018 청소년 역량지수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98/4.00 (SD=.38)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백분율로 변환하여 보면, 75.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98(SD=.37)이고 73.25%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활관리역량 평균 3.09(SD=.36)이고 77.25% 수준이었으며,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8(SD=.40)로서 74.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3(SD=.45)로서 75.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86(SD=.30)로서 71.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8 청소년 역량지수 평균에 있어서, 생활관리역량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종합분석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측정결과에 있어 성별(남자, 여자)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다.

표 IV-43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구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8	.38	2.93	.37	3.09	0.36	2.98	.40	3.03	.45	2.86	.30
남자	2.96	.39	2.93	.38	3.08	0.36	2.99	.41	2.97	.47	2.81	.31
여자	3.01	.36	2.94	.36	3.11	0.36	2.97	.39	3.09	.43	2.9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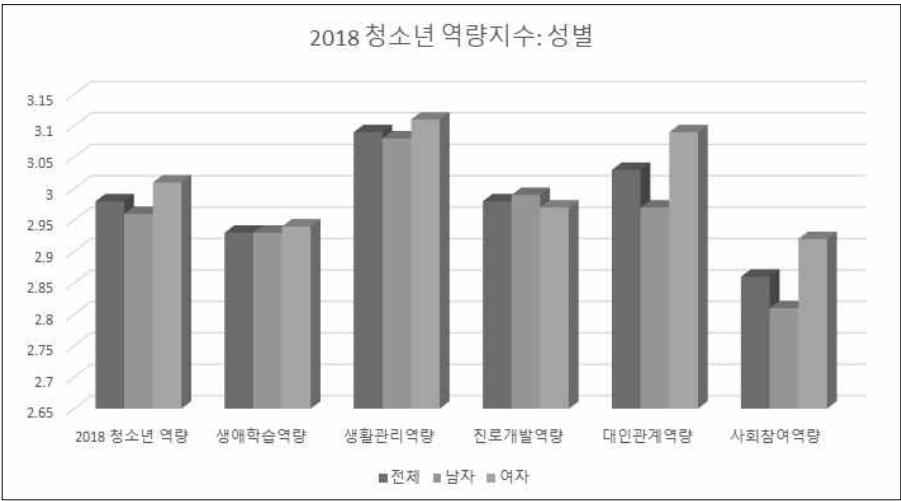


그림 IV-7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남자 평균은 2.98(SD=.39)이고, 여자 평균은 3.01(SD=.36)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 역량지수에 있어 남자 2.93(SD=.38), 여자 2.94(SD=.36), 생활관리역량지수에

있어 남자 3.08(SD=.36), 여자 3.11(SD=.36), 진로개발역량지수에 있어 남자 2.99(SD=.41), 여자 2.97(SD=.39), 대인관계역량지수에 있어 남자 2.97(SD=.47), 여자 3.09(SD=.43), 사회참여역량지수에 있어 남자 2.81(SD=.31), 여자 2.92(SD=.28)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로개발역량지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역량지수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3)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교급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측정결과에 있어 학교급별(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다.

표 IV-44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교급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학교급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8	.38	2.93	.37	3.09	0.36	2.98	.40	3.03	.45	2.86	.30
초등	3.02	.41	2.99	.40	3.22	0.36	3.04	.43	2.95	.51	2.91	.36
중등	2.98	.38	2.92	.36	3.08	0.37	2.95	.42	3.03	.45	2.91	.30
고등	2.98	.36	2.91	.35	3.03	0.34	2.97	.38	3.09	.42	2.90	.29
대학	2.94	.31	2.91	.30	3.01	0.32	2.93	.33	3.05	.35	2.7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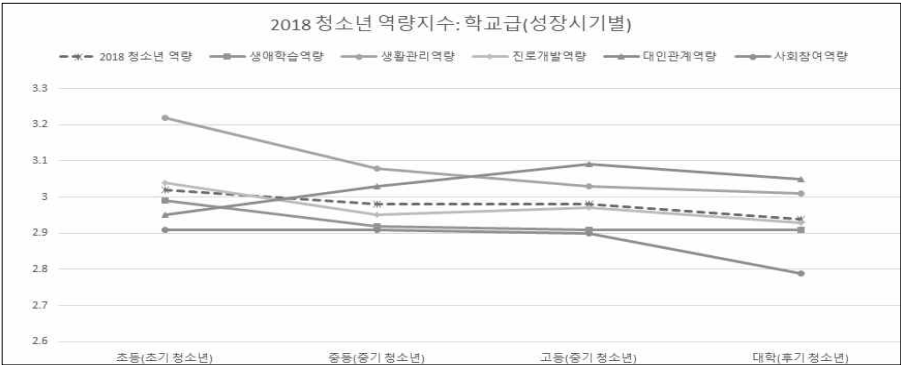


그림 IV-8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교급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초등학생 3.02(SD=.41), 중학생 2.98(SD=.38), 고등학생 2.98(SD=.36), 대학생 2.94(SD=.31)이었다. 즉,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다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으며, 대학생이 낮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2.99(SD=.40), 중학생 2.92(SD=.36), 고등학생 2.91(SD=.35), 대학생 2.91(SD=.30)이었다. 즉,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다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으며, 대학생이 낮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3.22(SD=.36), 중학생 3.08(SD=.37), 고등학생 3.03(SD=.34), 대학생 3.01(SD=.32)이었다.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3.04(SD=.43), 중학생 2.95(SD=.42), 고등학생 2.97(SD=.38), 대학생 2.93(SD=.33)이었다.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2.95(SD=.51), 중학생 3.03(SD=.45), 고등학생 3.09(SD=.42), 대학생 3.05(SD=.35)이었다. 즉,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다음 대학생,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2.91(SD=.36), 중학생 2.91(SD=.30), 고등학생 2.90(SD=.29), 대학생 2.79(SD=.26)이었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동일하기 가장 높고, 그다음 고등학생과 대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학교급별(청소년 시기별)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시기에 낮아지면서 고등학생시기에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대학생 시기에 다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인 반면, 대인관계역량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업성취수준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측정결과에 있어 학업성취수준별(상, 중, 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다.

표 IV-45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학업 성취 수준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8	.38	2.93	.37	3.09	0.36	2.98	.40	3.03	.45	2.86	.30
상	3.10	.39	3.09	.38	3.23	0.37	3.09	.42	3.12	.46	2.95	.31
중	2.97	.35	2.92	.33	3.07	0.34	2.96	.38	3.03	.43	2.86	.28
하	2.87	.37	2.77	.37	2.98	0.34	2.90	.41	2.95	.46	2.7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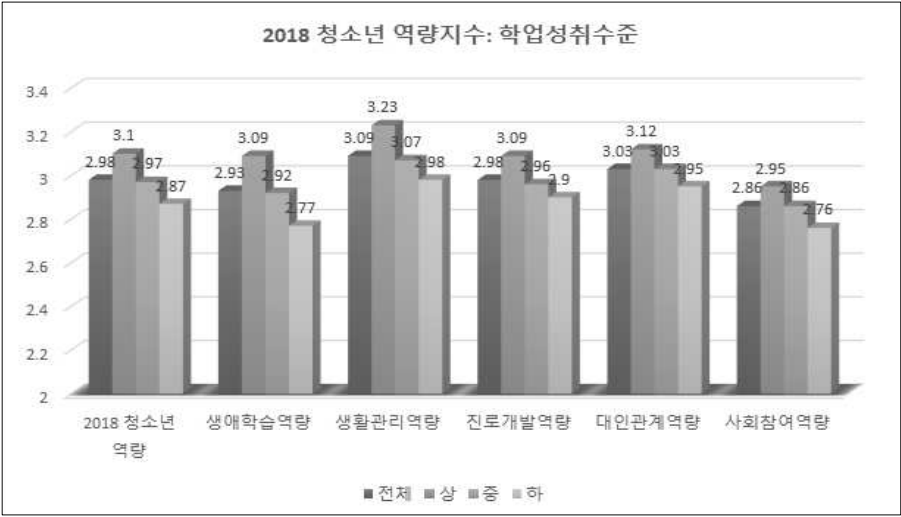


그림 IV-9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학업성취수준별 평균은 상수준 3.10(SD=.39), 중수준 2.97(SD=.35), 하수준 2.87(SD=.37)이었다.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지수에 있어 상수준 3.09(SD=.36), 중수준 2.92(SD=.33),

하수준 2.77(SD=.37)이었다. 생활관리역량지수에 있어 상상수준 3.23(SD=.37), 중수준 3.07(SD=.34), 하수준 2.98(SD=.34)이었다. 진로개발역량지수에 있어 상상수준 3.09(SD=.42), 중수준 2.96(SD=.38), 하수준 2.90(SD=.41)이었다. 대인관계역량지수에 있어 상상수준 3.12(SD=.46), 중수준 3.03(SD=.43), 하수준 2.95(SD=.46)이었다. 사회참여역량지수에 있어 상상수준 2.95(SD=.31), 중수준 2.86(SD=.28), 하수준 2.76(SD=.29)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8 청소년 역량지수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이 역량지수 측정결과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측정결과에 있어 경제수준별(상, 중, 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다.

표 IV-46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경제 수준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8	.38	2.93	.37	3.09	0.36	2.98	.40	3.03	.45	2.86	.30
상	3.12	.39	3.10	.38	3.24	0.38	3.16	.40	3.18	.46	2.92	.34
중	2.97	.37	2.92	.36	3.09	0.35	2.96	.39	3.02	.44	2.85	.29
하	2.89	.37	2.84	.36	2.95	0.33	2.86	.40	2.95	.47	2.8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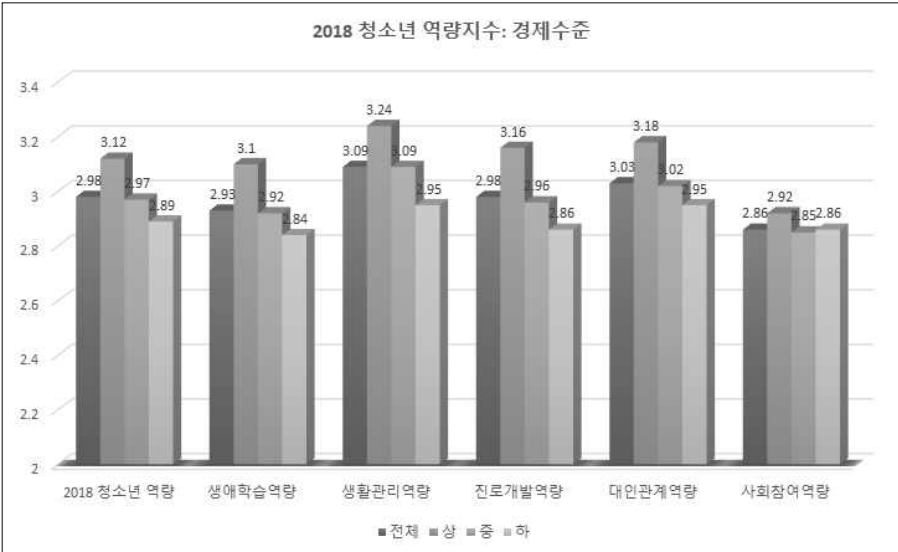


그림 IV-10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경제수준별 평균은 상수준 3.12(SD=.39), 중수준 2.97(SD=.37), 하수준 2.89(SD=.37)이었다.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 학습역량지수에 있어 상수준 3.10(SD=.38), 중수준 2.92(SD=.36), 하수준 2.84(SD=.36)이었다. 생활관리역량지수에 있어 상수준 3.24(SD=.38), 중수준 3.09(SD=.35), 하수준 2.95(SD=.33)이었다. 진로개발역량지수에 있어 상수준 3.16(SD=.40), 중수준 2.96(SD=.39), 하수준 2.86(SD=.40)이었다. 대인관계역량 지수에 있어 상수준 3.18(SD=.46), 중수준 3.02(SD=.44), 하수준 2.95(SD=.47) 이었다. 사회참여역량지수에 있어 상수준 2.92(SD=.34), 중수준 2.85(SD=.29), 하수준 2.86(SD=.27)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8 청소년 역량지수는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역량지수 측정결과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측정결과에 있어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다.

표 IV-47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에 따른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98	3.01	3.04	3.00	3.03	2.99	3.01	2.99	2.98	2.92	2.95	2.96	2.97	2.91	2.93	2.92	2.96	2.93
생애 학습	2.93	2.99	2.99	2.93	2.94	2.94	2.96	2.94	2.94	2.88	2.9	2.91	2.93	2.79	2.92	2.9	2.94	2.87
생활 관리	3.09	3.12	3.18	3.17	3.14	3.05	3.10	3.14	3.09	2.96	3.08	3.11	3.04	3.02	3.05	3.04	3.08	3.03
진로 개발	2.98	3.00	3.10	2.99	3.00	3.03	3.04	2.99	2.98	2.90	2.89	2.98	2.94	2.90	2.91	2.90	2.94	2.98
대인 관계	3.03	3.04	3.14	3.07	3.15	3.08	3.10	3.05	3.02	3.01	3.01	3.00	3.03	3.00	2.91	2.96	2.99	2.96
사회 참여	2.86	2.91	2.81	2.83	2.91	2.84	2.87	2.84	2.88	2.87	2.86	2.82	2.89	2.84	2.85	2.78	2.85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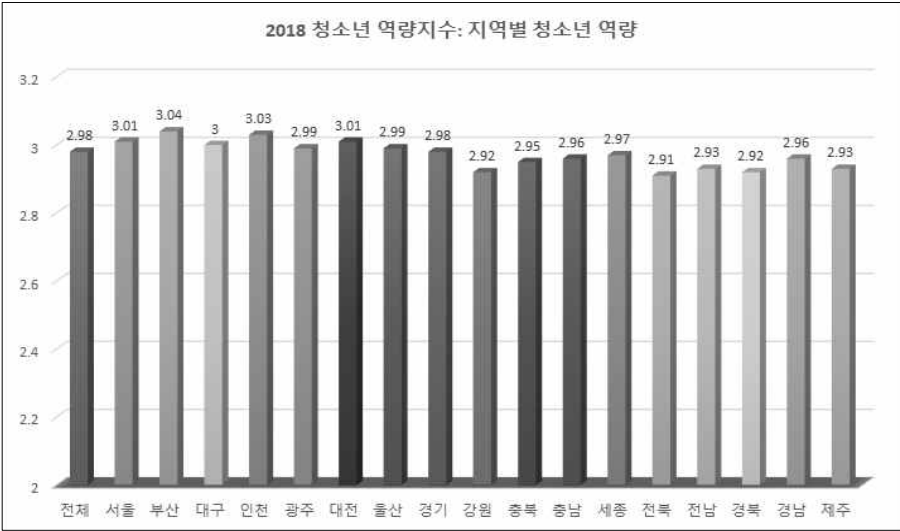


그림 IV-11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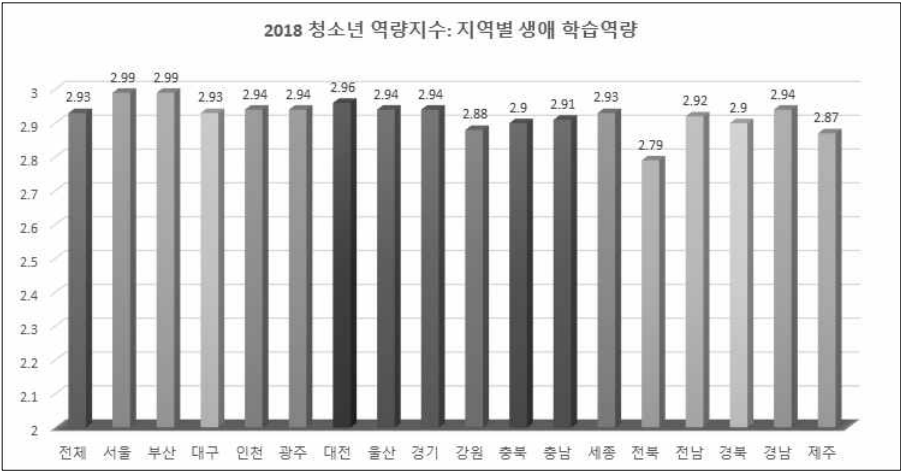


그림 IV-12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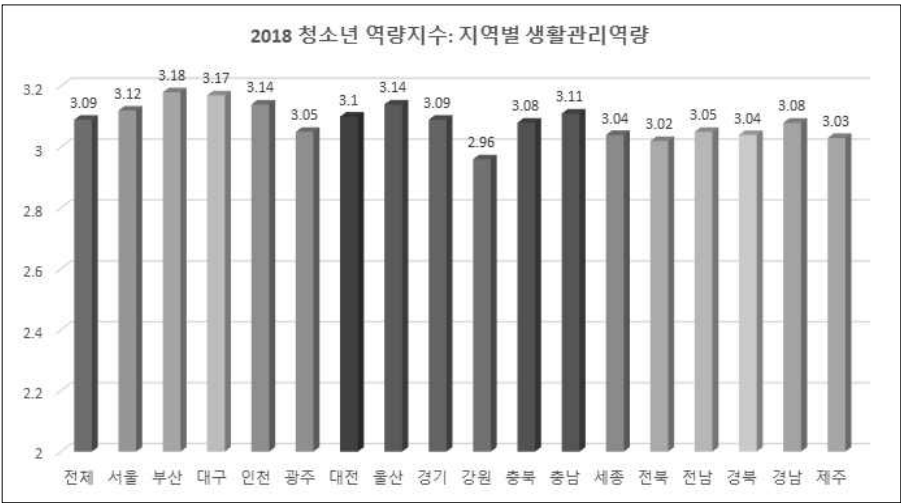


그림 IV-13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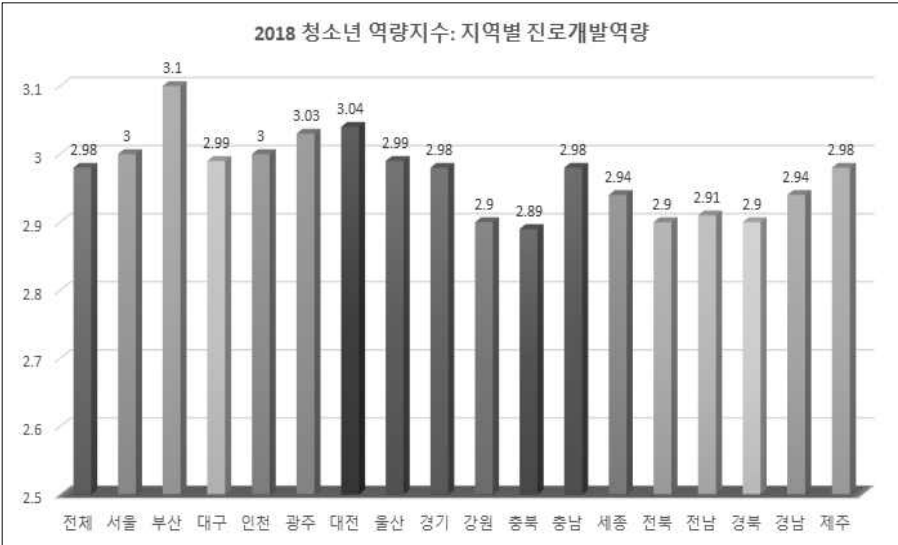


그림 IV-14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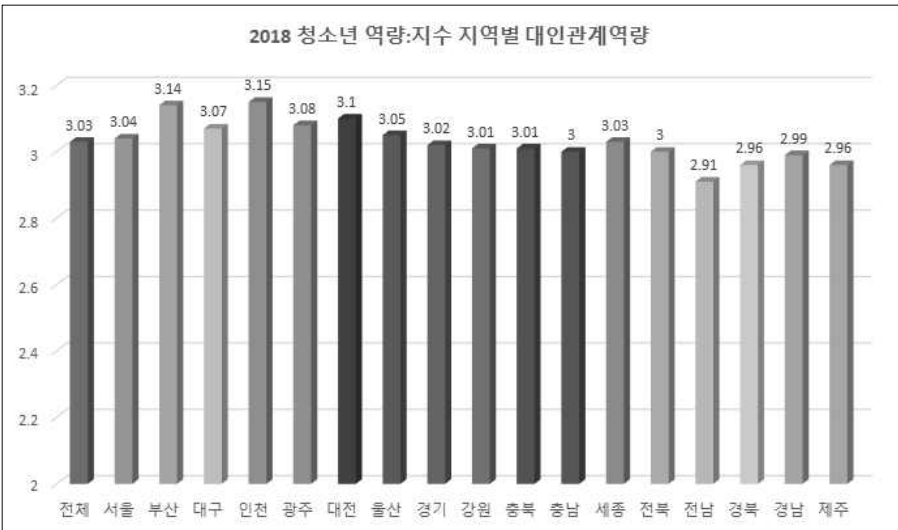


그림 IV-15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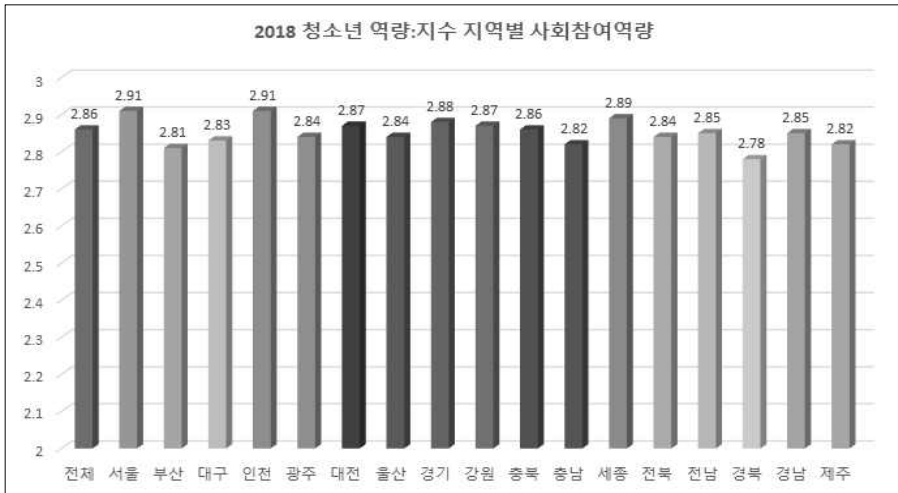


그림 IV-16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지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부산(3.0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3.03), 서울(3.01)과 대전(3.01), 대구(3.00)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2.91)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강원(2.92)과 경북(2.92), 제주(2.93)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지수에 있어서는 서울(2.99)과 부산(2.99)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2.97), 제주(2.87), 그리고 강원(2.8)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지수에 있어서는 부산(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3.17), 그리고 인천(3.14)와 울산(3.14)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강원(2.9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주(3.03), 세종(3.04)과 경북(3.04), 그리고 전남(3.0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지수에 있어서는 부산(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3.04), 광주(3.03)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충북(2.89)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북(2.90)과 경남(2.90), 전남(2.91)로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지수에 있어서는 인천(3.1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3.14), 대전(3.10)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2.96)과 제주(2.96)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지수에 있어서는 서울(2.91)과 인천(2.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2.88), 대전(2.87)과 강원(2.8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2.81), 충남(2.82)과 제주(2.82)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측정결과는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 역량이 높은 경향이 있고, 지방의 중소도시 지역 청소년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2018 청소년 역량 자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2018 청소년 역량 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 연구방법의 하나는 Likert 방식의 주관적인 측정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측정결과에 대한 행동특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각 역량별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을 역량지수의 수준별로 분석하여 그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장근영 외, 2015; 2016; 2017)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지수 결과가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즉 학교급별(초-중-고-대)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지수에 따른 행동특성 또한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즉 학교급별로 다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역량지수의 수준을 평균점수가 아닌 Z점수로 표준화하여 그 수준을 4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원점수를 Z 점수에 따라 4수준으로 구분한 이유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문항이 Likert 방식의 4수준으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이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은 청소년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이 때 청소년 역량군별로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과 청소년 역량이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0초과~1미만=3수준, -1초과~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수준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일원변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동지표 문항에 따른 행동특성을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별 행동지표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에 따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력의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 효과성, 문제해결 효율성이며, 지적도구활용 능력 중 언어, 수학, 과학능력의 행동지표는 학습시간(분)과 학업성취도이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는 컴퓨터 활용시간(분)과 컴퓨터 활용 수준이었다. 또한, 학습적응성의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수준, 질문 횟수였다.

표 V-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1022	2.44	0.97
	문제해결효과성	1152	2.94	0.60
	문제해결효율성	1152	2.51	0.68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분)	1182	70.10	54.52
	학업성취도	1195	86.64	10.31

* 이 절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역량	행동지표		N	M	S.D.
지적도구 활용능력	수학	학습시간(분)	1184	73.84	52.66
		학업성취도	1195	84.39	11.85
	과학	학습시간(분)	1182	38.56	44.59
		학업성취도	1195	83.87	11.13
	정보통신 활용	컴퓨터활용시간(분)	1192	85.97	96.39
		컴퓨터 활용수준	1169	2.32	1.07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197	6.26	12.62
	호기심 수준		1198	2.74	0.78
	질문 정도		1196	2.79	0.79
	질문 횟수		1191	10.93	15.59

초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사고력 행동지표의 평균은 문제사고수준 2.44(SD=.97), 문제해결 효과성 2.94(SD=.60), 문제해결 효율성 2.51(SD=.68)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청소년의 사고력 행동지표에 있어서는 문제해결 효과성이 가장 높고, 문제사고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70.10분(SD=54.52), 학업성취도 86.64점(SD=10.31)이고, 수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73.84분(SD=52.66), 학업성취도 84.39점(SD=11.85)이고, 과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38.56분(SD=44.59), 학업성취도 83.87점(SD=11.13)이며, 정보통신 활용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컴퓨터 활용시간 85.97분(SD=96.39), 컴퓨터 활용 수준 2.32(58.00점/100)(SD=1.07)로 나타났다. 즉, 지적도구활용능력과 관련하여 학습시간에 있어서는 컴퓨터 활용시간이 가장 높고, 과학 학습시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취수준에 있어서는 국어 성취수준이 가장 높고, 컴퓨터 활용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적응성 행동지표의 평균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6.26회(SD=12.62), 호기심 수준 2.74(SD=.78), 질문 정도 2.79(SD=.79), 질문 횟수 10.93회(SD=15.59)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1022	.091(.090) / 101.417***	.696	.301	10.071***
	문제해결효과성		1152	.081(.080) / 101.032***	.399	.285	10.051***
	문제해결효율성		1152	.000(-.001) / .358	.028	.018	.598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	1182	.094(.093) / 122.096***	27.287	.307	11.050***
		학업성취도	1195	.129(.128) / 175.919***	6.033	.359	13.263***
	수학	학습시간	1184	.096(.095) / 124.359***	24.787	.309	11.152***
		학업성취도	1195	.303(.302) / 515.418***	9.907	.550	22.703***
	과학	학습시간	1182	.138(.137) / 188.471***	23.483	.372	13.728***
		학업성취도	1195	.158(.157) / 222.456***	6.235	.397	14.915***
	ICT	컴퓨터 활용시간	1192	.010(.009) / 11.814**	13.434	.099	3.437**
		활용수준	1169	.094(.094) / 121.293***	.461	.307	11.013***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1197	.011(.010) / 13.000***	2.807	.104	3.606***
	호기심 수준		1198	.129(.128) / 174.901***	.593	.359	13.225***
	질문 정도		1196	.119(.118) / 159.847***	.579	.345	12.643***
	질문 횟수		1191	.028(.028) / 34.420***	5.533	.169	5.867***

***p<.001, **p<.01, *p<.05

초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사고력이 문제해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회귀분석모형이 $p < .01$ 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은 문제사고수준($\beta = .301, t = 10.071, p < .001$)과 문제해결 효과성($\beta = .285, t = 10.051, p < .001$)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은 학습시간($\beta = .307, t = 11.050, p < .001$) 및 학업 성취수준($\beta = .359, t = 13.263, p < .001$), 수학능력은 학습시간($\beta = .309, t = 11.152, p < .001$) 및 학업성취수준($\beta = .550, t = 22.703, p < .001$), 과학능력은 학습시간($\beta = .372, t = 13.728, p < .001$) 및 학업성취수준($\beta = .397, t = 14.915, p < .001$),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컴퓨터 활용시간($\beta = .099, t = 3.437, p < .01$) 및 활용 수준($\beta = .307, t = 11.013, p < .001$)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beta = .104, t = 3.606, p < .001$), 호기심 수준($\beta = .359, t = 13.225, p < .001$), 질문 정도($\beta = .345, t = 12.643, p < .001$), 질문 횟수($\beta = .169, t = 5.867, p < .001$)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0이상~1미만=3수준, -1이상~0미만=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초등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사고력		1193	3.08	0.43	1수준	115(9.6)	2.26	0.31
					2수준	487(40.8)	2.87	0.13
					3수준	456(38.2)	3.31	0.13
					4수준	135(11.3)	3.77	0.13
지적도구 활용능력	전체	1180	2.88	0.50	1수준	184(15.6)	2.10	0.27
					2수준	400(33.9)	2.65	0.13
					3수준	413(35.0)	3.12	0.15
					4수준	183(15.5)	3.62	0.18
	언어	1193	2.87	0.61	1수준	155(13.0)	1.82	0.29
					2수준	408(34.2)	2.55	0.16
					3수준	443(37.1)	3.14	0.17
					4수준	187(15.7)	3.80	0.16
	수학	1193	2.96	0.66	1수준	145(12.2)	1.78	0.29
					2수준	339(28.4)	2.54	0.16
					3수준	434(36.4)	3.14	0.16
					4수준	275(23.1)	3.81	0.17
	과학	1193	2.78	0.71	1수준	240(20.1)	1.77	0.32
					2수준	377(31.6)	2.50	0.17
					3수준	362(30.3)	3.14	0.16
					4수준	214(17.9)	3.81	0.17
	ICT	1194	2.90	0.71	1수준	189(15.8)	1.77	0.32
					2수준	347(29.1)	2.51	0.17
					3수준	377(31.6)	3.12	0.16
					4수준	281(23.5)	3.85	0.17
학습적응성		1185	3.00	0.47	1수준	214(18.1)	2.31	0.28
					2수준	295(24.9)	2.75	0.08
					3수준	448(37.8)	3.15	0.14
					4수준	228(19.2)	3.66	0.17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원점수 3.08(SD=.43)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15명, 9.6%) 평균은 2.26(SD=.31), 2수준(487명, 40.8%) 평균은 2.87(SD=.13), 3수준(456명, 38.2%) 평균은 3.31(SD=.13), 4수준(135명, 11.3%) 평균은 3.77(SD=.13)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원점수 2.88(SD=.50)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84명, 15.6%) 평균은 2.10(SD=.27), 2수준(400명, 33.9%) 평균은 2.65(SD=.13), 3수준(413명, 35.0%) 평균은 3.12(SD=.15), 4수준(183명, 15.5%) 평균은 3.62(SD=.18)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원점수 3.00(SD=.47)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14명, 18.1%) 평균은 2.31(SD=.28), 2수준(295명, 24.9%) 평균은 2.75(SD=.08), 3수준(448명, 37.8%) 평균은 3.15(SD=.14), 4수준(228명, 19.2%) 평균은 3.66(SD=.17)로 나타났다.

(4)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생애학습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일원변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고력 행동지표의 특성

사고력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 효과성, 그리고 문제해결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사고수준의 전체 평균은 2.44(SD=.97)이고, 1수준 평균은 1.88(SD=.97), 2수준 평균은 2.26(SD=.89), 3수준 평균은 2.59(SD=.95), 4수준 평균은 2.98(SD=.9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3.718$,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문제사고수준 특성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행동적 특성은 청소년들이 응답한 점수의 분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한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하여 행동지표를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문제사고수준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1.70에서 상한값 3.15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사고 수준의 행동지표 1수준 특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매우 가끔 제시한다.’, 2수준 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행동 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여러 번 제시한다.’, 그리고 4수준 행동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과성의 전체 평균은 2.94 ($SD=.60$)이고, 1수준 평균은 2.63($SD=.75$), 2수준 평균은 2.86($SD=.58$), 3수준 평균은 3.02($SD=.51$), 4수준 평균은 3.25($SD=.6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9.233$,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문제해결 효과성 특성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사고력의 문제해결 효과성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52에서 상한값 3.35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의 행동지표 1수준 특성은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은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은 ‘정확한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매우 정확한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율성의 전체 평균은 2.52 (SD=.68)이고, 1수준 평균은 2.53(SD=.78), 2수준 평균은 2.51(SD=.66), 3수준 평균은 2.49(SD=.66), 4수준 평균은 2.62(SD=.7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409$,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해결 효율성은 사고력 수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의 문제해결 효율성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40에서 상한값 2.7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율성의 행동지표 1수준, 2수준, 3수준의 특성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긴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표 V-4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15	2.26	0.31	94	1.88	0.97	1.70	2.07	33.718*** 4>3>2>1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매우 가끔 제시한다.
2수준	487	2.87	0.13	406	2.26	0.89	2.17	2.35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456	3.31	0.13	401	2.59	0.95	2.50	2.68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여러 번 제시한다.
4수준	135	3.77	0.13	117	2.98	0.90	2.82	3.15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전체	1193	3.08	0.43	1018	2.44	0.97	2.29	2.56		

***p<.001, **p<.01, *p<.05

표 V-5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15	2.26	0.31	112	2.63	0.75	112	2.52	2.73	29.233*** 4)3>2>1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	487	2.87	0.13	466	2.86	0.58	466	2.81	2.92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	456	3.31	0.13	439	3.02	0.51	439	2.96	3.07		정확한 편이다.
4수준	135	3.77	0.13	130	3.25	0.63	130	3.15	3.35		매우 정확한 편이다.
전체	1193	3.08	0.43	1147	2.94	0.60	1147	2.86	3.02		

***p<.001, **p<.01, *p<.05

표 V-6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15	2.26	0.31	112	2.53	0.78	112	2.40	2.65	1.409	짧지도 길지도 않은 편이다.
2수준	487	2.87	0.13	466	2.51	0.66	466	2.45	2.57		
3수준	456	3.31	0.13	439	2.49	0.66	439	2.42	2.55		
4수준	135	3.77	0.13	130	2.62	0.70	130	2.51	2.74		
전체	1193	3.08	0.43	1147	2.52	0.68	1147	2.45	2.63		긴 편이다.

***p<.001, **p<.01, *p<.05

②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행동지표 특성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는 학습시간 및 컴퓨터 활용시간과 학업성취수준 및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으로 구분된다.

언어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의 전체 평균은 70.22분(SD=54.58)이고, 1수준 평균은 46.92분(SD=42.00), 2수준 평균은 58.70분(SD=52.50), 3수준 평균은 75.76분(SD=51.70), 4수준 평균은 101.93분(SD=58.64)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1.27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그리고 1수준과 2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3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언어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38.70에서 상한값 109.47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능력의 행동지표로 학습시간 행동지표의 1수준 특성은 '1시간 미만이다.', 2수준은 '1시간 정도이다,'로 나타났고, 3수준은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이다.'이며, 4수준은 '1시간 30분 이상이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언어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전체 평균은 86.65(SD=10.30)이고, 1수준 평균은 79.90(SD=13.50), 2수준 평균은 84.71(SD=10.27), 3수준 평균은 88.66(SD=8.75), 4수준 평균은 91.74(SD=5.8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4.208$,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언어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78.38에서 상한값 93.13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이 1수준은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80점

이상~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85점 이상~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은 '90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수학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의 전체 평균은 74.04분(SD=52.67)이고, 1수준 평균은 45.43분(SD=37.14), 2수준 평균은 63.34분(SD=47.18), 3수준 평균은 76.94분(SD=50.12), 4수준 평균은 97.97분(SD=58.9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1.820$,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수학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37.24에서 상한값 103.95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역량의 학습시간 1수준은 '1시간 미만이다.', 2수준은 '1시간 정도이다.', 3수준은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이다.', 그리고 4수준은 '1시간 30분 이상이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수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전체 평균은 84.45(SD=11.81)이고, 1수준 평균은 71.88(SD=13.46), 2수준 평균은 80.38(SD=11.91), 3수준 평균은 87.06(SD=9.19), 4수준 평균은 91.91(SD=5.7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54.493$,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수학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70.24에서 상한값 93.1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역량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0~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75점 이상~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85점 이상~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은 '90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과학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의 전체 평균은 38.54분(SD=44.65)이고, 1수준 평균은 20.52분(SD=27.27), 2수준 평균은 27.07분(SD=32.74), 3수준 평균은 44.29분(SD=42.21), 4수준 평균은 69.64분(SD=61.7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6.656$,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그리고 1수준과 2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3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15.27에서 상한값 75.2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역량의 학습시간 1수준은 '30분 미만이다.', 2수준은 '30분 정도이다.', 3수준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다.', 그리고 4수준은 '1시간 이상이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과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전체 평균은 83.92(SD=11.11)이고, 1수준 평균은 77.88(SD=12.40), 2수준 평균은 81.85(SD=11.05), 3수준 평균은 86.30(SD=9.31), 4수준 평균은 90.31(SD=7.4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6.425$,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76.57에서 상한값 91.69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역량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80점 이상~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85점 이상~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은 '90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시간의 전체 평균은 86.13분(SD=96.49)이고, 1수준 평균은 70.89분(SD=100.84), 2수준 평균은 81.21분(SD=101.96), 3수준 평균은 89.12분(SD=85.77), 4수준 평균은 98.46분(SD=98.8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52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1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통신활용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57.12에서 상한값 109.76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활용역량의 컴퓨터 활용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1수준과 2수준 특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미만 사용한다.’, 그리고 3수준과 4수준 특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사용한다.’로 분류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 수준의 전체 평균은 2.32(SD=1.07)이고, 1수준 평균은 1.79(SD=.95), 2수준 평균은 2.15(SD=1.02), 3수준 평균은 2.41(SD=1.06), 4수준 평균은 2.77(SD=1.0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8.570$,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통신활용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수준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1.64에서 상한값 2.89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활용역량의 컴퓨터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로 분류되었다.

표 V-7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관련 공부 시간(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55	1.82	0.29	154	46.92	42.00	38.70	55.14		1시간 미만이다.
2수준	408	2.55	0.16	403	58.70	52.50	53.62	63.78	41.274***	1시간 정도이다
3수준	443	3.14	0.17	437	75.76	51.70	70.88	80.64	4>3>1,2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187	3.80	0.16	183	101.93	58.64	94.39	109.47		1시간 30분 이상이다.
전체	1193	2.87	0.61	1177	70.22	54.58	64.40	77.26		

***p<.001, **p<.01, *p<.05

표 V-8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한국어) 관련 성적 평균(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55	1.82	0.29	155	79.90	13.50	78.38	81.43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2수준	408	2.55	0.16	408	84.71	10.27	83.77	85.65	54.208***	80점 이상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3수준	443	3.14	0.17	440	88.66	8.75	87.75	89.56	4>3>2>1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4수준	187	3.80	0.16	187	91.74	5.83	90.35	93.13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있다.
전체	1193	2.87	0.61	1190	86.65	10.30	85.06	87.4		

***p<.001, **p<.01, *p<.05

표 V-9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수학 공부 시간)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5	1.78	0.29	144	45.43	37.14		37.24	53.63		1시간 미만이다.
2수준	339	2.54	0.16	337	63.34	47.18		57.98	68.70	41.820***	1시간 정도이다.
3수준	434	3.14	0.16	427	76.94	50.12		72.18	81.70	4>3>2>1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275	3.81	0.16	271	97.97	58.93		92.00	103.95		1시간 30분 이상이다.
전체	1193	2.96	0.66	1179	74.04	52.67		64.85	76.99		

***p<.001, **p<.01, *p<.05

표 V-10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수학 성적 평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5	1.78	0.29	144	71.88	13.46		70.24	73.51		0~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339	2.54	0.16	338	80.38	11.91		79.32	81.46	154.493***	75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434	3.14	0.16	433	87.06	9.19		86.11	88.00	4>3>2>1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275	3.81	0.16	275	91.91	5.75		90.72	93.10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1193	2.96	0.66	1190	84.45	11.81		81.60	84.02		

***p<.001, **p<.01, *p<.05

표 V-1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과학 공부 시간)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40	1.77	0.32	239	20.52	27.27	15.27	25.76		30분 미만이다.
2수준	377	2.50	0.17	372	27.07	32.74	22.86	31.27	66.656***	30분 정도이다.
3수준	362	3.14	0.16	356	44.29	42.21	39.99	48.58	4)3)1,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다.
4수준	214	3.81	0.17	210	69.64	61.73	64.05	75.24		1시간 이상이다.
전체	1193	2.78	0.71	1177	38.54	44.65	35.54	45.21		

***p<.001, **p<.01, *p<.05

표 V-12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과학 성적 평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40	1.77	0.32	240	77.88	12.40	76.57	79.18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377	2.50	0.17	375	81.85	11.05	80.81	82.90	66.425***	80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362	3.14	0.16	362	86.30	9.31	85.24	87.36	4)3)2)1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214	3.81	0.17	213	90.31	7.49	88.92	91.69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1193	2.78	0.71	1190	83.92	11.11	82.89	85.28		

***p<.001, **p<.01, *p<.05

표 V-13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89	1.77	0.32	188	70.89	100.84	57.12	84.65	3.525* 4>1	하루 평균 1시간 30분 미만 사용한다
2수준	347	2.51	0.17	346	81.21	101.96	71.07	91.36		
3수준	377	3.12	0.16	375	89.12	85.77	79.38	98.87		
4수준	281	3.85	0.17	279	98.46	98.83	87.16	109.76		
전체	1194	2.90	0.71	1188	86.13	96.49	73.68	96.16		

***p<.001, **p<.01, *p<.05

표 V-14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들)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89	1.77	0.32	183	1.79	0.95	1.64	1.94	38.570*** 4>3>2>1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상당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2수준	347	2.51	0.17	340	2.15	1.02	2.04	2.26		
3수준	377	3.12	0.16	366	2.41	1.06	2.31	2.52		
4수준	281	3.85	0.17	276	2.77	1.02	2.65	2.89		
전체	1194	2.90	0.71	1165	2.32	1.07	2.16	2.40		

***p<.001, **p<.01, *p<.05

③ 학습적응성 행동지표의 특성

학습적응성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그리고 질문 횟수로 구분된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의 전체 평균은 6.26(SD=12.66)이고, 1수준 평균은 4.51(SD=10.46), 2수준 평균은 5.89(SD=9.13), 3수준 평균은 5.96(SD=12.19), 4수준 평균은 8.95(SD=17.9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99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1수준과 3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83에서 상한값 10.5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3~5회 정도 경험한다.’, 2수준과 3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6~7회 정도 경험한다.’, 그리고 4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8회 정도 경험한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호기심 수준의 전체 평균은 2.74(SD=.78)이고, 1수준 평균은 2.33(SD=.68), 2수준 평균은 2.63(SD=.75), 3수준 평균은 2.79(SD=.74), 4수준 평균은 3.17(SD=.7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1.50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호기심 수준 특성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호기심 수준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23에서 상한값 3.27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질문 정도의 행동지표 전체 평균은 2.79(SD=.79)이고, 1수준 평균은 2.35(SD=.75), 2수준 평균은 2.69(SD=.71), 3수준 평균은 2.88(SD=.76), 4수준 평균은 3.16(SD=.7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7.50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질문 정도 수준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25에서 상한값 3.26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 행동지표 1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여러 번 질문하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로 분류되었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질문 횟수의 행동지표 전체 평균은 10.87(SD=15.44)이고, 1수준 평균은 6.73(SD=10.58), 2수준 평균은 10.57(SD=16.05), 3수준 평균은 10.62(SD=13.76), 4수준 평균은 15.63(SD=19.8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2.736$, $p<.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2수준과 3수준, 마지막으로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질문 횟수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4.68에서 상한값 17.6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1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5~9개 이하의 질문을 한다.’, 2수준과 3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10~14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그리고 4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15개 이상 질문을 한다.’로 분류되었다.

표 V-15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들)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4	2.31	0.276	214	4.51	10.455	2.825	6.203	4.999** 4>1,3	3~5회 정도 경험한다.
2수준	295	2.75	0.083	295	5.89	9.128	4.453	7.331		6~7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448	3.15	0.135	447	5.96	12.188	4.794	7.132		
4수준	228	3.66	0.165	228	8.95	17.945	7.311	10.584		8회 이상 경험한다.
전체	1185	3.00	0.470	1184	6.26	12.657	4.846	7.813		

***p<.001, **p<.01, *p<.05

표 V-16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4	2.31	0.276	214	2.33	0.676	2.234	2.430	51.509*** 4>3>2>1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	295	2.75	0.083	295	2.63	0.749	2.544	2.711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448	3.15	0.135	448	2.79	0.735	2.718	2.854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4수준	228	3.66	0.165	228	3.17	0.752	3.076	3.266		자주 생기는 편이다.
전체	1185	3.00	0.470	1185	2.74	0.777	2.643	2.815		

***p<.001, **p<.01, *p<.05

표 V-17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4	2.31	0.276	214	2.35	0.746		2.246	2.446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	295	2.75	0.083	294	2.69	0.707		2.608	2.779	47.502***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448	3.15	0.135	448	2.88	0.762		2.810	2.949	4>3>2>1	여러 번 질문하는 편이다.
4수준	228	3.66	0.165	227	3.16	0.765		3.061	3.256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전체	1185	3.00	0.470	1183	2.79	0.789		2.681	2.858		

***p<.001, **p<.01, *p<.05

표 V-18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4	2.31	0.276	213	6.73	10.579		4.680	8.771		5~9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295	2.75	0.083	294	10.57	16.045		8.829	12.311	12.736***	10~14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448	3.15	0.135	446	10.62	13.759		9.210	12.037	4>2,3>1	15개 이상 질문을 한다.
4수준	228	3.66	0.165	226	15.63	19.839		13.649	17.620		
전체	1185	3.00	0.470	1179	10.87	15.439		9.092	12.685		

***p<.001, **p<.01, *p<.05

(5)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19>와 같다.

표 V-19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사고력	문제사고 수준	1수준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매우 가끔 제시한다.
		2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여러 번 제시한다.
		4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정확한 편이다.
		4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매우 정확한 편이다.
	문제해결 효율성	1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편이다.
		2수준	
		3수준	
		4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긴 편이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 시간 (분)	1수준	1시간 미만이다.
			2수준	1시간 정도이다
			3수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1시간 30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2수준	80점 이상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3수준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4수준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있다.
	수학	학습 시간 (분)	1수준	1시간 미만이다.
			2수준	1시간 정도이다.
			3수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1시간 30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75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과학	학습 시간 (분)		
	수준	평균	1수준	30분 미만이다.
	1수준	1.77	2수준	30분 정도이다.
	2수준	2.50	3수준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다.
	3수준	3.14	4수준	1시간 이상이다.
	4수준	3.81	1수준	0~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2.78	2수준	80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		3수준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1수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미만 사용한다.
			2수준	
			3수준	
			4수준	
	정보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시간 (분)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활용 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1수준	
			2수준	
	정보활용 능력		3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4수준	
			전체	
			4수준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3~5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6~7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4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8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호기심 수준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질문 정도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여러 번 질문하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질문 횟수	1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5~9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10~14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4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15개 이상 질문을 한다.	

(6)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20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사고력	유형 1	257	3.44	0.37	340.062**	유형 1)2)3
	유형 2	303	3.08	0.26		
	유형 3	889	2.87	0.31		
	전체	1449	3.02	0.38		
지적도구 활용능력	유형 1	257	3.30	0.43	652.274**	유형 1)2)3
	유형 2	303	3.15	0.25		
	유형 3	889	2.55	0.35		
	전체	1449	2.81	0.48		
학습 적응성	유형 1	257	3.57	0.29	913.361**	유형 1)2)3
	유형 2	303	3.00	0.18		
	유형 3	889	2.69	0.32		
	전체	1449	2.91	0.44		

*p<.05, **p<.0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생애학습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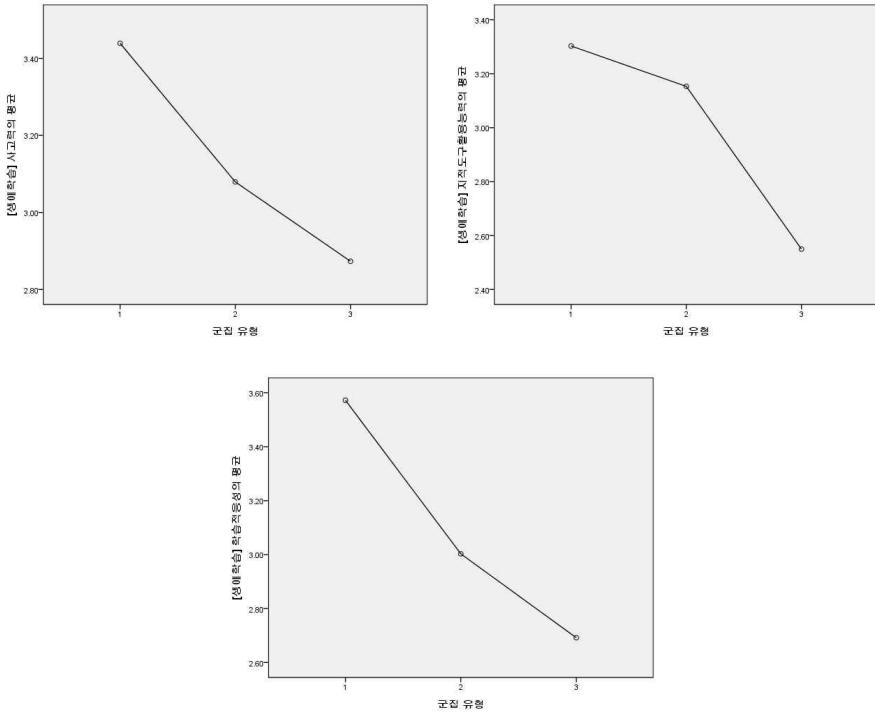


그림 V-1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학습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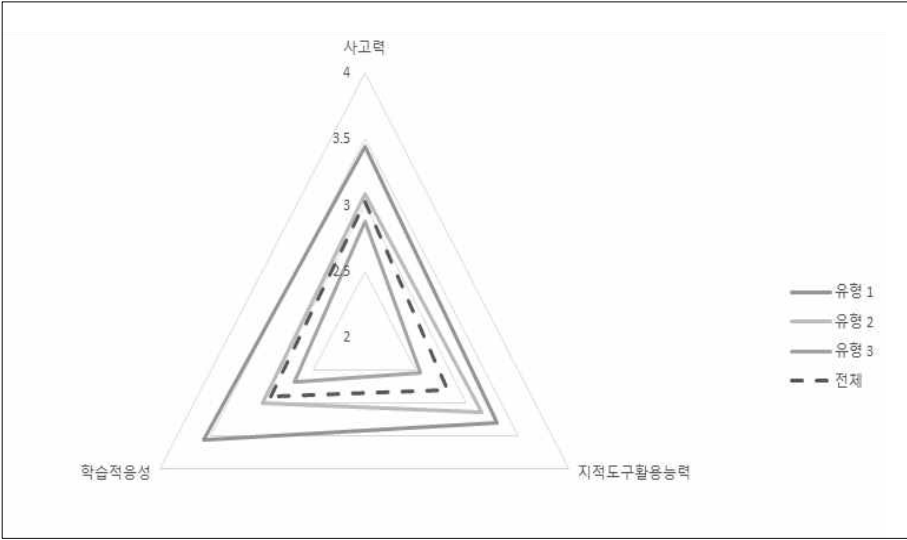


그림 V-2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사고력과 학습적응성을 바탕으로 지적도구활용능력이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몰입형’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유형 2는 사고력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 적응성 주도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리-주도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사고력에서는 논리적 사고력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학습적응성의 변화수용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성-변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1 초등학교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학습역량	학습-몰입형 (유형 1)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3~4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	
			지적도구능력	언어 학습시간	4수준에 해당함
				학습성취도	
				수학 학습시간	4수준에 해당함
				학습성취도	
			과학	학습시간	4수준에 해당함
				학습성취도	
			ICT	활용시간	하루 평균 120분
				활용수준	3~4수준에 해당함
			학습적응성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3~4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2~3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 학습역량	논리-주도형 (유형 2)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지적도구활용능 력이 높은 특성이 있음.	지적도구활용 능력	언어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3수준에 해당함
				수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3수준에 해당함
				과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3수준에 해당함
				ICT	활용시간 활용수준 하루 평균 120분 2~3수준에 해당함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2~3수준에 해당함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질문 정도	
				질문 횟수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효율성	1~2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율성	
				언어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1~2수준에 해당함
				수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1~2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 학습 역량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지적도구능력	과학	1~2수준에 해당함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ICT	활용시간	하루 평균 120분
				활용수준	1~2수준에 해당함
			학습적응성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1~2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19> 참조.

2)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따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력에 따른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이고, 지적도구 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언어, 수학, 그리고 과학능력은 학습시간(분)과 학업성취도이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컴퓨터 활용시간(분)과 컴퓨터 활용 수준이었으며, 학습적응성의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수준, 질문 회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22>와 같다.

표 V-2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966	2.44	0.89
	문제해결효과성		1036	2.94	0.58
	문제해결효율성		1036	2.56	0.66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분)	1081	79.00	58.85
		학업성취도	1096	80.77	13.41
	수학	학습시간(분)	1082	94.00	66.73
		학업성취도	1095	79.13	15.84
	과학	학습시간(분)	1082	41.00	47.87
		학업성취도	1095	77.57	14.94
	정보통신 활용	컴퓨터활용시간(분)	1092	118.00	122.94
		컴퓨터 활용수준	1081	2.45	0.95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091	5.00	5.64
	호기심 수준		1096	2.57	0.74
	질문 정도		1095	2.58	0.78
	질문 횟수		1077	8.00	10.07

중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사고력 행동지표의 평균은 문제사고수준 2.44(SD=.89), 문제해결효과성 2.94(SD=.58), 문제해결효율성 2.56(SD=.66)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청소년의 사고력 행동지표에 있어서는 문제해결 효과성이 가장 높고, 문제사고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79.00분(SD=58.85)이고 학업성취도 80.77점(SD=13.41)이고, 수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94.00분(SD=66.73)이고 학업성취도 79.13점(SD=15.84)이고, 과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41.00분(SD=47.87)이고 학업성취도 77.57점(SD=14.94)이며,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컴퓨터 활용시간 118.00분(SD=122.94)이고 컴퓨터 활용 수준은 2.45(61.25점/100)(SD=13.41)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행동지표 평균은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5.00회(SD=5.64), 호기심 수준 2.57(SD=.74), 질문 정도 2.58(SD=.78), 그리고 질문 횟수 8.00회(SD=10.07)로 나타났다.

(2)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3>과 같다.

표 V-23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966	.049(.048) / 49.183**	.513	.221	7.013**
	문제해결효과성	1036	.056(.055) / 61.043**	.367	.237	7.812**
	문제해결효율성	1036	.009(.008) / 9.763**	.169	.097	3.015**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	.052(.051) / 59.446**	23.795	.229	7.710**
		학업성취도	.087(.086) / 103.880**	6.950	.295	10.192**
	수학	학습시간	.112(.112) / 135.873**	31.632	.335	11.656**
		학업성취도	.313(.312) / 494.769**	12.626	.559	22.243**
	과학	학습시간	.093(.092) / 110.715**	19.737	.305	10.522**
		학업성취도	.158(.157) / 204.817**	7.997	.398	14.311**
	ICT	컴퓨터 활용시간	.000(.000) / .002	.282	.001	.048
		활용수준	.117(.116) / 142.122**	.514	.341	11.922**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1091	.014(.013) / 15.592**	1.521	.119	3.949**
	호기심 수준	1096	.149(.148) / 191.189**	.651	.387	13.827**
	질문 정도	1095	.100(.099) / 120.345**	.553	.316	10.970**
	질문 횟수	1077	.0499(.048) / 54.756**	5.045	.221	7.400**

***p<.001, **p<.01, *p<.05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지적도구활용능력에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이 컴퓨터 활용시간에 대한 회귀모형이 $p>.05$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회귀분석모형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은 문제사고수준 $\beta=.221$, $t=7.013$, $p<.01$, 문제해결효과성 $\beta=.237$, $t=7.812$, $p<.01$, 문제해결효율성 $\beta=.097$, $t=3.015$, $p<.01$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학습시간 $\beta=.229$, $t=7.710$, $p<.01$, 학업성취수준 $\beta=.295$, $t=10.192$, $p<.01$, 수학능력 학습시간 $\beta=.335$, $t=11.656$, $p<.01$, 학업성취수준 $\beta=.559$, $t=22.243$, $p<.01$, 과학능력 학습시간 $\beta=.305$, $t=10.522$, $p<.01$, 학업성취수준 $\beta=.398$, $t=14.311$, $p<.01$, 정보통신활용능력 컴퓨터 활용수준 $\beta=.341$, $t=11.92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beta=.119$, $t=3.949$, $p<.01$, 호기심 수준 $\beta=.387$, $t=13.827$, $p<.01$, 질문 정도 $\beta=.316$, $t=10.970$, $p<.01$, 질문 횟수 $\beta=.221$, $t=7.4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0초과~1미만=3수준, -1초과~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V-20과 같다.

표 V-24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중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사고력		1092	3.03	0.37	1수준	96(8.8)	2.36	0.27
					2수준	585(53.6)	2.88	0.13
					3수준	262(24.0)	3.24	0.08
					4수준	149(13.6)	3.67	0.19
지적도구 활용능력	전체	1083	2.81	0.50	1수준	149(13.8)	2.01	0.26
					2수준	390(36.0)	2.56	0.14
					3수준	360(33.2)	3.02	0.14
					4수준	184(17.0)	3.55	0.20
	언어	1083	2.78	0.50	1수준	144(13.2)	1.83	0.29
					2수준	443(40.5)	2.54	0.16
					3수준	399(36.4)	3.12	0.16
					4수준	109(10.0)	3.80	0.16
	수학	1083	2.79	0.50	1수준	211(19.4)	1.76	0.32
					2수준	354(32.5)	2.53	0.16
					3수준	320(29.4)	3.12	0.16
					4수준	204(18.7)	3.80	0.16
	과학	1083	2.49	0.50	1수준	177(16.2)	1.36	0.29
					2수준	389(35.6)	2.16	0.17
					3수준	349(31.9)	2.83	0.17
					4수준	178(16.3)	3.66	0.28
	ICT	1083	3.16	0.50	1수준	146(13.3)	2.05	0.39
					2수준	448(41.0)	2.90	0.15
					3수준	289(28.4)	3.50	0.17
					4수준	211(19.3)	4.00	0.00
학습적응성		1090	2.91	0.44	1수준	113(10.4)	2.16	0.28
					2수준	469(43.0)	2.70	0.13
					3수준	363(33.3)	3.13	0.14
					4수준	145(13.3)	3.66	0.17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점수(원점수) 3.03(SD=.37)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후, 표준화된 Z점수에 따른 4수준의 집단에 대한 사고력 점수 평균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1수준(96명, 8.8%) 평균은 2.36(SD=.27), 2수준(585명, 53.6%) 평균은 2.88(SD=.13), 3수준(262명, 24.0%) 평균은 3.24(SD=.08), 4수준(149명, 13.6%) 평균은 3.67(SD=.19)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원점수 2.81(SD=.50)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49명, 13.8%) 평균은 2.01(SD=.26), 2수준(390명, 36.0%) 평균은 2.56(SD=.14), 3수준(360명, 33.2%) 평균은 3.02(SD=.14), 4수준(184명, 17.0%) 평균은 3.55(SD=.20)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원점수 2.91(SD=.44)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13명, 10.4%) 평균은 2.16(SD=.28), 2수준(469명, 43.0%) 평균은 2.70(SD=.13), 3수준(363명, 33.3%) 평균은 3.13(SD=.14), 4수준(145명, 13.3%) 평균은 3.66(SD=.17)으로 나타났다.

(4)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중학생의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일원변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고력 행동지표의 특성

사고력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 효과성, 그리고 문제해결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사고 수준의 전체 평균은 2.14(SD=.88)이고 1수준 평균은 2.01(SD=.82)이고, 2수준 평균은 2.33(SD=.85), 3수준 평균은 2.67(SD=.89), 4수준 평균은 2.70(SD=.84)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9.99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과 4수준이 2와 1수준보다 높고, 2수준은 1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는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동적 특성은 청소년들이 응답한 점수의 분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한 각 수분별 분포를 분석하여 행동지표를 분류하였다. 문제사고 수준의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84에서 상한값 2.8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문제사고 수준에 있어 2번과 3번 문항에 대부분 응답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과 4번 문항은 그 응답분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제사고 수준의 2번과 3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그 수준별 특성을 2번 문항은 1과 2수준으로 3번 문항은 3과 4수준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문제사고 수준의 행동지표 1수준의 특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매우 가끔 제시한다.’, 2수준 행동지표 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3수준 행동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자주 제시한다.’, 그리고 4수준 행동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과성의 전체 평균은 2.94(SD=.58)이고 1수준 평균은 2.70(SD=.61)이고, 2수준 평균은 2.88(SD=.56), 3수준 평균은 3.03(SD=.56), 4수준 평균은 3.16(SD=.62)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6.68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효과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한 각 수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57에서 상한값 3.2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 효과성 문항에 있어 2번, 3번, 그리고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은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은 ‘정확한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매우 정확한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율성의 전체 평균은 2.56($SD=.668$)이고 1수준 평균은 2.41($SD=.67$)이고, 2수준 평균은 2.54($SD=.64$), 3수준 평균은 2.62($SD=.65$), 4수준 평균은 2.63($SD=.72$)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870$,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과4수준이 1과 2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2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효율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한 각 수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28에서 상한값 2.7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 효과성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 문항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과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2번(짧다)과 3번(길다)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짧은 편이다.’, 2수준은 ‘조금 짧은 편이다.’, 3수준은 ‘조금 긴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긴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표 V-25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96	2.36	0.27	91	2.01	0.82		1.84	2.18	19.997** 3.4>2>1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매우 가끔 제시한다
2수준	585	2.88	0.13	507	2.33	0.85		2.26	2.41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3수준	262	3.24	0.08	231	2.67	0.89		2.56	2.79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자주 제시한다
4수준	149	3.67	0.19	134	2.70	0.84		2.56	2.85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매우 자주 제시한다
전체	1092	3.03	0.37	963	2.43	0.88		2.38	2.49		

***p<.001, **p<.01, *p<.05

표 V-26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96	2.36	0.27	92	2.70	0.61		2.57	2.82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	585	2.88	0.13	548	2.88	0.56		2.83	2.93	16.688**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	262	3.24	0.08	247	3.03	0.56		2.96	3.10	4)3)2)1	정확한 편이다.
4수준	149	3.67	0.19	145	3.16	0.62		3.06	3.26		매우 정확한 편이다.
전체	1092	3.03	0.37	1032	2.94	0.58		2.90	2.97		

***p<.001, **p<.01, *p<.05

표 V-27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96	2.36	0.27	92	2.41	0.67		2.28	2.55		매우 짧은 편이다.
2수준	585	2.88	0.13	548	2.54	0.64		2.49	2.60	2.870*	짧은 편이다.
3수준	262	3.24	0.08	247	2.62	0.65		2.53	2.70	3,4)1,2	긴 편이다.
4수준	149	3.67	0.19	145	2.63	0.72		2.52	2.75		매우 긴 편이다.
전체	1092	3.03	0.37	1032	2.56	0.66		2.52	2.60		

***p<.001, **p<.01, *p<.05

②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행동지표 특성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는 학습시간 및 컴퓨터 활용시간과 학업성취도수준 및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으로 구분된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언어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 전체 평균은 78.69분(SD=58.83)이고 1수준 평균은 55.44분(SD=55.44)이고, 2수준 평균은 73.38분(SD=57.48), 3수준 평균은 86.74분(SD=56.95), 4수준 평균은 101.71분(SD=62.66)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7.15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의 학습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46.24에서 상한값113.84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능력의 학습시간 1수준은 '1시간 미만', 2수준은 '1시간이상 ~ 1시간 30분 미만', 3수준은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 4수준은 '2시간 이상'으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언어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 전체 평균은 80.79(SD=13.40)이고 1수준 평균은 73.40(SD=13.41)이고, 2수준 평균은 79.58(SD=13.45), 3수준 평균은 82.57(SD=12.60), 4수준 평균은 88.94(SD=9.8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4.51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언어능력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71.19에서 상한값 90.8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이 1수준은 '0~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75점 이상~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80점 이상~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은 '85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수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 전체 평균은 93.44분($SD=66.36$)이고 1수준 평균은 60.53분($SD=62.25$)이고, 2수준 평균은 82.92분($SD=53.12$), 3수준 평균은 104.94분($SD=62.78$), 4수준 평균은 128.08분($SD=75.87$)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6.97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의 학습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 보면, 하한값이 52.06에서 상한값 138.63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의 학습시간 1수준은 '1시간 이하', 2수준은 '1시간 초과 ~ 1시간 30분 미만'로 나타났다, 3수준은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이며, 4수준은 '2시간 이상'으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수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 전체 평균은 79.17($SD=15.84$)이고 1수준 평균은 64.48($SD=13.03$)이고, 2수준 평균은 76.21($SD=15.39$), 3수준 평균은 84.66($SD=12.47$), 4수준 평균은 90.83($SD=9.46$)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56.28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수학능력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62.71에서 상한값 92.14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70점 이상~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80점 이상~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은 '90점 이상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과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 전체 평균은 41.46분(SD=47.88)이고 1수준 평균은 27.25분(SD=40.73)이고, 2수준 평균은 31.99분(SD=39.60), 3수준 평균은 42.88분(SD=42.48), 4수준 평균은 73.64분(SD=63.89)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0.81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그리고 2수준과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3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능력의 학습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 보면, 하한값이 21.13에서 상한값 83.17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능력의 학습시간 1수준은 '30분 미만', 2수준은 '30분 이상 ~ 40분 미만'로 나타났고, 3수준은 '4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며, 4수준은 '1시간 이상'으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과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 전체 평균은 77.62(SD=14.93)이고 1수준 평균은 69.07(SD=14.16)이고, 2수준 평균은 74.51(SD=14.66), 3수준 평균은 80.73(SD=13.62), 4수준 평균은 86.80(SD=11.8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1.13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능력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66.97에서 상한값 88.5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70점 이상~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75점 이상~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은 '85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 시간 전체 평균은 118.02분(SD=122.95)이고 1수준 평균은 125.36분(SD=146.37)이고, 2수준 평균은 110.82분(SD=113.58), 3수준 평균은 120.42분(SD=130.62), 4수준 평균은 125.02분(SD=113.4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947$,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컴퓨터 활용 시간은 정보통신활용능력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00.28에서 상한값 149.39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사용한다.'로 분류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 수준 전체 평균은 2.45(SD=.95)이고 1수준 평균은 1.99(SD=.92)이고, 2수준 평균은 2.27(SD=.88), 3수준 평균은 2.54(SD=.89), 4수준 평균은 3.04(SD=.8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9.96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통신활용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컴퓨터 활용 수준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84에서 상한값 3.1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로 분류되었다.

표 V-28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관련 공부시간이)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13	0.47	142	55.44	55.44		46.24	64.64		1시간 미만이다.
2수준	390	2.58	0.39	436	73.38	57.48		67.97	78.79	17.155**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	360	2.96	0.41	397	86.74	56.95		81.12	92.36	4)3)2)1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이다.
4수준	184	3.38	0.47	105	101.71	62.66		89.59	113.84		2시간 이상이다.
전체	1083	2.78	0.50	1080	78.69	58.83		75.17	82.20		

***p<.001, **p<.01, *p<.05

표 V-29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한국어) 관련 성적 평균이)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13	0.47	144	73.40	13.41		71.19	75.61		0~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2수준	390	2.58	0.39	443	79.58	13.45		78.33	80.84	34.517**	75점 이상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3수준	360	2.96	0.41	399	82.57	12.60		81.33	83.81	4)3)2)1	80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4수준	184	3.38	0.47	109	88.94	9.82		87.08	90.81		85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있다.
전체	1083	2.78	0.50	1095	80.79	13.40		80.00	81.58		

***p<.001, **p<.01, *p<.05

표 V-30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수학 공부 시간)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1.89	0.52	210	60.53	62.25	52.06	69.00		1시간 이하이다.
2수준	390	2.53	0.48	349	82.92	53.12	77.33	88.51	46.974**	1시간 초과 ~ 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	360	3.03	0.48	315	104.94	62.78	97.98	111.90	4>3>2>1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이다.
4수준	184	3.63	0.36	201	128.08	75.87	117.53	138.63		2시간 이상이다.
전체	1083	2.78	0.50	1075	93.44	66.36	89.47	97.41		

***p<.001, **p<.01, *p<.05

표 V-31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수학 성적 평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1.89	0.52	211	64.48	13.03	62.71	66.25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390	2.53	0.48	354	76.21	15.39	74.61	77.82	156.280**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360	3.03	0.48	319	84.66	12.47	83.28	86.03	4>3>2>1	80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184	3.63	0.36	204	90.83	9.46	89.53	92.14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1083	2.79	0.50	1088	79.15	15.84	78.21	80.10		

***p<.001, **p<.01, *p<.05

표 V-32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과학 공부 시간)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1.63	0.53	173	27.25	40.73		21.13	33.36		30분 미만이다.
2수준	390	2.18	0.47	387	31.99	39.60		28.03	35.95	40.813**	30분 이상 ~ 40분 미만이다.
3수준	360	2.71	0.53	344	42.88	42.48		38.37	47.38	4>3>2,1	4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다.
4수준	184	3.42	0.50	175	73.64	63.89		64.11	83.17		1시간 이상이다.
전체	1083	2.49	0.50	1079	41.46	47.88		38.60	44.32		

***p<.001, **p<.01, *p<.05

표 V-33 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과학 성적 평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1.63	0.53	177	69.07	14.16		66.97	71.17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390	2.18	0.47	388	74.51	14.66		73.05	75.97	61.132**	70점 이상 ~ 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360	2.71	0.53	349	80.73	13.62		79.30	82.16	4>3>2>1	75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184	3.42	0.50	178	86.80	11.89		85.04	88.56		85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1083	2.49	0.50	1092	77.62	14.93		76.73	78.51		

***p<.001, **p<.01, *p<.05

표 V-34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38	0.63	145	125.36	146.37	145	101.34	149.39	.947	하루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용한다.
2수준	390	2.97	0.45	448	110.82	113.58	448	100.28	121.37		
3수준	360	3.37	0.47	287	120.42	130.62	287	105.24	135.59		
4수준	184	3.79	0.32	210	125.02	113.43	210	109.59	140.45		
전체	1083	3.16	0.50	1090	118.02	122.95	1090	110.71	125.33		

***p<.001, **p<.01, *p<.05

표 V-35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들)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38	0.63	145	1.99	.92	145	1.84	2.14	49.962** 4)3)2)1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수준	390	2.97	0.45	441	2.27	.88	441	2.19	2.35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	360	3.37	0.47	285	2.54	.89	285	2.44	2.65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	184	3.79	0.32	208	3.04	.89	208	2.92	3.16		대부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전체	1083	3.16	0.50	1079	2.45	.95	1079	2.40	2.51		

***p<.001, **p<.01, *p<.05

③ 학습적응성 행동지표의 특성

학습적응성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그리고 질문 횟수로 구분된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전체 평균은 4.54(SD=.88)이고 1수준 평균은 3.14(SD=3.83)이고, 2수준 평균은 4.16(SD=4.97), 3수준 평균은 5.03(SD=6.49), 4수준 평균은 5.62(SD=6.2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77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과 4수준이 2와 1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는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2.43에서 상한값 6.6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4회 정도 경험한다.’, 2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5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6회 정도 경험한다.’, 그리고 4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7회 이상 경험한다.’로 분류하였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호기심 수준 전체 평균은 2.57(SD=.74)이고 1수준 평균은 2.08(SD=.61)이고, 2수준 평균은 2.39(SD=.64), 3수준 평균은 2.77(SD=.74), 4수준 평균은 3.03(SD=.7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1.16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적응성의 호기심 수준은 4개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적응성의 호기심 수준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97에서 상한값 3.1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매우 자주 생기는 편이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질문 정도의 행동지표 전체 평균은 2.58($SD=.77$)이고 1수준 평균은 2.15($SD=.77$)이고, 2수준 평균은 2.48($SD=.69$), 3수준 평균은 2.69($SD=.78$), 4수준 평균은 2.98($SD=.8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2.37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2.01에서 상한값 3.1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 행동지표 1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이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항상 즉시 질문하는 편이다.’로 분류되었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질문 횟수의 행동지표 전체 평균은 8.25($SD=10.07$)이고 1수준 평균은 3.91($SD=4.91$)이고, 2수준 평균은 7.55($SD=9.78$), 3수준 평균은 9.05($SD=10.35$), 4수준 평균은 12.11($SD=11.7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5.70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2.99에서 상한값 14.10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1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5개 이하의 질문을 한다.’, 2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6~8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9~10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10개 이상 질문을 한다.’로 분류되었다.

표 V-36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들)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13	2.16	0.28	113	3.14	3.83		2.43	3.86		4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469	2.70	0.13	466	4.16	4.97		3.70	4.61	5.772**	5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363	3.13	0.14	363	5.03	6.49		4.36	5.70	3.4)1.2	6회 정도 경험한다.
4수준	145	3.66	0.17	143	5.62	6.25		4.59	6.65		7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전체	1090	2.91	0.44	1085	4.54	5.64		4.20	4.87		

***p<.001, **p<.01, *p<.05

표 V-37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13	2.16	0.28	113	2.08	0.61		1.97	2.19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	469	2.70	0.13	469	2.39	0.64		2.33	2.45	61.160**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363	3.13	0.14	363	2.77	0.74		2.69	2.84	4)3>2>1	자주 생기는 편이다.
4수준	145	3.66	0.17	145	3.03	0.78		2.91	3.16		매우 자주 생기는 편이다.
전체	1090	2.91	0.44	1090	2.57	0.74		2.53	2.61		

***p<.001, **p<.01, *p<.05

표 V-38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정한 질문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13	2.16	0.28	113	2.15	0.77	2.01	2.29			답이 필요한 때만 아주 가끔 하는 편이다.
2수준	469	2.70	0.13	468	2.48	0.69	2.41	2.54	32.375**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363	3.13	0.14	363	2.69	0.78	2.61	2.77	4>3>2>1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4수준	145	3.66	0.17	145	2.98	0.80	2.85	3.11			항상 즉시 질문하는 편이다.
전체	1090	2.91	0.44	1089	2.58	0.77	2.54	2.63			

***p<.001, **p<.01, *p<.05

표 V-39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공정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13	2.16	0.28	112	3.91	4.91	2.99	4.83			0~5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469	2.70	0.13	463	7.55	9.78	6.66	8.44	15.708**		6~8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363	3.13	0.14	360	9.05	10.35	7.97	10.12	4>3>2>1		8~10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145	3.66	0.17	136	12.11	11.74	10.12	14.10			10개 이상 질문을 한다.
전체	1090	2.91	0.44	1071	8.25	10.07	7.65	8.86			

***p<.001, **p<.01, *p<.05

(5)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중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40과 같다.

표 V-40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사고력	문제사고 수준	1수준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아주 가끔 제시한다.
		2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3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자주 제시한다.
		4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문제해결의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	문제해결의 정확도가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	문제해결의 정확도가 정확한 편이다.
		4수준	문제해결의 정확도가 매우 정확한 편이다.
	문제해결 효율성	1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2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짧은 편이다.
		3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긴 편이다.
		4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매우 긴 편이다.

행동지표					
역량	지표		수준	특성	
	언어	학습 시간 (분)			
지적·도구 활용능력	수준	평균	1수준	1시간 이하이다.	
	1수준	2.13	2수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2수준	2.58	3수준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이다.	
	3수준	2.96	4수준	2시간 이상이다.	
	4수준	3.38	1수준	0~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전체	2.78	2수준	75점 이상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3수준	80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4수준	85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있다.	
			1수준	1시간 이하이다.	
			2수준	1시간 초과~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	1시간 30분 ~ 2시간 미만이다.	
			4수준	2시간 이상이다.	
			1수준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80점 이상 ~ 9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9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1수준	30분 미만이다.		
		2수준	30분 이상 ~ 40분 미만이다.		
		3수준	4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다.		
		4수준	1시간 이상이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지적·도구 활용능력	학업 성취도	1수준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70점 이상 ~ 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75점 이상 ~ 8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85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컴퓨터 활용 시간 (분)	1수준	하루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용한다.
		2수준	
		3수준	
		4수준	
	정보·활용 능력	1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1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4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5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6회 경험한다.
		4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7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4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5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6회 경험한다.
		4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7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행동지표			
역량	지표	수준	
학습 적응성	호기심 수준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매우 자주 생기는 편이다.
	질문 정도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이 필요한 때만 아주 가끔 하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항상 즉시 질문하는 편이다.
	질문 횟수	1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0~5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6~8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8~10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10개 이상 질문을 한다.

(6) 중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중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4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사고력	유형 1	395	3.32	.34	331.823**	유형 1)2)3
	유형 2	342	2.94	.20		
	유형 3	337	2.77	.33		
	전체	1074	3.03	.38		
지적도구 활용능력	유형 1	395	3.21	.39	652.628**	유형 1)2)3
	유형 2	342	2.84	.26		
	유형 3	337	2.31	.33		
	전체	1074	2.81	.50		
학습 적응성	유형 1	395	3.31	.33	648.526**	유형 1)2)3
	유형 2	342	2.83	.20		
	유형 3	337	2.53	.34		
	전체	1074	2.91	.44		

*p<.05, **p<.01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생애학습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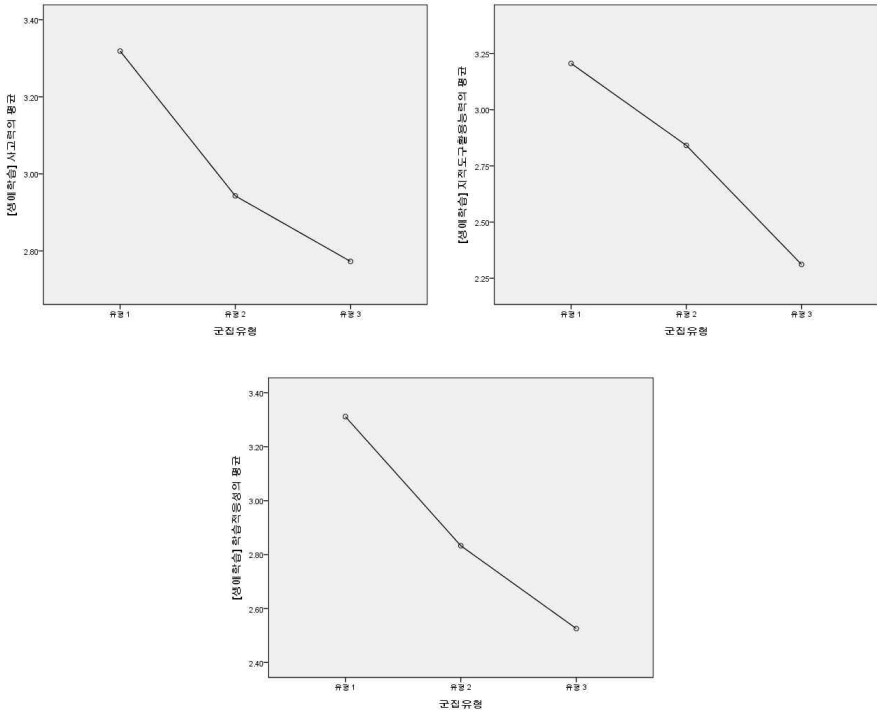


그림 V-3 중학생 생태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중학생 생태학습역량의 하위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요능력, 학습적응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태학습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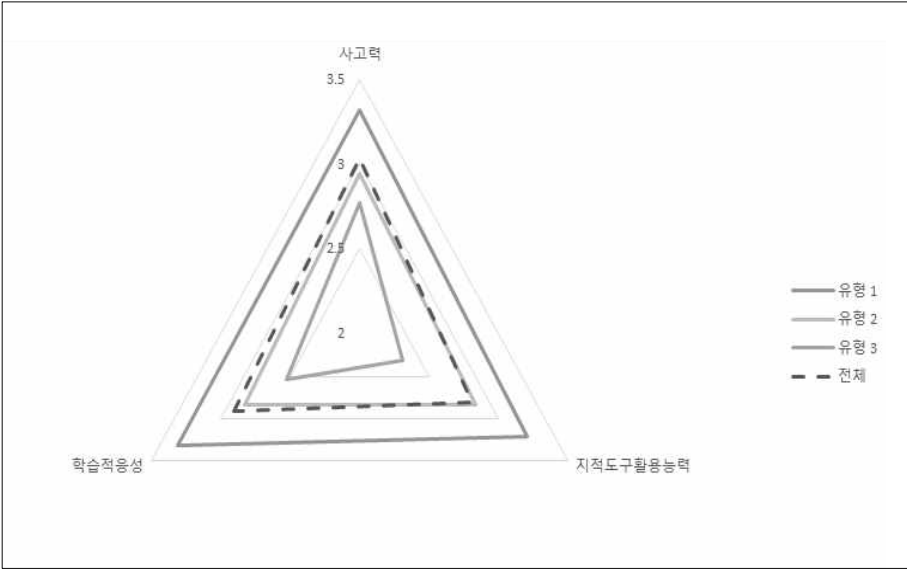


그림 V-4 중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중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사고력과 학습적응성을 바탕으로 지적도구활용능력이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몰입형’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유형 2는 사고력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주도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리-주도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사고력에서는 논리적 사고력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학습적응성의 변화수용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성-변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42 중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학습역량	학습-몰입형 (유형 1)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3~4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과정성	
				문제해결효율성	
				언어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4수준에 해당함
				수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과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ICT 활용시간 활용수준	하루 평균 120분 3~4수준에 해당함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3~4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논리-주도형 (유형 2)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2~3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과정성 문제해결효율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 학습역량	논리-주도형 (유형 2)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함	지적도구능력	언어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2~3수준에 해당함
				수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2~3수준에 해당함
				과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3~4수준에 해당함
				ICT 활용시간 활용수준	하루 평균 120분 2수준에 해당함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2~3수준에 해당함
				질문 정도	
				질문 횟수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1~2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	
			지적도구능력	언어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1~2수준에 해당함
				학습시간	
				수학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1~2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 학습역량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지적도구능력	과학	1~2수준에 해당함
				학습시간 학습성취도	
			ICT	활용시간	하루 평균 120분
				활용수준	1수준에 해당함
			학습적응성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1~2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40〉 참조.

3)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에 따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력의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 효과성, 문제해결 효율성이며, 지적도구활용 능력 중 언어, 수학, 과학능력의 행동지표는 학습시간(분)과 학업성취도이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는 컴퓨터 활용시간(분)과 컴퓨터 활용 수준이었다. 또한, 학습적응성의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수준, 질문 횟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43과 같다.

표 V-4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1360	2.47	0.86
	문제해결효과성		1406	2.89	0.56
	문제해결효율성		1406	2.65	0.70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분)	1443	84.56	71.67
		학업성취도	1467	74.73	13.74
	수학	학습시간(분)	1443	97.15	81.30
		학업성취도	1468	70.27	15.25
	과학	학습시간(분)	1441	42.27	57.13
		학업성취도	1460	71.59	14.96
	정보통신 활용	컴퓨터활용시간(분)	1464	117.85	125.84
		컴퓨터 활용수준	1460	2.56	0.90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465	4.78	8.63
	호기심 수준		1470	2.64	0.77
	질문 정도		1470	2.57	0.73
	질문 횟수		1460	7.72	12.47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사고력 행동지표의 평균은 문제 사고수준 2.47(SD=.86), 문제해결 효과성 2.89(SD=.56), 문제해결 효율성 2.65(SD=.70)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청소년의 사고력 행동지표에 있어서는 문제해결 효과성이 가장 높고, 문제사고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84.56분(SD=71.67), 학업성취도 74.73점(SD=13.74)이고, 수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97.15분(SD=81.30), 학업성취도 70.27점(SD=15.25)이고, 과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42.27분(SD=57.13), 학업성취도 71.59점(SD=14.96)이며,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컴퓨터 활용시간 117.85분(SD=125.84), 컴퓨터 활용 수준 2.56(64.00점/100)(SD=.90)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도구활용능력과 관련하여 학습시간에 있어서는 컴퓨터 활용시간이 가장 높고, 과학 학습시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취수준에 있어서는 국어 성취수준이 가장 높고, 컴퓨터 활용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적응성 행동지표의 평균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4.78회(SD=8.63), 호기심 수준 2.64(SD=.77), 질문 정도 2.57(SD=.73), 질문 횟수 7.72회(SD=12.47)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44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1360	.065(.064) / 94.170***	.573	.255	9.704***
	문제해결효과성		1406	.073(.073) / 110.835***	.398	.271	10.528***
	문제해결효율성		1406	.008(.007) / 11.265**	.164	.089	3.356**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	1443	.056(.055) / 85.181***	29.896	.237	9.229***
		학업성취도	1467	.090(.089) / 144.612***	7.272	.300	12.025***
	수학	학습시간	1443	.169(.168) / 291.947***	47.380	.411	17.086***
		학업성취도	1468	.272(.272) / 547.108***	11.301	.522	23.390***
	과학	학습시간	1441	.152(.151) / 256.291***	28.402	.390	16.009***
		학업성취도	1460	.191(.190) / 341.936***	8.341	.437	18.492***
	ICT	컴퓨터 활용시간	1464	.008(.007) / 11.350**	18.511	.088	3.369**
		활용수준	1460	.101(.101) / 164.369***	.483	.318	12.821***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1465	.017(.017) / 25.628***	2.563	.131	5.062***
	호기심 수준		1470	.117(.116) / 193.295***	.591	.342	13.903***
	질문 정도		1470	.091(.090) / 146.018***	.500	.301	12.084***
	질문 횟수		1460	.028(.028) / 42.315***	4.755	.168	6.505***

***p<.001, **p<.01, *p<.05

고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회귀분석모형이 $p < .01$ 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은 문제사고수준($\beta = .255, t = 9.704, p < .001$), 문제해결 효과성($\beta = .271, t = 10.528, p < .001$), 문제해결 효율성($\beta = .089, t = 3.356, p < .01$)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은 학습시간($\beta = .237, t = 9.229, p < .001$) 및 학업 성취수준($\beta = .300, t = 12.025, p < .001$), 수학능력은 학습시간($\beta = .411, t = 17.086, p < .001$) 및 학업성취수준($\beta = .522, t = 23.390, p < .001$), 과학능력은 학습시간($\beta = .390, t = 16.009, p < .001$) 및 학업성취수준($\beta = .437, t = 18.492, p < .001$),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컴퓨터 활용시간($\beta = .088, t = 3.369, p < .01$) 및 활용 수준($\beta = .318, t = 12.821, p < .001$)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beta = .131, t = 5.062, p < .001$), 호기심 수준($\beta = .342, t = 13.903, p < .001$), 질문 정도($\beta = .301, t = 12.084, p < .001$), 질문 횟수($\beta = .168, t = 6.505, p < .001$)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0이상~1미만=3수준, -1이상~0미만=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45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고등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사고력		1465	3.02	0.38	1수준	143(9.8)	2.38	0.27
					2수준	764(52.2)	2.87	0.13
					3수준	370(25.3)	3.23	0.08
					4수준	188(12.8)	3.68	0.19
지적 도구 활용 능력	전체	1459	2.81	0.48	1수준	173(11.9)	2.02	0.26
					2수준	555(38.0)	2.57	0.14
					3수준	520(35.6)	3.01	0.13
					4수준	211(14.5)	3.60	0.22
	언어	1467	2.80	0.57	1수준	178(12.1)	1.86	0.26
					2수준	606(41.3)	2.53	0.17
					3수준	516(35.2)	3.12	0.16
					4수준	167(11.4)	3.81	0.17
	수학	1468	2.67	0.70	1수준	169(11.5)	1.46	0.27
					2수준	671(45.7)	2.37	0.27
					3수준	429(29.2)	3.09	0.15
					4수준	199(13.6)	3.83	0.17
	과학	1465	2.53	0.78	1수준	245(16.7)	1.33	0.30
					2수준	463(31.6)	2.15	0.17
					3수준	490(33.4)	2.86	0.17
					4수준	267(18.2)	3.68	0.28
	ICT	1470	3.24	0.60	1수준	147(10.0)	2.07	0.35
					2수준	564(38.4)	2.91	0.15
					3수준	432(29.4)	3.49	0.17
					4수준	327(22.2)	4.00	0.00
학습적응성		1466	2.91	0.44	1수준	149(10.2)	2.19	0.21
					2수준	633(43.2)	2.69	0.13
					3수준	486(33.2)	3.11	0.13
					4수준	198(13.5)	3.71	0.19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원점수 3.02(SD=.38)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43명, 9.8%) 평균은 2.38(SD=.27), 2수준(764명, 52.2%) 평균은 2.87(SD=.13), 3수준(370명, 25.3%) 평균은 3.23(SD=.08), 4수준(188명, 12.8%) 평균은 3.68(SD=.19)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원점수 2.81(SD=.48)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73명, 11.9%) 평균은 2.02(SD=.26), 2수준(555명, 38.0%) 평균은 2.57(SD=.14), 3수준(520명, 35.6%) 평균은 3.01(SD=.13), 4수준(211명, 14.5%) 평균은 3.60(SD=.22)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원점수 2.91(SD=.44)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49명, 10.2%) 평균은 2.19(SD=.21), 2수준(633명, 43.2%) 평균은 2.69(SD=.13), 3수준(486명, 33.2%) 평균은 3.11(SD=.13), 4수준(198명, 13.5%) 평균은 3.71(SD=.19)로 나타났다.

(4)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생애학습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일원변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고력 행동지표의 특성

사고력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 효과성, 그리고 문제해결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사고수준의 전체 평균은 2.47(SD=.86)이고, 1수준 평균은 1.96(SD=.83), 2수준 평균은 2.39(SD=.82), 3수준 평균은 2.61(SD=.85), 4수준 평균은 2.84(SD=.8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3.786$,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문제사고수준 특성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사고력의 문제사고수준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1.82에서 상한값 2.96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사고 수준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2수준 행동지표 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행동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그리고 4수준 행동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과성의 전체 평균은 2.89 ($SD=.56$)이고, 1수준 평균은 2.61($SD=.67$), 2수준 평균은 2.84($SD=.52$), 3수준 평균은 2.97($SD=.51$), 4수준 평균은 3.17($SD=.5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4.735$,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문제해결 효과성 특성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사고력의 문제해결 효과성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52에서 상한값 3.25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약간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은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은 ‘정확한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매우 정확한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율성의 전체 평균은 2.65 (SD=.70)이고, 1수준 평균은 2.64(SD=.74), 2수준 평균은 2.60(SD=.67), 3수준 평균은 2.70(SD=.70), 4수준 평균은 2.78(SD=.7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85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2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문제해결 효율성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사고력의 문제해결 효율성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52에서 상한값 2.8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2번(짧다)과 3번(길다)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짧은 편이다.’, 2수준은 ‘조금 짧은 편이다.’, 3수준은 ‘조금 긴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긴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표 V-46 고등학교 학생에 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3	2.38	0.268	130	1.96	0.830	1.819	2.104	33.786*** 4)3)2)1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기쁨 제시한다
2수준	764	2.87	0.133	696	2.39	0.815	2.329	2.452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370	3.23	0.081	348	2.61	0.847	2.519	2.693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기쁨 제시한다.
4수준	188	3.68	0.193	182	2.84	0.836	2.720	2.961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전체	1465	3.02	0.376	1356	2.47	0.857	2.347	2.553		

***p<.001, **p<.01, *p<.05

표 V-47 고등학교 학생에 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3	2.38	0.268	135	2.61	0.670	2.517	2.698	34.735*** 4)3)2)1	약간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	764	2.87	0.133	724	2.84	0.519	2.798	2.876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	370	3.23	0.081	359	2.97	0.506	2.917	3.028		정확한 편이다.
4수준	188	3.68	0.193	183	3.17	0.557	3.097	3.253		매우 정확한 편이다.
전체	1465	3.02	0.376	1401	2.89	0.556	2.832	2.964		

***p<.001, **p<.01, *p<.05

표 V-48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3	2.38	0.268	135	2.64	0.739		2.520	2.754		짧은 편이다.
2수준	764	2.87	0.133	724	2.60	0.667		2.549	2.650	3.851** 4>2	조금 짧은 편이다.
3수준	370	3.23	0.081	359	2.70	0.697		2.625	2.768		조금 긴 편이다.
4수준	188	3.68	0.193	183	2.78	0.748		2.675	2.876		긴 편이다.
전체	1465	3.02	0.376	1401	2.65	0.695		2.592	2.762		

***p<.001, **p<.01, *p<.05

② 지적도구활용역량의 행동지표 특성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는 학습시간 및 컴퓨터 활용시간과 학업성취수준 및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으로 구분된다.

언어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의 전체 평균은 84.76분(SD=71.67)이고, 1수준 평균은 59.25분(SD=60.34), 2수준 평균은 75.63분(SD=66.84), 3수준 평균은 94.40분(SD=72.79), 4수준 평균은 115.80분(SD=80.71)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5.13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그리고 1수준과 2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3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언어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48.94에서 상한값 126.5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역량의 학습시간 1수준 특성은 '1시간 정도이다.', 2수준은 '1시간 이상 ~1 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은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이다.', 그리고 4수준은 '2시간 이상이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언어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전체 평균은 74.75(SD=13.74)이고, 1수준 평균은 68.26(SD=12.87), 2수준 평균은 72.65(SD=13.08), 3수준 평균은 76.68(SD=13.43), 4수준 평균은 83.38(SD=12.6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7.420$,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언어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66.33에서 상한값 85.3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역량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이 1수준은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70점

이상~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75점 이상~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은 '80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수학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의 전체 평균은 97.17분($SD=81.34$)이고, 1수준 평균은 36.49분($SD=58.37$), 2수준 평균은 83.10분($SD=75.85$), 3수준 평균은 122.42분($SD=78.28$), 4수준 평균은 143.10분($SD=78.07$)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84.63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수학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5.17에서 상한값 153.6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역량의 학습시간 1수준은 '0~1시간 미만이다.', 2수준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은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이다.', 그리고 4수준은 '2시간 30분 이상이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수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전체 평균은 70.26($SD=15.24$)이고, 1수준 평균은 58.14($SD=7.73$), 2수준 평균은 65.73($SD=13.51$), 3수준 평균은 76.07($SD=14.17$), 4수준 평균은 83.29($SD=13.4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66.920$,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수학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56.15에서 상한값 85.1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역량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0~6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60점

이상~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70점 이상~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4수준은 '80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과학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의 전체 평균은 42.38분(SD=57.19)이고, 1수준 평균은 10.34분(SD=27.92), 2수준 평균은 26.09분(SD=48.30), 3수준 평균은 56.17(SD=59.08), 4수준 평균은 76.00분(SD=63.12)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91.33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3.75에서 상한값 82.4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역량의 학습시간 1수준은 '30분 미만이다.', 2수준은 '30분 이정도이다.', 3수준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다.', 그리고 4수준은 '1시간 이상이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과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전체 평균은 71.60(SD=14.95)이고, 1수준 평균은 62.83(SD=11.68), 2수준 평균은 67.13(SD=13.63), 3수준 평균은 74.61(SD=14.42), 4수준 평균은 81.96(SD=13.0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10.915$,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능력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61.13에서 상한값 83.59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역량의 학업성취도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0~6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은 '65점 이상~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은 '70점 이상~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4수준은 ‘80점 이상~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시간의 전체 평균은 117.85분(SD=125.89)이고, 1수준 평균은 96.88분(SD=103.51), 2수준 평균은 112.17분(SD=126.28), 3수준 평균은 118.45분(SD=124.03), 4수준 평균은 136.34분(SD=134.7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10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1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통신활용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학습시간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76.58에서 상한값 149.99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활용역량의 컴퓨터 활용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1수준 특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미만 사용한다.’, 그리고 2수준, 3수준, 4수준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사용한다.’로 분류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 수준의 전체 평균은 2.56 (SD=.90)이고, 1수준 평균은 2.06(SD=.91), 2수준 평균은 2.37(SD=.85), 3수준 평균은 2.62(SD=.85), 4수준 평균은 3.02(SD=.8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7.81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통신활용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업성취도는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수준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1.92에서 상한값 3.11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라서 정보통신 활용역량의 컴퓨터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부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2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가끔 만들 수 있다.'로 분류되었다.

표 V-49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관련 공부 시간(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8	1.86	0.260	177	59.25	60.340	48.939	69.560	25.134*** 4>3>1,2	1시간 정도이다.
2수준	606	2.53	0.165	593	75.63	66.843	69.994	81.259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	516	3.12	0.159	506	94.40	72.791	88.301	100.497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이다.
4수준	167	3.81	0.165	163	115.80	80.708	105.054	126.542		2시간 이상이다.
전체	1467	2.80	0.566	1439	84.76	71.666	78.072	94.465		

***p<.001, **p<.01, *p<.05

표 V-50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한국어) 관련 성적 평균(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8	1.86	0.260	178	68.26	12.868	66.328	70.188	47.420*** 4>3>2>1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2수준	606	2.53	0.165	605	72.65	13.076	71.606	73.700		70점 이상 ~ 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3수준	516	3.12	0.159	513	76.68	13.431	75.540	77.813		75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4수준	167	3.81	0.165	167	83.38	12.626	81.391	85.376		8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있다.
전체	1467	2.80	0.566	1463	74.75	13.738	73.716	76.769		

***p<.001, **p<.01, *p<.05

표 V-51 고등학교 학생 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수학 공부 시간)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1.46	0.271	169	36.49	58.369		25.167	47.817		0~1시간 미만이다.
2수준	671	2.37	0.267	658	83.10	75.846		77.362	88.841	84.639***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	429	3.09	0.147	418	122.42	78.278		115.221	129.623	4>3>2>1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199	3.83	0.167	195	143.10	78.065		132.556	153.642		2시간 30분 이상이다.
전체	1468	2.67	0.703	1440	97.17	81.335		85.577	104.981		

***p<.001, **p<.01, *p<.05

표 V-52 고등학교 학생 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수학 성적 평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1.46	0.271	169	58.14	7.730		56.149	60.123		0~6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671	2.37	0.267	669	65.73	13.511		64.734	66.731	166.920***	60점 이상 ~ 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429	3.09	0.147	428	76.07	14.167		74.826	77.323	4>3>2>1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199	3.83	0.167	199	83.29	13.412		81.461	85.122		8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1468	2.67	0.703	1465	70.26	15.242		69.293	72.325		

***p<.001, **p<.01, *p<.05

표 V-53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과학 공부 시간)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45	1.33	0.300	244	10.34	27.920		3.750	16.923		30분 미만이다.
2수준	463	2.15	0.165	456	26.09	48.302		21.276	30.912	91.334***	30분 정도이다.
3수준	490	2.86	0.165	477	56.17	59.083		51.462	60.883	4)3)2)1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다.
4수준	267	3.68	0.284	258	76.00	63.124		69.591	82.402		1시간 이상이다.
전체	1465	2.53	0.783	1435	42.38	57.192		36.520	47.780		

***p<.001, **p<.01, *p<.05

표 V-54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학업성취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과학 성적 평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45	1.33	0.300	244	62.83	11.680		61.133	64.523		0~6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463	2.15	0.165	460	67.13	13.633		65.896	68.365	110.915***	65점 이상 ~ 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490	2.86	0.165	487	74.61	14.418		73.410	75.809	4)3)2)1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267	3.68	0.284	263	81.96	13.042		80.326	83.590		8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1465	2.53	0.783	1454	71.60	14.948		70.191	73.072		

***p<.001, **p<.01, *p<.05

표 V-55 고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7	2.07	0.350	147	96.88	103.505		76.578	117.183	4.105** 4>1	하루 평균 1시간 30분 미만 사용한다.
2수준	564	2.91	0.150	561	112.17	126.276		101.778	122.564		
3수준	432	3.49	0.166	430	118.45	124.033		106.577	130.318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사용한다.
4수준	327	4.00	0.000	325	136.34	134.733		122.682	149.990		
전체	1470	3.24	0.597	1463	117.85	125.887		101.904	130.014		

***p<.001, **p<.01, *p<.05

표 V-56 고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7	2.07	0.350	143	2.06	0.906		1.923	2.203	57.812*** 4>3>2>1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부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2수준	564	2.91	0.150	558	2.37	0.852		2.302	2.444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	432	3.49	0.166	431	2.62	0.846		2.539	2.700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	327	4.00	0.000	327	3.02	0.838		2.929	3.114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기쁨 만들 수 있다.
전체	1470	3.24	0.597	1459	2.56	0.901		2.423	2.615		

***p<.001, **p<.01, *p<.05

③ 학습적응성 행동지표의 특성

학습적응성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그리고 질문 횟수로 구분된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의 전체 평균은 4.78(SD=8.64)이고, 1수준 평균은 2.79(SD=4.85), 2수준 평균은 4.32(SD=8.67), 3수준 평균은 4.96(SD=7.52), 4수준 평균은 7.28(SD=12.1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8.97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1수준, 2수준, 3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1.41에서 상한값 8.4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3회 정도 경험한다.’, 2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4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5회 정도 경험한다.’, 그리고 4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6회 이상 경험한다.’로 분류하였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호기심 수준의 전체 평균은 2.64(SD=.77)이고, 1수준 평균은 2.20(SD=.67), 2수준 평균은 2.51(SD=.70), 3수준 평균은 2.79(SD=.76), 4수준 평균은 3.04(SD=.7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1.04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호기심 수준 특성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호기심 수준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09에서 상한값 3.1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질문 정도의 전체 평균은 2.57(SD=.74)이고, 1수준 평균은 2.21(SD=.67), 2수준 평균은 2.46(SD=.69), 3수준 평균은 2.66(SD=.71), 4수준 평균은 2.98(SD=.7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2.555$,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3수준, 2수준,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질문 정도 수준에서도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10에서 상한값 3.0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 행동지표 1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여러 번 질문하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로 분류되었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질문 횟수의 전체 평균은 7.74(SD=12.49)이고, 1수준 평균은 3.99(SD=4.87), 2수준 평균은 6.65(SD=11.37),

3수준 평균은 9.04(SD=14.77), 4수준 평균은 10.88(SD=12.7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2.213$,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과 4수준이 1수준과 2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 수준은 질문 횟수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2.00에서 상한값 12.6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1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0~5개 이하의 질문을 한다.', 2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6~7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8~9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10개 이상 질문을 한다.'로 분류되었다.

표 V-57 고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들)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19	0.208	149	2.79	4.848	1.408	4.163		3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633	2.69	0.133	629	4.32	8.668	3.652	4.992	8.979***	4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486	3.11	0.131	484	4.96	7.522	4.199	5.727	4>1,2,3	5회 정도 경험한다.
4수준	198	3.71	0.189	198	7.28	12.126	6.085	8.475		6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전체	1466	2.91	0.442	1460	4.78	8.641	3.836	5.839		

***p<.001, **p<.01, *p<.05

표 V-58 고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19	0.208	148	2.20	0.670	2.085	2.320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	633	2.69	0.133	633	2.51	0.703	2.449	2.562	51.049***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486	3.11	0.131	486	2.79	0.759	2.723	2.853	4>3>2>1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4수준	198	3.71	0.189	198	3.04	0.776	2.934	3.137		지주 생기는 편이다.
전체	1466	2.91	0.442	1465	2.64	0.765	2.548	2.718		

***p<.001, **p<.01, *p<.05

표 V-59 고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정한 질문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19	0.208	149	2.21	0.671	2.095	2.321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	633	2.69	0.133	632	2.46	0.689	2.409	2.519	42.555***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486	3.11	0.131	486	2.66	0.709	2.594	2.719	4>3>2>1	여러 번 질문하는 편이다.
4수준	198	3.71	0.189	198	2.98	0.774	2.881	3.078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전체	1466	2.91	0.442	1465	2.57	0.735	2.495	2.659		

***p<.001, **p<.01, *p<.05

표 V-60 고등학교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공정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9	2.19	0.208	149	3.99	4.871	2.003	5.970		0~5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633	2.69	0.133	629	6.65	11.367	5.686	7.617	12.213***	6~7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486	3.11	0.131	482	9.04	14.768	7.933	10.139	3,4>1,2	8~9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198	3.71	0.189	195	10.88	12.754	9.151	12.619		10개 이상 질문을 한다.
전체	1466	2.91	0.442	1455	7.74	12.487	6.193	9.086		

***p<.001, **p<.01, *p<.05

(5)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61와 같다.

표 V-61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사고력	문제사고 수준	1수준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적절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2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4수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 편이다.
		2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거의 정확한 편이다.
		3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정확한 편이다.
	문제해결 효율성	4수준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매우 정확한 편이다.
		1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짧은 편이다.
		2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조금 짧은 편이다.
		3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조금 긴 편이다.
		4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긴 편이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 시간 (분)	1수준	1시간 정도이다.
			2수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이다.
			4수준	2시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2수준	70점 이상 ~ 7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3수준	75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해 있다.
			4수준	8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있다.
	수학	학습 시간 (분)	1수준	0~1시간 미만이다.
			2수준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이다.
			3수준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30분 미만이다.
			4수준	2시간 30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6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60점 이상 ~ 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8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수준	평균	2.80	
	1수준	2.02		
	2수준	2.57		
	3수준	3.01		
4수준	3.60			
전체	2.80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지적·도구 활용능력 수준 평균 2.02 1수준 2수준 2.57 3수준 3.01 4수준 3.60 전체 2.80	과학	학습 시간 (분)	1수준	30분 미만이다.
			2수준	30분 정도이다.
			3수준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다.
			4수준	1시간 이상이다.
	학업 성취도		1수준	0~65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2수준	65점 이상 ~ 7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3수준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4수준	80점 이상 ~ 1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정보·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시간 (분)	1수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미만 사용한다.
			2수준	
			3수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사용한다.
			4수준	
	활용 수준		1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부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2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기금 만들 수 있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특성
하급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3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4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5회 경험한다.
		4수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6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호기심 수준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아주 가끔 생기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질문 정도		1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아주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2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여러 번 질문하는 편이다.
		4수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질문 횟수		1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0~5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6~7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8~9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10개 이상 질문을 한다.

(6)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고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62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사고력	유형 1	257	3.44	0.37	340.062**	유형 1)2)3
	유형 2	303	3.08	0.26		
	유형 3	889	2.87	0.31		
	전체	1449	3.02	0.38		
지적도구 활용능력	유형 1	257	3.30	0.43	652.274**	유형 1)2)3
	유형 2	303	3.15	0.25		
	유형 3	889	2.55	0.35		
	전체	1449	2.81	0.48		
학습 적응성	유형 1	257	3.57	0.29	913.361**	유형 1)2)3
	유형 2	303	3.00	0.18		
	유형 3	889	2.69	0.32		
	전체	1449	2.91	0.44		

*p<.05, **p<.01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생애학습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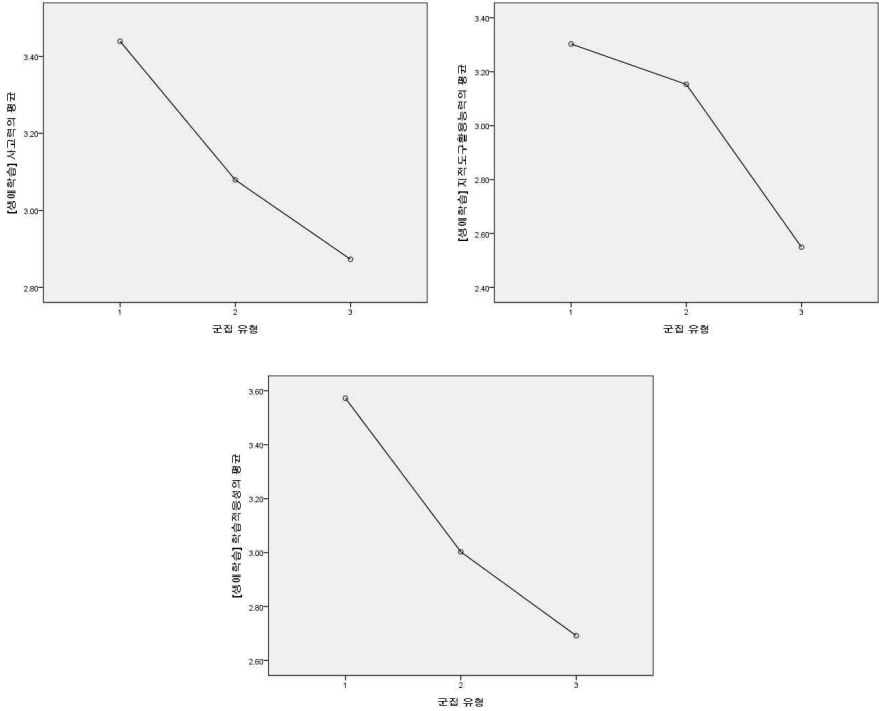


그림 V-5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학습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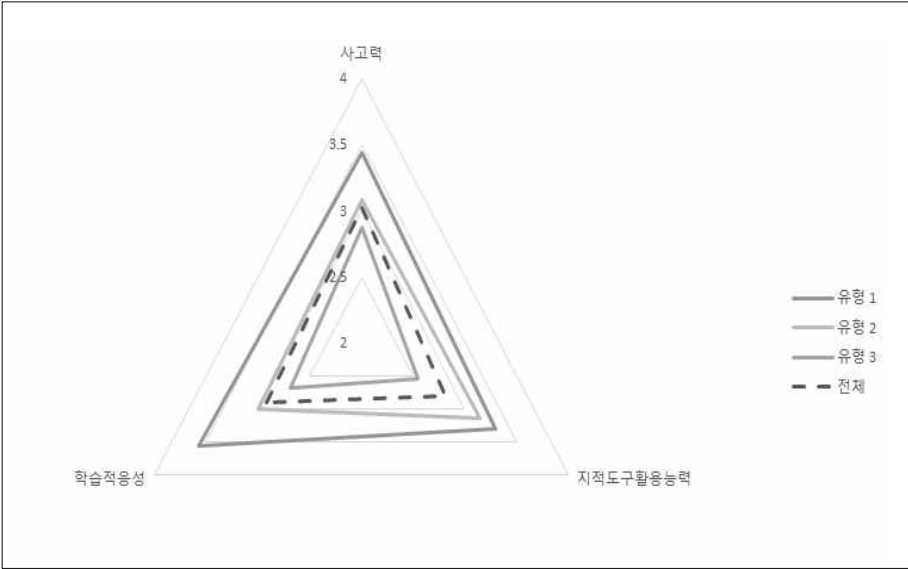


그림 V-6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사고력과 학습적응성을 바탕으로 지적도구활용능력이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몰입형’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유형 2는 사고력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주도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리-주도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사고력에서는 논리적 사고력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학습적응성의 변화수용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성-변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63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학습역량	학습-몰입형 (유형 1)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3~4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	
			언어	학습시간	4수준에 해당함
				학습성취도	
			수학	학습시간	4수준에 해당함
				학습성취도	
			과학	학습시간	4수준에 해당함
				학습성취도	
			ICT	활용시간	2~4수준에 해당함
				활용수준	3~4수준에 해당함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4수준에 해당함
				질문 정도	
				질문 횟수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2~3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 학습역량	논리-주도형 (유형 2)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높은 특성이 있음.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3수준에 해당함
				수학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3수준에 해당함
				과학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3~4수준에 해당함
				ICT	활용시간 활용수준 2~4수준에 해당함 2수준에 해당함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3수준에 해당함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효율성 문제해결효율성	1~2수준에 해당함
				언어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1~2수준에 해당함
				수학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1~2수준에 해당함
			지적도구능력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학습역량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지적도구능력	과학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1~3수준에 해당함	
				ICT	활용시간	1~2수준에 해당함	
			학습적응성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활용수준	1~2수준에 해당함	1~2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질문 정도		
					질문 횟수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61> 참조.

4)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따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력에 따른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이고, 지적도구 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언어, 수학, 그리고 과학능력은 학습시간(분)과 학습 성취도이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컴퓨터 활용시간(분)과 컴퓨터 활용 수준이었으며, 학습적응성의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수준, 질문 회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64와 같다.

표 V-6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391	2.54	.77
	문제해결효과성		406	2.92	.44
	문제해결효율성		406	2.65	.65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분)	412	87.61	110.52
		언어 활용 수준	412	2.08	.81
	수학	수학 활용 수준	412	2.00	.80
		과학	과학 활용 수준	412	2.00
	정보통신 활용	컴퓨터활용시간(분)	412	66.29	60.82
		컴퓨터 활용수준	412	2.62	.90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412	4.08	5.90
	호기심 수준		412	2.51	.69
	질문 정도		412	2.48	.72
	질문 횟수		411	4.35	6.73

대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사고력 행동지표의 평균은 문제사고수준 2.54(SD=.77), 문제해결효과성 2.92(SD=.44), 문제해결효율성 2.65(SD=.65)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학습시간 87.61분(SD=110.52)이고 언어 활용 수준은 2.08(SD=.81)이고, 수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에 있어 수학 활용 수준은 2.00(SD=.80)이고, 과학능력 행동지표 평균에 있어 과학 활용 수준은 2.00(SD=.80)이며,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 평균은 컴퓨터활용시간 66.29분(SD=60.82)이고 컴퓨터 활용 수준은 2.62(SD=.90)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행동지표 평균은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4.08회(SD=5.90), 호기심 수준 2.51(SD=.69), 질문 정도 2.48(SD=.72), 그리고 질문 횟수 4.35회(SD=6.73)로 나타났다.

(2)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65와 같다.

표 V-65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391	.012(.009) / 4.647*	.243	.109	2.156*
	문제해결효과성		406	.046(.044) / 19.384**	.270	.214	4.403**
	문제해결효율성		406	.004(.001) / 1.452	.111	.060	1.205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시간	412	.002(.000) / .813	11.540	.045	.902
		언어 활용 수준	412	.052(.050) / 22.619**	.433	.229	4.756**
	수학	수학 활용 수준	412	.168(.164) / 81.278**	.768	.407	9.015**
	과학	과학 활용 수준	412	.168(.164) / 81.278**	.768	.407	9.015**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지적도구 활용능력	정보통신 활용	컴퓨터 활용시간	412	.001(.000) / .404	-4.478	-.031	-.636
		활용수준	412	.041(.038) / 17.316**	.422	.202	4.161**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412	.023(.020) / 9.512**	2.358	.151	3.084**
	호기심 수준		412	.099(.097) / 44.946**	.577	.314	6.704**
	질문 정도		412	.072(.070) / 31.743**	.512	.268	5.634**
	질문 횟수		411	.044(.041) / 16.659**	3.728	.209	4.320**

***p<.001, **p<.01, *p<.05

대학생의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에 있어서 사고력의 문제해 결효율성, 지적도구활용능력에서 언어 능력의 학습시간,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시간이 $p>.05$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회귀분석모형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은 문제사고수준 $\beta=.109$, $t=2.156$, $p<.01$, 문제해결효과성 $\beta=.214$, $t=4.403$, $p<.01$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능력 언어 활용 수준 $\beta=.229$, $t=4.756$, $p<.01$, 수학 능력 수학 활용 수준 $\beta=.407$, $t=9.015$, $p<.01$, 과학능력 과학 활용 수준 $\beta=.407$, $t=9.015$, $p<.01$, 정보통신활용능력 컴퓨터 활용 수준 $\beta=.202$, $t=4.16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beta=.151$, $t=3.084$, $p<.01$, 호기심 수준 $\beta=.314$, $t=6.704$, $p<.01$, 질문 정도 $\beta=.268$, $t=5.634$, $p<.01$, 질문 횟수 $\beta=.209$, $t=4.32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
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0초과~1미만=3
수준, -1초과~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66과 같다.

표 V-66 201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대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사고력		411	3.00	.35	1수준	39(9.5)	2.40	0.14
					2수준	232(56.4)	2.89	0.12
					3수준	100(24.3)	3.23	0.08
					4수준	40(9.7)	3.70	0.21
지적도구 활용능력	전체	411	2.79	.43	1수준	65(15.8)	2.14	0.21
					2수준	142(34.5)	2.61	0.11
					3수준	135(32.8)	2.95	0.11
					4수준	69(16.8)	3.45	0.20
	언어	412	2.83	.50	1수준	98(23.8)	2.16	0.23
					2수준	98(23.8)	2.67	0.00
					3수준	124(30.1)	3.00	0.00
					4수준	92(22.3)	3.50	0.22
	수학	411	2.72	.64	1수준	83(20.2)	1.79	0.29
					2수준	151(36.7)	2.55	0.16
					3수준	126(30.7)	3.09	0.15
					4수준	51(12.4)	3.79	0.16
	과학	412	2.52	.73	1수준	83(14.3)	1.79	0.29
					2수준	151(33.0)	2.55	0.16
					3수준	126(36.4)	3.09	0.15
					4수준	51(16.3)	3.79	0.16
	ICT	412	3.09	.56	1수준	49(11.9)	2.08	0.39
					2수준	214(51.9)	2.92	0.14
					3수준	55(13.3)	3.33	0.00
					4수준	94(22.8)	3.85	0.17
학습적응성		412	2.92	.38	1수준	65(15.8)	2.35	0.22
					2수준	140(34.0)	2.77	0.08
					3수준	131(31.9)	3.06	0.08
					4수준	76(18.4)	3.48	0.17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평균 점수(원점수) 3.00(SD=.35)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39명, 9.5%) 평균은 2.40(SD=.14), 2수준(232명, 56.4%) 평균은 2.89(SD=.12), 3수준(200명, 24.3%) 평균은 3.23(SD=.08), 4수준(40명, 9.7%) 평균은 3.70(SD=.21)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원점수 2.79(SD=.43)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65명, 15.8%) 평균은 2.14(SD=.21), 2수준(142명, 34.5%) 평균은 2.61(SD=.11), 3수준(135명, 32.8%) 평균은 2.95(SD=.11), 4수준(69명, 16.8%) 평균은 3.45(SD=.20)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원점수 2.92(SD=.38)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65명, 15.8%) 평균은 2.35(SD=.22), 2수준(140명, 34.0%) 평균은 2.77(SD=.08), 3수준(131명, 31.9%) 평균은 3.06(SD=.08), 4수준(76명, 18.4%) 평균은 3.48(SD=.17)로 나타났다.

(4)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생애학습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일원변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고력 행동지표의 특성

사고력 행동지표는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 효과성, 그리고 문제해결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사고 수준의 전체 평균은 2.54(SD=.78)이고 1수준 평균은 2.42(SD=.95)이고, 2수준 평균은 2.53(SD=.70), 3수준 평균은 2.52(SD=.83), 4수준 평균은 2.81(SD=.7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89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에 따른 행동 지표 특성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동적 특성은 대학생들이 응답한 점수의 분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한 각 수분별 분포를 분석하여 행동지표를 분류하였다. 문제사고 수준의 행동지표 점수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2.11에서 상한값 3.0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문제사고 수준에 있어 2번과 3번문항에 대부분 응답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과 4번문항은 그 응답분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제사고 수준의 2번과 3번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그 수준별 특성을 2번 문항은 1과 2수준으로 3번 문항은 3과 4수준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문제사고 수준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가끔 제시한다.’, 2수준과 3수준 행동지표 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4수준 행동특성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과성의 전체 평균은 2.92 (SD=.44)이고 1수준 평균은 2.74(SD=.60)이고, 2수준 평균은 2.88(SD=.39), 3수준 평균은 3.01(SD=.41), 4수준 평균은 3.08(SD=.4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87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와 3수준이 2와 1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효과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한 각 수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55에서 상한값 3.23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 효과성 문항에 있어 2번, 3번, 그리고 4번에 집중적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2개 수준의 특성을 구분하여 4개의 특성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낮은 편이다.’, 2수준은 ‘약간 낮은 편이다.’, 3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높은 편이다.’로 분류하였다.

사고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문제해결 효율성의 전체 평균은 2.64($SD=.65$)이고 1수준 평균은 2.49($SD=.82$)이고, 2수준 평균은 2.63($SD=.63$), 3수준 평균은 2.76($SD=.55$), 4수준 평균은 2.58($SD=.7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029$, $p>.05$ 수준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문제해결 효율성의 행동지표 특성에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제해결 효율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한 각 수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22에서 상한값 2.80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문제해결 효과성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 문항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과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제해결 효과성 행동지표의 특성은 전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중간수준이다.’로 분류하였다.

표 V-67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사고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39	2.40	0.14	38	2.42	.95	2.11	2.73	1.892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가꿈 제시한다
2수준	232	2.89	0.12	222	2.53	.70	2.44	2.62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100	3.23	0.08	93	2.52	.83	2.35	2.69		
4수준	40	3.70	0.21	37	2.81	.74	2.56	3.06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전체	411	3.00	0.35	390	2.54	.77	2.47	2.62		

***p<.001, **p<.01, *p<.05

표 V-68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과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39	2.40	0.14	39	2.74	.60		2.55	2.94		낮은 편이다.
2수준	232	2.89	0.12	226	2.88	.39		2.83	2.94	5.875**	약간 낮 편이다.
3수준	100	3.23	0.08	100	3.01	.41		2.93	3.09	4.32,1	약간 높은 편이다.
4수준	40	3.70	0.21	40	3.08	.47		2.92	3.23		높은 편이다.
전체	411	3.00	0.35	405	2.92	.44		2.88	2.96		

***p<.001, **p<.01, *p<.05

표 V-69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행동지표 특성 : 문제해결 효율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39	2.40	0.14	39	2.49	.82		2.22	2.75		
2수준	232	2.89	0.12	226	2.63	.63		2.55	2.72	2.029	펼지도 길지도 않은 중간수준이다.
3수준	100	3.23	0.08	100	2.76	.55		2.65	2.87		
4수준	40	3.70	0.21	40	2.58	.71		2.35	2.80		
전체	411	3.00	0.35	405	2.64	.65		2.58	2.71		

***p<.001, **p<.01, *p<.05

②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행동지표 특성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언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활용능력 행동지표는 학습시간, 활용 능력 수준으로 구분된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언어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학습시간 전체 평균은 87.61분(SD=110.52)이고 1수준 평균은 55.02분(SD=84.87)이고, 2수준 평균은 98.35분(SD=114.32), 3수준 평균은 96.74분(SD=120.83), 4수준 평균은 98.57분(SD=110.98)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8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 3, 2수준이 1수준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학습시간은 2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의 학습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 보면, 하한값이 38.00에서 상한값 121.5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능력의 학습시간 1수준은 '1시간 이하'로 나타났고, 2, 3, 4수준은 '1시간 30분 이상'으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언어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언어 활용 수준 전체 평균은 2.08(SD=.81)이고 1수준 평균은 1.78(SD=.74)이고, 2수준 평균은 1.98(SD=.83), 3수준 평균은 2.15(SD=.78), 4수준 평균은 2.41(SD=.7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1.48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과 4수준이 1과 2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언어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언어 활용 수준은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언어능력의 언어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63에서 상한값 2.57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능력의 언어 활용 수준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수준이다.', 2수준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운 수준이다', 3수준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어렵게

느껴진다.’, 4수준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로 분류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수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수학 활용 수준 전체 평균은 2.72(SD=.64)이고 1수준 평균은 2.08(SD=.65)이고, 2수준 평균은 2.52(SD=.52), 3수준 평균은 2.88(SD=.47), 4수준 평균은 3.30(SD=.5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8.16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수학 활용 수준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수학능력의 수학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91에서 상한값 3.43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의 수학 활용 수준 행동특성은 1수준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2수준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편이다.’로 나타났고, 3수준은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이며, 4수준은 ‘상황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과학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과학 활용 수준 전체 평균은 2.00(SD=.80)이고 1수준 평균은 1.51(SD=.68)이고, 2수준 평균은 1.85(SD=.73), 3수준 평균은 2.16(SD=.73), 4수준 평균은 2.42(SD=.9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9.28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과학 활용 수준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과학능력의 수학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33에서 상한값 2.64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능력의 과학 활용 수준 행동특성은 1수준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2수준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 편이나, 상황에 따라 아주 가끔 사용한다.’로 나타났고, 3수준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이며, 4수준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로 특성이 분류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 시간 전체 평균은 66.29분($SD=60.82$)이고 1수준 평균은 65.54분($SD=63.43$)이고, 2수준 평균은 69.72분($SD=58.83$), 3수준 평균은 74.70분($SD=69.27$), 4수준 평균은 53.94분($SD=57.7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88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컴퓨터 활용 시간은 정보통신활용능력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47.32에서 상한값 93.43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사용한다.’로 분류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행동지표에 있어 컴퓨터 활용 수준 전체 평균은 2.62($SD=.89$)이고 1수준 평균은 2.43($SD=.94$)이고, 2수준 평균은 2.47($SD=.86$), 3수준 평균은 2.71($SD=.81$), 4수준 평균은 3.02($SD=.8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9.91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그리고 2수준과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통신활용능력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컴퓨터 활용 수준은 3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2.16에서 상한값 3.20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컴퓨터 활용 수준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 1수준과 2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로 분류되었다.

표 V-70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학습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관련 공부 시간(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98	2.16	0.23	98	55.02	84.87	38.00	72.03	3.811**	하루 평균 1시간 이하이다.	
2수준	98	2.67	0.00	98	98.35	114.32	75.43	121.27			
3수준	124	3.00	0.00	124	96.74	120.83	75.26	118.22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이다.	
4수준	92	3.50	0.22	92	98.57	110.98	75.59	121.56			
전체	412	2.83	.50	412	87.61	110.52	76.91	98.31			

***p<.001, **p<.01, *p<.05

표 V-71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행동지표 특성 : 언어 활용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언어(외국어) 관련 활용 능력에 있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98	2.16	0.23	98	1.78	.740	1.63	1.92	11.488** 4.3>2.1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수준 이다.
2수준	98	2.67	0.00	98	1.98	.825	1.81	2.14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운 수준이다
3수준	124	3.00	0.00	124	2.15	.783	2.01	2.28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수 준이지만 어렵게 느껴진다	
4수준	92	3.50	0.22	92	2.41	.758	2.26	2.57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수 준이지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전체	412	2.83	.50	412	2.08	.807	2.00	2.16		

***p<.001, **p<.01, *p<.05

표 V-72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수학 활용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관련 지식이나 기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83	1.79	0.29	59	2.08	.65	1.91	2.25	68.159** 4)3)2)1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2수준	151	2.55	0.16	135	2.52	.52	2.43	2.61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편이다.
3수준	126	3.09	0.15	150	2.88	.47	2.82	2.96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4수준	51	3.79	0.16	67	3.30	.53	3.17	3.43		상황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전체	412	2.72	0.64	411	2.72	.64	2.65	2.78		

***p<.001, **p<.01, *p<.05

표 V-73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역량 행동지표 특성 : 과학 활용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관련 지식이나 기술)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83	1.79	0.29	59	1.51	.679	1.33	1.69	19.282** 4)3)2)1	거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2수준	151	2.55	0.16	136	1.85	.729	1.72	1.97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3수준	126	3.09	0.15	150	2.16	.733	2.04	2.28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4수준	51	3.79	0.16	67	2.42	.907	2.20	2.64		상황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전체	411	2.52	0.73	412	2.00	.804	1.93	2.08		

***p<.001, **p<.01, *p<.05

표 V-74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9	2.08	0.39		49	65.54	63.43		47.32	83.76	1.884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사용 한다.
2수준	214	2.92	0.14		214	69.72	58.83		61.79	77.65		
3수준	55	3.33	0.00		55	74.70	69.27		55.98	93.43		
4수준	94	3.85	0.17		94	53.94	57.73		42.12	65.76		
전체	412	3.09	0.56		412	66.29	60.82		60.40	72.18		

***p<.001, **p<.01, *p<.05

표 V-75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역량 행동지표 특성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들)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9	2.08	0.39		49	2.43	0.94		2.16	2.70	9.918** 4)3)2,1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대부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2수준	214	2.92	0.14		214	2.47	0.86		2.35	2.58		
3수준	55	3.33	0.00		55	2.71	0.81		2.49	2.93		
4수준	94	3.85	0.17		94	3.02	0.87		2.84	3.20		
전체	412	3.09	0.56		412	2.62	0.89		2.53	2.71		

***p<.001, **p<.01, *p<.05

③ 학습적응성 행동지표의 특성

학습적응성 행동지표는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그리고 질문 횟수로 구분된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전체 평균은 4.08(SD=5.90)이고 1수준 평균은 2.69(SD=2.94)이고, 2수준 평균은 3.55(SD=4.12), 3수준 평균은 4.76(SD=6.34), 4수준 평균은 5.05(SD=8.8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87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과 4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 수준에 있어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은 3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96에서 상한값 7.07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3회 정도 경험한다.’, 2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4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5회 정도 경험한다.’, 그리고 4수준은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6회 이상 경험한다.’로 분류하였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호기심 수준 전체 평균은 2.51(SD=.69)이고 1수준 평균은 2.128(SD=.55)이고, 2수준 평균은 2.44(SD=.63), 3수준 평균은 2.60(SD=.64), 4수준 평균은 2.84(SD=.8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5.11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적응성의 호기심 수준은 4개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적응성의 호기심 수준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97에서 상한값 3.03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새로운 변화 경험 행동지표 특성 1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드물게 생기는 편이다.’, 2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로 분류되었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질문 정도의 행동지표 전체 평균은 2.48($SD=.72$)이고 1수준 평균은 2.17($SD=.84$)이고, 2수준 평균은 2.42($SD=.61$), 3수준 평균은 2.53($SD=.67$), 4수준 평균은 2.78($SD=.7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9.43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과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3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96에서 상한값 2.9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정도의 행동지표 1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이 필요한 때만 아주 드물게 하는 편이다.’, 2수준과 3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하는 편이다.’, 그리고 4수준은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하는 편이다.’로 분류되었다.

학습적응성의 4가지 수준에 따른 질문 횟수의 행동지표 전체 평균은 4.35($SD=6.73$)이고 1수준 평균은 2.66($SD=2.76$)이고, 2수준 평균은 3.71($SD=3.74$), 3수준 평균은 4.16($SD=4.19$), 4수준 평균은 7.35($SD=13.2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7.08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4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하한값이 1.98에서 상한값 10.39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응성의 질문 횟수 행동지표 1수준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3개 정도 질문을 한다.’, 2수준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4개 정도 질문을 한다.’, 3수준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5개 정도 질문을 한다.’, 그리고 4수준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6개 정도 질문을 한다.’로 분류되었다.

표 V-76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변화들)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65	2.35	0.22	65	2.69	2.94	1.96	3.42	2.873* 3.4)2)1	3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2수준	140	2.77	0.08	140	3.55	4.12	2.86	4.24		4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131	3.06	0.08	131	4.76	6.34	3.66	5.85		5회 정도 경험한다.
4수준	76	3.48	0.17	76	5.05	8.85	3.03	7.07		6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전체	412	2.92	0.38	412	4.08	5.90	3.50	4.65		

***p<.001, **p<.01, *p<.05

표 V-77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호기심 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65	2.35	0.22	65	2.12	0.55	1.99	2.26	15.112** 4)3)2)1	드물게 생기는 편이다.
2수준	140	2.77	0.08	140	2.44	0.63	2.34	2.55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131	3.06	0.08	131	2.60	0.64	2.48	2.71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4수준	76	3.48	0.17	76	2.84	0.82	2.66	3.03		자주 생기는 편이다.
전체	412	2.92	0.38	412	2.51	0.69	2.45	2.58		

***p<.001, **p<.01, *p<.05

표 V-78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65	2.35	0.22	65	2.17	0.84	1.96	2.38	9.438** 4>3,2>1	답이 필요한 때만 아주 드물게 하는 편이다.
2수준	140	2.77	0.08	140	2.42	0.61	2.32	2.52		가끔 하는 편이다.
3수준	131	3.06	0.08	131	2.53	0.67	2.42	2.65		
4수준	76	3.48	0.17	76	2.78	0.76	2.60	2.95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전체	412	2.92	0.38	412	2.48	0.72	2.41	2.55		

***p<.001, **p<.01, *p<.05

표 V-79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행동지표 특성 : 질문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공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65	2.35	0.22	65	2.66	2.76	1.98	3.34	7.082** 4>3>2>1	약 3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2수준	140	2.77	0.08	140	3.71	3.74	3.09	4.34		약 4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131	3.06	0.08	131	4.16	4.19	3.43	4.88		약 5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76	3.48	0.17	75	7.35	13.21	4.31	10.39		약 6개 이상 질문을 한다.
전체	412	2.92	0.38	411	4.35	6.73	3.70	5.00		

***p<.001, **p<.01, *p<.05

(5)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대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80과 같다.

표 V-80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 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사고력	문제사고 수준	1수준	2.42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기쁨 제시한다	
		2수준	2.53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3수준	2.52		
		4수준	2.81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한다.	
	문제해결 효과성	1수준	2.74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2수준	2.88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약간 낮은 편이다.	
		3수준	3.01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약간 높은 편이다.	
		4수준	3.08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문제해결 효율성	1수준	2.49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중간수준이다.	
		2수준	2.63		
		3수준	2.76		
		4수준	2.58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	학습 시간 (분)	1수준	55.02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관련 공부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이하이다.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관련 공부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이다.
			2수준	98.35	
			3수준	96.74	
			4수준	98.57	
		활용수준	1수준	1.78	언어(외국어) 관련 활용 능력에 있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수준이다. 언어(외국어) 관련 활용 능력에 있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운 수준이다 언어(외국어) 관련 활용 능력에 있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어렵게 느껴진다.
			2수준	1.98	
			3수준	2.15	
			4수준	2.41	
	수학	수학	1수준	2.08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과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과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편이다.
			2수준	2.52	
			3수준	2.88	
			4수준	3.30	
		전체	평균	2.79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과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상황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1수준	2.14	
			2수준	2.61	
			3수준	2.95	
전체	3.45				
	2.79				

행동지표						
역량	지표		수준	평균	특성	
	과학	학업 성취도				
지적·도구 활용능력	수준	평균	1수준	1.51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1수준	1.79	2수준	1.85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2수준	2.55	3수준	2.16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3수준	3.09	4수준	2.42	일상생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상황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4수준	3.79				
	전체	2.52				
	정보활용 능력		1수준	65.54	컴퓨터 활용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사용한다.	
			2수준	69.72		
			3수준	74.70		
			4수준	53.94		
	수준		평균	1수준	2.43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수준		2.92	2수준	2.47	
	3수준		3.33	3수준	2.71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4수준		3.85	4수준	3.02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및 휴대폰)의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전체		3.09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1수준	2.69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3회 이하 정도 경험한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학습 적응성	새로운 변화 경험 횟수	2수준	3.55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4회 정도 경험한다.
		3수준	4.76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5회 경험한다.
		4수준	5.05	지난 한달 동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6회 이상 정도 경험한다.
		1수준	2.12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것이 드물게 생기는 편이다.
	호기심 수준	2수준	2.44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것이 가끔 생기는 편이다.
		3수준	2.60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것이 여러 번 생기는 편이다.
		4수준	2.84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것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1수준	2.17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이 필요한 때만 아주 드물게 하는 편이다.
	질문 정도	2수준	2.42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끔 질문하는 편이다.
		3수준	2.53	
		4수준	2.78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공금한 질문이 생겼을 때, 자주 질문하는 편이다.
		1수준	2.66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공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3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질문 횟수	2수준	3.71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공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4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3수준	4.16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공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5개 정도의 질문을 한다.	
	4수준	7.35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공금한 것(호기심)이 생겼을 때, 약 6개 이상 질문을 한다.	

(6)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대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81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사고력	유형 1	126	3.12	0.28	107.132**	유형 2>1>3
	유형 2	43	3.49	0.32		
	유형 3	241	2.86	0.27		
	전체	410	3.00	0.35		
지적도구 활용능력	유형 1	126	2.99	0.33	168.994**	유형 1>2>3
	유형 2	43	3.42	0.27		
	유형 3	241	2.57	0.32		
	전체	410	2.79	0.43		
학습 적응성	유형 1	126	3.13	0.25	200.079**	유형 1>2>3
	유형 2	43	3.48	0.21		
	유형 3	241	2.72	0.29		
	전체	410	2.92	0.38		

*p<.05, **p<.01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생애학습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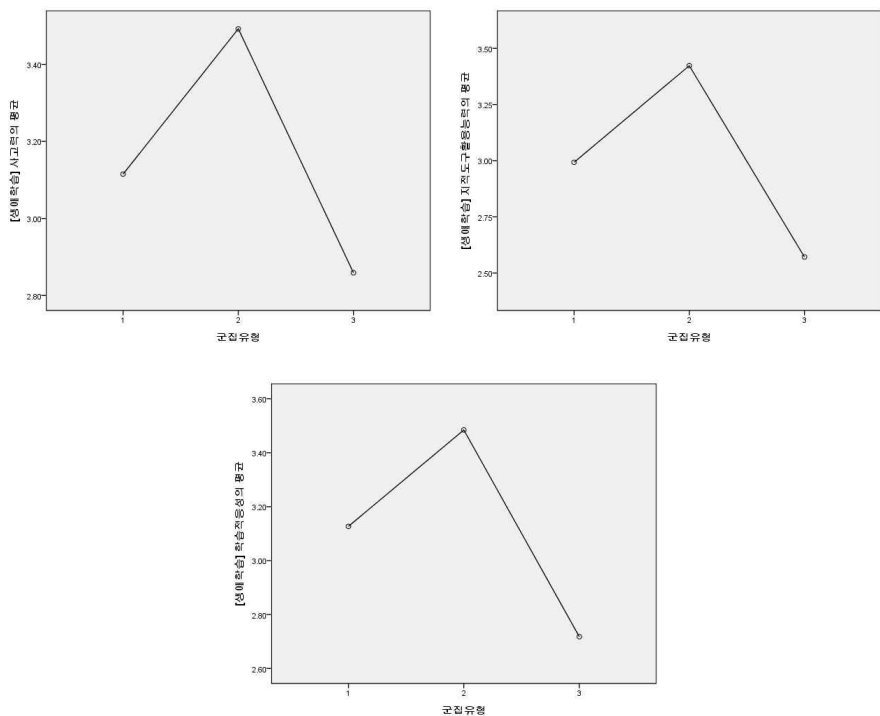


그림 V-7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학습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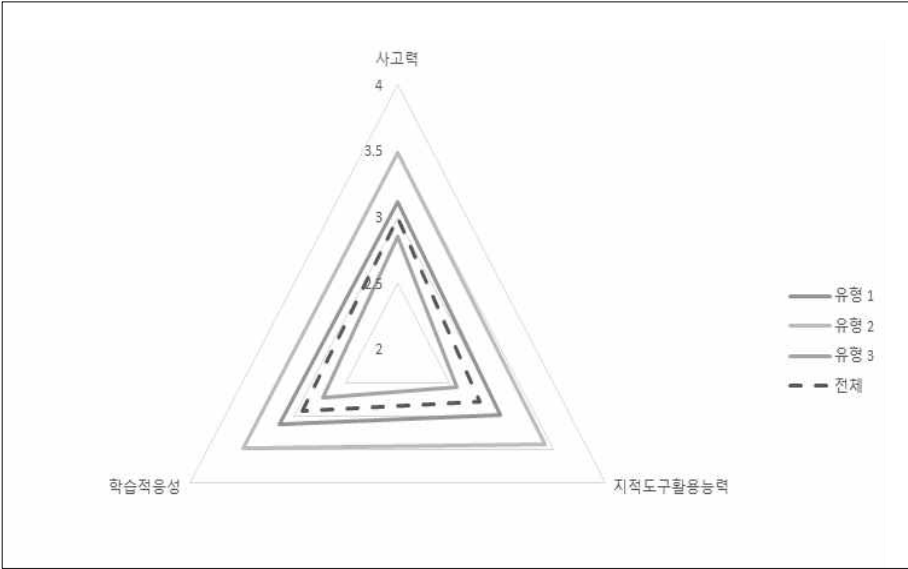


그림 V-8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사고력과 학습적응성을 바탕으로 지적도구활용능력이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몰입형’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유형 2는 사고력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주도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리-주도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사고력에서는 논리적 사고력보다는 감성적 특성과 학습적응성의 변화수용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성-변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 -82 대학생 생애학습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학습역량	학습-몰입형 (유형 2)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사고수준	4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과성	
				문제해결효율성	
			지적도구능력	언어 학습시간	4수준에 해당함
				활용 수준	
				수학 활용 수준	
			ICT	과학 활용 수준	4수준에 해당함
				활용 시간	
				활용 수준	
				활용 수준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용
	노리-주도형 (유형 1)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함	학습적응성	새로운 변화경험 회수	4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회수	
				문제사고수준	
			사고력	문제해결효과성	3수준에 해당함
				문제해결효율성	
				문제해결효율성	
				문제해결효율성	
				문제해결효율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 학습역량	노리-주도형 (유형 1)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함	지적도구능력	언어	학습시간 활용 수준 3수준에 해당함
				수학	활용 수준 3수준에 해당함
				과학	활용 수준 3수준에 해당함
				ICT	활용시간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용 2~3수준에 해당함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3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문제사고수준	
				문제해결효과성	1~2수준에 해당함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사고력	문제해결효율성	
				언어	학습시간 활용 수준 1~2수준에 해당함
				수학	활용 수준 1~2수준에 해당함
				과학	활용 수준 1~2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애학습역량	감성-변화형 (유형 3)	사고력, 지적도구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지적도구능력	ICT 활용시간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용
				활용수준	1~2수준에 해당함
			학습적응성	새로운 변화경험 횟수	1~2수준에 해당함
				호기심 수준	
				질문 정도	
				질문 횟수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80> 참조.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따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아침식사 빈도, 운동(신체활동) 빈도,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이다. 과제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이며,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중독 행동과 폭력 행동 경험이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및 감정인식, 절제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83과 같다.

표 V-8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1142	4.16	1.30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1143	4.82	2.35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1134	4.88	1.34
	스트레스 관리 행동		1141	3.22	0.57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139	3.05	0.62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143	3.47	0.66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1141	3.72	0.38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141	3.85	0.31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1141	3.37	0.40

* 이 절은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초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평균은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행동 수준 4.16 (SD=1.30),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수준 4.82 (SD=2.35),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4.88 (SD=1.34) 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3.22 (SD=0.57)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청소년은 건강관리 행동지표인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매일 먹지는 못하더라도 평균 5-6일 정도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일주일 간 평균 3-4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주일 간 평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지표 평균은 3.05 (SD=0.62)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은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47 (SD=0.66),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72 (SD=0.38),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85 (SD=0.31)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과 절제 행동의 평균은 3.37 (SD=0.40)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노 행동이나 감정을 절제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84와 같다.

표 V-84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F	B	β	t
건강 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1130	.019 / 23.317***	.414	.142	4.829***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1131	.132 / 172.298***	1.917	.364	13.126***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1122	.009 / 11.714**	.307	.102	3.423**
	스트레스 관리 행동	1129	.246 / 369.101***	.635	.497	19.212***
과제 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129	.405 / 769.550***	.666	.637	27.741***
상황 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143	.173 / 240.636***	.577	.417	15.512***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1141	.100 / 128.356***	.253	.318	11.329***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 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141	.064 / 78.321***	.166	.254	8.850***
정서 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1141	.271 / 424.979***	.439	.521	20.615***

*** $p < .001$, ** $p < .01$, * $p < .05$

초등학교생의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해당하는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간 운동(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또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과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도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이 해당 행동지표인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과제관리역량이 목표 수립과 계획적 과제 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황대처역량이 행동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비 행동에 상황대처역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대처역량은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행동 대처나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대처에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역량도 그에 해당하는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초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 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85와 같다.

표 V-8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초등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생활관리역량	1143	3.22	0.36	1수준	200(17.5)	2.67	0.17
				2수준	346(30.3)	3.05	0.10
				3수준	412(36.0)	3.40	0.11
				4수준	185(16.2)	3.74	0.11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건강관리	1131	3.27	0.45	1수준	162(14.3)	2.54	0.25
				2수준	370(32.7)	3.03	0.12
				3수준	371(32.8)	3.47	0.13
				4수준	228(20.2)	3.86	0.10
과제관리	1133	2.89	0.59	1수준	137(12.1)	1.86	0.38
				2수준	430(38.0)	2.62	0.19
				3수준	351(31.0)	3.13	0.14
				4수준	215(19.0)	3.71	0.19
상황대처	1129	1.60	0.47	1수준	212(18.9)	2.33	0.24
				2수준	291(25.8)	1.83	0.12
				3수준	391(34.7)	1.36	0.14
				4수준	235(20.6)	1.02	0.04
정서조절	1143	3.16	0.48	1수준	190(16.6)	2.43	0.25
				2수준	374(32.7)	2.94	0.14
				3수준	399(34.9)	3.41	0.14
				4수준	180(15.7)	3.86	0.1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원점수 3.09(SD=0.39)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00명, 17.5%) 평균은 2.67 (SD=0.17), 2수준(346명, 30.3%) 평균은 3.05 (SD=0.10), 3수준(412명, 36.0%) 평균은 3.40 (SD=0.11), 4수준(185명, 16.2%) 평균은 3.74 (SD=0.11)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의 경우 원점수 3.27 (SD=0.45)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62명, 14.3%) 평균은 2.54 (SD=0.25). 2수준(370명, 32.7%) 평균은 3.03 (SD=0.12),

3수준(371명, 32.8%) 평균은 3.47 (SD=0.13), 4수준(228명, 20.2%) 평균은 3.86 (SD=0.10)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과제관리도 원점수 2.93(SD=0.57)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137명, 12.1%)의 원점수 평균은 1.86 (SD=0.38), 2수준(430명, 38.0%) 원점수 평균은 2.62 (SD=0.19), 3수준(351명, 31.0%) 평균은 3.13 (SD=0.14), 4수준(215명, 19.0%) 평균은 3.71 (SD=0.19)로 나타났다.

상황대처의 경우도 원점수 3.16(SD=0.54)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12명, 18.9%)의 원점수 평균은 2.33 (SD=0.24), 2수준(291명, 25.8%) 평균은 1.83 (SD=0.12), 3수준(391명, 34.7%) 평균은 1.36 (SD=0.14), 4수준(235명, 20.6%) 평균은 1.02 (SD=0.04)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도 원점수 3.16 (SD=0.48)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90명, 16.6%)의 원점수 평균은 2.43 (SD=0.25), 2수준(374명, 32.7%) 평균은 2.94 (SD=0.14), 3수준(399명, 34.9%) 평균은 3.41 (SD=0.14), 4수준(180명, 15.7%) 평균은 3.86(SD=0.10)으로 나타났다.

(4)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초등학생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네 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분산분석(ANOVA)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운동(신체활동), 수면시간, 스트레스관리이다. 건강관리의 네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의 전체 평균은 4.16 (SD=1.30)이고 1수준 평균은 4.07 (SD=1.38)이고, 2수준 평균은 3.93 (SD=1.40), 3수준 평균은 4.25 (SD=1.24), 4수준 평균은 4.45 (SD=1.3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8.936$,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건강관리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하는 행동은 더 빈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하는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4-5일 정도, 3수준 청소년은 5-6일 정도 아침식사를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거의 매일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신체활동)을 최근 일주일 간 며칠 정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지표에 대해서 전체 평균은 4.86 (SD=2.35)이었다. 1수준 평균은 3.57 (SD=2.37), 2수준 평균은 4.33 (SD=2.31), 3수준 평균은 5.15 (SD=2.15), 4수준 평균은 5.96 (SD=2.06)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45.994$,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동지표점수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역량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수준 구분과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에 대한 행동지표평균 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해보건대,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3-4일 정도, 3수준 청소년은 4-5일 정도,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5일 가까이 운동(신체활동)을 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관리의 네 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중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의 전체 평균은 4.87 (SD=1.34)이고 1수준 평균은 4.69 (SD=1.48)이고, 2수준 평균은

4.83 (SD=1.27), 3수준 평균은 4.89 (SD=1.32), 4수준 평균은 5.05 (SD=1.3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2.466$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수준별 행동지표인 수면 시간 점수와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인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할 때,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7-8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8시간 가까이, 3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8시간 정도,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8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행동지표 중 스트레스 관리는 전체 평균은 3.22 (SD=0.57)로 나타났으며, 1수준 평균은 2.77 (SD=0.58), 2수준 평균은 3.08 (SD=0.48), 3수준 평균은 3.34 (SD=0.48), 4수준 평균은 3.60 (SD=0.53)으로 나타났다. 수준에 따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01.199$,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한 결과, 네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건강관리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행동지표 점수 평균과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하건대, 1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3수준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강관리역량이 높은 4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능숙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86 초등학교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2	2.54	0.25	162	4.07	1.38	3.85	4.28	8.936*** 4,3>2>1	일주일 중 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일주일 중 4~5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일주일 중 5~6일 정도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아침을 먹으려고 한다
2수준	370	3.03	0.12	370	3.93	1.40	3.78	4.07		
3수준	371	3.47	0.13	370	4.25	1.24	4.13	4.38		
4수준	228	3.86	0.10	228	4.45	1.05	4.31	4.59		
전체	1131	3.27	0.45	1130	4.16	1.30	4.08	4.24		

***p<.001, **p<.01, *p<.05

표 V-87 초등학교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2	2.54	0.25	162	3.57	2.37	3.20	3.94	45.994*** 4>3>2>1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일주일에 4-5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일주일에 5일 가까이 운동(신체활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다
2수준	370	3.03	0.12	370	4.33	2.31	4.09	4.57		
3수준	371	3.47	0.13	371	5.15	2.15	4.93	5.36		
4수준	228	3.86	0.10	228	5.96	2.06	5.69	6.23		
전체	1131	3.27	0.45	1131	4.82	2.35	4.68	4.95		

***p<.001, **p<.01, *p<.05

표 V-88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2	2.54	0.25	160	4.69	1.48		4.46	4.92	2.466	평균 7-8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370	3.03	0.12	366	4.83	1.27		4.70	4.96		평균 8시간 가까이 수면을 취하는 편이다
3수준	371	3.47	0.13	370	4.89	1.32		4.75	5.02		평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편이다
4수준	228	3.86	0.10	226	5.05	1.38		4.87	5.23		평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편이다
전체	1131	3.27	0.45	1122	4.87	1.34		4.80	4.95		

***p<.001, **p<.01, *p<.05

표 V-89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2	2.54	0.25	162	2.77	0.58		2.68	2.86	101.199*** 4)3)2)1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370	3.03	0.12	369	3.08	0.48		3.03	3.13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수준	371	3.47	0.13	370	3.34	0.48		3.29	3.39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
4수준	228	3.86	0.10	228	3.60	0.53		3.53	3.67		비교적 능숙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이다
전체	1131	3.27	0.45	1129	3.22	0.57		3.19	3.26		

***p<.001, **p<.01, *p<.05

② 과제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이다. 과제관리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의 전체 평균은 3.05 (SD=0.62)이고 1수준 평균은 2.35 (SD=0.65)이고, 2수준 평균은 2.89 (SD=0.46), 3수준 평균은 3.18 (SD=0.49), 4수준 평균은 3.61 (SD=0.4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305.35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3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고, 4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90 초등학교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37	1.86	0.38	136	2.35	0.65	2.24	2.46	305.354*** 4)3)2>1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430	2.62	0.19	428	2.89	0.46	2.84	2.93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편이다
3수준	351	3.13	0.14	350	3.18	0.49	3.13	3.23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215	3.71	0.19	215	3.61	0.45	3.55	3.67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전체	1133	2.89	0.59	1129	3.05	0.62	3.01	3.09		

***p<.001, **p<.01, *p<.05

③ 상황대처 행동지표의 특성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세가지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상황대처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 (SD=0.66)이고, 1수준 평균은 2.95 (SD=0.72), 2수준 평균은 3.44 (SD=0.56), 3수준 평균은 3.65 (SD=0.53), 4수준 평균은 3.68 (SD=0.6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76.651$,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활용을 조절하고 중독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며, 3수준 청소년은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수준 청소년은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72(SD=0.38)이고, 1수준 평균은 3.54(SD=0.44), 2수준 평균은 3.66(SD=0.41), 3수준 평균은 3.75(SD=0.33), 4수준 평균은 3.89(SD=0.2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40.461$,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대체로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85 (SD=0.31)이고, 1수준 평균은 3.71(SD=0.41), 2수준 평균은 3.83(SD=0.35), 3수준 평균은 3.89(SD=0.24), 4수준 평균은 3.95(SD=0.1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26.14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거의 폭력 상황에 놓이지 않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91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6	2.67	0.24	216	2.95	0.72	216	2.86	3.05	76.651*** 4,3>2>1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있다.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2수준	295	3.17	0.12	295	3.44	0.56	295	3.37	3.50		
3수준	397	3.63	0.14	397	3.65	0.53	397	3.60	3.71		
4수준	235	3.98	0.04	235	3.68	0.63	235	3.60	3.76		
전체	1143	3.40	0.47	1143	3.47	0.66	1143	3.43	3.51		

***p<.001, **p<.01, *p<.05

표 V-92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6	2.67	0.24	216	3.54	0.44	216	3.48	3.60	40.461*** 4>3>2>1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높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높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높이고, 대체로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높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2수준	295	3.17	0.12	294	3.66	0.41	294	3.61	3.71		
3수준	397	3.63	0.14	396	3.75	0.33	396	3.72	3.79		
4수준	235	3.98	0.04	235	3.89	0.22	235	3.86	3.92		
전체	1143	3.40	0.47	1141	3.72	0.38	1141	3.69	3.74		

***p<.001, **p<.01, *p<.05

표 V-93 초등학교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6	2.67	0.24	216	3.71	0.41	3.66	3.77	26.144*** 4.3>2>1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295	3.17	0.12	294	3.83	0.35	3.79	3.87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3수준	397	3.63	0.14	396	3.89	0.24	3.86	3.91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235	3.98	0.04	235	3.95	0.18	3.93	3.97		거의 폭력 상황에 놓이지 않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한다
전체	1143	3.40	0.47	1141	3.85	0.31	3.83	3.87		

***p<.001, **p<.01, *p<.05

④ 정서조절 행동지표의 특성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정서조절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고 하겠다. 분노 등의 감정을 인식하고 절제하려는 행동의 전체 평균은 3.37 (SD=0.40) 이고, 1수준 평균은 3.01 (SD=0.46), 2수준 평균은 3.30 (SD=0.35), 3수준 평균은 3.51(SD=0.32), 4수준 평균은 3.62 (SD=0.3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24.38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역량 이 높을수록 분노 등의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대체로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94 초등학교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90	2.43	0.25	189	3.01	0.46	2.94	3.07	124.384*** 4>3>2>1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374	2.94	0.14	374	3.30	0.35	3.26	3.33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3수준	399	3.41	0.14	398	3.51	0.32	3.48	3.54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대체로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180	3.86	0.10	180	3.62	0.30	3.58	3.67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전체	1143	3.16	0.48	1141	3.37	0.40	3.35	3.40		

***p<.001, **p<.01, *p<.05

(5)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중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95와 같다.

표 V-95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수준	일주일 중 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 중 4-5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중 5~6일 정도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4수준	거의 매일 아침을 먹으려고 한다
	수준 평균	최근 일주일 간 운동 (신체활동)	1수준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에 4-5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에 5일 가까이 운동(신체활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다
	1수준 2.54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1수준	평균 7-8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3.03		2수준	평균 8시간 가까이 수면을 취하는 편이다
	3수준 3.47		3수준	평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편이다
	4수준 3.86		4수준	평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편이다
	전체 3.27	스트레스 관리	1수준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수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
			4수준	비교적 능숙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이다
과제관리	수준 평균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관제 진행	1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편이다
			3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1수준 1.86			
	2수준 2.62			
	3수준 3.13			
	4수준 3.71			
	전체 2.89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상황대처 <table><tr><th>수준</th><th>평균</th></tr><tr><td>1수준</td><td>2.67</td></tr><tr><td>2수준</td><td>3.17</td></tr><tr><td>3수준</td><td>3.63</td></tr><tr><td>4수준</td><td>3.98</td></tr><tr><td>전체</td><td>3.40</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67	2수준	3.17	3수준	3.63	4수준	3.98	전체	3.40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67														
	2수준	3.17														
	3수준	3.63														
	4수준	3.98														
	전체	3.40														
	2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3수준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있다.														
	4수준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 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1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 하는 편이다											
				3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대체로 폭력 행동을 조절 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3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거의 폭력 상황에 놓이지 않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한다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조절하려고 노력 하는 편이다												
			2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3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대체로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 하는 편이다												

(6)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초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은 네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9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역량	유형	N	M	SD	F(3, 1117)	사후검증
건강관리	유형 1	405	3.19	0.35	192.268***	유형 3>2>1>4
	유형 2	394	3.33	0.40		
	유형 3	216	3.63	0.30		
	유형 4	106	2.63	0.36		
	전체	1121	3.27	0.44		
과제관리	유형 1	405	2.79	0.41	580.244***	유형 3>2>1>4
	유형 2	394	2.85	0.35		
	유형 3	216	3.65	0.25		
	유형 4	106	1.88	0.48		
	전체	1121	2.89	0.59		
상황대처	유형 1	405	3.07	0.40	316.380***	유형 3>2>1>4
	유형 2	394	3.67	0.31		
	유형 3	216	3.73	0.27		
	유형 4	106	2.99	0.38		
	전체	1121	3.40	0.47		
정서조절	유형 1	405	2.82	0.35	390.697***	유형 2>3>1>4
	유형 2	394	3.48	0.27		
	유형 3	216	3.47	0.38		
	유형 4	106	2.70	0.40		
	전체	1121	3.17	0.48		

*p<.05, **p<.01, ***p<.001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네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모든 역량에서 모든 유형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유형별 생활관리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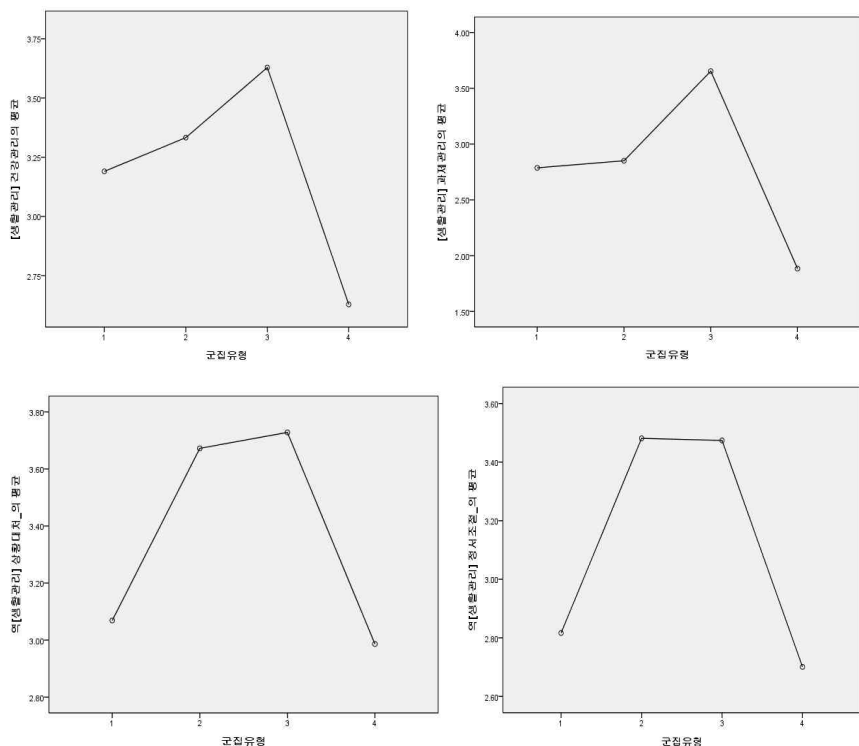


그림 V-9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네 가지 역량 모두 대체로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은 네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4는 네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모든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 보다 높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높은 하위 역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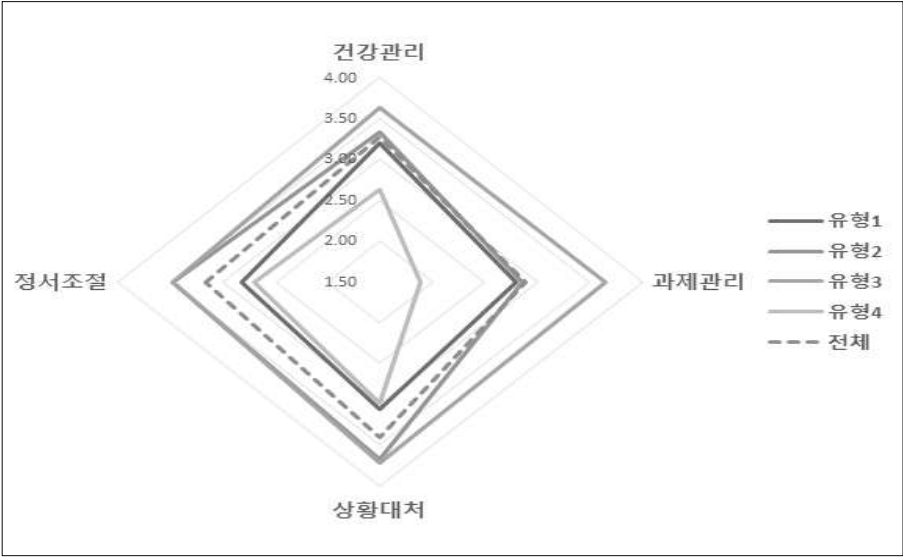


그림 V-10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초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네 가지 하위역량 모두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유형 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의 경우 평균 수준과 가까워 이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 및 과제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하위 역량 모두 평균 보다 높은 편이며, 정서조절과 상황대처의 경우 유형 3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이 특성을 ‘정서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네 가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특히, 과제관리의 경우 네 가지 유형 중 현저하게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과제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4는 네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과제관리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건강관리도 현저하게 낮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정서조절이나 상황대처는 유형 1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상황대처는 특히 유형 4의 하위역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상황대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97 초등학교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건강 및 과제관리형 (유형 1)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2~3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2~3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1~2수준에 해당함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2수준에 해당함	
	정서조절형 (유형 2)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2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2~3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정서조절형 (유형 2)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수준에 가까움
				폭력 행동 본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정서조절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3수준에 가까움
				본노, 감정인식 및 절제	
	과제관리형 (유형 3)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2수준에 가까움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과제관리	스트레스 관리	4수준에 가까움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상황대처	본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3~4수준에 해당함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본노, 감정인식 및 절제	3수준에 가까움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형 (유형 4)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2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수준에 가까움
			상황대처	폭력 행동	후대전화(스마트폰) 중독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2수준에 해당함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95> 참조.

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다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아침식사 빈도, 운동(신체활동) 빈도,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이다. 과제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이며,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중독 행동과 폭력 행동 경험이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및 감정인식, 절제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98과 같다.

표 V-9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1058	3.68	1.54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1058	3.66	2.33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1052	3.73	1.28
	스트레스 관리 행동	1059	3.20	0.55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059	2.99	0.62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060	3.17	0.74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1055	3.70	0.45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058	3.86	0.34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1061	3.23	0.50

중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평균은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행동 수준 3.68 (SD=1.54),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수준 3.66 (SD=2.33),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3.73 (SD=1.28)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

스 관리의 경우 3.20 (SD=0.55)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청소년은 건강관리 행동지표인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매일 먹지는 못하지만 평균 3일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일주일 간 평균 2-3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 활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주일 간 평균 6시간 이상 8시간미만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지표 평균은 2.99 (SD=0.62)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은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17 (SD=0.74),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70(SD=0.45),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86(SD=0.34)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상황대처 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폭력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과 절제 행동의 평균은 3.23 (SD=0.50)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노 행동이나 감정 절제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99와 같다.

표 V-99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F	B	β	t
건강 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1058	.008 / 9.235*	.314	.093	3.039*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1058	.203 / 269.093***	2.295	.452	16.404***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1052	.004 / 4.804*	.187	.068	2.192*
	스트레스 관리 행동	1059	.220 / 296.771***	.557	.469	17.227***
과제 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059	.402 / 709.726***	.691	.635	26.641***
상황 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060	.140 / 173.514***	.517	.376	13.172***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1055	.097 / 114.301***	.263	.313	10.691***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 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058	.054 / 61.720***	-.180	-.235	-7.856***
정서 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1061	.047 / 52.650***	.137	.218	7.256***

*** $p < .001$, ** $p < .01$, * $p < .05$

중학생의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해당하는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이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간 운동(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에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이 해당 행동지표인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과제관리역량이 목표 수립과 계획적 과제 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황대처역량이 행동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비 행동에 상황대처역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대처역량은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행동 대처나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대처에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역량도 그에 해당하는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00과 같다.

표 V-100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중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생활관리역량	1061	3.09	0.39	1수준	177(16.7)	2.52	0.17
				2수준	345(32.5)	2.90	0.11
				3수준	354(33.4)	3.26	0.12
				4수준	185(17.4)	3.67	0.15
건강관리	1054	3.14	0.46	1수준	170(16.1)	2.47	0.21
				2수준	377(35.8)	2.92	0.13
				3수준	319(30.3)	3.35	0.13
				4수준	188(17.8)	3.84	0.14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과제관리	1057	2.93	0.57	1수준	164(15.5)	2.03	0.34
				2수준	318(30.1)	2.68	0.14
				3수준	425(40.2)	3.14	0.18
				4수준	150(14.2)	3.88	0.15
상황대처	1060	3.16	0.54	1수준	169(15.9)	2.34	0.28
				2수준	345(32.5)	2.88	0.14
				3수준	330(31.1)	3.39	0.17
				4수준	216(20.4)	3.90	0.11
정서조절	1060	2.98	0.64	1수준	196(18.5)	2.04	0.34
				2수준	295(27.8)	2.68	0.14
				3수준	352(33.2)	3.21	0.19
				4수준	217(20.5)	3.88	0.1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원점수 3.09(SD=0.39)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77명, 16.7%) 평균은 2.52(SD=0.17), 2수준(345명, 32.5%) 평균은 2.90(SD=.11), 3수준(354명, 33.4%) 평균은 3.26(SD=0.12), 4수준(185명, 17.4%) 평균은 4.67(SD=0.15)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의 경우 원점수 3.14(SD=0.46)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70명, 16.1%) 평균은 2.47(SD=0.21), 2수준(377명, 35.8%) 평균은 2.92(SD=0.13), 3수준(319명, 30.3%) 평균은 3.35(SD=0.13), 4수준(188명, 17.8%) 평균은 3.84(SD=0.14)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과제관리도 원점수 2.93(SD=0.57)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164명, 15.5%)의 원점수 평균은 2.03(SD=0.34), 2수준(318명, 30.1%) 원점수 평균은 2.68(SD=0.14), 3수준

(425명, 40.2%) 평균은 3.14(SD=0.18), 4수준(150명, 14.2%) 평균은 3.88(SD=0.15)으로 나타났다.

상황대처의 경우도 원점수 3.16(SD=0.54)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69명, 15.9%)의 원점수 평균은 2.34(SD=0.28), 2수준(345명, 32.5%) 평균은 2.88(SD=0.14), 3수준(330명, 31.1%) 평균은 3.39(SD=0.17), 4수준(216명, 20.4%) 평균은 3.90(SD=.11)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도 원점수 2.98(SD=0.64)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96명, 18.5%)의 원점수 평균은 2.04(SD=0.34), 2수준(295명, 27.8%) 평균은 2.68(SD=0.14), 3수준(352명, 33.2%) 평균은 3.21(SD=0.19), 4수준(217명, 20.5%) 평균은 3.88(SD=0.134)로 나타났다.

(4)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중학생의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네 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분산분석(ANOVA)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운동(신체활동), 수면시간, 스트레스관리이다. 건강관리의 네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의 전체 평균은 3.67(SD=1.54)이고 1수준 평균은 3.44(SD=1.64)이고, 2수준 평균은 3.58(SD=1.52), 3수준 평균은 3.80(SD=1.52), 4수준 평균은 3.83(SD=1.50)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3.217$,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건강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하는 행동은 더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3일 정도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3-4일 정도, 3수준 청소년은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4-5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신체활동)을 최근 일주일 간 며칠 정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지표에 대해서 전체 평균은 3.66(SD=2.33)이었다. 1수준 평균은 2.19(SD=1.67), 2수준 평균은 3.11(SD=2.07), 3수준 평균은 4.10(SD=2.27), 4수준 평균은 5.36(SD=2.21)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81.306$,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동지표점수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역량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수준 구분과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에 대한 행동지표평균 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해보건대,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1-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3수준 청소년은 3-4일 정도,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4-5일 정도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관리의 네 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중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의 전체 평균은 3.73(SD=1.28)이고 1수준 평균은 3.57(SD=1.41)이고, 2수준 평균은 3.68(SD=1.19), 3수준 평균은 3.82(SD=1.23), 4수준 평균은 3.82(SD=1.3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897$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수준별 행동지표인 수면시간 점수와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인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할 때,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7시간 정도, 3,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행동지표 중 스트레스 관리는 전체 평균은 3.19(SD=0.55)로 나타났으며, 1수준 평균은 2.81(SD=0.52), 2수준 평균은 3.07(SD=0.46), 3수준 평균은 3.31(SD=0.49), 4수준 평균은 3.59(SD=0.49)로 나타났다. 수준에 따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93.37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한 결과, 네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건강관리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행동지표 점수 평균과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하건대, 1수준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부분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하고, 3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강관리역량이 높은 4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01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0	2.47	0.21	170	3.44	1.64		3.19	3.69	3.21*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2수준	377	2.92	0.13	377	3.58	1.52		3.42	3.73		일주일 중 3-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3수준	319	3.35	0.13	318	3.80	1.52		3.63	3.97		일주일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4수준	188	3.84	0.14	186	3.83	1.50		3.62	4.05		일주일 중 4-5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전체	1054	3.14	0.46	1051	3.67	1.54		3.57	3.76		

***p<.001, **p<.01, *p<.05

표 V-10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0	2.47	0.21	170	2.19	1.67		1.94	2.45	81.306*** 4>3>2>1	일주일에 1-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377	2.92	0.13	377	3.11	2.07		2.90	3.32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319	3.35	0.13	318	4.10	2.27		3.85	4.35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188	3.84	0.14	186	5.36	2.21		5.04	5.68		일주일에 4-5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전체	1054	3.14	0.46	1051	3.66	2.33		3.52	3.80		

***p<.001, **p<.01, *p<.05

표 V-103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0	2.47	0.21	169	3.57	1.41	169	3.35	3.78	1.897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377	2.92	0.13	374	3.68	1.19	374	3.56	3.81		일주일 평균 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3수준	319	3.35	0.13	316	3.82	1.23	316	3.68	3.96		일주일 평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이다
4수준	188	3.84	0.14	188	3.82	1.38	188	3.62	4.02		
전체	1054	3.14	0.46	1047	3.73	1.28	1047	3.65	3.81		

***p<.001, **p<.01, *p<.05

표 V-104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0	2.47	0.21	170	2.81	0.52	170	2.73	2.89	93.373*** 4>3>2>1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377	2.92	0.13	376	3.07	0.46	376	3.02	3.11		부분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3수준	319	3.35	0.13	318	3.31	0.49	318	3.26	3.37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4수준	188	3.84	0.14	188	3.59	0.49	188	3.52	3.66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편이다
전체	1054	3.14	0.46	1052	3.19	0.55	1052	3.16	3.23		

***p<.001, **p<.01, *p<.05

② 과제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이다. 과제 관리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의 전체 평균은 2.99(SD=0.63)이고 1수준 평균은 2.37(SD=0.60)이고, 2수준 평균은 2.81(SD=0.47), 3수준 평균은 3.16(SD=0.52), 4수준 평균은 3.60(SD=0.44)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 분석한 결과, $F=182.458$,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3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고, 4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105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4	2.03	0.34	164	2.37	0.60	2.28	2.46	182.458*** 4)3>2>1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318	2.68	0.14	317	2.81	0.47	2.76	2.86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3수준	425	3.14	0.18	424	3.16	0.52	3.11	3.21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150	3.88	0.15	150	3.60	0.44	3.53	3.67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전체	1057	2.93	0.57	1055	2.99	0.63	2.96	3.03		

***p<.001, **p<.01, *p<.05

③ 상황대처 행동지표의 특성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세 가지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상황대처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17(SD=0.74)이고, 1수준 평균은 2.68(SD=0.71), 2수준 평균은 3.04(SD=0.66), 3수준 평균은 3.37(SD=0.68), 4수준 평균은 3.44(SD=0.7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52.113$,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활용을 조절하고 중독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3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수준 청소년은 전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70(SD=0.45)이고, 1수준 평균은 3.46(SD=0.59), 2수준 평균은 3.64(SD=0.46), 3수준 평균은 3.76(SD=0.41), 4수준 평균은 3.89(SD=0.2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34.338$,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6개월에 3-4번 정도로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4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86(SD=0.34)이고, 1수준 평균은 3.74(SD=0.48), 2수준 평균은 3.83(SD=0.37), 3수준 평균은 3.90(SD=0.28), 4수준 평균은 3.95(SD=0.1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4.113$,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은 2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2수준은 1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빈번히 폭력 상황에 놓이지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06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34	0.28	169	2.68	0.71	2.57	2.79	52.113*** 4)3)2)1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2수준	345	2.88	0.14	345	3.04	0.66	2.97	3.11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330	3.39	0.17	329	3.37	0.68	3.29	3.44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216	3.90	0.11	216	3.44	0.75	3.34	3.55		전혀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전체	1060	3.16	0.54	1059	3.17	0.74	3.12	3.21		

***p<.001, **p<.01, *p<.05

표 V-107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34	0.28	166	3.46	0.59	3.37	3.55	34.338*** 4>3>2>1	6개월에 3-4번 정도로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2수준	345	2.88	0.14	343	3.64	0.46	3.59	3.69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3수준	330	3.39	0.17	329	3.76	0.41	3.71	3.80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216	3.90	0.11	216	3.89	0.24	3.85	3.92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전체	1060	3.16	0.54	1054	3.70	0.45	3.67	3.72		

***p<.001, **p<.01, *p<.05

표 V-108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34	0.28	168	3.74	0.48	3.67	3.81	14.113*** 4,3>2>1	비교적 빈번히 폭력 상황에 놓이지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345	2.88	0.14	344	3.83	0.37	3.79	3.87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330	3.39	0.17	329	3.90	0.28	3.87	3.93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216	3.90	0.11	216	3.95	0.17	3.92	3.97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전체	1060	3.16	0.54	1057	3.86	0.34	3.84	3.88		

***p<.001, **p<.01, *p<.05

④ 정서조절 행동지표의 특성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정서조절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노 등의 감정을 인식하고 절제하려는 행동의 전체 평균은 3.23(SD=0.50)이고, 1수준 평균은 2.75(SD=0.57), 2수준 평균은 3.14(SD=0.42), 3수준 평균은 3.36(SD=0.33), 4수준 평균은 3.59(SD=0.3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54.08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역량이 높을수록 분노 등의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09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96	2.04	0.34	196	2.75	0.57	2.67	2.83	154.089*** 4>3>2>1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295	2.68	0.14	295	3.14	0.42	3.09	3.19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352	3.21	0.19	352	3.36	0.33	3.32	3.39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217	3.88	0.13	217	3.59	0.39	3.53	3.64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전체	1060	2.98	0.64	1060	3.23	0.50	3.20	3.26		

***p<.001, **p<.01, *p<.05

(5)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중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110과 같다.

표 V-110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수준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 중 3~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4수준	일주일 중 4~5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건강관리 수준 평균 1수준 2.47 2수준 2.92 3수준 3.35 4수준 3.84 전체 3.14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1수준	일주일에 1~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에 4~5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1수준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 평균 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평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 평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이다
		스트레스 관리	1수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부분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3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4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하는 편이다
	과제관리 수준 평균 1수준 2.03 2수준 2.68 3수준 3.14 4수준 3.88 전체 2.93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관제 진행	1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3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상황대처 수준 평균 1수준 2.34 2수준 2.88 3수준 3.39 4수준 3.90 전체 3.16	휴대전화 (스마트폰) 중독	1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2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전혀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상황대처 수준 평균 1수준 2.34 2수준 2.88 3수준 3.39 4수준 3.90 전체 3.16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 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폭력 행동	1수준	6개월에 3-4번 정도로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2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3수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수준	비교적 빈번히 폭력 상황에 놓이지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정서조절 수준 평균 1수준 2.04 2수준 2.68 3수준 3.21 4수준 3.88 전체 2.98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6) 중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중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11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역량	유형	N	M	S.D.	F(2, 1087)	사후검증
건강관리	유형 1	153	3.54	0.38	136.787***	유형 1)2)3
	유형 2	510	3.20	0.40		
	유형 3	385	2.91	0.43		
	전체	1048	3.14	0.46		
과제관리	유형 1	153	3.74	0.24	320.820***	유형 1)2)3
	유형 2	510	2.90	0.37		
	유형 3	385	2.65	0.59		
	전체	1048	2.93	0.57		
상황대처	유형 1	153	3.52	0.39	324.218***	유형 1)2)3
	유형 2	510	3.37	0.42		
	유형 3	385	2.72	0.44		
	전체	1048	3.16	0.54		
정서조절	유형 1	153	3.45	0.46	400.626***	유형 1)2)3
	유형 2	510	3.25	0.49		
	유형 3	385	2.43	0.48		
	전체	1048	2.98	0.64		

*p<.05, **p<.01, ***p<.001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생활관리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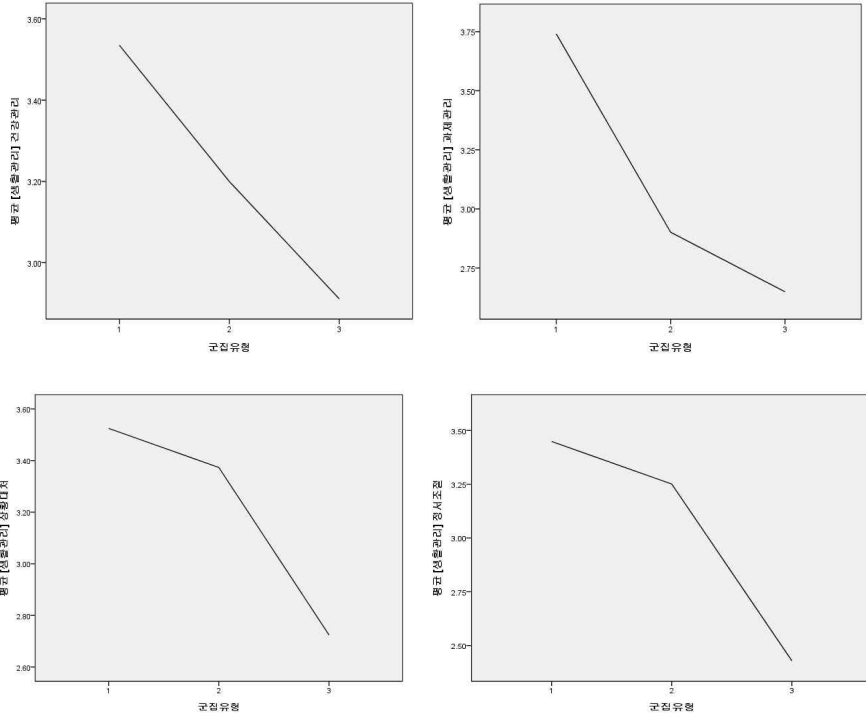


그림 V-11 중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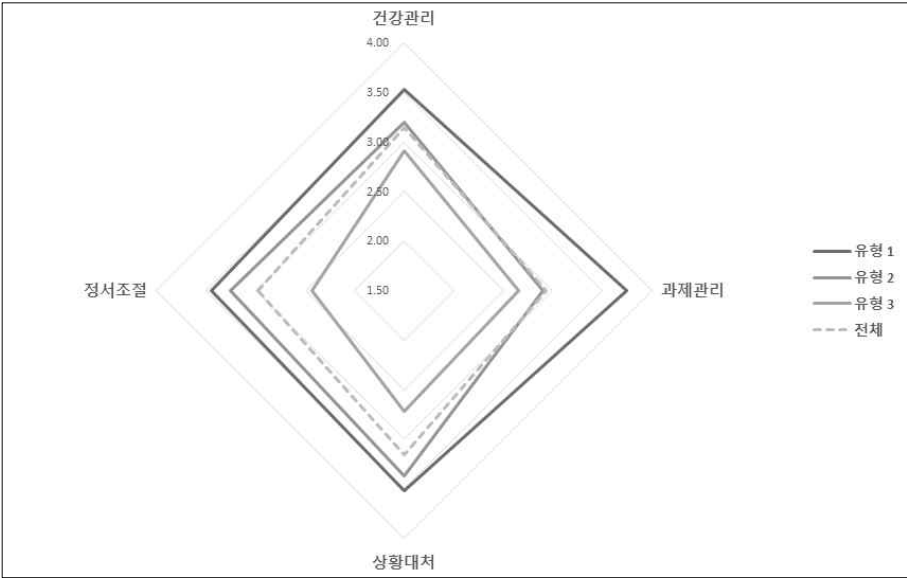


그림 V-1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중학생의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역량이 모두 높으나 특히 과제관리역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 과제수행형’으로 명명하고, 유형 2는 유형 1 다음으로 네 가지 역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 가지 역량 중 정서조절과 상황대처가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형’으로 특성을 부여 하였으며, 유형 3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역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112 중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계획적 과제 수행형 (유형 1)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3~4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3~4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폭력 행동	후대전화(스마트폰) 중독	2~3수준에 해당함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3~4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2~3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2~3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형 (유형 2)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수준에 가까움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폭력 행동	
	건강관리형 (유형 3)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있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정서조절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3수준에 가까움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2수준에 가까움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2수준에 가까움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2수준에 해당함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폭력 행동	
			정서조절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2수준에 해당함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110> 참조.

3)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따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아침식사 빈도, 운동(신체활동) 빈도,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이다. 과제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이며,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중독 행동과 폭력 행동 경험이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및 감정인식, 절제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113과 같다.

표 V-11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1413	3.43	1.59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1413	2.91	2.19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1412	2.63	1.19
	스트레스 관리 행동		1412	3.17	0.50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410	3.05	0.55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412	3.10	0.73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1413	3.84	0.33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413	3.92	0.28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1413	3.26	0.47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평균은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행동 수준 3.43 (SD=1.59),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수준 2.91 (SD=2.19),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2.63 (SD=1.19)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3.17 (SD=0.50)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청소년은 건강관리 행동 지표인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매일 먹지는 못하지만 평균 3~4일 정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일주일 간 평균 1~2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 활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주일 간 평균 6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지표 평균은 3.05 (SD=0.55)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10 (SD=0.73),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84 (SD=0.33),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92 (SD=0.28)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상황대처 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과 절제 행동의 평균은 3.26 (SD=0.47)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노 행동이나 감정 절제 행동은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14와 같다.

표 V-114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건강 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1411	.013 / 20.280***	.430	.119	4.503***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1411	.205 / 364.858***	2.264	.454	19.101***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1410	.000 / 1.659	.093	.034	1.288
	스트레스 관리 행동	1410	.235 / 433.451***	.554	.485	20.819***
과제 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407	.346 / 744.781***	.624	.589	27.291***
상황 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412	.182 / 314.274***	.576	.427	17.728***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1413	.027 / 40.221***	.101	.166	6.342***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413	.007 / 10.369**	.045	.085	3.220**
정서 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1413	.285 / 563.013***	.505	.534	23.728***

*** $p < .001$, ** $p < .01$, * $p < .05$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이 해당하는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이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행동,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이 해당 행동지표인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과제관리역량이 목표 수립과 계획적 과제 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황대처역량이 행동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비 행동에 상황대처역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대처역량은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행동 대처나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대처에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역량도 그에 해당하는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15와 같다.

표 V-115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고등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생활관리역량	1413	3.03	0.34	1수준	223(15.8)	2.53	0.14
				2수준	499(35.3)	2.86	0.09
				3수준	435(30.8)	3.17	0.10
				4수준	256(18.1)	3.54	0.14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건강관리	1411	3.07	0.44	1수준	204(14.5)	2.41	0.22
				2수준	570(40.4)	2.88	0.13
				3수준	399(28.3)	3.27	0.13
				4수준	238(16.9)	3.76	0.16
과제관리	1410	2.98	0.52	1수준	168(11.9)	2.10	0.31
				2수준	413(29.3)	2.70	0.14
				3수준	631(44.8)	3.12	0.17
				4수준	198(14.0)	3.88	0.14
상황대처	1413	3.05	0.54	1수준	234(16.6)	2.25	0.28
				2수준	492(34.8)	2.80	0.15
				3수준	454(32.1)	3.30	0.16
				4수준	233(16.5)	3.87	0.13
정서조절	1413	2.94	0.50	1수준	249(17.6)	2.23	0.25
				2수준	480(34.0)	2.73	0.12
				3수준	406(28.7)	3.14	0.13
				4수준	278(19.7)	3.67	0.19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원점수 3.03(SD=0.34)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23명, 15.8%) 평균은 2.53(SD=0.14), 2수준(499명, 35.3%) 평균은 2.86 (SD=0.09), 3수준(435명, 30.8%) 평균은 3.17 (SD=0.10), 4수준(256명, 18.1%) 평균은 3.54 (SD=0.14)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의 경우 원점수 3.07 (SD=0.44)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04명, 14.5%) 평균은 2.41(SD=0.22). 2수준(570명, 40.4%) 평균은 2.88 (SD=0.13), 3수준(399명, 28.3%) 평균은 3.27 (SD=0.13), 4수준(238명, 16.9%) 평균은 3.76 (SD=0.16)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과제관리도 원점수 2.98 (SD=0.52)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168명, 11.9%)의 원점수 평균은 2.10 (SD=0.31), 2수준(413명, 29.3%) 원점수 평균은 2.70 (SD=0.14), 3수준(631명, 44.8%) 평균은 3.12(SD=0.17), 4수준(198명, 14.0%) 평균은 3.88 (SD=0.14)로 나타났다.

상황대처의 경우도 원점수 3.05 (SD=0.54)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34명, 16.6%)의 원점수 평균은 2.25 (SD=0.28), 2수준(492명, 34.8%) 평균은 2.80 (SD=0.15), 3수준(454명, 32.1%) 평균은 3.30 (SD=0.16), 4수준(233명, 16.5%) 평균은 3.87 (SD=.13)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도 원점수 2.94 (SD=0.50)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49명, 17.6%)의 원점수 평균은 2.23 (SD=0.25), 2수준(480명, 34.0%) 평균은 2.73 (SD=0.12), 3수준(406명, 28.7%) 평균은 3.14(SD=0.13), 4수준(278명, 19.7%) 평균은 3.67 (SD=0.19)로 나타났다.

(4)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네 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분산분석(ANOVA)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운동(신체활동), 수면시간, 스트레스관리이다. 건강관리의 네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의 전체 평균은 3.43 (SD=1.59)이고 1수준

평균은 3.44(SD=1.67)이고, 2수준 평균은 3.32 (SD=1.59), 3수준 평균은 3.61 (SD=1.51), 4수준 평균은 3.64 (SD=1.5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6.44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준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건강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하는 행동은 더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3일 정도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3-4일 정도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수준 청소년은 3-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며,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신체활동)을 최근 일주일 간 며칠 정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지표에 대해서 전체 평균은 2.91 (SD=2.19)이었다. 1수준 평균은 1.59 (SD=1.19), 2수준 평균은 2.31 (SD=1.83), 3수준 평균은 3.37 (SD=2.17), 4수준 평균은 4.71 (SD=2.36)로 나타났다. 이들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 분석한 결과 $F=122.977$,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동지표점수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역량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수준 구분과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에 대한 행동지표평균 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해보건대, 1수준 청소년은 어쩌다 가끔 하루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3수준 청소년은 2~3일 정도,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관리의 네 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중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의 전체 평균은 2.63 (SD=1.19)이고 1수준 평균은 2.64 (SD=1.29)이고, 2수준 평균은 2.55 (SD=1.13), 3수준 평균은 2.66 (SD=1.16), 4수준 평균은 2.76 (SD=1.2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823$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수준별 행동지표인 수면시간 점수와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인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할 때,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3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며,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7시간 가까이 수면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행동지표 중 스트레스 관리는 전체 평균은 3.17 (SD=0.50)로 나타났으며, 1수준 평균은 2.83(SD=0.47), 2수준 평균은 3.04(SD=0.42), 3수준 평균은 3.31(SD=0.47), 4수준 평균은 3.56(SD=0.43)으로 나타났다. 수준에 따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31.336$,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한 결과, 네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건강관리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행동지표 점수 평균과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하건대, 1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부분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3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강관리역량이 높은 4수준 청소년은 능숙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6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4	2.41	0.22	204	3.14	1.67	2.91	3.37	6.442*** 4)3)2)1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2수준	570	2.88	0.13	570	3.32	1.59	3.19	3.45		일주일 중 3-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3수준	399	3.27	0.13	399	3.61	1.51	3.46	3.76		일주일 중 3-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4수준	238	3.76	0.16	238	3.64	1.57	3.44	3.84		일주일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전체	1411	3.07	0.44	1411	3.43	1.59	3.35	3.51		

***p<.001, **p<.01, *p<.05

표 V-117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4	2.41	0.22	204	1.59	1.19	1.42	1.75	122.977*** 4)3)2)1	어쩌다 가끔 하루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570	2.88	0.13	570	2.31	1.83	2.16	2.46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399	3.27	0.13	399	3.37	2.17	3.16	3.58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238	3.76	0.16	238	4.71	2.36	4.40	5.01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전체	1411	3.07	0.44	1411	2.91	2.19	2.80	3.03		

***p<.001, **p<.01, *p<.05

표 V-118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4	2.41	0.22	204	2.64	1.29	204	2.46	2.82	1.823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570	2.88	0.13	569	2.55	1.13	569	2.46	2.64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3수준	399	3.27	0.13	399	2.66	1.16	399	2.54	2.77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4수준	238	3.76	0.16	238	2.76	1.28	238	2.59	2.92		일주일 평균 7시간 가까이 수면하는 편이다
전체	1411	3.07	0.44	1410	2.63	1.19	1410	2.57	2.69		

***p<.001, **p<.01, *p<.05

표 V-119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4	2.41	0.22	204	2.83	0.47	204	2.77	2.90	131.336*** 4)3>2>1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570	2.88	0.13	570	3.04	0.42	570	3.00	3.07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399	3.27	0.13	399	3.31	0.47	399	3.26	3.36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편이다
4수준	238	3.76	0.16	237	3.56	0.43	237	3.50	3.61		스트레스 관리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는 편이다
전체	1411	3.07	0.44	1410	3.17	0.50	1410	3.15	3.20		

***p<.001, **p<.01, *p<.05

② 과제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이다. 과제관리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의 전체 평균은 3.05(SD=0.55)이고 1수준 평균은 2.54(SD=0.55)이고, 2수준 평균은 2.87(SD=0.46), 3수준 평균은 3.12(SD=0.45), 4수준 평균은 3.66 (SD=0.4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 분석한 결과, $F=210.57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매우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3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고, 4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120 고등학교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 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8	2.10	0.31	168	2.54	0.55	2.46	2.62	210.574*** 4>3>2>1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매우 미흡한 편이다
2수준	413	2.70	0.14	413	2.87	0.46	2.82	2.91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3수준	631	3.12	0.17	630	3.12	0.45	3.08	3.15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198	3.88	0.14	196	3.66	0.43	3.60	3.72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전체	1410	2.98	0.52	1407	3.05	0.55	3.02	3.08		

***p<.001, **p<.01, *p<.05

③ 상황대처 행동지표의 특성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세 가지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상황대처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10(SD=0.73)이고, 1수준 평균은 2.55(SD=0.81), 2수준 평균은 2.99(SD=0.61), 3수준 평균은 3.33(SD=0.63), 4수준 평균은 3.45(SD=0.6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97.460$,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활용을 조절하고 중독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3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수준 청소년은 전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84(SD=0.33)이고, 1수준 평균은 3.72(SD=0.48), 2수준 평균은 3.82(SD=0.32), 3수준 평균은 3.89(SD=0.25), 4수준 평균은 3.91(SD=0.2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8.343$,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으로, 4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매우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92(SD=0.28)이고, 1수준 평균은 3.86(SD=0.45), 2수준 평균은 3.90(SD=0.30), 3수준 평균은 3.96(SD=0.17), 4수준 평균은 3.96(SD=0.16)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8.265$,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4수준, 3수준, 2수준의 평균이 1수준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대체로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4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21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34	2.25	0.28	233	2.55	0.81	2.45	2.65	97.460*** 4>3>2>1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2수준	492	2.80	0.15	492	2.99	0.61	2.94	3.05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454	3.30	0.16	454	3.33	0.63	3.27	3.39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233	3.87	0.13	233	3.45	0.67	3.36	3.53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전체	1413	3.05	0.54	1412	3.10	0.73	3.07	3.14		

***p<.001, **p<.01, *p<.05

표 V-122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34	2.25	0.28	234	3.72	0.48	3.66	3.78	18.343*** 4>3>2>1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492	2.80	0.15	492	3.82	0.32	3.79	3.85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3수준	454	3.30	0.16	454	3.89	0.25	3.86	3.91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233	3.87	0.13	233	3.91	0.21	3.88	3.94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매우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전체	1413	3.05	0.54	1413	3.84	0.33	3.82	3.86		

***p<.001, **p<.01, *p<.05

표 V-123 고등학교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의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34	2.25	0.28	234	3.86	0.45	3.80	3.91	8.265*** 4,3,2>1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대체로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2수준	492	2.80	0.15	492	3.90	0.30	3.88	3.93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3수준	454	3.30	0.16	454	3.96	0.17	3.94	3.97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233	3.87	0.13	233	3.96	0.16	3.94	3.98		
전체	1413	3.05	0.54	1413	3.92	0.28	3.91	3.94		

***p<.001, **p<.01, *p<.05

④ 정서조절 행동지표의 특성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정서조절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노 등의 감정을 인식하고 절제하려는 행동의 전체 평균은 3.26(SD=0.47)이고, 1수준 평균은 2.84(SD=0.53), 2수준 평균은 3.19(SD=0.41), 3수준 평균은 3.40(SD=0.36), 4수준 평균은 3.57(SD=0.3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63.840$,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역량 이 높을수록 분노 등의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대체로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24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49	2.23	0.25	249	2.84	0.53	2.78	2.91	163.840*** 4>3>2>1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480	2.73	0.12	480	3.19	0.41	3.15	3.23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406	3.14	0.13	406	3.40	0.36	3.36	3.43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278	3.67	0.19	278	3.57	0.31	3.54	3.61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대체로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전체	1413	2.94	0.50	1413	3.26	0.47	3.24	3.29		

***p<.001, **p<.01, *p<.05

(5)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125와 같다.

표 V-125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건강관리 <table><tr><th>수준</th><th>평균</th></tr><tr><td>1수준</td><td>2.41</td></tr><tr><td>2수준</td><td>2.88</td></tr><tr><td>3수준</td><td>3.27</td></tr><tr><td>4수준</td><td>3.76</td></tr><tr><td>전체</td><td>3.07</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41	2수준	2.88	3수준	3.27	4수준	3.76	전체	3.07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수준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41													
		2수준	2.88													
		3수준	3.27													
		4수준	3.76													
		전체	3.07													
		2수준	일주일 중 3-4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중 3-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4수준	일주일 중 4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1수준	어쩌다 가끔 하루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에 2-3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에 3-4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1수준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평균 6-7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 평균 7시간 가까이 수면하는 편이다															
스트레스 관리	1수준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편이다														
	4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는 편이다														
과제관리 <table><tr><th>수준</th><th>평균</th></tr><tr><td>1수준</td><td>2.10</td></tr><tr><td>2수준</td><td>2.70</td></tr><tr><td>3수준</td><td>3.12</td></tr><tr><td>4수준</td><td>3.88</td></tr><tr><td>전체</td><td>2.98</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10	2수준	2.70	3수준	3.12	4수준	3.88	전체	2.98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관제 진행	1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매우 미흡한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10													
		2수준	2.70													
		3수준	3.12													
4수준	3.88															
전체	2.98															
2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3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상황대처 <table><tr><th>수준</th><th>평균</th></tr><tr><td>1수준</td><td>2.25</td></tr><tr><td>2수준</td><td>2.80</td></tr><tr><td>3수준</td><td>3.30</td></tr><tr><td>4수준</td><td>3.87</td></tr><tr><td>전체</td><td>3.05</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25	2수준	2.80	3수준	3.30	4수준	3.87	전체	3.05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25														
	2수준	2.80														
	3수준	3.30														
	4수준	3.87														
	전체	3.05														
			2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대체로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을 조절하는 편이다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 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1수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3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매우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대체로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2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3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정서조절 <table><tr><th>수준</th><th>평균</th></tr><tr><td>1수준</td><td>2.23</td></tr><tr><td>2수준</td><td>2.73</td></tr><tr><td>3수준</td><td>3.14</td></tr><tr><td>4수준</td><td>3.67</td></tr><tr><td>전체</td><td>2.94</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23	2수준	2.73	3수준	3.14	4수준	3.67	전체	2.94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23														
	2수준	2.73														
	3수준	3.14														
	4수준	3.67														
	전체	2.94														
		2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대체로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6)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은 네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12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역량	유형	N	M	SD	F(3, 1404)	사후검증
건강관리	유형 1	504	3.04	0.42	103.821***	유형 4)1)2)3
	유형 2	369	3.01	0.44		
	유형 3	269	2.85	0.28		
	유형 4	266	3.43	0.40		
	전체	1408	3.07	0.44		
과제관리	유형 1	504	2.77	0.40	452.782***	유형 4)2)1)3
	유형 2	369	3.05	0.37		
	유형 3	269	2.59	0.38		
	유형 4	266	3.67	0.33		
	전체	1408	2.98	0.52		
상황대처	유형 1	504	3.34	0.38	386.625***	유형 4)1)2)3
	유형 2	369	2.69	0.46		
	유형 3	269	2.61	0.27		
	유형 4	266	3.45	0.45		
	전체	1408	3.05	0.54		
정서조절	유형 1	504	3.14	0.40	407.008***	유형 4)1)3)2
	유형 2	369	2.44	0.30		
	유형 3	269	2.87	0.30		
	유형 4	266	3.35	0.43		
	전체	1408	2.95	0.50		

*p<.05, **p<.01, ***p<.001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네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모든 역량에서 모든 유형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유형별 생활관리 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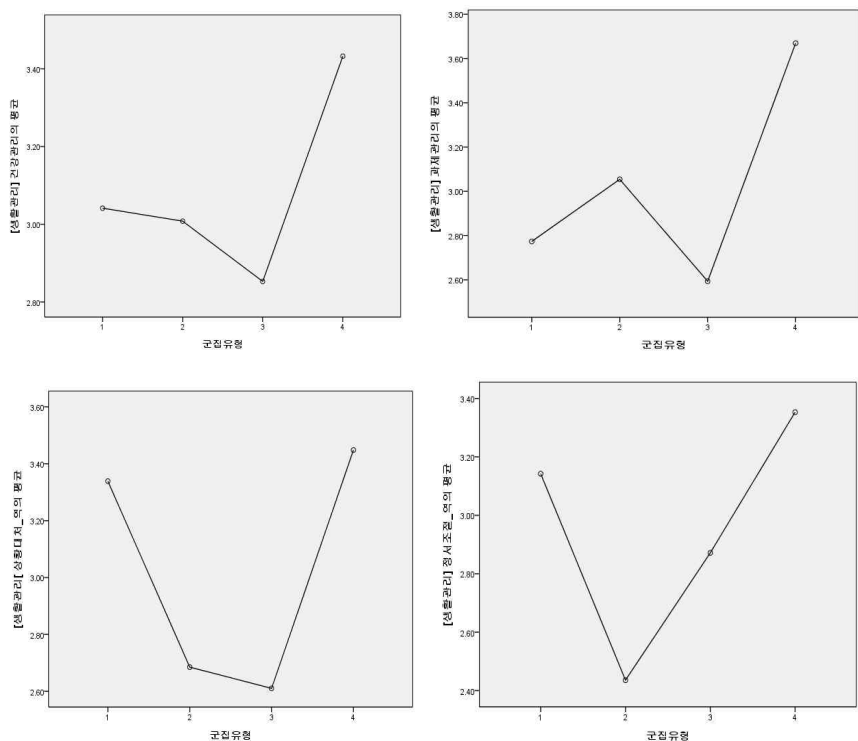


그림 V-13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은 전체 평균 보다 높지만, 건강관리와 과제관리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건강관리와 과제관리가 평균 수준이지만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4는 모든 하위역량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모든 하위역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 보다 높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높은 하위 역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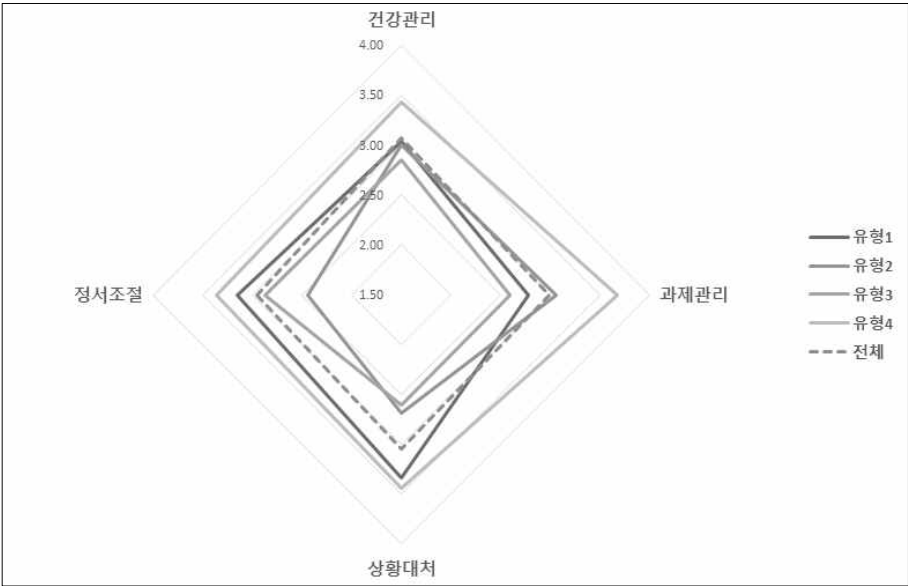


그림 V-14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건강관리는 평균 수준이고, 과제관리는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며, 정서조절과 상황대처가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대처역량이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상황대처형’으로 명명하고, 유형 2는 건강관리와 과제관리는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이 낮은 수준을 보여 건강관리와 과제관리가 어느 정도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 및 과제관리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역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나 하위역량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정서조절이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정서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4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역량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임을 반영하여 ‘생활관리 우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127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형 (유형 1)	건강관리는 평균수준 이고, 과제관리는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며, 정서조절과 상황대처가 평균 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2~3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2~3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폭력 행동	후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수준에 가까움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3수준에 해당함		
	건강 및 과제관리형 (유형 2)	건강관리와 과제관리는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이 낮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2~3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3수준에 가까움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건강 및 과제관리형 (유형 2)	건강관리와 과제관리는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이 낮은 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2수준에 해당함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형 (유형 3)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있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2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2수준에 가까움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2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2수준에 해당함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2~3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생활관리 우수형 (유형 4)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3~4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2~3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3~4수준에 해당함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125> 참조.

4)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다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아침식사 빈도, 운동(신체활동) 빈도,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이다. 과제관리역량에 따른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이며,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중독 행동과 폭력 행동 경험이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및 감정인식, 절제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128과 같다.

표 V-12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415	2.54	1.30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415	2.85	1.87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414	2.85	1.13
	스트레스 관리 행동		415	3.12	0.45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415	3.02	0.48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415	2.69	0.79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415	3.83	0.39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415	3.90	0.35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415	3.36	0.44

대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평균은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행동 수준 2.54(SD=1.30),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수준 2.85

(SD=1.87),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2.85(SD=1.13)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3.12(SD=0.45)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은 건강관리 행동지표인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가끔 먹고, 최근 일주일 간 평균 1-2일 정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주일 간 평균 6시간 이상 7시간미만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지표 평균은 3.02(SD=0.48)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은 대체적으로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2.69(SD=0.79),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83(SD=0.39),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대처 행동 3.90(SD=0.35)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상황대처 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폭력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대처 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과 절제 행동의 평균은 3.36(SD=0.44)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노 행동이나 감정을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29와 같다.

표 V-129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건강 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빈도	415	.001 / 1.238	.166	.055	1.113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빈도	415	.087 / 40.342***	1.299	.298	6.352***
	최근 일주일 간 평균 수면 시간	414	.004 / 2.559	.207	.079	1.600
	스트레스 관리 행동	415	.183 / 93.732***	.453	.430	9.682***
과제 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415	.286 / 167.114***	.594	.537	12.927***
상황 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415	.071 / 32.655***	.398	.271	5.714***
	폭력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	415	.062 / 28.178***	.187	.253	5.308***
		415	.047 / 21.616***	.145	.223	4.649***
정서 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	415	.208 / 109.665***	.437	.458	10.472***

*** $p < .001$, ** $p < .01$, * $p < .05$

대학생의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해당하는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건강관리역량이 최근 일주일간 운동(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역량이 해당 행동지표인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과제관리역량이 목표 수립과 계획적 과제 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황대처역량이 행동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비 행동에 상황대처역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대처역량은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행동 대처나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대처에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역량도 그에 해당하는 행동지표인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30과 같다.

표 V-130 2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 대학생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생활관리역량	415	3.01	0.32	1수준	62(14.9)	2.53	0.13
				2수준	143(34.5)	2.85	0.08
				3수준	143(34.5)	3.15	0.09
				4수준	67(16.1)	3.51	0.14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건강관리	415	3.09	0.43	1수준	55(13.3)	2.41	0.23
				2수준	168(40.5)	2.90	0.12
				3수준	127(30.6)	3.27	0.12
				4수준	65(15.7)	3.79	0.17
과제관리	415	3.04	0.44	1수준	43(10.4)	2.27	0.28
				2수준	214(51.6)	2.89	0.14
				3수준	88(21.2)	3.23	0.08
				4수준	70(16.9)	3.74	0.21
상황대처	415	3.02	0.53	1수준	55(13.3)	2.11	0.33
				2수준	154(37.1)	2.80	0.15
				3수준	149(35.9)	3.28	0.16
				4수준	57(13.7)	3.87	0.14
정서조절	415	2.96	0.46	1수준	56(13.5)	2.24	0.19
				2수준	144(34.7)	2.72	0.12
				3수준	136(32.8)	3.11	0.12
				4수준	79(19.0)	3.67	0.1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원점수 3.01(SD=0.32)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62명, 14.9%) 평균은 2.53 (SD=0.13), 2수준(143명, 34.5%) 평균은 2.85(SD=0.08), 3수준(143명, 34.5%) 평균은 3.15(SD=0.09), 4수준(67명, 16.1%) 평균은 3.51(SD=0.14)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의 경우 원점수 3.09(SD=0.43)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55명, 13.3%) 평균은 2.41 (SD=0.23), 2수준(168명, 40.5%) 평균은 2.90(SD=0.12), 3수준(127명, 30.6%) 평균은 3.27 (SD=0.12), 4수준(65명, 15.7%) 평균은 3.79 (SD=0.17)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과제관리도 원점수 3.04(SD=0.44)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43명, 10.4%)의 원점수 평균은 2.27(SD=0.28), 2수준(214명, 51.6%) 원점수 평균은 2.89(SD=0.14), 3수준(88명, 21.2%) 평균은 3.23(SD=0.08), 4수준(70명, 16.9%) 평균은 3.74(SD=0.21)로 나타났다.

상황대처의 경우도 원점수 3.02(SD=0.53)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55명, 13.3%)의 원점수 평균은 2.11(SD=0.33), 2수준(154명, 37.1%) 평균은 2.80(SD=0.15), 3수준(149명, 35.9%) 평균은 3.28(SD=0.16), 4수준(57명, 13.7%) 평균은 3.87(SD=0.14)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도 원점수 2.96(SD=0.46)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56명, 13.5%)의 원점수 평균은 2.24(SD=0.19), 2수준(144명, 34.7%) 평균은 2.72(SD=0.12), 3수준(136명, 32.8%) 평균은 3.11(SD=0.12), 4수준(79명, 19.0%) 평균은 3.67(SD=0.18)로 나타났다.

(4)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대학생의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네 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분산분석(ANOVA)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운동(신체활동), 수면시간, 스트레스관리이다. 건강관리의 네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의 전체 평균은 2.54 (SD=1.30)이고 1수준 평균은 2.20 (SD=1.34)이고, 2수준 평균은 2.63 (SD=1.33), 3수준 평균은

2.54(SD=1.25), 4수준 평균은 2.63(SD=1.28)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6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1-2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2-3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2-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며,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중 2-3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신체활동)을 최근 일주일 간 며칠 정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지표에 대해서 전체 평균은 2.85 (SD=1.87)이었다. 1수준 평균은 2.13 (SD=1.68), 2수준 평균은 2.52 (SD=1.61), 3수준 평균은 2.99 (SD=1.85), 4수준 평균은 4.06 (SD=2.10)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5.319$,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동지표점수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역량의 표준화 점수에 따른 수준 구분과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에 대한 행동지표평균 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해보건대,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1-2일 정도, 3수준 청소년은 2일 정도,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관리의 네 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중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의 전체 평균은 2.85 (SD=1.13)이고 1수준 평균은 2.80 (SD=1.34)이고, 2수준 평균은 2.69 (SD=0.99), 3수준 평균은 3.13 (SD=1.20), 4수준 평균은 2.75 (SD=1.0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3.98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3수준이 2수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수준별 행동지표인 수면시간 점수와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인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할 때, 1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5-6시간 정도, 3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6-7시간 이상, 4수준 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행동지표 중 스트레스 관리는 전체 평균은 3.12 (SD=0.45)로 나타났으며, 1수준 평균은 2.78(SD=0.44), 2수준 평균은 3.03 (SD=0.34), 3수준 평균은 3.21(SD=0.41), 4수준 평균은 3.47(SD=0.51)로 나타났다. 수준에 따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34.325$,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한 결과, 네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건강관리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행동지표 점수 평균과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고려하건대, 1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으로, 3수준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강관리역량이 높은 4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능숙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31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5	2.41	0.23	55	2.20	1.34	1.84	2.56			1.602	일주일 중 1~2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2수준	168	2.90	0.12	168	2.63	1.33	2.42	2.83				일주일 중 2~3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3수준	127	3.27	0.12	127	2.54	1.25	2.32	2.76				일주일 중 2~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4수준	65	3.79	0.17	65	2.63	1.28	2.31	2.95				일주일 중 2~3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전체	415	3.09	0.43	415	2.54	1.30	2.42	2.67				

***p<.001, **p<.01, *p<.05

표 V-132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5	2.41	0.23	55	2.13	1.68	1.67	2.58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168	2.90	0.12	168	2.52	1.61	2.27	2.76	15.319*** 4)3)2)1		일주일에 1~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127	3.27	0.12	127	2.99	1.85	2.67	3.32			일주일에 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65	3.79	0.17	65	4.06	2.10	3.54	4.58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전체	415	3.09	0.43	415	2.85	1.87	2.67	3.03			

***p<.001, **p<.01, *p<.05

표 V-133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5	2.41	0.23		55	2.80	1.34	2.44	3.16	3.981** 4.3>2.1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168	2.90	0.12		167	2.69	0.99	2.54	2.85		일주일 평균 5-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3수준	127	3.27	0.12		127	3.13	1.20	2.92	3.35		일주일 평균 6-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이다
4수준	65	3.79	0.17		65	2.75	1.06	2.49	3.02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전체	415	3.09	0.43		414	2.85	1.13	2.74	2.96		

***p<.001, **p<.01, *p<.05

표 V-134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행동지표 특성 : 스트레스 관리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5	2.41	0.23	55	2.78	0.44	2.66	2.89	34.325**** 4)3>2>1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168	2.90	0.12	168	3.03	0.34	2.98	3.08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3수준	127	3.27	0.12	127	3.21	0.41	3.14	3.28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이다
4수준	65	3.79	0.17	65	3.47	0.51	3.35	3.60	비교적 능숙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이다	
전체	415	3.09	0.43	415	3.12	0.45	3.08	3.16		

***p<.001, **p<.01, *p<.05

② 과제관리 행동지표의 특성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이다. 과제관리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의 전체 평균은 3.02(SD=0.48)이고 1수준 평균은 2.50(SD=0.54)이고, 2수준 평균은 2.93(SD=0.36), 3수준 평균은 3.14(SD=0.38), 4수준 평균은 3.45 (SD=0.4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 분석한 결과, $F=54.581$,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행동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며, 2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3수준 청소년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고, 4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135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행동지표 특성 :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3	2.27	0.28	43	2.50	0.54	2.33	2.66	54.581*** 4>3>2>1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2수준	214	2.89	0.14	214	2.93	0.36	2.89	2.98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편이다
3수준	88	3.23	0.08	88	3.14	0.38	3.06	3.22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70	3.74	0.21	70	3.45	0.49	3.33	3.56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전체	415	3.04	0.44	415	3.02	0.48	2.97	3.07		

***p<.001, **p<.01, *p<.05

③ 상황대처 행동지표의 특성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세 가지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상황대처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2.69(SD=0.79)이고, 1수준 평균은 2.15(SD=0.57), 2수준 평균은 2.73(SD=0.64), 3수준 평균은 2.76(SD=0.84), 4수준 평균은 2.90(SD=0.97)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11.458$,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활용을 조절하고 중독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수준 청소년은 다소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며, 3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수준 청소년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83(SD=0.39)이고, 1수준 평균은 3.71(SD=0.58), 2수준 평균은 3.77(SD=0.44), 3수준 평균은 3.88(SD=0.30), 4수준 평균은 4.00(SD=0.03)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7.699$,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6개월에 2-3번 정도로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어느 정도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의 경우 전체 평균은 3.90(SD=0.35)이고, 1수준 평균은 3.80(SD=0.53), 2수준 평균은 3.86(SD=0.39), 3수준 평균은 3.93(SD=0.26), 4수준 평균은 4.00(SD=0.00)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4.32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4수준은 1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상황대처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어느 정도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36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5	2.11	0.33	55	2.15	0.57	1.99	2.30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 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2수준	154	2.80	0.15	154	2.73	0.64	2.63	2.84	11.458*** 4,3,2>1	다소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3수준	149	3.28	0.16	149	2.76	0.84	2.62	2.89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57	3.87	0.14	57	2.90	0.97	2.64	3.16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전체	415	3.02	0.53	415	2.69	0.79	2.61	2.76		

***p<.001, **p<.01, *p<.05

표 V-137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5	2.11	0.33	55	3.71	0.58	3.55	3.86		6개월에 2-3번 정도로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2수준	154	2.80	0.15	154	3.77	0.44	3.70	3.84	7.699*** 4,3>2>1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어느 정도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3수준	149	3.28	0.16	149	3.88	0.30	3.83	3.93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57	3.87	0.14	57	4.00	0.03	3.99	4.00		
전체	415	3.02	0.53	415	3.83	0.39	3.79	3.87		

***p<.001, **p<.01, *p<.05

표 V-138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행동지표 특성 :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서의 폭력 행동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5	2.11	0.33	55	3.80	0.53		3.65	3.94	4.321** 4)1	기금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2수준	154	2.80	0.15	154	3.86	0.39		3.80	3.92		비교적 기금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149	3.28	0.16	149	3.93	0.26		3.89	3.98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어느 정도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57	3.87	0.14	57	4.00	0.00		4.00	4.00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전체	415	3.02	0.53	415	3.90	0.35		3.86	3.93		

***p<.001, **p<.01, *p<.05

④ 정서조절 행동지표의 특성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는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지표로 구성되었다. 정서조절역량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표별로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노 등의 감정을 인식하고 절제하려는 행동의 전체 평균은 3.36(SD=0.44) 이고, 1수준 평균은 2.91(SD=0.48), 2수준 평균은 3.29(SD=0.42), 3수준 평균은 3.48(SD=0.36), 4수준 평균은 3.62(SD=0.2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F=41.97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분석 결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동지표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역량 이 높을수록 분노 등의 감정인식 및 절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을 고려한 결과 1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편으로, 2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으로, 4수준 청소년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39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행동지표 특성 :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Z점수 수준	역량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6	2.24	0.19	56	2.91	0.48		2.78	3.04	41.972*** 4,3>2>1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편이다
2수준	144	2.72	0.12	144	3.29	0.42		3.22	3.36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136	3.11	0.12	136	3.48	0.36		3.42	3.54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79	3.67	0.18	79	3.62	0.27		3.55	3.68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전체	415	2.96	0.46	415	3.36	0.44		3.32	3.41		

***p<.001, **p<.01, *p<.05

(5)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대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140과 같다.

표 V-140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건강관리 <table><tr><td>수준</td><td>평균</td></tr><tr><td>1수준</td><td>2.41</td></tr><tr><td>2수준</td><td>2.90</td></tr><tr><td>3수준</td><td>3.27</td></tr><tr><td>4수준</td><td>3.79</td></tr><tr><td>전체</td><td>3.09</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41	2수준	2.90	3수준	3.27	4수준	3.79	전체	3.09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수준	일주일 중 1~2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수준	평균													
		1수준	2.41													
		2수준	2.90													
		3수준	3.27													
		4수준	3.79													
		전체	3.09													
		2수준	일주일 중 2~3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3수준	일주일 중 2~3일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4수준	일주일 중 2~3일 이상 가능한 아침식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1수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에 1~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에 2일 정도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신체활동)을 하는 편이다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1수준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2수준	일주일 평균 5~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3수준	일주일 평균 6~7시간 이상 수면하는 편이다															
4수준	일주일 평균 6시간 정도 수면하는 편이다															
스트레스 관리	1수준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3수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이다														
	4수준	비교적 능숙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편이다														
과제관리 <table><tr><td>수준</td><td>평균</td></tr><tr><td>1수준</td><td>2.27</td></tr><tr><td>2수준</td><td>2.89</td></tr><tr><td>3수준</td><td>3.23</td></tr><tr><td>4수준</td><td>3.74</td></tr><tr><td>전체</td><td>3.04</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27	2수준	2.89	3수준	3.23	4수준	3.74	전체	3.04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관제 진행	1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미흡한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27													
		2수준	2.89													
		3수준	3.23													
		4수준	3.74													
전체	3.04															
2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편이다															
3수준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는 편이다															
4수준	비교적 능숙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과제를 진행한다															

역량	행동지표		수준	행동지표 특성												
상황대처 <table><tr><th>수준</th><th>평균</th></tr><tr><td>1수준</td><td>2.11</td></tr><tr><td>2수준</td><td>2.80</td></tr><tr><td>3수준</td><td>3.28</td></tr><tr><td>4수준</td><td>3.87</td></tr><tr><td>전체</td><td>3.02</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11	2수준	2.80	3수준	3.28	4수준	3.87	전체	3.02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11														
	2수준	2.80														
	3수준	3.28														
	4수준	3.87														
	전체	3.02														
			2수준	다소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다.												
			3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수준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폭력 행동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 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1수준	6개월에 2-3번 정도로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2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보이는 편이다												
			3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어느 정도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1수준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는 편이다												
			2수준	비교적 가끔 폭력 상황에 놓이고,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어느 정도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4수준			드물게 폭력 상황에 놓이고, 비교적 능숙하게 폭력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다													
정서조절 <table><tr><th>수준</th><th>평균</th></tr><tr><td>1수준</td><td>2.24</td></tr><tr><td>2수준</td><td>2.72</td></tr><tr><td>3수준</td><td>3.11</td></tr><tr><td>4수준</td><td>3.67</td></tr><tr><td>전체</td><td>2.96</td></tr></table>	수준	평균	1수준	2.24	2수준	2.72	3수준	3.11	4수준	3.67	전체	2.96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1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편이다
	수준	평균														
	1수준	2.24														
	2수준	2.72														
	3수준	3.11														
	4수준	3.67														
	전체	2.96														
			2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조절하는 편이다													
		4수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능숙하게 인식하며, 조절하는 편이다													

(6) 대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대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생활관리역량은 네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14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역량	유형	N	M	SD	F(3, 1404)	사후검증
건강관리	유형 1	160	2.79	0.32	76.142***	유형 2>3>4>1
	유형 2	76	3.46	0.37		
	유형 3	57	3.31	0.36		
	유형 4	122	3.14	0.35		
	전체	415	3.09	0.43		
과제관리	유형 1	160	2.76	0.33	139.107***	유형 2>3>4>1
	유형 2	76	3.59	0.32		
	유형 3	57	3.29	0.32		
	유형 4	122	2.95	0.26		
	전체	415	3.04	0.44		
상황대처	유형 1	160	2.83	0.31	160.430***	유형 2>3>1>3
	유형 2	76	3.40	0.34		
	유형 3	57	2.28	0.47		
	유형 4	122	3.39	0.39		
	전체	415	3.02	0.53		
정서조절	유형 1	160	2.71	0.35	55.737***	유형 4>2>3>1
	유형 2	76	3.14	0.52		
	유형 3	57	2.80	0.44		
	유형 4	122	3.27	0.32		
	전체	415	2.96	0.46		

*p<.05, **p<.01, ***p<.001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네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모든 역량에서 모든 유형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유형별 생활관리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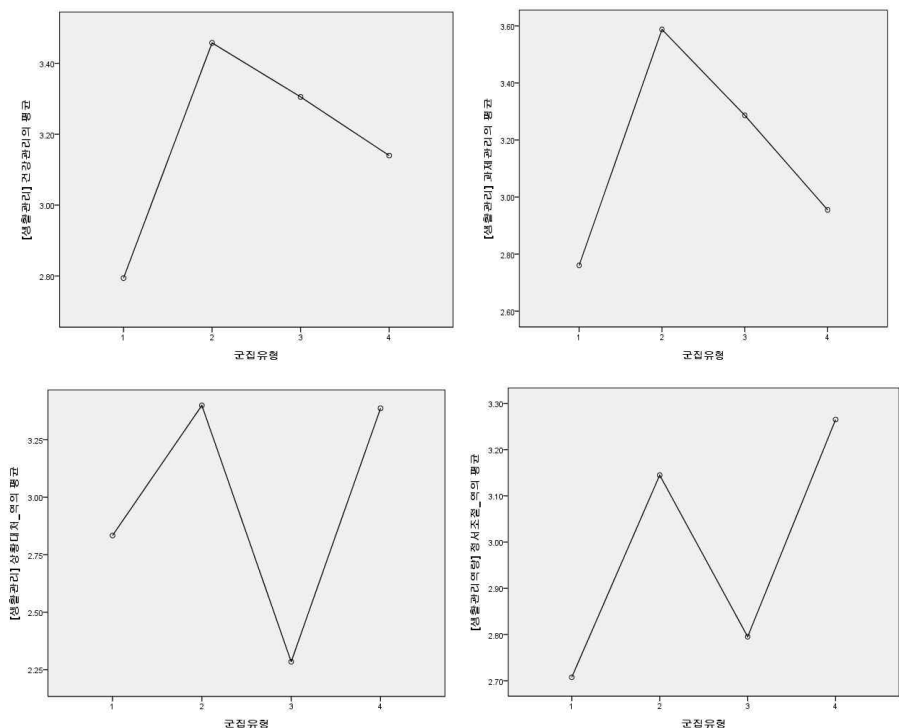


그림 V-15 대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네 가지 역량 모두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대체로 네 가지 역량 모두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특히

건강관리와 과제관리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도 건강관리와 과제관리가 평균 보다 높지만 상황대처역량이 가장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유형 4는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이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모든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평균 보다 높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높은 하위 역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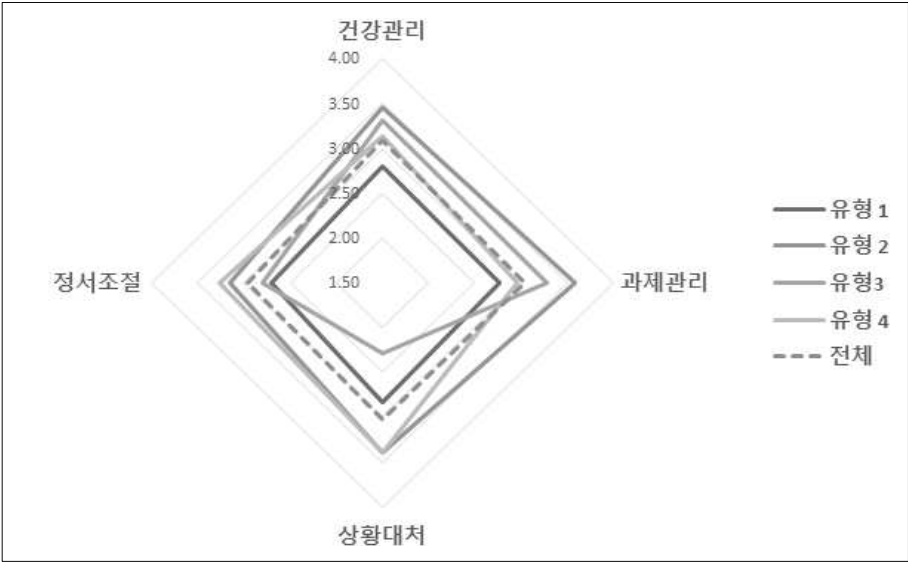


그림 V-16 대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대학생의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특성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네 가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중 상황대처역량이 가장 높고, 상황대처역량은 유형3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상황대처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하위 역량 모두 평균 보다 높은 편이며, 정서조절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건강관리와 과제관리, 상황대처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네 가지 역량 모두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건강관리와 과제관리는 평균 보다 높지만, 정서조절과 상황대처는 현저하게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건강관리와 과제관리가 어느 정도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 및 과제관리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다. 유형 4는 하위역량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정서조절과 상황대처는 우수하고, 건강관리와 과제관리는 평균 정도의 수준이었다. 정서조절역량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정서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142 대학생 생활관리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형 (유형 1)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은 가장 낮은 수준에, 상황대처는 낮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1~2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1~2수준에 해당함
	자기관리형 (유형 2)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평균 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2수준에 가까움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건강관리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2수준에 가까움
	과제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3~4수준에 해당함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3~4수준에 해당함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3~4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자기관리형 (유형 2)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평균 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3~4수준에 해당함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폭력 행동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건강 및 과제관리형 (유형 3)	건강관리와 과제관리는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은 낮은 수준에 해당함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3수준에 가까움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3수준에 가까움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3수준에 가까움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1~2수준에 해당함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분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폭력 행동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2~3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생활관리역량	정서조절형 (유형 4)	건강관리와 과제관리는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에 있어 높은 수준에 해당함	건강관리	최근 일주일 간 아침식사	3수준에 가까움
				최근 일주일 간 운동(신체활동)	
				최근 일주일 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2~3수준에 해당함
			상황대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	
				분노, 불안, 좌절 등의 기본상태이거나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정서조절	자신의 기분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	3~4수준에 해당함			
정서조절	분노, 감정인식 및 절제		3~4수준에 해당함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140> 참조.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설계에 대한 행동지표는 다섯 가지 유형의 진로활동경험에 대한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이고 여가활용의 행동지표는 여가활동경험의 유형과 횟수,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유무와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정도이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는 차별화행동과 도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V-143과 같다.

표 V-14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진로설계	진로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390	1.50	1.64
			참여시간	383	2.11	3.34
		진로상담	참여횟수	130	2.46	4.21
			참여시간	129	2.15	4.02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538	2.18	3.02
			참여시간	529	5.63	12.53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252	1.99	2.61
			참여시간	248	4.89	6.39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횟수	214	5.74	17.11
			참여시간	214	8.58	31.32
		진로정확성			1082	3.20
여가활용	여가 경험	활동개수	975	2.96	2.76	
		활동횟수	975	5.08	5.52	
	여가활동 동료		1093	2.79	1.06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092	3.26	1.02	
개척정신	차별화행동			1090	2.62	0.87
	도전활동			1092	3.14	0.91

* 이 절은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초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평균은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5회(SD=1.64),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2.11시간(SD=3.34), 진로상담 참여횟수 2.46회(SD=4.21), 진로상담 참여시간 2.15시간(SD=4.02),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2.18회(SD=3.02), 진로체험교육 참여시간 5.63시간(SD=12.53), 직업 관련 견학 참여횟수 1.99회(SD=2.61),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4.89회(SD=6.39),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5.74회(SD=17.11),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시간은 8.58시간(SD=3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정확성의 평균은 3.20(SD=0.97)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 시간도 가장 길었다. 반면, 진로적성검사 및 직업관련 견학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의 행동지표 평균은 여가경험 활동유형 개수 2.96개(SD=2.76), 여가 경험 활동횟수 5.08회(SD=5.52), 여가활동동료 2.79(SD=1.06),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는 3.26(SD=1.02)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 평균은 차별화행동이 2.62(SD=0.87)이고 도전활동이 3.14(SD=0.91)로 나타났다.

(2)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44와 같다.

표 V-144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진로 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 횟수	390	.000(-.002) / .117	-.058	-.018	-.343
			참여 시간	383	.000(-.003) / .032	.062	.009	.179
		진로상담	참여 횟수	130	.032(.024) / 4.183*	-1.387	-.179	-2.045*
			참여 시간	129	.021(.013) / 2.732	-1.159	-.146	-1.653
		직업체험교육	참여 횟수	538	.005(.003) / 2.628	.429	.071	1.621
			참여 시간	529	.002(.000) / 1.225	1.270	.049	1.107
		직업관련견학	참여 횟수	252	.003(-.001) / .736	.295	.054	.858
			참여 시간	248	.018(.014) / 4.361*	1.783	.133	2.088*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 횟수	214	.005(.000) / .972	2.623	.068	.986
			참여 시간	214	.011(.006) / 2.280	7.363	.104	1.510
	진로정확성			1082	.098(.097) / 114.963***	.595	.313	10.722**
여가 활용	여가 경험	활동개수	975	.009(.008) / 8.957**	.583	.097	2.993**	
		활동횟수	975	.001(.000) / 1.066	.409	.033	1.032	
	여가활동 동료			1093	.090(.089) / 105.437***	.644	.300	10.268**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092	.125(.124) / 151.550***	.726	.353	12.311**
개척 정신	차별화행동			1090	.056(.055) / 64.429***	.417	.237	8.027**
	도전활동			1092	.141(.140) / 178.128***	.692	.376	13.346**

***p<.001, **p<.01, *p<.05

초등학생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진로설계능력이 진로상담 참여횟수($\beta=-.179$, $t=-2.045$, $p<.05$), 직업관련 견학시간($\beta=.133$, $t=2.088$, $p<.05$), 진로정확성($\beta=.313$, $t=10.722$, $p<.01$)에 대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행동지표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역량이 여가경험 활동유형 개수($\beta=.097$, $t=2.993$, $p<.01$), 여가활동 동료($\beta=.300$, $t=10.368$, $p<.01$),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beta=.353$, $t=12.311$,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용역량이 여가경험 활동횟수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척정신역량이 차별화행동($\beta=.237$, $t=8.027$, $p<.01$)과 도전활동($\beta=.376$, $t=13.346$, $p<.01$)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1이상~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45와 같다.

표 V-145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진로설계	1076	3.02	0.51	1수준	160(14.9)	2.21	0.27
				2수준	370(34.4)	2.79	0.14
				3수준	348(32.3)	3.26	0.14
				4수준	198(18.4)	3.73	0.16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여가활용	1068	3.21	.49	1수준	169(15.8)	2.41	0.33
				2수준	353(33.1)	2.99	0.14
				3수준	343(32.1)	3.46	0.13
				4수준	203(19.0)	3.84	0.10
개척정신	1088	2.89	.50	1수준	168(15.4)	2.11	0.28
				2수준	407(37.4)	2.68	0.14
				3수준	360(33.1)	3.15	0.14
				4수준	153(14.1)	3.66	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원점수 3.02(SD=.51)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60명, 14.9%) 평균은 2.21(SD=.27), 2수준(370명, 34.4%) 평균은 2.79(SD=.14), 3수준(348명, 32.3%) 평균은 3.26(SD=.14), 4수준(198명, 18.4%) 평균은 3.73(SD=.1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원점수 3.21(SD=.49)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69명, 15.8%) 평균은 2.41(SD=.33), 2수준(353명, 33.1%) 평균은 2.99(SD=.14), 3수준(343명, 32.1%) 평균은 3.46(SD=.13), 4수준(203명, 19.0%) 평균은 3.84(SD=.10)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원점수 2.89(SD=.50)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68명, 15.4%) 평균은 2.11(SD=.28), 2수준(407명, 37.4%) 평균은 2.68(SD=.14), 3수준(360명, 33.1%) 평균은 3.15(SD=.14), 4수준(153명, 14.1%) 평균은 3.66(SD=.17)으로 나타났다.

(4)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특성

진로설계 행동지표는 진로활동경험과 진로정확성으로 구분된다. 진로활동경험은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교육, 직업관련견학,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의 다섯가지에 대해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진로활동경험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50회(SD=1.65)이고 1수준 평균은 1.65(SD=1.00), 2수준 평균은 1.35(SD=.71), 3수준 평균은 1.60(SD=2.60), 4수준 평균은 1.49(SD=.8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은 유사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5에서 상한값 2.0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2.13시간(SD=3.36)이고 1수준 평균은 2.50(SD=4.50), 2수준 평균은 1.86(SD=2.01), 3수준 평균은 2.23(SD=4.25), 4수준 평균은 2.16(SD=2.50)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8에서 상한값 3.82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2.33회(SD=3.93)이고 1수준 평균은 3.67(SD=7.38), 2수준 평균은 2.93(SD=4.83), 3수준 평균은 1.74(SD=1.57), 4수준 평균은 1.55(SD=1.1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은 유사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42에서 상한값 7.7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2회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2.16시간(SD=4.04)이고 1수준 평균은 4.37(SD=9.94), 2수준 평균은 1.78(SD=1.77), 3수준 평균은 2.13(SD=3.34), 4수준 평균은 1.67(SD=1.2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은 진로상담에 유사한 시간 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4에서 상한값 9.8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9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2.14회(SD=2.95)이고 1수준 평균은 2.04(SD=1.75), 2수준 평균은 2.01(SD=1.84), 3수준 평균은 1.84(SD=1.28), 4수준 평균은 2.85(SD=5.4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05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 보다 4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능력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는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57에서 상한값 3.8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1에서 3수준의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직업 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이고 4수준의 행동지표는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2-3회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5.62시간($SD=12.63$)이고 1수준 평균은 5.08($SD=5.09$), 2수준 평균은 5.68($SD=12.49$), 3수준 평균은 4.77($SD=4.89$), 4수준 평균은 7.08($SD=20.8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3.25에서 상한값 10.91사이로 분포하고 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3시간에서 10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2.00회($SD=2.63$)이고 1수준 평균은 1.63($SD=1.07$), 2수준 평균은 1.92($SD=2.53$), 3수준 평균은 1.96($SD=3.31$), 4수준 평균은 2.22($SD=2.1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직업관련 견학 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2에서 상한값 2.71사이로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4.87시간($SD=6.38$)이고 1수준 평균은 4.61($SD=4.31$), 2수준 평균은 4.01($SD=4.89$), 3수준 평균은 4.28($SD=4.50$), 4수준 평균은 6.43($SD=9.1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2.47에서 상한값 8.56사이로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전체평균 5.83회(SD=17.30)이고 1수준 평균은 2.00(SD=1.61), 2수준 평균은 3.89(SD=5.86), 3수준 평균은 7.51(SD=25.39), 4수준 평균은 6.45(SD=14.30)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92에서 상한값 13.4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0회 이내정도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전체평균 8.75시간(SD=47.96)이고 1수준 평균은 5.76(SD=14.69), 2수준 평균은 3.69(SD=6.07), 3수준 평균은 9.83(SD=29.27), 4수준 평균은 13.10(SD=47.9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4.10에서 상한값 25.38사이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진로설계수준과는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25시간 이내로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진로정확성의 전체 평균은 3.20(SD=.97)이고 1수준 평균은 2.59(SD=1.18)이고, 2수준 평균은 3.14(SD=.97), 3수준 평균은 3.33(SD=.84), 4수준 평균은 3.59(SD=.6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7.6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과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었다. 즉, 진로설계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확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40에서 상한값 3.6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진로정확성 문항에 있어 2번, 3번, 그리고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진로정확성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진로정확성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찾고 있는 중이다.’, 2-3수준은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4수준은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개수는 전체평균 2.96개(SD=2.77)이고 1수준 평균은 2.88(SD=5.18), 2수준 평균은 2.59(SD=2.03), 3수준 평균은 2.94(SD=2.06), 4수준 평균은 3.62(SD=2.5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62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2수준보다 4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여가활동 개수는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여가활동 개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95에서 상한값 3.9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1-2수준의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1-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이고 3-4수준은 ‘초등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동 횟수는 전체평균 5.09회(SD=5.56)이고 1수준 평균은 5.23(SD=8.10), 2수준 평균은 4.73(SD=5.28), 3수준 평균은 5.19(SD=4.54), 4수준 평균은 5.42(SD=5.6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가활용수준에 상관없이 여가활동 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3.76에서 상한값 6.7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초등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4회에서 7회 정도 참여한다’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의 전체 평균은 2.79(SD=1.06)이고 1수준 평균은 2.26(SD=1.05)이고, 2수준 평균은 2.64(SD=1.02), 3수준 평균은 2.97(SD=1.01), 4수준 평균은 3.17(SD=.9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1.04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과 4수준이 제일 높고,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여가활용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10에서 상한값 3.3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대부분 응답하였고 일부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명 있다.', 2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2-3명 있다.', 3-4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의 전체 평균은 3.27(SD=1.02)이고 1수준 평균은 2.55(SD=1.20)이고, 2수준 평균은 3.18(SD=1.04), 3수준 평균은 3.50(SD=.85), 4수준 평균은 3.61(SD=.7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8.15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과 4수준이 제일 높고,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여가활용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37에서 상한값 3.7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2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4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차별화행동의 전체 평균은 2.62(SD=.87)이고 1수준 평균은 2.25(SD=.82)이고, 2수준 평균은 2.55(SD=.87), 3수준 평균은 2.75(SD=.86), 4수준 평균은 2.90(SD=.8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9.12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과 4수준이 제일 높고,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화행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13에서 상한값 3.03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행동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과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별화행동은 2~3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4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도전활동의 전체 평균은 3.13(SD=.92)이고 1수준 평균은 2.59(SD=.94)이고, 2수준 평균은 2.96(SD=.92), 3수준 평균은 3.39(SD=.81), 4수준 평균은 3.59(SD=.6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3.60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과 4수준이 제일 높고,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활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45에서 상한값 3.7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도전활동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도전활동은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도해 보고자 한다.', 3-4수준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표 V-146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48	1.65	1.00		1.36	1.94	.637	진로적성검사는 1회 또는 2회 참여한다.
2수준	370	2.79	0.14	124	1.35	0.71		1.22	1.47		
3수준	348	3.26	0.14	131	1.60	2.60		1.15	2.05		
4수준	198	3.73	0.16	81	1.49	0.82		1.31	1.68		
전체	1076	3.02	0.51	384	1.50	1.65		1.34	1.67		

***p<.001, **p<.01, *p<.05

표 V-147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47	2.50	4.50		1.18	3.82	.494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70	2.79	0.14	121	1.86	2.01		1.49	2.22		
3수준	348	3.26	0.14	129	2.23	4.25		1.48	2.97		
4수준	198	3.73	0.16	80	2.16	2.50		1.60	2.72		
전체	1076	3.02	0.51	377	2.13	3.36		1.79	2.47		

***p<.001, **p<.01, *p<.05

표 V-148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15	3.67	7.38	15	-0.42	7.76	1.647	진로상담에 평균 2회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70	2.79	0.14	44	2.93	4.83	44	1.46	4.40		
3수준	348	3.26	0.14	39	1.74	1.57	39	1.24	2.25		
4수준	198	3.73	0.16	31	1.55	1.12	31	1.14	1.96		
전체	1076	3.02	0.51	129	2.33	3.93	129	1.64	3.01		

***p<.001, **p<.01, *p<.05

표 V-149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15	4.37	9.94	15	-1.14	9.88	1.818	진로상담에 평균 9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70	2.79	0.14	43	1.78	1.77	43	1.23	2.32		
3수준	348	3.26	0.14	39	2.13	3.34	39	1.04	3.21		
4수준	198	3.73	0.16	31	1.67	1.20	31	1.23	2.11		
전체	1076	3.02	0.51	128	2.16	4.04	128	1.46	2.87		

***p<.001, **p<.01, *p<.05

표 V-150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56	2.04	1.75	1.75	1.57	2.50	3.055* 4)3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70	2.79	0.14	174	2.01	1.84	1.84	1.74	2.29		
3수준	348	3.26	0.14	178	1.84	1.28	1.28	1.65	2.03		
4수준	198	3.73	0.16	116	2.85	5.46	5.46	1.85	3.86		
전체	1076	3.02	0.51	524	2.14	2.95	2.95	1.89	2.39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2-3회 참여하고 있다

***p<.001, **p<.01, *p<.05

표 V-151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55	5.08	5.09	5.09	3.70	6.45	.819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3시간에서 10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70	2.79	0.14	169	5.68	12.49	12.49	3.78	7.58		
3수준	348	3.26	0.14	175	4.77	4.89	4.89	4.04	5.50		
4수준	198	3.73	0.16	116	7.08	20.81	20.81	3.25	10.91		
전체	1076	3.02	0.51	515	5.62	12.63	12.63	4.53	6.71		

***p<.001, **p<.01, *p<.05

표 V-152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19	1.63	1.07	1.12	2.15	.318	초등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70	2.79	0.14	74	1.92	2.53	1.33	2.51		
3수준	348	3.26	0.14	82	1.96	3.31	1.24	2.69		
4수준	198	3.73	0.16	74	2.22	2.11	1.73	2.71		
전체	1076	3.02	0.51	249	2.00	2.63	1.67	2.33		

***p<.001, **p<.01, *p<.05

표 V-153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18	4.61	4.31	2.47	6.76	2.158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70	2.79	0.14	73	4.01	4.89	2.87	5.16		
3수준	348	3.26	0.14	81	4.28	4.50	3.29	5.28		
4수준	198	3.73	0.16	73	6.43	9.14	4.30	8.56		
전체	1076	3.02	0.51	245	4.87	6.38	4.06	5.67		

***p<.001, **p<.01, *p<.05

표 V-154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11	2.00	1.61	0.92	3.08	.697	초등학생들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0회 이내정도 만난다
2수준	370	2.79	0.14	62	3.89	5.86	2.40	5.38		
3수준	348	3.26	0.14	74	7.51	25.39	1.63	13.40		
4수준	198	3.73	0.16	62	6.45	14.30	2.82	10.08		
전체	1076	3.02	0.51	209	5.83	17.30	3.47	8.19		

***p<.001, **p<.01, *p<.05

표 V-155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11	5.76	14.69	-4.10	15.63	.971	초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25시간 이내로 만난다
2수준	370	2.79	0.14	62	3.69	6.07	2.15	5.23		
3수준	348	3.26	0.14	75	9.83	29.27	3.09	16.56		
4수준	198	3.73	0.16	61	13.10	47.96	0.81	25.38		
전체	1076	3.02	0.51	209	8.75	31.68	4.43	13.07		

***p<.001, **p<.01, *p<.05

표 V-156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정확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0	2.21	0.27	158	2.59	1.18	2.40	2.77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찾고 있는 중이다
2수준	370	2.79	0.14	366	3.14	0.97	3.04	3.24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수준	348	3.26	0.14	343	3.33	0.84	3.24	3.42	37.600** 4>3.2>1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하고 싶은 일을 선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수준	198	3.73	0.16	197	3.59	0.68	3.49	3.68			
전체	1076	3.02	0.51	1064	3.20	0.97	3.14	3.26			

***p<.001, **p<.01, *p<.05

표 V-157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41	0.33	121	2.88	5.18	1.95	3.82			여가활동에 평균 1-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53	2.99	0.14	310	2.59	2.03	2.37	2.82	5.628** 4>2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3수준	343	3.46	0.13	324	2.94	2.06	2.71	3.16			
4수준	203	3.84	0.10	197	3.62	2.57	3.26	3.98			
전체	1068	3.21	.49	952	2.96	2.77	2.78	3.14			

***p<.001, **p<.01, *p<.05

표 V-158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41	0.33	119	5.23	8.10	3.76	6.70	.730	초등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4회에서 7회 정도 참여한다
2수준	353	2.99	0.14	311	4.73	5.28	4.14	5.31		
3수준	343	3.46	0.13	325	5.19	4.54	4.69	5.68		
4수준	203	3.84	0.10	197	5.42	5.65	4.62	6.21		
전체	1068	3.21	.49	952	5.09	5.56	4.74	5.44		

***p<.001, **p<.01, *p<.05

표 V-159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41	0.33	169	2.26	1.05	2.10	2.42	31.044** 3.4>2>1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명 있다
2수준	353	2.99	0.14	352	2.64	1.02	2.53	2.74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2-3명 있다
3수준	343	3.46	0.13	343	2.97	1.01	2.86	3.08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
4수준	203	3.84	0.10	203	3.17	0.99	3.04	3.31		
전체	1068	3.21	.49	1067	2.79	1.06	2.72	2.85		

***p<.001, **p<.01, *p<.05

표 V-160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41	0.33	169	2.55	1.20	2.37	2.73	48.150** 3.4>2>1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좋아하지시는 않는다
2수준	353	2.99	0.14	352	3.18	1.04	3.07	3.29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나 도와 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343	3.46	0.13	342	3.50	0.85	3.41	3.59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4수준	203	3.84	0.10	203	3.61	0.73	3.51	3.71		
전체	1068	3.21	.49	1066	3.27	1.02	3.20	3.33		

***p<.001, **p<.01, *p<.05

표 V-161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8	2.11	0.28	165	2.25	0.82	2.13	2.38	19.125** 3.4>2>1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	407	2.68	0.14	406	2.55	0.87	2.46	2.63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수준	360	3.15	0.14	360	2.75	0.86	2.66	2.84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4수준	153	3.66	0.17	153	2.90	0.83	2.76	3.03		
전체	1088	2.89	.50	1084	2.62	0.87	2.57	2.67		

***p<.001, **p<.01, *p<.05

표 V-162 초등학교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8	2.11	0.28	167	2.59	0.94	2.45	2.74	53.601** 3.4>2>1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 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	407	2.68	0.14	406	2.96	0.92	2.87	3.05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 이 하는 것을 보고 시도해 보고자 한다
3수준	360	3.15	0.14	360	3.39	0.81	3.30	3.47		
4수준	153	3.66	0.17	153	3.59	0.65	3.49	3.70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
전체	1088	2.89	.50	1086	3.13	0.92	3.08	3.19		

***p<.001, **p<.01, *p<.05

(5)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초등학교의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163 초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개발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평균 2.21 2.79 3.26 3.73 3.02	진로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수준	1.65	진로적성검사는 1회 또는 2회 참여한다.
			2수준	1.35	
			3수준	1.60	
			4수준	1.49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1수준	2.50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86	
			3수준	2.23	
			4수준	2.16	
		진로상담 참여횟수	1수준	3.67	진로상담에 평균 2회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93	
			3수준	1.74	
			4수준	1.55	
		진로상담 참여시간	1수준	4.37	진로상담에 평균 9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8	
			3수준	2.13	
			4수준	1.67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 활동 경험	직업체험교육 참여 횟수	1수준	2.04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01	
		3수준	1.84	
		4수준	2.85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1수준	5.08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2-3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68	
		3수준	4.77	
		4수준	7.08	
	직업관련견학 참여 횟수	1수준	1.63	초등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92	
		3수준	1.96	
		4수준	2.22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1수준	4.61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4.01	
		3수준	4.28	
		4수준	6.43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1수준	2.00	초등학생들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0회 이내정도 만난다
		2수준	3.89	
		3수준	7.51	
		4수준	6.45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개발	진로 활동 경험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1수준	5.76	초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25시간 이내로 만난다
			2수준	3.69	
			3수준	9.83	
			4수준	13.10	
	진로정확성		1수준	2.59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찾고 있는 중이다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수준	3.14	
			3수준	3.33	
			4수준	3.59	
			1수준	2.88	
			2수준	2.59	
여기활동	여가 경험	활동개수	3수준	2.94	여기활동에 평균 1-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4수준	3.62	
			1수준	5.23	
			2수준	4.73	
	활동횟수		3수준	5.19	초등학생들은 여기활동에 평균 4회에서 7회 정도 참여한다
			4수준	5.42	
			1수준	2.26	
			2수준	2.64	
			3수준	2.97	
			4수준	3.17	
여기활동		여기활동 동료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명 있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2-3명 있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개척정신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	2.55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2수준	3.18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3.50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4수준	3.61	
	차별화행동	1수준	2.25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	2.55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수준	2.75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4수준	2.90	
	도전활동	1수준	2.59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	2.96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도해 보고자 한다
3수준		3.39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	
4수준		3.59		

(6)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개발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16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진로 설계	유형 1	427	3.42	0.33	588.768**	유형 1)2)3
	유형 2	395	2.91	0.35		
	유형 3	222	2.56	0.37		
	전체	1044	3.02	0.51		
여가 활용	유형 1	427	3.60	0.25	776.350**	유형 1)2)3
	유형 2	395	3.12	0.30		
	유형 3	222	2.60	0.42		
	전체	1044	3.21	0.49		
개척 정신	유형 1	427	3.29	0.32	847.088**	유형 1)2)3
	유형 2	395	2.76	0.28		
	유형 3	222	2.28	0.34		
	전체	1044	2.88	0.50		

*p<.05, **p<.01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유형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세가지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별 진로개발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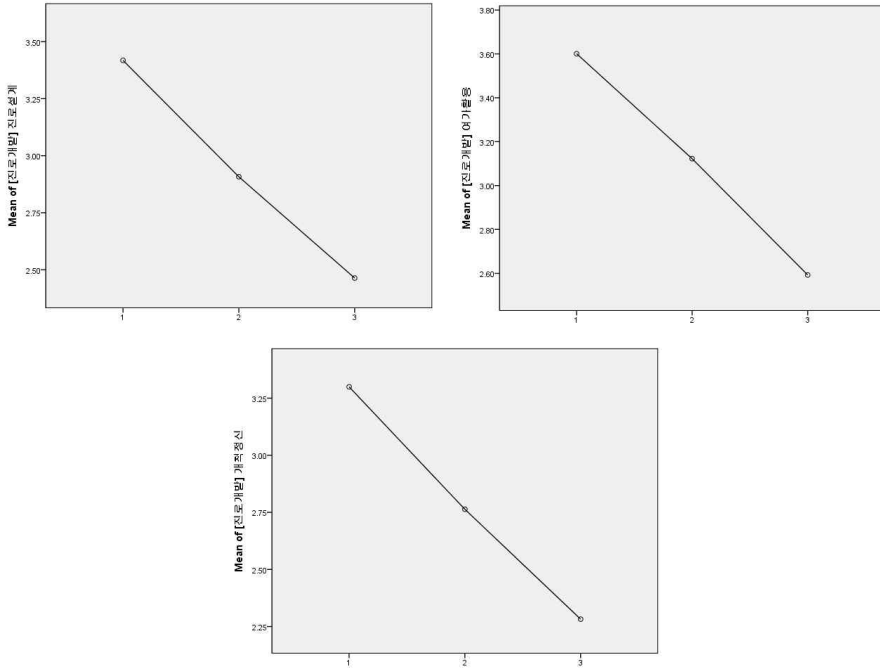


그림 V-17 초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개발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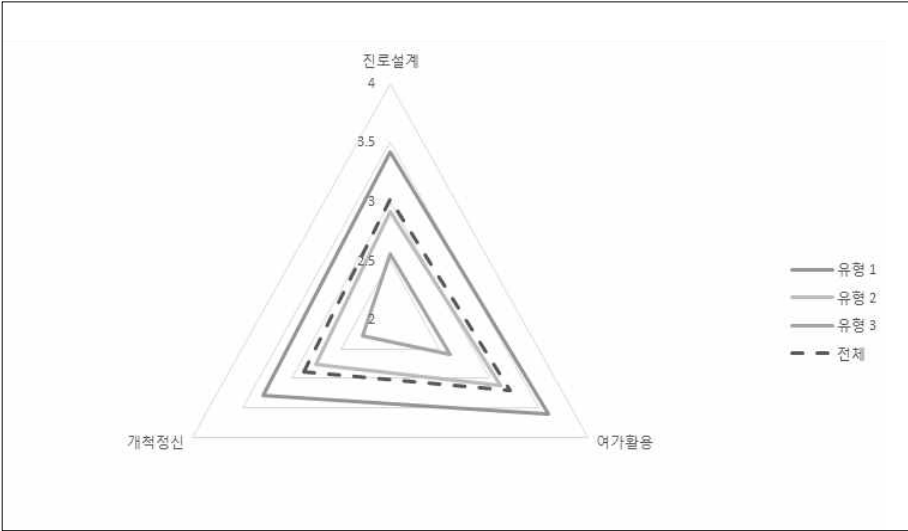


그림 V-18 초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진로설계, 여가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개척정신이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 진로개척형’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유형 2는 진로설계에서 진로정확성과 여가활용 및 개척정신이 중간수준인 특성을 반영하여 ‘능동적 진로탐색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서 대체로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동적 진로탐색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165 초등학교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 개발 역량	주도적 진로개발형 (유형 1)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4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 활용 경험	진로정확성	3-4수준에 해당함
				활동개수	3-4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용 동료	3-4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3-4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차별화행동	3-4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3-4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진로 개발 역량	능동적 진로탐색형 (유형 2)	진로설계, 여가활동, 개척정신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1~3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진로정확성		2수준에 해당함
				여가 경험	활동개수	1-2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2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2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활동		2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2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 개발 역량	수동적 진로탐색형 (유형 3)	진로설계, 여가활동, 개척정신에 있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1~3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 경험	진로정확성	1수준에 해당함
					활동개수	1-2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여가활동 동료	1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에 해당함
						1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차별화활동
도전활동	1수준에 해당함					

2)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설계에 대한 행동지표는 다섯 가지 유형의 진로활동경험에 대한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이고 여가활용의 행동지표는 여가활동경험의 유형과 횟수,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유무와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정도이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는 차별화 행동과 도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V-166과 같다.

표 V-16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진로설계	진로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637	1.69	1.34
			참여시간	614	2.16	2.49
		진로상담	참여횟수	225	1.72	1.80
			참여시간	217	2.17	3.86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473	1.58	1.10
			참여시간	463	3.92	3.84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192	1.54	1.11
			참여시간	186	4.59	5.64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횟수	182	2.52	4.92
			참여시간	175	5.04	11.57
진로정확성				1016	2.86	1.06
여가활용	여가경험	활동개수		894	2.84	2.84
		활동횟수		889	4.88	4.77
	여가활동 동료			1016	2.95	1.03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016	3.02	1.13
개척정신	차별화행동			1016	2.75	0.69
	도전활동			1017	2.87	0.92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평균은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69회(SD=1.34),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2.16시간(SD=2.49), 진로상담 참여횟수 1.72회(SD=1.80), 진로상담 참여시간 2.17시간(SD=3.86),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1.58회(SD=1.10), 진로체험교육 참여시간 3.92시간(SD=3.84),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1.54회(SD=1.11),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4.59회(SD=5.64),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2.52회(SD=4.92),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시간은 5.04시간(SD=1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정확성의 평균은 2.86(SD=1.06)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시간도 가장 길었다. 반면, 직업관련 견학 및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의 행동지표 평균은 여가경험 활동유형 개수 2.84개(SD=2.84), 여가경험 활동횟수 4.88회(SD=4.77), 여가활동동료 2.95(SD=1.03),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는 3.02(SD=1.03)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 평균은 차별화행동이 2.75(SD=0.69)이고 도전활동이 2.87(SD=0.92)로 나타났다.

(2)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67과 같다.

표 V-167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진로 설계	진로적성 검사	참여 횟수	637	.006(.004) / 3.540	.200	.075	1.882
		참여 시간	614	.001(-.001) / .620	.160	.032	.787
	진로상담	참여 횟수	225	.001(-.004) / .202	-.111	-.030	-.450
		참여 시간	217	.000(-.005) / .003	-.027	-.003	-.050
	직업체험 교육	참여 횟수	473	.003(.001) / 1.546	.129	.058	1.243
		참여 시간	463	.001(-.001) / .498	.267	.033	.706
	직업관련 견학	참여 횟수	192	.016(.011) / 3.023	.278	.126	1.739
		참여 시간	186	.008(.003) / 1.512	1.030	.091	1.230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 횟수	182	.000(-.006) / .015	-.098	-.009	-.121
		참여 시간	175	.000(-.006) / .007	-.162	-.006	-.083
	진로정확성		1016	.164(.163) / 196.696**	.852	.405	14.025**
여가 활용	여가 경험	활동개수	894	.012(.011) / 10.668**	.659	.109	3.266**
		활동횟수	889	.002(.000) / 1.406	.400	.040	1.186
	여가활동 동료		1016	.068(.067) / 73.113**	.542	.260	8.551**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016	.098(.097) / 109.206**	.712	.313	10.450**
개척 정신	차별화행동		1016	.052(.051)/ 54.634**	.307	.227	7.391**
	도전활동		1017	.128(.128) / 148.324**	.646	.358	12.179**

***p<.001, **p<.01, *p<.05

중학생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진로설계능력이 진로활동 경험 행동지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정확성($\beta=.405$, $t=14.025$, $p<.01$)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역량이 여가 경험 활동유형 개수($\beta=.109$, $t=3.266$, $p<.01$), 여가활동 동료($\beta=.260$, $t=8.551$, $p<.01$),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beta=.313$, $t=10.450$,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용역량이 여가 경험 활동횟수에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척정신역량이 차별화행동($\beta=.227$, $t=7.391$, $p<.01$)과 도전활동($\beta=.358$, $t=12.179$, $p<.01$)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1이상~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68과 같다.

표 V-168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진로설계	1008	2.97	0.50	1수준	148(14.7)	2.19	0.28
				2수준	361(35.8)	2.74	0.13
				3수준	326(32.3)	3.18	0.15
				4수준	173(17.2)	3.74	0.18
여가활용	1009	3.16	0.50	1수준	130(12.9)	2.36	0.30
				2수준	413(40.9)	2.92	0.13
				3수준	259(25.7)	3.40	0.14
				4수준	207(20.5)	3.85	0.11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개척정신	1008	2.72	0.51	1수준	172(17.1)	1.98	0.23
				2수준	366(36.3)	2.51	0.13
				3수준	328(32.5)	2.97	0.12
				4수준	142(14.1)	3.58	0.24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원점수 2.97(SD=.50)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48명, 14.7%) 평균은 2.19(SD=.28), 2수준(361명, 35.8%) 평균은 2.74(SD=.13), 3수준(326명, 32.3%) 평균은 3.18(SD=.15), 4수준(173명, 17.2%) 평균은 3.74(SD=.18)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원점수 3.16(SD=.50)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30명, 12.9%) 평균은 2.36(SD=.30), 2수준(413명, 40.9%) 평균은 2.92(SD=.13), 3수준(259명, 25.7%) 평균은 3.40(SD=.14), 4수준(207명, 20.5%) 평균은 3.85(SD=.11)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원점수 2.72(SD=.51)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72명, 17.1%) 평균은 1.98(SD=.23), 2수준(366명, 36.3%) 평균은 2.51(SD=.13), 3수준(328명, 32.5%) 평균은 2.97(SD=.12), 4수준(142명, 14.1%) 평균은 3.58(SD=.24)로 나타났다.

(4)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특성

진로설계 행동지표는 진로활동경험과 진로정확성으로 구분된다. 진로활동경험은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교육, 직업관련견학,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의 다섯 가지에 대해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진로활동경험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69회($SD=1.34$)이고 1수준 평균은 1.55($SD=.77$), 2수준 평균은 1.63($SD=1.51$), 3수준 평균은 1.71($SD=1.29$), 4수준 평균은 1.85($SD=1.3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유사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38에서 상한값 2.09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2.16시간($SD=2.50$)이고 1수준 평균은 1.98($SD=2.83$), 2수준 평균은 2.17($SD=2.66$), 3수준 평균은 2.14($SD=2.28$), 4수준 평균은 2.28($SD=2.3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32에서 상한값 2.7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72회($SD=1.80$)이고 1수준 평균은 2.04($SD=2.23$), 2수준 평균은 1.82($SD=2.45$), 3수준 평균은 1.56($SD=1.35$), 4수준 평균은 1.70($SD=1.14$)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유사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08에서 상한값 3.0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2.18시간($SD=3.87$)이고 1수준 평균은 2.42($SD=3.65$), 2수준 평균은 2.45($SD=5.27$), 3수준 평균은 1.80($SD=2.75$), 4수준 평균은 2.30($SD=3.3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진로상담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80에서 상한값 4.04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1시간에서 4시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57회($SD=1.07$)이고 1수준 평균은 1.45($SD=0.84$), 2수준 평균은 1.52($SD=0.98$), 3수준 평균은 1.63($SD=1.13$), 4수준 평균은 1.62($SD=1.2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비슷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23에서 상한값 1.8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3.92시간($SD=3.86$)이고 1수준 평균은 3.58($SD=4.00$), 2수준 평균은 3.85($SD=3.16$), 3수준 평균은 4.08($SD=4.16$), 4수준 평균은 3.98($SD=4.3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2.52에서 상한값

4.91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55회(SD=1.11)이고 1수준 평균은 1.20(SD=.41), 2수준 평균은 1.46(SD=1.01), 3수준 평균은 1.59(SD=1.12), 4수준 평균은 1.73(SD=1.3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직업관련 견학 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01에서 상한값 2.1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 ~ 2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4.60시간(SD=5.66)이고 1수준 평균은 2.83(SD=2.23), 2수준 평균은 4.59(SD=4.06), 3수준 평균은 4.46(SD=5.58), 4수준 평균은 5.59(SD=8.0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72에서 상한값 8.07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전체평균 2.53회(SD=4.96)이고 1수준 평균은 1.33(SD=.71), 2수준 평균은 2.20(SD=2.94), 3수준 평균은 3.21(SD=7.43), 4수준 평균은 2.19(SD=2.2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79에서 상한값 5.0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5회 이내정도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전체평균 5.07시간($SD=11.63$)이고 1수준 평균은 2.00($SD=1.07$), 2수준 평균은 5.38($SD=11.90$), 3수준 평균은 5.02($SD=12.94$), 4수준 평균은 5.33($SD=10.6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들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1에서 상한값 8.80사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1시간에서 9시간정도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진로정확성의 전체 평균은 2.86 ($SD=1.06$)이고 1수준 평균은 2.15($SD=1.12$)이고, 2수준 평균은 2.69($SD=1.01$), 3수준 평균은 3.06($SD=.99$), 4수준 평균은 3.44($SD=.7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53.43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었다. 즉, 진로설계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확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1.97에서 상한값 3.5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진로정확성 문항에 있어 2번, 3번, 그리고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진로정확성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진로정확성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찾고 있는 중이다.’, 2수준은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탐색 중이다.’, 3수준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4수준은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개수는 전체평균 2.85개($SD=2.85$)이고 1수준 평균은 2.33($SD=3.08$), 2수준 평균은 2.55($SD=2.52$), 3수준 평균은 3.28($SD=3.46$), 4수준 평균은 3.13($SD=2.3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82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1과 2수준보다 3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여가활동 개수는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여가활동 개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70에서 상한값 3.7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1-2수준의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1-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이고 3-4수준은 ‘중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동 횟수는 전체평균 4.85회($SD=4.70$)이고 1수준 평균은 4.55($SD=4.51$), 2수준 평균은 4.77($SD=5.21$), 3수준 평균은 5.07($SD=5.14$), 4수준 평균은 4.88($SD=2.9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가활용수준에 상관없이 여가활동 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3.63에서 상한값 5.73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중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4회에서 6회 정도 참여한다’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의 전체 평균은 2.95($SD=1.03$)이고 1수준 평균은 2.42($SD=1.03$)이고, 2수준 평균은 2.88($SD=1.01$), 3수준 평균은 3.01($SD=1.01$), 4수준 평균은 3.36($SD=.9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5.05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과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여가활용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24에서 상한값 3.49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대부분 응답하였고 일부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3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4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의 전체 평균은 3.02(SD=1.13)이고 1수준 평균은 2.29(SD=1.23)이고, 2수준 평균은 2.90(SD=1.14), 3수준 평균은 3.31(SD=.98), 4수준 평균은 3.36(SD=.93)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5.22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과 4수준이 제일 높고,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여가활용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07에서 상한값 3.4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2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4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차별화행동의 전체 평균은 2.75 (SD=.69)이고 1수준 평균은 2.53(SD=.64)이고, 2수준 평균은 2.67(SD=.62), 3수준 평균은 2.83(SD=.71), 4수준 평균은 3.04(SD=.7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8.05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그리고 1-2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화행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43에서 상한값 3.17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행동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과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별화행동은 2~3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2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3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4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도전활동의 전체 평균은 2.87 (SD=.92)이고 1수준 평균은 2.31(SD=.92)이고, 2수준 평균은 2.75(SD=.87), 3수준 평균은 3.08(SD=.84), 4수준 평균은 3.37(SD=.8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8.5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 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활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18에서 상한값 3.5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도전활동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도전활동은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수준은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으로 시도해 본다.’, 4수준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표 V-169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78	1.55	0.77		1.38	1.72	.669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223	1.63	1.51		1.43	1.83		
3수준	326	3.18	0.15	205	1.71	1.29		1.53	1.89		
4수준	173	3.74	0.18	125	1.85	1.38		1.60	2.09		
전체	1008	2.97	0.50	631	1.69	1.34		1.59	1.80		

***p<.001, **p<.01, *p<.05

표 V-170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75	1.98	2.83		1.32	2.63	.237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215	2.17	2.66		1.81	2.53		
3수준	326	3.18	0.15	201	2.14	2.28		1.82	2.46		
4수준	173	3.74	0.18	117	2.28	2.35		1.85	2.71		
전체	1008	2.97	0.50	608	2.16	2.50		1.96	2.36		

***p<.001, **p<.01, *p<.05

표 V-171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23	2.04	2.23	23	1.08	3.01	.520	진로상담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67	1.82	2.45	67	1.22	2.42		
3수준	326	3.18	0.15	80	1.56	1.35	80	1.26	1.86		
4수준	173	3.74	0.18	54	1.70	1.14	54	1.39	2.02		
전체	1008	2.97	0.50	224	1.72	1.80	224	1.49	1.96		

***p<.001, **p<.01, *p<.05

표 V-172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22	2.42	3.65	22	0.80	4.04	.388	진로상담에 평균 1시간에서 4시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65	2.45	5.27	65	1.14	3.75		
3수준	326	3.18	0.15	77	1.80	2.75	77	1.18	2.43		
4수준	173	3.74	0.18	52	2.30	3.35	52	1.37	3.23		
전체	1008	2.97	0.50	216	2.18	3.87	216	1.66	2.70		

***p<.001, **p<.01, *p<.05

표 V-173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58	1.45	0.84	1.23	1.67	.577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161	1.52	0.98	1.37	1.67		
3수준	326	3.18	0.15	158	1.63	1.13	1.45	1.80		
4수준	173	3.74	0.18	90	1.62	1.24	1.36	1.88		
전체	1008	2.97	0.50	467	1.57	1.07	1.47	1.66		

***p<.001, **p<.01, *p<.05

표 V-174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57	3.58	4.00	2.52	4.64	.256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158	3.85	3.16	3.36	4.35		
3수준	326	3.18	0.15	155	4.08	4.16	3.42	4.74		
4수준	173	3.74	0.18	88	3.98	4.38	3.06	4.91		
전체	1008	2.97	0.50	458	3.92	3.86	3.57	4.27		

***p<.001, **p<.01, *p<.05

표 V-17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20	1.20	0.41	1.01	1.39	1.223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2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56	1.46	1.01	1.19	1.73		
3수준	326	3.18	0.15	69	1.59	1.12	1.33	1.86		
4수준	173	3.74	0.18	45	1.73	1.39	1.32	2.15		
전체	1008	2.97	0.50	190	1.55	1.11	1.39	1.71		

***p<.001, **p<.01, *p<.05

표 V-176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18	2.83	2.23	1.72	3.94	1.040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61	2.74	0.13	55	4.59	4.06	3.49	5.69		
3수준	326	3.18	0.15	68	4.46	5.58	3.11	5.81		
4수준	173	3.74	0.18	43	5.59	8.04	3.12	8.07		
전체	1008	2.97	0.50	184	4.60	5.66	3.78	5.43		

***p<.001, **p<.01, *p<.05

표 V-177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9	1.33	0.71	9	0.79	1.88	.747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5회 이내정도 만난다
2수준	361	2.74	0.13	51	2.20	2.94	51	1.37	3.02		
3수준	326	3.18	0.15	67	3.21	7.43	67	1.40	5.02		
4수준	173	3.74	0.18	52	2.19	2.21	52	1.58	2.81		
전체	1008	2.97	0.50	179	2.53	4.96	179	1.80	3.26		

***p<.001, **p<.01, *p<.05

표 V-178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8	2.00	1.07	8	1.11	2.89	.203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1시간에서 9시간정도 만난다
2수준	361	2.74	0.13	49	5.38	11.90	49	1.96	8.80		
3수준	326	3.18	0.15	66	5.02	12.94	66	1.84	8.20		
4수준	173	3.74	0.18	50	5.33	10.60	50	2.32	8.34		
전체	1008	2.97	0.50	173	5.07	11.63	173	3.33	6.82		

***p<.001, **p<.01, *p<.05

표 V-179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정확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8	2.19	0.28	147	2.15	1.12	1.97	2.33		53.437** 4)3)2)1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찾고 있는 중이다
2수준	361	2.74	0.13	361	2.69	1.01	2.58	2.79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탐색 중이다
3수준	326	3.18	0.15	326	3.06	0.99	2.95	3.17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 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4수준	173	3.74	0.18	173	3.44	0.78	3.32	3.56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체	1008	2.97	0.50	1007	2.86	1.06	2.79	2.92			

***p<.001, **p<.01, *p<.05

표 V-180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30	2.36	0.30	94	2.33	3.09	1.70	2.96		4.820** 3)1,2	여가활동에 평균 1-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413	2.92	0.13	361	2.55	2.52	2.29	2.81			
3수준	259	3.40	0.14	238	3.28	3.46	2.84	3.72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4수준	207	3.85	0.11	195	3.13	2.34	2.80	3.46			
전체	1009	3.16	0.50	888	2.85	2.85	2.66	3.04			

***p<.001, **p<.01, *p<.05

표 V-181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30	2.36	0.30	93	4.55	4.51		3.63	5.48	.330	여가활동에 평균 4회에서 6회 정도 참여한다
2수준	413	2.92	0.13	359	4.77	5.21		4.23	5.31		
3수준	259	3.40	0.14	236	5.07	5.14		4.41	5.73		
4수준	207	3.85	0.11	195	4.88	2.95		4.46	5.29		
전체	1009	3.16	0.50	883	4.85	4.70		4.54	5.16		

***p<.001, **p<.01, *p<.05

표 V-182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30	2.36	0.30	130	2.42	1.03		2.24	2.59	25.052** 4>3.2>1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수준	413	2.92	0.13	413	2.88	1.01		2.79	2.98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3수준	259	3.40	0.14	259	3.01	1.01		2.89	3.13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
4수준	207	3.85	0.11	206	3.36	0.92		3.23	3.49		
전체	1009	3.16	0.50	1008	2.95	1.03		2.89	3.02		

***p<.001, **p<.01, *p<.05

표 V-183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30	2.36	0.30	129	2.29	1.23	2.07	2.50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좋아하지시는 않는다
2수준	413	2.92	0.13	413	2.90	1.14	2.79	3.01	35.226** 3,4>2>1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나 도와 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259	3.40	0.14	259	3.31	0.98	3.19	3.43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4수준	207	3.85	0.11	207	3.36	0.93	3.23	3.48		
전체	1009	3.16	0.50	1008	3.02	1.13	2.95	3.09		

***p<.001, **p<.01, *p<.05

표 V-184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2	1.98	0.23	172	2.53	0.64	2.43	2.63	18.055** 4>3>2,1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	366	2.51	0.13	366	2.67	0.62	2.61	2.74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수준	328	2.97	0.12	327	2.83	0.71	2.75	2.91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4수준	142	3.58	0.24	142	3.04	0.76	2.92	3.17		
전체	1008	2.72	0.51	1007	2.75	0.69	2.71	2.80		

***p<.001, **p<.01, *p<.05

표 V-18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Z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2	1.98	0.23	172	2.31	0.92		2.18	2.45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	366	2.51	0.13	366	2.75	0.87		2.66	2.84	48.563** 4)3)2>1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수준	328	2.97	0.12	328	3.08	0.84		2.99	3.17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으로 시도해 본다
4수준	142	3.58	0.24	142	3.37	0.84		3.23	3.51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
전체	1008	2.72	0.51	1008	2.87	0.92		2.81	2.93		

***p<.001, **p<.01, *p<.05

(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186과 같다.

표 V-186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개발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진체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수준	1.55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63		
		3수준	1.71		
		4수준	1.85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1수준	1.98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17		
		3수준	2.14		
		4수준	2.28		
	진로상담 참여횟수	1수준	2.04	진로상담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82		
		3수준	1.56		
		4수준	1.70		
	진로상담 참여시간	1수준	2.42	진로상담에 평균 1시간에서 4시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45		
		3수준	1.80		
		4수준	2.30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 활동 경험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1수준	1.45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52	
		3수준	1.63	
		4수준	1.62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1수준	3.58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3.85	
		3수준	4.08	
		4수준	3.98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1수준	1.20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 ~ 2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46	
		3수준	1.59	
		4수준	1.73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1수준	2.83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4.59	
		3수준	4.46	
		4수준	5.59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1수준	1.33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5회 이내정도 만난다
		2수준	2.20	
		3수준	3.21	
		4수준	2.19	
진로개발	수준	평균		
	1수준	2.19		
	2수준	2.74		
	3수준	3.18		
	4수준	3.74		
	전체	2.97		

행동지표						
역량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 활동 경험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2.00 5.38 5.02 5.33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1시간에서 9시간정도 만난다	
진로개발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정확성	1수준	2.15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찾고 있는 중이다	
			2수준	2.69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탐색 중이다	
			3수준	3.06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4수준	3.44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수준	2.33	여기활동에 평균 1-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55		
여가활동	여가 경험	활동개수	3수준	3.28	여기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4수준	3.13		
			1수준	4.55		
			2수준	4.77		
		활동횟수	3수준	5.07	여기활동에 평균 4회에서 6회 정도 참여한다	
			4수준	4.88		
여가활동 동료	여가활동 동료	1수준	2.42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수준	2.88			
		3수준	3.01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4수준	3.36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		
		평균	2.36			
		전체	3.16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여기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	2.29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2수준	2.90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3.31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4수준	3.36	
개척정신 수준 평균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차별화행동	1수준	2.53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	2.67	
		3수준	2.83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4수준	3.04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도전활동	1수준	2.31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	2.75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수준	3.08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으로 시도해 본다
		4수준	3.37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

(6)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개발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18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진로 설계	유형 1	499	2.69	0.40	467.290**	유형 1<2<3
	유형 2	215	2.95	0.33		
	유형 3	278	3.52	0.30		
	전체	992	2.98	0.51		
여가 활용	유형 1	499	2.85	0.40	542.893**	유형 1<2<3
	유형 2	215	3.20	0.33		
	유형 3	278	3.69	0.23		
	전체	992	3.16	0.50		
개척 정신	유형 1	499	2.37	0.36	421.725**	유형 1<2,3
	유형 2	215	3.03	0.35		
	유형 3	278	3.10	0.43		
	전체	992	2.72	0.51		

*p<.05, **p<.01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유형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세가지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별 진로개발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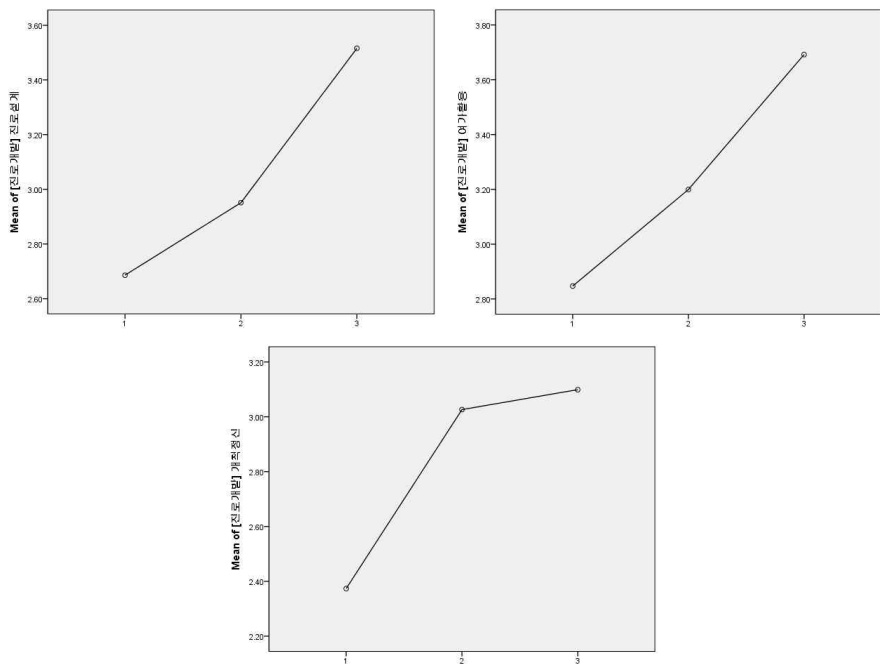


그림 V-19 중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개발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하-중-상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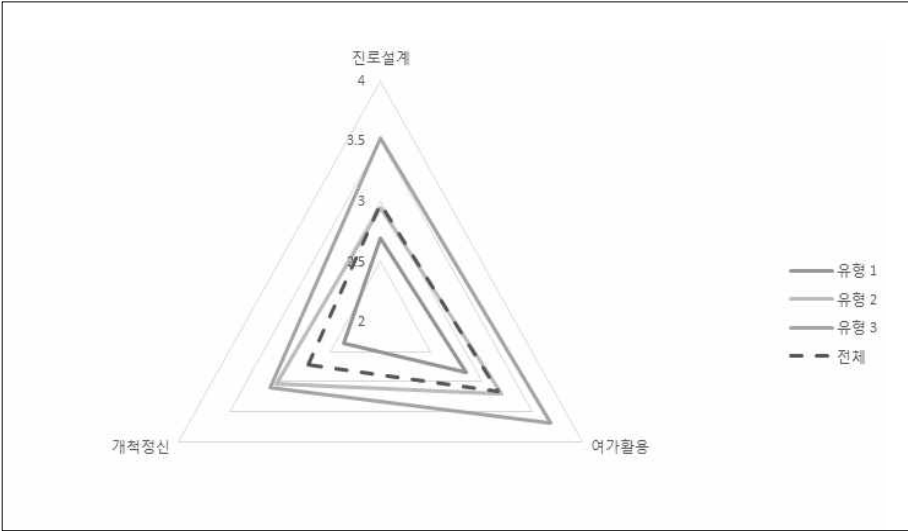


그림 V-20 중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3은 진로설계, 여가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개척정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 진로개척형’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유형 2는 진로설계에서 진로 정확성과 여가활용 및 개척정신이 중간 수준인 특성을 반영하여 ‘능동적 진로탐색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서 대체로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동적 진로탐색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188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 개발 역량	적극적 진로개척형 (유형 3)	진로설계, 여가활동, 개척정신에 있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정확성	3-4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경험	활동개수	3-4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4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3-4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행동	4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4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 개발 역량	성실한 진로 탐색형 (유형 2)	진로설계, 여가활동, 개척정신에 있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정확성	2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경험	활동개수	1-2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2-3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2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행동	3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3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 개발 역량	소극적 진로탐색형 (유형 1)	진로설계, 여가활동, 개척정신에 있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정확성	1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경험	활동개수	1-2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1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차별화행동		1-2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1-2수준에 해당함

3)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설계에 대한 행동지표는 다섯 가지 유형의 진로활동경험에 대한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이고 여가활용의 행동지표는 여가활동경험의 유형과 횟수,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유무와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정도이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는 차별화행동과 도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V-189와 같다.

표 V-18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889	1.64	0.97
			참여시간	851	2.16	3.00
		진로상담	참여횟수	566	1.77	1.48
			참여시간	553	1.87	1.77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413	1.56	1.81
			참여시간	397	4.73	12.95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335	1.66	3.52
			참여시간	319	5.81	11.90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횟수	347	2.97	9.65
			참여시간	330	6.18	24.93
진로정확성				1356	3.14	0.93
여가활용	여가 경험	활동개수		1214	2.88	1.64
		활동횟수		1201	4.03	3.64
	여가활동 동료			1355	2.86	0.99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354	2.84	1.16
개척정신	차별화행동			1355	2.77	0.67
	도전활동			1356	2.82	0.88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평균은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64회(SD=.97),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2.16시간(SD=3.00), 진로상담 참여횟수 1.77회(SD=1.48), 진로상담 참여시간 1.87시간(SD=1.77),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1.56회(SD=1.81),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4.73시간(SD=12.95),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1.66회(SD=3.52),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5.81회(SD=11.90),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2.97회(SD=9.65),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시간은 6.18시간(SD=24.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정확성의 평균은 3.14(SD=.93)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 시간도 가장 길었다. 반면, 직업체험교육 및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의 행동지표 평균은 여가경험 활동유형 개수 2.88개(SD=1.64), 여가 경험 활동횟수 4.03회(SD=3.64), 여가활동동료 2.86(SD=.99),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는 2.84(SD=1.16)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 평균은 차별화행동이 2.77(SD=.67)이고 도전활동이 2.82(SD=.88)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90과 같다.

표 V-190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진로 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 횟수	889	.007(.006) / .6396*	.229	.085	2.529*
			참여 시간	851	.002(.000) / 1.364	.335	.040	1.168
		진로상담	참여 횟수	566	.039(.037) / 22.544**	.844	.198	4.748**
			참여 시간	553	.033(.031) / 18.299**	.923	.181	4.278**
		직업체험교육	참여 횟수	413	.002(-.001) / .776	.228	.044	.881
			참여 시간	397	.011(.008) / 4.320*	3.915	.105	2.078*
		직업관련견학	참여 횟수	335	.014(.011) / .4624*	1.151	.118	2.150*
			참여 시간	319	.019(.015) / 5.940*	4.448	.136	2.437*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 횟수	347	.015(.012) / 5.165*	3.244	.122	2.273*
			참여 시간	330	.034(.031) / 11.526**	12.826	.185	3.395**
	진로정확성			1356	.059(.058) / 83.318**	.597	.242	9.128**
	여가 활용	여가 경험	활동개수		1214	.039(.039) / 48.931**	.918	.198
활동횟수			1201	.008(.007) / 9.527**	.921	.089	3.087**	
여가활동 동료			1355	.051(.051) / 72.345**	.595	.227	8.506**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354	.057(.057) / 81.073**	.737	.239	9.004**	
개척 정신	차별화행동			1355	.180(.179) / 292.741**	.749	.424	17.110**
	도전활동			1356	.160(.160) / 254.761**	.937	.400	15.961**

***p<.001, **p<.01, *p<.05

고등학생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진로설계능력이 진로활동 경험 행동지표인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beta=.085$, $t=2.529$, $p<.05$), 진로상담 참여횟수($\beta=.198$, $t=4.748$, $p<.01$), 진로상담 참여시간($\beta=.181$, $t=4.278$, $p<.01$),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beta=.105$, $t=2.078$, $p<.05$),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beta=.118$, $t=2.150$, $p<.05$),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beta=.136$, $t=2.437$, $p<.05$),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횟수($\beta=.122$, $t=2.273$, $p<.05$)와 시간($\beta=.185$, $t=3.395$, $p<.01$)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진로활동경험 행동지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설계역량이 진로 정확성($\beta=.242$, $t=9.128$, $p<.01$)에 대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역량이 여가경험 활동유형 개수($\beta=.198$, $t=6.995$, $p<.01$)와 횟수($\beta=.089$, $t=3.087$, $p<.01$), 여가활동 동료($\beta=.227$, $t=8.506$, $p<.01$),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beta=.129$, $t=9.004$,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척정신역량이 차별화행동($\beta=.424$, $t=17.110$, $p<.01$)과 도전활동($\beta=.400$, $t=15.961$, $p<.01$)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1이상~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191과 같다.

표 V-191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진로설계	1351	3.06	0.43	1수준	200(14.8)	2.42	0.22
				2수준	541(40.0)	2.88	0.12
				3수준	387(28.6)	3.26	0.12
				4수준	223(16.5)	3.74	0.17
여가활용	1349	3.17	0.46	1수준	167(12.4)	2.45	0.27
				2수준	546(40.5)	2.93	0.12
				3수준	342(25.4)	3.34	0.14
				4수준	294(21.8)	3.81	0.13
개척정신	1349	2.69	0.52	1수준	263(19.5)	2.01	0.22
				2수준	507(37.6)	2.50	0.13
				3수준	403(29.9)	2.97	0.13
				4수준	176(13.0)	3.62	0.25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원점수 3.06(SD=.43)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00명, 14.8%) 평균은 2.42(SD=.22), 2수준(541명, 40.0%) 평균은 2.88(SD=.12), 3수준(387명, 28.6%) 평균은 3.26(SD=.12), 4수준(223명, 16.5%) 평균은 3.74(SD=.17)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원점수 3.17(SD=.46)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167명, 12.4%) 평균은 2.45(SD=.27), 2수준(546명, 40.5%) 평균은 2.93(SD=.12), 3수준(342명, 25.4%) 평균은 3.34(SD=.14), 4수준(294명, 21.8%) 평균은 3.81(SD=.13)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원점수 2.69(SD=.52)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263명, 19.5%)

평균은 2.01(SD=.22), 2수준(507명, 37.6%) 평균은 2.50(SD=.13), 3수준(403명, 29.9%) 평균은 2.97(SD=.13), 4수준(176명, 13.0%) 평균은 3.62(SD=.25)로 나타났다.

(4)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특성

진로설계 행동지표는 진로활동경험과 진로정확성으로 구분된다. 진로활동경험은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교육, 직업관련견학,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의 다섯 가지에 대해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진로활동경험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64회(SD=.97)이고 1수준 평균은 1.54(SD=.86), 2수준 평균은 1.58(SD=.89), 3수준 평균은 1.73(SD=1.10), 4수준 평균은 1.70(SD=.9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유사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38에서 상한값 1.8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2.16시간(SD=3.01)이고 1수준 평균은 1.87(SD=1.73), 2수준 평균은 2.21(SD=3.91), 3수준 평균은 2.13(SD=2.42), 4수준 평균은 2.32(SD=2.2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53에서 상한값 2.6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77회(SD=1.49)이고 1수준 평균은 1.36(SD=.75), 2수준 평균은 1.63(SD=1.10), 3수준 평균은 1.93(SD=1.88), 4수준 평균은 1.99(SD=1.6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56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1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설계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6에서 상한값 2.2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1-2수준의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1.5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그리고 3-4 수준의 행동지표 특징은 ‘고등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2회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1.87시간(SD=1.78)이고 1수준 평균은 1.48(SD=1.13), 2수준 평균은 1.68(SD=1.38), 3수준 평균은 2.07(SD=2.22), 4수준 평균은 2.11(SD=1.8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217$,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7에서 상한값 2.4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수준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진로상담 참여시간에 대한 1-2수준의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1.5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그리고 3-4수준의 행동지표 특징은 ‘고등학생들은 진로상담에 평균 2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56회($SD=1.82$)이고 1수준 평균은 1.40($SD=.94$), 2수준 평균은 1.60($SD=2.58$), 3수준 평균은 1.55($SD=1.33$), 4수준 평균은 1.57($SD=.9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비슷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11에서 상한값 2.01사이에서 분포하고 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4.74시간($SD=12.98$)이고 1수준 평균은 3.67($SD=4.38$), 2수준 평균은 4.44($SD=7.02$), 3수준 평균은 3.93($SD=3.93$), 4수준 평균은 6.99($SD=26.1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2.25에서 상한값 12.69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66회($SD=3.53$)이고 1수준 평균은 1.14($SD=.35$), 2수준 평균은 1.36($SD=1.12$), 3수준 평균은 2.16($SD=6.10$), 4수준 평균은 1.66($SD=1.37$)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직업관련 견학 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96에서 상한값 3.35사이에서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5.82시간($SD=11.92$)이고 1수준 평균은 4.30($SD=4.75$), 2수준 평균은 4.90($SD=7.33$), 3수준 평균은 7.93($SD=19.59$), 4수준 평균은 5.25($SD=5.2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2.42에서 상한값 11.97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전체평균 2.98회($SD=9.67$)이고 1수준 평균은 1.58($SD=1.27$), 2수준 평균은 2.14($SD=2.75$), 3수준 평균은 3.04($SD=10.02$), 4수준 평균은 4.30($SD=14.5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06에서 상한값 7.33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회에서 7회 정도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전체평균 6.18시간($SD=24.93$)이고 1수준 평균은 2.61($SD=2.35$), 2수준 평균은 3.80($SD=4.95$), 3수준 평균은 4.88($SD=17.08$), 4수준 평균은 11.49($SD=43.1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59에서 상한값 20.53사이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1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진로정확성의 전체 평균은 3.14($SD=.93$)이고 1수준 평균은 2.46($SD=1.06$)이고, 2수준 평균은 3.07($SD=.92$), 3수준 평균은 3.33($SD=.79$), 4수준 평균은 3.59($SD=.6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8.07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었다. 즉, 진로설계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확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 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31에서 상한값 3.67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진로정확성 문항에 있어 2번, 3번, 그리고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진로정확성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진로정확성 1수준은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탐색 중이다.’, 2수준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3수준은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수준은 ‘하고 싶은 직업을 거의 결정하였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개수는 전체평균 2.88개($SD=1.64$)이고 1수준 평균은 2.25($SD=1.29$), 2수준 평균은 2.67($SD=1.51$), 3수준 평균은 3.06($SD=1.69$), 4수준 평균은 3.30($SD=1.7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6.41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1과 2수준보다 3과 4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 능력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여가활동 개수는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여가활동 개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2.00에서 상한값 3.5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1-2수준의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

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이고 3-4수준은 '고등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동 횟수는 전체평균 4.03회(SD=3.65)이고 1수준 평균은 3.68(SD=2.83), 2수준 평균은 3.68(SD=2.74), 3수준 평균은 4.28(SD=3.53), 4수준 평균은 4.50(SD=5.12)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842$,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2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능력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여가활동 개수는 2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 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3.14에서 상한값 5.1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1-2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고등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3-4회 정도 참여한다'로 그리고 3-4수준은 '고등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5회 정도 참여한다'로 분류되었다.

여가활동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의 전체 평균은 2.86(SD=.99)이고 1수준 평균은 2.36(SD=.98)이고, 2수준 평균은 2.79(SD=.97), 3수준 평균은 2.93(SD=.93), 4수준 평균은 3.17(SD=.9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6.52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과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여가활동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21에서 상한값 3.2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대부분 응답하였고 일부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3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4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의 전체 평균은 2.84(SD=1.16)이고 1수준 평균은 2.17(SD=1.16)이고, 2수준 평균은 2.75(SD=1.14), 3수준 평균은 3.00(SD=1.13), 4수준 평균은 3.20(SD=1.0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3.60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3수준과 4수준이 제일 높고,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여가활용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1.99에서 상한값 3.32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2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4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차별화행동의 전체 평균은 2.77(SD=.66)이고 1수준 평균은 2.33(SD=.61)이고, 2수준 평균은 2.73(SD=.58), 3수준 평균은 2.92(SD=.63), 4수준 평균은 3.19(SD=.6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81.19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화행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

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25에서 상한값 3.29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행동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응답하였고 4번 문항에는 일부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별화행동은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4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나만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도전활동의 전체 평균은 2.82(SD=.88)이고 1수준 평균은 2.27(SD=.82)이고, 2수준 평균은 2.77(SD=.81), 3수준 평균은 3.02(SD=.85), 4수준 평균은 3.35(SD=.7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73.15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 이 제일 높고 3수준,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활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17에서 상한값 3.4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도전활동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도전활동은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수준은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으로 시도해 본다.', 4수준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해 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표 V-192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107	1.54	0.86	1.38	1.71	1.754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351	1.58	0.89	1.49	1.68		
3수준	387	3.26	0.12	278	1.73	1.10	1.60	1.86		
4수준	223	3.74	0.17	150	1.70	0.96	1.54	1.86		
전체	1351	3.06	0.43	886	1.64	0.97	1.58	1.71		

***p<.001, **p<.01, *p<.05

표 V-193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101	1.87	1.73	1.53	2.21	.496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333	2.21	3.91	1.79	2.63		
3수준	387	3.26	0.12	268	2.13	2.42	1.84	2.42		
4수준	223	3.74	0.17	147	2.32	2.21	1.96	2.68		
전체	1351	3.06	0.43	849	2.16	3.01	1.96	2.36		

***p<.001, **p<.01, *p<.05

표 V-194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56	1.36	0.75	1.16	1.56	3.565* 4)1	진로상담에 평균 1.5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206	1.63	1.10	1.48	1.78		
3수준	387	3.26	0.12	187	1.93	1.88	1.65	2.20		진로상담에 평균 2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4수준	223	3.74	0.17	113	1.99	1.60	1.69	2.28		
전체	1351	3.06	0.43	562	1.77	1.49	1.65	1.90		

***p<.001, **p<.01, *p<.05

표 V-195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55	1.48	1.13	1.17	1.78	3.217*	진로상담에 평균 1.5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202	1.68	1.38	1.48	1.87		
3수준	387	3.26	0.12	181	2.07	2.22	1.74	2.40		진로상담에 평균 2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4수준	223	3.74	0.17	112	2.11	1.81	1.77	2.45		
전체	1351	3.06	0.43	550	1.87	1.78	1.73	2.02		

***p<.001, **p<.01, *p<.05

표 V-196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42	1.40	0.94	1.11	1.70	.127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152	1.60	2.58	1.19	2.01			
3수준	387	3.26	0.12	133	1.55	1.33	1.32	1.78			
4수준	223	3.74	0.17	83	1.57	0.94	1.37	1.78			
전체	1351	3.06	0.43	410	1.56	1.82	1.38	1.73			

***p<.001, **p<.01, *p<.05

표 V-19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39	3.67	4.38	2.25	5.09	1.107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149	4.44	7.02	3.31	5.58		
3수준	387	3.26	0.12	124	3.93	3.93	3.23	4.63		
4수준	223	3.74	0.17	83	6.99	26.11	1.29	12.69		
전체	1351	3.06	0.43	395	4.74	12.98	3.46	6.02		

***p<.001, **p<.01, *p<.05

표 V-198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29	1.14	0.35	1.00	1.27		1.182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122	1.36	1.12	1.16	1.56			
3수준	387	3.26	0.12	103	2.16	6.10	0.96	3.35			
4수준	223	3.74	0.17	79	1.66	1.37	1.36	1.97			
전체	1351	3.06	0.43	333	1.66	3.53	1.28	2.04			

***p<.001, **p<.01, *p<.05

표 V-199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27	4.30	4.75	2.42	6.17		1.423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1	2.88	0.12	120	4.90	7.33	3.57	6.22			
3수준	387	3.26	0.12	93	7.93	19.59	3.89	11.97			
4수준	223	3.74	0.17	78	5.25	5.29	4.06	6.44			
전체	1351	3.06	0.43	318	5.82	11.92	4.50	7.13			

***p<.001, **p<.01, *p<.05

표 V-200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26	1.58	1.27		1.06	2.09	1.023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회에서 7회 정도 만난다
2수준	541	2.88	0.12	109	2.14	2.75		1.61	2.66		
3수준	387	3.26	0.12	120	3.04	10.02		1.23	4.85		
4수준	223	3.74	0.17	91	4.30	14.59		1.26	7.33		
전체	1351	3.06	0.43	346	2.98	9.67		1.95	4.00		

***p<.001, **p<.01, *p<.05

표 V-201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23	2.61	2.35		1.59	3.62	1.955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1시간에 20시간 정도 만난다
2수준	541	2.88	0.12	105	3.80	4.95		2.84	4.76		
3수준	387	3.26	0.12	112	4.88	17.08		1.69	8.08		
4수준	223	3.74	0.17	90	11.49	43.16		2.45	20.53		
전체	1351	3.06	0.43	330	6.18	24.93		3.48	8.88		

***p<.001, **p<.01, *p<.05

표 V-202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명확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00	2.42	0.22	200	2.46	1.06	2.31	2.61	68.072** 4<3<2<1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탐색 중이다
2수준	541	2.88	0.12	541	3.07	0.92	2.99	3.15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3수준	387	3.26	0.12	387	3.33	0.79	3.25	3.41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수준	223	3.74	0.17	223	3.59	0.64	3.50	3.67		하고 싶은 직업을 거의 결정하였다
전체	1351	3.06	0.43	1351	3.14	0.93	3.09	3.19		

***p<.001, **p<.01, *p<.05

표 V-203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7	2.45	0.27	110	2.25	1.29	2.00	2.49	16.414** 4.3 < 1.2	여가활동에 평균 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546	2.93	0.12	494	2.67	1.51	2.53	2.80		
3수준	342	3.34	0.14	322	3.06	1.69	2.87	3.24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4수준	294	3.81	0.13	281	3.30	1.78	3.09	3.51		
전체	1349	3.17	0.46	1207	2.88	1.64	2.79	2.97		

***p<.001, **p<.01, *p<.05

표 V-204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7	2.45	0.27	109	3.68	2.83	3.14	4.22	3.842** 4<2	여가활동에 평균 3-4회 정도 참여한다
2수준	546	2.93	0.12	489	3.68	2.74	3.44	3.93		
3수준	342	3.34	0.14	319	4.28	3.53	3.89	4.67		
4수준	294	3.81	0.13	277	4.50	5.12	3.89	5.10		
전체	1349	3.17	0.46	1194	4.03	3.65	3.83	4.24		

***p<.001, **p<.01, *p<.05

표 V-205 고등학교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7	2.45	0.27	167	2.36	0.98	2.21	2.51	26.527** 4<3,2<1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
2수준	546	2.93	0.12	546	2.79	0.97	2.71	2.88		
3수준	342	3.34	0.14	341	2.93	0.93	2.83	3.03		
4수준	294	3.81	0.13	294	3.17	0.98	3.06	3.28		
전체	1349	3.17	0.46	1348	2.86	0.99	2.80	2.91		

***p<.001, **p<.01, *p<.05

표 V-206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7	2.45	0.27	167	2.17	1.16	1.99	2.34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2수준	546	2.93	0.12	545	2.75	1.14	2.65	2.84	33.603** 4,3(2<1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342	3.34	0.14	341	3.00	1.13	2.88	3.12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4수준	294	3.81	0.13	294	3.20	1.05	3.08	3.32		
전체	1349	3.17	0.46	1347	2.84	1.16	2.78	2.90		

***p<.001, **p<.01, *p<.05

표 V-20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원점수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63	2.01	0.22	263	2.33	0.61	2.25	2.40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	507	2.50	0.13	506	2.73	0.58	2.68	2.78	81.198** 4<3(2<1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수준	403	2.97	0.13	403	2.92	0.63	2.86	2.98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4수준	176	3.62	0.25	176	3.19	0.64	3.09	3.29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나만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다
전체	1349	2.69	0.52	1348	2.77	0.66	2.73	2.81		

***p<.001, **p<.01, *p<.05

표 V-208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63	2.01	0.22	263	2.27	0.82	2.17	2.37	73.152** 4<3<2<1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	507	2.50	0.13	507	2.77	0.81	2.70	2.84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수준	403	2.97	0.13	403	3.02	0.85	2.94	3.11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으로 시도해 본다
4수준	176	3.62	0.25	176	3.35	0.78	3.23	3.46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
전체	1349	2.69	0.52	1349	2.82	0.88	2.78	2.87		

***p<.001, **p<.01, *p<.05

(5)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209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개발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수준	1.54	진로적성검사에 1회 또는 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58	
		3수준	1.73	
		4수준	1.70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1수준	1.87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2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21	
		3수준	2.13	
		4수준	2.32	
	진로상담 참여횟수	1수준	1.36	진로상담에 평균 1.5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63	
		3수준	1.93	
		4수준	1.99	
	진로상담 참여시간	1수준	1.48	진로상담에 평균 1.5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68	
		3수준	2.07	
		4수준	2.11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개발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3.06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1수준	1.40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1-2회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60	
		3수준	1.55	
		4수준	1.57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1수준	3.67	직업체험교육에 평균 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4.44	
		3수준	3.93	
		4수준	6.99	
	직업관련건강 참여횟수	1수준	1.14	직업관련 건강에 평균 1회 ~ 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36	
		3수준	2.16	
		4수준	1.66	
	직업관련건강 참여시간	1수준	4.30	직업체험 건강에 평균 2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4.90	
		3수준	7.93	
		4수준	5.25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1수준	1.58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회에서 7회 정도 만난다
		2수준	2.14	
		3수준	3.04	
		4수준	4.30	

행동지표					
역량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 활동 경험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진로개발	수준	평균	1수준	2.61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1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만난다
	2수준	3.80	2수준	3.80	
	3수준	4.88	3수준	4.88	
	4수준	11.49	4수준	11.49	
	전체	2.42	1수준	2.46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탐색 중이다
	3.26	3.26	2수준	3.07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진로명확성			3수준	3.33	여러 가지의 진로방향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수준	3.59	하고 싶은 직업을 거의 결정하였다
			1수준	2.25	여가활동에 평균 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67	
	여가 경험	활동개수	3수준	3.06	여가활동에 평균 3~4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4수준	3.30	
여가활동		활동횟수	1수준	3.68	여가활동에 평균 3~4회 정도 참여한다
			2수준	3.68	
			3수준	4.28	여가활동에 평균 5회 정도 참여한다
			4수준	4.50	
	여가활동용 동료		1수준	2.36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수준	2.79	
			3수준	2.93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4수준	3.17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	2.17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시나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2수준	2.75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3.00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4수준	3.20	
개척정신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치별화행동	1수준	2.33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한다
		2수준	2.73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3수준	2.92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4수준	3.19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나만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다
	도전활동	1수준	2.27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후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2수준	2.77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수준	3.02	새로운 일에 대해 호기심으로 시도해 본다
		4수준	3.35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시도는 해 본다

(6)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개발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21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진로 설계	유형 1	567	2.68	0.24	2535.732**	유형 2>3>1
	유형 2	329	3.64	0.21		
	유형 3	455	3.13	0.11		
	전체	1351	3.06	0.43		
여가 활용	유형 1	440	2.68	0.25	3032.224**	유형 3>2>1
	유형 2	581	3.18	0.17		
	유형 3	328	3.79	0.14		
	전체	1349	3.17	0.46		
개척 정신	유형 1	657	2.96	0.25	2275.468**	유형 3>1>2
	유형 2	611	2.25	0.26		
	유형 3	81	3.86	0.14		
	전체	1349	2.69	0.52		

*p<.05, **p<.01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유형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세가지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별 진로개발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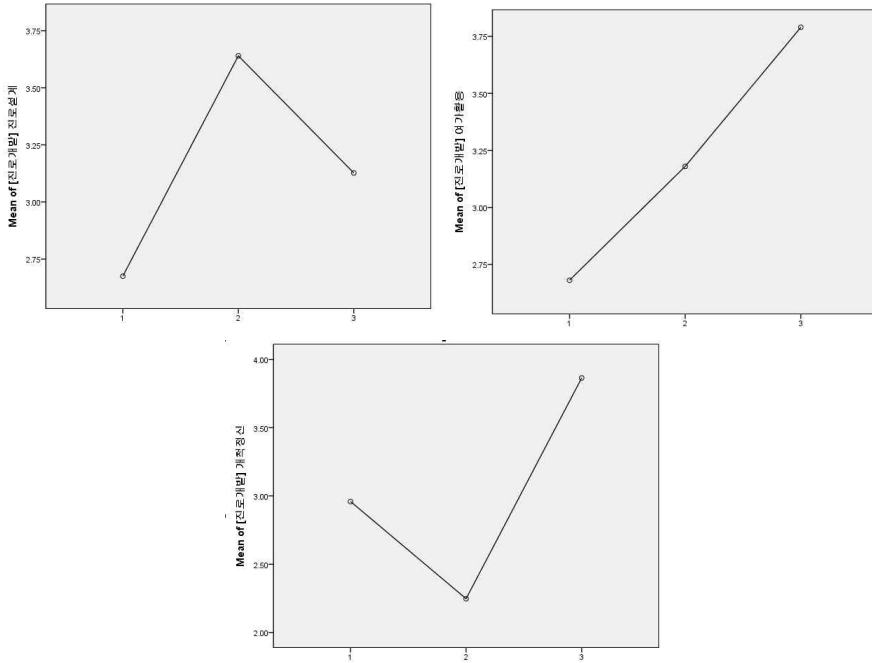


그림 V-21 고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진로설계와 여가활용은 낮은 수준이고 개척정신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유형 2는 진로설계는 높은 수준, 여가활용은 중간수준, 개척정신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은 진로설계는 중간수준이고 여가활용 및 개척정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강점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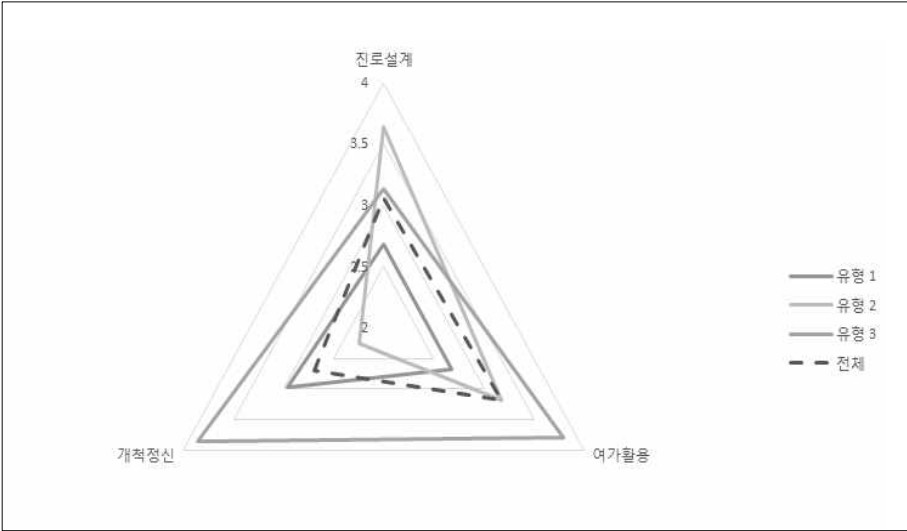


그림 V-22 고등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진로설계와 여가활용능력은 낮으나 개척정신은 중간수준인 것을 고려하여 현재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실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진로 탐색형’으로 특징을 부여하였다. 유형 2는 진로설계능력은 높은 수준이고 여가 활용은 중수준, 개척정신은 하수준인 것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 ‘진로설계형’으로 특징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3은 진로설계는 중수준 이나 여가활용과 개척정신이 상수준인 것으로 고려하여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진로체험형’으로 특징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11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개발역량	진로탐색형 (유형 1)	진로설계와 여가활용은 낮은 수준이나 개척정신은 중간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1-2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1-2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용	진로정확성		1수준에 해당함
				여가 경험	활동개수	1-2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1-2수준에 해당함
				여가활용 동료		1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차별화행동		3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3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형 (유형 2)	진로설계는 높은 수준, 여가활동은 중간수준, 개척정신은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3-4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3-4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정확성	3-4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 경험	활동개수	1-2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1-2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2-3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2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행동		1-2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도전활동	1-2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진로개발역량	진로체험형 (유형 1)	진로설계는 중간 수준, 여기활동과 개척정신은 높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1-2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1-2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정확성	2수준에 해당함
	여기활동	여가 경험	활동개수	3-4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3-4수준에 해당함		
			여기활동 동료	4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여기활동 부모의 지지	3-4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행동	4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4수준에 해당함	

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행동지표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설계에 대한 행동지표는 다섯 가지 유형의 진로활동경험에 대한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이고 여가활용의 행동지표는 여가활동경험의 유형과 횟수,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료의 유무와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정도이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는 차별화행동과 도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V-212와 같다.

표 V-21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37	1.50	0.81
			참여시간	125	2.22	2.64
		진로상담	참여횟수	119	1.96	2.00
			참여시간	105	2.88	4.60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57	2.61	5.48
			참여시간	56	17.92	53.09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107	2.11	2.45
			참여시간	100	10.59	29.21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횟수	147	3.17	6.03
			참여시간	138	8.82	33.62
진로정확성				407	3.00	1.05
여가활용	여가 경험	활동개수	345	2.19	1.17	
		활동횟수	337	3.15	2.88	
	여가활동 동료		408	2.55	0.92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408	2.77	1.18	
개척정신	차별화행동			408	2.87	0.58
	도전활동			408	2.83	0.90

대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평균은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50회(SD=.81),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2.22시간(SD=2.64), 진로상담 참여횟수 1.96회(SD=2.00), 진로상담 참여시간 2.88시간(SD=4.60),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2.61회(SD=5.48),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17.92시간(SD=53.09),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2.11회(SD=2.45),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10.59회(SD=29.21),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3.17회(SD=6.03),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시간은 8.82시간(SD=33.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정확성의 평균은 3.00(SD=1.05)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청소년의 진로활동경험에 있어서는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체험 교육시간이 가장 길었다. 반면,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참여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의 행동지표 평균은 여가경험 활동유형 개수 2.19개(SD=1.17), 여가경험 활동횟수 3.15회(SD=2.88), 여가활동동료 2.55(SD=.92),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는 2.77(SD=1.18)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의 행동지표 평균은 차별화행동이 2.87(SD=.58)이고 도전활동이 2.83(SD=.90)로 나타났다.

(2)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13과 같다.

표 V-213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진로 설계	진로적성검사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37	.010(.002) / 1.340	.212	.099	1.157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25	.023(.015) / 2.903	-1.065	-.152	-1.704
	진로상담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19	.014(.006) / 1.651	.610	.118	1.285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05	.001(-.018) / .142	.431	.037	.376
	직업체험교육	참여 횟수	참여 시간	57	.000(-.018) / .016	.230	.017	.128
		참여 횟수	참여 시간	56	.001(-.018) / .033	3.311	.025	.181
	직업관련견학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07	.009(.000) / .962	-.628	-.095	-.981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00	.001(-.009) / .070	-2.145	-.027	-.265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47	.001(-.005) / .202	.598	.037	.450
		참여 횟수	참여 시간	138	.003(-.004) / .455	-5.172	-.058	-.675
	진로정확성			407	.071(.069) / 30.969**	.759	.267	5.565**
여가 활용	여가 경험	활동개수	활동횟수	345	.019(.016) / 6.505*	.418	.137	2.551*
		활동개수	활동횟수	337	.010(.007) / 3.252	.742	.098	1.803
	여가활동 동료			408	.048(.045) / 20.179**	.507	.219	4.492**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408	.079(.079) / 34.247**	.837	.280	5.852**
개척 정신	차별화행동			408	.023(.021) / 9.541**	.175	.152	3.089**
	도전활동			408	.052(.049) / 22.118**	.405	.227	4.703**

***p<.001, **p<.01, *p<.05

대학생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진로설계능력이 진로활동 경험 행동지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역량이 진로정확성($\beta=.267$, $t=5.565$, $p<.01$)에 대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역량이 여가경험 활동유형 개수($\beta=.137$, $t=2.551$, $p<.05$), 여가활동 동료($\beta=.219$, $t=4.492$, $p<.01$),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beta=.280$, $t=5.852$,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 경험 활동횟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척정신역량이 차별화행동($\beta=.152$, $t=3.089$, $p<.01$)과 도전활동($\beta=.227$, $t=4.703$, $p<.01$)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1이상~0미만=2수준, -1이하=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14와 같다.

표 V-214 201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진로설계	406	3.05	0.37	1수준	51(12.6)	2.45	0.23
				2수준	175(43.1)	2.89	0.10
				3수준	116(28.6)	3.22	0.10
				4수준	64(15.8)	3.63	0.17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여가활용	404	3.04	0.40	1수준	52(12.9)	2.43	0.19
				2수준	193(47.8)	2.89	0.11
				3수준	95(23.5)	3.23	0.10
				4수준	64(15.8)	3.72	0.18
개척정신	408	2.69	0.50	1수준	80(19.6)	1.99	0.24
				2수준	149(36.5)	2.53	0.13
				3수준	127(31.1)	2.99	0.13
				4수준	52(12.7)	3.52	0.25

대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원점수 3.05(SD=.37)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51명, 12.6%) 평균은 2.45(SD=.23), 2수준(175명, 43.1%) 평균은 2.89(SD=.10), 3수준(116명, 28.6%) 평균은 3.22(SD=.10), 4수준(64명, 15.8%) 평균은 3.63(SD=.17)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원점수 3.04(SD=.40)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52명, 12.9%) 평균은 2.43(SD=.19), 2수준(193명, 47.8%) 평균은 2.89(SD=.11), 3수준(95명, 23.5%) 평균은 3.23(SD=.10), 4수준(64명, 15.8%) 평균은 3.72(SD=.18)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원점수 2.69(SD=.50)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여 원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1수준(80명, 19.6%) 평균은 1.99(SD=.24), 2수준(149명, 36.5%) 평균은 2.53(SD=.13), 3수준(127명, 31.1%) 평균은 2.99(SD=.13), 4수준(52명, 12.7%) 평균은 3.52(SD=.25)로 나타났다.

(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로설계 행동지표의 특성

진로설계 행동지표는 진로활동경험과 진로정확성으로 구분된다. 진로활동경험은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교육, 직업관련견학,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의 다섯 가지에 대해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진로활동경험의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50회($SD=.81$)이고 1수준 평균은 1.43($SD=.94$), 2수준 평균은 1.44($SD=.69$), 3수준 평균은 1.69($SD=1.01$), 4수준 평균은 1.43($SD=.6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유사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89에서 상한값 2.04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2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2.22시간($SD=2.64$)이고 1수준 평균은 2.42($SD=3.15$), 2수준 평균은 2.61($SD=3.41$), 3수준 평균은 1.80($SD=1.16$), 4수준 평균은 1.73($SD=1.19$)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42에서 상한값 4.42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4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1.97회($SD=2.00$)이고 1수준 평균은 1.57($SD=1.50$), 2수준 평균은 1.60($SD=1.09$), 3수준 평균은 2.84($SD=3.41$), 4수준 평균은 1.96($SD=1.2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진로상담에 유사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70에서 상한값 4.1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상담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진로상담에 4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2.89시간($SD=4.61$)이고 1수준 평균은 2.00($SD=1.86$), 2수준 평균은 2.44($SD=3.89$), 3수준 평균은 4.73($SD=7.88$), 4수준 평균은 2.52($SD=2.0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진로상담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0.82에서 상한값 8.22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진로상담 참여시간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진로상담에 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이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2.61회($SD=5.48$)이고 1수준 평균은 1.33($SD=.52$), 2수준 평균은 2.28($SD=2.87$), 3수준 평균은 3.15($SD=8.68$), 4수준 평균은 2.85($SD=2.7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비슷한 횟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91에서 상한값 7.2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7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로 분류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17.92시간($SD=53.09$)이고 1수준 평균은 3.20($SD=1.92$), 2수준 평균은 10.35($SD=12.97$), 3수준 평균은 30.36($SD=87.10$), 4수준 평균은 13.38($SD=21.0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직업체험교육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7.92에서 상한값 68.64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학생마다 개별적 차이는 있으나 직업체험교육에 6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는 전체평균 2.11회(SD=2.45)이고 1수준 평균은 2.22(SD=1.48), 2수준 평균은 2.37(SD=3.36), 3수준 평균은 1.88(SD=1.26), 4수준 평균은 1.91(SD=2.0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직업관련 견학 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08에서 상한값 3.41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은 전체평균 10.59시간(SD=29.21)이고 1수준 평균은 4.57(SD=3.36), 2수준 평균은 11.15(SD=25.99), 3수준 평균은 13.45(SD=42.44), 4수준 평균은 7.34(SD=10.08)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은 직업관련 견학에 유사한 시간동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85에서 상한값 28.7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전체평균 3.17회(SD=6.03)이고 1수준 평균은 1.60(SD=0.84), 2수준 평균은 2.70(SD=3.67), 3수준 평균은 4.02(SD=9.01), 4수준 평균은 3.29(SD=5.16)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00에서 상한값 6.73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회에서 7회 정도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전체평균 8.82시간($SD=33.62$)이고 1수준 평균은 5.63($SD=7.73$), 2수준 평균은 8.88($SD=22.97$), 3수준 평균은 13.08($SD=54.52$), 4수준 평균은 4.07($SD=4.10$)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3.70에서 상한값 29.86 사이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30시간 이내로 만난다’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진로정확성의 전체 평균은 3.01($SD=1.05$)이고 1수준 평균은 2.43($SD=1.15$)이고, 2수준 평균은 2.92($SD=1.06$), 3수준 평균은 3.18($SD=.97$), 4수준 평균은 3.42($SD=.8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0.61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과 3수준이 2수준과 1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설계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확성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 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11에서 상한값 3.62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진로정확성 문항에 있어 2번, 3번, 그리고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진로정확성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진로정확성 1-2수준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3-4수준은 ‘여러 가지의 직업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거의 결정하였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개수는 전체평균 2.18개(SD=1.17)이고 1수준 평균은 1.97(SD=.97), 2수준 평균은 2.07(SD=1.23), 3수준 평균은 2.33(SD=1.14), 4수준 평균은 2.38(SD=1.1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설계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여가활동 개수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 개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 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1.63에서 상한값 2.68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여가활동 개수의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이다.

여가활동 횟수는 전체평균 3.15회(SD=2.89)이고 1수준 평균은 3.36(SD=2.89), 2수준 평균은 3.01(SD=3.39), 3수준 평균은 2.71(SD=1.89), 4수준 평균은 4.05(SD=2.51)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791$,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3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가활용능력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에 있어 여가 활동 개수를 구분하기는 힘들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평균차이에 있어 95% 신뢰구간을 보면 하한값이 2.31에서 상한값 4.71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여가활동 횟수에 대한 행동지표 특성은 '대학생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2-5회 정도 참여한다'분류되었다.

여가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의 전체 평균은 2.55(SD=.92)이고 1수준 평균은 2.12(SD=.83)이고, 2수준 평균은 2.55(SD=.83), 3수준 평균은 2.58(SD=.96), 4수준 평균은 2.88(SD=1.0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6.87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3,2,1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용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1.88에서 상한값 3.14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대부분 응답하였고 일부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3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4수준은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로 분류하였다.

여가활용능력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의 전체 평균은 2.77(SD=1.19)이고 1수준 평균은 2.06(SD=1.24)이고, 2수준 평균은 2.73(SD=1.15), 3수준 평균은 2.97(SD=1.09), 4수준 평균은 3.17(SD=1.15)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0.35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이 제일 높고, 2수준, 그리고 1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여가활용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1.71에서 상한값 3.46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미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3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2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4수준은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차별화행동의 전체 평균은 2.87(SD=.58)이고 1수준 평균은 2.67(SD=.56)이고, 2수준 평균은 2.89(SD=.59), 3수준 평균은 2.93(SD=.56), 4수준 평균은 2.94(SD=.57)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0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 3, 2 수준이 1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화행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54에서 상한값 3.10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행동 문항에 있어 2번과 3번에 응답하였고 4번 문항에는 일부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별화행동은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2-4 수준은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개척정신의 4가지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도전활동의 전체 평균은 2.83 (SD=.90)이고 1수준 평균은 2.53(SD=.80)이고, 2수준 평균은 2.72(SD=.88), 3수준 평균은 3.05(SD=.83), 4수준 평균은 3.06(SD=1.04)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F=7.76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4수준과 3수준이 1수준보다 높고 3수준이 2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척정신의 표준화점수에 따른 4개의 수준은 행동지표 특성에서 2개의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활동 행동지표 점수에 응답결과를 각 수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평균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있어 하한값이 2.35에서 상한값 3.35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도전활동 문항에 있어 2번, 3번, 4번에 응답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도전활동은 2~4번 문항을 행동지표의 특성으로 삼아서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2수준 행동지표 특성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3-4수준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일에 시도해 본다.’로 분류하였다.

표 V-215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14	1.43	0.94	14	0.89	1.97	.917	진로적성검사에 2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64	1.44	0.69	64	1.27	1.61		
3수준	116	3.22	0.10	36	1.69	1.01	36	1.35	2.04		
4수준	64	3.63	0.17	23	1.43	0.66	23	1.15	1.72		
전체	406	3.05	0.37	137	1.50	0.81	137	1.37	1.64		

***p<.001, **p<.01, *p<.05

표 V-216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12	2.42	3.15	12	0.42	4.42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4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58	2.61	3.41	58	1.72	3.51		
3수준	116	3.22	0.10	33	1.80	1.16	33	1.39	2.21		
4수준	64	3.63	0.17	22	1.73	1.19	22	1.20	2.26		
전체	406	3.05	0.37	125	2.22	2.64	125	1.76	2.69		

***p<.001, **p<.01, *p<.05

표 V-217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14	1.57	1.50		0.70	2.44	2.611	진로상담에 4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50	1.60	1.09		1.29	1.91		
3수준	116	3.22	0.10	28	2.84	3.41		1.52	4.16		
4수준	64	3.63	0.17	26	1.96	1.25		1.46	2.47		
전체	406	3.05	0.37	118	1.97	2.00		1.60	2.34		

***p<.001, **p<.01, *p<.05

표 V-218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상담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12	2.00	1.86		0.82	3.18	1.528	진로상담에 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44	2.44	3.89		1.26	3.63		
3수준	116	3.22	0.10	22	4.73	7.88		1.24	8.22		
4수준	64	3.63	0.17	26	2.52	2.06		1.69	3.35		
전체	406	3.05	0.37	104	2.89	4.61		2.00	3.79		

***p<.001, **p<.01, *p<.05

표 V-219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6	1.33	0.52		0.79	1.88	.195	직업체험교육에 7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18	2.28	2.87		0.85	3.70		
3수준	116	3.22	0.10	20	3.15	8.68		-0.91	7.21		
4수준	64	3.63	0.17	13	2.85	2.70		1.21	4.48		
전체	406	3.05	0.37	57	2.61	5.48		1.16	4.07		

***p<.001, **p<.01, *p<.05

표 V-220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5	3.20	1.92		0.81	5.59	.646	학생마다 개별적 차이는 있으나 직업체험교육에 6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17	10.35	12.97		3.68	17.02		
3수준	116	3.22	0.10	21	30.36	84.10		-7.92	68.64		
4수준	64	3.63	0.17	13	13.38	21.00		0.70	26.07		
전체	406	3.05	0.37	56	17.92	53.09		3.70	32.14		

***p<.001, **p<.01, *p<.05

표 V-221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9	2.22	1.48	9	1.08	3.36	.313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43	2.37	3.36	43	1.34	3.41		
3수준	116	3.22	0.10	32	1.88	1.26	32	1.42	2.33		
4수준	64	3.63	0.17	23	1.91	2.00	23	1.05	2.78		
전체	406	3.05	0.37	107	2.11	2.45	107	1.64	2.58		

***p<.001, **p<.01, *p<.05

표 V-222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직업관련 견학 참여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7	4.57	3.36	7	1.46	7.68	.291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75	2.89	0.10	39	11.15	25.99	39	2.73	19.58		
3수준	116	3.22	0.10	32	13.45	42.44	32	-1.85	28.75		
4수준	64	3.63	0.17	22	7.34	10.08	22	2.87	11.81		
전체	406	3.05	0.37	100	10.59	29.21	100	4.79	16.39		

***p<.001, **p<.01, *p<.05

표 V-223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10	1.60	0.84	10	1.00	2.20	.640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회에서 7회 정도 만난다
2수준	175	2.89	0.10	57	2.70	3.67	57	1.73	3.68		
3수준	116	3.22	0.10	45	4.02	9.01	45	1.32	6.73		
4수준	64	3.63	0.17	35	3.29	5.16	35	1.51	5.06		
전체	406	3.05	0.37	147	3.17	6.03	147	2.19	4.15		

***p<.001, **p<.01, *p<.05

표 V-22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8	5.63	7.73	8	-0.83	12.08	.475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30시간 이내로 만난다
2수준	175	2.89	0.10	53	8.88	22.97	53	2.55	15.21		
3수준	116	3.22	0.10	43	13.08	54.52	43	-3.70	29.86		
4수준	64	3.63	0.17	34	4.07	4.10	34	2.64	5.50		
전체	406	3.05	0.37	138	8.82	33.62	138	3.16	14.48		

***p<.001, **p<.01, *p<.05

표 V-225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행동지표 특성 : 진로명확성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1	2.45	0.23	51	2.43	1.15	51	2.11	2.76	10.619** 4.3)2.1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여러 가지의 직업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거의 결정하였다
2수준	175	2.89	0.10	174	2.92	1.06	174	2.76	3.08		
3수준	116	3.22	0.10	116	3.18	0.97	116	3.00	3.36		
4수준	64	3.63	0.17	64	3.42	0.81	64	3.22	3.62		
전체	406	3.05	0.37	405	3.01	1.05	405	2.91	3.11		

***p<.001, **p<.01, *p<.05

표 V-226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개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2	2.43	0.19	34	1.97	0.97	34	1.63	2.31	1.904	여가활동에 평균 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93	2.89	0.11	161	2.07	1.23	161	1.88	2.27		
3수준	95	3.23	0.10	87	2.33	1.14	87	2.09	2.58		
4수준	64	3.72	0.18	60	2.38	1.14	60	2.09	2.68		
전체	404	3.04	0.40	342	2.18	1.17	342	2.06	2.31		

***p<.001, **p<.01, *p<.05

표 V-227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 횟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2	2.43	0.19	32	3.36	2.89		2.32	4.40		
2수준	193	2.89	0.11	156	3.01	3.39		2.48	3.55	2.791* 4)3	여가활동에 평균 2-5회 정도 참여한다
3수준	95	3.23	0.10	87	2.71	1.89		2.31	3.12		
4수준	64	3.72	0.18	59	4.05	2.51		3.40	4.71		
전체	404	3.04	0.40	334	3.15	2.89		2.84	3.46		

***p<.001, **p<.01, *p<.05

표 V-228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을 함께 할 친구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2	2.43	0.19	52	2.12	0.83		1.88	2.35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수준	193	2.89	0.11	193	2.55	0.83		2.43	2.67	6.872** 4)3,2,1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평균 3명 정도 있다
3수준	95	3.23	0.10	95	2.58	0.96		2.38	2.78		
4수준	64	3.72	0.18	64	2.88	1.05		2.61	3.14		
전체	404	3.04	0.40	404	2.55	0.92		2.46	2.64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4-5명 있다

***p<.001, **p<.01, *p<.05

표 V-229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동 행동지표 특성 : 취미활동(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2	2.43	0.19	52	2.06	1.24	1.71	2.40	10.355** 4)2>1 3>1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2수준	193	2.89	0.11	193	2.73	1.15	2.57	2.89		
3수준	95	3.23	0.10	95	2.97	1.09	2.75	3.19		
4수준	64	3.72	0.18	64	3.17	1.15	2.88	3.46		
전체	404	3.04	0.40	404	2.77	1.19	2.65	2.89		

***p<.001, **p<.01, *p<.05

표 V-230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차별화행동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80	1.99	0.24	80	2.67	0.56	2.54	2.79	4.095** 4,3,2>1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2수준	149	2.53	0.13	149	2.89	0.59	2.79	2.98		
3수준	127	2.99	0.13	127	2.93	0.56	2.83	3.03		
4수준	52	3.52	0.25	52	2.94	0.57	2.78	3.10		
전체	408	2.69	0.50	408	2.87	0.58	2.81	2.92		

***p<.001, **p<.01, *p<.05

표 V-231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행동지표 특성 : 도전활동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80	1.99	0.24	80	2.53	0.80	2.35	2.70	7.768** 4.3>1 3>2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관심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일에 시도해 본다
2수준	149	2.53	0.13	149	2.72	0.88	2.58	2.87		
3수준	127	2.99	0.13	127	3.05	0.83	2.90	3.19		
4수준	52	3.52	0.25	52	3.06	1.04	2.77	3.35		
전체	408	2.69	0.50	408	2.83	0.90	2.74	2.92		

***p<.001, **p<.01, *p<.05

(5)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232와 같다.

표 V-232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개발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1수준	1.43	진로적성검사에 2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44		
		3수준	1.69		
		4수준	1.43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1수준	2.42	진로적성검사에 평균 4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61		
		3수준	1.80		
		4수준	1.73		
	진로상담 참여횟수	1수준	1.57	진로상담에 4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60		
		3수준	2.84		
		4수준	1.96		
	진로상담 참여시간	1수준	2.00	진로상담에 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44		
		3수준	4.73		
		4수준	2.52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 활동 경험	직업체험교육 참여횟수	1수준	1.33	직업체험교육에 7회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28	
		3수준	3.15	
		4수준	2.85	
	직업체험교육 참여시간	1수준	3.20	학생마다 개별적 차이는 있으나 직업체험교육에 6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0.35	
		3수준	30.36	
		4수준	13.38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1수준	2.22	직업관련 견학에 평균 1회 ~ 3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37	
		3수준	1.88	
		4수준	1.91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1수준	4.57	직업체험 견학에 평균 28시간 이내로 참여하고 있다
		2수준	11.15	
		3수준	13.45	
		4수준	7.34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1수준	1.60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평균 1회에서 7회 정도 만난다
		2수준	2.70	
		3수준	4.02	
		4수준	3.29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진로개발	진로 활동 경험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1수준	5.63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평균 30시간 이내로 만난다
			2수준	8.88	
			3수준	13.08	
			4수준	4.07	
	진로명확성		1수준	2.43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중들 중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지 탐색 중이다
			2수준	2.92	
			3수준	3.18	
			4수준	3.42	
여가활동	언어 여가 경험	활동개수	1수준	1.97	여가활동에 평균 2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다
			2수준	2.07	
			3수준	2.33	
			4수준	2.38	
	활동횟수		1수준	3.36	여가활동에 평균 2-5회 정도 참여한다
			2수준	3.01	
			3수준	2.71	
			4수준	4.05	
여가활동 동료		1수준	2.12	취미활동을 함께 할 친구가 1-2명 있다	
		2수준	2.55		
		3수준	2.58		
		4수준	2.88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	2.06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좋아하지시는 않는다
		2수준	2.73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 주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3수준	2.97	부모님은 취미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시고 일부 도와주신다
		4수준	3.17	
	치별화행동	1수준	2.67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나 결국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2수준	2.89	일상생활이나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본다
		3수준	2.93	
		4수준	2.94	
	도전활동	1수준	2.53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따라서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2수준	2.72	
3수준		3.05	관심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일에 시도해 본다	
4수준		3.06		

(6)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개발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23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진로 설계	유형 1	138	3.44	0.21	690.177**	유형 3)2)1
	유형 2	205	2.95	0.12		
	유형 3	63	2.50	0.23		
	전체	406	3.05	0.37		
여가 활용	유형 1	262	2.98	0.16	831.681**	유형 2)1)3
	유형 2	85	3.64	0.21		
	유형 3	57	2.45	0.19		
	전체	404	3.04	0.40		
개척 정신	유형 1	136	3.24	0.28	796.746**	유형 1)2)3
	유형 2	192	2.60	0.17		
	유형 3	80	1.99	0.24		
	전체	408	2.69	0.50		

*p<.05, **p<.01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유형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세가지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별 진로개발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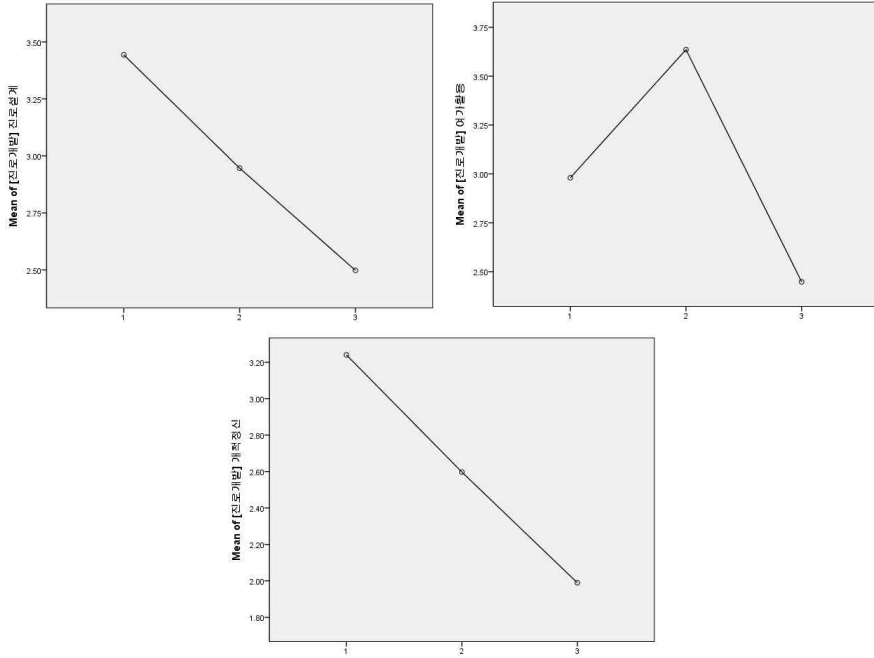


그림 V-23 대학생 진로설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은 높은 수준이고 여가활용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유형 2는 여가활용은 높은수준이나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강점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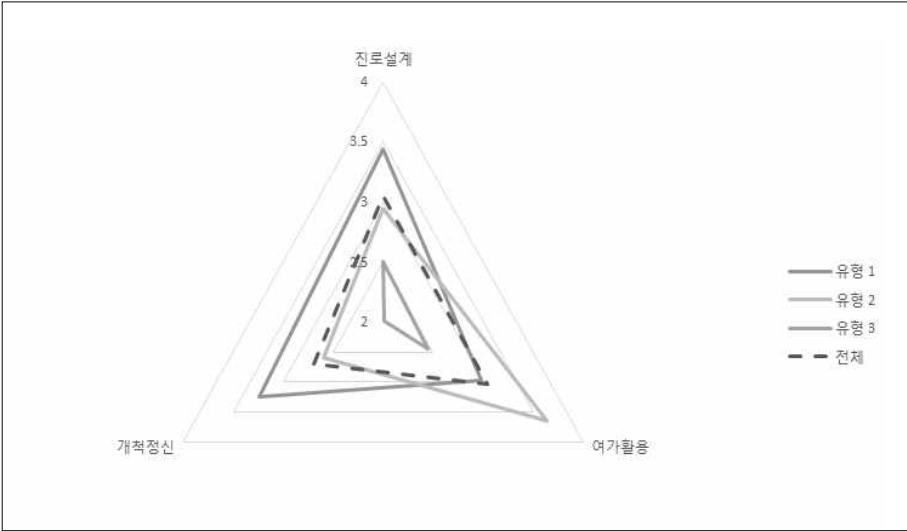


그림 V-2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의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탐색실천형’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유형 2는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은 중간수준이나 여가활용능력의 우수한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체험형’으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유형 3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서 대체로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동적 진로탐색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34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진로 개발 역량	진로탐색실천형 (유형 1)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이나 여가활동은 중간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 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 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 수준에 해당함
			진로정확성	3-4 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 경험	활동개수	전체 수준에 해당함
					활동 횟수	전체 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2-3 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2 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행동	2-4 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3-4 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진로 개발 역량	진로체험형 (유형 2)	진로 설계와 개척정신은 중간 수준이나 여가활동은 높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 활동 경험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 경험	진로정확성	1-2수준에 해당함
					활동개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여가활동 동료	4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3-4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행동	2-4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1-2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하위역량	행동지표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진로 개발 역량	소극적 진로탐색형 (유형 3)	진로설계, 여가활동, 개척정신에 있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함	진로설계	진로적성검사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적성검사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상담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체험교육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직업관련견학 참여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시간	전체수준에 해당함
				진로정확성	1-2수준에 해당함
			여가 활동 경험	활동개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활동횟수	전체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동료	1수준에 해당함
			여가활동	여가활동 부모의 지지	1수준에 해당함
				차별화활동	1-2수준에 해당함
				도전활동	1-2수준에 해당함
			개척정신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따른 행동지표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형성에 따른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이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는 '0. 없음', '1. 주 1-2회', '2. 주3-4회', '3. 주5-6회', '4. 주7회'로 측정되었으며,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는 '0. 없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으로, '1. 없음', '2. 소속되어 있지만 거의 활동하지 않음', '3. 활동은 하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지는 않음', '4. 리더는 아니지만,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함', '5. 모임의 리더로서,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었으며, '1. 소속된 단체 없음', '2.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3.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다', '4.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 '5.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235와 같다.

* 이 절은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 V-23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교

역량	행동지표	N	M	S.D.	Min	Max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132	2.51	1.20	0.00	4.00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130	2.57	1.71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130	1.53	1.53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132	1.52	1.73	0.00	5.00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124	2.69	1.24	1.00	5.00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086	2.89	1.45	1.00	5.00

관계형성의 행동지표 평균은 다음과 같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평균 2.51(SD=1.20)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가 친구와 대화 및 놀이하는 정도는 주 3-4회 정도가 가장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평균은 2.57,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의 평균은 1.53,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평균은 1.52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친구는 2-3명 정도,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교사는 1-2명,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은 1-2명 정도임을 의미한다.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으로 평균 2.69점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협력수준으로 평균 2.89점으로 나타났다. 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 및 협력수준은 평균이 모두 3점 이하로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리더로서 활동하는 정도 및 협동하는 정도는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초등학교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초등학교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36과 같다.

표 V-236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116	.066(.065) /78.920***	.580	.257	8.884***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114	.214(.213) /302.966***	1.482	.463	17.406***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114	.087(.086) /106.382***	.844	.295	10.314***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116	.068(.067) /81.557***	.841	.261	9.031***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109	.048(.047) /55.208***	.460	.218	7.430***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072	.055(.055) /62.772***	.617	.235	7.923***

***p<.001, **p<.01, *p<.05

초등학교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관계형성은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beta=.257$, $t=8.884$, $p<.001$),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beta=.463$, $t=17.406$, $p<.001$),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beta=.295$, $t=10.314$, $p<.001$),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beta=.261$, $t=9.031$, $p<.0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beta=.218$, $t=7.430$, $p<.001$)에, 협동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beta=.235$, $t=7.923$,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교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37과 같다.

표 V-237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관계형성	1,118	3.03	0.53	1수준	142 (12.7)	2.09	0.35
				2수준	448 (40.1)	2.80	0.16
				3수준	322 (28.8)	3.27	0.15
				4수준	206 (18.4)	3.77	0.15
리더십	1,119	2.83	0.59	1수준	182 (16.3)	1.91	0.33
				2수준	344 (30.7)	2.58	0.15
				3수준	404 (36.1)	3.06	0.14
				4수준	189 (16.9)	3.71	0.20
협동	1,119	3.00	0.55	1수준	169 (15.1)	2.13	0.32
				2수준	499 (44.6)	2.82	0.17
				3수준	260 (23.2)	3.32	0.15
				4수준	191 (17.1)	3.83	0.1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원점수 3.03(SD=.53)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42명(12.7%), 2수준은 448명(40.1%), 3수준은 322명(28.8%), 4수준은 206명(18.4%)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7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27점), 2수준(2.80점), 1수준(2.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원점수 2.83(SD=0.59)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82명(16.3%), 2수준은 344명(30.7%), 3수준은 404명(36.1%), 4수준은 189명(16.9%)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7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06점), 2수준(2.58점), 1수준(1.91점)순으로 나타났다.

협동 원점수 3.00(SD=0.55)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69명(15.1%), 2수준은 499명(44.6%), 3수준은 260명(23.2%), 4수준은 191명(17.1%)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8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32점), 2수준(2.82점), 1수준(2.13점)순으로 나타났다.

(4)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계형성 행동지표의 특성

관계형성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로 구분된다. 관계형성 4수준에 따라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계형성 3수준(평균 2.70), 4수준(평균 2.89) 집단이 2수준(평균 2.35), 1수준(평균 1.99)에 비해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정도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1수준은 ‘주 2회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주 3-4회(관계형성 2수준에 해당)’, 3, 4수준은 동일하게 ‘주 5회 이상(관계형성 3,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4수준(평균 3.47)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수준(평균 3.03), 2수준(평균 2.34), 1수준(평균 0.91)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특성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1수준은 ‘1명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2명(관계형성 2수준에 해당)’, 3수준은 ‘3명(관계형성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4명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형성 3, 4수준이 고민상담할 수 있는 교사와 주변 어른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수준,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1수준은 '0명(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1명(관계형성 2수준에 해당)', 3수준, 4수준은 동일하게 '2명 이상(관계형성 3,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표 V-238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횟수)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2	2.09	0.35	142	1.99	1.26	142	1.78	2.20	22.029*** 4,3>2>1	주 2회 이하
2수준	448	2.80	0.16	447	2.35	1.15	447	2.24	2.46		주3-4회
3수준	322	3.27	0.15	321	2.70	1.17	321	2.57	2.83		주 5회 이상
4수준	206	3.77	0.15	206	2.89	1.15	206	2.73	3.05		
전체	1,118	3.03	0.53	1,116	2.50	1.20	1,116	2.43	2.58		

***p<.001, **p<.01, *p<.05

표 V-239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2	2.09	0.35	142	0.91	1.18	142	0.71	1.10	92.752*** 4>3>2>1	1명 이하
2수준	448	2.80	0.16	447	2.34	1.62	447	2.18	2.49		2명
3수준	322	3.27	0.15	320	3.03	1.53	320	2.86	3.20		3명
4수준	206	3.77	0.15	205	3.47	1.53	205	3.26	3.68		4명 이상
전체	1,118	3.03	0.53	1,114	2.56	1.71	1,114	2.46	2.66		

***p<.001, **p<.01, *p<.05

표 V-240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2	2.09	0.35		142	0.59	0.84		0.45	0.73	33.343*** 4,3)2>1	0명
2수준	448	2.80	0.16		447	1.37	1.41		1.24	1.50		1명
3수준	322	3.27	0.15		321	1.78	1.53		1.61	1.95		2명 이상
4수준	206	3.77	0.15		204	2.06	1.77		1.82	2.31		2명 이상
전체	1,118	3.03	0.53		1,114	1.52	1.52		1.43	1.61		

***p<.001, **p<.01, *p<.05

표 V-241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2	2.09	0.35		142	0.63	1.10		0.45	0.82	24.272*** 4,3)2>1	0명
2수준	448	2.80	0.16		447	1.35	1.58		1.20	1.50		1~2명
3수준	322	3.27	0.15		321	1.79	1.81		1.59	1.98		2명 이상
4수준	206	3.77	0.15		206	2.04	1.93		1.77	2.30		2명 이상
전체	1,118	3.03	0.53		1,116	1.51	1.72		1.41	1.61		

***p<.001, **p<.01, *p<.05

② 리더십의 행동지표 특성

리더십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다. 리더십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역량 4수준(평균 3.13)이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수준(평균 2.80)이 높았다. 한편, 1수준(평균 2.36)과 2수준(평균 2.47)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더십 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활동 수준 1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리더십 1, 2수준에 해당)’, 2수준은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리더십 3수준에 해당)’, 3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리더십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42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82	1.91	0.33	180	2.36	1.10	2.20	2.52	17.702*** 4)3)1,2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344	2.58	0.15	343	2.47	1.17	2.34	2.59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3수준	404	3.06	0.14	398	2.80	1.24	2.68	2.92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189	3.71	0.20	188	3.13	1.33	2.94	3.32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전체	1119	2.83	0.59	1,109	2.68	1.24	2.61	2.76		

***p<.001, **p<.01, *p<.05

③ 협동 행동지표의 특성

협동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다. 관계형성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동역량 4수준(평균 3.30)이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수준(평균 2.82), 1수준(평균 2.31)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동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는 편임(협동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협동 2수준에 해당)’, 3, 4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협동 3,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43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69	2.13	0.32	162	2.31	1.22	2.12	2.50	16.351*** 4)2)1, 3)1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는 편임.
2수준	499	2.82	0.17	476	2.82	1.38	2.69	2.94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3수준	260	3.32	0.15	252	3.11	1.53	2.92	3.30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 으로 제시하는 편임.
4수준	191	3.83	0.14	182	3.30	1.53	3.08	3.53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 으로 제시하는 편임.
전체	1119	3.00	0.55	1,072	2.89	1.45	2.81	2.98		

***p<.001, **p<.01, *p<.05

(5)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244와 같다.

표 V-244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수준	1.99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2회 이하로 적음.			
		2수준	2.35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3~4회 정도로 보통수준임.			
		3수준	2.70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5회 정도로			
		4수준	2.89	찾은 편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수준	0.9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거나 1명 이하로 적음.			
		2수준	2.34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2명 정도 있음.			
		3수준	3.03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정도 있음.			
		4수준	3.47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4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수준	0.59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음.			
		2수준	1.37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있음.			
		3수준	1.78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2명 이상임.			
		4수준	2.06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수준	0.63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없음.			
		2수준	1.35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3수준	1.79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2명 이상임.			
		4수준	2.04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	2.36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2.47				
		3수준	2.80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3.13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	2.31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는 편임.	
				2수준	2.82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3수준	3.11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4수준	3.30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수준	평균						
1수준	2.09						
2수준	2.80						
3수준	3.27						
4수준	3.77						
전체	3.03						
수준	평균						
1수준	1.91						
2수준	2.58						
3수준	3.06						
4수준	3.71						
전체	2.83						
수준	평균						
1수준	2.13						
2수준	2.82						
3수준	3.32						
4수준	3.83						
전체	3.00						

(6)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24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초등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관계 형성	유형 1	333	3.56	0.29	833.274***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558	2.95	0.30		
	유형 3	201	2.35	0.47		
	전체	1,092	3.03	0.54		
리더십	유형 1	333	3.44	0.35	1130.099***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558	2.76	0.30		
	유형 3	201	2.02	0.40		
	전체	1,092	2.83	0.59		
협동	유형 1	333	3.61	0.29	1377.467***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558	2.91	0.26		
	유형 3	201	2.25	0.38		
	전체	1,092	3.00	0.56		

*p<.05, **p<.01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대인관계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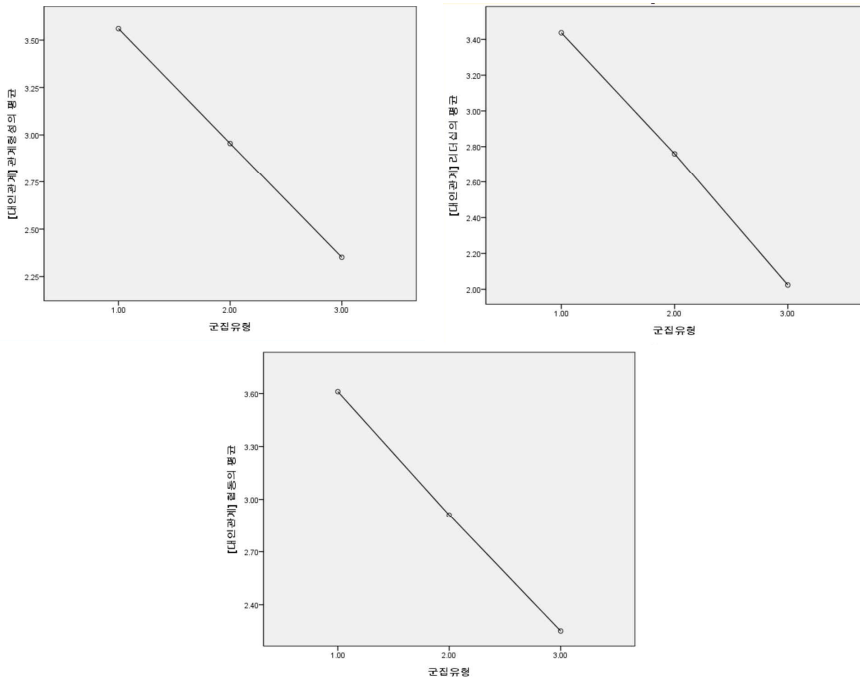


그림 V-25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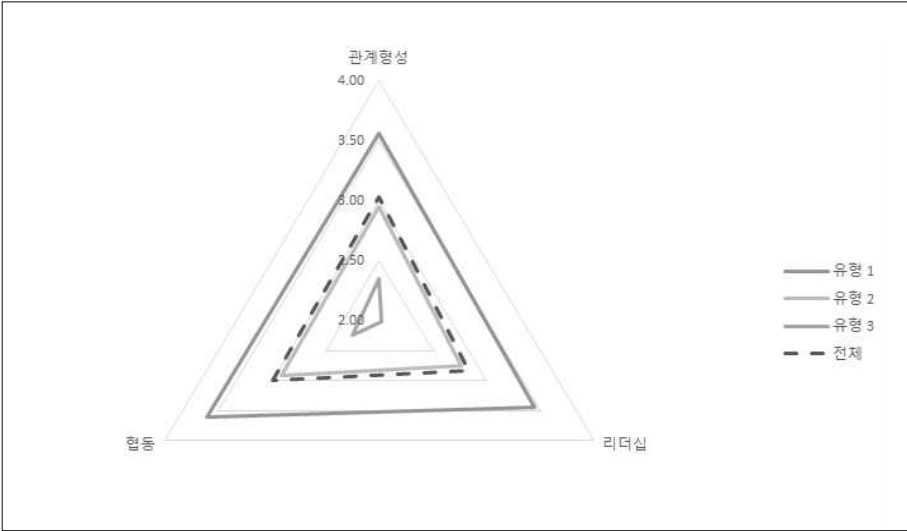


그림 V-26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행동지표의 수준별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이 모두 뛰어난 유형으로, 친화적이며, 자기개방적이고, 소속된 단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며, 협력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1의 특성을 종합하면 외향적인 유형(주도적-관계중심적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형 2는 원만형(평균형)으로 타인과의 관계형성하는 역량, 소속된 단체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거나 협동하는 역량이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이는 유형이다. 유형 3은 유형1과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데, 타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유형 3은 내성적 유형(소극적-개인중심적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V-246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대인 관계 역량	유형1	외향적 유형 (주도적- 관계지향적 유형)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3~4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3~4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3~4수준에 해당함
	유형2	원만형 (평균형)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2~3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2~3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2~3수준에 해당함
	유형3	내성적 유형 (소극적- 개인중심적 유형)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2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2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2수준에 해당함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244〉 참조.

2)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따른 행동지표는 다음과 같다. 관계형성에 따른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이다.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결과는 표 V-247과 같다.

표 V-24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Min	Max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042	2.66	1.20	0.00	4.00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043	3.15	1.66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042	1.44	1.61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042	1.43	1.76	0.00	5.00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038	2.84	1.11	1.00	5.00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003	3.11	1.32	1.00	5.00

중학생 관계형성의 행동지표 평균은 다음과 같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평균 2.66(SD=1.20)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는 주 3-4회 정도가 가장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평균은 3.15,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의 평균은 1.44,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평균은 1.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친구는 약 3명 정도,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교사는 1-2명,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은 1-2명 정도임을 의미한다.

중학생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으로 평균 2.84점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협력수준으로 평균 3.11점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초등학생(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 : 평균 2.69점, 소속단체에서의 협력수준 : 평균 2.89점)에 비해 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 및 협력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48과 같다.

표 V-248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038	.033(.032) /35.511***	.447	.182	5.361***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039	.115(0.115) /135.248***	1.155	.340	11.63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038	.041(.040) /44.659***	.671	.203	6.683***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038	.034(.033) /36.203***	.664	.184	6.017***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031	.058(.057) /62.843***	.498	.240	7.927***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000	.065(.064) /69.552***	.663	.255	8.340***

*** $p < .001$, ** $p < .01$, * $p < .05$

중학생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관계형성은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beta=.182$, $t=5.361$, $p<.001$),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beta=.340$, $t=11.630$, $p<.001$),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beta=.203$, $t=6.683$, $p<.001$),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beta=.184$, $t=6.0171$, $p<.0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beta=.240$, $t=7.927$, $p<.001$)에, 협동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beta=.255$, $t=8.340$,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49와 같다.

표 V-249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관계형성	1,039	3.11	0.49	1수준	125	(12.0)	2.32	0.35
				2수준	472	(45.4)	2.90	0.13
				3수준	258	(24.8)	3.36	0.15
				4수준	184	(17.7)	3.86	0.13
리더십	1,036	2.90	0.53	1수준	144	(13.9)	2.03	0.33
				2수준	411	(39.7)	2.71	0.15
				3수준	303	(29.2)	3.09	0.12
				4수준	178	(17.2)	3.73	0.22
협동	1,039	3.09	0.51	1수준	144	(13.9)	2.26	0.33
				2수준	463	(44.6)	2.91	0.12
				3수준	254	(24.4)	3.32	0.15
				4수준	178	(17.1)	3.88	0.14

중학생의 관계형성 원점수 3.11(SD=.49)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25명(12.0%), 2수준은 472명(45.4%), 3수준은 258명(24.8%), 4수준은 184명(17.4%)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8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36점), 2수준(2.90점), 1수준(2.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원점수 2.90(SD=0.53)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44명(13.9%), 2수준은 411명(39.7%), 3수준은 303명(29.2%), 4수준은 178명(17.2%)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7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09점), 2수준(2.71점), 1수준(2.03점)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 원점수 3.09(SD=0.51)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44명(13.9%), 2수준은 463명(44.6%), 3수준은 254명(24.4%), 4수준은 178명(17.1%)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8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32점), 2수준(2.91점), 1수준(2.26점) 순으로 나타났다.

(4)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중학생의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계형성 행동지표의 특성

중학생의 관계형성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로 구분된다. 관계형성 4수준에 따라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계형성 4수준(평균 2.97)집단이 2수준(평균 2.59), 1수준(평균 2.25)에 비해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정도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1수준은 '주 4회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주 5회(관계형성 2수준에 해당)', 3, 4수준은 동일하게 '주 6회 이상(관계형성 3,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형성 4수준(평균 3.70)집단이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수준(평균 3.10), 1수준(평균 1.81)순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1수준은 '2명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3명(관계형성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4명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형성 4수준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와 주변 어른 수가 가장 많았으며, 1수준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1수준은 '0명(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동일하게 '1명(관계형성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동일하게 '2명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표 V-250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25	2.32	0.35	125	2.25	1.24	2.03	2.47	10.410*** 4>2>1, 3>1	주 4회 이하
2수준	472	2.90	0.13	471	2.59	1.19	2.48	2.70		주 5회
3수준	258	3.36	0.15	258	2.76	1.17	2.62	2.91		주 6회 이상
4수준	184	3.86	0.13	184	2.97	1.15	2.80	3.14		주 6회 이상
전체	1,039	3.11	0.49	1,038	2.66	1.20	2.59	2.73		

***p<.001, **p<.01, *p<.05

표 V-251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25	2.32	0.35	125	1.81	1.63	1.52	2.10	42.641*** 4>2>1, 3>1	2명 이하
2수준	472	2.90	0.13	472	3.10	1.62	2.95	3.24		3명
3수준	258	3.36	0.15	258	3.51	1.50	3.32	3.69		3명
4수준	184	3.86	0.13	184	3.70	1.48	3.48	3.91		4명 이상
전체	1,039	3.11	0.49	1,039	3.15	1.66	3.05	3.25		

***p<.001, **p<.01, *p<.05

표 V-252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25	2.32	0.35	125	0.76	1.18		0.55	0.97	13.471*** 4)2>1, 3>1	없음
2수준	472	2.90	0.13	471	1.39	1.60		1.25	1.54		1명
3수준	258	3.36	0.15	258	1.52	1.60		1.32	1.71		1명
4수준	184	3.86	0.13	184	1.91	1.75		1.66	2.17		2명 이상
전체	1,039	3.11	0.49	1,038	1.44	1.61		1.34	1.54		

***p<.001, **p<.01, *p<.05

표 V-253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25	2.32	0.35	125	0.89	1.39		0.64	1.13	11.029*** 4)3>1, 4>2	없음
2수준	472	2.90	0.13	471	1.33	1.72		1.18	1.49		1명
3수준	258	3.36	0.15	258	1.50	1.80		1.28	1.72		1명
4수준	184	3.86	0.13	184	1.99	1.91		1.71	2.27		2명 이상
전체	1,039	3.11	0.49	1,038	1.44	1.76		1.33	1.54		

***p<.001, **p<.01, *p<.05

② 리더십의 행동지표 특성

리더십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다. 리더십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역량 4수준(평균 3.32)이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수준(평균 2.89), 2수준(평균 2.74)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리더십 1수준(평균 2.44)의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더십 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리더십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리더십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리더십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54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4	2.03	0.33	143	2.44	1.01	2.28	2.61	19.773*** 4)2=3)1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411	2.71	0.15	410	2.74	1.03	2.64	2.84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수준	303	3.09	0.12	301	2.89	1.15	2.76	3.02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178	3.73	0.22	177	3.32	1.11	3.16	3.49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전체	1,036	2.90	0.53	1,031	2.84	1.11	2.77	2.91		

***p<.001, **p<.01, *p<.05

③ 협동 행동지표의 특성

협동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다. 협동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동역량 3수준(평균 3.42)과 4수준(평균 3.59)이 1수준(평균 2.58)과 2수준(평균 2.92)에 비해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동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은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을 이야기하는 편임(협동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협동 2수준에 해당)’, 3, 4수준은 동일하게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협동 3,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55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44	2.26	0.33	136	2.58	1.18	2.38	2.78	24.112*** 4,3)2,1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 적을 이야기하는 편임.
2수준	463	2.91	0.12	443	2.92	1.30	2.80	3.04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 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3수준	254	3.32	0.15	246	3.42	1.25	3.27	3.58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 으로 제시하는 편임.
4수준	178	3.88	0.14	175	3.59	1.34	3.39	3.79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 으로 제시하는 편임.
전체	1,039	3.09	0.51	1000	3.12	1.32	3.03	3.20		

***p<.001, **p<.01, *p<.05

(5)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중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256과 같다.

표 V-256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수준	2.25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4회 이하임.	
		2수준	2.59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5회 정도임.	
		3수준	2.76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6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4수준	2.97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6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수준	1.8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2명 이하로 적음.	
		2수준	3.10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3수준	3.5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4수준	3.70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4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수준	0.76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음.	
		2수준	1.39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있음.	
		3수준	1.52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있음.	
		4수준	1.9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2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수준	0.89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없음.	
		2수준	1.33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3수준	1.50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4수준	1.99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2명 이상임.	
	수준	평균			
	1수준	2.32			
	2수준	2.90			
	3수준	3.36			
4수준	3.86				
전체	3.11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	1.44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2.74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수준	2.89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3.32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수준	평균			
	1수준	2.03			
	2수준	2.71			
	3수준	3.09			
	4수준	3.73			
전체	2.90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	2.58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을 이야기하는 편임.
수준	평균		2수준	2.92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1수준	2.26		3수준	3.42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2수준	2.91				
3수준	3.32				
4수준	3.88		4수준	3.59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전체	3.09				

(6)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중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25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중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관계 형성	유형 1	266	3.66	0.30	682.789***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582	3.04	0.30		
	유형 3	181	2.56	0.41		
	전체	1,029	3.11	0.49		
리더십	유형 1	266	3.48	0.38	850.633***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582	2.86	0.28		
	유형 3	181	2.19	0.38		
	전체	1,029	2.90	0.53		
협동	유형 1	266	3.68	0.31	1072.563***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582	3.03	0.24		
	유형 3	181	2.39	0.39		
	전체	1,029	3.08	0.51		

*p<.05, **p<.01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대인관계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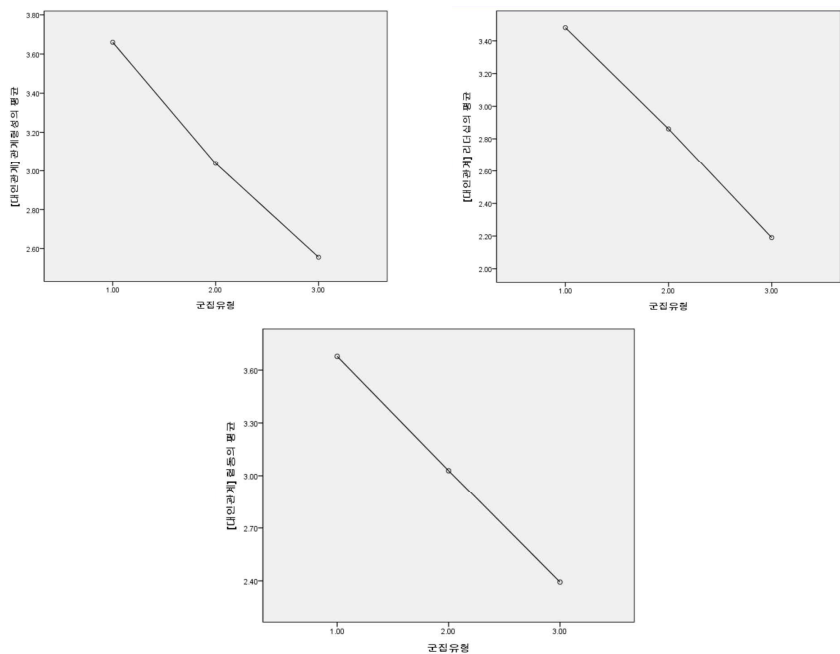


그림 V-27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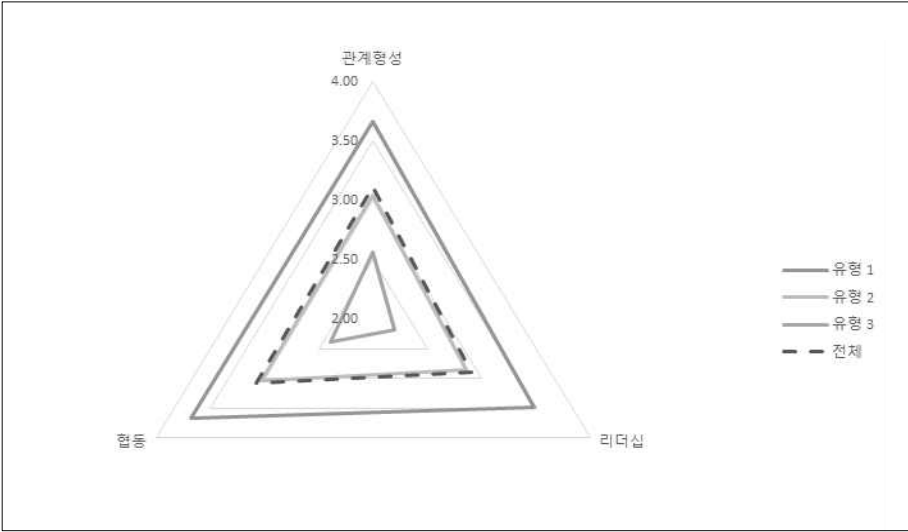


그림 V-28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특성 또한 초등학생의 유형과 동일하게 구분되었다. 즉, 유형1은 외향적인 유형(주도적-관계중심적 유형), 유형 2는 원만형(평균형), 유형 3은 내성적 유형(소극적-개인중심적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58 중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대인 관계 역량	유형1	외향적 유형 (주도적- 관계지향적 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3~4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3~4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3~4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대인 관계 역량	유형2	원만형 (평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2~3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2~3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2~3수준에 해당함
	유형3	내성적 유형 (소극적- 개인중심적 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2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2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2수준에 해당함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256> 참조.

3)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따른 행동지표는 다음과 같다. 관계형성에 따른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이다.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259와 같다.

표 V-25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Min	Max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396	2.71	1.22	0.00	4.00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393	3.08	1.59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395	1.24	1.44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395	1.24	1.64	0.00	5.00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392	3.18	1.06	1.00	5.00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351	3.61	1.23	1.00	5.00

고등학생 관계형성의 행동지표 평균은 다음과 같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평균 2.71(SD=1.22)로 나타났다. 한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평균은 3.08,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의 평균은 1.24,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평균은 1.24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친구는 약 3명 정도,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교사는 약 1명,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은 약 1명 정도임을 의미한다.

고등학생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으로 평균 3.18점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협력수준으로 평균 3.61점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의 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 및 협력수준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60과 같다.

표 V-260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392	.047(.046) /68.205***	.584	.216	8.259***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389	.142(.142) /230.316***	1.325	.377	15.176***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391	.061(.060) /90.333***	.788	.247	9.504***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391	.040(.039) /57.331***	.723	.199	7.572***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388	.102(.102) /157.919***	.693	.320	12.567***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348	.101(.101) /151.366***	.843	.318	12.303***

*** $p < .001$, ** $p < .01$, * $p < .05$

고등학생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관계형성은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beta = .216$, $t = 8.259$, $p < .001$),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beta = .377$, $t = 15.176$, $p < .001$),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beta = .247$, $t = 9.504$, $p < .001$),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beta = .199$, $t = 7.572$, $p < .0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beta = .320$, $t = 12.567$, $p < .001$)에, 협동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beta = .318$, $t = 12.303$, $p < .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61과 같다.

표 V-261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관계형성	1,386	3.09	0.42	1수준	174 (12.5)	2.46	0.28
				2수준	637 (45.8)	2.97	0.12
				3수준	323 (23.2)	3.41	0.12
				4수준	258 (18.5)	3.86	0.13
리더십	1,392	3.17	0.45	1수준	213 (15.3)	2.20	0.32
				2수준	480 (34.5)	2.76	0.12
				3수준	465 (33.4)	3.09	0.12
				4수준	234 (16.8)	3.73	0.21
협동	1,392	2.95	0.49	1수준	176 (12.6)	2.39	0.35
				2수준	631 (45.3)	2.95	0.10
				3수준	335 (24.0)	3.36	0.13
				4수준	251 (18.0)	3.86	0.14

고등학생의 관계형성 원점수 3.09(SD=.42)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74명(12.5%), 2수준은 637명(45.8%), 3수준은 323명(23.2%), 4수준은 258명(18.5%)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8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41점), 2수준(2.97점), 1수준(2.46점)순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원점수 3.17(SD=0.45)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213명(15.3%), 2수준은 480명(34.5%), 3수준은 465명(33.4%), 4수준은 234명(16.8%)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7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09점), 2수준(2.76점), 1수준(2.20점)순으로 나타났다.

협동 원점수 2.95(SD=0.49)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176명(12.6%), 2수준은 631명(45.3%), 3수준은 335명(24.0%),

4수준은 251명(18.0%)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8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36점), 2수준(2.95점), 1수준(2.39점)순으로 나타났다.

(4)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계형성 행동지표의 특성

고등학생의 관계형성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로 구분된다. 관계형성 4수준에 따라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계형성 4수준(평균 3.05)집단이 2수준(평균 2.66), 1수준(평균 2.18)에 비해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정도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1수준은 '주 4회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주 5회(관계형성 2수준에 해당)', 3, 4수준은 동일하게 '주 6회 이상(관계형성 3,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형성 4수준(평균 3.87)집단이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수준(3.31점), 2수준(평균 3.01), 1수준(평균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1수준은 '2명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3명(관계형성 2수준,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동일하게 '4명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형성 4수준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와 주변 어른 수가 가장 많았으며, 1수준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1수준은 '0명(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동일하게 '1명(관계형성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동일하게 '2명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표 V-262 고등학교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4	2.46	0.28	174	2.18	1.31	1.99	2.38	19.205*** 4)2>1, 3>1	주 4회 이하
2수준	637	2.97	0.12	637	2.66	1.18	2.57	2.76		주 5회
3수준	323	3.41	0.12	323	2.82	1.21	2.69	2.95		주 6회 이상
4수준	258	3.86	0.13	258	3.05	1.14	2.91	3.19		주 6회 이상
전체	1,392	3.17	0.45	1,392	2.71	1.22	2.65	2.78		

***p<.001, **p<.01, *p<.05

표 V-263 고등학교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4	2.46	0.28	174	1.74	1.56	1.50	1.97	75.948*** 4)2=3>1	2명 이하
2수준	637	2.97	0.12	634	3.01	1.50	2.89	3.12		3명
3수준	323	3.41	0.12	323	3.31	1.50	3.15	3.47		3명
4수준	258	3.86	0.13	258	3.87	1.30	3.71	4.03		4명 이상
전체	1,392	3.17	0.45	1,389	3.08	1.59	2.99	3.16		

***p<.001, **p<.01, *p<.05

표 V-264 고등학교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4	2.46	0.28	174	0.64	1.14		0.47	0.81		없음
2수준	637	2.97	0.12	636	1.15	1.33		1.05	1.25	25.929***	1명
3수준	323	3.41	0.12	323	1.28	1.43		1.12	1.43	4)2=3>1	1명
4수준	258	3.86	0.13	258	1.81	1.68		1.61	2.02		2명 이상
전체	1,392	3.17	0.45	1,391	1.24	1.44		1.16	1.31		

***p<.001, **p<.01, *p<.05

표 V-265 고등학교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4	2.46	0.28	174	0.71	1.25		0.53	0.90		없음
2수준	637	2.97	0.12	636	1.17	1.59		1.05	1.30	19.038***	1명
3수준	323	3.41	0.12	323	1.18	1.50		1.01	1.34	4)2=3>1	1명
4수준	258	3.86	0.13	258	1.85	1.97		1.61	2.09		2명 이상
전체	1,392	3.17	0.45	1,391	1.24	1.64		1.16	1.33		

***p<.001, **p<.01, *p<.05

② 리더십의 행동지표 특성

리더십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다. 리더십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역량 4수준(평균 3.77)이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수준(평균 3.29), 2수준(평균 3.02)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리더십 1수준(평균 2.64)의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더십 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리더십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리더십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리더십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66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213	2.20	0.32	212	2.64	0.94	2.52	2.77	52.870*** 4)3)2)1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480	2.76	0.12	480	3.02	1.01	2.93	3.11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수준	465	3.09	0.12	463	3.29	1.01	3.19	3.38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234	3.73	0.21	233	3.77	1.06	3.64	3.91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전체	1,392	2.95	0.49	1,388	3.18	1.06	3.12	3.23		

***p<.001, **p<.01, *p<.05

③ 협동 행동지표의 특성

협동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다. 협동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동역량 4수준(평균 4.1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평균 3.82), 2수준(평균 3.48), 1수준(평균 2.89)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동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은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임(협동 1수준에 해당)’, 2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협동 2수준에 해당)’, 3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협동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협동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67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176	2.39	0.35	168	2.89	1.12	2.72	3.06	44.602*** 4)3)2)1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임.
2수준	631	2.95	0.10	603	3.48	1.22	3.38	3.58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3수준	335	3.36	0.13	329	3.82	1.20	3.69	3.95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4수준	251	3.86	0.14	248	4.15	1.07	4.02	4.29		소속된 모임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전체	1,393	3.14	0.47	1,348	3.61	1.23	3.55	3.68		

***p<.001, **p<.01, *p<.05

(5)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268과 같다.

표 V-268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수준	2.18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4회 이하임.
		2수준	2.66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5회 정도임.
		3수준	2.82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6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4수준	3.05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6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수준	1.74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2명 이하로 적음.
		2수준	3.0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3수준	3.3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4수준	3.87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4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수준	0.64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음.
		2수준	1.15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있음.
		3수준	1.28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있음.
		4수준	1.8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2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수준	0.7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없음.
		2수준	1.17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3수준	1.18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4수준	1.85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2명 이상임.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	2.64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3.02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수준	3.29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3.77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리더십	수준	평균	
		1수준	2.20	
		2수준	2.76	
		3수준	3.09	
		4수준	3.73	
		전체	2.95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	2.89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임.
수준	평균		2수준	3.48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1수준	2.39		3수준	3.82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2수준	2.95		4수준	4.15	소속된 모임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3수준	3.36				
4수준	3.86				
전체	3.14				

(6)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26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관계 형성	유형 1	386	3.65	0.30	858.607***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775	3.09	0.29		
	유형 3	225	2.64	0.35		
	전체	1386	3.17	0.45		
리더십	유형 1	386	3.48	0.36	1234.044***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775	2.87	0.22		
	유형 3	225	2.29	0.38		
	전체	1386	2.95	0.49		
협동	유형 1	386	3.68	0.27	1428.479***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775	3.06	0.22		
	유형 3	225	2.52	0.39		
	전체	1386	3.14	0.47		

*p<.05, **p<.01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대인관계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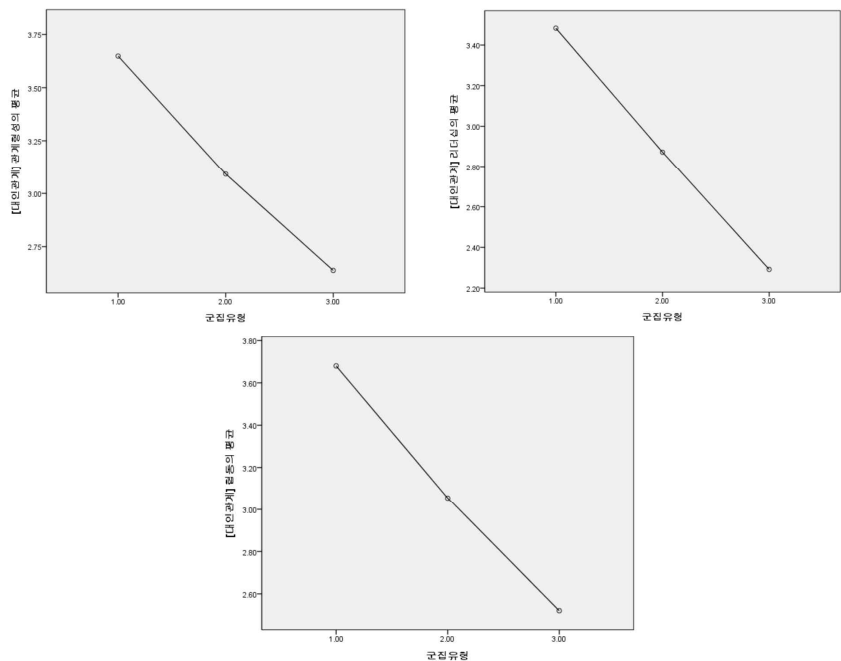


그림 V-29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관계형성, 지적도구활용능력, 협동)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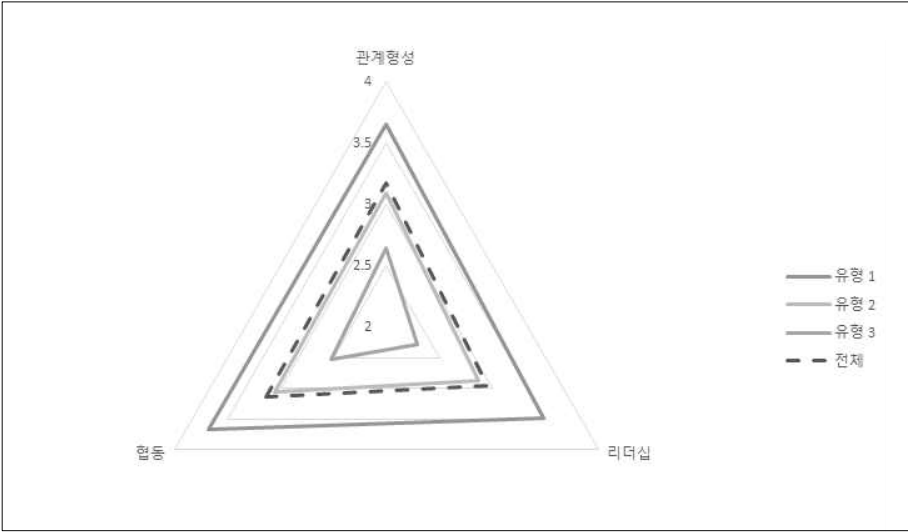


그림 V-30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특성 또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유형과 동일하게 구분되었다. 즉, 유형1은 외향적인 유형(주도적-관계중심적 유형), 유형 2는 원만형(평균형), 유형 3은 내성적 유형(소극적-개인중심적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70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대인 관계 역량	유형1	외향적 유형 (주도적- 관계지향적 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3~4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3~4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3~4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대인 관계 역량	유형2	원만형 (평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2~3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2~3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2~3수준에 해당함
	유형3	내성적 유형 (소극적- 개인중심적 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2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2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2수준에 해당함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268〉 참조.

4)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1)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따른 행동지표는 다음과 같다. 관계형성에 따른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이다.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V-271과 같다.

표 V-27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M	S.D.	Min	Max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413	2.03	1.15	0.00	4.00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413	3.13	1.34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412	1.01	1.37	0.00	5.00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413	1.45	1.44	0.00	5.00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412	2.69	1.28	1.00	5.00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401	3.02	1.51	1.00	5.00

대학생 관계형성의 행동지표 평균은 다음과 같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평균 2.03(SD=1.20)로 나타났다. 한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평균은 3.13,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의 평균은 1.01,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평균은 1.45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친구는 평균 3명 정도,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교사는 평균 1명,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은 평균 1명 정도임을 의미한다.

대학생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활동수준으로 평균 2.69점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단체에서의 협력수준으로 평균 3.02점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예측타당도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각 역량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72와 같다.

표 V-272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역량	행동지표	N	R2(adj. R2) / F	B	β	t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413	.050(.048) /21.818***	.627	.225	4.671***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413	.114(.112) /53.033***	1.103	.338	7.282***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412	.007(.004) /2.736	.271	.081	1.654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413	.039(.037) /16.619***	.693	.197	4.077***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411	.072(.069) /31.589***	.831	.268	5.620***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401	.039(.037) /16.359***	.758	.198	4.045***

*** $p < .001$, ** $p < .01$, * $p < .05$

대학생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각 행동지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관계형성은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를 제외한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beta=.225$, $t=4.671$, $p<.001$),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beta=.338$, $t=7.282$, $p<.001$),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beta=.197$, $t=4.077$,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beta=.268$, $t=5.620$, $p<.001$)에, 협동은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beta=.198$, $t=4.045$,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원점수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1이상=4수준, 1미만~0이상=3수준, 0미만~-1이상=2수준, -1미만=1수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73과 같다.

표 V-273 20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표준화(Z)점수에 따른 수준분석 결과

구분	역량 원점수			Z점수 수준에 따른 역량 원점수			
	N	M	SD	Z점수 수준	N(%)	M	SD
관계형성	413	3.15	0.41	1수준	48 (11.6)	2.52	0.17
				2수준	179 (43.3)	2.95	0.10
				3수준	114 (27.6)	3.29	0.11
				4수준	72 (17.4)	3.84	0.15
리더십	412	2.93	0.41	1수준	48 (11.7)	2.24	0.25
				2수준	146 (35.4)	2.74	0.12
				3수준	173 (42.0)	3.09	0.11
				4수준	45 (10.9)	3.72	0.23
협동	413	3.08	0.40	1수준	53 (12.8)	2.46	0.25
				2수준	187 (45.3)	2.93	0.10
				3수준	115 (27.8)	3.24	0.10
				4수준	58 (14.0)	3.79	0.18

대학생의 관계형성 원점수 3.15(SD=.41)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48명(11.6%), 2수준은 179명(43.4%), 3수준은 114명(27.6%), 4수준은 72명(17.4%)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8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29점), 2수준(2.95점), 1수준(2.52점)순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원점수 2.93(SD=0.41)을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48명(11.7%), 2수준은 146명(35.4%), 3수준은 173명(42.0%), 4수준은 45명(10.9%)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7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09점), 2수준(2.74점), 1수준(2.24점)순으로 나타났다.

협동 원점수 3.08(SD=0.40)를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하여 4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1수준은 53명(12.8%), 2수준은 187명(45.3%), 3수준은 115명(27.8%),

4수준은 58명(14.0%)로 구분되었다. 각 수준별 평균은 4수준이 3.7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수준(3.24점), 2수준(2.93점), 1수준(2.46점) 순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분석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행동지표의 특성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4수준별 기술통계분석결과와 ANOVA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계형성 행동지표의 특성

대학생의 관계형성 행동지표는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로 구분된다. 관계형성 4수준에 따라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계형성 3수준(평균 2.18)과 4수준(평균 2.97)집단이 1수준(평균 1.52)에 비해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의 1수준은 '주 2회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과 3수준은 '주 3-4회(관계형성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주 5회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계형성 4수준(평균 3.69)집단이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수준(평균 2.98), 1수준(평균 2.17)순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응답값과 분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의 1수준은 '2명 이하(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3명(관계형성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4명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는 관계형성역량 수준에 따라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응답값과 응답분포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행동특성을 구분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 2수준은 '0명(관계형성역량 1, 2수준에 해당)', 3, 4수준은 '1명 이상(관계형성역량 3,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는 관계형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수준(평균 1.48), 4수준(평균 1.96)이 1수준(평균 0.79)보다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형성 역량수준에 따른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수준은 '0명(관계형성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동일하게 '1명(관계형성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동일하게 '2명 이상(관계형성 4수준에 해당)'으로 분류하였다.

표 V-274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8	2.52	0.17	48	1.52	1.05		1.22	1.83	6.389*** 3, 4)1	주 2회 이하
2수준	179	2.95	0.10	179	1.94	1.15		1.77	2.11		주 3-4회
3수준	114	3.29	0.11	114	2.18	1.08		1.97	2.38		주 3-4회
4수준	72	3.84	0.15	72	2.36	1.18		2.08	2.64		주 5회 이상
전체	413	3.15	0.41	413	2.03	1.15		1.92	2.14		

***p<.001, **p<.01, *p<.05

표 V-275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6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8	2.52	0.17	48	2.17	1.36		1.77	2.56	16.764*** 4)2>1, 3>1	2명 이하
2수준	179	2.95	0.10	179	2.98	1.33		2.79	3.18		3명
3수준	114	3.29	0.11	114	3.42	1.17		3.20	3.64		3명
4수준	72	3.84	0.15	72	3.69	1.21		3.41	3.98		4명 이상
전체	413	3.15	0.41	413	3.13	1.34		3.00	3.26		

***p<.001, **p<.01, *p<.05

표 V-276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안의 정확도가)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8	2.52	0.17	48	0.88	1.28	48	0.50	1.25	.903	없음
2수준	179	2.95	0.10	179	0.92	1.32	179	0.73	1.12		없음
3수준	114	3.29	0.11	113	1.11	1.44	113	0.84	1.37		1명 이상
4수준	72	3.84	0.15	72	1.17	1.42	72	0.83	1.50		1명 이상
전체	413	3.15	0.41	412	1.01	1.37	412	0.88	1.14		

***p<.001, **p<.01, *p<.05

표 V-277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행동지표 특성 :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시간이)
	N	M	SD	N	M	SD	N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8	2.52	0.17	48	0.79	0.94	48	0.52	1.07	6.637*** 3, 4>1	없음
2수준	179	2.95	0.10	179	1.41	1.37	179	1.21	1.61		1명
3수준	114	3.29	0.11	114	1.48	1.40	114	1.22	1.74		1명
4수준	72	3.84	0.15	72	1.96	1.76	72	1.54	2.37		2명 이상
전체	413	3.15	0.41	413	1.45	1.44	413	1.31	1.59		

***p<.001, **p<.01, *p<.05

② 리더십의 행동지표 특성

리더십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다. 리더십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역량 4수준(평균 3.59)이 1수준(평균 2.17), 2수준(평균 2.55), 3수준(평균 2.74)에 비해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더십 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리더십 1수준에 해당)’, 2수준, 3수준은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리더십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리더십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78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48	2.24	0.25	48	2.17	1.24	1.81	2.53	11.637*** 4)1,2,3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146	2.74	0.12	145	2.55	1.16	2.36	2.74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수준	173	3.09	0.11	173	2.74	1.26	2.55	2.92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45	3.72	0.23	45	3.59	1.30	3.20	3.98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전체	412	2.93	0.41	411	2.70	1.27	2.57	2.82		

***p<.001, **p<.01, *p<.05

③ 협동 행동지표의 특성

협동역량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다. 협동 4수준에 따라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동역량 2수준(평균 3.01), 3수준(평균 3.05), 4수준(평균 3.66)이 1수준(평균 2.81)에 비해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응답값과 응답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동역량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소속된 모임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함(협동 1수준에 해당)’, 2, 3수준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협동 2, 3수준에 해당)’, 4수준은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협동 4수준에 해당)’으로 구분하였다.

표 V-279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행동지표 특성 :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Z점수 수준	원점수			행동지표점수			평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사후검증	행동특성 및 행동준거
	N	M	SD	N	M	SD	하한값	상한값		
1수준	53	2.46	0.25	51	2.31	1.39	1.92	2.70	7.456*** 2,3,4)1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함.
2수준	187	2.93	0.10	179	3.01	1.44	2.79	3.22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3수준	115	3.24	0.10	115	3.05	1.54	2.77	3.34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4수준	58	3.79	0.18	56	3.66	1.51	3.25	4.06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전체	413	3.08	0.40	401	3.02	1.51	2.87	3.17		

***p<.001, **p<.01, *p<.05

(5)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의 특성 종합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280과 같다.

표 V-280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종합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수준	1.52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2회 이하임.	
		2수준	1.94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3~4회 정도임.	
		3수준	2.18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3~4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4수준	2.36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주 5회 이상으로 잦은 편임.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수준	2.17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2명 이하로 적음.	
		2수준	2.98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3수준	3.42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정도 있음.	
		4수준	3.69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4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수준	0.88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음.	
		2수준	0.92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음.	
		3수준	1.1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이상임.	
		4수준	1.17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1명 이상임.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수준	0.79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없음.	
		2수준	1.41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3수준	1.48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1명 있음.	
		4수준	1.96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이 2명 이상임.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1수준	2.17	소속된 모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음.
			2수준	2.55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수준	2.74	소속된 모임의 리더가 아니며,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4수준	3.59	소속된 모임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수준	평균	
1수준			2.24		
2수준	2.74				
3수준	3.09				
4수준	3.72				
전체	2.93				

역량		행동지표			
		지표	수준	평균	특성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1수준	2.31	소속된 모임에서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함.
수준	평균		2수준	3.01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1수준	2.46		3수준	3.05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임.
2수준	2.93		4수준	3.66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임.
3수준	3.24				
4수준	3.79				
전체	3.08				

(6)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에 따른 행동특성 프로파일링 분석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을 구분하여 유형화하기 하고자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은 세 유형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표 V-28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대학생

역량	유형	N	M	S.D.	F	사후검증
관계 형성	유형 1	83	3.73	.26	346.766***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226	3.11	.25		
	유형 3	103	2.77	.25		
	전체	412	3.15	.41		
리더십	유형 1	83	3.40	.39	256.562***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226	2.97	.20		
	유형 3	103	2.49	.30		
	전체	412	2.93	.41		
협동	유형 1	83	3.56	.34	289.759***	유형1>유형2>유형3
	유형 2	226	3.10	.21		
	유형 3	103	2.66	.27		
	전체	412	3.08	.40		

*p<.05, **p<.01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유형 간 하위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세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별 대인관계역량의 특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역량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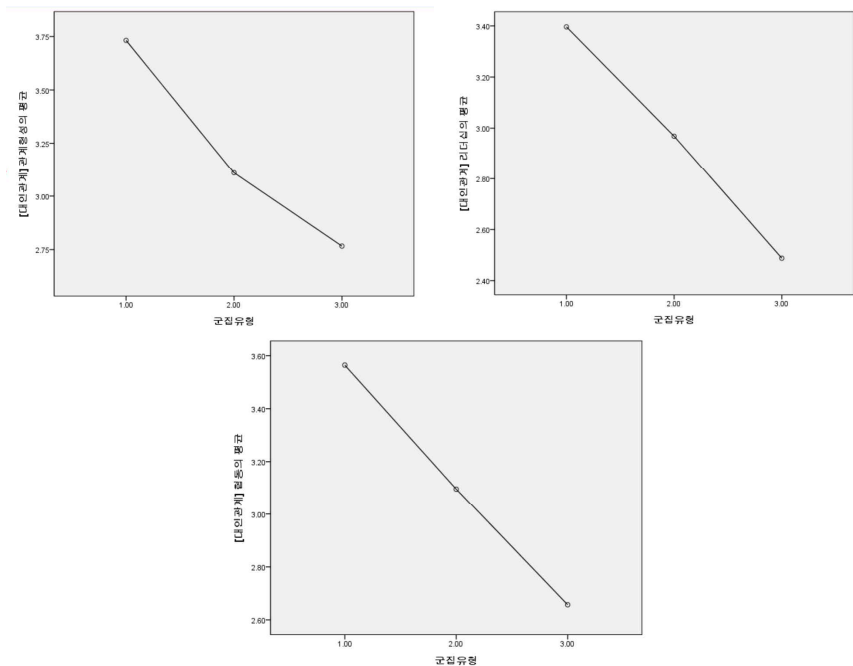


그림 V-31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수준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하위역량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형 2는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며, 유형 3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역량의 유형은 특정 하위 역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하위역량이 동일하게 상-중-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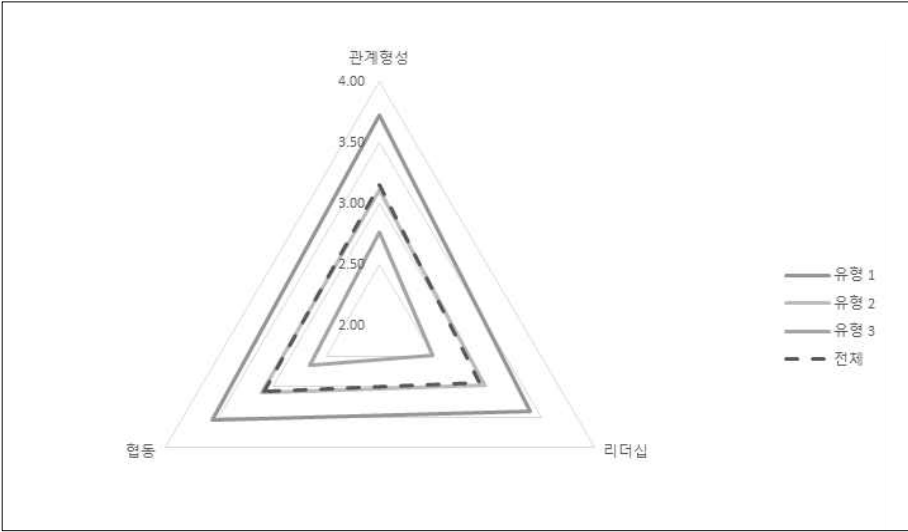


그림 V-32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하위역량 프로파일링 분석

한편,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특성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유형과 동일하게 구분되었다. 즉, 유형1은 외향적인 유형(주도적-관계중심적 유형), 유형 2는 원만형(평균형), 유형 3은 내성적 유형(소극적-개인중심적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지표 수준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82 대학생 대인관계역량 유형별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유형1	외향적 유형 (주도적-관계지향적 유형)	관계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3~4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3~4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3~4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3~4수준에 해당함

역량	유형	특성	역량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
대인 관계 역량	유형2	원만형 (평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2~3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2~3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	2~3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	2~3수준에 해당함
	유형3	내성적 유형 (소극적- 개인중심적 유형)	관계 형성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정도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	1~2수준에 해당함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	1~2수준에 해당함
			리더십	소속된 단체에서의 동수준	1~2수준에 해당함
			협동	소속된 단체에서의 력수준	1~2수준에 해당함

* 행동지표 수준별 특성의 세부내용은 〈표 V-280〉 참조.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 분석*

* 이 절의 내용은 김태준, 홍영란, 김미란, 김홍민(2018)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VI. ICCS 2016 결과 요약

- 1. ICCS(국제청소년시민
역량비교연구) 개요
- 2. ICCS 2016 조사결과

1. ICCS (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연구) 개요

1) ICCS 소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 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조사는 1999년에 시민교육연구(CivEd)라는 명칭으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이스라엘을 포함해 총 31개국이 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조사 대상연령 (8학년, 만 13.5세), 조사 대상자 (학생, 교사, 학교)의 연구틀이 이 조사에서 확정되어 이후 ICCS에도 적용되었다. 2009년에 ICCS로 명칭이 변경된 후 한국을 포함한 총 38개 국가와 도시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2016년에 실시한 제2차 ICCS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24개국이 참여했다. 이 2차 ICCS는 2009년 ICCS와 시계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했다.

IEA에서는 2022년에 제3차 ICCS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역시 1차와 2차 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며,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I-1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PISA	TIMSS	PIRLS	ICCS
명칭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2011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주관기관	OECD	IEA	IEA	IEA
조사대상	중등2학년	초등4, 중등2학년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주요 조사내용	언어·수학·과학 성취도, 문제 해결능력, 학업 태도(흥미/관심/자신감) 및 가정, 학교 배경요인	학생들의 수학·과학과목 학업성취도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읽기, 문해력, ICT 정보이해력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성취도, 시민의식, 신뢰·참여수준, 공동체 의식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참여국	72개국 (2015)	57개국 (2015)	35개국 (2011) 50개국 (2016)	38개국 (2009) 24개국 (2016)
조사주기	3년	4년	5년	7년

표 VI-2 ICCS 조사 연도별 참가국 내역

연도	명칭	참가국	조사대상
1999	CivED (Civic Education Study)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슬로브 공화국,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28개국 ¹²⁾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09	ICCS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0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파라과이, 폴란드, 핀란드,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대만,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뉴질랜드 38개국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16	ICCS 2016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16)	(유럽 16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남미 5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시아 3개국) 대만, 대한민국, 홍콩 총 24개국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12)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일부조사에만 참가, 이스라엘은 데이터 일부만 제출하여 분석에서 제외

2. ICCS 2016 조사결과

1) 시민역량 인지영역 Test 결과 전체

시민지식수준 평가척도는 ICCS의 2대 영역 중에서 인지영역에 해당하는 측정 도구이다. 본 척도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과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가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또한 응답자의 능력평가 척도로서 반드시 제한시간 45분 이내에 응답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일종의 시험 형식의 검사로서 문제지 누출로 인한 조사결과의 오염을 막기 위해 구체적 문항내용은 비공개 (ICCS framework 문서에 유사문항 제시)를 원칙으로 한다.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문항은 2009년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측정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 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음인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3위에 비하면 낮아진 것인데, 이는 시민지식 점수의 절대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향상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향상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9년 조사결과에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참여국가에서 시민지식 평가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향상율의 수준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2009년 대비 가장 많이 점수가 높아진 국가는 스웨덴(42.2점 향상), 홍콩과 러시아, 노르웨이, 벨기에, 대만, 에스토니아 순으로 이들 국가는 시민지식 점수가 20점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9년 측정에서 551.2점에서 13.6점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졌다. 반면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각각 29.3점과 6.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 ICCS 2009 대비 2016 시민지식점수 차이(향상도 순)

	2016년 평균 (편차)		2009년 평균 (편차)		변화량
스웨덴	579.2	(2.8)	537.0	(3.1)	42.2
홍콩	554.1	(5.7)	515.3	(6.6)	38.8
러시아	544.7	(4.3)	506.4	(3.8)	38.3
노르웨이	563.7	(2.2)	538.2	(4.0)	25.5
벨기에	537.2	(4.1)	514.1	(4.7)	23.2
대만	581.1	(3.0)	558.7	(2.4)	22.4
에스토니아	546.4	(3.1)	525.3	(4.5)	21.1
콜롬비아	482.1	(3.4)	461.9	(2.9)	20.2
불가리아	485.1	(5.3)	466.5	(5.0)	18.7
슬로베니아	532.1	(2.5)	515.9	(2.7)	16.2
멕시코	467.0	(2.5)	451.7	(2.8)	15.4
대한민국	564.8	(1.9)	551.2	(3.6)	13.6
리투아니아	517.8	(3.0)	505.2	(2.8)	12.6
라트비아	492.2	(3.1)	481.6	(4.0)	10.5
덴마크	586.3	(3.0)	576.4	(3.6)	9.9
몰타	491.2	(2.7)	489.7	(4.5)	1.5
도미니카	381.4	(3.0)	380.3	(2.4)	1.1
핀란드	576.7	(2.3)	576.4	(2.4)	0.3
칠레	482.5	(3.1)	483.0	(3.5)	- 0.6
이탈리아	524.4	(2.4)	530.8	(3.3)	- 6.3
네덜란드	493.6	(7.6)	522.9	(4.5)	- 29.3

2) 시민지식의 성차

시민지식점수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2009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몰타 (38.2점)였고, 한국은 30.5점으로

ICCS 평균인 25점보다 높은 수준의 성차를 나타냈다. 시민지식이 낮은 수준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결국 시민사회의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시민지식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표 VI-4 ICCS 2016 시민지식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격차 순)

	여자 (SD)		남자 (SD)		격차
몰타	510.8	(3.7)	472.6	(3.9)	38.2
불가리아	505.2	(5.9)	468.0	(6.0)	37.2
스웨덴	597.7	(3.1)	562.2	(3.9)	35.5
슬로베니아	550.3	(2.6)	515.2	(3.3)	35.0
대만	598.6	(3.4)	564.3	(3.3)	34.4
노르웨이	580.6	(2.4)	547.0	(2.6)	33.6
에스토니아	563.2	(3.4)	529.9	(3.4)	33.3
홍콩	532.3	(6.6)	499.4	(7.7)	32.8
핀란드	593.8	(2.3)	561.2	(3.4)	32.5
대한민국	567.6	(4.8)	537.1	(3.4)	30.5
라트비아	506.6	(3.8)	476.3	(3.7)	30.3
도미니카	395.7	(3.4)	366.7	(3.3)	28.9
리투아니아	531.8	(3.6)	503.5	(3.4)	28.3
크로아티아	544.1	(2.9)	518.1	(2.9)	26.1
칠레	494.4	(3.8)	470.8	(3.3)	23.6
덴마크	597.3	(2.9)	574.7	(3.7)	22.6
멕시코	477.8	(3.0)	456.4	(3.2)	21.4
이탈리아	534.7	(3.0)	514.9	(3.0)	19.7
러시아	552.0	(5.3)	537.5	(4.3)	14.5
네덜란드	529.5	(5.0)	516.1	(4.0)	13.4
콜롬비아	486.1	(4.1)	477.6	(3.6)	8.5
페루	441.0	(4.6)	434.7	(4.1)	6.3
벨기에	537.7	(5.4)	536.8	(4.6)	1.0
ICCS 평균	530.0	(0.8)	505.0	(0.8)	25.0

3) 시민지식의 질적 분포 (수준)

ICCS에서는 시민지식이 단순히 양적인 점수의 차이 보다는 질적인 변인이라고 상정한다. 따라서 이번 ICCS 2016에서는 시민지식 점수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A 레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D 미만 레벨까지 크게 5개의 수준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B 레벨 이상은 비록 점수가 낮은 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부여된 일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시민지식 수준이 C 레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제한다. 각 레벨별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VI-5 ICCS 2016 시민지식 수준의 정의와 기준

수준	정의
Level A 563점 이상	윤리적 소비를 목적으로 한 행동 전략을 짜거나 판별할 수 있는 수준 / 자유로운 공개적 토론과 공동체 참여가 사회에 유익한 이유와 그 원리를 이해 / 사회 구성원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성 인식 / 입법-사법체계간의 권력분산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 인식 / 평등과 포용의 관점에서 정부와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음 / 정당에 대한 기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중요한 이유 인식함 / 국회 회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 / 자유 시장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경제 구조의 주요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음
Level B 479~562점	사법권의 독립성이 사법적 판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중요한 이유 이해 / 지역적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국제화가 가지는 경제학적 위험성을 일반화시킬 수 있음 / 투표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이해 / 민주적 대표성과 투표의 의무 사이의 관계를 이해 / 국회/입법부의 주요 역할, 헌법의 주요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음 / 민주주의에서 정부와 군대와의 관계를 인식함 /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의 위험성을 인식함 /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시민 개개인의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음
Level C 395~478점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관계 인식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맥락에서 자발적 투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 / 민주적 지도자가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이해 / UN의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 / 시민 참여에 있어 의사소통 도구로서 인터넷의 가치를 일반화시킬 수 있음 /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해 / 행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 / 타국에 대한 원조가 자국의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해 / 윤리적 소비 법안의 배후에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는지 이해

수준	정의
Level D 311~394점	군대의 핵심 역할은 국가 방위라는 사실 이해 /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의식과 국제원조기구 업무를 연결시킬 수 있음 / 비밀투표 원칙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사이에 관계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Level E 310점 이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왜 인권인지를 이해함

ICCS 2016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A레벨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4.7%, B레벨은 31.5%, 우리나라는 A레벨과 B레벨을 합해 77.5% 으로서, 청소년의 3/4 이상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의 경우에는 C 레벨 이하의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VI-6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별 분포

	D level 이하	D level	C level	B level	A level
덴마크	0.4	2.3	10.2	24.6	62.4
대만	0.5	2.9	9.9	24.5	62.2
스웨덴	0.3	2.3	10.0	27.0	60.4
핀란드	0.7	3.6	12.2	25.2	58.3
노르웨이	0.7	3.8	13.1	28.9	53.5
대한민국	0.8	5.2	16.5	30.5	47.0
에스토니아	0.2	3.2	16.7	36.9	43.0
러시아	0.3	3.7	16.6	37.3	42.1
벨기에	0.2	4.6	19.1	36.6	39.5
슬로베니아	0.4	4.5	20.6	37.6	37.0
크로아티아	0.3	3.9	19.9	39.9	36.0
이탈리아	0.9	8.2	23.2	32.1	35.6
네덜란드	0.6	6.6	22.8	39.3	30.7

	D level 이하	D level	C level	B level	A level
독일(NRW)	0.9	6.5	21.5	36.1	34.9
리투아니아	0.7	6.7	23.5	38.5	30.5
홍콩	3.4	10.9	19.1	31.5	35.0
라트비아	6.4	16.0	22.5	28.4	26.7
몰타	5.5	13.4	23.2	31.7	26.2
불가리아	3.7	16.0	27.2	31.7	21.4
칠레	1.7	10.7	29.1	39.0	19.5
콜롬비아	2.1	13.8	31.3	35.4	17.4
멕시코	3.2	17.7	33.1	32.8	13.1
페루	9.4	23.5	32.2	26.0	8.8
도미니카	19.0	38.7	30.1	11.0	1.2
ICCS 평균	2.7	9.8	21.2	31.5	34.7

4) 공공기관 및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공공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사회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ICCS에서는 각각의 공공기관이나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고 “매우 신뢰한다” 혹은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해 신뢰 수준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09년 대비 2016년에 모든 조사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증가했으나 일반적인 타인, 전통적인 대중매체(TV, 라디오, 뉴스)에 대한 신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에 처음 측정하였기에 2009년 대비 차이를 알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대중매체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6년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러시아이며, 2009년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2016년 조사에 불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신뢰수준 지표의 의미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표에서 한국의 결과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ICCS 조사에서 공공 신뢰의 수준이 참여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 2016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44.8%로 2009년의 19.6%에 비하면 25.2%p나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참여국 중 최하위인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39.7%로 2009년의 39%에 비해서 거의 차이 없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정당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18%에 비해 24.5%p 향상된 42.5%로 가장 높은 향상율을 보였으며, 대중매체(TV, 뉴스, 라디오)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51.2%에 비해 1.6%p 향상된 52.8%로 나타났다.

신뢰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37.5%)를 포함판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중 신뢰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 신뢰 수준 분포

	정부			정당			타인			대중매체 (TV, 뉴스, 라디오)			SNS
Country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네덜란드	69.9	69.6	0.3	47.6	52.8	-5.2	51.5	57.0	-5.4	46.8	48.0	-1.2	31.5
노르웨이	78.8	67.3	11.5	56.2	51.6	4.5	42.6	48.3	-5.8	48.5	48.6	-0.1	26.6
대만	61.9	44.4	17.4	47.2	26.2	21.0	47.7	51.4	-3.7	43.9	43.3	0.6	46.0
대한민국	44.8	19.6	25.2	42.5	18.0	24.5	39.7	39.0	0.6	52.8	51.2	1.6	37.5
덴마크	73.9	72.4	1.5	52.0	56.1	-4.1	64.5	68.5	-4.0	59.3	55.6	3.7	30.7
도미니카	77.8	73.8	4.0	49.8	51.1	-1.4	62.0	61.0	1.0	77.8	76.1	1.7	60.5
독일	82.7			61.5			69.9			61.5			50.8
라트비아	59.6	32.2	27.4	39.6	24.9	14.8	46.7	58.0	-11.3	51.1	65.2	-14.1	47.3
러시아	89.0	88.3	0.6	53.9	50.9	3.0	44.7	51.2	-6.5	40.7	41.1	-0.5	40.1
리투아니아	74.2	54.0	20.2	52.5	32.9	19.6	59.9	66.0	-6.2	65.4	67.3	-2.0	48.6
멕시코	57.0	58.4	-1.4	37.4	34.7	2.7	51.7	46.6	5.1	56.0	57.1	-1.2	48.3
몰타	66.1	62.5	3.7	50.9	55.1	-4.2	49.1	50.3	-1.3	66.3	70.3	-4.0	59.7

	정부			정당			타인			대중매체 (TV, 뉴스, 라디오)			SNS
벨기에	71.6	51.0	20.5	49.0	35.0	13.9	51.7	57.0	-5.4	45.9	47.5	-1.7	29.1
불가리아	58.8	56.1	2.7	37.7	31.9	5.7	60.6	64.3	-3.8	61.3	69.9	-8.7	60.5
스웨덴	78.9	73.2	5.7	61.2	60.3	0.9	56.1	67.2	-11.1	54.2	53.9	0.3	32.4
슬로베니아	48.7	56.4	-7.7	44.4	44.7	-0.3	68.8	70.8	-2.0	64.8	64.1	0.7	53.8
에스토니아	72.5	61.6	10.9	32.4	23.1	9.3	46.5	57.6	-11.1	46.8	54.3	-7.5	32.5
이탈리아	57.1	73.7	-16.6	43.8	51.8	-8.0	41.0	51.5	-10.5	75.5	80.9	-5.5	53.6
칠레	49.6	65.1	-15.5	32.5	34.5	-1.9	47.8	51.7	-4.0	61.7	73.6	-12.0	54.0
콜롬비아	55.2	62.0	-6.8	27.7	34.9	-7.2	43.5	48.8	-5.4	68.9	71.7	-2.8	49.0
크로아티아	41.6	-		27.4	-		57.7	-		53.6	-		47.5
페루	49.0	-		33.4	-		47.2	-		62.2	-		45.4
핀란드	82.1	82.4	-0.3	66.2	60.9	5.3	73.5	75.8	-2.3	81.9	80.4	1.5	49.3
홍콩	67.2	70.4	-3.2	45.0	38.3	6.8	39.8	30.2	9.5	58.9	41.6	17.3	50.8
ICCS평균	67.4	63.0	4.3	46.4	42.3	4.1	53.2	58.1	-4.9	59.4	62.3	-2.9	45.1

5) 인터넷과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2016년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터넷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활동의 현황 측정이 추가되었다. 조사결과, 각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44% 이상은 지난 1년간 인터넷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자신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시민참여의 비율은 특히 대만(57%), 도미니카(53.5%), 페루(52.7%), 라트비아(52.6%), 한국(52%), 홍콩(51.9%)에서 높았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 전통적인 공중파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이 한국보다 낮았고, 그 수준이 2016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기존의 매체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8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참여경험 전체	
대만	64.9	(1.0)	19.5	(0.7)	15.3	(0.6)	57.0	(0.2)
도미니카	37.0	(1.2)	18.6	(0.8)	23.2	(0.9)	53.5	(0.2)
페루	33.3	(0.9)	16.7	(0.7)	18.2	(0.7)	52.7	(0.2)
라트비아	37.3	(1.2)	13.8	(0.8)	14.4	(0.7)	52.6	(0.3)
대한민국	40.9	(1.2)	7.9	(0.6)	11.5	(0.7)	52.0	(0.2)
홍콩	28.9	(1.0)	16.3	(0.8)	15.7	(0.8)	51.9	(0.3)
러시아	40.3	(1.2)	7.5	(0.5)	9.6	(0.6)	51.8	(0.3)
리투아니아	37.5	(1.1)	7.7	(0.6)	8.7	(0.6)	51.5	(0.2)
콜롬비아	28.8	(0.9)	10.7	(0.6)	16.2	(0.8)	50.7	(0.2)
이탈리아	34.6	(1.0)	8.9	(0.5)	9.5	(0.6)	50.6	(0.2)
멕시코	29.2	(0.8)	12.3	(0.5)	11.8	(0.5)	50.5	(0.2)
불가리아	25.7	(0.9)	11.8	(0.9)	11.4	(0.6)	50.1	(0.3)
덴마크	37.9	(0.8)	3.3	(0.3)	4.4	(0.4)	50.0	(0.2)
스웨덴	33.2	(1.1)	4.9	(0.5)	7.0	(0.7)	49.9	(0.2)
에스토니아	26.3	(1.2)	4.9	(0.4)	7.7	(0.6)	49.4	(0.2)
크로아티아	33.5	(1.2)	3.3	(0.4)	3.2	(0.4)	49.0	(0.2)
노르웨이	26.6	(0.7)	4.4	(0.3)	4.7	(0.3)	48.6	(0.2)
칠레	21.2	(0.6)	9.4	(0.5)	8.0	(0.4)	48.4	(0.2)
몰타	25.5	(0.7)	7.2	(0.4)	7.8	(0.4)	48.3	(0.2)
벨기에	23.5	(1.1)	5.3	(0.6)	6.0	(0.4)	48.3	(0.3)
독일	14.2	(1.0)	8.4	(0.6)	7.4	(0.7)	47.2	(0.2)
슬로베니아	20.4	(0.9)	2.7	(0.4)	4.5	(0.4)	46.9	(0.2)
핀란드	17.8	(0.9)	3.0	(0.3)	3.5	(0.4)	46.2	(0.2)
네덜란드	10.2	(0.7)	3.1	(0.3)	5.0	(0.5)	44.3	(0.2)
ICCS 평균	30.7	(0.2)	8.5	(0.1)	9.5	(0.1)	50.0	(0.0)

6)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현황과 조사시기별 차이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실제 정치적인 참여행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서 ICCS 조사에서도 중요한 항목이다. ICCS에서 이 지표의 측정은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관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해낼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2009년과 2016년의 국가별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비교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1위인 도미니카 공화국 다음으로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국가간 편차가 가장 적은 항목 중의 하나로서 본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핀란드에서도 이 지수는 47.6로 나타났으며 ICCS 평균도 51%를 넘었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참여국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이 1.5%p 증가한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표 VI-9 2009년 대비 2016년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치의 차이

Country	2016		2009		격차
도미니카	60.4	(0.2)	56.7	(0.3)	3.6
대한민국	58.7	(0.3)	55.0	(0.2)	3.7
페루	55.2	(0.2)	-	-	-
크로아티아	54.1	(0.2)	-	-	-
멕시코	54.0	(0.2)	52.5	(0.2)	1.5
콜롬비아	53.2	(0.2)	52.7	(0.3)	0.5
불가리아	52.0	(0.3)	50.3	(0.3)	1.6
대만	51.8	(0.2)	48.2	(0.2)	3.6
칠레	51.8	(0.2)	51.6	(0.2)	0.1
이탈리아	51.7	(0.2)	51.1	(0.3)	0.6

Country	2016		2009		격차
스웨덴	51.6	(0.2)	49.0	(0.3)	2.6
리투아니아	50.8	(0.2)	50.0	(0.2)	0.8
덴마크	50.7	(0.2)	49.6	(0.2)	1.1
노르웨이	50.5	(0.2)	49.3	(0.3)	1.2
몰타	50.5	(0.2)	46.6	(0.3)	3.9
홍콩	50.4	(0.2)	49.6	(0.2)	0.8
슬로베니아	49.9	(0.2)	49.7	(0.3)	0.2
벨기에	49.7	(0.2)	47.0	(0.2)	2.7
러시아	49.7	(0.2)	49.1	(0.2)	0.6
에스토니아	49.2	(0.2)	48.2	(0.2)	1.0
독일	49.0	(0.3)	-	-	-
네덜란드	48.1	(0.2)	47.7	(0.6)	0.4
라트비아	47.8	(0.2)	49.1	(0.2)	-1.2
핀란드	47.6	(0.2)	45.8	(0.2)	1.8
ICCS 평균	51.3	(0.1)	49.8	(0.1)	1.5

7)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IEA에서는 정치적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변인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의 여부 (4점 척도에서 매우 관심있다. 약간 관심있다고 응답한 비율)를 제안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시민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남자 청소년(51.1)들보다 여자 청소년들(51.8)이 약간 더 높았으며, 정치적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55.2)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49.6)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시민지식 수준에 따라서도 작지만 유효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VI-10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별		정치적 관심수준		시민지식 레벨	
	남	녀	정치이슈 관심없음	정치이슈 관심있음	수준 B 미만	B 이상
도미니카	60.5	60.2	59.1	62.3	60.6	59.1
대한민국	59.1	58.2	57.2	60.3	55.7	59.6
페루	55.2	55.2	53.1	57.1	55.0	55.6
멕시코	54.0	54.0	52.6	57.7	55.0	52.8
크로아티아	53.2	55.0	52.2	57.4	52.6	54.6
콜롬비아	52.8	53.5	51.4	57.2	54.0	52.5
대만	52.2	51.3	50.5	54.9	54.6	51.4
칠레	51.4	52.1	50.1	57.6	52.0	51.6
불가리아	51.1	53.0	50.4	55.3	51.2	52.5
이탈리아	51.0	52.4	49.9	55.5	49.8	52.5
스웨덴	50.9	52.3	48.1	56.2	49.7	51.9
덴마크	50.5	50.9	47.8	55.0	48.3	51.0
몰타	50.3	50.7	48.3	54.6	49.7	51.1
홍콩	50.0	50.9	48.1	53.1	49.8	50.8
벨기에	49.9	49.6	48.4	53.4	50.1	49.6
노르웨이	49.8	51.3	48.0	56.1	48.9	50.9
리투아니아	49.8	51.8	49.0	53.9	50.0	51.1
슬로베니아	49.6	50.2	48.6	54.1	48.5	50.4
러시아	49.6	49.7	47.3	52.5	50.7	49.4
에스토니아	48.3	50.1	47.1	53.2	46.4	49.8
네덜란드	48.2	48.0	47.2	52.6	48.1	48.1
핀란드	47.4	47.9	45.5	52.2	44.7	48.1
라트비아	47.3	48.4	46.7	51.0	47.0	48.4
ICCS 평균	51.1	51.8	49.6	55.2	50.8	51.5

8) 학교밖 시민참여 : 정치 - 사회참여 단체 참여 경험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변인 중에서도 실제 정치적 참여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ICCS에서는 정치적인 참여 중에서도 단체에 참여경험을 중요한 변인으로 측정한다. 이 영역 지표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009년 조사에서부터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¹³⁾.

2016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정치단체 가입율은 2009년의 3.6%에 비하면 5.7%로 2.1%p 증가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영역 항목의 ICCS 평균치는 2009년의 9%에서 2016년에는 10%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참여경험 특히 단체가입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청소년들의 자원봉사단체 가입경험은 2009년의 17.7%에 비해 18.8%p 증가한 36.5%로 높아져 거의 ICCS 평균에 근접했으며 정치·사회적 캠페인 단체에의 가입경험 역시 2009년의 10.4%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5%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표 VI-11 ICCS 2016 참여국가별 정치-사회참여 단체 가입 경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입			특정이슈 활동 청소년단체가입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대만	2.1	3.6	-1.5	26.2	20.0	6.2	2.0	5.8	-3.7
핀란드	3.3	2.5	0.8	14.5	14.3	0.2	8.3	10.2	-1.9
크로아티아	3.6	-	-	29.9	-	-	3.0	-	-
독일	3.7	-	-	31.9	-	-	20.2	-	-

13) 2018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상상하기는 어려우나, ICCS에서는 이들 활동을 실제 정치참여 행동으로 측정함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입			특정이슈 활동 청소년단체가입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네덜란드	4.4	5.8	-1.4	30.2	24.1	6.1	6.9	11.7	-4.8
슬로베니아	4.6	5.7	-1.1	30.8	24.0	6.8	27.5	35.2	-7.7
덴마크	4.7	4.4	0.3	25.1	12.1	13.0	18.0	12.7	5.3
스웨덴	5.4	6.6	-1.2	16.1	13.7	2.3	14.2	14.1	0.0
대한민국	5.7	3.6	2.1	36.5	17.7	18.8	20.5	10.4	10.2
이탈리아	5.9	4.6	1.4	31.7	23.2	8.5	21.7	22.9	-1.2
벨기에	6.1	5.4	0.7	30.4	22.7	7.8	16.5	16.7	-0.2
홍콩	6.2	7.5	-1.3	18.6	33.2	-14.5	6.7	8.6	-1.8
에스토니아	10.0	8.6	1.4	42.9	44.2	-1.3	25.1	30.0	-4.9
불가리아	10.4	9.0	1.4	50.3	36.9	13.4	38.6	36.9	1.7
노르웨이	10.5	9.3	1.2	32.3	19.6	12.7	14.4	23.9	-9.4
칠레	11.3	9.1	2.3	39.9	39.9	0.0	38.4	42.0	-3.6
콜롬비아	11.7	13.9	-2.2	54.4	56.6	-2.2	34.1	45.4	-11.4
러시아	13.5	11.2	2.2	35.3	30.1	5.1	53.6	62.0	-8.4
라트비아	14.9	9.0	5.9	41.8	38.2	3.6	28.3	37.9	-9.5
멕시코	15.3	15.1	0.2	49.3	46.4	2.9	33.3	39.1	-5.7
몰타	16.6	14.5	2.1	45.9	36.2	9.7	19.1	17.3	1.8
리투아니아	19.0	11.1	7.8	41.6	23.2	18.4	20.5	24.8	-4.3
페루	19.4	-	-	51.6	-	-	40.0	-	-
도미니카	22.9	25.3	-2.4	66.7	69.5	-2.8	47.6	58.3	-10.7
ICCS평균	10.5	9.4	1.1	37.5	31.7	5.8	25.6	29.7	-4.1

9) 학교 내 시민참여 : 학생회 및 학교 내 의결 참여 경험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채널은 학교 밖 뿐만 아니라 교내에도 존재하며, 원칙적으로 학교내에서의 시민 참여는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통해 진행되므로 시민지식 점수나 자기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내

시민참여 경험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경험은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의 학생회 관련 투표참여 경험은 2009년의 76.3%에서 11.4%p 증가한 87.7%로,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의 결의에 참여한 경험은 33%에서 20.5%p 증가한 53.4%로, 그리고 학생회 임원 후보로 출마해본 경험은 32.8%에서 14% 증가한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의 참여에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여전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

표 VI-12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학생대표, 학생회임원 선출 투표 참여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임원후보 출마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노르웨이	93.4	90.0	3.4	58.7	55.9	2.8	57.6	59.1	-1.5
칠레	91.1	89.3	1.7	48.7	39.2	9.5	46.4	47.4	-1.0
크로아티아	91.0	-	-	20.2	-	-	57.8	-	-
콜롬비아	90.2	89.8	0.5	49.4	56.7	-7.2	41.9	43.8	-1.9
스웨덴	89.0	85.4	3.6	64.0	53.5	10.5	46.8	40.4	6.4
리투아니아	88.8	83.9	5.0	42.9	35.0	7.9	46.8	30.1	16.7
대한민국	87.7	76.3	11.4	53.4	33.0	20.5	46.8	32.8	14.0
핀란드	85.2	82.9	2.3	26.7	14.9	11.8	46.0	34.8	11.2
페루	84.0	-	-	45.3	-	-	45.2	-	-
러시아	83.6	76.2	7.4	33.2	32.3	0.9	25.0	28.3	-3.3
슬로베니아	83.6	84.4	-0.8	24.1	27.6	-3.5	59.1	59.0	0.1
독일	82.1	-	-	50.4	-	-	59.6	-	-
덴마크	79.6	73.2	6.4	47.2	43.6	3.6	50.5	49.0	1.5
몰타	78.3	62.4	15.9	41.8	29.2	12.6	48.3	23.6	24.7
멕시코	76.1	73.6	2.5	56.5	54.0	2.5	41.8	36.0	5.8

	학생대표, 학생회임원 선출 투표 참여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임원후보 출마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에스토니아	74.3	74.5	-0.2	28.8	24.1	4.7	29.9	31.7	-1.8
대만	72.1	67.4	4.8	42.5	43.4	-0.9	33.5	32.3	1.2
홍콩	71.2	73.7	-2.5	29.8	28.3	1.5	30.4	31.7	-1.2
도미니카	65.9	60.7	5.2	59.9	59.2	0.7	61.8	57.7	4.1
벨기에	63.7	67.8	-4.1	37.4	35.8	1.6	37.1	34.0	3.0
라트비아	62.5	67.1	-4.6	29.7	31.0	-1.2	34.2	39.3	-5.1
불가리아	56.2	51.6	4.5	32.2	31.5	0.7	36.7	34.1	2.5
네덜란드	50.9	51.6	-	27.1	27.4	-0.3	21.1	22.3	-
이탈리아	50.5	48.6	1.9	36.2	34.3	1.9	21.6	21.3	0.2
ICCS평균	76.9	73.8	3.1	42.2	39.0	3.3	42.5	39.0	3.5

10) 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할 의지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참여 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또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성인이 되어 각종 선거에 투표할 의지를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서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의 48.5%에서 2016년에는 50.8%로 2.3%p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ICCS 평균인 51.3% 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VI-13 ICCS 2016 참여국가별 미래 투표참여의사

	2016		2009		격차
페루	54.6	(0.2)	-		-
노르웨이	54.4	(0.1)	52.3	(0.3)	2.1
이탈리아	54.2	(0.2)	54.1	(0.2)	0.1

	2016		2009		격차
스웨덴	53.2	(0.2)	49.0	(0.3)	4.2
콜롬비아	53.2	(0.2)	53.7	(0.2)	(0.5)
도미니카	53.1	(0.2)	52.2	(0.3)	0.9
대만	52.9	(0.2)	50.8	(0.2)	2.1
덴마크	52.4	(0.2)	49.1	(0.2)	3.3
멕시코	52.4	(0.2)	53.1	(0.2)	(0.7)
리투아니아	52.2	(0.2)	51.8	(0.2)	0.4
크로아티아	51.2	(0.2)	-	-	-
대한민국	50.8	(0.3)	48.5	(0.2)	2.3
러시아	50.7	(0.3)	51.3	(0.2)	(0.6)
핀란드	50.6	(0.2)	49.2	(0.2)	1.5
칠레	50.2	(0.2)	49.8	(0.3)	0.3
몰타	50.0	(0.2)	49.3	(0.4)	0.7
슬로베니아	49.7	(0.3)	49.6	(0.2)	0.1
불가리아	49.6	(0.3)	47.7	(0.3)	1.9
라트비아	49.5	(0.2)	50.2	(0.3)	(0.7)
벨기에	48.5	(0.3)	45.5	(0.2)	3.0
에스토니아	48.1	(0.2)	46.6	(0.3)	1.4
홍콩	47.2	(0.3)	48.5	(0.3)	(1.3)
네덜란드	46.9	(0.3)	46.6	(0.4)	0.3
독일	46.5	(0.4)	-	-	-
ICCS 평균	51.3	(0.0)	50.3	(0.1)	1.1

11) 부모학력,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미래 투표 참여 의사

부모의 학력과 청소년 개인의 정치적 관심여부, 그리고 시민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선거 참여 의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래 선거 참여의사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변인은 정치적 관심의 수준이 아니라 시민지식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시민지식 점수수준이 B레벨 이상인 청소년들의 미래 투표 참여의사가 52.8% 였던 반면, B레벨 미만인 청소년들의 참여의사는 그보다 5.3%p 낮은 47.6%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관심의 여부에 따른 차이는 4.5%p로 이보다 작았음.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 역시 존재하지만 비교적 적었다.

표 VI-14 ICCS 2016 부모학력,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과 미래 투표 참여의사

	부모의 학력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여부		시민지식 수준	
	양친 모두 대졸미만	양친 중 한명 이상 대졸	정치에 관심없음	정치에 관심있음	B 레벨미만	B 레벨이상
노르웨이	52.6	55.9	52.9	57.7	47.1	55.8
페루	54.1	55.8	53.3	55.9	52.9	57.4
이탈리아	53.9	55.6	53.1	56.7	50.4	55.7
덴마크	51.9	54.6	50.0	56.1	45.6	53.4
스웨덴	52.1	54.3	50.6	56.6	48.0	54.1
대만	52.5	54.0	51.8	55.5	48.0	53.6
콜롬비아	52.9	53.9	52.0	56.0	51.2	54.8
도미니카	52.9	53.8	52.1	54.8	52.8	55.0
리투아니아	51.7	53.3	50.8	54.6	48.9	53.6
멕시코	52.2	53.2	51.4	55.2	50.9	54.1
크로아티아	50.6	52.8	49.6	54.0	47.1	52.5
칠레	49.4	52.7	49.0	54.5	47.3	52.7
핀란드	49.6	52.2	48.8	54.4	44.0	51.6
대한민국	49.2	51.9	48.9	52.8	45.7	52.3
슬로베니아	48.8	51.5	48.6	53.4	44.9	51.3
라트비아	48.2	51.5	48.3	52.7	46.4	51.6
몰타	49.6	51.4	48.1	53.6	47.4	51.7
러시아	50.1	51.3	48.6	53.2	48.5	51.3
불가리아	48.8	50.5	48.3	52.6	47.2	51.4
벨기에	47.0	49.8	47.3	52.0	44.8	49.7
홍콩	46.6	49.6	44.3	50.7	43.1	49.2
네덜란드	45.3	49.5	45.8	51.8	42.0	49.2
에스토니아	47.2	49.3	46.5	51.3	43.9	49.1
ICCS 평균	50.6	52.7	49.9	54.4	47.6	52.8

12)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은 시민사회 구성과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 중의 하나이며 최근 가장 부각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ICCS 2016 조사결과, 참여국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은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1.2 % 포인트 증가했다. 단, 홍콩과 멕시코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대비 2.2% 포인트 증가해서 ICCS 평균 증가치보다 높았다. 단 여전히 전체 참여국대비 양성평등의식의 순위는 11위 내외로 관련 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VI-15 ICCS 2016 참여국가별 양성평등원칙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2016		2009		격차
스웨덴	57.2	(0.2)	55.3	(0.3)	1.9
노르웨이	56.7	(0.2)	54.1	(0.3)	2.7
대만	56.4	(0.2)	55.5	(0.2)	0.9
덴마크	56.2	(0.2)	54.3	(0.2)	1.9
독일	54.9	(0.3)	-	-	-
핀란드	54.6	(0.2)	53.3	(0.2)	1.3
벨기에	54.1	(0.3)	52.2	(0.3)	1.9
크로아티아	53.3	(0.3)	-	-	-
이탈리아	53.1	(0.2)	51.7	(0.2)	1.4
몰타	53.0	(0.2)	51.3	(0.3)	1.7
대한민국	52.7	(0.3)	50.5	(0.2)	2.2
슬로베니아	52.7	(0.2)	51.8	(0.2)	0.9
네덜란드	52.2	(0.3)	51.5	(0.5)	0.7
칠레	52.2	(0.3)	51.1	(0.3)	1.1

	2016		2009		격차
에스토니아	50.8	(0.3)	48.9	(0.3)	1.9
홍콩	50.7	(0.4)	51.5	(0.3)	-0.8
콜롬비아	50.3	(0.3)	49.3	(0.2)	1.0
리투아니아	48.9	(0.2)	48.2	(0.2)	0.7
페루	48.7	(0.3)	-		-
라트비아	46.5	(0.2)	45.9	(0.2)	0.5
불가리아	46.2	(0.3)	45.8	(0.3)	0.4
멕시코	45.3	(0.1)	45.4	(0.1)	-0.2
러시아	44.3	(0.2)	43.6	(0.1)	0.8
도미니카	44.3	(0.2)	43.5	(0.2)	0.8
ICCS 평균	51.3	(0.1)	50.1	(0.1)	1.2

13) 인종 평등의식

인종이나 이민족간의 평등의식 역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사회 구성과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다.

ICCS에서는 특히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OECD국가들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인종/민족 평등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참여국 청소년들의 다민족/다인종 평등의식은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인종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2.7 %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에는 다민족평등의식이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낮은 49.1%였으나 2016년에는 6.4% 포인트 증가하여 조사대상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결과의 해석에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16 ICCS 2016 참여국가별 다민족/다인종 평등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2016		2009		격차
대만	58.1	(0.2)	56.8	(0.2)	1.2
스웨덴	57.4	(0.3)	52.0	(0.3)	5.4
칠레	56.6	(0.2)	54.5	(0.2)	2.1
대한민국	55.7	(0.3)	49.3	(0.2)	6.4
노르웨이	55.4	(0.2)	50.8	(0.3)	4.6
멕시코	55.0	(0.2)	52.4	(0.2)	2.5
페루	54.2	(0.2)	-		-
홍콩	54.1	(0.3)	52.0	(0.3)	2.1
독일	54.0	(0.4)	-		-
콜롬비아	54.0	(0.2)	53.0	(0.2)	1.0
도미니카	54.0	(0.2)	50.8	(0.3)	3.1
리투아니아	52.9	(0.2)	50.0	(0.2)	2.8
에스토니아	52.8	(0.2)	50.7	(0.2)	2.1
핀란드	52.6	(0.2)	47.8	(0.2)	4.9
크로아티아	52.1	(0.2)	-		-
러시아	51.9	(0.4)	48.3	(0.2)	3.6
이탈리아	51.7	(0.2)	49.2	(0.2)	2.5
덴마크	51.2	(0.2)	48.5	(0.3)	2.7
슬로베니아	51.0	(0.2)	49.3	(0.2)	1.7
몰타	50.6	(0.2)	46.3	(0.3)	4.3
벨기에	50.3	(0.3)	47.8	(0.3)	2.5
네덜란드	48.9	(0.3)	47.1	(0.3)	1.8
불가리아	48.8	(0.3)	48.3	(0.2)	0.5
라트비아	47.7	(0.2)	45.9	(0.2)	1.8
ICCS 평균	52.9	(0.1)	50.1	(0.1)	2.7

○———— VII. 논의 및 정책 제언

- 1. 논의
- 2. 정책적 제언

1. 논의 :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연구결과 논의 및 행동지표 특성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5개년(2014~2018) 연구과제이며, 2018년도 5차 년도 마지막 연구과제로서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차 년도(2014년)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에 따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타당화 검증을 수행하였다. 2차 년도(2015)에서는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3차 년도(2016년)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현장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항을 축소하면서 청소년 역량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IEA가 주관하는 ICCS 2016 조사가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4차 년도(2017년)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결과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측정문항에 대한 문항반응이론기반 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ICCS 2016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5차 년도(2018) 연구과제는 마지막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 이 장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교수(조선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행동지표의 특성을 청소년 역량 수준에 따라 규명하였고, ICCS 2016 조사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6차 청소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논함으로써 이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자료 분석은 국내실태 분석과 국제실태 비교 분석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국내실태 분석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과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분석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요약 및 결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은 측정도구의 정규성 분석, 문항간 상관계수 분석, 신뢰도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측정문항이 정규성(왜도 $\leq \pm 2$, 첨도 $\leq \pm 7$)을 확보하였고, 문항간 상관관계계수도 0.30 이상을 확보하여 양호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도 0.70 이상을 확보하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14년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반복 측정한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평균에 있어 2015년 2.92점, 2016년 2.92점, 2017년 2.99점, 그리고 2018년 2.98점과 같이 비슷하게 측정되어 측정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재확인 되었다. 또한 2015, 2016, 2017, 2018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하위역량들의 측정결과에 있어서도, 평균 점수가 ± 0.05 오차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어 국가수준에서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전체 평균은 2.93(SD=.37)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력 3.04(SD=.40), 지적도구활용능력 2.83(SD=.49), 그리고 학습적응성 2.94(SD=.45)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 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업성취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생애학습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지역이 가장 높고 전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습역량지수의 전체 평균은 3.09(SD=.36)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 3.15(SD=.45), 과제관리 2.95(SD=.55), 상황대처 3.17(SD=.54), 그리고 정서조절 3.00(SD=.49)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업 성취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생활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가장 높고 강원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전체 평균은 2.98(SD=.40)로 나타났으며, 여가활용(M=3.16, SD=.474), 진로설계(M=3.03, SD=.468), 개척정신(M=2.75, SD=.5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 분석을 한 결과, 진로설계와 여가활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개척정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개발역량 및 그 하위 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높고 강원, 전북, 경북, 경남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전체 평균은 3.03(SD=.48)로 나타났으며, 관계형성 3.11(SD=.49), 리더십 2.90(SD=.53), 그리고 협동 3.08(SD=.50)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업성취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가장 높고 전남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전체 평균은 2.86(SD=.30)로 나타났으며, 개인시민성 2.95(SD=.39), 공동체시민성 2.70(SD=.39), 그리고 세계시민성 2.93(SD=.35)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에 있어서는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상수준이 중수준과 하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지역이 가장 높고 경북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진로개발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이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학교급별로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높은 수준이고,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참여역량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수준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일수록 청소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경제수준이 상위권인 청소년이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 청소년들이 지방의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2018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1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종합분석

구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성별	남자	-	-	+	-	-
	여자	+	+	-	+	+
학교 급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	-	-	-	+	+
	대학교	-	-	-	+	-
학업 성취 수준	상	+	+	+	+	+
	중	-	-	-	+	+
	하	-	-	-	-	-
경제 수준	상	+	+	+	+	+
	중	-	-	-	-	-
	하	-	-	-	-	+
지역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	+	+	-	+
	강원	-	-	-	-	+
	충북	-	-	-	-	+
	충남	-	+	+	-	-
	세종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경북	-	-	-	-	-
	경남	+	-	-	-	-
	제주	-	-	+	-	-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수준별 행동지표 특성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수행결과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영향관계, 예언타당도 등의 분석결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가 다른 관련 변인과 상관성이 높고 수행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의 점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불식시키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즉, 학자들이나 현장에서 지도자들도 이 측정결과의 점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역량지수의 수준을 평균점수가 아닌 표준화 점수(Z점수)로 전환하여 그 수준을 4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원점수를 Z 점수에 따라 4수준으로 구분한 이유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문항이 Likert 방식의 4수준으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이 수준에 따른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청소년의 역량특성이 성장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학교급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로 구분하여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별로 행동지표의 특성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지수에 있어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그리고 학습적응성 등의 역량은 전체적인 행동결과에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초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사고력의 문제해결효율성 변인이, 중학생과 대학생에서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컴퓨터활용시간 변인이, 대학생에서 언어능력의 학습시간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학습역량지수 행동지표 특성을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생애학습 역량 측정점수가 상수준-중수준-하수준과 같이 수준별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의 성장시기별로도 역시 행동지표 특성 수준이 상수준-중수준-하수준과 같이 수준별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특성이 생각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 지식활용 능력, 정보수용능력과 같이 인지적 사고를 요구하는 역량의 특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적 사고능력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그리고 학습적응성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관련성이 높은 변인이다. 따라서 학교급 즉, 청소년 성장시기별로 다른 행동패턴을 보이기 보다는 인지적 사고능력 수준에 따라 생애학습역량 행동지표의 특성이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역량의 수준별 특성이 반영되어 하위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하위역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생애학습역량지수 수준에 있어서 그 차이가 다소 특징적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생애학습역량지수는 수준별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1유형은 사고력과 학습적응성이 우수하여 '학습-몰입형'으로 명명하였고, 2유형은 논리적 사고력과 학습적응의 주도성이 우수하여 '논리-주도형'으로 명명하였으며, 3유형은 감성적 사고와 변화 수용성 특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감성-변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생애학습역량지수는 결국, 생각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 지식활용 능력, 정보수용능력 등과 같이 인지적 사고를 요구하는 역량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특성을 유형화한 결과, 중학생은 세 가지 유형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이들 유형은 생활관리역량의 네 가지 하위역량 모두 높은 수준의 집단,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역량이 높은 집단, 정서조절과 상황대처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역량의 경우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반면, 정서조절과 상황대처역량은 폭력이나 분노 등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역량,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역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생활관리역량 이외의 개인의 역량이나 사회적 역량에 해당하는 역량과의 관계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행동지표 특성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진로설계역량이 진로활동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활동경험은 구체적으로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교육, 직업관련견학,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횟수와 시간을 의미한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활동경험이 개인적인 선택활동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학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의 진로설계능력과는 대체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진로선택 및 활동에 대해 보다 자율성이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진로설계능력이 진로활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학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면서 1학년 대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진로설계” 유사 교과목에서 적성검사, 진로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교과목에서 선배와의 만남 등의 활동, 인턴십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 견학활동이 이루어져 자율성에 기반한 진로활동경험을 한다기 보다 대학에서도 학교주도의 진로경험활동을 하기에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개발역량의 행동지표 수준에 근거하여 학교급별 진로개발역량 유형을 구분해 보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위역량이 상-중-하 수준으로

유형이 구분되었다. 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주도적 진로개척형’, 하위역량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능동적 진로탐색형’, 하위역량이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수동적 진로탐색형’으로 구분되었다. 반면, 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설계와 여가활용능력은 낮은 수준이나 개척정신은 중간수준인 ‘진로탐색형’으로 현재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실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설계능력은 높은 수준이고 여가활용은 중간수준, 개척정신은 하수준인 ‘진로설계형’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진로설계는 중수준이나 여가활용과 개척정신이 높은 수준인 ‘진로체험형’은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은 높은 수준이고 여가활용이 중간수준인 ‘진로탐색실천형’은 새로운 진로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해 보는 유형이다. 그리고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은 중간수준이나 여가활용능력이 높은 수준인 ‘진로체험형’은 자신의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진로분야를 침착하게 체험하고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위역량이 모두 낮은 ‘수동형 진로탐색형’은 최소한의 진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유형이라 판단된다.

대인관계역량지수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역량 수준별로 행동지표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초·중·고등학생은 관계형성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많고,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가 많고,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수가 많고,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생은 관계형성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친구와의 대화 및 놀이 횟수가 많고,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가 많고,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초·중·고·대학생 모두 리더십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속집단에서의 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대학생 모두 협동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속집단에서의 협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형성역량이 낮은 1수준 집단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집단에서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수가 2명 이하였으며¹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및 주변 어른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형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는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 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김희영, 양미경, 박수란, 2015),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받는 지원, 지지 등은 자신을 보는 시각과 자신이 속한 조직 속에서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형성역량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집단의 경우, 친화성이 낮고 자신에 대한 개방성이 낮으므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에게 터놓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관계형성역량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보다 상담기관 등을 통해 지지와 지원을 받고, 정서적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리더십역량이 가장 높은 4수준 집단에서 소속된 집단에서 리더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수준의 행동 특성을 보였다. 즉, 소속된 집단에서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¹⁵⁾ 유사하게 협동역량이 가장 높은 4수준 집단도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행동특성을 보여, 소속된 모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¹⁶⁾ 이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14) 초등학생의 경우, 관계형성역량 1수준 집단은 고민상담가능한 친구 수 0명으로 나타남. 중학생 이상의 경우, 관계형성역량 1수준 집단은 고민상담가능한 친구 수 2명 이하로 나타남.

15) 리더십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수준으로, '1. 없음', '2. 소속되어있지만 거의 활동하지 않음', '3. 활동은 하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지는 않음', '4. 리더는 아니지만,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함', '5. 모임의 리더로서,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6) 협동의 행동지표는 소속된 단체에서의 협력수준이었으며, '1. 소속된 단체 없음', '2. 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3.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다', '4. 해결방안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 '5.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전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협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역량 유형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 1은 외향적인 유형(주도적-관계중심적 유형)으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이 모두 뛰어난 유형이다. 유형 1은 친화적이며, 자기개방적이고, 소속된 단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고, 모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유형 2는 원만형(평균형)으로 타인과의 관계형성하는 역량, 소속된 단체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거나 협동하는 역량이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이는 유형이다. 유형 3은 내성적 유형(소극적-개인중심적 유형)으로 유형 1과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데, 타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1, 2, 3을 볼 때, 대인관계형성역량의 세 가지 역량 중 한두가지 역량만 높은 유형은 없었다. 유형 1은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모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유형 2는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3은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서로 관련되어 있어 한 가지 하위역량이 다른 하위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및 행동지표 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청소년 역량을 학교급별, 성장시기에 따른 행동특성을 수준별로 분석함으로써 역량의 수행결과로서의 행동지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즉,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점수결과를

통해 전국단위에서의 행동지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있어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되는 Likert 방식에 개발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청소년 역량지수를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그 측정결과와 평균 점수가 ± 0.05 수준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측정되어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이 측정한 Likert 방식이 개인의 주관적 개입이 반영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응답한 역량점수와 행동지표간에 일관성 있는 영향관계가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다고 인식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행동지표 결과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방법이 Likert 방식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개입이 되어 그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로서 역량점수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또는 강화시키기 위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정책을 논하고 이를 적용해야하는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활용에 있어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과 지원체계를 만들고 실천해야한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으로써 5차년도 동안 청소년 역량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청소년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청소년 역량이 갖는 의미가 6차 청소년 기본계획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 5차 기본계획에서 시행된 이 연구가 청소년 역량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담론과 논의를

통해 비전을 설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6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역량군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역량은 독립적인 특성을 갖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고, 하나의 역량 특성이 다른 역량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된 청소년 역량 증진 정책이나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보다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생애학습역량은 인간의 인지적 사고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력이 높은 청소년이 지적도구활용능력과 학습적응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지적도구활용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 언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역량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6차기본계획에 있어 생활관리역량은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성이 높으며, 진로개발역량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과 관련성이 높고, 대인관계역량은 청소년의 교류 정책과 관련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양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의 기본방향과 측정도구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역량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학문의 융합, 지역간의 연계와

협력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역동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생애학습역량에서 학습적응성과 정보통신기술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의 협력과 관계형성 등의 주요 역량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청소년 활동정책이나 청소년 사회도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고 이에 따른 청소년 정책을 실천해야하는 패러다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노력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지수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시사점을 바탕으로 역량군 별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창의·융합 인재양성이라는 과제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핵심 키워드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창의·융합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창의·융합 인재의 특성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융통적 사고능력이다. 융통적 사고능력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하는 정보와 지식을 배우려는 학습 적응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신장은 필수적이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그리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TEAM이나 메이커(Maker) 교육활용에서 요구되는 대표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생애학습 역량의 하위역량은 상호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역량이 다른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적도구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STEAM 교육이나 메이커 교육이 청소년 활동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개발되어 적용된다면, 청소년의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등의 역량 또한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또한, 생애학습역량과 관련하여 창의융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 활동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유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학교교육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교육과정적 측면, 교육방법적 측면, 그리고 교육평가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은 비형식 교육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평가에 있어 자율성이 상당히 많이 부여된다. 즉,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가까운 청소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과 시설들이 요구되지만, 주어진 여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차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측정결과 및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행동 지표인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경우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목표 수립 및 계획적 과제 진행이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조절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관리역량 중 과제관리역량과 상황대처의 하위 역량인 중독인식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행동지표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관리역량 중에 과제관리역량, 중독인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침식사 빈도와 평균 수면 시간을 제외한 모든 행동 지표는 생활관리역량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평균 수면 시간에 건강관리역량이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의 경우는 아침식사 빈도와 평균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생활 패턴에 기반 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활관리역량이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등학생일 때까지는 아침식사를 부모님 등이 챙겨주셨지만,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인 경우 스스로 아침식사를 챙겨야 하는 생활 패턴으로 변화한 만큼 아침식사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정책으로 몇몇 대학에서 실천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식사’ 등의 제도나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과제나 아르바이트, 여가 생활, 취업 준비 등 여러 가지 일로 수면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수면시간 확보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해 대학생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수면시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점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수준별로 그룹화한 결과, 역량점수 수준에 따라 행동지표에서 제시한 행동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관리역량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과 생활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관리역량점수를 통해 청소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청소년의 상황대처역량은 청소년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수준별 그룹화한 결과 폭력 상황 얼마나 빈번하게 놓이고, 이에 대해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 비교해보건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대학생에 비해 폭력 상황에 더 빈번하게

직면하고, 상황 대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의 상황대처역량 수준이 낮고, 폭력 상황에 대해 더 직면하는 빈도가 높고 상황 대처 행동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직면하게 되는 폭력 상황을 줄이고, 그에 대한 대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점수를 표준화하고, 이를 수준별로 그룹화한 결과, 정서조절역량의 경우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1수준 정서조절역량 그룹은 분노 등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조절하는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은 분노나 우울 등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감정인식과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류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 등에 학생의 역량 수준 정보를 공유한다면, 학생의 분노 등 감정과 조절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조절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UNESCO에서는 'With and for Youth'라는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UNESCO, 2018). 그러한 노력의 영역 중 청소년의 스포츠, 건강,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생활관리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더욱이 이들은 근거 기반(evidence based) 정책이나 제도를 위해 청소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의 측면에서 이 과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과 그에 따른 행동지표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생활관리역량과 그에 따른 행동지표를 통한 청소년 특성 분석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개발역량 측정 및 행동지표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개발역량 중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개척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역량은 새롭게 급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척정신은 이론적 학습으로는 향상이 어려우므로 학생들에게 도전정신 및 차별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진로개발역량 행동지표의 특징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초중고대학교의 학교급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기 위해 참여할만한 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면 수동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스스로가 본인의 필요와 동기수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활동이 개발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의 청소년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다.

대인관계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형성역량의 세 가지(관계형성, 리더십, 협력) 역량 중 한 두 가지 역량만 높은 청소년이 없다는 점이다. 대인관계역량의 유형에 있어 유형 1은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모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유형 2는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3은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서로 관련되어 있어 한 가지 하위역량이 다른 하위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학습역량과 동일하게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관계형성의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역량 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함

으로써 리더십과 협동역량이 자연스럽게 함양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각각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다른 하위역량도 연쇄적으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ICCS 2016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ICCS 2016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 결과는 2009년 이래로 약 절반의 국가에서 대상 학년 학생들의 시민지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시민지식 점수의 향상은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의 청소년들에게서 양성평등과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시민지식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국가 안팎의 시민 지식에는 상당한 편차가 발견되었다. 평균적인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및 시민의식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평균적인 청소년들이 간신히 기초적인 개념만을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 시민 지식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과 최저 점수를 기록한 학생들 간에도 큰 격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한국은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이 매우 우수한 편이었으며 청소년들간의 편차 역시 적은 편이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최하위 수준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다.

2009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았다. 또한 남녀 평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 영역에서도 여자청소년들이 더 우수한 경향이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시민지식 점수 혹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 요구되며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성차이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주시민교육의 환경 맥락에 대한 조사결과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국가마다 혹은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공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비슷한 수준의 우수하거나 아쉬운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내 시민참여경험이 청소년들이 미래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확인되어 왔다. 본 조사 결과 역시 교내에서의 시민참여 경험은 미래의 시민 참여와 관계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세계 각국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청년층이 얼마나 기권을 많이 하느냐가 실제 한 국가의 투표결과를 결정짓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토론에 얼마나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지, 그리고 교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시민참여 경험을 하는지가 미래의 시민 참여 의지와 시민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준다. 따라서 시민 지식, 학교 참여 경험, 시민 참여와 미래 시민 참여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내에서 형식적 및 비형식적 경로로 민주시민의식을 교육하고 시민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역할 수행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의 동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2. 정책적 제언 :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1단계(2014년), 2단계(2015~2016년), 그리고 마지막 3단계(2017~2018년)로 추진되는 과제로서 전체적인 연구진행 및 추진프로세스는 [그림 VII-1]에 도시된 바와 같다.

* 이 장은 모상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조남익 교수(광운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2단계 (2015~ 2016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3단계 (2017~ 2018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 출처 : 장근영 외, 2015. pp.9(성은모 외, 2014. p.10에서 재인용)의 표를 인용함.

그림 Ⅷ-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추진계획

마지막 3단계인 1차 년도인 2017년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영역은 역량 중심 청소년 정책제언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효과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마무리 짓는 2018년도에는 우선 지난 4년 동안 추진되어온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 역량증진과 관련된 정책제안들을 리뷰해보고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청소년역량 정책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제안해 보았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청소년 역량증진을 제도화의 틀 속에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체계를 고찰해 보았으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대비 역량증진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비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한 소언으로 정책제언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전체적인 논의구조는 주제, 추진 배경 및 내용을 축으로 [그림 VII-2]에 도시되어 있다.

청소년역량 정책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시사점	배경	· 2014~2107년 역량증진 방안 및 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내용	· 2014년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 및 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5년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 및 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6년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 및 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7년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 및 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4년 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 및 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제언에 대한 시사점 도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방안과 지원·추진체계	배경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시된 청소년 역량증진 실천과제의 내용과 구체화 방안필요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도화를 통한 정책 및 지원·추진체계 필요
	내용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의 내용과 실천과제 · 사업추진체계로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 사업 방안 및 방향 제안 · 역량중심의 청소년 활동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 청소년 역량중심 활동프로그램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과 역량증진모색 · 청소년 시민의식의 변화경향과 추이에 근거한 참여역량 활성화 방안 필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대비 역량증진 추진방안과 지원체계	배경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방안에 근거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 주요 역량증진 정책 및 지원·추진방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
	내용	·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방향 제안 및 실천과제 제시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제안 및 실천과제 제시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강화 방안 및 실천과제 제시

제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역량 개발	배경	· 청소년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제4차 산업 대비 청소년역량 개발의 필요성 대두
	내용	· 청소년 역량정식에 대한 개념설계에 대한 방향성 제고 ·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청소년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영역의 확장 필요 · 청소년 역량측정도구 체계를 활용한 자가 역량진단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출처 : 연구진이 구성한 것임

그림 VII-2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구조

1) 청소년 역량정책(2014~2017)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정책 방안 제고

1	청소년 역량증진정책 추진배경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1.	2014년도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 역량증진 기반 정책방안 제안 및 실천 과제 제시
2.	2015년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 역량증진 개발과 실천을 위한 인프라조성 방안제시
3.	2016년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 역량증진 기초프로그램 개발 방향제시 및 제안
4.	2017년도 청소년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 역량증진 심화프로그램 개발 방향제시 및 제안
5.	청소년역량증진 선행 정책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

본 장에서는 2018년도 연구를 종결짓는 마무리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제안되어 왔던 역량 관련 정책현황 및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제언을 전반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014년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및 이해

2014년도는 제5차 청소년정책5개년계획의 2년차에 해당하는 시기로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개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던 시기이다. 청소년 역량은 단기간에 발견되거나 개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 역량 지수에 관한 과제를 다년(5년)과제로 추진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2014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총 7가지로 제시되었다<표 VII-2>.

표 VII-2 2014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구분	내용
정책제언 1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정책제언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 및 측정도구 개발에 따라 중앙부처 및 시도단위 청소년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
정책제언 3	청소년 역량 수준과 변화정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정책제언 4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정책제언 5	청소년 역량기반 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6	청소년 역량에 대한 청소년 (예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청소년 활동 기관 컨설팅 제공
정책제언 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출처 : 성은모 외, 2014, p.222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결과에 따른 7대 정책제언을 재구성함

2014년도의 청소년역량지수 측정과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역량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청소년역량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도출해내고자 시도한 것도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책제언 1, 2는 청소년 역량에 대한 과제를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반영과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제언 3, 5는 청소년 역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성과평가 및 보상 시스템에 대한 과제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제언 4는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미래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과와 가치를 청소년 역량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제언 6은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청소년활동과 정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관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체계도 함께 제안되었다. 정책제언 7은 청소년 역량지도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로드맵 제시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2013년 청소년역량지수 개발부터 시작되어 2018년 청소년역량에 관한 성과평가까지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역량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2014년의 정책과제는 청소년 역량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 시키면서 향후 청소년 역량이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핵심 가치와 내용으로 활용 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2015년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및 이해

2015년의 연구는 2014년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2014년의 7개 정책제언의 내용을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로 재구성하고 각 정책과제별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015년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II-3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 2.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 3.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성과 지표로 활용 (2) 역량기반 중심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성 제안
2.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1.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2.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2.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3. 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5.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6.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1.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2.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3.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4. 청소년 역량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1.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 2.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3.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 4.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 5.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5. 청소년 역량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1.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안 2.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 시스템 구축 4.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출처 : 장근영 외, 2015. p.315의 표를 인용한 것임.

2015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6대 정책과제는 2014년과 같이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역량의 추진체계 강화에서는 청소년 역량과 청소년활동의 개념적 혼돈으로 인해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청소년역량의 개념을 정리하여 법과 제도적으로 명시화하고, 역량과 활동 간의 관계를 정립하며 이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한다면 청소년역량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청소년역량 관련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개발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 인력, 역할에 따른 예산 등이 법으로 보장되어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제고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역량에 대한 개념설정과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기반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요 개념으로 청소년 역량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으로 청소년역량의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부모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모교육 및 상담의 경우 아동 청소년시기에 가정(부모)과 학교(교사 및 또래)의 영향력이 큼으로 이들에게도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을 알려 청소년들이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지지자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영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 역량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균형 있는 청소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취약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와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그리고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개발은 사회 경제수준이나 성별, 사회적 준비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역량 개발을 위한 출발점에 차이가 있고, 역량 개발의 과정에서도 지원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조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 전문성 강화와 다섯째, 청소년 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은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관 및 지도자의 전문성 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확대하고 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 관리 및 다양한 연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 역량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전문 지도자의 적절한 지원과 지도가 있을 경우 더 효과적으로 역량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확대 및 연계 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반 구축은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은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례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구체화, 정교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는 해외 사례나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활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패널 데이터화나 측정문항의 간소화 및 매뉴얼화 등은 활용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2015년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2014년 역량개발 정책과제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역량 개발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플랜이나 과제의 우선순위 등과 같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 체계와 실행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정책과제로서 실천적 제안을 담아내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 2016년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및 이해

2016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주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적인 청소년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년도인 2015년에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상적인 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활동 중심의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부적인 역량 함양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장근영 외, 2016).

표 Ⅶ-4 2016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구분	내용
정책제언 1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2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3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4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5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6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7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8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 출처 : 장근영 외, 2016, pp.287-304.

여기 제시된 과제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영역의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다. 2016년 정책과제로 제시된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별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주체,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역량 개발의 방향과 과제를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역량의 가치와 내용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제시된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실천내용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체계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들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18년 이후부터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처럼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실천력을 담보하는 형태의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2017년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 및 이해

2017년에는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해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해야 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2016년도 다루지 않았던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주체,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적 개선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시 역량관련 정보의 제공 그리고 활동시설 유형별 중점 추진역량의 특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2017년의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추진과제는 크게 프로그램 과제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VII-5 2017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구분	내용
정책제언 1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2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3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4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언 5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적 개선
정책제언 6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시 역량관련 정보의 제공
정책제언 7	활동시설 유형별 중점 추진역량의 특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

* 출처 : 장근영 외(2017). pp.441-454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한 것임.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2016년도에 비해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과제관리역량이나 상황대체역량과 같이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사회에 삶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적 개선과 청소년활동 제공시 역량관련 정보제공은 기존의 사업을 청소년 역량 개발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제적인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활동시설 유형별 중점 추진역량의 특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기존의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시대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되고 재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청소년 역량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7년의 과제는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당해 과제를 넘어서 향후 수립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지속적인 청소년 역량 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2014~2017년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적 시사점

2014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역량 증진 정책방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은 청소년 역량 개발 정책의 추진 방향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은 다양한 사례와 정부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미래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실천과제 등을 제시하였다(성은모 외, 2014; 장근영 외, 2015; 장근영 외, 2016; 장근영 외, 2017).

본 연구는 다년 연구로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및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2013년 청소년역량 지수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2015~2016년에는 국제비교연구 및 전국단위 청소년 역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제공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핵심적으로 제안하였다. 2017~2018년에는 개발 및 보급된 청소년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 역량의 주요한 핵심과제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성은모 외, 2014).



그림 Ⅶ-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추진 로드맵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 추진 로드맵에 따라 연구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년 연구 과제임에도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삶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연도별 청소년 역량 과제를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미 로드맵 상 연도별 설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전년도 연구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그 주제와 세부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도출·적용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현장에서 적용 시 보다 활용성 높은 청소년 역량 지표와 과제가 제시되었을 것이다.

2014년과 2015년은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제안과 인프라 체계 구축방안에 집중했다면, 2016년과 2017년의 주요 정책과제는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으로 중심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물론 2017년에는 중앙단위와 지자체의 역량 증진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의 분류와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역량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함께 제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과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로드맵 상 제시된 연구의 목적과 지향점에 도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로드맵상 2017년 연구의 주요 목표는 효과성 분석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및 시설의 우선순위에 따른 기존 역량 지수와 비교 분석하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 개발의 효과성과 정책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년과제로서 청소년 역량 개발 효과성이나 성과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측면 또한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책 과제는 총 28개가 제안되었으며, 이중 청소년 역량 개발에 관한 정책 개발 4개, 청소년 역량 개발 인프라 조성 방안 9개,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실제 프로그램 제안 13개, 프로그램과 연관된 실천과제 2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과제의 숫자로만 보면 청소년 역량 개발의 정책 과제 및 인프라 조성보다 청소년 역량 프로그램 제안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개발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쉽게 변화되어 그 활용성과 효용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 주도적으로 역량 개발과 성과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PBL, Project Based Learning)을 기반으로 역량개발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 지표와 활용방안 및 루브릭 중심의 평가도구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청소년 역량 기반 활동의 구체적 활용을 위한 도구로서 청소년 역량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현장에서의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표 VII-6 2014-2017 청소년 역량 증진 정책방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 체계 및 측정도구 개발에 따라 중앙부처 및 시도 단위 청소년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 3. 청소년 역량 수준과 변화 정도를 주기적으로 진단 하고 이를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4.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 체계 강화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1.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2.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의 실시 4.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5.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1.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2. 과제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3. 상황대처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4.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 청소년 역량기반 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5.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6.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 합성체험활동프로그램의 실시	5.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적 개선
6. 청소년 역량에 대한 청소년(예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청소년 활동 기관 컨설팅 제공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7.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 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6.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시 역량관련 정보의 제공
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로드맵 제시		8.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7. 활동시설 유형별 중점 추진역량의 특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

* 출처 : 본문의 <표 VII-2>~<표 VII-5>의 표 내용을 재구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청소년 역량 개발 관련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 개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충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공통의 개념으로 청소년 역량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역량 개발을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로서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청소년기의 역량 습득을 생애 전반의 주요한 가치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자기 성찰과 적절한 교육, 체험 및 생산적인 관계를 통해 습득된 자기 맞춤형 역량을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성장 기제로서 제안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방안의 중요한 가치로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연구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청소년 역량증진과 강화방안으로 우선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 방안과 지원·추진체계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증진 제도화를 통한 정책 방안에 근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대비 역량증진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 역량 개발이

청소년정책의 주요 지표인 제5차에 이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실천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역량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방안과 지원·추진체계 고찰

2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 방안: 제도화·정책화 방안제시 및 지원·추진체계 제안
	1.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화 방안 - 청소년역량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논의구조 제시 - 청소년 역량증진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역량강화방안 모색 2.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역량증진 정책사업의 방향성 제고를 통한 역량강화 - 청소년정책 사업 우선순위 별 역량증진 지원방안 모색 - 개인 맞춤형 역량성장지원 사업모색 3.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모색 - 청소년 사업의 역량중심 기반으로의 재구조화 필요성 - 청소년 활동 제 주체 기관 간의 역량중심 지원체계 구축 4. 청소년 역량중심 활동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창의 융합 중심의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필요 - 자기주도형 역량신장 프로그램 개발 방향 설정 5. 청소년 시민의식 경향과 주이에 근거한 참여역량 활성화 방안 - 온오프라인 참여를 포괄한 참여플랫폼 구축방안 필요 - 청소년의 참여유형 및 경향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1)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화 방안

지난 4년간의 연구에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청소년 역량증진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주로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관련 법·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연구에서는 법·제도 상 청소년역량의 개념 명시와 청소년역량 향상을 위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근거 청소년역량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 비중 있는 과제라는 인식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역량을 국가적 과제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인력, 예산 등의 투입과 홍보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역량에 대해 관심과 개발 및 강화의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성은모 외, 2014). 2015년에는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에서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역량의 신장을 위해 국가과제로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음 지적하면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두 법을 통해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 인력, 역할, 그에 따른 예산 등이 법으로 보장되어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장근영 외, 2015). 2016년과 2017년에는 법제개정 관련하여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프로그램적인 접근은 충분하다고 하여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장근영 외, 2016; 2017).

지금까지 청소년역량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논의 된 핵심주제와 그 구조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 체계를 수요자 즉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함의하고 있다(이광호, 강주연, 2018). 따라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추진에 있어 청소년 역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함께 청소년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실행예산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새롭게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역량의 개발을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역량 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박람회,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큰 규모의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국제교류 등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 개발에 관련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력(social impact)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역량에 대한 사회 환경과 정책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관련 전담기구’의 부재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조직 내에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무부처 및 교육부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청소년 활동안전센터와 같이 ‘(가칭)청소년역량개발센터’를 신설하여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의 의미를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그리고 권한까지 법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다년간 이루어진 청소년 역량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실천력 있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단위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역량 개발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관리·조정 할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와 청소년 현장이 청소년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역량 증진을 위한 기존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전담기구 신설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소년 역량증진 정책사업 방향성 제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근거, 매년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별 청소년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을 토대로 각 지자체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청소년 사업을 전개하였다. 2015년도 연구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정책사업을 청소년역량 영역별 체계로 재분류한 결과 생활관리, 사회참여, 진로개발, 대인관계역량 순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역량 영역의 사업내용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예산의 집행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생애학습, 진로개발, 생활관리, 사회참여,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국가장학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생애학습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장근영 외, 2015).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교육 중심 사업을 지원(학교 연계 사업 등)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학교 밖 또는 방과후 시간에 청소년의 역량 개발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 역량 개발을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운영 시 청소년 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기존의 학교교육을 보완하거나 직업 재교육 수준의 협의로 청소년 역량 개발이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사업의 가치와 내용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청소년 역량개발 활동은 청소년 스스로 활동과제를 찾아 도전하고, 활동실행을 통해 의미 있는 성취를 경험하고, 활동의 기록 관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유하여 실제적인 역량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개발의 과정은 심화된 과제를 발굴하게 하여 결국 자기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정책의 방향을 청소년 주도성에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주도성에 기반한 청소년 사업이란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 역량 개발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경험을 통한 자기역량 개발과 사회적 성취는 향후 진로개발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발달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이벤트성 청소년사업을 지양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 역량개발을 집단적 지원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개인별 의미 있는 역량 개발 활동의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록 관리를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과 성취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입직 등 진로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청소년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역량개발 지원 현황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 정책 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역량 개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및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별로 실제적인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역량개발과 연계 할 수 있는 진로개발, 생애학습개발 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모색

미래사회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스 슈밥 외(Klaus Schwab et al., 2016)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사회의 사회변화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 분야들 간의 연계 및 융합이 가속화 되는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1세기 핵심역량은 지식의 단계를 넘어 실제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이주호, 2016). 즉, 소통(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인성(character) 그리고 시민의식(citizenship) 등과 같은 핵심역량은 통합적이고 자기주도인 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해진 틀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에 대한 접근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천력을 전제로 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활동과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을 비교해 보면 <표 VIII-7>과 같다. 기존의 청소년활동이 지도자 중심의 투입(Input)과정 중심의 단기목표 중심이었다면,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은 산출(Output)과정 중심으로 장기적인 목표 즉, 기대되는 활동결과를 설정하고 청소년들이 성취해야 할 역량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방식에서 벗어나 결과와 과정을 모두 중시하며 지도자와 청소년의 지속적이고 무한한 창의성과 자발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청소년활동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인 반면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의 개발과 이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결과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문숙, 2009). 따라서 단편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도달해야 하는 결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역량 개발과 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을 단편화된 한 가지 활동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목표를 융합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활동을 통해 축적된 결과가

미래의 재생산(참아내기)에 집중하여 수행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에서 활동한 것의 창출과 적용(실행하기)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Ⅶ-7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과 기존의 청소년활동 비교

구분	특징					
기존 청소년 활동	지도자 목표 중심	투입(Input) 중심 : 가르쳐야 할 것	단기적 목표	단편적 (정해진 활동 시간에 요구 되는 결과)	고립적 (한가지 활동 목표 중심)	활동한 것을 통한 축적과 재생산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청소년 역량 중심	산출(Output) 중심 : 성취해야 할 것	장기적 목표	총체적 (과정과 결과 단계에서 요구 되는 모습)	융합적 (다양한 활동 목표 중심)	활동한 것의 창출과 적용

* 출처 : 김문숙(2009). p.15의 <표 1>을 청소년활동에 맞게 재구성.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은 기존의 청소년활동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경험 제공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총체인 역량을 청소년활동의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은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생활중심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분절된 체험 중심 활동과정을 역량중심의 융합적, 총체적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보다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실제로 얻을(할 수 있게 된)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성장경험의 명료화는 기존의 단편적 체험이나

암기식 지식을 통해 평가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안목과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사고력, 탐구 능력 등을 키워 줄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현장에서의 역량개발 시 개별 역량들이 지닌 범주화의 임의성과 자의성, 그리고 역량들의 상호관련성을 총체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은 서로 분리된 전혀 다른 능력을 지칭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는 ‘인지적 역량’과 ‘정의적 역량’ 역시 서로 구분된 역량이라고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0>. 진로교육 대안 모색 기획-역량기반 교육의 의미와 발전과제. 2018. 9.26. 검색). 따라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 시 기존에 수행되어온 역량의 정의나 개념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또 다른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청소년 활동을 통해 실제로 지식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이를 통해 실제 자기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등의 성장 중심 청소년활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중심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단체나 기관, 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들의 개념을 청소년 역량기반을 중심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주도성을 어떻게 부여하고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찾게 하는가가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양적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스토리 중심의 과정 지원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기관)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정책은 청소년 역량을 기반으로 재개념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애 발달과정에서 시기 별 발달적 특성을 감안하여 활동정책 시행 시 연령별 역량특성과 지수를 고려하여,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지원하고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4)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프로그램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해 2016년에는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그렇지만 제안된 프로그램은 청소년현장에서 영역 별 적용 가능한 실천적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다 보기는 어렵고 아직은 전반적인 체계와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7년에는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해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해야 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2016년도 프로그램에 비해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주체,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 과제관리역량이나 상황대체역량과 같이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사회에 삶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참여역량 증진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적 개선과 청소년활동 제공 시 역량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기능에 근거한 효용성과 현장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 있다. 이상에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역량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다섯 부분영역으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섯 부분영역으로 비교 분석하여 시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의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역량개발 중심으로 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실제로 이러한 역량이 길러 질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역량 개발은 추상적 개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관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를 활용할 경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계획, 운영, 평가함으로써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효율적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기 별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시 전문 기관과의 공동기획과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 대한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은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삶의 영역에서 역량을 성과평가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지원방향과 내용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 시점에 청소년주도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융합인재로 청소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중심의 청소년활동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자 요구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과정이 재편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역량 증진 프로그램 역시 개별 청소년의 수요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학교라는 유효 공간을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행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정책 및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드론, 3D 프린팅 등 관련 기술과

스킬을 습득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활동을 통한 다양한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지적도구 활용능력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대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창의성에 기반한 융복합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 계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사고력을 강화하는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청소년 활동정책 속에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미래 사회에는 모든 일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역량개발과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딩 역량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코딩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초중등부 필수로 지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고등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심이 된 청소년활동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찾아 도전하는 형태의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5) 청소년 시민의식 경향과 추이에 근거한 참여역량 활성화 방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기로부터 미래의 삶을 의미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삶을 공유하는 역량개발이 중요하다. 하지만 빠른 사회변화 속에서 모든 역량을 개인별로 습득하여 활용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습득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역량을 존중하며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미래를 위해 준비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요한 현안에 참여하여, 특히 사회적 관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 시민의식, 정치적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통한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로부터의 사회적 자본형성이 중요하다(조남익, 2009).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게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적 자본이 개인의 수준에서 역량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을 연결해 주는 관계와 규범을 강조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호혜적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다(조남익, 2009).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회는 개인화·개별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참여적 삶의 요구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 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핵심가치로 제안해 왔다.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장근영 외, 2015). 2015년 연구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결과,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공동체시민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외, 2015). 이러한 진단을 기반으로 2016년에는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 범주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장근영 외, 2016). 또한 2017년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의 FGI를 근거로 공동체시민성,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같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제도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장근영 외, 2017).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향점이나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장근영 외(2017)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청소년참여활동의 체질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적인 사회참여의 플랫폼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에 근거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방식을 벗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성은모 외, 2014). 이러한 청소년 참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청소년의 실천가능한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은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공유함으로써 실제로 활용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대비 역량증진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앞 절에서 지난 4년 동안 역량증진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언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 이에 근거한 법적 근거를 통한 제도화 방안과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근거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하 제6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량증진을 위한 추진방안과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6가지의 핵심역량과 그 역량이 정의하는 특성은 청소년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개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이 역량중심 교육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역량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대고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그 정의가 소개되어 있다.

표 VII-8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핵심 역량	정의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출처: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세종: 교육부.

본 교육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청되는 미래 핵심역량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청소년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16개의 하위역량의 개념적 특성과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고 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기관리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세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으로, 네 번째,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으로, 다섯 번째,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으로,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에서 도출한 5개의 청소년 역량과 이를 구성하는 16개의 하위역량은 아래와 같다.

표 VII-9 청소년 역량지표, 정의 및 하위역량

역량지표	역량정의(영역)	하위역량
생애학습 역량	○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사고력(Thinking) ○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생활관리 역량	○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 건강관리(Health) ○ 과제관리(Task management) ○ 상황대처(Situation handle & management) ○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진로개발 역량	○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	○ 진로설계(Career design) ○ 여가활용(Leisure use) ○ 개척정신(Pioneer spirit)

역량지표	역량정의(영역)	하위역량
대인관계 역량	○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	○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 리더십(Leadership) ○ 협동(team work)
사회참여 역량	○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	○ 개인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 공동체 시민성(Community citizenship) ○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 출처: 장근영 외(2016). pp.200-206의 내용을 요약함.

청소년역량은 청소년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역량의 하위척도와 이를 구성하는 문항의 특성을 통계적 검증과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영역 별 구성개념과 하위문항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구성개념과 공통적 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역량을 서로 비교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도시화 할 수 있다.

첫째, 자기관리역량과 진로개발역량은 자아정체성 즉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일수 있다. 둘째,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학습역량과 많은 유사점이 보인다. 셋째, 인간에 대한 공감 및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응능력이 필요 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역량은 타인들과 개방적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조율하며 협력 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에 기반 하여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표 Ⅶ-10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청소년역량 지표 비교

영역	I	II	III	IV	V	VI
핵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청소년 역량	진로개발 역량	생애학습 역량	-	생활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회참여 역량
비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역량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하부역량을 바탕으로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비교할 경우 「창의적 역량」 영역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외의 다섯 영역에서 두 분류체계 간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 창의적 역량은 구성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로 인해 구인상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그 외의 청소년역량은 구성타당도를 통해 구인성(construct concept)을 검증하였음					

* 출처 : 본문의 <표 Ⅶ-8>과 <표 Ⅶ-9>의 내용을 재구성함

역량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내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청소년 계는 현재 추진 중인 창의적 체험학습과 자유학기제 등과 연동하여 보다 다양한 청소년 역량증진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현재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온라인 공간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까지 진행된다면 청소년의 배움터 영역은 보다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로 상호 공통되는 역량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영역에서도 변화하는 미래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역량증진을 강화 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6차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정책 목표 중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18), 지금까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수립방향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을 근거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해 “사람 중심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청소년 참여와 주도성 강화”, 즉 “청소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 확대”와 이를 위한 청소년주도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청소년이 도전·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중심기조가 맞추어져 있다. 즉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 정책의 수립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6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중심의 청소년주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및 성장지원체계혁신,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진로 교육 지원체계 등의 영역에서 15개 정책, 청소년들의 참여확대, 권리기반 조성 및 민주시민 성장지원을 위한 참여와 권리 증진영역에서의 11개 정책,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영역에서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증진 강화를 위한 5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영역 및 추진정책을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 체계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실행과 적용가능성,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정책의 하위과제의 경우 다년간 연구 되어온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에서 제시하는 주제와 정책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정책과제의 하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역량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면, 해당 정책과제

들이 청소년들의 현 역량수준 및 미래의 역량증진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정책이 수립, 실행, 평가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세부 과제의 역량목표에 따라 이를 재분류 및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목표의 실천과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이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면, 청소년의 핵심 역량체계를 제안한 본 연구의 개념적 구인과 해당 역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기반하여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량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6차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대비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운영체제안의 세부 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3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 방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대비 역량증진 방안
1. 자기 주도 중심의 청소년 역량강화 및 증진을 위한 노력 - 자기 주도 프로젝트 활동 등 청소년 중심의 활동방안 지원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 참여 방식의 다변화 모색을 통한 권리 증진방안 필요 - 근로권 보호 및 여가권 신장 등의 참여권영역의 확대방안 필요 - 교육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참여권 증진 도모 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강화 방안 -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성 증진 및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필요	

(1)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성 제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을 주요한 수립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는 환경 변화에 청소년이 도전·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원적(支援的)·협업적 청소년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가 기획하고 도전하는 수요자 주도 청소년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편 및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인프라 구축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설정하고 3개 정책 과제와 14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1. 청소년 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에서 ①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 체계 구축은 기존연구 등을 토대로 역량지표 선정 및 측정 키트 등 개발·보급을 통해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청소년 주도성에 기반한 청소년활동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그동안 청소년 주도라는 개념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이나 방식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도성을 강조해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제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주도성의 장이 되기보다는 프로그램화(구조화)되면서 청소년시설의 단위사업으로 이해되고 실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형태(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주도성을 실험적으로 시도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청소년 주도성이 청소년사업 전반의 보편적인 활동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고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사형 사고에서 벗어나 동사형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이광호, 강주연, 2018), 또한 혼자 무언가를 해내는 완결적 개별 역량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집단지성에 기반에 협력을 위한 역량이 중요하게 된다(이화영, 2018). 이러한 역량은 청소년전문가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개발되기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스스로 문제의식을 통해 질문을 찾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해결책을 발견하여, 실천을 반복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핵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은 청소년활동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소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하면서도 혁신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점 추진 영역 활동중심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지원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긍정적인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점 추진 영역인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 메이커 활동 등을 중심으로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 인재양성의 정책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의 소프트웨어(SW) 교육 현장 안착지원 및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청소년 현장의 역할 찾기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SW교육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중심의 우수 SW교육 모델 발굴 확산 및 교사 학생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발적인 SW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청소년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어떻게 청소년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연계 기능 강화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원기반 구성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개발, 세대간통합, 청소년권익보호 등과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역량기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개발 및 단계적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점 추진영역 청소년활동부터 역량기반 청소년 인증 활동으로 변화하여 청소년시설단체로 시작하여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주도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와 목표는 확고해 보인다. 이번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역량지표 개발, 중점 추진활동의 설정, 프로젝트활동으로의 변화, 인증제와의 연계 등은 각 과제별 긴밀성을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는 이전의 선언적 목표에서 벗어나 실천적 전략과 과제의 제시를 통해 가시적인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와 청소년 현장에서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며 지금의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도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청소년 함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가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성과위주의 사업 확산과 대규모 이벤트성 국가주도의 청소년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사회기반 다양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찾기 등과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 청소년참여 및 권리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로 “1.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을 강조하면서 3개 정책 과제와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1. 청소년 참여 확대”에서 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 ②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③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8). 먼저 지역사회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시·도 및 시·

군·구가 청소년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공, 모니터링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전국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소년 의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급하고,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매뉴얼을 보급하여 확산을 장려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와 사회참여,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 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기업, 교육, 자원 활동, 공공부문의 기관들에게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연관된 문제에 청소년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구성을 다원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활동의 지원 등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권은 제도화를 통해 지원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도화 이전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실제적 활동의 요구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물론 청소년 참여라 하여 청소년들만의 참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관련 성인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청소년 참여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참여와 실천의 노력 등이 필요한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식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의의식 확대는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강화와 더불어 학생회·학급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제안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을 세부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이므로 학교에서부터 인권적 노력이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도 청소년의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참여방식을 넘어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19세~24세) 위원 위촉 권고,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의 적극적 검토·수용, 청소년의 정치참여 수준과 효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의 통로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았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참여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도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를 지원하는 데 역량 집중하며, 정책제안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 의견수렴(온오프라인), 학생자치연계 등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두고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권리역량 증진을 위한 과제도 제시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8). “1-2. 청소년 권리 기반 조성”에서 ①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②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③ 아동·청소년 여가권 신장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권리 기반 강화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 제시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도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구제 지원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과 부모의 놀이 인식 제고, 가족 단위 놀이·여가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가정에서의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 참여와 권리역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아 보이며 다른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타 부처에서 얼마나 협업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역할 부여가 참여와 권리의 영역에서는 중요해 보이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참여 지원을 넘어서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보인다.

(3) 청소년역량 증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성강화 방안

청소년 역량증진 및 이를 강화시킬 수 있고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정책과 일치하여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지도사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청소년 역량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이해도 제고는 청소년 역량 증진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의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활동의 기획 및 실행단계를 통한 자체 역량증진과 더불어 역량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프로그램참여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가 어떤 특정 역량영역에서

어느 수준의 변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강화가 필요하다. 역량증진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관련한 교과목 혹은 연수의 내용을 강화하여 설정 목표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제고, 성과의 측정방법,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강조하면서 3개 정책 과제와 8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4-31.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에서 ①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②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은 청소년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지도사 대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추진과 함께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단위 자율적 학습·연구 소모임 지원과 현장실무자 경험 및 정보 공유의 장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학습조직은 청소년 내부 기관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청소년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 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지도자 중심의 학습활동 확대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는 지도자들의 청소년 역량증진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역량 중심의 청소년 지도인력 편재를 조직 내 인사 및 인력개발 등의 조직 전반의 관련분야로 확대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연수, 보수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임금 기준표 마련 검토 등 보수체계 비교 연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 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도 수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청소년사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위한 ‘쉽과 치유’ 프로젝트와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설립 방안 모색 등 거시적 과제로 함께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청소년 정책과 사업은 청소년지도자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이 곧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수준임을 알고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합리적 보수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도자 공제회 같이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인 논의 과정과 실행 프로세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제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4	청소년 역량증진 및 강화 방안 : 4차 산업시대 청소년역량 개발과제 제언
1. 청소년 역량 정의에 대한 개념설계에 대한 방향성제고 2.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모색 3. 청소년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영역의 확장성 필요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개발 5. 청소년 자가 역량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준 별 역량 증진방안 모색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는 4차 산업혁명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김기현 외, 2008, 최계영, 2016).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연결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사회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으며, 속도와 범위와 깊이, 체제 변화 차원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임종현, 유경훈, 김병찬, 2017).

표 VII-11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

특징	내용
속도 (Velocity)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인간 삶의 변화 속도가 산술적 증가를 넘어 기하급수적 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각 분야들 간의 연계 및 융합이 가속화 될 것
범위와 깊이 (Breadth & depth)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변화가 주도적으로 나타나지만, 과학기술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물질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 논의까지 요구하는 변화가 될 것
체제 변화 (System Impact)	4차 산업혁명사회는 인류 사회에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및 체제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적 삶에서부터 국가 체제의 변화를 넘어, 세계 체제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될 것

* 출처 : 임종현 외(2017). p11

따라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로부터의 활용가능한 역량 개발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제 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청소년역량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를 위한 청소년역량 개발에 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역량 정의에 대한 개념설계에 대한 방향성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청소년역량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청소년 역량은 분절적이거나 단편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 역량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역량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굳이 차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본 보고서에서도 제시된 청소년 역량의 핵심요인으로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동,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 역량군과 16개 하위역량 지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역량과 하위요소가 청소년 역량의 개념인지 역량개발의 결과인지 구분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역량을 교차적이고 융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구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가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청소년 역량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기 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역량(4C 등)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다양한 사례와 방식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역량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실제 개발된 청소년의 활동 과정에서 무엇이 성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역량의 개념은 얼마든지 새롭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 구축이다. 현재 청소년 단체와 시설의 상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만한 역량과 인프라 체계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상의 지원체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고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임종현 외(2017)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학교를 넘나드는 지역, 지구촌 학습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울타리가 없는 학교는 온라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임종현 외, 2017). 청소년정책과 사업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원체계는 다양한 활동 선택의 기회부여와 활동의 내용 및 성과 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분야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 모두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역량 개발과 역량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시설과 다양한 외부자원과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이외의 온라인과 연계된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의 내용과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게 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 영역의 확장성도 중요하다. 기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영역도 융합과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의 수련활동만 고집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특히 청소년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교육 등과 차별화에 몰두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필요에 동참하고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과 청년의 중간 단계로서 청소년시기를 잘 준비하기 위한 아동정책과 청소년 이후의 삶을 위한 청년정책과의 융합이나 연대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돌봄과 학습, 자립을 핵심가치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가로지르는 정책과 사업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자립이 어려워 청소년기를 연장할 수도 있고, 자기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청소년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발달론적 관점을 넘어서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아동기로부터 청년기까지의 정책과 사업의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빠른 사회변화를 읽어내고 그것을 청소년현장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특히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청소년 중심의 사고와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PBL(Project Based Learning)의 설계 및 운영이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청소년사업의 확장 및 온라인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역량은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청소년지도자 대상 집체교육 외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는 등 관리 중심의 지도자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역량 기반 청소년지도자 양성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지도자 역량 개발 및 공유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가 역량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역량 개발활동의 성과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자신 스스로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환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루브릭(Rubric) 시스템은 청소년 참여자가 프로그램 수행능력을 항목별·수준별로 명세화 된 가이드라인(준거기준)에 의거, 프로그램의 각 수준 별 성취정도를 스스로 평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수행 수준별로 혹은 평가 영역별로 세분되어 제시된 명세에 근거하여 활동이나 프로젝트 성취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며 실제적점수평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루브릭 체계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현재 성취수준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며 향후 어떤 수행능력이 필요한지 스스로 진단 할 수 있도록 해준다(신민희, 2012, 내용 재구성).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전 과정의 참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각 단계 별 평가과정의 주체자로서 수행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조정,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자기 주도 중심의 청소년 역량 기반 활동을 진단하는 틀로서 루브릭 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은 청소년 활동현장에서 청소년 역량 개발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역량개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각 시설이나 단체에서 먼저 4차 산업관련 역량기반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시 루브릭 평정 진단시스템 명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적 역량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4차 산업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며 역량기반 진단 루브릭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 전문적인 지식배양은 청소년의 역량증진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유관 단체나 시설의 지도자는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기획 시 루브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PBL 기반 프로그램 실행 시 청소년들의 단계 별 수준을 고려해 코칭 할 수 있는 역량도 지녀야 한다.

5) 정책제언 요약

지금까지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관련 제언 및 제안들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주지하다시피 2014년~2018년 동안 진행된 마지막 해 연구로서 핵심 연구의 내용은 지난 4년간 추진되었던 정책현황 및 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발전방안,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 방안과 지원·추진체계 고찰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대비 역량증진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역량개발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개발 및 이를 통한 역량증진 방안 추진배경과 추진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청소년 역량 증진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역량증진사업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제4차 및 5차에 이어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정책추진 및 중심과제로 선정된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실효적 역량증진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은 법·제도적 토대에서 실효적으로 구현 될 수 있고 제도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추진방안

- 현행 청소년정책 및 활동 관련 법률에 청소년 역량증진과 관련된 항목들 ex) 역량개발 그리고 전달체계를 포함한 총괄기구, 인력, 기능, 역할 및 예산지원 등을 명시하도록 법과 제도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 및 활동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역량중심 법·개정 및 제도화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법률개정안 초안 마련
- 다양한 유형의 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법제도 개정을 위한 공론화과정 및 의견수렴과정 추진

중앙 및 지자체 단위 청소년 사업 선정 및 추진 시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추진배경

- 청소년 정책으로 추진된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업 분석 결과 대인관계역량 영역의 사업내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예산의 집행현황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생애학습> 진로개발>생활관리>사회참여>대인관계). 대부분의 지자체 역량 관련 예산이 학습역량 강화 쪽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 추진방안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시 역량개발 및 지원현황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청소년들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는 분야가 우선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필요역량 증진을 지원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필요역량 증진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에 실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가 반영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가령 「청소년참여예산제도」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상호 공통되는 역량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역량개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역량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내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진행되는 배움터는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확대 되고 있음.
-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청소년역량 간 서로 상호 공통되는 역량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 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지원체계 구축.
 - 학교와 청소년 현장이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체계 정비
- 영역별 역량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와 청소년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현재 진행 중인 창의적 체험학습과 자유학기제 등과 연동하여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추진 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물적/인적 자원 교류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등
 - 역량증진 관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학교 및 청소년 시설을 사례 벤치마킹하여 이를 상호 적용하는 방안 모색
 -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증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 연수 및 교류 추진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정책영역 중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스스로 도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과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정책은 자기주도 강화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청소년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됨.

□ 추진방안

-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 메이커 활동 등을 중심으로 모형개발 및 시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영역 별 지원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과 연계하여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 시범시설로 지정된 청소년 시설 및 기관 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사업의 추진 시 제반 사안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구조 마련과 물적, 인적 자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방안 필요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개발, 세대 간 통합, 청소년권익보호 등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역량기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
- 자기 주도 역량 강화 기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도전·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하며,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구현 될 수 있음.

5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모색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에서 역량중심 활동지원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추진배경

- 21세기 핵심역량은 지식의 단계를 넘어 실제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앞서 언급한 자기 주도 역량 기반 청소년정책에 근거한 청소년활동은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증시하는 생활중심 청소년 활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활동지원을 통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추진방안

- 기존의 결과중심의 청소년활동 즉 지도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고 성과를 산출 것인가라는 성과주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나 기관, 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들의 개념을 자기주도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활동을 성과중심의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스토리(프로젝트) 기반의 과정중심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기관)와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PBL기반 학습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학교사례 벤치마킹 필요
- 구체적으로 STEM, MAKER 등 4차 산업대비 자기주도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수련시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시도 활동 진흥 센터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참여 다양화를 통한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역량 증진방안
청소년들의 삶과 연관된 문제에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통해 참여 및 권리역량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정책영역 중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강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한 참여활동과 권리증진 활동이 점점 제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모든 청소년들의 참여요구를 담아내기에 그 한계를 보이고 있음.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참여방식을 넘어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각화는 중요한 과제임.

□ 추진방안

- 제도에 근거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방식 이외에 지역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 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보급,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 지역사회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젝트 등
- 기존의 오프라인 참여 뿐 아니라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플랫폼체계 구축 및 운영
 -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등 참여 기구의 온라인 의견제안 및 토론 논의 구조마련
 - 이외의 청소년 참여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

7

청소년역량 증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성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고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정책과 일치하여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전문성강화가 필요함.

□ 추진배경

-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은 청소년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함
-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에 대한 지식수준 및 이해도 제고는 청소년 역량증진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과 시행 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

□ 추진방안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지도자 대상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 청소년시설 및 단체 내에서 청소년 역량증진 관련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 역량 중심의 청소년 지도인력 편제를 조직 내 인사 및 인력개발 등의 조직 전반에 확대운영
 -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연수, 보수교육 등을 적극 활용한 필요역량 개발 지원
-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 조성 기반 마련
 - 기관이나 시설 단위 혹은 지역단위 자율적 학습·연구 소모임 조직을 통한 현장 중심의 협력관계 구축
 -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역량증진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보수체계 구축과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도입 및 운영

8

청소년 역량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역량 증진방안 모색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자기주도 역량을 배양에 기여

□ 추진배경

- 자기주도 역량 기반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부터 운영, 평가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여를 통해 환류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창의성 제고는 융합적 사고를 배양에 도움
- 자기 주도 중심의 청소년 역량 기반 활동을 진단하는 틀로서 루브릭(Rubric) 시스템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은 청소년 활동현장에서 청소년 역량 개발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역량개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안

- 4차 산업 관련 역량기반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시 루브릭 평정 진단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단계 별 명세가 가능하도록 이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등에서 프로그램개발 시 루브릭 기반 평가시스템 동시 개발 추진 등
- 본 평가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 양성
 - PBL 기반 프로그램 실행 시 청소년들의 단계 별 수준을 고려해 코칭할 수 있는 역량증진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전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참여확대 및 활성화
- PBL기반 루브릭 평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벤치마킹

9	청소년 역량증진 전문조직(부서) 설립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
	청소년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을 담당하고 청소년 역량에 대한 사회 환경과 정책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관련 전담기구」 시설을 통한 역량강화

□ 추진배경

- 앞에서 논의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을 전담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

- 현재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체계의 분절적 지원을 통한 접근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추진방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조직 내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무부처 및 교육부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청소년활동 안전센터와 같이 ‘(가칭)청소년역량개발센터’를 신설하여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그리고 기능과 역할까지 법과 제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역량증진 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의 개발,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시도 활동진흥센터 및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성, 지역 연계사업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증진 방안마련 및 역량증진을 위한 지도자 연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등이 주요 업무영역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소경희, 김진화, 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08-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소, 김호동(2000).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직무수행 평가를 위한 행동기술척도 (BARS) 제작. **조사연구**, 1(2), 89-115.
- 김명소, 이광진(2008). 평가형식 및 척도화 방법이 다면평가에서 관대화 오류 및 후광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2), 201-224.
- 김문숙(2009). 독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혁과 시사점. **한국교육**, 36(4), 5-28.
- 김민정, 김봉환(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6), 2311-2325.
-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욱(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연구보고RR 2003-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대(2001). 청소년의 리더십 발달과 관련이론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8(2), 235-244.
- 김준호, 황지태(2002).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10(2), 81-100.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외(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연구보고 RR 2013-2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백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보고 14-R2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연구보고 15-R18-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이영민(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I: 교육 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연구보고 12-R16-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홍영란, 김미란, 김홍민(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사회참여역량 분석**(연구보고 18-R15-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간행물.
- 김현실(2008). 청소년기 폭력(공격행동) 관련이론 및 공격성 순화 프로그램. **청소년 행동연구**, 13, 1-15.
- 김희영, 양미경, 박수란(2015).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1), 407-440.
- 박기문, 이규녀(2016). 학교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의 BARS 기반 핵심역량 평가 도구 개발.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6(1), 196-217.
- 박동열, 최동선, 이용순(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기본연구 2008-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 황영아(2009). 전문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29-48.
- 박선경(2002). **청소년의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 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백순근(2000). **수행평가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 서미옥(2014). 군집분석에 의한 대학생의 학업지연. **청소년상담연구**, 22(1), 375-392.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임정훈(2012). **학습과학: 원리와 실천적 적용**.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성은모, 진성희, 김혜경(2016). 미래사회를 대비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45-458.
- 성은모, 채유정, 이성혜(2017). 영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역량 특성 탐색. **영재 교육연구**, 27(3), 299-329.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 13-R50)**.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성은모, 최효선(2016). 대학교육에서 성적 우수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역량 요인 탐색. **교육공학연구**, 32(2), 253-278.
- 송영민(2004). 청소년 여가제약요인(Leisure constraints)의 영향분석. **청소년학 연구**, 11(2), 419-436.
- 신민희(2012). 학습성과 수행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공학 교육연구**, 15(5), 1-11.
- 신호경, 이민석, 김흥국(2011). 모바일 사용행동에 대한 실증연구: 스마트폰 사용 중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8(3), 50-68.
- 오종은(2013).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 치료전공 박사학위논문.

-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 핵심 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C 2007-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 흥, 김은정(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I): 핵심 역량 영역별 하위요소 설정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C 2008-7-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호, 강주연(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 속성 및 새로운 청소년활동정책의 기초와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1-22.
- 이근호, 박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연구보고 RRC 2012-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 2003-15-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열(2017). **행동기술 평정척도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정순(2006). 청소년 리더십 기술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20, 151-174.
- 이주성(2005).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리와 감정표현 불능증의 매개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주호(2016).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교육개혁**(연구보고서 2016-01).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이화영(2018). **청소년 SNS 활동이 집단지성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 언, 정운경(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적성검사 개발(I)**(기본연구 00-2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종현, 유경훈, 김병찬(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4(2), 5-32.
- 장근영, 박수역(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1-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연구보고 16-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V: IEA ICCS 2016-총괄보고서**(연구보고 17-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연구보고 15-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2008). 진로상담: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정지원, 강정환(2012). 친밀한 친구집단의 크기와 청소년 비행. **한국사회학**, 46(5), 177-209.
- 조남익 (2009).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박사학위논문.
- 클라우스 슈밥, 기디언 로즈, 닐 거쉘펠드, JP 바쇠르, 제이크 켄들, 로저 부어하이즈 외 (2016). **4차 산업혁명의 충격: 과학기술 혁명이 물고올 기회와 위협**. 서울: 흐름출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NIA IV-RER-11050)**.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정규, 서민원, 최종근, 김민성, 양명희, 김재철 외(2016). **교육평가의 이해**. 서울: 학지사.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2), 277-313.

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 에서 2018년 12월 26일 인출.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ncic.kice.re.kr/nation.revise.board.view.do;jsessionid=7F3E19E0F54751F0D82E2CE67D4A2C00> 에서 2018년 12월 26일 인출.

최계영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2&controlNoSer=41&controlNo=13930&langdiv=1> 에서 2018년 12월 26일 인출.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0>. 진로 교육 대안 모색 기획-역량기반 교육의 의미와 발전과제. 2018년 9월 26일 인출. www.scaleofcooperation.com 에서 2018년 5월 20일 인출.

교육통계서비스 (2017).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Bellanca, J., & Brandt, R. (2010). *21st century skills*.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Press.

Boyd, B. L. (1991). *Analysis of 4-H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life skill development in Texas 4-H club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Texas A&M University.

- Brace, Kemp, Snelgar (2013). *SPSS for Psychologists*. New York by Psychology Press.
- Cocanougher, A. B., & Ivancevich, J. M. (1978). 'BARS' performance rating for sales force personnel. *Journal of Marketing*, 42(3), 87-9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ener, E., Lucas, R.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Snyder, C.R. & Lopez, S.J. (Ed.),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2nd) (pp. 463-4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eld, A. (2009).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3rd ed.). London, UK: Sage Publications Ltd.
- Gilbert, F., & Daffern, M. (2010). Integrating contemporary aggression theory with violent offender treatment: How thoroughly do interventions target violent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3), 167-180.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USA.
- Hurlock, E.B. (1955).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Javidmehr, M., & Ebrahimpour, M. (2015). Performance appraisal bias and errors: the influence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Leadership*, 4(3), 286-302.
- Jonston, C. S., Luciano, E. C., Maggiori, C., Ruch, W., & Rossier, J. (2013). Validation of the German version of career adapt abilities scale and its relation to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work str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295-304.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Cambridge Books.
- Leem, J. H., & Sung, E. M. (2018). Teachers' beliefs and technology acceptance concerning smart mobile devices for SMART education in South Korea.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9(3), 1-13.
- Linden, J.A. & Fertman, C.I. (1998). *Youth leadership: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Inc.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5). Skills for social progress: The power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Paris, France: Author.
- Osipow, S. H. (1987). *Career deci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 Piaget, J. (1963). *Origin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Y: Norton.
- Poulin, F., & Boivin, M. (2000).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Evidence of two-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2, 115-122.
- Rychen, D. & Sal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Agrusti, G., & Friedman, T. (2018). *Becoming Citizens in a Changing World: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International Report*.
-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 & Kerr, D. (200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IEA.
- Sullivan, H.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Jossey-Bass.
- Tolentino, L. R., Garcia, P. R. J. M., Restubog, S. L. D. , Bordia, P., & Tang, R. L. (2013). Validation of career adapt abilities scale and an examination of a model of career adaptation in the Philippin contex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410-418.
- Ttofi, M. M., Farrington, D. P., & Losel, F. (2012). School bullying as a predictor of violence later in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405-418.
- Turner, S. L., Trotter, M. J., Lapan, R. T., Czajka, K. A., Yang, P., & Brissett, A. E. A. (2006). Vocational skills and outcomes among Native American adolescents: A test of the integrative contextual model of career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3), 216-226.
- UNESCO (2018). *Building better policies: with and for youth*. UNESCO.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
- Zimmerman, B. J., & Schunk, D. H.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ABSTRACT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V: ICCS 2016

The future socie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emanding a different level of competencies. In response to these social change, educational efforts to promote the competency of young people to play a key role in future society have become important issues.

This is the five year of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V: IEA ICCS 2016". This year's research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indicators of Korean youth competencies through national wide survey and explained the outline of IEA ICCS 2016 finding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democratic competencies. 2018 Survey on youth competencies index consists of 2,866 elementary school students, 2,645 junior high school students, 3,536 high school students (total 9,047 people) and 1,030 college students, from the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 a population. For a total of 10,077 specimens. The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is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basic statistical analysis on the items of the youth competency index, it was found that the items of the life learning competency, the life management competency,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and the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were identified normalit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items was over 0.30. The overall reliability coefficient was over 0.70. Repeated measurements over four years from 2015 to 2018 indicated that the average score was consistently reported within $\pm .05$ error in mean score.

As a result of the demographic analysis of the Youth Competency Index, it was confirmed that the capacity of life management was the highest and that the social participation capacity was the lowest. In terms of gender, female was higher than mal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higher in life-learning competency, life-management competency,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terpersonal and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economic level, the higher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economic level, the higher the youth competency. By region, youth in metropolitan areas, such as metropolitan cities, showed higher levels of competency than those in small and medium - sized citie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havioral indicators of the 2018 Youth Competency Index, it was classified into school grade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university student) and the level of competency index was standardized as Z score instead of average score. As a result, 20 indicators of four school - level behavioral indicators according to five competency groups of youth competency indices were derived. Based on this index, three types of youth competency indices were derived.

The 2016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CCS 2016), gathered a total of more than 94,000 students from more than 3800 schools in 24 participating countries. The analysis found that in nearly half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ICCS 2009 and 2016, the level of the civic knowledge of youth was improved and the proportion of adopting gender equality and racial equalit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gap between the highest civic knowledge score and the lowest level of knowledge was not reduc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the efforts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but also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youth who has low achievement.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Ⅰ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Ⅸ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시과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대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Ⅰ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희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 (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 (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 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I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연구보고 18-R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14-8 94330
979-11-5654-213-1 (세트)



연구보고 18-R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214-8
ISBN 979-11-5654-213-1 (세트)